발 간 등 록 번 호
12-129879-223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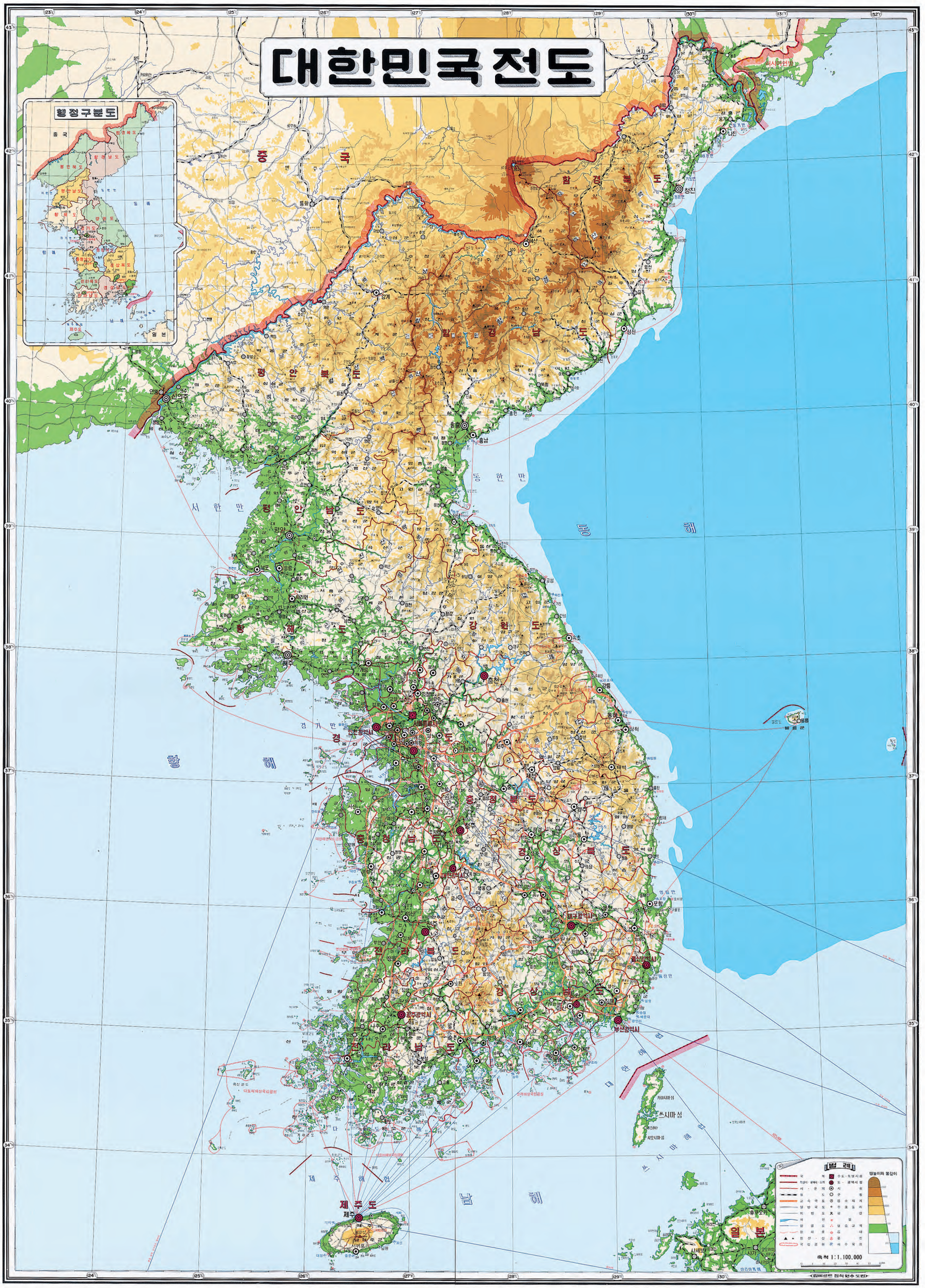
ISSN 1739-2708

6·25戰爭史 10

휴전회담 고착과 고지쟁탈전 격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대한민국전도
행정구분도
중국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일본
동해
황해
남해
동한만
서한만
경기만
대한해협
쓰시마해협
제주해협
서울
인천
청진
나진
성진
함흥
흥남
신의주
평양
남포
해주
춘천
강릉
동해
삼척
원주
청주
대전
전주
제주
포항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쓰시마섬
사세보
후쿠오카
사가
축척 1:1,100,000

6·25戰爭史 10

휴전회담 고착과 고지쟁탈전 격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6 · 25전쟁사 ⑩

■

휴전회담 고착과 고지쟁탈전 격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 문



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 지 62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6·25전쟁은 5천여 년에 걸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 가장 참혹했던 동족상잔의 비극으로서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역사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를 6·25전쟁 60주년기념사업 기간으로 설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한 수많은 참전용사들과 유엔 참전국에 감사를 표하고 이를 기억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군사편찬연구소에서 『6·25전쟁사 제10권』을 발간하게 되었으며, 이 책에는 1952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기간 중에 진행된 휴전회담 및 전초진지전투, 고지쟁탈전을 중심으로 후방지역에서의 공비토벌작전, 해·공군작전 등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6·25전쟁사에 대한 재조명사업은 세계냉전이 종식된 이후 6·25전쟁 당사국들의 새로운 비밀문서들이 속속 공개되는 시점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추진됨으로써 사실에 의한 객관적인 분석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며, 그 결과 6·25전쟁사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출간되는 『6·25전쟁사 제10권 : 휴전회담 고착과 고지쟁탈전 격화』를 통해 국민들이 6·25전쟁 시 우리의 자유 수호의지와 미국을

비롯한 유엔 우방국들의 지원, 그리고 국군의 용전분투상 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나아가 이 책이 국가안보와 국방정책수립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6·25전쟁 중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싸우다 산화하신 호국전몰장병과 무명용사들의 명복을 빌며, 내년 말까지 완간될 예정인 『6·25전쟁사』(전11권)이 그분들과 참전자 모두의 분전 상황을 더욱 진솔하게 담아낼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분석과 집필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군사편찬연구소장과 집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원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애써주신 백선엽 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한 군 원로 및 관련학자 여러분의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년 12월

국방부장관 김 관 진

발 간 사



금년은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한의 불법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동족상잔의 참혹함을 초래한 민족사적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여전히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울이다"라는 격언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한곳에 모으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새롭게 발굴된 사료를 반영하여 6·25전쟁사를 재조명하는 연구 편찬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열 번째 산물인 『6·25전쟁사 제10권 : 휴전회담 고착과 고지쟁탈전 격화』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10권』에는 195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전개된 유엔군과 공산군 측의 전쟁정책과 휴전회담 전략, 포로교환 협상과 세균전 설전, 전·후방지역에서의 고지쟁탈전과 해·공군작전 등 전쟁 및 군사작전 전반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집필진들은 이 책을 연구 편찬함에 있어 기존 연구성과의 토대 위에서 미국과 소련의 외교 및 군사자료를 비롯하여 2000년 이후 새롭게 공개된 중국 자료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기술 내용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6·25전쟁의 실체를 규명하고 기존 6·25

전쟁사를 새롭게 보완하여 재조명하려는 본 사업의 근본 취지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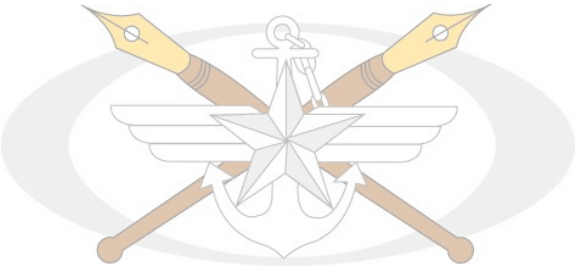
아무쪼록 이 책자가 우리 국민들이 6·25전쟁의 실상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국내·외 전쟁사 연구자들이 6·25전쟁사를 연구하는데 좋은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집필진 여러분과 인쇄를 맡아준 국군인쇄창 관계관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또한 원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견을 내어주신 백선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문위원과 감수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년 12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이 양 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러 두 기

1. 이 책의 장·절·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하였다.
   장 : 제1장, 제2장, 제3장, ……
   절 : 제1절, 제2절, 제3절, ……
   항 : 1, 2, 3, ……
   목 : 1), 2), 3)

2.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 인명·지명·숙어 등 해당 한자를 묶거나 해설, 보충한 경우의 표시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표시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일부분을 간추리거나 강조 표시
   『 』: 서명이나 신문매체를 표시

3.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랐다. 문장은 한글 위주로 가급적 평이하게 썼으며, 혼동할 우려가 있는 용어나 고유명사 등은 한자 또는 영어 등 원래의 단어를 ( ) 안에 표기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명의 경우 과거에 한자로 표기했던 지명들 중 널리 알려져 있는 지명은 한글로 바꾸어 표기했으나 잘 알려지지 않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지명은 한글로 표기한 후 ( ) 안에 한자를 병기했다.

4. 외국의 인명·지명 등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표기했다.
   (1)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외국어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가급적 해당국 언어의 발음에 가깝도록 한글로 표기하고 ( ) 안에 원어를 넣었다.
   (2) 각 장별로 처음 나오는 고유 명사는 ( ) 안에 원어를 병기했다.

5. 본문에 인용된 외국어 자료는 원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평이한 문체로 번역했다. 다만 그 의미상 불가피하게 그대로 사용해야 할 고유명사나 관용어 등은 그대로 사용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주기(註記)는 후주(後註)로 하여 각 장 끝부분에 수록했다. 본문의 내용 중에 추가 설명이나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후주에 수록했다.

7. 집필자는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명기했다.

8. 상황도는 주로 1950년대 1:5만 군사지도를 사용했다. 개요의 상황도는 개요 마지막 부분에, 본문의 상황도는 해당 부분에 각각 수록했다.

9. 북한군과 관련된 용어는 국방부의 '정신교육지침'과 대외 공식간행물인 『국방백서』의 수준에 준하여 전쟁사의 맥락에 맞도록 북한군, 인민군 등으로 적절하게 표현했다. 또한 전쟁 후에 달라진 북한지명은 과거의 지명을 표기하면서 ( ) 안에 현재의 지명을 명시했다.

10. 중국의 인명과 지명은 가급적 중국어 발음을 기준으로 표기했으며, 필요시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했다. 아울러 인용된 중국어 자료는 간자체와 번자체 모두를 번자체로 통일해 표기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목 차

▌서문

▌발간사

▌일러두기

제 1 장 총 개요 / 1

제 1 절 개 관 ····· 3
제 2 절 북한군 남침 이후 상황 요약 ····· 5
제 3 절 전쟁 상황과 양측의 전쟁지도 ····· 14
제 4 절 연구범위 및 수록내용 ····· 25

제 2 장 유엔군과 공산군의 전쟁지도 / 29

제 1 절 국내외 정세 ····· 31
제 2 절 전선 상황과 양측의 전력 증강 ····· 42
제 3 절 공산군의 전쟁지도 ····· 66
제 4 절 유엔군과 한국정부의 전쟁지도 ····· 72
제 5 절 분석 및 평가 ····· 100

제 3 장 휴전협상의 정체와 결렬 / 117

제 1 절 협상 개요 ····· 119
제 2 절 휴전 세부사항 협상 ····· 124
제 3 절 포로교환 협상 ····· 133
제 4 절 일괄타결 모색과 무기휴회 ····· 159
제 5 절 분석 및 평가 ····· 18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4 장 방어진지 보강과 치열한 전초진지전 / 199

제 1 절 작전 개요 ····· 201
제 2 절 방어진지 보강 ····· 207
제 3 절 치열한 전초진지 쟁탈전 ····· 218
제 4 절 후방지역작전 ····· 251
제 5 절 분석 및 평가 ····· 271

제 5 장 포로수용소 사건과 세균전 설전 / 279

제 1 절 사건 개요 ····· 281
제 2 절 북한의 공작과 포로 폭동 ····· 285
제 3 절 거제도 포로수용소장 피랍 ····· 299
제 4 절 세균전 설전 ····· 310
제 5 절 분석 및 평가 ····· 319

제 6 장 고지쟁탈전 격화 / 327

제 1 절 작전 개요 ····· 329
제 2 절 임진강-역곡천 부근 전투 ····· 363
제 3 절 철원-김화-금성천 부근 전투 ····· 394
제 4 절 북한강-소양강-남강 부근 전투 ····· 470
제 5 절 분석 및 평가 ····· 483

제 7 장 해군작전 / 497

제 1 절 작전 개요 ····· 499
제 2 절 유엔해군 작전 ····· 5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절 한국해군 작전 ····· 538
제 4 절 분석 및 평가 ····· 583

제 8 장 공군작전 / 595

제 1 절 작전 개요 ····· 597
제 2 절 공산공군 작전 ····· 606
제 3 절 유엔 및 한국공군 작전 ····· 640
제 4 절 분석 및 평가 ····· 689

제 9 장 총 평 / 699

제 1 절 전쟁지도 ····· 701
제 2 절 작전 및 전술 ····· 706
제 3 절 휴전회담 ····· 718
제 4 절 결 론 ····· 724

부 록 / 727

1. 영문약어 ····· 729
2. 연 표 ····· 731

▌참고문헌
▌찾아보기

〈표 목 차〉

〈표 1-1〉 양측의 전투력 비교(1952년 1월 초 기준) ····· 15
〈표 2-1〉 이북 피난민 도별 분포상황(1952년 1월) ····· 94
〈표 2-2〉 전국 피난민 현황(1952년 12월 31일) ····· 95
〈표 2-3〉 1952년도 피난민 구호상황 ····· 97
〈표 2-4〉 전쟁기간 부산시 초·중·고교와 학생 수 ····· 98
〈표 2-5〉 1952년도까지 유엔과 미국의 대한원조 ····· 99
〈표 3-1〉 의제 제3항에 대한 양측의 주장 ····· 125
〈표 3-2〉 비행장 복구문제에 대한 양측의 견해 ····· 131
〈표 3-3〉 공산군이 제시한 유엔군 포로내역 ····· 136
〈표 4-1〉 두매리 부근 전투 전과 및 손실 ····· 227
〈표 4-2〉 사천강 부근 전투 전과 및 손실 ····· 230
〈표 4-3〉 575고지 전투의 전과 및 손실 ····· 239
〈표 4-4〉 662고지 전투 전과 및 손실 ····· 244
〈표 4-5〉 호도 전투의 전과 및 손실 ····· 248
〈표 4-6〉 백야전전투사령부 전투서열 및 지휘관 ····· 252
〈표 6-1〉 중공군 전투서열 ····· 344
〈표 6-2〉 중공군 지휘부 편성 ····· 345
〈표 6-3〉 중공군 병단별 지휘부 편성 ····· 346
〈표 6-4〉 중공군 군(단)별 지휘부 편성 ····· 347
〈표 6-5〉 북한군 군단별 전투서열 ····· 349
〈표 6-6〉 북한군 주요 지휘관 ····· 351
〈표 6-7〉 북한군 군단별 주요 지휘관 ····· 351
〈표 6-8〉 유엔군사령부 전투서열 ····· 356
〈표 6-9〉 미 제1군단 전투서열 ····· 357
〈표 6-10〉 미 제9군단 전투서열 ····· 359
〈표 6-11〉 국군 제2군단 전투서열 ····· 360
〈표 6-12〉 미 제10군단 전투서열 ····· 361
〈표 6-13〉 국군 제1군단 전투서열 ····· 362
〈표 7-1〉 미 극동해군의 지휘체계(1950. 9. 12 ~ 전쟁 종료 시까지) ····· 512
〈표 7-2〉 '42작전' 함정 출동일수 ····· 539
〈표 7-3〉 남해봉쇄전대 함정 출동일수(1952년) ····· 543
〈표 7-4〉 전투결과 ····· 55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7-5〉 소해함정별 출동일수 통계표(1951. 7. 1 ~ 1953. 7. 30) ····· 558
〈표 7-6〉 지역별 기뢰 폭발 통계표(1951. 7. 1 ~ 1953. 7. 30) ····· 559
〈표 7-7〉 양도전투 전과/손실 현황 ····· 573
〈표 7-8〉 호도전투 전과/손실 현황 ····· 582
〈표 8-1〉 공군 주요부대 및 지휘관(1952. 12월 기준) ····· 605
〈표 8-2〉 1952년 10월 기준 북한공군 조직도 ····· 606
〈표 8-3〉 1952년 10월 기준 북한공군 전력 현황 ····· 608
〈표 8-4〉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 편성 ····· 611
〈표 8-5〉 1952년 제133전투비행사단 예하 제대별 비행활동 ····· 618
〈표 8-6〉 조중연합공군사령부 지휘관계 ····· 621
〈표 8-7〉 1952년 중국공군 참전 현황 ····· 622
〈표 8-8〉 1952년도 총 비행활동 ····· 645
〈표 8-9〉 1952년 주·야간 비행활동 ····· 646
〈표 8-10〉 1952년 항공기 형태별 비행활동 ····· 647
〈표 8-11〉 1952년 작전형태별 비행운영 ····· 647
〈표 8-12〉 1952년 극동공군 항공기 손실 현황 ····· 649
〈표 8-13〉 1952년 공대공 비행활동 및 공대공 전투 간 피·아 항공기 손실 ···· 650
〈표 8-14〉 1952년 제트격추영웅(Ace) 명단 ····· 654
〈표 8-15〉 1952년 항공차단 및 무장정찰작전 ····· 655
〈표 8-16〉 1952년 근접항공지원 비행 현황 ····· 666
〈표 8-17〉 1952년 공수비행 현황 ····· 669
〈표 8-18〉 한국공군 지휘체계(1952년 12월 말 기준) ····· 674
〈표 8-19〉 한국공군 연도별 항공기 보유현황 ····· 675
〈표 8-20〉 1952년 출격 중 전사 조종사 현황 ····· 676
〈표 8-21〉 1952년 100회 출격 조종사 현황 ····· 677
〈표 8-22〉 1952년 후방차단작전 실시 현황 ····· 67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목차〉

〈상황도 4-1〉 1952년 4월 전선 상황 ····· 205
〈상황도 4-2〉 두매리 전투 ····· 222
〈상황도 4-3〉 사천강 부근 전투 ····· 229
〈상황도 4-4〉 크리스마스고지 전투 ····· 233
〈상황도 4-5〉 575고지 전투 ····· 237
〈상황도 4-6〉 662고지 전투 ····· 242
〈상황도 4-7〉 호도 전투 ····· 246
〈상황도 4-8〉 공비토벌 제3기 지리산 지역 작전 ····· 258
〈상황도 4-9〉 공비토벌 제3기 백운산 지역 작전 ····· 259
〈상황도 4-10〉 제1사단 작전 완료 후 국내 공비 현황 ····· 269
〈상황도 5-1〉 거제도 포로수용소 배치도 ····· 290
〈상황도 6-1〉 1952년 후반기 전선 상황 ····· 335
〈상황도 6-2〉 벙커고지 전투 ····· 369
〈상황도 6-3〉 사천강 부근 전투 상황 ····· 374
〈상황도 6-4〉 사천강 36-58고지 전투 ····· 378
〈상황도 6-5〉 불모고지 부근 상황 ····· 381
〈상황도 6-6〉 고양대·임진강 부근 전투 ····· 387
〈상황도 6-7〉 백마고지 전황 ····· 399
〈상황도 6-8〉 백마고지 제1차 공방전 ····· 401
〈상황도 6-9〉 백마고지 제2차 공방전 ····· 404
〈상황도 6-10〉 제1차 백마고지 철수 상황 ····· 409
〈상황도 6-11〉 제5차 공방전 후 백마고지 상황 ····· 413
〈상황도 6-12〉 백마고지 제6차 공방전 ····· 415
〈상황도 6-13〉 제6차 공방전 후 백마고지 상황 ····· 419
〈상황도 6-14〉 제8차 공방전 후 백마고지 상황 ····· 422
〈상황도 6-15〉 백마고지 최후 공방전 ····· 424
〈상황도 6-16〉 삼각고지 및 저격능선 전투 ····· 435
〈상황도 6-17〉 금성천 부근의 주요 전투 ····· 447
〈상황도 6-18〉 지형능선과 수도고지의 피아 배치상황 ····· 455
〈상황도 6-19〉 1090고지 전투 ····· 472
〈상황도 6-20〉 812-854고지 전투 ····· 476
〈상황도 6-21〉 351고지 전투 ····· 4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7-1〉 덕동 전투 상황 ····· 551
〈상황도 7-2〉 창린도 탈환작전 ····· 554
〈상황도 7-3〉 원산항내 5개 도서 현황 ····· 56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장 총 개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절	개 관
제 2 절	북한군 남침 이후 상황 요약
제 3 절	전쟁 상황과 양측의 전쟁지도
제 4 절	연구범위 및 수록내용

제 1 절 개 관

6·25전쟁은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적화통일을 위하여 기습적으로 불법 남침한 전쟁이며, 유엔군과 공산군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에 합의하기까지 3년 1개월 2일간 전개되었던 전쟁이다. 이 전쟁은 한반도의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켰으며 종전이 아닌 정전 또는 휴전으로 전투행위가 중지된 상태로 마감되었다.

6·25전쟁은 전쟁이 발발한 후 최초 1년이 전선의 변화가 가장 심한 격동기이었고, 나머지 기간은 전선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교착기였다. 격동기 1년 간에는 공산군이 세 차례나 38도선을 넘나들었다. 그 첫 번째는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두 번째는 중공군이 평택-삼척선까지, 세 번째는 중공군이 서울 북방 구파발-강릉선까지 진출하였으나 매번 국군과 유엔군에게 격퇴되었다. 최초 북한군 남침 시에는 국군과 유엔군이 97일 만에 이들을 38도선 이북으로 구축하고 청천강 이북까지 진출하였으며, 두 번째 북한군과 중공군 남침 시에는 약 90일 만에 이들을 격퇴시키고 38도선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북한군과 중공군 남침 시에도 약 39일 만에 다시 이들을 38도선 이북으로 축출하여 전투개시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였다. 6·25전쟁 기간 중 공산군이 38도선 이남에서 머문 기간은 226일간이었고, 유엔군이 38도선 이북에서 머문 기간은 76일간이었다.

6·25전쟁은 북한이 동족에게 피해를 입힌 침공행위인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 5년도 되기 전에 발생한 대규모의 무력 충돌로서 한반도는 물론 세계사의 흐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6·25전쟁은 우선 남북한에 커다란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 3년 1개월 동안 계속된 전쟁기간에 국군과 유엔군의 인원손실은 77만 6천여 명이나 되었고, 북한 및 중공군의 인원피해도 2백만여 명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의 피해도 남한 100만여 명, 북한 150만여 명 등 250만여 명이나 발생하였다. 이 숫자는 그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합한 2,500만여 명의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다. 여기에다 개인의 가옥과 재산은 물론, 미미한 수준에 있었던 국가 기간산업시설과 공공시설마저도 송두리째 파괴되었으며, 이로 인한 재산 손실만도 320억 달러에 이르렀다. 또한 320만 명의 피난민과 30만 명의 전쟁미망인, 10만 명의 전쟁고아 등 사회적 기반을 뿌리 채 뒤흔드는 민족에게 온갖 고초와 고난을 안겨준 전쟁이었다. 그 결과 남북한 간의 사회, 문화적 이질화는 심화되었고 체제경쟁 속에 통일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이 전쟁은 세계사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동북아지역의 한반도에서 시작된 전쟁이 급기야 세계 6대주의 25개국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국제전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동서 양대 진영의 중심축을 구성한 초강대국들이 이 전쟁에 모두 참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6·25전쟁은 1950년대 동·서 냉전의 열전으로서 특히 한국은 막대한 인적, 물적, 심적 피해를 입었고, 미·소를 중심으로 하는 냉전체제에서 남북한 간에는 군비경쟁의 단초를 제공했다. 또한 핵의 위협 속에 치른 제한적, 국지전적 성격 때문에 양 진영이 핵 및 재래식 무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6·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세계공산화 책략의 일환으로 스탈린(I. V. Stalin)과 마오쩌둥(毛澤東)의 지원을 받아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으로 국지전이면서 국제전'이었다. 동시에 6·25전쟁은 북한의 침공으로 발발된 민족 자손행위이었지만 대한민국이 북한의 무력남침을 저지함으로써 공산주의 국가들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자유진영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과 유엔참전국들이 함께 공산주의의 침략을 저지한 '자유수호전쟁'이었고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도움을 받은 한국이 승리한 전쟁'이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제 2 절 북한군 남침 이후 상황 요약

1. 북한군의 기습남침과 서울 함락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 38도선 전역에서 기습남침을 시작했다. 그리고 250여 대의 T-34전차를 앞세운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국군의 방어선을 곳곳에서 돌파하였다.

다음날인 6월 26일 오후 13시경에 북한군은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를 함락시켰다. 육탄공격으로 맞서는 국군의 방어선을 연이어 무너뜨리고 북한군의 선두부대가 6월 28일 01시경 미아리고개를 넘어오자 수도 서울은 불과 3일 만에 북한군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았다.

미아리 방어선 후방에 북한군 전차가 출현했다는 보고에 채병덕 총참모장이 한강교 폭파를 명령하여 국군 공병부대가 그날 02시 30분에 한강교를 폭파하였다. 이 결과 한강 북쪽에 남아 있던 150만 서울시민들이 한강을 건너지 못한 채 북한군 치하에 놓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처 철수하지 못한 수많은 국군의 철수로가 차단됨으로써 국군의 전투력이 크게 약화되는 결과를 자초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국군 제6사단은 춘천지역에서 북한군 제2군단의 남진을 저지함으로써 그들이 수원으로 진출하여 서울의 후방을 차단하려는 북한군의 기도를 좌절시켰다. 또한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서울에서 지체하고 있는 사이 국군은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전선에서 삼삼오오로 철수해 오는 병력을 재편성하여 한강방어선을 구축함으로써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 동안 북한군의 한강도하를 저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국군 지휘부의 조치와 작전의 성과는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 회원국들이 지원군을 파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특히 미 지상군의 전선투입을 의미 있게 만들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유엔군의 참전과 지연전

유엔이 승인한 대한민국이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접한 미국정부의 조치는 신속했다.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과 미국정부는 지체없이 참전을 결정했다. 그리고 미국의 요청으로 6월 26일(뉴욕 현지시간 25일), 긴급 소집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38도선 북쪽으로 철수를 요구했다. 이어 28일(뉴욕 현지시간 27일), 유엔은 권고를 무시한 채 남침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군에 대해 군사적인 제재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7월 7일 유엔은 역사상 최초로 유엔군을 창설하였다. 유엔의 결정에 따라 미국 등 자유우방국들은 유엔의 기치(旗幟) 아래 지원군을 파병하였다. 초대 유엔군사령관에는 미국의 극동군사령관 맥아더(Douglas A. MacArthur) 원수가 임명되었다. 당시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맥아더 원수는 국군을 지휘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은 7월 14일, 맥아더 원수에게 서한을 보내 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다.

그 사이 일본 동경에 위치해 있던 미국 극동군사령부는 남진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24사단을 파병하였다. 그러나 전투 준비가 부족했던 미 제24사단은 오산·평택·천안전투에서 잇달아 패배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계속해서 금강과 소백산맥을 연하는 선으로 후퇴해 북한군을 저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 제24사단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의 전력과 그들의 측방기동, 후방침투 및 차단 전술에 밀려 금강방어선을 지키지 못하고 물러섰다. 이어서 7월 20일에는 중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대전을 북한군에게 빼앗기고 사단장마저 실종되는 어려운 국면에 처하였다.

북한군의 공세는 계속되었다. 미 제8군사령부는 극동군사령부 명에 의거 7월 24일 대구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이어서 제25사단, 제1기병사단 등을 잇달아 한반도에 전개시켰으나 북한군의 남진을 소백산맥을 연하는 방어선에서도 저지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확보하고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는 지연전을 펼치면서 유엔군의 증원으로 재편성에 의한 전열 재정비와 전투력 복원에 진력하였으나, 마침내 7월 말에는 방어에 유리한 낙동강을 연하는 지역까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3. 낙동강방어선 전투

낙동강방어선은 마산-남지-왜관-낙정리-영덕으로 이어지는 방어선과 동해, 남해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모양의 지역을 포괄하고 있었다.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대구 북서쪽 왜관으로부터 남쪽으로 낙동강을 따라 창녕-마산 진동리에 이르기까지 112km 구간을 담당하고, 왜관으로부터 북동쪽으로 낙정리-구미동-청송-영덕을 연하는 138km 구간을 국군이 담당했다. 이로써 국군과 유엔군은 6·25전쟁이 발발된 이후 처음으로 좌우가 연결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의 공세는 매서웠다. 유엔군이 담당하는 마산·왜관 일대와 국군이 담당하는 다부동·기계·포항 일대의 지역에서는 운명을 건 쌍방 간의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9월이 되면서 양측의 전투력 군형은 역전되기 시작했다. 미군을 주축으로 한 자유우방국의 지원 병력이 속속 도착하면서 유엔군의 전투력이 급속히 증강된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 국군의 전투력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었다. 반면 북한군은 가용한 거의 모든 전투력을 낙동강방어선 돌파에 투입했다. 그러나 북한군의 공세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었다. 전쟁 초기에 막강한 위용을 자랑했던 T-34전차도 겨우 100여 대가 남아 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던 유엔 공군의 끊임없는 후방차단으로 대부분의 보급을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해상보급도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는 유엔 해군에 의해 차단되었다.

그렇지만 전장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8월 말부터 시작된 북한군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집요한 공격에 의해 낙동강방어선 곳곳이 돌파되고 있었다. 특히 유엔군이 담당하고 있던 대구 북서쪽의 왜관·다부동 일대와 국군이 담당하고 있던 영천 일대의 상황은 심각했다. 북한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장군은 방어선을 마산-밀양-울산을 연하는 선으로 철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대기시키고 있던 미 제1해병여단까지 낙동강 전선에 투입할 정도로 상황은 급박했다. 객관적인 전투력으로 볼 때 국군과 유엔군보다 열세한 북한군이 9월 공세를 감행하여 국군과 유엔군을 곤혹스럽게 만든 셈이다.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에서 전개된 양측 간의 이처럼 치열한 공방전은 공세와 수세의 전세전환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었다.

4. 인천상륙작전과 38도선 회복

북한군은 1950년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국군과 유엔군을 낙동강 이남지역으로 몰아붙이며 최후의 공세를 계속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전황은 국군과 유엔군에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북한군은 유엔 해군과 공군의 후방차단으로 추가적인 증원과 보급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던 반면, 국군과 유엔군의 경우 미국 본토로부터 막대한 장비 및 물자와 함께 자유우방국들이 파병한 병력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전세를 결정적으로 역전시킬 반격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9월 15일을 기해 미 제10군단이 중심이 된 상륙부대를 인천에 상륙시켰다. 인천의 지형적 불리를 비롯한 많은 제한요인과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맥아더 원수의 상륙작전 성공에 대한 신념은 확고했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은 역사상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대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낙동강 일대에 투입된 북한군 13개 사단의 주력은 후방이 차단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낙동강방어선의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에 나서자 그 사이에 갇힌 북한군은 붕괴되었다. 남침 이후 국군과 유엔군을 계속 공격하여 후퇴를 강요했던 기세등등한 북한군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인천상륙작전에 이어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한 국군과 유엔군은 9월 말에는 38도선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반격을 시작한 지 불과 15일 만에 전선을 전쟁 이전의 상태로 회복함으로써 최초 유엔이 결의했던 전쟁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열망은 남과 북이 합쳐진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미국과 유엔 역시 북한군이 남침하기 이전부터 추구해 왔던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의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다.

5. 38도선 돌파와 북진

1950년 10월 1일, 동해안 지역의 국군이 38도선을 돌파한 후 북진을 시작했다. 이어 유엔의 북진결의에 따라 10월 9일, 서부지역의 유엔군도 38도선을 돌파했다.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은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모든 역량을 낙동강 일대에 투입했던 북한군은 그들의 주력이 붕괴된 후부터 실질적인 저항의지와 능력을 상실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작전은 10월 10일 원산을 점령하고,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그리고 남은 과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연하는 국경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10월 21일, 평양 북쪽 순천에 도달한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제2대대는 “이날 중으로 순천 북쪽 50㎞ 지점에 위치한 개천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수령했다. 명령을 접수한 대대장은 전 병력을 차량에 탑승시켜 전조등을 밝히고 개천으로 향했고 대대는 당일 중으로 개천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어 10월 26일에는 제6사단 제7연대가 초산 북쪽의 압록강까지 진출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동부전선에서도 미 제7사단이 혜산진에, 미 제1해병사단이 장진호 일대에

그리고 국군 제1군단도 해안선을 따라 청진 일원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0년 10월 25일 이후 중공군의 기습적인 제1·2차 공세가 감행됨에 따라 6·25전쟁은 전혀 새로운 전쟁으로 바뀌었다.

6.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

국군과 유엔군은 30만에 달하는 중공군의 출현으로 미처 방어태세를 갖출 겨를도 없이 철수하였다.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은 12월 4일 평양에서 철수하였고, 12월 중순에는 38도선 북방까지,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임진강-연천-춘천 북방-양양을 연하는 38도선 부근까지 철수하여 방어선을 형성하고 중공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은 중공군이 퇴로를 차단함에 따라 부득이 흥남으로 철수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24일 간에 부산으로 해상철수를 실시하였다. 당시 유엔군은 중공군의 공세가 강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38도선으로부터 낙동강선까지 수개의 방어선을 계획한 다음, 적절한 시기에 반격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청천강을 넘어 평양을 점령한 중공군 제13병단은 12월 하순 개성-철원 북방까지 진출하였다. 그리고 중공군 제9병단은 장진호-함흥 축선에서 미 제10군단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미 제1해병사단을 포위하였으나, 이 미군 사단과의 전투에서 50% 이상의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 재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대신 북한군 제3, 제5군단과 제2전선부대인 제2군단이 동부전선으로 남하하여 38도선 북방에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은 국군 8개 사단과 미군 2개 사단을 38도선 방어를 위하여 배치하고, 국군 2개 사단과 미군 5개 사단을 평택-원주-삼척선에서 운용하기 위하여 예비로 확보하였다.

1950년 12월 하순 38도선 북방에 전개를 완료한 공산군은 12월 31일을 기해 제3차 공세인 38도선 돌파작전을 개시하였고, 국군과 유엔군은 공산군에게 다시 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울을 내어주고 사전에 계획된 방어선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7. 중공군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1950년 12월 31일 공산군은 주공을 철원-의정부-서울 축선으로, 조공을 화천-춘천-원주 축선에 각각 투입하여, 38도선을 돌파하기 위한 공격작전, 즉 제3차 공세를 개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38도선을 방어 중이던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38도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1951년 1월 7일에는 37도선인 평택-삼척선으로 철수하여 새로운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한편 중공군은 남침을 계속하여 1월 7일에는 수원-여주-강릉선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였지만, 그동안에 입은 전력 손실로 인하여 더 이상 남진하지 못하고 방어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중공군의 공격역량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을 간파한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1월 25일을 기하여 일제히 공산군부대의 격멸에 작전의 주안을 두고 축차적이며 협조된 반격작전을 개시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이 한강 남안-횡성선에 이르렀을 때 중공군은 제4차 공세(1951. 2. 11~2. 18)를 통하여 유엔군의 반격을 무력화하려 했다. 이에 따라 공산군과 유엔군이 서로 맞부딪쳐 횡성(지평리), 원주 일대에서 한 차례의 공방전을 치렀으나, 국군과 유엔군은 공산군의 공세를 격파하고 진격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국군과 유엔군은 3월 15일을 기해, 1·4후퇴 이후 70일 만에 다시 서울을 탈환하였으며, 전진을 계속하여 3월 말에는 38도선을 또다시 회복하였다. 그리고 유엔군은 38도선 방어에 유리한 지역으로서 일명 캔자스선(LINE KANSAS)으로 불리는 임진강-영평천-화천저수지-양양을 연결하는 요지를 점령하였고, 캔자스선을 발판으로 중부지역에서는 와이오밍선(LINE WYOMING)으로 불리는 철원-금화로 다시 진격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공군이 다섯 번째 공세가 되는 춘계공세를 개시하였다. 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때 공산군은 6·25전쟁에 참전한 이후 최대 규모인 3개 병단 11개 군 35개 사단의 중공군과 북한군을 총동원하여 4월(4.22일~30일)에는 서부전선(개성-화천)에, 5월(5.16일~22일)에는 동부전선(양구-인제)에 각각 주공을 투입, 총공세를 취하였다. 그 결과 공산군의 일부 부대가 중동부 전선에서 하진부리 일대까지 진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군과 유엔군 역시 가용전력을 총동원하여 공산군의 공세에 대응하였고, 공산군의 공세는 유엔군의 압도적인 화력공세에 큰 손실을 입고 구파발-홍천-하진부리-강릉을 연하는 선에서 저지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공산군의 대규모 춘계공세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자, 반격작전을 개시하여 5월 말에 세 번째로 38도선을 회복하고, 6월 말에는 임진강 하구-연천-철원-김화-화천-간성 북방의 주요 지역을 점령한 다음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전쟁은 휴전협상 테이블에서의 설전과 휴전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교착된 전선에서의 고지쟁탈전, 진지전으로 바뀌었다.

8. 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이 개시된 이후 남과 북을 오르내리며 일진일퇴를 거듭한 격동의 1년이 지나고, 쌍방은 다시 38도선 부근의 새로운 전선에서 상호 대치하게 되었다. 이처럼 쌍방이 새로운 방어선에서 대치하게 된 이유는 양측이 더 이상 무력에 의해서는 전쟁을 종결할 수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중공군이 춘계공세에서 입은 치명적인 인명 손실로 인한 급격한 전력의 약화로 공격능력을 상실하였고, 미국 역시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유리한 상태에 있었으나 전쟁 이전의 상태에서 휴전을 모색한다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유엔과 미국의 휴전 제의를 무시하고 공세를 취하던 공산군이 1951년 6월 23일, 소련의 유엔대표를 통해 휴전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동년 7월 10일부터 휴전회담이 개시되었으며,

6·25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휴전회담이 개시될 때, 유엔군과 공산군 쌍방은 협상이 최종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한다는 전제하에 회담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휴전회담 기간 중의 군사작전은 휴전회담의 추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즉,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에는 전선이 소강상태였으나, 회담이 결렬 또는 지연될 경우에는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전투는 휴전회담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아 제한적 성격을 나타냈다.

먼저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소강상태를 유지하던 전선의 상황은 1951년 8월에 접어들면서 다시 격렬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개성에서는 양측의 대표가 겨우 휴전회담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의제 중 가장 중요한 군사분계선 설정과 비무장지대 설치에 관한 내용을 협의 중에 있었다. 이 협상에서 유엔군은 당시 쌍방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공산군은 38도선을 휴전선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 인해 회담은 답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공산군이 유엔 공군기들이 비무장지대를 폭격하였다고 날조하여 비방함으로써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휴전회담이 결렬되자, 유엔군은 휴전 당시의 접촉선을 휴전선으로 하는 안을 관철시키기로 하고, 휴전회담 개시 당시의 방어선을 개선할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공격작전을 단행하였다. 10월 말까지 계속된 이 공격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당시의 대치선에서 평균 10km를 전진하여, 서부전선에서는 판문점-역곡천까지, 중부전선에서는 금성 남방까지, 동부전선에서는 고성 남쪽까지 각각 전선을 밀어 올렸다. 이 전투는 약 3개월간에 걸쳐 10km의 종심지대 내에서 치러졌으며 좁은 공간 내에서 강도 높은 전투가 전개됨으로써 쌍방 간에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특히, 해안분지(펀치볼) 부근의 전투에서는 쌍방 간의 피해가 극심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절 전쟁 상황과 양측의 전쟁지도

1. 전쟁 상황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저지하고 재반격을 실시함으로써 새롭게 형성된 접촉선에서 대치하게 된 1951년 6월에, 유엔군과 공산군은 모두 이제 더 이상 무력에 의해서는 전쟁을 종결할 수 없고 협상에 의해 전쟁을 마무리 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개막되었고, 회담은 이후 중단과 휴회, 재개 등을 반복하면서 1953년 7월 27일까지 진행되었다. 휴전회담은 진행과정에서 유엔군 측 보도진 출입문제, 휴전회담장에 대한 중립협정위반사건, 공산군 측의 중립협정위반 날조사건, 휴전회담 장소의 이전(개성에서 판문점)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리고 이 기간 중 전쟁의 상황은 양측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휴전회담의 진전여부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면서 전개되었다.

1951년 7월 10일을 기해 휴전회담을 시작한 공산군과 유엔군 양측은 동년 11월 27일에 당시의 접촉선(임진강 하구-판문점-상명리-금성-송정-가마우골-신대리-남강)을 임시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는데 합의하고,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도 1개월 이내에 합의를 도출하면 임시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휴전을 하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양측이 선정한 5개항의 의제 중에서 제4항(전쟁포로에 관한 협상)을 둘러싸고 상호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회담은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그 결과 양측이 다른 의제에도 합의하기로 합의한 한 달 간의 유효기간을 넘김으로써 간신히 타결을 본 제2항마저도 다시 합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처럼 휴전회담이 시작되고 6개월이 경과한 1952년 초에도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이 휴전과 관련하여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조기 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을 기대하였던 미국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집과 트집 그리고 변덕을 견뎌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당초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이 강경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임시군사분계선 조항에 대한 유엔군의 양보는 그 후의 휴전협상에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다. 즉, '11월 27일 당시의 접촉선을 임시군사분계선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한 합의로 인하여 유엔군은 공산군에게 휴전조건을 수락하도록 군사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반면, 공산군은 30일이란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고 종심 깊은 방어진지를 구축하였으며, 장비와 병력 등 전투력 또한 날이 갈수록 증강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1952년 1월에 이르러서는 공산군이 유엔군과 대등하거나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투력을 갖추고 군사작전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표 1-1> 양측의 전투력 비교(1952년 1월 초 기준)

국군 및 유엔군	북한군 및 중공군
국군 : 10개 사단(29만 5,000명)	북한군 : 27개 사단(22만 5,000명)
미군 : 7개 사단(25만 2,000명) 기타 유엔군 : 3만 4,000명	중공군 : 56개 사단(57만 명)
합계 : 58만 1,000명	합계 : 79만 5,000명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후 전선에서의 지상 작전은 1952년 1월 초부터 5월까지는 대체로 소규모의 전투만이 전개되는 가운데 소강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판문점에서는 휴전회담의 휴회와 재개가 반복되는 가운데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즉, 포로처리에 관한 문제를 제외한 그 밖의 조항에 대해서는 양측이 간신히 타결점을 마련해가고 있었다.

이렇듯 휴전회담의 진전에 따라 지상군의 작전이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유엔공군은 군사적 목표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미 극동공군사령

부는 지속적인 공중공격으로 북한 내의 주요 시설과 병력 집결지를 강타하는 한편, 주요 표적에 대하여는 매일 폭격을 가함으로써 공산군에게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도록 한다는 작전개념인 '항공압박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작전개념에 따라 평양시내, 수력발전소(수풍, 장진, 허천 발전소 등), 저수지 및 기타 주요 표적을 폭격하면서 공산군에게 막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 무렵부터 공산군의 전력이 급격하게 증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공산군의 포병화력이 갑자기 증강되어 이전의 일일 평균 낙탄 수 2,300여 발이 6월 하순에는 약 7,000발로 집계됨으로써 불과 2개월 사이에 3배로 증가되었고, 중공군의 병력 또한 57만 명에서 86만 6,000명(72개 사단)으로 대폭 증강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은 현재의 접촉선을 유지하는데 보다 유리한 전방의 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이 철원 북서쪽의 전술적 요지를 공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전선에서 전초진지 쟁탈전을 다시 전개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년 10월부터는 휴전회담이 포로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결렬상태에 돌입함에 따라 유엔군이 북한지역에 대규모 전략폭격을 가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공산군이 대규모 지상 작전으로 보복을 가하게 됨에 따라 양측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이로 인해 불모고지, 고양대, 백마고지, 845고지, 저격능선, 삼각고지, 수도고지, 251고지 등에서는 쌍방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혈전을 치렀다. 그 결과 고지의 주인이 수없이 뒤바뀌는 격전이 쉴 새 없이 전개되기는 하였으나, 쌍방 간의 접촉선이 크게 변경되지는 않았다.

이 기간 중의 휴전회담은 공산군이 전력증강을 위한 휴회기간이 필요할 때마다 포로처리 문제를 두고 고의적인 트집과 핑계로 회담을 지연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회담의 성과가 지지부진하여 명목상으로만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공산군이 모든 공산군 포로의 강제 송환을 지속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결국 1952년 10월 초에 휴전회담은 무기한 휴회에 들어가게 되었다.

공산군과 유엔군 간의 휴전회담 타결을 어렵게 만든 포로처리문제는 6·25전쟁의 이념적 총력전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었는데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엔군은 그동안 전후방에서 획득한 공산군 포로들을 거제도에 집단 수용하고 있었으며, 수용소 내에서는 친공포로와 반공포로들 간에 유혈 충돌이 자주 일어났으나, 포로수용소장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공포로 중 5,500명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1952년 1월 11일 반공청년동맹을 결성하고 국회에 강제송환을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포로수용소에 수용중인 17여만 명의 포로 및 억류민간인 중 약 7만 명의 친공 포로만이 송환을 원하고 나머지 10만 명은 송환을 완강히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유엔군은 포로들을 친공과 반공으로 분리하여 수용함으로써 이들 간의 격돌을 방지하였다.

이러던 중 동년 5월 7일, 거제도 포로수용소장이 제76수용소 포로들에 의해 감금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유엔군은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전면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하여 전국의 22개소에 포로수용소를 신축하고 송환거부포로와 친공포로를 재분류하여 수용하는 한편, 민간인 억류자들을 영천수용소로 옮긴 후 이중에서 2만 7,000명을 6월 29일부터 석방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송환거부 포로 문제는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정치적·이념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산군은 포로수용소에서의 충돌사건에 대해서는 유엔군이 공산포로를 강제 억류시키려는 것에서 야기된 사건이며 유엔군의 잔학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비난하면서 17여만 명에 달하는 공산군 포로의 전면송환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엔군은 어떠한 포로도 공산 치하로 강제 송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본인들의 희망에 따른 자유송환을 주장함으로써 이 문제가 휴전회담 타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후 양측은 영국 및 인도를 중재국으로 한 간접적인 의사 타진과 함께 소련 주재 미국 대사인 케난(Kennan)과 소련 당국 간의 직접적인 접촉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포로처리와 관련한 양측 간 판문점에서의 협상은 공산군이 유엔군이 제시한 일괄타결안을 거부함으로써 공전을 되풀이 하게 되었다.

한편 1952년도에 이루어진 국군과 유엔군의 부대구조 개편 및 지휘관의 주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교체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4월 5일을 기해 1951년 1월에 해체되었던 국군 제2군단사령부가 재창설되어 금성지구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5월 12일에는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대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 사령관으로 전임되고 클라크(Mark W. Clark) 대장이 그 후임으로 임명되었으며, 7월 23일에는 백선엽 중장이 이종찬 장군의 후임으로 국군 총참모장에 취임하였다.

2. 공산군의 전쟁지도 및 군사작전

휴전회담이 1951년 7월 10일 개막된 이후 공산군이 채택한 전쟁목표는 '휴전을 하되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휴전회담에서의 유리한 여건 조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 및 전략목표는 소련의 스탈린(I. V. Stalin)과 북한의 김일성,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용되었다.

공산군이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군사전략은 적극적 방어를 통한 지구전과 그동안에 전개된 공세에서 입은 전력 손실 회복을 통한 공세역량 만회, 전선지역의 방어진지 요새화, 그리고 그들의 열세한 공군력과 화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전략적 의도 아래 공산군은 휴전회담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자 전력증강을 실시하고 작전을 수행하려 했다.

이와 같은 공산군의 전략적 의도는 마오쩌둥이 1951년 6월 중순에 "지구작전(持久作戰)과 평화회담을 통하여 전쟁을 마무리 짓는다"는 전쟁지도 방침을 결정하면서 이를 수행할 군사전략으로 지구작전과 적극방어를 강조하였던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오쩌둥은 "조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한편으로는 적극방어의 수단으로 적군[유엔군]의 유생역량을 대량 살상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장비개선과 훈련의 강화로 끊임없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신의 능력을 증대시켜 점차 적군과 아군의 전력대비(戰力對比)를 바꾸어 최종적으로는 승리하거나 또는 적군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알고 물러나게 한다"는 전쟁지도 방침을 택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중공군은 처음부터 휴전회담의 조기 타결에 뜻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숨은 의도는 휴전회담을 지연시키면서 춘계공세에서 입은 전력손실을 신속히 보충하고 나아가 공세역량을 축적하여 군사적 우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공산군은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면 이를 토대로 군사적 대공세를 취하거나, 휴전회담장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도 공산군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휴전회담에서의 부분적인 합의 및 결렬을 유도함으로써 1952년 6월 말까지 유엔군과 대등한 수준으로 전투력을 회복하고 전방의 진지를 요새화한 다음 유엔군과의 전초진지 확보를 위한 치열한 공방전에 임하였다. 이때 공산군의 군사작전은 당면한 유엔군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휴전협상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공산군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상의 전선상황은 1952년 1월 이후 5월까지는 대체로 소강상태가 유지되다가 6월에 접어들면서부터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동년 10월에 접어들어 판문점의 휴전회담이 포로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결렬상태에 돌입하자 유엔군이 북한지역의 전력시설인 수풍발전소와 부전·장진발전소 등에 대하여 대규모 전략폭격을 가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공산군이 대규모 지상 작전으로 보복을 가하게 됨에 따라 양측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이때 공산군은 중부전선에 위치한 주요 전략요충을 점령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의 주저항선을 돌파하는 동시에 차후 예상되는 대공세에 대비하여 유리한 신진지를 구축하려는 기도를 갖고 있었다. 그 결과 공산군의 공격방향은 전선이 비교적 북으로 돌출된 중부전선 상의 수도고지와 지형능선, 백마고지, 그리고 저격능선 등에 집중되고 있었으며, 특히 저격능선에는 4개 사단 병력으로 공격을 실시하여 철의 삼각지대 상에 구축된 유엔군의 주저항선을 돌파하려고 시도하였다.

아울러 공산군은 유엔군 포로들을 평양과 압록강을 비롯한 주요 전략시설 및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지역 주변에 수용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해 유엔군이 폭격을 자제하도록 하였다. 공산군은 또한 압록강상의 수풍댐에 대해서는 이 시설이 위치상으로 한·만 국경선에 설치되어 있고, 발전소 자체가 북한과 중공의 공동 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유엔군이 이 목표를 폭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한편 공산군은 휴전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유엔군이 세균전을 실시하였다고 날조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아울러 포로교환과 관련해서는 양측 간의 전면교환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공산군 포로들로 하여금 유엔군의 포로정책에 대해 전면 반대하거나 폭동을 일으키도록 지도하였고, 그 일환으로 포로수용소에서 포로수용소 소장인 돗드(Francis T. Dodd) 준장을 납치하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기간 중 공산군 측의 군사작전은 조·중연합사령부의 지휘통제하에 이루어졌고, 휴전회담은 스탈린의 지시를 받아 마오쩌둥이 공산군 측 휴전회담 대표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북한 정권의 입장 및 영향력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3. 유엔군의 전쟁지도 및 군사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휴전회담이 시작된 이후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된 유엔 및 미국의 전쟁목표는 '명예로운 휴전'이었다. 미국은 이러한 전쟁목표를 추진하는데 있어 유엔의 수락과 유엔 기구를 통해 당면 현안을 해결한다는 방침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미국이 수립한 휴전조건은 첫째, 휴전협정으로 적대행위를 종결한다. 둘째,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수립한다. 셋째, 한국에서 외국군을 단계별로 철수하게 한다. 넷째, 북한의 새로운 침략을 저지하거나 격퇴할 수 있도록 국군의 건설을 허용한다는 것 등이었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가 소련과의 전면전으로 이어지거나, 동맹

국의 지원을 얻지 못한 채 한반도를 벗어나 중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침략자에 대한 징벌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휴전회담에서의 토의 주제는 한국과 한국 내의 군사문제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어떤 정치적·영토적 문제(중국의 유엔가입, 대만문제 등)와 관련되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이 휴전회담 개막을 전후하여 워싱턴으로부터 하달받은 전략지시도 한반도에서 통일된 민주독립국가의 수립을 정치적으로 계속 추구하되, 한국전쟁의 종결은 유엔을 통한 휴전협정으로 종결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휴전선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38도선까지 미칠 수 있도록 그 북쪽에 설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침략자에 대한 응징은 계속 가한다는 것이었다. 즉, 휴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대한민국이 통치하게 될 38도선 이남 지역을 반드시 확보하라는 것이었다. 아울러 이 지시에는 휴전 이후를 고려하여 북한군의 침략에 맞설 국군 건설을 지시하는 내용과 함께 특히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전쟁은 계속하되 휴전회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캔자스-와이오밍선 이북으로의 북진은 제한하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었다.

휴전으로 전쟁을 마무리하려는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유엔군사령부는 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전략지시를 받아 회담을 진행시키고 군사작전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휴전회담 기간 중 유엔군의 군사작전 목표도 휴전회담의 타결을 지원하고 유엔군의 방어선을 개선하며 공산군의 공세역량을 저지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그 결과 유엔군은 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채택한 제한전쟁 전략에 따라 군사작전의 범위와 규모에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한국전선에서 유엔군의 지상 작전 임무를 총괄하고 있는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장군도 이러한 제한된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그도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이처럼 유엔군의 지상에서의 대규모 공격작전이 휴전회담 때문에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은 캔자스-와이오밍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작전목표에 대한 공격작전만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유엔군의 작전이 제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된 범위 내에서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전선에 걸친 전초진지 쟁탈전과 중부전선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한 쌍방 간의 공방전은 매우 치열하였고 양측 모두에게 심대한 병력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유엔군은 지상 작전이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도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에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적 압력뿐'이라는 판단 하에 상대적으로 아군의 피해가 적게 발생하는 공중공격을 집중 감행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유엔 공군기에 의한 북한지역 수력발전시설에 대한 실제 폭격은 1952년 6월 23일에 시작되었다. 이 두 지역에 대한 유엔군의 대대적인 공격 결정은 군사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공산군이 휴전회담을 지연시키거나 폐기할 경우 어떤 목표도 유엔군의 공격목표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한편 미 합동참모본부는 1952년 1월 하순, 국군의 전투능력 향상에 관한 유엔군사령부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군 장병들이 적절한 훈련과 지도를 거치면 능히 독자적으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10개 사단을 추가로 증설하는 문제는 한국의 경제사정이 병력증강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었으며, 미국 또한 재정 및 군비면의 여력이 없으므로, 나토군 유지와 일본 방위군 증강을 원조하는 일이 일단락되기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내다보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그럼에도 국군의 화력 증강 대책은 꾸준히 진행되었다. 3월부터는 국군 10개 사단이 미군 사단과 동일하게 105밀리 곡사포 3개 대대와 155밀리 곡사포 1개 대대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4월에는 근무 및 지원부대가 편성되었다.

국군 증강은 클라크 대장이 부임함으로써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대장은 국군 10개 사단의 추가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전임 리지웨이 장군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던 반면 클라크 대장은 이를 지지하였던 것이다.

한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가 1952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미국 및 유엔군 측의 6·25전

쟁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정치적 행보였다. 먼저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후보는 1952년 10월 하순에 실시한 정책 연설을 통해 그가 당선된다면 국군의 증강을 촉구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그 결과 11월에 그가 당선되자 국군의 증강문제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의 대통령 당선은 미국이 기존의 제한전쟁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선거기간 중에 "본인이 한국에 가서 전선을 살펴보고 한국전쟁을 조속히, 그리고 명예로운 방법으로 종결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었으며, 실제로 12월에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정체상태에 빠져든 휴전회담의 돌파구를 모색할 의도하에 평양-원산선으로 진격할 작전계획을 세우고 이를 아이젠하워에게 건의하였으나 당선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신임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역시 6·25전쟁에 관한 한 트루먼 행정부가 추구하던 현 접촉선에서 휴전협정을 성립시킨다는 기존의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전쟁목표와 그에 따른 휴전회담 전략은 한국의 장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었으나, 전쟁당사국인 한국정부는 휴전문제에 대한 정책결정 및 협의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이로 인해 휴전회담은 한국정부 및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고 유엔과 미국은 한국정부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와 관련하여 휴전회담이 개시된 이래 일관되게 지속된 한국정부와 국민의 휴전반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휴전반대운동은 소련이 휴전을 제의하기 10여 일 전에 시작되었다. 즉, 미국이 한국전쟁에 대한 새 정책을 채택하고 휴전협상을 모색하게 된 사실이 보도된 얼마 뒤인 1951년 6월 10일, 당시의 임시 수도 부산에서 수만 명의 군중이 휴전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이 그 효시였다.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6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통일과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어떠한 조건의 휴전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 한국 국민의 휴전반대 운동은 휴전회담이 정체상태로 빠져들게 되면 잠잠해지고, 회담이 재개되면 국민들의 궐기대회와 정부

및 국회의 휴전반대 성명 발표가 계속되는 범국민적인 규모로 확대되곤 하였다.

한국이 휴전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토통일에 대한 가망이 거의 없어져 버린 데 대한 울분과, 휴전이 성립된 이후 제2의 6·25전쟁이 재발할 경우 이에 대처할 미국의 보장을 받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불안감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유엔군사령부가 추진 중인 군사력의 증강만으로는 미흡하므로 미국이 한국의 장래와 발전을 위한 보다 확실한 보증을 해주도록 희망하게 되었으며, 황폐해진 국토를 어떻게 재건하느냐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휴전회담의 추진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된 한국정부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 하에서도 범국민적인 휴전반대와 국군의 단독북진 주장, 이승만 대통령이 단행한 반공포로 석방 등을 통해 국군의 증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비롯한 미국의 양보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4 절 연구범위 및 수록내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지난 1971년에 시작하여 1980년까지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한국전쟁사』 전 11권과 1995년에서 1997년 사이에 국방군사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전쟁』(상·중·하)을 기초로 공산권 붕괴 이후 새롭게 밝혀진 중국 및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의 자료와 추가로 비밀 해제된 미국 자료 등을 활용하여 6·25전쟁을 재조명하는 '6·25전쟁사 전 11권 연구편찬사업'을 지난 2003년에 시작하여 2013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발간된 『6·25전쟁사 제10권 : 휴전회담 고착과 고지쟁탈전 격화』에는 195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유엔군과 공산군의 전쟁정책과 전략, 휴전회담 진행상황, 고지쟁탈전을 비롯한 군사작전 상황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각 장별 수록 내용과 참고자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 "유엔군과 공산군의 전쟁지도"는 먼저 국내외 정세와 전황을 분석한 다음, 이를 토대로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이 휴전회담에서 설전을 전개하는 상황, 일괄타결안의 모색, 장기간의 휴회 등의 회담 진행상황과 유엔군 내부와 한·미 정부의 휴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수록했다. 그리고 공산군의 휴전협상 전략과 작전방침, 휴전정책을 둘러싼 북한과 중국, 소련 간의 이견, 남북통일 추구와 휴전반대 등을 주장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분석해 수록했다. 주요 내용 중 유엔군과 한국의 휴전협상 전략 및 정책에 관해서는 국방부의 『한국전란 2년지』(1953), 『한국전란 3년지』(1954) 및 미국의 외교문서(FRUS)와 국가안전보장회(NSC) 자료 등을 활용하여 새롭게 기술하였고, 공산군의 전쟁지도 및 휴전협상 전략과 관련된 내용은 구소련의 『한국전쟁 관련 비밀외교문서』와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그리고 중국의 공간사인 『抗美援朝戰爭史』, 『毛澤東軍事文選』 등의 자료를 토대로 새롭게 기술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3장 "휴전협상의 정체와 결렬"은 휴전세부사항의 협상, 포로교환 협상, 일괄타결 모색 등 휴전과 관련한 양측의 공방과 주장,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고, 특히 휴전회담에서 난항을 겪은 포로교환 문제를 둘러싼 설전과 장기간의 휴회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수록했다. 관련 자료로는 기존의 『한국전쟁사』 제8권(1975)과 『한국전쟁 휴전사』(1989)를 기초로 최근 공개된 유엔군사령부, 미 제8군사령부의 작전보고서 등을 비롯한 미국자료, 구소련의 외교정책과 관련된 『한국전쟁 관련 비밀외교문서』 및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그리고 중국 측 자료인 『抗美援朝戰爭史』, 『彭德懷自述』, 『毛澤東軍事文選』 등을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제4장 "방어진지 보강과 치열한 전초진지전"은 기존의 『한국전쟁사』 제7권(1974)과 『한국전쟁사』 제8권(1975)을 기초로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종합해 수록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중국 측 자료를 참고해 공산군과 유엔군의 부대 편성과 지휘관 인적사항을 추가했으며, 정찰전 및 전초진지 전투와 함께 후방지역작전 등의 상황을 새롭게 보완하였다. 아울러 양측의 방어진지 강화 및 참호화 등의 내용은 유엔군사령부 및 미 제8군사령부의 작전보고서(Operation Reports),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및 「소련군 총참모부의 전투일지」 그리고 중국의 『抗美援朝戰爭史』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후방지역작전에 관해서는 기존의 『후방지역전사』와 주한 미 군사고문단(KMAG)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전계획 및 전투경과, 전투결과 등에 관해 새롭게 정리하였다.

제5장 "포로수용소 사건과 세균전 설전"은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발생한 돗드(Francis T. Dodd) 준장 납치사건의 발생배경과 과정, 결과 등을 분석 정리하였다. 그리고 유엔군측이 만주와 북한지역에 대해 세균전을 감행했다는 공산군측 선전공세의 목적과 그것의 사실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참고자료로는 국방군사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전쟁』 하권(1997) 제3장의 "포로수용소 사건과 세균전에 대한 설전"과 육군본부의 『한국전쟁과 반공포로』(2002)를 기초로 미 제2군수사령부 문서, 미 합동참모본부 문서, 유엔군사령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부 지휘보고서, 포로수용소 사건 관련 미 청문회 문서, 세균전 관련 국제적십자사 보고서와 각국의 언론 보도 내용 등을 활용하였다.

제6장 "고지쟁탈전 격화"는 기존의 『한국전쟁사』 제8권(1975) 제52장 "동부전선의 전황", 제53장 "중부전선의 전황", 제54장 "서부전선의 전황", 그리고 국방군사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전쟁』 하권(1997) 제4장 "휴전협상의 결렬과 군사작전의 재개"를 기초로 미 제8군사령부와 예하 군단 및 사단의 작전보고서, 육군본부의 전투상보와 주한 미 군사고문단(KMAG)의 작전보고서, 그리고 구 소련의 『한국전쟁 관련 비밀외교문서』와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중국 측 자료인 『抗美援朝戰爭史』 등을 활용하여 1952년에 전개된 공산군측의 추계공세와 유엔군측의 전초진지 확보를 위한 축선별 작전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했다.

제7장 "해군작전"은 해당기간 중에 진행된 유엔해군 작전과 한국해군 단독작전을 총망라하여 심층적으로 연구, 수록하였다. 유엔해군 작전은 수풍댐 폭파작전, 평양 공습작전, 신덕광산과 길주에 대한 공습작전, 아오지 정유공장 폭파작전, 고원 공습작전, 고저 상륙양동작전 및 소해작전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한국해군 단독작전으로는 동·서·남해안 경비작전, PT편대 기습작전, JMS-301의 덕동전투/해주만 전투, PC-702함의 창린도 탈환작전 및 황토도/양도/호도 전투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의 한국전쟁사 제7권(1974) 제49장 "동계작전" 및 제8권(1975) 제55장 "해군의 활동"을 기초로 새롭게 발굴된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특히 미 공간사인 『The Sea War in Korea』,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 Korea』,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과 미 해군 군사사 사령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1차 자료, 그리고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등 구소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주요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

제8장 "공군작전"에서는 해당 작전기간 중에 이루어진 공산공군(소련, 중국, 북한 공군)과 유엔 및 한국공군의 작전활동에 대해 상호 균형적인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먼저 중국과 소련공군의 작전활동에 대해서는 『라주바예프보고서』, 『제64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행군단 활동보고서』,『當代中國空軍』,『抗美援助戰爭史』,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보관 중인『6·25전쟁, 문서와 자료, 1950년~53년』, 재미 중국계 학자인 Xiaoming Zhang의『Red Wings over The Yalu』등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자료가 제한된 북한공군의 활동에 대해서는 1996년에 발간된 귀순 조종사 노금석 대위의 회고록인『A MiG-15 to Freedom』을 주로 활용하였다. 한편 유엔공군의 활동은 미 공군역사연구소(Air Force Historical Research Agency)에서 보관하고 있는 한국전 통계자료와 중앙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당시 미 공군본부의 '일일 정보상황 보고서'(Summary of The Situation in Korea) 등을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한국공군의 활동에 대해서는『한국전쟁사』제8권(1975) 제56장 "공군작전" 등의 기존 자료와 함께 2011년에 새롭게 출간된『공군사 : 공군의 창군과 6·25전쟁』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제9장 "총평"에는 제2장~제8장에 수록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다음 분석 및 평가결과 도출된 교훈적인 요소를 정리하여 수록했다.

(집필 : 김상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2 장 유엔군과 공산군의 전쟁지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절	국내외 정세
제 2 절	전선 상황과 양측의 전력 증강
제 3 절	공산군의 전쟁지도
제 4 절	유엔군과 한국정부의 전쟁지도
제 5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국내외 정세

1. 국제 정세의 추이

1952년 국내외 정세는 역시 한반도가 세계 언론의 주요 뉴스의 대상이 되었고, 한·미 양국에서는 모두 대통령 선거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이었다. 이 해는 서방측의 대소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이 계속된 가운데 한편으로는 평화공존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하였는데, 그 주요 원인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유럽 방위군의 탄생, 그리고 소련의 제19차 공산당 대회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1)]

1952년 5월 26일 서독의 본(Bonn)에서 유럽방위공동체의 구성을 전제로 미·영·불·서독 사이에 대서독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는 그 전해 9월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체결된 대일 강화조약에 비견될 만한 것이었다. 이어 동년 5월 27일에는 미·영·불 3국의 주도하에 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서독 등 6개국이 참가한 유럽 공동방위조약이 파리에서 체결됨으로써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NATO)군과 순망치한의 관계를 지닌 43개 사단에 총병력 125만 명 규모의 '유럽방위군'이 창설되었다.

유럽방위군의 창설 목적은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나 서독과 같이 가입할 수 없는 국가를 보호한다"는 것이었으나[2)],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당시 나토군이 총 30개 사단인데 비하여, 이에 대치한 소련군만도 70개 사단에 달하며 그 위성국 군대가 40개 사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군사력의 열세를 절감한 서방측이 쌍방의 세력 균형을 기하려는 것이었다.

유럽방위군의 구성에는 서독군의 역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창설의 계획단계에서 프랑스 등 일부 국가가 독일군대의 재등장을 경계한다는 관점에서 서독군의 참가에 대해 반대하였지만, 서방국가들을 반공으로 결속한다는 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와 유럽방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상호 합의를 이루어내었다. 서방국가들은 대소 유럽방어에 대한 역할의 일부를 서독에게 맡기게 되었으며, 이로써 공산세력에 대결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52년 7월 11일 공화당의 대통령후보지명대회에서 전 나토군 사령관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원수를 대통령후보로, 그리고 닉슨(Richard M. Nicxon) 상원의원을 부통령후보로 각각 지명하였는데, 민주당은 일리노이주 지사 스티븐슨(Adeai E. Stevenson)을 대통령후보로, 스파이크맨(N. J. Spykman)을 부통령후보로 지명하여 선거전에 돌입하였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서구중심의 국제주의적 경향을 띤 대외정책을 고수하기로 한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의 장기집권에서 누적된 국내적인 문제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내정의 개혁과 군비의 강화'로 맞서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미국 대통령 선거전의 쟁점은 국내외 정책적인 대결보다는 한국에서의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하는 '한국전의 수습능력 여하'에 달려 있었다. 아이젠하워 후보의 경우 그의 개인적인 인기에 편승하여 선거유세에서 '한국전쟁의 영예로운 해결'을 표방하였고, 이미 전쟁에 관한 그의 입장은 유권자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다.[3)]

따라서 1952년 11월 2일 투표에서 민주당의 20년 아성에 도전한 공화당은 아이젠하워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됨으로써 집권당으로 부상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12월 2일에 선거공약대로 '전쟁의 명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단계로 한국전선을 방문하였다. 그와 함께 차기 국방장관으로 지목된 윌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선을 방문한 이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아이젠하워의 경무대 방문

(Charles Wilson)과 합참의장 브래들리(Omar N. Bradley) 원수 등 다수의 미국방관계자들이 한국전선을 방문하였다. 아이젠하워 당선자는 한국전선의 방문으로 장차 한국전쟁을 종결짓기 위한 해답을 얻고자 하였고, 동년 12월 5일의 이한(離韓) 성명을 통해 "한국전쟁의 현 사태 개선에 대한 노력과 한국군의 증강 및 경제 원조를 계속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공화당 정부에 새로운 기대를 걸게 하였다.

한편, 미국 대통령 선거유세가 한창일 무렵인 1952년 10월 5일 소련에서는 제19차 공산당 대회가 개최되었다. 소련공산당 규약에 의하면, 동 대회는 3년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오랫동안 개최되지 못하다가 13년 만에 개최된 것이었다. 이 대회에서 소련 정치국이 최고간부회의로 개편되고 말렌코프(G. M. Malenkov)가 당 제2인자로 부상하였다. 이 당 대회에서 스탈린(I. V. Stalin)이 이른바 '경제논문'이란 것을 발표함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이 논문은 공산주의 정치체제가 빚은 많은 시행착오와 또 그것을 수습치 못하였던 모순을 호도하기 위한 선전 문구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그 골자는 대략 "제3차 세계전쟁은 공산 대 민주진영의 대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진영 상호간의 내분에 의해 발발될 것이며, 소련은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게 될 것이다"는 것과 또 "자국의 생산체제가 이제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체제로 한 걸음 발전하였다"는 것이었다.[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소련이 민주진영에 대하여 먼저 전단을 열지 않는다는 뜻도 되겠으나, 한편으로는 민주진영내의 적색혁명분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는 복선이 있다는 것이었다. 동년 12월 24일 스탈린이 뉴욕 타임즈 기자의 서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함으로써 평화공세의 전조를 울렸다. 첫째, 아이젠하워 정권과 더불어 세계평화를 위해 협의할 용의가 있으며, 둘째, 미·소의 화해와 공존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신하고, 셋째, 한국전의 종결을 위한 새로운 외교 교섭에도 협력할 용의가 있으며, 넷째, 미국이 원한다면 미·소 정상회담의 개최도 찬성한다는 것이었다.[5]

이에 대해 아이젠하워 정부의 대응 방향이 세계여론의 주목을 받았으나, 전쟁

중의 세계 국제정세는 자유, 공산 양대 진영의 상극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공산주의 침략가능성에 대해 공포를 느낀 자유진영국가들은 새로운 형태의 결속과 단결을 실현하고 있었다.

1952년 5월경에 조인된 대서독 평화조약 및 유럽공동방위조약이 대표적인 사례였다.[6] 연합군 점령 하에 있는 일본 및 독일 양국에 대한 강화 교섭문제는 지난 해부터 큰 난제였다. 이 문제는 그와 관련된 국가도 많고 또 그들 국가 사이에는 이해관계와 이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자못 복잡하였다.

그러나 대일 강화문제는 미국의 주도면밀한 정세판단에 의하여 미, 영 등 전승 48개국(소련 등 거부국 제외)이 무난히 이에 조인함으로써 성과가 이루어졌다. 동시에 미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주권을 회복하게 된 일본을 대상으로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일본을 포함한 극동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국 주둔, 군사기지의 이용, 기타 공동방위 등을 약속한 것이었고 일본 자체방위의 진공상태를 메우기 위한 일종의 군사동맹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완전히 자유국가의 반공진영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국민당 정부는 중공과의 대립관계로서 대일 강화조약에 참가하지 못하고 추후 일본의 선거에 의하여 단독적으로 강화를 체결하게 되었다. 일본정부가 중공을 상대로 하지 않고 국민당을 대상으로 하여 평화 교섭을 체결한 것은 일본의 반공태세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과의 평화교섭의 추진은 실로 초미의 관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일본의 무성의로 인하여 누차 회담이 결렬되었다.

한국은 일본과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특별한 관련을 갖고 있고, 더구나 최전선에서 공산주의자와 사투를 계속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일본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런 일이었다. 일본이 진정으로 평화를 애호하고 과거의 일을 사죄하고자 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일 회담을 재개하고 양국 간의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민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태도에 의문을 품게 되고, 그것은 결국 양국의 불행을 가져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다음 대서독 평화조약은 그 이름으로 보거나 또 상대국가의 규모 등 그 무게가 대일 강화조약에 견주지는 못했지만, 유럽공동방위를 구성하기 위한 전제였던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즉 이 조약은 서독을 완전히 공동방위의 일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유럽공동방위조약의 조인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유럽공동방위조약은 역시 유럽 군사공동체를 위한 것이었고, 그 목적은 가맹국이 일체의 침략행위에 대해 공동 방위하기 위해 유럽군을 창설하는 것이었다. 이때 유럽군은 공동사령부하에 단일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 조약국들은 실상 지난해 파리에서 협정, 조인된 '슈망 플랜(Schman Plan)' - 유럽 공동 석탄·동·철에 관한 관리협정-의 상대국으로서 구성되었으므로 양 조약은 실상 같은 공동체의 두 기구를 표현한 것이었다.[7] 하나는 군사적인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것이었다.

또 이 공동방위조약이 서구의 새로운 반공적 군사동맹인 만큼 필연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었고, 동시에 미·영 양국은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가맹국 이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유럽대륙의 군대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국제 반공기구가 실현, 운용되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욱 늘어갈 것으로 전망되었다. 서독의 무장이 프랑스로 하여금 많은 불안감을 갖게 하여 프랑스 여론은 유럽통합군 조직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서독의 재무장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대국적인 입장에서 그 문제를 극복해야 했다.

당시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목표와 수단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의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 사이의 전쟁이 역사적으로 불가피하다라든지,

또는 사회주의의 강화와 발전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는 전쟁은 합법적이고 신성한 전쟁이라는 전제하에 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병력확보와 군수산업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잉여무기와 물자를 그들의 판매시장인 위성국들에 대여 혹은 매도하였고, 동시에 세계 공산화 목표를 암암리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시사하였다.

한국전쟁은 그들의 위성국을 통하여 목표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소련은 가급적 자신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 세계 공산화를 위한 전쟁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당시 유럽에는 소련군 175개 사단, 위성국군 60개 사단이 있었으며, 소련 공군기만 해도 2만여 대에 달하고 있었다. 그들은 세계 공산화 준비에 전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평화를 가장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소련은 여러 가지 모략과 허위선전을 퍼뜨려 자유세계의 결속을 분열시키려 하였고, 유엔에서도 자유진영의 제의를 무력화시키려는 방해공작에 열중하였다.

특히 미국을 중상 모략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반민주진영의 선두에 서서 세계를 식민지화하려고 한다"든지, "전쟁은 미·소 간보다도 자본주의국가 상호간에서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등 상투적인 악선전을 되풀이하였다.[8)]

사실 그들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표어 하에 전 세계에 산재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반미운동을 강조하여 각국의 민족주의자들을 선동하고 있었다.

그들의 평화공세는 폭력행사나 파괴행위로서는 도리어 역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술을 바꾼 결과였으며 자유진영의 단결을 무력화시키는데 전력했다. 자유진영국가들은 그들의 전술적 변화와 목표를 직시하여 단합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국내 정세의 추이

1952년도 국내 정세도 세계정세와 비슷하게 '부산정치파동(政治波動)'과 대통령 선거로 매우 어수선한 한 해였다. 동년 4월 25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자유당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여론이 점차 정부를 지지하는 쪽으로 유도되었으나, 여전히 야당세가 강한 국회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방식과 정체의 변경에 대하여 강경 일변도로 나감으로써 대립의 양상이 한층 첨예화되었다.[9)]



1952년 지방선거

여당인 자유당과 정부는 1951년부터 현 대통령중심제를 견지하되 선거에 있어서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하도록 하며 국회도 양원제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반하여 야당인 민국당계에서는 이른바 내각책임제인 국무원 책임제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국회 내에서 많은 논란이 일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인

플레로 말미암은 물가고마저 겹쳐 국회에서 안정 세력을 얻지 못한 정부는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였다. 이런 가운데 1952년 5월 7일에 국회가 자유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무원책임제' 개헌안의 제의를 강행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이에 5월 17일에는 다시 정부의 제안으로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 개헌안이 공고를 서두르게 되었다.

이리하여 국회에서의 두 가지 안건 처리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었고, 1952년년 5월 25일에 갑자기 부산 일원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서 26일에는 급기야 현역 국회의원이 간첩협의로 체포되는 이른바 '정치파동'이 돌발되었다. 이에 동월 29일에 김성수(金性洙) 부통령이 사임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내 정치상황은 더욱 어수선하였다. 부산 정치파동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국내정국의 동요와 불안 사태는 매우 심각한 국면에까지 치달았다. 이러한 국내정국의 혼란상황은 휴전회담의 진척에 따라 전개된 유엔 여러 나라들 사이의 의견 대립이 중첩되면서 일대 외교적 시련까지 초래하였다.

국회 내에서는 정부가 개헌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려 한다는 비난이 일게 되자, 원내 자유당은 양 개헌안 절충이라는 이른바 '발췌개헌안(拔萃改憲案)'을 새로이 제의하였는데, 그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즉,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에서 국무위원의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국회는 상하 양원제로 한다. 대통령은 직접 선출한다"는 등이었다.[10] 마침내 어렵게나마 국회와 정부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의 격차를 좁힌 다음 발췌개헌안이 1952년 6월 21일에 국회에 상정되었다.

그리하여 1952년 7월 1일에 소집된 제13회 임시국회는 소위 개헌안을 둘러싸고 정치파동의 여파의 영향을 받아 개회 당초부터 긴박한 형세가 전개되었다. 최후 단계에 이르러 급격한 전환으로 마침내 7월 4일에는 정부의 발췌개헌안이 통과됨으로써 일단락될 수 있었다. 이는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도 국회 내에서 여야 설전을 거듭하다가, 국회 해산론을 들고 일어선 지방의원과 여론의 압력 속에서 가결된 것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대통령 직선제 반대와 관련한 계엄

이는 물론 민국, 원내자유, 무소속 등 야당세력이 전면적인 타협을 감행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이지만, 여기에 이르는 동안에는 중앙에 쇄도한 지방의원들의 국회 해산운동이나 야당 의원들의 불참 등등 여러 사태가 계속되어 임시수도 부산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발췌개헌안에 따라 1952년 7월 7일 개정헌법이 공포되고, 10일에는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서 의장에 신익희(申翼熙), 부의장에 조봉암(曺奉巖), 윤치영(尹致暎)이 당선되었다. 이로써 2개월에 걸친 정치파동의 동요와 불안상태는 대체적인 수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후속한 절차로 7월 15일 정·부통령선거법이 다시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 7월 28일에 계엄령이 해제되는 가운데 대통령선거 준비에 착수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8월 5일 선거에서 여당은 이승만 대통령을 단일후보로 추대한 반면, 야당에서는 이시영(李始榮), 조봉암, 신흥우(申興雨) 등 3인이 난립하였고, 이 대통령이 재선되었다.

그런데 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자유당이 공식 추천한 이범석(李範奭)과 이승만

대통령이 지명한 함태영(咸台永) 등 여당권 7명과 조병옥, 전진한(錢鎭漢) 등 야당권 2명을 포함하여 모두 9명의 후보자가 각축전을 벌인 끝에 함태영 후보가 당선되었다. 여기서 이 대통령이 자유당의 지명후보를 거부하는 양상을 빚게 됨으로써 선거전 과정에서 이범석과 함태영 계파 사이에 치열한 알력을 보이게 되었다. 집권당의 내분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를 계기로 점차 원내에서의 세력분포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자유당은 이와 같은 내분 수습에 주력하여 일당 독주체제를 굳혀 나가게 되었으며, 반대로 고배를 마신 야당은 이로부터 대정부방침에서 수세로 전환하여 상황을 관망하게 되었다. 어쨌든 선거를 고비로 하여 2개월 동안이나 혼란 상환을 거듭한 정국은 수습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 차츰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부터는 정국이 다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의회 내의 동향을 보면 정치파동의 극심한 타격을 받아온 야당세력은 자기진영의 정비와 수습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시세를 관망한다는 태세로 들어갔고, 여당에서는 삼우장(三友莊)파, 5·30구락부, 신라회 등 여러 분파간의 세력분열을 방지하며 유리한 정세를 이용하여 자기진영의 결속과 확장에 주력한다는 태세를 취하게 되었다.[11]

이렇듯 전시 하 국내정국의 불안상태는 우려할만한 사태로까지 진전되어 세계여론의 주시를 받게 되었지만, 그 후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오히려 이러한 정치적 분열은 휴전문제를 중심으로 한 급박한 정세가 국가의 위기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대단합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대내적인 정치적 단합 과정은 자주적 긍지의 확고함을 전 세계에 보여준 계기였다.

한편 국내정치의 혼란과 아울러 1952년도의 경제 분야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 정부는 당시의 경제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 무원칙성과 무계획성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관련 정부부서와 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재에 의한 전면적인 파괴와 전비의 과중한 부담으로 말미암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전 후 당시까지 우리가 받아온 외국의 구호비는 5억 9백여만 달러에 달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주로 시급한 경제문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에 대한 미봉책으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재건이나 국가경제의 부흥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 사이에 나타난 여러 곤란한 문제 중 가장 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한 요인은 통화팽창 문제였다. 인플레 현상을 더욱 악화시킨 통화량 팽창의 실태를 보면, 1951년 7월 1일 기준 1,220억 원이었던 것이 1952년 3월 1일에는 무려 8,120억 원으로 급증되었을 정도였다. 이것의 주요 원인은 역시 유엔군 대상금(유엔군이 인출한 원화)에 있었다. 따라서 대상금 청산문제를 둘러싸고 유엔군 당국과 정부 간에는 필연적으로 마찰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유엔군사령부가 미국 정부에 중재를 요청함으로써 3월 15일부터 40일 동안 한·미 경제회담이 개최되었다.[12] 회담의 결과, 미국이 선불된 원화를 6,000 : 1의 비율로 환산하여 조속히 상환하겠다고 확약함으로써 비로소 인플레 억제에 대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2 절 전선 상황과 양측의 전력 증강

1. 전선의 상황

1952년 초에 접어들어 유엔군과 공산군은 전 전선에 걸쳐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었으나 대규모의 전면공세를 실시할 태세는 아니었다. 양측은 휴전회담장에서 서로 유리한 휴전조건을 쟁취하려는 협상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주시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양측은 교착된 전선에서 작전이나 전투보다도 진지강화와 부대정비에 전력하고 있었으며, 전초 엄호부대사이의 빈번한 탐색전과 소규모 전초진지 전투를 통하여 상호 접촉을 유지하였다.[13] 따라서 특별히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대규모 전투는 발생하지 않았고 오직 양측 간에 소규모 탐색전이나 포격전만 지속하였다. 이로 인해 지상에서의 상황은 아군이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가운데 새로운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후 진지를 강화하고 그 전초진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적극적인 방어를 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군과 유엔군은 동년 6월초부터 제한적인 공격작전을 개시하기 시작하였다.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 지역에서 소규모 제한공격인 소위 카운터(Counter) 작전을 실시하여 미 제45사단이 방어진지 정면의 주요 감제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공산군의 전초진지들을 탈취한 후 아군의 방어진지를 강화하였다.

카운터 작전 실시 결과 국군과 유엔군은 역곡천 북안의 백마(White Horse)고지(395), 화살머리(Arrowhead)고지(281), 티본(T-Bone)고지(290)와 역곡천 남안쪽 포크찹(Porkchop)고지(255), 불모(Old Baldy)고지(266) 등 11개 목표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장악하여 전초진지를 강화하였으며, 이로써 차후 보다 유리한 지형에서 적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전초진지 전투 시 교통호의 모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후 1952년 가을 공산군의 역습이 시작됨에 따라 중요 전초에서의 쟁탈전이 계속되었고 이어 그것이 확대되어 전 전선에 걸쳐 전초진지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전투는 대체로 피아간에 주진지의 변동이 없는 가운데 보다 유리한 전초진지를 장악하여 각기 방어태세를 강화하려는데 주안이 있었다.

1952년도 양측의 부대배치 상황은 소규모 전초진지 전투가 전개된 전반기, 고지쟁탈전이 격화된 후반기로 각각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4] 먼저 전반기 전선별 국군과 유엔군의 배치상황은 다음과 같다. 서부전선에서는 미 제1군단이 철원에서 임진강 하구에 이르는 지역에서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었

다. 미 제1군단장 오다니엘(J. W. O'Daniel) 중장[15]은 동년 4월 5일에 국군 제2군단이 중부전선의 일익을 맡게 되면서 전투지경선을 조정하였다. 군단 우익인 제9사단을 미 제9군단으로 배속시킴으로써 철원 동쪽지역을 제9군단이 일임하였다. 그리하여 군단은 미 제45, 미 제3, 영연방, 미 해병사단(한국 제1해방연대 배속)의 진용으로 계속 방어선을 확보하다가 동년 4월 21일에 그간 육본 직할로써 부대를 정비 중이던 제1사단을 다시 배속받았다. 이로써 군단은 중앙 우익인 미 제3사단의 진지를 인수하게 한 다음, 미 제3사단을 예비로 전환하였다.

중부전선에서는 북한강에서 철원까지 국군 제2군단과 미 제9군단이 전선의 돌출부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연초까지만 해도 미 제9군단만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동년 4월 5일에 국군 제2군단이 창설되면서 전선을 둘로 나누어 맡게 되었다. 국군 제2군단(백선엽 중장, 7월 23일부터 유재흥 중장)은 지난 겨울동안 지리산 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던 백야전사령부가 3월 15일에 전선으로 복귀함에 따라 이를 모체로 4월 5일 창설되었는데, 수도사단을 기간으로 하여 제3사단과 제5연대전투단에서 교육 중이던 제6사단을 편입하여 군단의 면모를 갖추었다. 군단은 동일부로 미 제9군단 전선의 동반부를 정식으로 인수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철원 방어를 맡은 미 제9군단장(Wyman 소장)은 동년 4월 1일 현재 제3사단, 미 제40사단 그리고 미 제2사단(프랑스, 네덜란드, 태국 대대 배속)으로 북한강에서 철원 동쪽까지의 주저항선을 담당하게 하였다. 미 제7사단(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대대 배속)을 가평부근에 예비로 배치하였고, 동월 5일 제2군단의 창설과 동시에 우익전선을 동 군단에 인계하였다. 이에 미 제9군단은 전선을 서쪽으로 확대하여 미 제1군단 우익으로서 백마고지를 확보중인 제9사단을 편입함으로써 전선을 조정하였고, 28일 예비인 미 제7사단을 중앙의 미 제24사단과 교대시켰다.[16]

동부전선 최동쪽의 국군 제1군단(이형근 중장)에서는 그 주력인 제5, 제11사단으로 전년에 이어 계속 남강 남안의 주진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우익인 국군 제5

사단은 남강이라는 천연의 제약을 받아 피아전선의 구분이 명확한 까닭으로 고성 남쪽의 351고지 부근에서 북한군과 대치하였다. 그밖에 제11사단 다른 전선에서는 남강을 사이에 두고 수색대가 충돌하는 정도의 상황을 반복하였다. 미 제9군단의 오른 편을 담당한 미 제10군단(Palmer 중장)은 계속 제8사단을 우익으로, 미 제25사단(터키 여단 배속)을 중앙으로, 그리고 제7사단을 우익으로 삼아 예비 없이 858-812-가칠봉-단장의 능선-1090고지에 이르는 전선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공산군의 전선별 배치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산군은 1052년 7월초 현재 서부전선일대에 중공군 제65·제63·제40·제39군 4개군을 배치하고 있었으며, 중서부전선에 중공군 제39·제38·제15군 그리고 중동부전선 일대에 중공군 제68군과 북한군 제2군단 예하 제13·제27사단을 각각 배치하였다. 동시에 동부전선에는 북한군 제3군단 예하 제45·제15·제1사단과 북한군 제1군단 제47사단을 각각 배치하였다. 따라서 공산군의 최일선 부대는 중공군 8개군 예하 24개 사단과 북한군 3개 군단 예하 9개 사단 등 총 33개 사단이었다. 제2선에는 북한군 1개 사단 등 총 3개군 10개 사단과 동서해안에 배치된 북한군 5개 군단 및 중공군 6개군 등이 후방에 배치되어 있었다.[17]

북한군 제2군단은 동년 8월경 제3군단의 책임구역이 서쪽으로 확장됨에 따라 후방으로 이동하였으며[18] 그에 따라 후방에는 북한군 제2·제4·제5·제6·제7·제8군단과 중공군 제42군·제64군·제47군·제26군 등이 부대재편과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19] 국군 정보 분석에 의하면, 중공군 제42군은 그다지 큰 손실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동해안 지역으로 이동한 후 신병훈련과 동시에 해안경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20] 중공군은 동년 9월과 10월에 전선 인수를 위해 입북한 제23·제46·제24군을 제38·제40·제15군 작전지역으로 각각 투입하여 방어임무를 교대시켰으며, 제12군을 동해안 방면으로 이동시켜 해안방어력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한편 공산군의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1952년 후반에 접어들어 국군과 유엔군의 전선에서도 많은 변동이 있었다. 서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1군단은 미 해병 제1사단(배속 : 국군 해병 제1연대)·영연방 제1·미 제3·미 제2사단 등 4개 사단을 작전통제하여 개성 서남방의 서해안으로부터 철원 서북방에 이르기까지의 주저항선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담당하였다. 중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9군단은 국군 제9·미 제7·국군 제2·미 제40사단(예비) 등 4개 사단으로 금성방면을 담당하였으며, 그 우측에 국군 제2군단이 국군 제6·수도사단·국군 제3사단 등 3개 사단을 통제하여 화천방면의 전방 주저항선을 각각 담당하였다. 중동부전선에서는 미 제10군단이 국군 제7·미 제25·국군 제8·미 제45사단(예비) 등 4개 사단을 지휘하여 양구북방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최동단에는 국군 제1군단이 국군 제11·제5사단 등 2개 사단으로 동해안까지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최전선에 배치된 아군의 전력은 예비부대인 국군 제1사단을 포함하여 총 5개 군단의 18개 사단규모였다.[21] 그 후 각 군단 내에서는 부대이동이 실시되어 9월 27일 미 제10군단 예하 국군 제8사단이 미 제45사단과 교대하여 부대교육에 임하고, 이어 10월 2일 미 제1군단 예하 국군 제1사단이 미 제3사단과 교대하여 전선에 투입되었다. 또한 10월 25일에는 미 제10군단 예하 미 제40사단이 미 제25사단 지역을 인수하고 미 제25사단은 예비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미 제9군단 예하에서는 미 제3사단이 국군 제10사단과 교대하여 전선방어임무를 인수하였다.[22] 동부전선에서는 북한강 동안에서 동해안 남강하구까지는 대체로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이 만곡부 형태의 방어선을 맡고 있었다.

후반기 국군과 유엔군의 부대별 배치와 이동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은 동년 7월 15일 미 제9군단으로부터 미 제2사단이 전입함에 따라 우익인 미 제45사단을 미 제10군단으로 배속 조치하고 미 제45사단의 진지는 미 제2사단이 맡게 하였다. 그동안 7월 5일에는 중앙우익인 제1사단이 미 제3사단에 다시 전선을 인계하고, 10일부로 남원(제11, 제12연대)과 밀양(제15연대) 지역으로 이동하여 지리산 및 운문산 일대의 공비잔적을 소탕한 다음 8월 7일 다시 군단에 배속되어 10월 1일에 미 제3사단의 진지를 다시 인수하였다.[23]

그러다가 1952년 12월 27일 제8군의 예비였던 미 제7사단을 군단에 배속하게 되어, 이로써 우익인 미 제2사단 전선을 인수토록 조치하고 미 제2사단은 예비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미 제9군단의 서반부에서는 영 연방사단과 미 해병사단이 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간 중에 변동 없이 계속 주저항선을 확보하고 있었다. 미 제10군단에서도, 미 제45사단이 철원 서쪽에 위치한 일련의 전진요충지인 에로우헤드(281)-포크찹(255)-불모고지(266)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카운터 작전을 시작하였고, 이들 고지를 장악한 후부터 공산군의 반사적인 역습이 반복됨으로써 고지전으로 일관되었다.

여름동안 미 제1군단 지역 내 격전은 주로 불모고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중공군은 수차례 역습을 해왔으나 그 결과 3,500명의 병력손실을 보기도 했다. 그 후 미 제2사단이 그 전선을 인수한 뒤로도 9월 중순까지 쟁탈전을 계속하였고, 12월에 들어서면서 그 동쪽의 티본 지역으로 비화되었다. 미 제7사단이 새로이 그 곳을 담당하게 되자, 동사단은 이 정면에서 공산군의 도발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이듬해 초 개시될 보·전 협동작전을 계획하였다.

미 제1군단의 중앙우익이었던 미 제3사단은 9월 17일부터 24일 사이 켈리(Kelly)고지에서 역시 중공군과 쟁탈전을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650여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고지를 상실한 채 제1사단과 전선을 교대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10월 6일에 추계공세를 맞아 테시(Tessie) 및 닉키(Nickie)고지에서 적과 격돌한 다음, 12월 중순에 베티(Betty)와 노리(Nori)고지에서도 또 한 차례의 격전을 치르게 되었다. 그동안 영 연방제1사단에서는 11월에 후크(Hook)고지에서 또 미 해병제1사단은 벙커(Bunker)고지에서 각각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였으며, 국군 제1해병연대(10월 1일부터 전투단으로 증편)는 사천 일대의 전진진지에서 9월부터 10월 사이에 계속 일진일퇴를 거듭하였다.

미 제9군단은 제5연대 전투훈련단에서 교육 중이던 미 제2사단을 배속받아 동년 7월 1일 우익인 미 제40사단과 교대시켰는데, 이때부터 제2사단이 금성 서쪽 저격능선 정면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 제2사단은 이 무렵 7월 15일에 미 제1군단으로 배속 변경되었다. 8월 7일 거제도포로수용소에서 포로분리작업을 끝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을 잠시 군단에 배속하여 중앙의 미 제7사단 전선 일부를 담당하게 했으나, 동부대는 다시 10월 2일 제8군 예비로 돌려졌다. 10월 1일에는 제8군의 조치에 따라 미 제3사단(그리스·벨기에 대대 배속)을 미 제1군단으로부터 제8군 예비로 전환하였고, 대신 예비였던 미 제40사단을 10월 18일에 미 제10군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으로 배속 변경하였다.[24]

그동안 좌익인 국군 제9사단은 동년 10월 6일에 중공군의 추계공세를 받아 백마고지에서 혈전을 벌이게 되었으며, 이어 우익인 국군 제2사단과 중앙의 미 제7사단이 10월 14일에 쇼다운 작전을 감행함으로써 저격능선과 삼각고지를 공격하였다. 백마고지의 전투가 끝난 뒤인 10월 25일에 예비인 미 제3사단으로 하여금 제9사단의 전선을 인수토록 하고, 제9사단은 부대정비와 훈련에 들어갔다. 일부병력은 저격능선에서 전투중인 제2사단을 계속 지원하였다.

삼각고지에서 격전을 수행한 미 제7사단은 동년 10월 25일 그 작전임무를 제2사단에 인계한 다음, 11월 14일에는 가평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11월 25일에는 제5연대 전투훈련단에서 훈련 중이던 제9사단을 다시 전선에 투입하여 제2사단의 저격능선 전선을 인수하게 하고 제2사단은 동일부로 훈련에 들어갔다.[25]

이와 같이 각 사단의 순환정비를 도모한 미 제9군단은 동년 12월 10일 그간 제1연대 전투훈련단에서 교육을 끝낸 수도사단에게 제9사단 전선의 일부를 맡게 하였다. 그리고 12월 27일 훈련단에서 다시 전선으로 복귀한 제2사단을 미 제3사단과 교대시켜 좌익으로 삼아 주저항선을 정비하였다.[26] 이리하여 이제 군단은 결과적으로 제2사단과 제9사단이 각각 저격능선과 백마고지를 교대한 가운데 수도사단을 우익으로 맞아들여 결의를 새롭게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기간 동안 군단 정면의 주요전투는 철원 서북방의 백마고지, 삼각고지, 그리고 김화 동북방 저격능선의 세 전투로 압축되었다. 백마고지에서는 제9사단이 동년 10월 6일부터 중공군 제38군과 더불어 연 10일 동안에 12차례의 쟁탈전을 반복하여 7회나 주인이 바뀌는 혈전을 전개하였다. 여기에서 중공군은 1만 5천 명의 전투 병력과 8천 명의 지원 병력을 투입하여 건곤일척의 결전을 강요하였지만, 이에 맞선 제9사단이 3,500명의 손실을 보면서도 끝까지 방어한 결과 중공군 1만여 명을 사살함으로써 그 기도를 꺾는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제9사단은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제6사단의 용문산 전투에 비견될 방어전에서 중요한 승전보를 남기게 되었다. 백마고지는 제9사단 장병들의 투혼으로 이룩된 것이었다.

저격능선과 삼각고지 전투는 이 해에 마지막으로 시도한 미 제9군단의 쇼다운

작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저격능선을 목표로 삼은 국군 제2사단과 삼각고지를 목표로 지향한 미 제7사단은 당초 각 1개 대대로 5일간이면 성공리에 전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의외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전투는 국군 제2, 미 제7사단 전 병력이 투입되어 42일간이나 계속되었고, 무려 9천여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는 기간 중 최대 규모의 혈전이었다.[27]

중부전선의 국군 제2군단은 10월 중 제3사단, 수도사단, 제6사단의 순으로 북한강에서 금성에 이르는 주저항선을 담당하게 하였다. 군단은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에서 중공군과 수차례 쟁탈전을 전개하고 있었던 수도사단을 10월 25일에 제1연대 전투훈련단으로 전환하였다. 제5연대 전투훈련단에서 부대정비를 끝낸 제8사단을 배속받아 수도사단의 진지를 인수하여 중앙을 담당하도록 하였다.[28]

기간 중 국군 제2군단은 중공군의 끊임없는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주전장은 제3사단의 독수리고지와 피의 고지, 수도사단의 수도고지와 지형능선 그리고 제6사단의 A고지, B고지 등이었다. 추계에 접어들면서, 9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중공군이 이들 요충을 손에 넣고자 집중적이고 파상적인 압력을 가해옴으로써 군단 정면에서 격전이 전개되었다. 군단은 비록 적의 기도를 분쇄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제3사단이 독수리고지를, 수도사단이 575고지를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다.

중공군 역시 1만 9,000여 명에 달하는 엄청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되었다. 동전선의 중공군 제15군은 강력한 방어의지를 보였고 삼각고지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평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 제9군단장은 11월 5일에 급기야 작전을 중단함으로써 삼각고지를 적의 수중에 남겨둔 채 저격능선만을 간신히 확보하게 되었다.

미 제10군단(Palmer 중장)은 여름에 이르기까지 계속 제8사단을 우익으로, 미 제25사단(터키 여단 배속)을 중앙으로, 그리고 제7사단을 우익으로 삼아 예비 없이 858-812-가칠봉-단장의 능선-1090고지에 이르는 전선을 확보하였다. 7월 18일에 미 제1군단으로부터 미 제45사단(필리핀 대대 배속)을 배속받아 이를 잠시 양구 부근에 예비로 배치하였다가 9월 25일에 우익인 제8사단과 교대시켰다. 그리고 10월 18일에 다시 미 제9군단으로부터 미 제40사단을 배속받아 중앙의 미 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5사단과 교대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동년 9월 28일에 미 제9군단 배속과 동시에 사창리의 제5연대 전투훈련단에서 훈련에 임하였고, 미 제25사단은 10월 24일에 제8군 예비가 되어 가평으로 이동하였다. 12월 27일에는 11월 8일부터 편성된 국군 제12사단이 군단에 배속되어 12월 30일에 우익인 미 제45사단의 진지를 인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익지역에서는 제8사단이 9월의 부대교대 직전에 854-812고지의 전진진지를 공격한 북한군을 격퇴하였는데, 이 전선을 인수한 미 제45사단도 제12사단과의 교대를 앞둔 12월 25일에 812고지에서 또 한 차례 북한군의 공격을 물리쳤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미 제40사단이 단장의 능선 북단의 851고지에서 11월에 북한군의 침공을 받았으나 이를 지켜내었으며, 우익에서는 기간 중에 주저항선을 계속 담당한 제7사단이 10월 중순에 중공군의 공격으로 1090고지에서 대대규모의 쟁탈전을 전개하였으나, 이때 사단은 그동안 확보하였던 크리스마스고지를 적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그러나 미 제10군단은 대체로 큰 변동 없이 주진지를 계속 확보하였다.[29]

동부전선에서는 북한강 동안에서 동해안 남강하구까지 대체로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이 만곡부 형태의 방어선을 맡고 있었다. 국군 제1군단(이형근 중장)에서는 그 주력인 제5, 제11사단으로 계속 남강 남안의 주진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우익인 국군 제5사단은 남강이라는 천연의 고성 남쪽의 351고지 부근에서 7월부터 11월 사이에 당면의 북한군과 일진일퇴의 쟁탈을 반복하였다. 그밖에 제11사단 다른 전선에서는 남강을 사이에 두고 수색대가 충돌하는 정도의 상황을 반복하였다.[30]

한편 유엔 공군은 1952년 봄부터 제공권에 정면 도전을 받지 않은 채 적 보급소의 공격과 철도의 차단작전을 계속하는 한편, 전선에서의 적 보급품과 장비 및 병력의 집결지를 강타하였다. 동년 5월에 유엔군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 대장은 부임과 함께 공중작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는 부임 즉시 극동공군사령관 웨이랜드(Weyland) 대장 및 해군사령관 브리스코(Briscoe) 중장과 회동하여 지금까지의 보급로 차단작전에 맹점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따라서 클라크 사령관은 공산군 전력의 공급원이 되는 산업시설을 폭격하여 발원지를 봉쇄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선정된 제1의 목표가 수풍화력발전소를 위시한 압록강의 전력시설이었다. 유엔공군은 1950년 말부터 지금까지 워싱턴 당국의 제한조치에 따라 한·만 국경선 부근의 수력발전시설에 대한 폭격을 금지하였지만, 클라크 사령관의 강력한 건의로 그 제한조치가 해제된 것이었다. 수풍발전소의 폭격은 1951년 8월에 휴전회담이 결렬되어 그에 대한 대응수단의 일환으로 단행된 나진폭격에 이어 두 번째로 이 금기를 깨는 획기적인 조치였다.[31]

그리하여 이 작전에서는 6월 23일 프린스톤(Princeton)호와 박스(Box)호, 그리고 필리핀 씨(Philippine Sea)호 등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해군 전폭기들이 공군 전투기의 엄호아래 연 3일간에 걸쳐 수풍을 비롯한 부전 제3, 제4호와 장진 제3, 제4호 등 13개 발전시설을 폭파하여 북한 전 지역을 2주일 동안이나 암흑으로 만들었다.

그러자 이 조치는 우방인 영국으로부터 즉각적인 반발을 받았다. 영국 노동당과 신문들은 유엔군의 졸책이라는 표현으로 비난하면서 "이 같은 중대사가 사전에 영국에 미리 통고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당시 영국정부는 중공군의 침략 초기 맥아더 원수가 압록강 차단을 주장한 시점부터, 이미 논란이 되어 온 이 발전시설 파괴문제와 연관하여 중공이 협상을 깨뜨리거나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였다. 정작 미국의 국내여론은 이와는 달리 한층 고무적인 것으로서 "왜 좀 더 일찍 그 같은 강경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라는 분위기로 자못 대조적이었다.[32]

미국 정부는 북한의 수력시설이 만주의 비행장과 무기 및 탄약을 생산하고 무장력을 보수하는 군수공장을 가동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만큼, 군사적인 필요에 따라 이를 파괴하고자 한 것이며, 결코 정책적인 변동이 아니라는 태도를 표명함으로써 영국의 여론을 무시하였다. 클라크 사령관은 영국신문에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즉, "수풍발전소의 폭격에 대하여, 본관은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 않도록 다음 사안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만주로 송전되는 수력전기가 우리 자신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대항하는 원동력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점과, 또 본관이 유엔군사령관으로서의 권한 하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휘하 장병의 희생을 최소한으로 감소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유세계의 모든 국민이 본관의 조치를 지지해 줄 것으로 확신하면서, 정당하고 명예로운 휴전이 확실히 보장될 때까지 북한 내에 있는 이러한 군사적 목표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강조하였다.[33]

미국은 영국정부를 무마하기 위해 영국군 수스미스(Soosmith) 소장을 유엔군 참모장으로 보임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로써 영국은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거론치 않게 되었다. 이는 양국 간에 보다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는 명분이 전제된 것이었지만 차후 영국이 미국의 독단적인 판단을 견제한다는 의미도 내포한 것이었다. 이는 연합군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약점을 드러낸 것이었다.

여하튼 수풍발전소에 대한 폭격이 단행된 뒤로 계속하여 유엔 공군과 해군 전폭기들이 북한의 주요 공업지역을 폭격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1952년 7월 12일부터 868회의 출격을 한 평양 군사시설 폭격이 대표적이었다. 이 폭격으로 평양의 40여 개 군사시설과 군수품 집적소 및 공장들이 파괴되었다. 평양에 대한 공습은 8월 4일과 29일에도 재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공습지역을 예고하는 전단을 살포하는 이른바 예고폭격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 예고폭격의 성과에 대하여 클라크 대장은 "이는 완벽한 제공권의 장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인 만큼 제공권 장악에 대한 과시와, 적측의 민간인 소개를 종용하는 인도적인 입장을 천명할 수 있었다는 견지에서 적에 미친 심리적인 효과가 컸다"고 그의 회고록에서 술회하였다.[34]

유엔공군은 이어 8월 27일과 28일에는 길주의 제련소와 신덕의 아연광산을 폭격하였으며, 9월 1일에는 북한 최대의 정유시설인 아오지 정유공장을, 그리고 10월 8일에는 평원 철도시발점인 고원 일대를 초토화하였다. 8월 29일 1,800기가 출격하여 개전이후 최대공습으로 알려지고 있는 평양대폭격, 9월 12일부터 양일간에 걸친 한·중·소 국경지대에 걸쳐 대한 대대적인 폭격, 그리고 11월 29일의 흥남 및 장진 폭격 등이 대표적인 작전이었으며, 이외에도 북한 70여 도시에 대해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민들에 대한 폭격 경고문을 살포한 다음 연속적인 폭격을 가하였다.[35]

한편 해군의 해상활동은 전년에 이어 북한의 해안봉쇄와 소해작전을 계속하면서 동해안의 국군 제1군단의 지상전을 지원하였다. 또한 미 제9군단의 쇼다운 작전에 때를 맞추어 10월 15일에 고저에서 한 차례 양동 상륙작전을 실시하였다. 이 작전의 핵심은 미 제7함대를 주축으로 육해공군 합동 제7기동상륙군을 편성하여 빈틈없는 상륙계획을 수립, 만반의 태세를 갖추되 실제 상륙만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었다. 이 목적은 적의 병력을 분산시키고 상륙지로 적 증원부대를 유인한 다음 공군과 지상포로써 이를 격멸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적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다만, 유엔군의 합동 상륙훈련의 효과라든지, 그 후로 적으로 하여금 계속 동서해안 방어에 혼란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전이었다.

2. 공산군의 군사력 증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군과 북한군은 전선이 교착된 상황과 임시군사분계선 설정기간을 이용하여 군사력을 나날이 증강시키고 있었다. 1952년 초 공산군은 중공군 57만 명, 북한군 22만 5,000명이었으나 동년 7월초에 이르면 중공군 63만 명, 북한군 28만 명 등 총 91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9월에 이르러서는 총 1백만 8,900명으로 급격히 증가되었다.[36]

결과적으로 적 병력 규모는 회담이 개시된 이래 10개월 동안에 거의 두 배로 증강되었으며, 이는 적이 회담기간을 이용하여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적 병력은 1952년 10월 전투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어 97만 2,000명으로 감소되었다가 11월에 지상전투가 감소되면서 다시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37]

공산군은 병력뿐만 아니라 화력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특히 공산군의 포

병화력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것은 유엔군 진지로 날아오는 모든 구경의 포탄 수가 늘고 있다는 것에 의해 감지될 수 있었다. 그들은 1952년 4월 전선에 710문의 야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동년 6월말경에는 884문으로 증가했으며 포병전술도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었다. 그들은 진지의 위치를 바꿔가며 포격함으로써 유엔군의 대포병 사격을 어렵게 하기도 하였다. 적의 포병사격능력은 일일 약 8천 발에서 4만 3천 발로 증가되었으며, 동년 연말까지 공산군은 소련으로부터 10개 고사포대대의 장비를 보충 받았다.[38] 이처럼 공산군의 전력이 대폭 증강되고 있었으나 포병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엔군이 압도적이었다.[39]



중공군의 전차부대 증강

동년 9월에 들어서자 전황은 급격히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전 전선에서 소규모 전초진지전이나 수색정찰전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때부터 공산군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여 고지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산군은 휴전회담이 정체되자 약 2개월에 걸쳐 주로 중부 산악지대의 국군 방어 정면을 목표로 한 공세

작전을 전개하였다. 공산군은 약 4만 3천여 발에 달하는 기록적인 포격과 더불어 공격을 개시하였다. 마침내 이곳을 방어하던 국군 수도사단과의 사이에 일진일퇴의 쟁탈전이 전개되었다. 소강상태 기간 중 보강된 공산군의 많은 교통호와 토치카의 견고성은 아군의 전투를 한층 곤란하게 하였으며, 또한 쌍방 간에 전개된 치열한 포격전은 적 화력의 현저한 강화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40]

이 공세에서 공산군은 먼저 수도고지를 목표로 작전을 개시하였으나, 막대한 희생과 손실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좌절되자, 10월에 들어가서는 다시 중부전선의 백마·삼각·저격능선으로 공격목표를 변경하여 공격하였다. 철의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이 지역 일대의 전투는 고지쟁탈전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투입한 대규모 작전이었다.[41]

실로 백마고지 쟁탈전에 있어서 공산군은 이곳을 사수하던 국군 제9사단과의 전투에서 약 10일만에 1개 사단 대부분을 상실하였으며, 다시 삼각고지, 저격능선 쟁탈전을 치르는 동안에 중공군 1개 사단은 60%로 감소되었다. 10월 중 적 손실 3만 2천 명이란 숫자는 지난해 춘계공세 이래 최고의 숫자인 동시에 이것이 주로 고지쟁탈전에서 적의 인해전술의 결과였음을 상기할 때 그간의 전투의 치열함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산군의 모든 기도는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국군과 유엔군은 인내를 가지고 모든 곤란한 시련을 극복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증대되는 적의 소모에 반비례하여 오히려 꾸준한 병력의 강화가 계속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산군은 포병의 증강 이외에도 1952년 7월에 520여 대의 전차 및 자주포로 장비한 중공군 2개 기갑사단과 북한군 1개 기갑사단 및 2개 기계화사단을 전선에 배치할 정도로 전력을 증강시켰다. 아울러 적의 공군력에도 유사한 변화가 진행되어 항공기가 총 500기로부터 약 1,250기로 대폭 강화되고 있었다. 제트전투기도 450대에서 800대로 증가되었으며, 이에는 중국에 전개된 400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1952년에 들어와 적은 공군 2개 전투기사단을 4개 사단으로 증가하고 겸하여 1개 폭격사단을 새로이 편성하였다. 그리하여 적 공군은 북한 상공에서나마 아군 폭격기 편대에 활발하게 도전해 오기 시작하였다.[42]

이 무렵 북한과 중국, 소련지도부 간에 오고간 비밀전문에 의하면, 마오쩌둥이 공중전의 강화를 역설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즉, 그는 김일성이 자신에게 "공군의 행동반경을 단지 압록강선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적어도 이를 평양근교까지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수도의 군사시설 및 산업시설에 대한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 준비된 야간폭격 편대를 적진 깊숙이 투입시켜 비행장, 보급품, 집결지 등 군사시설을 폭격하고 또한 공중전을 과감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한 전문을 그대로 스탈린에게 긴급 타전하였다.[43]

아울러 공산군은 장기간의 전선교착 기간을 이용하여 군수문제도 크게 개선시키고 있었다. 당시 국군 정보보고에 의하면, 공산군의 군수상황은 그동안의 유엔해·공군의 타격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이 한국전선에 투입된 이래 어느 때보다 더 양호해졌다고 분석되었다.[44] 북한군에 충당되고 있던 모든 보급품은 소련·중공·동독·몽고·헝가리 등 공산국가들로부터 지원되고 있었다. 연료 역시 충분치는 않았지만 소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급을 받고 있었다.

공산군의 장비보급 중 가장 부족한 것은 통신장비 부문이었다. 그것은 당시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보낸 지원요청 전문에서 "현재 공산군은 통신장비가 지극히 부족하다. 그것은 소련과 중공에서 전혀 추가 지원된 적이 없으며 현재 어느 곳에서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호소한 점으로 확인된다.[45] 대체로 적 병력의 주식과 부식은 1인당 매일 800~1,000g 정도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며[46], 적이 주요 지상 작전을 전개할 경우 5~10일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정도의 보급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1952년은 공산군이 병력·화력·공군력·방어진지·보급 등 모든 면에서 대폭적으로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전선에는 그들이 전면적인 대공세를 준비한다는 징조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 공산군은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었지만, 그것이 대규모 공세를 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들은 유엔군이 제시한 휴전조건을 거부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차후 공세를 위한 군사력 증강에 계속 주력하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유엔군의 전력 재정비와 국군의 전력 향상

1952년도는 국군이 종래의 10개 사단의 한계를 깨고 크게 전력을 증강하는 해였다. 한국정부는 1952년 초부터 휴전과 유엔군의 철군이 예상되자 휴전 후의 국방을 고려하여 국군의 증강을 신중히 검토하였다. 그 결과 육군의 규모를 10개 사단에서 20개 사단으로 증편하려는 계획을 마련하여 미국에 지원을 요청하였다.[47] 한국 유엔대표단도 미국이 추가로 한국군 10개 사단을 무장시키고 미군이 지휘하도록 하는 요청안을 제출하고 있었다.[48]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1년 전인 1951년 4월 24일에 이와 비슷한 안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제시한 바 있었으나, 그것은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었다.

최초 국군의 증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1951년 11월 10일에 미 육군부장관 서리 포스터(William C. Foster)가 미 합동참모본부에 한국군의 규모 책정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미 합참의장 브래들리 원수는 이해 1월 말에 한국군의 10개 사단 25만 명선 유지에 대하여 전임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나 현재의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대장이 공히 지지한다는 것을 근거로, “현재 한국의 경제적인 여건으로서는 국군의 현저한 증강을 유지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결론적인 보고를 국방장관에게 제출하였는데, 당시 미 합참의 참모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4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첫째, 현재의 한국군을 적절히 훈련시키고 장비를 개선한다면, 차후에는 적의 침략을 저지하기에 충분한 군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정부는 계속적인 인플레에 기인된 경제적인 부담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전비지출을 받아들일 입장이 못된다.

셋째, 미국 역시 나토 가맹국에 확약한 군사적인 요구량의 공급에 대한 이행과 일본 자위대의 부활을 추진해야 할 부담을 갖고 있다.

넷째. 한국군의 확장은 이러한 당면문제들이 해소되는 적당한 시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미 합참은 한국군 증강방안에 소극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유엔군사령관인 리지웨이 장군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리지웨이 장군은 4월 9일 미 육군부로부터 그에 관한 공식견해를 요청받자, "한국은 경제 사정상 20개 사단을 유지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일본의 자위대 발전에 우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대장의 개인적인 소견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종래의 견해를 밝혔다. 그리하여 이 증강방안은 일단 논외로 유보되고 말았는데, 이와 같은 양 사령관의 견해 차이는 비단 이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양자가 처한 입장의 차이를 나타낸 단적인 예였다.



유엔군의 8인치 신형 포의 사격 모습

리지웨이의 소극적인 자세는 1952년 3월 27일 미 합참에 보고한 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그는 한국공군에 대한 평가에서 "두 번째 가는 공군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 때문이었다. "현

재 17대의 노후한 전투기 F-51과 그밖에 29대의 각종 항공기를 주축으로 한 4,000명의 한국 공군, 이것으로서는 공산 공군을 대적할 수 없다. 따라서 공군은 전폭적으로 미 공군에 의존해야 할 것이므로 이 쓸모없는 공군의 유지는 그야말로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었다.[50] 어쨌든 리지웨이 대장은 재임기간 동안 국군의 규모 제한에 시종일관하였다.

그리하여 한국군 증강안에 관한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된 것은 그의 후임인 클라크 장군에 가서야 비로소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국군의 증강을 지지하였고 1952년 5월 유엔군사령관으로 새로 부임한 클라크 대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함에 따라 비로소 증강계획은 실현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앞서 3월 28일에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킴볼 해군부장관이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대장은 한국군을 20개 사단(10개 사단 증편)으로 확장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육군 정책회의에 회부함으로써 이 증강문제가 다시 거론되었다.

당시 밴플리트 대장은 언론과의 회견에서도 "한국은 충분한 인적자원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미군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으로 한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의 소신을 피력하였다.[51] 그리하여 그는 부임 직후 다음과 같이 국군의 증편을 강조하였다.[5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나는 극동군사령관으로 첫 번째 보고를 받은 후 우리가 한국 육군을 최대한도로 증강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중략) 아울러 한국군의 기술이 허용하고 장비가 가용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군과 해군 부대도 증강해야 한다고 믿었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앞으로 한국군 전체 규모는 20개 사단을 위하여 소요되는 숫자로 증가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며 그 숫자는 65만 5,000명으로 증강될 것으로 전망하였다.[53] 그러나 한국군 확장계획안은 "자국 군에 대한 한국의 지원 능력이나 한국 단독의 자체 증강계획과는 관계없이, 다만 군사적 필요에 기초한 것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54]

국군의 증강안과 관련하여 클라크 장군은 먼저 6월 19일 국군의 병력 규모를 우선 종전의 25만 명선에서 36만 3,000명선으로 상향 조정할 복안 하에 군 증원병력 9만 2,100명과 추가로 경찰의 치안유지를 보강하기 위한 6개의 경(輕)보병연대 병력 9,458명에 대한 지원을 즉각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4일 후인 6월 23일 그는 전선 상황을 검토한 후 밴플리트 장군과 토의를 거쳐 한국 육군 2개 사단을 추가로 창설함과 더불어 병력을 41만 5,046명으로 확장할 것을 다시 건의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현재 유엔군의 방어병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유엔군 예비부대를 확보하는 길은 바로 국군의 확장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우리정부도 국군 증강안에 관해 미국정부와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였다. 그중의 하나로 1952년 6월 18일 양유찬(梁裕燦) 주미 한국대사가 먼저 미 국방부와 의회에 "한국 공군양성 3개년 계획" 상정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심의를 맡은 미 합참은 한국 육군을 종전대로 묶어두고 대신 공군과 해군을 확장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55] 그러나 7월 17일 미 육군참모총장 콜린스(J. Lawton Collins) 대장의 방한(訪韓)을 계기로 제8군과 극동군 당국이 역설한 한국 육군 증강안이 부각되었으며, 이에 미 합참에서는 육군 2개 사단 증강계획이 다시 토의되었다. 그 결과 콜린스 장군은 "극동군사령관이 요청한 한국 육군의 증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하였다.[5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그동안 육군본부는 제8군과 협의를 거쳐 카투사의 정원을 2만 7,000명으로 증강하고(미군 7개 사단과 영연방사단에 각 2,500명, 기타 전투지원부대에 7,000명), 사단창설에 따르는 인력보충계획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였다.[57] 미 합참은 양 대사가 제의한 공군 양성계획과 클라크 대장의 지상군 증강계획을 일괄 재검토한 후 공군을 당분간 종전수준으로 유지키로 하고, 육군과 해병대 및 카투사의 규모를 종합하여 46만 명으로 책정한 후 9월 하순 국방부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58]

군수상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합동참모본부는 국군의 증강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 육군 12개 사단과 6개 독립연대, 그리고 한국 육군과 해병대의 전체 규모 46만 3,000명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인가하기 위한 필요한 승인을 받아 주기를 건의한다.

이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장비는 유럽군에서 50%를, 또 105밀리 곡사포는 NATO군에서, 그리고 기타 품목은 예비 비축품에서 각각 이관하기로 했다. 미 합참의 안은 국방부에서 최종적인 심의를 거쳐, 10월 25일에 로베트(Lovett) 국방장관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며, 10월 30일 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59] 그리하여 1952년 10월말 한·미 양국 정부는 한국 육군의 병력수준을 25만 명에서 46만 3,000명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동년 11월말부터 사단을 증편하기 시작하였다.[60]

이무렵 한국 공군은 4천여 명의 병력과 F-51 무스탕 17대, 기타 경(輕)정찰수송기 및 훈련기 29대를 보유하였으며[61], 해군은 1만 6천 명의 병력과 50여 척의 정찰정, 소해정, 상륙용 주정을 보유하였다. 해병대도 1952년 10월 1일 제1연대와 지원부대를 통합하여 해병 제1연대 전투단을 창설하고 도서부대를 꾸준히 발전시켜 연대규모로 증강하였다.[62] 육군본부는 국군의 증강 안에 따라 10월말 제12, 제15 등 2개 사단과 6개 독립연대의 창설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제12사단과 3개 독립연대(제53·제55·제56연대)는 12월 말 작전에 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15사단과 나머지 3개 연대(제57·제58·제59연대)는 늦어도 이듬해 1월말까지 전선투입의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63]

미 제8군은 이미 4월 28일 3개의 경장비 교육 보충연대(제37·제38·제39연대)를 창설한 바 있으며, 그중 제38, 제39연대는 창설과 동시에 포로수용소 경비에 임하게 되고, 제37연대는 독립연대로서 전방의 미 제9군단 예비로 활용되었다. 이어 6월 13일 다시 같은 성격의 3개 연대(제50·제51·제52연대)를 창설하였는데, 제50연대는 함양지구의 공비토벌작전에 투입되고 제51, 제52연대는 독립연대로서 각각 미 제1군단과 국군 제2군단에 배속되어 실전훈련을 쌓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 전력 증강을 위한 훈련

그러던 중 10월 30일 2개 사단의 증편계획안이 확정되자, 육군본부는 11월 8일에 동 6개 경(輕)보병연대를 중장비연대로 개편함[64]과 아울러 동일부로 양양에서 제12, 제15사단사령부와 6개 경보병연대(제53-제59연대)를 다시 편성하였다. 이 중 제12사단은 제53·제55·제56연대를, 제15사단은 제57·제58·제59연대를 각각 임시로 배속받아 자체의 부대 편성과 아울러 이들 연대의 훈련에 임하였다.[65] 이어 제12사단은 제37·제51·제52연대가 중장비연대로 개편작업이 완료된 12월 10일 사단의 정식 건제부대로 편입하였으며, 미 제9군단에서 교육훈련을 끝내고 12월 27일 미 제10군단 전선에 투입되어 미 제40사단의 진지를 인수하게 되었다. 이 무렵 제15사단도 제38·제39·제50연대로 개편되었으며, 11월 8일 새로 편성된 연대들은 뒤이어 창설된 다른 사단의 기간으로 전용되었다.[66]

한편, 클라크 대장은 12개 사단 계획안은 임시적인 변통에 불과한 것이라 판단하여 증편 안이 승인된 다음날인 11월 1일에 다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아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 육군 20개 사단 확장계획을 미 합동참모본부에 건의하였다.[6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한국 육군을 1953년 8월까지 20개 사단으로 확장한다.
2) 2개 군단을 6개 군단으로 증가하여 추가 창설사단을 지휘하게 한다.
3) 신편사단은 16주간의 훈련 후 전투임무를 부여하며, 마지막으로 창설되는 사단도 1953년 말에는 전투준비가 가능하도록 한다.
4) 한국군 2개 사단의 편성이 완료될 때마다 유엔군 1개 사단이 예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며, 1953년 5월까지는 유엔군 사단들이 그 임무를 한국군 사단에 인계할 수 있을 것이다.
5) 이 계획에 의하면 1954년 중반까지 미군 4개 사단과 2개 군단사령부의 재배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결국 미 합참은 클라크 장군의 한국군 20개 사단 증강안에 관한 건의를 받고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이 문제의 결정은 다음 해로 넘겨지게 되었지만, 11월 초의 미 대통령 선거에서 아이젠하워가 신년에 집권할 차기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적어도 이 국군증강에 대한 문제에서만은 희망이 보이고 있었다.



한국군 전력증강을 위한 신병 종합교육

이무렵 유엔군이 구상하고 있던 국군 증강안의 목표는 "훈련된 인력·지휘력·장비가 갖추어지는 대로 곧 전 전선을 한국군이 담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 두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68]

한편, 보병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포병도 괄목할 성장을 보였다. 1951년까지도 한국은 지형이 험한데다가 도로가 좁고 불량하여 포병의 기동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재보급의 난점과 더불어 훈련된 포병요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국군 1개 사단에 105밀리 1개 대대만을 보유하고 있었다.[69] 1952년에 접어들어 미 합참은 5월 27일 사단당 105밀리 3개 대대와 155밀리 1개 대대의 완전편제를 갖추도록 결정하였다.[70]

이에 따라 육군은 이미 1951년 창설된 4개의 155밀리 독립포병대대(제96·제97·제98·제99대대)에 이어, 6월 16일 4개 대대(제91·제92·제93·제95대대)를 증편하였으며, 1월부터 2개의 105밀리 대대로 구성되는 포병단의 창설에 박차를 가하여 12월 말까지 10개의 포병단(제1·제2·제3·제5·제6·제7·제8·제9·제10·제11·제12·제15포병단)을 창설하였다.[71]

이들 신편 155밀리 독립대대와 야전포병단은 미 제5포병단에서 포병 종합훈련(RSOP 등)을 마치고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자 각 사단에 예속되었다. 이로써 105밀리 1개 대대로 편제되어 있던 보병사단은 3개의 105밀리 대대와 1개의 155밀리 대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72], 이들은 다음해 초부터 사단 포병단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따라서 1952년도에 모두 12개의 105밀리 포병단(24개 대대)과 4개의 155밀리 독립대대가 창설된 것이다. 이밖에 육군본부는 전차부대도 1951년 2개 전차중대에서 1952년에 6개 전차중대로 증강하였다.[73]

한편, 1952년 3월 6일에는 정보학교, 동년 5월 15일에는 운전병학교를 각각 창설 또는 재창설하였다. 기존 각 병과학교와 함께 이에 완전한 교육조직체계가 수립되었으며, 각종 학교를 광주근방의 광활한 지역에 집결시켜 1952년 1월 6일 상무대라고 명명하여 육군교육의 일대 중심지를 이룩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차 한국 육군의 중견이 될 인물을 육성하는 4년제 육군사관학교가 완비된 시설과 우수한 내용을 가지고 동년 1월 20일 진해에서 개교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장교교육에 있어서는 국내 각종 병과학교에서의 초등 및 고등군사반을 활용할 뿐 아니라, 미국 각 병과학교로 유학시켜 1952년 4월 12일 제2차로 보병, 포병 및 부관의 각과 장교를 선발하여 파견하였다. 그리고 전투의 입체화와 긴박성에 비추어 지상 작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적전정찰, 사격관측 및 긴급연락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엄청난 애로를 극복하면서 육군 경비행대를 설치하기에 힘써 조종사 및 정비사를 교육시키고, 또한 포병학교 내에 항공학과를 증설하여 국군의 포병운영에 일대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한편 한국 해군은 미국으로부터 1952년 2월 PC함, LST함 등 수십 척을 이양받았다. 이 중 성능이 우수한 함정은 즉시 동·서해로 출동하여 봉쇄망을 더욱 강화시켰다. 또 함정들은 해군장병들이 직접 미국에 가서 인수하여 태평양을 횡단해 왔었다. 이렇게 해군은 함정세력에 있어서 부단히 발전을 추구했을 뿐 아니라 또 그 질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해병대도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74]

한국 공군은 1952년 3월 1일 1,000회 출격의 기록을 수립하였으며 동년 5월 말까지 100회 출격기록을 수립한 하늘의 용사도 9명을 배출하였다. 공군은 전투뿐만 아니라 훈련에 있어서도 불충분한 시설과 제반 애로를 극복하면서 만전을 기하였다. 국내의 공군 자체의 교육기관 및 훈련부대를 통한 것 외에 미 공군에 장병들을 파견하여 훈련을 받게 하는 한편, 미국에도 다수의 장교를 유학시켰다.[75]

이 기간동안 한국 육·해·공군은 여하한 적의 공세에도 능히 이를 격퇴하고 나아가 한반도 내 남북한의 전반적인 안정과 장차 통일의 중임을 완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 병력의 급속적인 증강과 교육훈련의 강화에 힘을 기울였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고지쟁탈전에서 점차 우세를 드러내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절 공산군의 전쟁지도

휴전회담기간 중 공산군 전쟁지도부는 소련의 스탈린을 정점으로 중국의 마오쩌둥과 북한의 김일성이 그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 전쟁지도부의 전략지침을 받아 1950년 12월 초에 창설된 조·중 연합사령부가 한반도에서의 작전전반을 통제하며 지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의 전반적인 지도는 전쟁기간 내내 소련의 스탈린이 마오쩌둥 및 김일성과 협의를 한 후 상황에 따른 전략지침을 내려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1952년도 기간 중에도 이러한 전쟁지도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스탈린은 전쟁의 주요 국면별 사안에 따라 마오쩌둥이나 김일성에게 직접 전문을 보내 전쟁을 지도하거나, 북한과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소련대사 및 소련고문단장편으로 전쟁수행에 대한 전략지침을 하달하는 간접지도 방식도 사용하였다.

북한주재 소련대사는 김일성을 상대로 스탈린의 지침을 전달하고 이를 스탈린에게 보고하였다. 북한주재 소련대사 겸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Razubayev) 중장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의 전쟁지도에 대한 실패책임을 지고 경질된 스티코프 대사의 후임이었다.[76] 이들 또한 중국주재 소련대사 로신(Roshin)과 소련군사고문단장 크라소프스키(Krasovsky)는 마오쩌둥을 상대로 스탈린으로부터 지시받은 전쟁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이를 스탈린에게 보고하였다.[77]

중국 전쟁지도부의 핵심에는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있었다. 마오쩌둥은 북한에 파견된 중공군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를 통해 작전지도를 포함한 전쟁 전반에 걸쳐 베이징에서 원격으로 조정하고 있었다. 수상과 외상을 겸하고 있던 저우언라이는 마오쩌둥을 보좌하며 대내외 상황을 총괄하고 있었다. 외교부 부부장을 역임한 리커눙(李克農)은 휴전회담 기간 중 마오쩌둥의 지시를 받고 북한으로 파견되어 휴전회담을 현지에서 지휘하였다.

육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중연합사령관 마오쩌둥과 펑더화이(왼쪽)

중공군사령관 펑더화이는 조중연합사령부의 사령관직도 겸직하고 있었고, 공산군 수뇌부에는 중공군 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 덩화(鄧華), 부사령관 겸 후방근무사령관 홍쉐즈(洪學智), 부사령관 겸 제9병단사령관 쑹스룬(宋時輪), 부사령관 겸 제3병단사령관 천겅(陳賡), 부사령관 한셴추(韓先楚), 공군사령관 류전(劉震), 철도운수사령관 허진넨(賀晋年), 참모장 셰팡(解方), 제19병단사령관 양더즈(楊得志), 제20병단사령관 양청우(楊成武), 제23병단사령관 동치우(董其武) 등이 포진하고 있었다.[78]

북한의 전쟁지도부 및 군사지휘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을 비롯하여 부수상 겸 외상인 박헌영, 부사령관 최용건, 총참모장 남일, 조중연합사 부사령관 김웅 등이 있었다.[79] 특히 김일성은 연합사 지휘계선 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실질적인 공산군 측의 작전지휘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산군의 전쟁지도 체계는 스탈린이 전쟁의 주요사안에 대해 직접 관여하면서도 겉으로는 자문형식을 취하

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중국의 마오쩌둥이 스탈린의 자문 및 지도를 받아가며 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었다.

공산군은 1952년 초 교착된 전선에서 작전보다도 진지강화와 부대정비에 전력하고 있었으며, 전초 엄호부대사이의 빈번한 탐색전과 소규모 전초진지 전투를 통하여 상호 접촉을 유지하였다.[80] 이로 인해 지상에서의 상황은 아군이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가운데 새로운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후 진지를 강화하고 그 전진진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공세방어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산군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유엔군의 공중공격에 대하여 지상부대로써 맞대응을 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적의 공격방향은 전선이 주로 북으로 돌출된 중부전선 상 수도고지 및 지형능선·백마고지·저격능선 등에 집중되고 있었다.[81] 이러한 적의 의도는 이무렵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전문내용에 잘 나타난다.[82]

> 우리는 적과의 장기적인 전투에서 적극적인 군사행동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군사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소극적인 수비를 계속하면 적은 우리의 힘을 간과할 것이며 우리에 대한 군사적인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항공폭격을 계속할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산군의 작전기도도 물론 휴전회담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 유엔군의 군사작전에 대응하려는데 있었다. 특히 중부전선에서 주요 전략요충을 점령하여 아군의 주저항선을 제압함과 동시에 차기 대공세를 위하여 유리한 신진지를 구축하려는 기도였다. 적은 이러한 기도를 달성시키고자 국군 제2군단 및 미 제9군단 정면에 잘 훈련된 사기왕성한 정예부대를 투입하였으며, 특히 저격능선에는 4개 사단 병력을 배치하여 철의 삼각지대상의 아군 주저항선을 엿보고 있었다.[83]

한편, 공산군은 주요 전략목표에 대한 유엔군의 공중공격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평양근교와 압록강주변에 유엔군 포로수용소를 배치해 놓고 있었으며, 또 압록강 수풍댐이 위치상 한·만 국경 선상에 놓여 있고 또 발전소 자

체가 북한과 중공의 공동관리 하에 있는 점을 고려 유엔군이 폭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휴전회담에서는 쌍방의 협상대표들이 여전히 포로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심한 설전을 벌이고 있었다. 공산군은 유엔군측 포로수용소에서의 충돌사건을 유엔군이 공산포로를 강제 억류시키려는 것에서 야기된 사건이며, 유엔군의 잔학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비난하면서 모든 공산포로들을 즉각 송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은 어떠한 포로도 그 자신의 의사와 달리 공산 치하로 강제 송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이 무렵 1952년 6월 말경에 유엔군의 포로면담 결과 총 16만 9,944명의 포로중 약 49%인 8만 3,722명이 송환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숫자는 앞서 공산군에 통보한 7만여 명보다 1만 3,222명이 증가한 것이었다. 따라서 유엔군은 적이 이 숫자에 근거한 포로교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84]

포로분류를 위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공이 그들의 입장을 다소 완화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이무렵 중공은 두 개의 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첫째 안은 중공군 포로 2만 명과 북한군 포로 9만 명을 송환기준으로 해결하거나, 중공군 포로 2만 명이 포함된다면 총 10만 명 기준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대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포로는 휴전 후 복귀할 수 있다고 유엔군과 협정을 하되,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는 판문점으로 이송하여 이곳에서 중립국가와 양측 적십자사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포로와의 면담을 통해 송환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이 중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첫째 안이 타협하기가 용이한 것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의 입장에서는 이와 반대였다. 당시 포로조사 결과 중공군 포로 중 중공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숫자가 저우언라이가 고려하고 있는 숫자에 1/3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중공은 인도정부를 중재자로 이용하면서 보다 우회적인 외교 과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징후를 보였다.[85] 그래서 미국은 영국 외무성을 통하여 저우언라이의 둘째 안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인도정부에 통보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과 인도 사이에 많은 접촉이 오고 간 후, 인도의 통고에 따르면 중공은 '재분류'에 관한 그들의 안이 유엔군에 의해 수락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말은 워싱턴에서는 중공이 둘째 안과 유사하게 어떤 해결을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돌연 7월 14일 중공의 입장이 갑자기 변화되었다. 영국 외무부가 중공의 제안에 관해 문의를 하였을 때 중공은 다만 첫째 안에 관심이 있을 뿐이며, 둘째 기준으로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도정부를 통해 통고하였다. 따라서 유엔군으로서는 판문점 회담의 추가적인 성과를 기다려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게 되었다.[86]

한편 소련은 1952년 6월 27일 유엔의 한 관리를 통해 미국대표와 가진 비공식 대담에서 쌍방이 제네바협정에 관한 각각의 해석 및 적용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이는 송환원칙의 적용에 따른 곤란함을 고려하여 여러 나라의 적십자사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그 원칙의 적용을 감독한다는 양해사항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전체송환의 수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접촉에서 소련은 실제로 한국전쟁의 휴전을 원한다고 말하였다.[87] 미국은 이것이 중공측의 두 번째 안과 유사한 흥미로운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당시로서는 인도-중국 경로에 기대를 걸고 있는 터이라 더 이상의 추진을 보류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제안도 인도-중국의 경로가 무용하게 되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후 소련이 더 이상 토의를 거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미국무부는 포로문제에 관하여 정식 외교경로를 통해 소련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 이를 주소 미국대사 케난(George Kennan)과 협의 중이었다. 이때 미국은 송환을 결정한 83,000명의 공산군 포로와 공산군이 수용하고 있는 12,000명의 유엔군 포로를 맞교환하며, 나머지 공산 포로는 비무장지대로 이송하여 인도나 기타 중립국가 감시하의 면담을 거쳐 귀환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은 클라크 장군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는 소련이 한국전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는 않았으나, 소련 지도자들에게 외교적 호소를 한다는 것은 유엔군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88]

클라크 장군은 "우리는 전장에서 북한의 군사목표에 대한 공중공격의 계속적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강화로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성명발표나 판문점에서의 행동에 있어서도 단호해야 한다. 이러한 단호함은 우리 정부나 동맹국정부 양자의 적절한 성명이나 행동에 의해 충분히 지지되어야 함이 필요하다"[89]라고 하여 도리어 유엔군이 공산군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로써 판문점에서의 협상은 공전이 불가피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4 절 유엔군과 한국정부의 전쟁지도

1. 유엔군의 전쟁지도

1) 휴전협상의 지도

판문점에서 포로교환 문제를 놓고 협상이 지연되는 동안, 1952년 6월 하순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중부전선에서 현 전선을 초월하여 평강 북쪽까지 전진할 새로운 통제선(Duluth선)을 점령하기 위한 제한공격 계획을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에 건의하였다. 이 작전의 목적은 유리한 지형을 점령하고 적의 부대와 물자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승만 대통령과 유엔군 수뇌부의 부대방문

이에 클라크 장군은 “휴전협상에 미칠 민감성과 아군의 사상자”를 고려하여 그 건의를 유보시켰다. 즉, 강력히 요새화된 적의 전선을 돌파해야 하므로 소득에 비해 희생이 너무 클 것이며, 또 적의 강력한 반격에 대처할 유엔군의 가용한 예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다.[90]

그러나 유엔군은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에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적 압력뿐”이라는 전략 하에 유엔군사령관의 주장대로 상대적으로 아군의 피해가 적게 발생하는 공중공격을 대대적으로 감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유엔군은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지금까지 수풍댐과 발전소를 공격하지 않고 있었으며, 또 평양근교의 군사목표에 대해서도 휴전회담 개시 이후 1년 간 공격을 유보하고 있었다.[91] 이 두 지역에 대한 유엔군의 대대적인 공격 결정은 군사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공산군이 휴전회담을 지연시키거나 폐기할 경우 중국본토에 대한 폭격도 불사하겠다는 시사였다.

마침내 유엔 공군기에 의한 북한지역 수력발전시설 폭격은 1952년 6월 23일에 시작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7월 1일 해리슨(William K. Harrison) 장군은 휴전회담 본회의에서 타협적인 어조로 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는 양측이 모두 평화를 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다만 포로에 관한 항만이 미해결로 남아 있다고 지적한 후, 이에 관한 제51항의 초안을 다음과 같이 낭독하였다.[9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양측이 수용하고 있는 모든 전쟁포로는 이 휴전협정이 발효될 때에 가능한 한 빨리 석방하고 송환한다. 그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휴전협정의 조인에 앞서 양측에 의해 교환 점검된 명단에 따라 실시한다.

이 제안은 지난 4월에 유엔군에서 제안했던 것을 거듭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공산군이 7월 3일 다음과 같이 다소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93]

1) 모든 포로는 국적과 출신지역에 따라 재분류한다.
2) 포로의 명부는 조속한 송환의 진행을 위해 재점검하여 작성한다.
3) 공산측은 북한군에 편입되었다가 유엔군 포로가 된 남한 출신의 한국인 포로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대신 고향인 남한지역에 남게 하는 것을 유엔군측에 동의한다. 그러나 외국인 포로에 대해서는 그가 유엔군 출신이건 중공군 출신이건 각기 출신지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포로문제에 대한 공산군의 태도에 큰 변화가 있자, 해리슨은 공산군이 원칙뿐만 아니라 제51항 자체의 표현도 수락한 것으로 클라크 장군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7월 4일 선임 장교 회의에서 해리슨 장군이 상황을 오판하였음이 드러났다.[94]

제51조에 기술된 "각 측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전쟁포로"라는 구절에 대하여, 유엔군은 포로 중 송환에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힌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포로들을 의미하였음에 반하여, 공산군은 1951년 12월 18일에 교환된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모든 포로 중 다만 전쟁 전 38도선 이남에 거주하였던 포로를 제외한 모든 포로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하였던 것이다.[95] 공산측은 아직도 공산치하에 끌려가느니 차라리 자살하겠다며 송환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중공군 포로전원을 강제 송환하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7월 6일 회의에서 공산군은 숫자문제를 다시 제기하였다. 공산군은 유엔군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인원이 '재심사' 명단에 오르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2만 명의 중공군은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남일(南日)은 "만일 당신들이 점검하여 작성한 명단이 사실에 가까운 숫자를 반영하고 중공의 용군 포로 2만 명을 포함한다면 전쟁포로 송환문제는 해결될 것이다"고 하였다. 이에 해리슨 장군은 "누구도 물리적으로 당신들의 통제 하로 복귀시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응수하였다.[96]

다음날 클라크 장군은 미 합참으로 공산군이 포로 숫자 문제를 끌어들였다고 지적하고 유엔군 대표단이 송환 포로와 한국에서 석방할 포로의 수에 대한 수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된 숫자를 제시하도록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 숫자는 총 12만 1,000명으로서 최종 심사결과 송환자 8만 2,900명(북한인 7만 6,500명, 중공인 6,400명)과 전쟁 전 남한 주민 3만 8,100명이 포함되었으며, 남한 주민 중 1만 1,700명은 전쟁포로이고 나머지 2만 6,400명은 이미 석방된 민간인 억류자였다. 클라크 장군은 유엔군 포로도 비슷한 분류로 요구할 예정이었다.[97]

유엔군은 1952년 7월 8일 비밀회담에서도 포로교환문제로 인한 교착상태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진전 없이 설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무렵에도 북한측 대표 남일은 유엔군이 거제도에서 공산군 포로 2명을 살해하고 8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비난하고 나섰다.[98]

동년 7월 15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비밀전문은 "우리는 만일 적이 양보하지 않거나 협상을 결렬시키면 전쟁을 계속해야 하며, 적은 전쟁을 통해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현재의 정세를 변화시키기 위한 출구를 찾으려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의 입장을 단호히 견지해 나간다면, 유엔군은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99]

이때부터 쌍방의 냉전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휴회도 전과 같이 서로의 제안과 양해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휴회를 선언하고 퇴장해 버리는 양상이었다. 이렇듯 판문점회담은 유엔군과 공산군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로 포로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무용한 논쟁을 거듭함으로써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10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 유엔군의 작전지도

1952년 전투양상은 전년과 큰 차이 없이 몇 개의 한정된 요충에 대한 쟁탈전만을 반복하는 양상이었다. 동년 2월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대장은 빅스틱(Big Stick)과 홈커밍(Home Coming) 계획 등 일련의 제한진격 계획을 시도함으로써 아군의 춘계공세를 기획하였으나,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대장이 그 계획에 반대함으로써 무위에 그친 바 있었다. 밴플리트 대장은 4월 1일 이 뜻을 관철하고자

촙스틱6 계획(Op. Chop Stick 6)과 촙스틱16 계획이라는 2개의 안을 수립, 다시 실천하기로 하였다.

먼저 촙스틱6 계획은 증강된 한국군의 1개 사단으로 하여금 미 제9군단 정면에서 평강까지 진격하게 함으로써 이 지역의 주저항선이 남쪽으로 쳐져 있는 철원-김화 선을 금성-평강선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고, 촙스틱16 계획은 국군 제1군단으로 하여금 남강하구(고성)까지 진격하게 함으로써 그 지역의 전선을 남강선으로 획정짓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 두 계획안에는 모두 강력한 항공 및 포병지원의 수반이 전제되었으며, 작전성과에는 부수적으로 국군의 산악기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훈련적인 효과 또한 얻을 수 있으리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에 대하여 리지웨이 대장은 촙스틱6 계획에 있어서는 미 제8군의 목표선이 방어선으로서 불리하다는 지형적인 문제점을 들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반면, 촙스틱16 계획의 개념만을 승인하고 동 작전에 미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그 수행여부를 제8군사령관의 재량에 일임하였다.

이리하여 미 제8군의 전선에서는 일시 활기를 되찾는 듯하였으나, 이마저도 4월 28일에 그간 휴전협상이 공전의 난항을 거듭하던 판문점에서 유엔군의 이른바 일괄타결안이 제시됨으로써 연기되고 말았다. 즉, 새로운 협상 분위기에 자극을 피하기로 한 밴플리트 대장의 결정에 따라 그 이튿날인 29일 이의 실행이 무기한 연기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4월의 마지막 시도도 끝내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써 탁상의 논쟁이 전선의 쟁탈전에 앞선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다.

이 무렵부터 유엔군은, 거제도포로수용소 사건 등을 들어 유엔군을 비판하고 나선 적측의 선전공세에 말려들게 되어, 협상장에서도 수세로 몰리게 되었다. 이 때 유엔군사령관이 교체됨으로써 이를 계기로 새로운 타결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즉, 나토군사령관 아이젠하워 원수가 11월로 예정된 차기 미국 대통령선거에 공화당후보로 내정되어 현직의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트루먼 대통령이 4월 28일에 그 후임으로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대장을 지명하고 유엔군사령관에는 미 본토지상군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 대장을 임명하였다. 신임 클라크 장군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5월 12일에 동경에서 지휘권을 인수하였다.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대장의 부임

클라크 대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제5, 제15군 사령관을 역임하여 실전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전후에는 1945년부터 1947년까지 주 오스트리아 고등판무관(辦務官)으로서 활동한 적도 있었다. 그는 오스트리아 강화조약에 미 국무장관 마샬(George C. Marshall) 원수의 대리로 참석하는 동안 소련과 직접 협상을 한 경험이 있었다. 그의 유엔군사령관 임명은 야전군 지휘경험보다는 협상 수완을 높이 산 것으로 평가되었다.

어쨌든 클라크 장군은 지상전의 작전지도에 있어서 전임 리지웨이 대장의 전쟁지도를 답습하여 신중을 기하면서, 다른 한편 그가 체험한 바에 따라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에 의한 조기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아래 대응전략을 검토하였다. 그는 무익한 병력손실을 줄인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한국군의 증강을 도모하여 장기적으로 대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대장은 4월 하순에 일괄타결안이 제시된 뒤에 적측이 이를 수락하지 않음으로써 회담이 공전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전선 역시 피아 가벼운 탐색전으로 일관되자, 5월 중순부터 새로운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밴플리트 장군은 이 기간을 이용하여 전선의 방어진지 개선에 주력하여 현재 진지의 결함을 다각도로 보완한 다음, 신임 클라크 대장의 결단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6월 10일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즉, "미 제9군단 정면에서 한국군으로 하여금 평강 북쪽의 새로운 진지선으로 진격하게 함으로써, 철의 삼각지대를 완전히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에는 적의 진지편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의 보급품과 비축물자를 파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미군의 화력과 한국군의 산악기동력을 효과적으로 배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상호협동의 훈련을 쌓을 수도 있다"고 부연하였다.[101] 결론적으로 이는 앞서의 촙스틱 6의 개념과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그러나 클라크 대장은 6월 25일에 이를 기각시켰는데, 그 이유는 "첫째, 현재 진행 중인 휴전협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둘째, 이 작전에서 예상되는 손실이 매우 크고, 셋째, 적이 반격을 감행하여 총공세로 이전한다면 현재 제8군으로서는 예비 병력이 부족한 입장에 있으며, 넷째, 평강까지 진격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전과확대가 없다면 지금 상태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102]

클라크 장군의 반대는 당시의 피아 전력의 비교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5월 1일 현재 미 제8군의 정보참모가 판단한 적의 병력은 무려 1백만 명에 가까웠다. 그들 전선에는 동해안 지구에 북한군 3개 군단 8만 3,000명과 태백산맥 서쪽에서 임진강하구에 이르기까지 완전편제의 중공군 8개 군 20만 7,800명이 배치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후방에는 42만 2,000명의 중공군과 18만 5,300명의 북한군 그리고 1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적성국의 지원 병력이 전선을 지원중인 것으로 판단되었다.(전선에 29만 800명, 지원병력 61만 7,300명, 도합 90만 8,100명) 이는 지난해 휴전회담이 시작된 뒤로 적의 병력이 2배로 증강된 것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에 비하여 유엔군은 미군 4개 사단과 영연방군 1개 사단 그리고 한국군 9개 사단으로 모두 24만 7,500명이 전선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지원 병력을 합쳐도 70만 명이 안 되는 실정이었으므로 병력면에서는 적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공산군은 또한 화력 면에서도 만주에 2천여 대의 항공기(그 중 절반은 제트기)와 전선에 4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포병 역시 4월에 710문이었던 것이 6월에 884문으로 급증되는 추세였다.[103] 사격술도 향상되고 보급체제도 개선되는 징후가 현저한데다가 방어진지의 강도도 더욱 증강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클라크 대장은 이러한 여건 하에서 적을 격퇴할 수 있는 방법이란 오직 적이 그들의 진지에서 나와 공격을 감행할 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는 적이 공격하기를 기다릴 것을 강조하였고 아군이 선제로 공격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유엔군사령관은 전선을 변경시킬 정도의 대규모 작전은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휴전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대규모의 지상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군의 전력을 분석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공산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려는 대규모의 지상공격은 아군에게도 엇비슷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공산군의 역습에 직면할 위험을 수반한다.
2) 아군의 작전이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적의 역습을 격퇴시키는 작전의 시작은 확전으로 연결될 것이다.
3) 일본에 있는 2개 사단을 제외한 모든 전구의 군사력을 동원한다면 공산군에게 막대한 타격을 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군사적 승리는 얻을 수 없다.
4) 근본적이고 조직적인 전력증강이 없는 한 대규모 지상 작전의 성공가능성은 희박하다.[104]

유엔군사령관의 이러한 판단은 미국의 정치·군사지도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이리하여 그 이후의 전쟁기간 동안에도 유엔군사령부는 지상작전을 계속 제한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게 되었다. 이렇듯 미 제8군사령관의 지론과 유엔군사령관의 견해가 상치되자, 제8군은 이제 가능한 접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당면한 전술적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었다. 제8군은 6월 하순부터 국군 군단들(제5, 수도, 제1사단 및 제1해병연대)에서 차출한 대대규모의 특임부대로써 각각 그 정면의 적진을 공격하여 진지의 파괴와 포로의 획득에 주력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7월 하순 호우가 연 6일간이나 계속되었다.

8월에 들어서자 양측은 도로의 유실 등 재해복구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전선에서 소강상태를 유지하였다. 이 무렵 워싱턴과 동경의 미 정보당국자들은 "판문점에서의 협상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투에서도 뚜렷한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었다. 그 논지는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105]

> 공산군은 휴전조건을 수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대규모의 공세를 취할 태세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유엔군이 공세를 취하지 않는 한, 전쟁의 결말을 보기 위한 압력수단이란 달리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유엔군 역시 현 병력으로서는 지구전의 수행이 곤란한 만큼 국지공세에 앞서 병력의 증강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더 이상 증원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므로 피차 이 현상에서 탈피하려 하지 않는 한, 지난 해 겨울의 전투양상이 반복될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반적으로 1952년 8월까지는 유엔군이 공세적인 입장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9월에 접어들면서 공산군이 겨울을 의식하였음인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공산군은 유리한 전진기지의 확보하려 했으며 아울러 휴전회담장에서는 회담이 결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듯했다. 따라서 그들은 유엔군으로 하여금 그들의 제안에 승복하도록 새로운 공세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9월 6일에 중부전선 제2군단의 수도사단이 확보중인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을 탈취하고자 중공군이 공격신호탄을 올린 뒤로, 9월 말에 독수리 및 피의 고지(제3사단)와 수도고지 및 지형능선(수도사단), 그리고 A, B고지(제6사단) 등

동 군단의 전 정면으로 확대된 추계공세의 제1파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전선에서 작전의 주도권이 공산군의 수중으로 옮겨 가게 되었다.

이에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대장은 10월 5일에 미 제9군단 정면에서 김화부근의 현 방어선을 개선하기 위한 제한된 공격계획(Op. Showdown)을 수립하여 클라크 대장에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이의 승인을 강력히 촉구하였다.[106]

> 사태를 역전시키기 위하여 아군이 소규모의 공격작전으로 기선을 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와 같이 적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태 하에서 아군이 소극적인 방어책만 고집한 까닭으로, 지난해 10~11월 이래로 가장 많은 출혈을 강요당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클라크 대장은 제8군의 제한작전 계획을 검토한 끝에 소요탄약과 항공지원이 원활하다면 2개 대대 규모로써 5일간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판단아래 10월 8일에 이를 승인하였다. 이리하여 밴플리트 대장은 10월 9일 미 제9군단으로 하여금 쇼다운 작전의 실시를 명령하였다. 그동안 10월 6일 추계공세의 제2파가 국군 제2군단 정면의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수도사단), A, B고지(제6사단) 및 미 제9군단 정면의 백마고지(제9사단) 그리고 미 제1군단 정면의 니키 및 테시고지(제1사단) 등에 일제히 집중됨으로써 전 전선에서 다시 격전이 재연되었다.

따라서 아군은 이와 같은 적의 추계공세를 맞아 이를 격퇴하는 한편, 쇼다운 작전계획대로 미 제9군단의 제2, 제7사단으로 저격능선과 삼각고지를 목표로 하는 공격을 준비하였다. 먼저 방어전에서는 백마고지에서 중공군 1개군에 섬멸적인 타격을 가하여 물리치는 대첩을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10월 14일을 기하여 저격능선과 삼각고지를 공격한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의 공격전에서는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11월 5일까지 무려 42일간이나 지지부진하게 계속된 전황 끝에 제2사단의 저격능선만을 확보한 가운데 작전을 종료하였다.

결과적으로 방어전인 백마고지 전투는 일찍이 클라크 대장이 기대한 것처럼 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적인 섬멸전이었고, 반면에 공격적인 저격능선 전투는 그가 우려한 대로 피아간 피해가 컸다. 이 두 전투에서의 공통점은 중공군이 일정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병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과 방자에게 유리한 전투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 제8군이 전선에서 취할 수 있는 방책이 무엇인가는 이로써 명백히 제시되었다. 아군 병력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적에게는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2. 한국정부와 국회의 전시 조치

1) 정부의 전시 조치

정부는 전 국민의 주시 하에 1952년 2월 15일부터 한·미 경제회담을 개최하여 전시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했으나, 그동안 진행 중이던 한·일 회담은 일본의 무성의로 4월 20일경 사실상 결렬되어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한·미 경제회담을 개최한 결과 4월 24일 한·미 협정이 조인되었다. 이때 합의된 내용은 유엔군의 대여금은 미화 약 8천만 달러였고, 그 중 이미 1천 2백만 달러는 청산되었으며 나머지는 6천 : 1로 기한부로 조속히 청산하되 우선 반액은 현금으로 상환하는데 합의하게 되어 인플레를 억제하는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제에 수반되는 지방선거에 전력을 기울여 자유스런 분위기의 보장과 선거감시 문제 등을 위해 4월 25일 31개군에 대한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107] 이 무렵 정부는 국무원 책임제 개헌안에 대하여는 전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5월 5일에는 지방의회를 소집하고 도·시·읍·면장 선거를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였다. 또 전쟁 속에서도 문화의 결실을 맺게 한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학위 수여식이 4월 26일 서울대학교에서 거행되기도 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정부는 매일같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던 쌀값으로 인하여 민생고가 격심해갔으므로 5월 8일 미곡조절의 긴급대책으로 정부보유미 20만 석을 방출하였다. 농촌 영세농가에 15만 석, 도시 영세민에게 5만 석을 각각 분배하고 영세농가에 대하여는 백미 1두에 보리 1두 2승의 비율로 대여하였다. 또 민간무역업자로 하여금 외국산 양곡의 수입을 장려하여 자유 도입을 하가하였고, 식량생산에 긴요한 비료의 수입도 허가하기로 하여 정부보유 달러(중석불)를 불하하기도 했다. 또 모리배의 암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상인의 보유량을 조사하여 37만 석을 색출함으로써 일시적이나마 쌀값의 하락과 민생의 안정을 가져왔다.[108]

이 무렵 장면 총리는 시정방침의 제2단계로서 공직 질서를 유지하는데 전력하였고, 특히 세무 관리의 폐해를 일소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 장 총리는 민의 파악의 한 방안으로 총리의 자문기관으로서 산업·사회·학계 등 각계 인사를 망라하여 정책수립에 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정책위원회를 신



부산 정치파동시기 국정쇄신을 위한 군중집회

설하였다. 그리고 신생활운동을 실천에 옮겨 우선 요정 등을 폐쇄하고 유흥도시를 전시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귀금속의 장식을 엄금하며 전시 국민생활 촉진방안을 국무회의에서 결의하였다.

재무부에서는 각도에 감독반을 파견하여 지방재정을 감독하는데 착수하였고, 상공부에서는 지하자원 개발을 목표로 탄광장려금 제도를 계획하였으며, 발전시설 복구를 위하여 사계 기술진을 동원하였다. 세무서에서는 수사반을 파견하여 탈세자 105명을 적발하였으며, 사회부에서는 민간억류자의 석방과 다시 재기할 기회를 열어주도록 요청하였다. 내무부에서는 대전발 목포행 열차의 공비습격 사건에서 사망 46명, 납치 80명을 내게 되었으며 경찰대로 추격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농림부에서는 6월의 이앙기를 앞두고 영농자금 3백억 원을 현찰로 농촌에 방출한다는 조치를 발표하였고, 문교부에서는 전시학생증을 교부하여 병역 기피자를 방지하고 6월부터 학도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미군이 사용중인 학교건물들을 반환 조치하였다. 보건부에서는 위생검찰을 철저히 시행하였으며, 식량대책을 타개하고자 중석불을 이용하여 외국쌀 65만 석을 도입토록 재무부에 요청하여 계속 수입하였다. 이어 미국산 대맥 3만 7백 톤도 7월말까지 전량 입하될 예정이었고, 양곡 34만 석 증산을 계획하여 농지 5만 정보를 개량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에서는 1952년 5월 25일 0시를 기하여 부산시와 경남도 일부 및 전남북도 일부지역에 대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 비상계엄은 이미 전국의 계엄령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선거의 자유분위기를 조성 보장하기 위하여 4월 22일 해제된 상황이었으나, 공비들이 일부지역에 출몰하여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선포된 것이었다. 특히 영남지구계엄사령관에는 원용덕 소장이 임명되어 계엄사령관인 육군 총참모장 이종찬 중장과는 별도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계엄령에 대하여 야당에서는 적극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원외 자유당과 원내 자유당 합동측에서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바로 이때 이범석 장군이 내무부장관으로 5월 25일 취임하였고, 26일 공보처는 국

제 비밀공작에 국회의원 몇 명이 관련되어 공산당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수수하였다는 것과 엄중 조사 중이라는 것을 발표하였으며, 동일 오후 10시에는 관련된 국회의원이 체포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109]

유엔한국위원단에서는 26일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을 방문하고 사태수습책을 촉구하는 한편, 성명서를 보내어 1) 부산시내의 계엄령해제, 2) 구속 중인 전 국회의원 석방 등을 요구하였다. 주한 미국대사 무초는 한국의 긴장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귀국하여 트루먼 대통령과 회견한 다음 29일자 UP 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여 정치파동에 관한 국제적 관심을 촉발시켰다. 이런 가운데 20일에는 서민호 의원이 군법회의로 회부된 동시에 영남지구계엄사령부에서 사건 사유를 진술하였고, 내무부에서는 장면 총리의 비서실장 선우종원이 소위 한국정부 혁신전국지도위원회에서 국체를 변혁하려는 음모사건을 주동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의하면, 동 위원회가 공작비 10억원으로 민국계 중간파를 포섭하고 요인암살을 기도하였으며, 그 죄목으로 10여 명이 검거되었고 거기에 일부 국회의원도 포함되었다고 했다.[110] 이 무렵 각 도의 대표들은 유엔한국위원단을 방문하여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결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6월 3일에는 이 대통령에게 트루먼 대통령의 메시지가 미 대사관을 통해 전달되었다. 그 내용은 한국 사태에 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었다. 영국 정부는 한국사태 조사차 국방상을 수반으로 하는 고관 3명을 파견하여 6일 공로로 출발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한국주재 프랑스 대리대사도 7일에 이 대통령에게 정치파동에 대한 각서를 전달해 왔다. 이로써 정부에서 받은 외국의 각서는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등이었다. 이때 유엔한국위원단에서는 유엔사무총장 리(Trygve Lie)가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하여 한국의 민주발전에 최대관심을 가졌다는 것으로 내용은 정치파동에 대한 유엔의 입장을 명시하였다.

이 권고에 대하여 이 대통령은 성급한 판단은 유감이라고 하여 동 메시지를 반박하였다. 이밖에 세계 각국 특히 미·영·불·일본 등의 잡지와 신문에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박상훈, 박순천, 서민호 의원의 모습

한국정부와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논조가 게재되었다. 이 무렵 영국 국방장관 일행이 한국전선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6월 13일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대장 안내로 내한하여 일선을 시찰한 후 15일에는 이 대통령을 방문하고 한국 정세에 큰 관심을 보였다.

내무부에서는 국체변혁음모사건에 관해 공식 발표하여 25억의 공작비가 드러났다는 사실을 공개하였고, 이로써 더욱 긴장된 가운데 군사재판이 개정되었으며, 서 의원 군사재판은 28일에 14회에서 사형을 구형하는 것으로 결심이 정해졌다.[111] 국회해산을 주장하는 각 도·시·읍·면의 의원들과 민중자결단은 국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신 국회를 조속히 소집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동시에 그 확답을 얻고자 경무대로 운집하였다.

이렇듯 정부는 전시 하에 있어서 정부로서 모든 면에 난관과 애로를 극복해가며 공직기강을 쇄신하고자 했다. 정부는 계엄하의 언론 출판물의 검열제를 동일부터 폐지하고 벽보도 금지하였으며, 민국당 의원 중에는 일부 탈당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피신 의원도 일부 출석하게 되어 점차 안정화하려는 정치정세가 보이고 있었다. 민간억류자의 석방도 29일부터 개시되었으며 30일에는 제15회 정기국회 폐회식에 이 대통령의 치사 중 '정부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관계로 민중의 대표들이 시일의 여유를 주고 고대하고 있으나 아주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이상 더 기다릴 수 없어 며칠내로 석방을 단행할 것이니 사견을 버리고 보조를 같이 할 것'을 요청하였다.[112]

이 무렵 외신은 이 대통령에 대하여 불리하였던 논조가 다소간 호전되었다. 이 무렵 미 상원의원 놀랜드(Noland)가 미 의회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의 최고애국자이며, 공산주의자와 용감히 싸워 온 투사이고, 불리한 정보에만 의거하여 사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하며, 또 한국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발표함으로써 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다소 누그러졌다.[113]

그러나 정부 각 행정부문에 있어서의 동요불안은 여전히 전망을 어둡게 하였다. 전시하의 모든 제약이 크면 클수록 행정면에 있어서의 무계획성과 비효율성은 치명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각료 구성의 문제와 잦은 교체는 모든 행정 분야에 있어 지속적 정책수립과 그 수행에 큰 장애가 되었다. 예컨대 4월에 사직한 장면총리와 9월에 사직한 장택상 총리는 모두 5개월간에 불과한 단명이었고, 그 후 다시 2차에 걸친 총리인준획득 실패에 뒤이어 백두진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실로 7개월간에 달하는 총리직의 공백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내무, 상공, 농림 등 주요부서의 장관직의 잦은 교체는 일관된 행정수행의 책임성과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행정 각 부문은 정치 상층부의 혼란과 정계각파에서 벌어지는 암담한 내분과 암투 등 비관적인 국내정치에도 불구하고 우선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정부는 유엔의 원조를 얻기 위해 외교활동에 전력하였다. 전쟁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산업, 생산, 통신, 도로망 등 사회간접시설을 거의 모두 파괴시켰다. 생산시설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자원과 자본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전쟁으로 인하여 거의 휴면상태인 한국의 생산 분야와 치명적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손실을 입은 공업시설들은 유엔의 원조를 요청하지 않고는 파멸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원조와 지원은 민생안정과 전후복구뿐만 아니라 재건과 개발에 있어 절박한 재원이었다. 동시에 우방국들의 지원은 한국국민들이 전쟁으로 철저히 파괴된 참혹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희망이었다. 국제사회의 원조는 단순한 전쟁구호의 차원을 넘어 한국경제의 복구와 재건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미국과 유엔을 통한 구호와 재건 지원도 유엔군의 이름으로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다. 유엔군은 미국의 경제협조처(ECA)뿐만 아니라 유엔 계통의 한국민간구제단(CRIK),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114], 유엔한국재건단(UNKRA) 등의 기구를 통해 유엔 회원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비회원국 등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였다.[115] 전체 원조액 가운데 유엔을 통해 도입된 원조가 20%를 차지하였고, 유엔 관련 원조에서도 미국 지원 비율이 민간구제단 원조의 경우 97%, 한국재건단(UNKRA) 원조의 경우 66%에 해당하였다. 두 원조의 총액을 계산하면 전체원조액의 약 90%가 미국의 원조였다.[116]

그러나 이 무렵 세계의 관심을 총 집중시킨 가운데 열린 한·일 회담은 일본이 최초부터 2개월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여 하등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연되었다. 회담은 1952년 2월 하순경에 재개되었으나, 그나마 일본이 전 일본인재산권을 주장함으로써 1952년 4월 20일경에는 사실상 결렬되어 더 이상의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117]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 국회의 전시 조치

국회는 1952년의 복잡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전시국가로서 전시입법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행정 및 국내 제반문제에 관하여 심대한 노력과 그 성과를 내었다. 국회는 1951년 12월 20일부터 제10회 정기국회로 들어가 1952년

3월 18일까지 활동하였다. 주로 정부 본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 설치의 정부안 문제로 연기되고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정부개헌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회의원 소환설이 문제가 되어 정부와 오랫동안 설전이 벌어져 예산심의는 부득이 연기되고 회기가 연장되었으나, 정부가 제안한 안건인 국채이자에 관한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어 국회는 1952년 5월 31일부터 제11회 임시국회를 개원하여 12월 19일까지 203일간에 걸친 회기 113회의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국회는 이 기간동안 안건 227건 중 136건을 통과시켰으며 동시에 국정감사와 임시행정의 시정에도 공적을 내었다.[118] 즉 국회는 양원제와 대통령 직선제의 개헌안을 비롯하여 38선 휴전반대, 국민방위군사건, 거창사건, 제5편리호사건, 옥천공비내습사건, 대전 천도안, 후방치안대책, 동선사건, 안두희·한현우사건, 상이군경 및 전몰장병유가족 원호금모집 등 중대 안건을 토의 처리하였으며, 중요한 법안으로서는 지방선거 문제와 임시 토지 취득세법을 비롯하여 근로노동법, 문화보호법, 생활개선법 및 병역법개정안 등 중요 법안을 처리하였다.

한편 1953년도 정부예산안이 책정되어 12월 정기총회 초에 제출되었던 정부 제안보다도 17억 3천7백71만 원 감소되어 통과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예산심의를 완료한 국회는 4월 20일부터 20일간 지방선거감시 및 지방 실정 시찰을 위하여 임시휴회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1951년 11월에 제2대 국무총리로 취임하였던 장면이 4월 22일 돌연 퇴임하여, 동일에 이 대통령은 국회부의장 장택상을 후임으로 지명하였다. 신임 국회의장은 동 24일부터 5월 6일 특별국회를 소집하여 국무총리 인준에 대한 표결을 공고하였고, 국회는 개헌파와 반 개헌파간에 격렬한 공작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장택상의 총리인준을 5월 6일에 95:81로 가결하였다.

그러나 서 의원 사건에 대하여 국회에서는 5월 12일 대정부설전이 벌어져 국회는 정당방위라고 간주하여 석방을 주장하고, 정부에서는 석방할 수 없다는 견해를 주장하여 드디어 국회는 14일 서 의원 석방을 가결하였고 고 서 대위에겐 조의를 표하였다. 국회의 석방가결은 검찰의 항고가 있었으나 헌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시 국회의 모습

제49조에 의하여 19일 서 의원은 석방되었다.[119]

양 개헌안이 공고된 이래 국회내부에는 치열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었다. 원내 각파의 윤곽으로 세력분포는 자유당(합동) 52, 자유당(잔여) 52, 민국당 38, 민우 23, 무소속 18 등이었다. 대통령 후보의 지명은 늦어도 5월내에 이루어져야 6월 중순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를 치룰 수 있는 상황이었다. 5월 23일 국회에서는 검사징계법안을 통과시키고 국고 채무부담 행위안 등을 가결하였으나 반민의 국회의원 타도를 부르짖는 군중은 삐라를 살포하며 중앙청까지 쇄도하였다.

이때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시위대가 특히 서의원에 대하여는 살인 국회의원이라 하고 반민족 국회의원 소환 등을 표방하고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까지 직면하였다. 시위대의 데모가 연일 계속되고 있을 때, 26일 소위 국제비밀자금사건으로 국회의원 몇 명이 체포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국회는 흥분한 가운데 28일 국회에서 재석 139명 중 96:3으로 부산지구의 계엄해산 결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를 하였고 또 구금된 9명의 의원석방 결의까지 나왔으나 보류되었다. 이 같은 국회의 동태는 시위 군중에게 더욱 충격을 주게 되어 각 도시에서는 국회를 규탄한다는 시위가 연발하고 각도의회에서도 국회의 즉시 해산을 요구하는 결의문이 쇄도하였다.[120]

국회의사당 앞에 운집한 지방의원 대표들은 반민의 국회해산 결의를 선포한 후 국회의장에게 해산여부를 힐문하였고, 6월 13일 신 의장은 법에도 없는 국회해산은 불가하다는 요지로 답변하여 긴 설전 끝에 시위 군중을 해산시켰다.

이 같은 정치적 파동에 대하여 유엔한국위원회에서는 26일, 27일 양일간 의회를 소집하고 28일에는 "한국사태의 진전에 대하여 심심한 주의를 하고 있다"는 콤뮤니케를 전달해 왔다. 또 29일에는 김성수 부통령이 장문의 사임서와 함께 국회에 사표를 제출하여 국내정국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하였다. 이어 5월 30일 국회는 구금된 10여 명의 국회의원 석방에 대한 일대 설전 끝에 표결에 부치어 재석 116명 중 82:0으로 석방을 가결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국회 결의에 대해 원내자유당 합동파 의원 52명(세칭 삼우장파)이 6월 2일 의사당에서 퇴장하고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여 국회불참을 표명함으로써 출석의원 50명이라는 기현상으로 국회는 성원미달로 번번이 유회되었다. 다행히 6월 5일 삼우장파 의원 불참 외에는 94명이 출석하여 겨우 성원이 되자 영업세법 중 개정안과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폐기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87:86으로 가결하고 삼우장파 의원에의 출석권고안도 가결하였다.

한편 혼란한 정세 속에서 친목단체로서 구성된 신라회에서 절충개헌안 4원칙을 내걸고 양측에 접근을 시도하였다. 4원칙이란 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2)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하원의원 2/3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으로 하고, 3) 상하원제, 4) 대통령직선제 등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양해하게 되고 국회 내 각파에서도 지역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대체로 지지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무원책임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개헌추진 극단파에서도 일부에서는 호응할 기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신라회는 발췌안을 조건으로 부산지구계엄해제와 구금중의 서 의원 석방을 부대조건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대통령 선거일을 목전에 둔 국회에서는 국내정치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도 대통령선거에 대한 임기만료일자를 시간적으로 연장하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종래의 취임전일인 7월 23일설에 대하여 정부수립일인 8월 15일설을 논의하였다.

6월 21일에는 국회에는 역사적인 양 개헌안의 발췌종합안이 상정되었으나, 민국당계 의원의 불출석으로 성원 123명에 미달되는 것과 대통령 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봉착하였다. 이러던 차에 6·25행사로 25일 충무로광장에서 군중 앞에 이 대통령이 강연할 순서로 등단하였을 때 권총발사사건이 발생하였다.

탄환불발로 대통령 신변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다시 정국은 미궁으로 빠지는 듯했다. 공보처는 범인 유시태 배후에 전 민국당국회의원인 김시현 의원이 있다고 발표하여 의장단의 출석권유는 중지되고 말았다.

결국 6월 30일 정기 제12회 국회는 폐회되고 7월 1일부터 제13회 임시국회가 소집 예고되었다. 국회에는 회기 중 법안 등 90건을 통과하였을 뿐 개헌안을 비롯하여 구금중인 의원 10명에 대한 석방문제 등 기타 해결해야 할 안건이 산적한 채 폐회되어 정치파동은 앞으로 큰 파란을 예고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렇듯 결국 양 개헌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치파동이 전개되어 대통령선거는 예정일인 6월에 실시되지 못하고 대통령임기 문제를 놓고 국회 내에서 민국당 및 무소속의원 대 신라회 및 삼우장파 간에 논전을 거듭하다가 개헌안으로 인하여 7월 23일설이 부결되고 별도로 결정하게 되었다.[121]

국회는 1952년 7월 1일부터 제13회 임시국회를 소집하였다. 이는 소위 개헌안을 위요한 정치파동의 여파로 개회당초로부터 긴박한 형세가 전개되었고, 최후단계에서 급격한 전환으로 마침내 7월 4일에는 정부측 발췌개헌안이 통과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는 물론 민국, 원내자유, 무소속 등 야당세력이 전면적인 타협을 감행함

으로써 이루어진 결과이지만, 여기에 이르는 동안에는 중앙에 쇄도한 지방의 원들이 국회해산운동이라든지 야당측 의원들의 불참석이라든지 야당 등등의 제사태가 계속되어 임시수도 부산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그러나 7월 7일 개정 헌법이 공포되었으며 10일에는 국회정부의장 선거에서 의장에 신익희, 부의장에 조봉암, 윤치영이 당선되었고, 다시 15일에는 정부통령선거법이 통과하였다. 이로써 2개월에 걸친 정치파동의 동요와 불안상태는 대체적인 수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8월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로부터는 정국이 다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자유당을 중심으로 한 여당세력의 확대포섭공작이 활발히 전개되어간 한편 아직도 의회 내 다수 세력을 점하는 야당세력은 당 내부의 정비 강화에 주력해 나간다는 국면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형세는 대정부 공격을 둘러싼 의회 내부의 혼전을 가져왔으며, 특히 이 기간에 걸쳐 정부 실정에 대한 의회의 공격은 종래에 보지 못한 치열한 양상이 지속되었다.

이후 전개된 의회 내의 동향을 보면 정치파동의 극심한 타격을 받아온 야당세력은 자기진영의 정비와 수습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시세를 관망한다는 태세로 들어갔고 야당측에서는 삼우장파, 5·30구락부, 신라회 등 제 분파간의 세력분열을 방지하며 유리한 정세를 이용하여 자기진영의 결속과 확장에 주력한다는 태세를 취하게 되었다. 이어 10월 15일부터 소집된 제14회 임시국회는 추가예산안, 선거법안, 양곡수집계획안 등 여러 중요안건의 처리가 기대되는 가운데 활동을 개시하였는데, 선거법안을 제외한 예정 안건과 이에 추가된 중요 안건의 처리를 완료하고 12월 19일에 폐회하였다.[12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정부의 전재 구호 사업

북한의 피난민들이 월남하게 되자 정부는 아래의 표와 같이 이들을 각 도별로 분산시켰는데, 경기지역에 35만 2,915명으로 가장 많이 수용되었으며, 그 다음이 경남지역 17만 8,862명임을 알 수 있다. 이 무렵 북한 당국은 평양방송을 통해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 주민들을 납치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 북한 피난민들에게 즉시 고향으로 귀환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유엔군에게 즉시 그들을 귀환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군은 피난민의 이동은 본인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였다.[123]

<표 2-1> 이북 피난민 도별 분포상황(1952년 1월)[124]

	총수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총수	889,130	40643	352915	12094	90477	58966	15069	63597	178862	72574	3933
황해	148,511	4459	26414	3535	35255	48730	5828	10864	12552	299	575
평북	51,210	2474	9068	1258	11797	1919	1173	10672	11629	201	1055
평남	80,948	4,215	11500	3012	25600	6989	2363	12729	12705	480	1355
함북	42,671	1158	1355	291	7783	155	1531	10363	16146	3690	199
함남	165,658	1327	2707	590	7362	1173	3501	17821	123684	6918	575
경기 강원	400,132	27010	301871	3408	2680	-	709	1148	2146	60986	17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체 피난민의 규모는 489만 339명으로 파악되었으며 가장 많은 피난민이 집결된 지역은 경북지역, 그 다음으로는 전남, 충북, 경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마련한 피난민 수용소는 707개에 불과하여 2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정부의 수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125] 아래의 표는 전쟁발발부터 1952년 말까지의 피난민 전체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2> 전국 피난민 현황(1952년 12월 31일)[126]

종별 / 도별	총수			이북 피난민			수용별 피난민			수용소 (개)
	남	여	계	남	여	계	수용	비수용	계	
서울	32214	40247	72461	5360	10495	16355	-	72461	72461	-
경기	327562	395812	723374	98697	134348	233045	177638	545736	723374	216
강원	28616	47988	76604	20684	23738	44462	51277	25327	76604	10
충북	57824	69019	126843	6624	7880	13504	23017	103826	128843	23
충남	137264	153888	291152	29973	27554	57527	20163	270989	291152	60
경북	97685	130104	227789	18920	24996	43898	17161	210628	227789	44
경남	171191	171383	342574	75335	84557	159892	51798	290776	342574	220
전북	176149	207004	383153	29562	39320	68882	38955	344198	383153	47
전남	64681	65466	130153	19587	20166	39753	696	129457	130153	21
제주	10073	10742	20815	3694	3804	6998	1286	19529	20815	66
총계	110,3265	1,291,653	2,394,918	308,918	308,918	685,316	381,991	2012,927	2394,918	707

위의 표에 의하면, 1952년도 전체 피난민 수는 약 240만 명에 달하며 이를 지역별로 분류하면 피난민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경기도 지역이었다.[127] 1952년 말의 피난민 숫자는 총 239만 4,918명의 피난민 가운데 북한 피난민은 68만 5,316명에 달하였으며,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피난민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었다.[128]

정부는 국방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자유를 찾아 월남한 북한 동포 및 남한 전재민을 위한 피난민수용소를 설치하여 구호물자 배포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고,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와 지방에 학교건물을 신축 또는 보수하여 피난민 및 이재민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129] 그러나 대규모로 유입되는 피난민을 구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전시 피난인구의 이동으로 인하여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및 강원도 지역인구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급속한 감소를 가져오고 다시 이 피난인구의 유입으로 대구, 부산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남지역의 도시지역 인구의 급증현상을 가져왔다. 이 시기에 남한지역 피난민과 월남민이 집중적으로 유입되었던 부산의 경우 1952년 96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130]

피난민 및 전재민의 구호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전쟁초기의 피난민 구호의 문제점을 교훈으로 하여 본격적인 구호사업에 착수하였다.[131] 구호대책본부의 설립경위에 대해서는 김학묵은 "나는 허정 장관에게 피난민 구호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평시체제의 행정기구를 전시체제로 바꾸고, 둘째, 피난민 행로와 군용도로를 구분해 작전에 지장이 없게 하는 동시 요소에 구호센터를 설치, 셋째, 구호관계 업무를 일원화할 것 등이었다"라고 건의하였다.[132] 장관이 그 건의를 받아들임에 따라 사회부내에 구호대책본부를 설치하였으며, 각 국과를 통합해서 구호반·물자반·후생반·수송반·섭외반·총무반 등으로 개편하였다. 대책본부의 실무책임은 사회부 직원 50여 명 정도가 내무부와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난민수송과 구호를 통제하였으며, 이때 정부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았다.

즉, 구호대상은 노약자나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자를 우선 구호대상으로 하였고, 구호에 관한 일체의 경비와 물자는 원칙적으로 지방행정기구를 통하여 요구대상자에게 분배하였으며, 중앙직배나 단체분배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구호의 책임은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맡도록 하였다. 구호대상자에게는 1일 양곡 3합과 부식비 및 연료비로 50원을 지불하고 그밖에 의료 및 기타 구호물자를 분배하였고, 이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정부예산에서 충당하였다. 양곡은 유엔 구호미를 지급하나 교통사정 등으로 수송이 곤란할 경우 소재지 행정기관 보유양곡으로 충당하며 의료 등 구호물자는 유엔 구호물자가 도착하는 즉시 각도를 통해 지급하였다.

정부는 기존의 건물이나 일반 주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가천막이나 천막확보를 통해 수용인원을 증가시키는데 노력하였으며, 귀향자들을 위해 중간 기착지용 천막도 확보하여 만전을 기하였다. 노유병약자를 위해 우유 등에 대해 무료급식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고 병참보급기지인 대구와 부산 등지로 피난민들이 쇄도해 오자 피난민 소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133]

<표 2-3> 1952년도 피난민 구호상황[134]

피난민 / 도별	피 난 민		
	피난민수	요구호자	구호실시
총수	2,756,394	2,524,930	1,678,163
서울시	50786	39605	30434
경기도	855064	782095	556773
충북	167255	155942	112357
충남	309670	284120	168459
전북	317065	313753	273558
전남	170314	156330	62854
경북	274241	237201	163332
경남	433718	382474	177411
강원	153245	148655	111419
제주	25036	24755	2157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52년 현재 피난민 구호는 위의 표와 같이 경기지역이 55만 6,7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전북, 경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사회부에서는 상이군경에 대한 구호사업으로 동래 온천에 중앙상이군인정양원을 설치하고 1,000명의 상이군인을 수용한데 이어 각도에 지방상이군경정양원 증설계획을 추진하였다.[135] 정부는 또한 1951년 2월부터 1952년 5월까지 부산, 광주, 대전, 전주 등에 전시연합대학을 설치하여 대학생들의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136] 다음의 표는 전쟁기간동안에도 초·중·고등학교 수와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4> 전쟁기간 부산시 초·중·고교와 학생 수[137]

구분 / 연도	초등		중등		고등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1951	33	61,800	22	13,978	16	7,049
1952	39	63,545	25	16,380	20	9,880

전쟁 중 부산인구가 120여만으로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표와 같이 1952년도 학교와 학생 수는 거의 변화가 없어 1·4후퇴 이후 교육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피난민 구호노력에도 불구하고 피난민의 수는 너무도 많았으며 어떤 형태의 질서 있는 수용계획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전국에 얼마나 많은 수가 피난하였는지 정확히 조사되지 못하였으며 그 숫자를 추산하기도 어려웠다. 피난민 수용소는 전선의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장소를 옮겼으며, 전국에 걸쳐 임시피난민 수용소가 긴급 설치되었다. 수용소는 적게는 몇 백 명 많게는 1만여 명 이상의 피난민을 수용하는 대규모 수용소도 있었다. 피난민 대열은 가는 곳마다 어디서나 혼란이 야기되었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피난민 구호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자원 및 예산의 부족, 그리고 피난민 규모의 급증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 유엔에 구호물자를 요청하여 이들이 제공하는 구호물자를 각도별로 피난민에게 제공하였다.

유엔의 구호지원에 대해 구호계장 김원규는 “국제적인 난민구호사업이 계획된 것은 유엔 민사원조처가 생겨 구호양곡과 약품을 지원하였으며, 이때 구호물자는 약 4백만 명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굶거나 얼어죽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138]라고 하여 유엔의 지원을 받아 구호대책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증언하였다. 실제 보고서에 의하면 유엔의 구호품 지원뿐만 아니라 유엔의 전문 고문 파견 등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었다.[139] 유엔에서 지원된 구호물자의 종류는 의류, 신발류,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비누, 모포, 침구류, 면포, 식료품, 바느질용 실, 분유, 광목, 식기, 학용품, 천막, 양말, 융단, 설탕, 재킷, 외투, 크리스마스 선물, 식염, 인쇄용품, 자전거, 침대, 과자류, 사탕, 건빵 등이었다.[140] 전쟁기간 동안 유엔과 미국의 전체 원조규모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5> 1952년도까지 유엔과 미국의 대한원조(단위 : 1,000$)[141]

연도	합계	USA		CRIK		UNKRA
		ECA&SEC	ICA	SUN	SKO	
1950	58,706	49,330	-	9,376	-	-
1951	106,546	31,972	-	74,448	-	126
1952	161,323	3,284	-	10,299	145,235	1,965

위의 표에 의하면, 외국의 구호를 포함한 원조액은 미국의 원조액은 점차 감소되고 유엔의 지원액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쟁고아의 수용도 턱없이 부족하여 전쟁 중 발생한 10만여 명의 고아 가운데 수용소에서 구호를 받고 있는 수는 1만 300여 명이고 9만여 명이 고초를 겪고 있었다. 당시 학교에 등록된 일반 아동들도 70~80%가 결식아동이었다.[142] 잠정 분계선문제가 시행되던 시기인 1952년 초 전 전선부근의 86만 7,000명의 주민에 대한 구호문제가 시급하였다. 그중 16만 명분의 구호품만이 준비될 수 있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식량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143]

당시 국회 대정부 질문에 의하면, “피난민 월동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부는 연간 전 피난민에 대한 구호양곡으로 280만 석(1억 8백만 불 상당)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한된 원조자금 중 이와 같이 막대한 액수를 식량으로 소비함으로써 결과 되는 생산시설 복구사업이 차질을 우려하는 유엔의 난색 표명으로 금년 피난민 율동 대책에 대해서는 원만한 결말을 짓지 못하고 있다”[144]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유엔에서 지원된 원조자금이 피난구호책보다 생산시설복구에 비중을 두게 되어 발생한 측면이 많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5 절 분석 및 평가

1. 국내외 정세

1952년의 전반적인 형세는 국제적인 면에 있어서나 국내적인 면에 있어서나 지나간 2년간의 그 어느 때보다도 일층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정세였다. 때마침 유엔군은 수풍, 장진 등의 여러 발전소를 위시한 한만(韓滿) 국경의 적 중요시설에 결정적인 대공습을 단행하여 근 1년이란 시일을 공연히 지연시킨 적의 휴전전략에 대하여 일대 경고를 발하였고,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민의 여론은 대공투쟁에 있어서 자유진영의 과감한 공세를 요망하는 자신만만한 적극성을 명시하고 있었다.

1952년에 접어들어 더욱 활발하게 된 자유진영의 결속태세 강화는 실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오랫동안에 걸쳐 방치되어온 극동지역의 진공상태가 태평양 각국을 망라한 집단방위태세에 대한 발전에까지 성숙되고, 또 유럽에 있어서의 무방비상태가 북대서양동맹의 태세 강화와 유럽방위군 창설에 대한 단계로 이행되었다. 이와 같은 전반적 정세발전의 양상은 '대소 포위망'의 결정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과업이 바야흐로 최종 성숙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의미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아이젠하워 신임 대통령이 미국 대외정책수립에 있어 일대 전환을 결의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추세였으며, 특히 소련의 침략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보복조치를 선언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한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높여주었다.

이에 더하여 소련세력의 위축상은 시일이 경과될수록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과거 그들의 세력 확장에 있어서 최대의 무기로 되어왔던 선전과 조직의 힘은 자유진영의 결속을 뚫고 침투하는 힘을 나날이 상실하였다. 오히려 그들은 자유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계 도처에서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었으며, 내부의 저항과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방도는 무력에 의한 위협과 침략의 길밖에 없었던 것이나, 이 역시 나날이 강화되는 포위망의 압력과 이를 떠받치는 미국의 거대한 생산기반에 그 무력함을 드러내었다.

한편 1952년도 국내 정세는 부산정치파동과 대통령선거로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었다. 동년 4월 25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자유당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여론이 점차 정부를 지지하는 쪽으로 유도되었으나, 여전히 야당세가 강한 국회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방식과 정체의 변경에 대하여 대정부 강경도로 나감으로써 대립의 양상이 한층 첨예화되었다.

여당인 자유당과 정부는 전년부터 현 대통령중심제를 견지하되 선거에 있어서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하도록 하며 국회도 양원제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반하여 야당인 민국당계에서는 이른바 내각책임제인 국무원 책임제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국회 내에서 많은 논란이 일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인플레로 말미암은 물가고마저 겹쳐 국회에서 안정 세력을 얻지 못한 정부는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선거를 고비로 하여 2개월 동안이나 혼란상환을 거듭한 정국은 수습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 차츰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국정의 혼란과 아울러 경제 분야에서도 어려움이 가시지 않았다. 정부는 지금까지 경제문제로 지적된 무원칙성과 무계획성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관련 정부부서와 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재에 의한 파괴와 전비의 과중한 부담으로 말미암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당시 외국의 구호비는 5억 9백여만 달러에 달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주로 시급한 경제문제에 대한 미봉책으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국가경제와 기본적인 재건부흥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 사이에 나타난 여러 곤란한 문제 중 가장 국민생활을 위협하게 된 것은 통화팽창 문제였다. 그러므로 인플레와 통화팽창의 문제는 전쟁 전 기간을 통하여 해소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전선의 상황

양측의 임시군사분계선 설정 합의기간이 끝난 1952년 1월 이후 전선에서의 대치상황은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적의 침투 방지에 주력하고 있는 양상이었다. 공산군은 주로 전선 산악지대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겉으로 정전을 표방하면서 계속 막대한 병력과 군수품을 비축하고 특히 다량의 포병을 투입시켜 소규모 혹은 대규모로 아군의 방어선을 침투 돌파하려 시도하였다. 이에 대해 국군과 유엔군은 주로 적의 병력과 장비를 소모시키는 작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적의 침투방지와 전력소모를 위해서는 공중활동에 의하여 적의 후방에 있는 군사기지와 그 전선에 대한 수송보급을 폭격하는 것도 필요했지만, 또한 정전회담장에서 그들의 오만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전략적인 중요고지를 쟁탈 또는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양측은 휴전 회담장에서는 서로 유리한 휴전조건을 쟁취하려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주시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울러 양측은 전초 엄호부대 사이의 빈번한 탐색전과 소규모 전초진지 전투를 통하여 상호 접촉을 유지하였다. 이로 인해 지상에서의 상황은 아군이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가운데 새로운 대진의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후 진지를 강화하고 그 전진진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공세방어를 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군과 유엔군은 1952년 6월초부터 제한적인 공격작전을 개시하기 시작하였다.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 지역에서 소규모 제한공격인 소위 카운터 작전(Op. Counter)을 실시하여 미 제45사단이 진지정면의 주요 감제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공산군의 전초들을 탈취한 후 아군의 방어진지를 강화하였다. 그 작전의 결과 국군과 유엔군은 역곡천 북안의 백마(White Horse)고지(395), 화살머리(Arrowhead)고지(281), 티본(T-Bone)고지(290)와 역곡천 남안쪽 포크찹(Porkchop)고지(255), 불모(Old Baldy)고지(266) 등 11개 목표를 장악하여 전초진지를 강화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였으며, 이로써 차후 보다 유리한 지형에서 적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공산군의 역습이 시작됨에 따라 중요 전초에서의 쟁탈전이 계속되었고 이어 그것이 확대되어 전 전선에 걸쳐 전초진지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9월부터 전황은 급격히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전 전선에서 소규모 전초진지전이나 수색정찰전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때부터 공산군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여 고지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산군은 휴전회담이 결렬되자 약 2개월에 걸쳐 주로 중부 산악지대의 한국군 방어 정면을 목표로 한 공세작전을 전개하였다. 공산군은 여기에 대하여 4만 3천여 발에 달하는 기록적인 포격과 더불어 공격을 개시하였다. 마침내 이곳을 방어하던 아군 수도사단과의 사이에 9월 중 일진일퇴의 쟁탈전이 전개되었다.

이 공세에서 공산군은 먼저 수도고지를 목표로 작전을 개시하였으나, 막대한 희생과 손실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좌절되자, 10월에 들어가서는 다시 중부전선의 백마·삼각·저격능선으로 공격목표를 변경하여 공격하였다. 철의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전투는 고지쟁탈전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투입한 대규모 작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전투는 대체로 피아간에 주진지의 변동이 없는 가운데 보다 유리한 전초진지를 장악하여 각기 방어태세를 강화하려는데 주안이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전력 증강 상황

중공군과 북한군은 전선이 교착된 상황과 임시군사분계선 설정기간을 이용하여 군사력을 나날이 증강시키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적 병력 규모는 회담이 개시된 이래 10개월 동안에 거의 두 배로 증강되었고, 이는 적이 회담기간을 이용하여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공산군은 병력뿐만 아니라 화력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특히 공산군의 포병화력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 외 전차 및 자주포 등을 갖춘 기계화사단을 전선에 증강 배치하였다. 마찬가지로 적의 공군력에도 유사한 변화가 진행되어 총 500기로부터 1,250기로 대폭 강화되고 있었다.

이외에 공산군은 군수문제도 크게 개선시키고 있었다. 공산군의 군수상황은 그동안의 유엔 해·공군의 타격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이 한국전선에 투입된 이래 어느 때보다 더 양호해지고 있었다. 북한군에 충당되고 있던 모든 보급품은 소련·중공·동독·몽고·헝가리 등 공산위성국가로부터 지원되고 있었다. 연료 역시 충분치는 않았지만 소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급을 받고 있었다. 대체로 적 병력의 주부식은 1일 1인당 800~1,000g 정도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며, 적이 주요 지상작전을 전개할 경우 5~10일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정도의 보급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휴전회담의 교착 상황은 공산군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었다. 국군과 유엔군 역시 그 기간을 활용하여 국군의 전력을 대폭 증강시켰다. 국군이 종래의 10개 사단의 한계를 깨고 20개 사단으로 증편하려는 계획을 마련하여 미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다.

한·미 양 정부는 국군 육군의 병력수준을 25만 명에서 46만 3,000명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사단을 증편하기 시작하였다. 육군본부는 국군의 증강 안에 따라 10월말 제12, 제15 2개 사단과 6개 독립연대의 창설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제12사단과 3개 독립연대(제53·제55·제56연대)는 12월 말 작전에 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15사단과 나머지 3개 연대(제57·제58·제59연대)는 늦어도 이듬해 1월말까지 전선투입의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 무렵 한국 공군은 4천의 병력과 F-51 무스탕 17대, 기타 경(輕) 정찰수송기 및 훈련기 29대를 보유하였으며, 해군은 1만 6천의 병력과 50여 척의 정찰정 소해정 상륙용 주정을 보유하였다. 해병대도 '52년 10월 1일 제1연대와 지원부대를 통합하여 해병 제1연대 전투단을 창설하고 도서부대를 꾸준히 발전시켜 연대규모로 증강하였다.

한편 보병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포병도 괄목할 성장을 보였다. 금년에 접어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어 미 합참은 5월 27일 사단당 105mm 3개 대대와 155mm 1개 대대의 완전편제를 갖추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은 이미 지난해 창설을 본 바 있는 4개의 155mm 독립포병대대(제96·제97·제98·제99대대)에 이어, 6월 16일 4개 대대(제91·제92·제93·제95대대)를 증편하였으며 1월부터 2개의 105mm대대로 구성되는 포병단의 창설에 박차를 가하여 12월 말까지 10개의 포병단(제1·제2·제3·제5·제6·제7·제8·제9·제10·제11·제12·제15포병단)을 창설하였다. 이밖에 육군본부는 전차부대도 1951년 2개 전차중대에서 1952년에 6개 전차중대로 증강하였다.

그동안 국군의 발전은 실로 눈부신 변화가 있었다. 전방 실전에서 소모된 병력도 많았지만 거기서 단련된 국군의 정예 병력은 평시의 수십 년 훈련받은 수준 이상이었다. 특히 그동안 국군의 편제는 더욱 정비되고 전선의 담당분야도 태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후방에 있어서의 훈련과 교육은 더욱 그 내용을 충실히 하게 되었다. 신병의 정규훈련 일선부대의 재훈련 간부급의 재교육 재훈련 또해·공군의 육성, 미식제도에 의한 육군사관학교 및 대학교의 창설, 보병학교 및 해·공군사관학교의 내용충실, 기타 보급행정 계통의 발전상을 보게 되었다. 또 장교 중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미국유학을 파견하여 각기 전문에 따라 단기강습과 훈련을 받고 돌아오게 하는 등 국군의 발전이 일취월장하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양측의 전쟁지도

1) 공산군의 전쟁지도

공산군은 유엔군이 제시한 휴전조건을 거부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차후 공세를 위한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었다. 공산군의 전쟁지도 체계는 스탈린이 전쟁의 주요사안에 대해 직접 관여하면서도 겉으로는 자문형식을 취하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중국의 마오쩌둥이 스탈린의 자문 및 지도를 받아가며 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었다.

공산군은 교착된 전선에서 작전보다도 진지강화와 부대정비에 전력하고 있었으며, 전초 엄호부대 사이의 빈번한 탐색전과 소규모 전초진지 전투를 통하여 상호 접촉을 유지하였다. 이로 인해 지상에서의 상황은 아군이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가운데 새로운 대진의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후 진지를 강화하고 그 전진진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공세방어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산군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유엔군의 공중공격에 대하여 지상부대로써 보복을 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적의 공격방향은 전선이 주로 북으로 돌출된 중부전선 상 수도고지 및 지형능선·백마고지·저격능선 등에 집중되고 있었다.

공산군의 작전기도는 휴전회담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 유엔군의 군사작전에 대응하려는데 있었다. 특히 중부전선에 있어서의 주요 전략요충을 점령하여 아군의 주저항선을 제압함과 동시에 차기 대공세를 위하여 유리한 신진지를 구축하려는 기도였다. 적은 이러한 기도를 달성시키고자 국군 제2군단 및 미 제9군단 정면에 잘 훈련된 사기왕성한 정예부대를 투입하였으며 특히 저격능선에는 4개 사단 병력을 배치하여 철의 삼각지대상의 아군 주저항선을 엿보고 있었다.

공산군은 이와 아울러 주요 전략목표에 대한 유엔군의 공중공격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평양근교와 압록강주변에 유엔군 포로수용소를 배치해 놓고 있었다. 또한 공산군은 포로수용소에서의 충돌사건을 유엔군이 야기한 사건이라 비난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유엔군과 한국정부의 전쟁지도

(1) 유엔군의 전쟁지도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대장은 1952년 2월 전 전선에 걸쳐 일련의 제한적인 춘계 진격계획을 수립하여 유엔군사령관에 건의하였지만, 그 건의는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대장에 의해 그때마다 반대에 부딪혔다. 동년 5월 12일에 신임 유엔군사령관인 클라크 장군 역시 현 전선의 상황과 휴전회담의 전개 양상에 비추어

대규모 지상작전 계획은 반대의 입장이었다.

클라크 장군은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에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적 압력뿐'이라는 전략 하에 상대적으로 아군의 피해가 적게 발생하는 공중공격을 대대적으로 감행하도록 강조하였다. 그는 지상에서의 작전은 정찰전이나 탐색전 그리고 적의 침투 저지 정도로 제한하고 대규모의 공중폭격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유엔군은 동년 6월 23일부터 수풍댐과 발전소 및 평양근교의 군사목표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고, 그것은 군사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즉 공산군이 휴전회담을 지연시키거나 폐기할 경우 중국본토에 대한 폭격도 불사하겠다는 경고였다.

한편 휴전회담에 관하여 클라크 장군은 공산군이 포로 숫자 문제를 끌어들였다고 지적하고 유엔군 대표단이 송환 포로와 한국에서 석방할 포로의 수에 대한 수정된 숫자를 제시하도록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 숫자는 총 12만 1,000명으로서 최종 심사결과 송환자 8만 2,900명(북한인 7만 6,500명, 중공인 6,400명)과 전쟁 전 남한주민 38,100명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 11,700명은 전쟁포로이고 나머지 2만 6,400명은 이미 석방된 민간인 억류자였다. 클라크 장군은 유엔군 포로도 비슷한 분류로 요구할 예정이었다.

유엔군은 포로교환문제로 인한 교착상태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진전 없이 설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쌍방의 냉전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었으며 휴회도 전과 같이 서로의 제안과 양해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휴회를 선언하고 퇴장해 버리는 양상이었다. 이렇듯 판문점회담은 유엔군과 공산군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로 포로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무용한 논쟁을 거듭함으로써 회담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1952년 전투양상은 전년과 대차 없이 몇 개의 한정된 요충에 대한 쟁탈만을 반복하는 양상이었다.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수차례 제한공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그는 소위 촙스틱16 계획인 국군 제1군단으로 하여금 남강하구(고성)까지 진격하게 함으로써 전선을 남강선으로 획정 짓게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간신히 허락을 받았다. 그것도 판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점에서 이른바 일괄타결안이 제시되어 새로운 협상 분위기에 자극을 피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무기한 연기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동년 4월의 마지막 시도도 끝내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써 탁상의 논쟁이 전선의 쟁탈에 앞선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다. 밴플리트 장군은 회담이 공전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전선 역시 피아 가벼운 탐색전으로 일관되자, 이 기간을 이용하여 전선의 방어진지 개선에 주력하여 현재 진지의 결함을 다각도로 보완한 다음, 새로운 작전을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대장은 적을 격퇴할 수 있는 방법이란 오직 적이 그들의 진지에서 나와 공격을 감행할 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는 적이 공격하기를 기다릴 것을 강조하였고 아군이 선제로 공격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유엔군사령관은 전선을 변경시킬 정도의 대규모 작전은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의 판단은 미국의 정치·군사지도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이리하여 그 이후의 전쟁기간 동안에도 유엔군사령부는 지상작전을 계속 제한하게 되었다.

이에 미 제8군사령관은 당면한 전술적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었다. 제8군은 동년 6월 하순부터 국군 군단(제5, 수도, 제1사단 및 제1해병연대)에서 추출한 대대규모의 특임부대로써 각각 그 정면의 적진을 공격하여 진지의 파괴와 포로의 획득에 주력하였다. 이어 9월에 접어들어 공산군이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을 탈취하고자 중공군이 공격을 개시하고, 9월 말에 독수리 및 피의 고지, 그리고 A, B고지 등 추계공세를 개시하면서 유엔군은 수세로 몰리게 되었다.

이에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대장은 동년 10월 5일에 미 제9군단 정면에서 김화부근의 현 방어선을 개선하기 위한 제한된 공격계획(Op. Showdown)을 수립하여 클라크 대장에 제출하고 이의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아군은 이와 같은 추계공세를 맞아 이를 격퇴하는 한편, 쇼다운 작전계획대로 미 제9군단의 제2, 제7사단으로 저격능선과 삼각고지를 목표로 하는 공격을 준비하였다. 먼저 방어전에서는 백마고지에서 중공군 1개군에 섬멸적인 타격을 가하여 물리치는 대첩을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년 10월 14일을 기하여 저격능선과 삼각고지를 공격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의 공격전에서는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11월 5일까지 무려 42일간이나 지지부진하게 계속된 전황 끝에 제2사단의 저격능선만을 확보한 가운데 작전을 종료하였다.

결과적으로 방어전인 백마고지 전투는 일찍이 클라크 대장이 기대한 것처럼 대표적인 것이었고, 반면에 공격적인 저격능선 전투는 그가 우려한 대표적인 전투가 되었다. 이 두 전투의 공통점은 중공군이 일정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병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과 방자에게 유리한 계획이었다는 것이었다.

⑵ 한국정부의 전시조치

한국정부는 전선 국면의 타결과 전재복구 및 구호를 위한 전시조치 마련에 전력하였다. 먼저 정부는 매일같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미가로 인하여 민생고가 격심해가므로 동년 5월 8일 미곡조절의 긴급대책으로서 정부보유미 20만 석을 방출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했다. 아울러 전시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한·미 경제회담을 개최하여 동년 4월 24일 한·미 협정을 조인하였다. 이때 합의된 내용은 유엔군의 대여금은 미화 약 8천만 달러였고 그 중 이미 1천 2백만 달러는 청산되었고 나머지는 6천:1로 기한부로 조속히 청산하되 우선 반액은 현금으로 상환하는데 합의하게 되어 인플레를 억제하는데 기여하였다.

정부는 지방자치제에 수반되는 지방선거에 전력을 기울여 자유스런 분위기의 보장과 선거감시 문제 등을 위해 동년 4월 25일 31개 군에 대한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장면 총리는 시정방침의 제2단계로 공직 질서를 유지하는데 전력하였고, 특히 세무 관리의 폐해를 일소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 장총리는 민의파악의 한 방안으로 총리의 자문기관으로서 산업·사회·학계 등 각계 인사를 망라하여 정책수립에 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정책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신생활운동을 실천에 옮기어 우선 요정 등을 폐쇄하고 유흥도시를 전시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귀금속의 장신을 엄금하며 전시 국민생활 촉진안을 국무회의에서 결의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부는 유엔의 원조를 위해 외교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교섭하였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원조와 지원이 확대되었고, 그것은 민생안정과 전후복구뿐만 아니라 재건과 개발에 있어 중요한 재원이었다. 국제사회의 원조는 단순한 전쟁구호의 차원을 넘어 한국경제의 복구와 재건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미국과 유엔을 통한 구호와 재건 지원도 유엔군의 이름으로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다. 전체 원조액 가운데 유엔을 통해 도입된 원조가 대체로 20%를 차지하였고, 유엔 관련 원조에서도 미국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민간구제단 원조의 경우 97%, 한국재건단(UNKRA) 원조의 경우 66%를 점하였다. 두 원조의 총액을 계산하면 미국이 원조한 것이 전체원조액의 약 90%에 달하였다.

반면 한·일간의 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최된 한·일 회담은 세계의 관심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으나 처음부터 지지부진하였다. 일본이 2개월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회담은 동년 2월 하순경에 다시 재개되었으나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더구나 일본이 이전의 일본인 재산권을 주장하고 나옴으로써 동년 4월 20일경 사실상 결렬되고 말았다.

(집필 : 양영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註)

1) 1952년도 국내외 정세에 관한 내용은 국방부,『한국전란2년지』, 국방부, 1953 및 국방부,『한국전란3년지』, 국방부, 1954 등의 자료를 기초로 재정리하였다.

2) 국방부,『한국전란3년지』, A7쪽.

3) 위의 책, A44쪽.

4) 위의 책, A58쪽.

5) 위의 책, A58쪽.

6) 위의 책, A58~59쪽.

7) 슈망(R. Schman)은 프랑스 외무장관이었으며 유럽공동체 결속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1950는 7월 유럽공동 석탄철강공동체를 제안한 바 있다.

8) 국방부,『한국전란3년지』, A7쪽.

9) 위의 책, A44쪽. 이때의 지방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읍 의원을 뽑는 역사적인 총선거였으며, 1952년 2월 5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어 4월 25일 수복된 전 지역에 걸쳐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자유당이 45%, 무소속이 30%, 국민회, 한청, 민국당, 노총의 순위였다.

10) 위의 책, A46쪽.

11) 비민국계 의원들은 1952년 5월 20일 친목기관으로서 신라회의 발족을 표명하고 45명의 의원을 규합하였다. 위의 책, A38쪽.

12)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8권, 국방부, 1975, 31. 대상금이란 원래 국고금이 부족할 때 중앙은행이 정부에 빌려주는 돈이다. 유엔 대상금은 한국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간의 협의에 따라 우리 정부가 매월 유엔군에 대여하던 원화이다.

13)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7권, 국방부, 1974, 479쪽.

14) 전선별 부대배치 상황에 관해서는 국방부,『한국전쟁사』제8권 내용을 기초로 재정리하였다.

15) 1952년 6월 29일부로 켄달(Paul W. Kendall) 중장으로 바뀌었다.

16) 국방부,『한국전쟁사』제8권, 15쪽.

17)「국군 정기 정보보고」제198호(1952년 7월 16일); 전략문제연구소(역),『중공군의 한국전쟁사 : 항미원조전사』, 1991, 세경사, 75~76쪽.

18) 육군본부,『육군전사』제7권, 1~2쪽.

19) 육군본부,『육군전사』제7권, 2쪽; FEC G-2,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Section 5, 1952(Unpublished), p.43.

20)「국군 정기 정보보고」제185호(1952년 7월 3일 17:00).

21) 육군본부,「정기작전보고」제55호(1952년 7월 16일).

22) 육군본부,『육군전사』제7권, 1957, 육군본부, 6쪽.

23) 국방부,『한국전쟁사』제8권, 13. 미 제3사단은 동일부로 미 제9군단으로 배속 변경되었다.

24) 위의 책, 16쪽.

25) 위의 책, 16~17쪽.

26) 이때 미 제3사단은 제5연대 전투훈련단으로 훈련 및 부대정비에 들어갔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7) 위의 책, 17쪽.

28)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8권, 15쪽.

29) 위의 책, 14쪽.

30) 위의 책, 14쪽.

31) 수풍발전소는 만주에 있던 공산군의 전쟁기지에 많은 전력을 공급하는 곳으로 이 댐과 6기의 발전기는 극동 최대의 것이었다. 그러나 유엔군은 그 위치가 한만(韓滿) 경계선에 근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1952년 6월 23일까지 항공폭격을 보류하고 있었다.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New York: haper & Brothers, 1954), pp.71~72.

32)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18쪽.

33) 위의 책, 18~19쪽.

34)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 pp.72~73.

35) 국방부, 『한국전란3년지』, A9쪽.

36)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전광인쇄, 2005, 396~397쪽; 전략문제연구소(역), 『항미원조전사』, 221~222쪽; 군사편찬연구소(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2권, 242쪽.

37)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259쪽.

38) 「김일성이 스탈린에게」(1952.12.29.), 외무부 역, 『소련비밀외교문서』 제4권(미간행), 172쪽;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397쪽.

39) Matthew B. Ridgway, *The Korean War*(New York: Doubleday, 1967), p.218.

40) 국방부, 『한국전란3년지』, A8쪽.

41)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서라벌, 1989, 238쪽.

42) 육군본부, 『육군전사』 제7집, 1~2쪽.

43)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1952.7.18.12:00), 외무부 역, 『소련비밀외교문서』 제4권, 158쪽.

44)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75~276쪽;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254쪽.

45) 「김일성이 스탈린에게」(1952.12.29.), 외무부 역, 『소련비밀외교문서』 제4권, 172~173쪽.

46) 육군본부, 『육군전사』 제7권, 1~2쪽.

47)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335~336쪽. 1952년 7월초 유엔군의 지상부대는 지원부대를 갖춘 6개의 미 육군 사단과 1개 미 해병 사단 등 25만 9,400명의 미군, 국군 10개 사단 약 25만 명, 기타 유엔회원국 지원부대 23개 대대 3만 3,700명으로 구성되었다.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동참모본부사』(하), 255쪽.

48) 위의 책, 214쪽.

49)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259~260쪽.

50)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동참모본부사』(하), 214쪽.

51) *US News and World Report*. 1952.3.28.

52)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동참모본부사』(하), 214~215쪽.

53) 위의 책, 344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4) 위의 책, 344쪽.

55)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22쪽.

56)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동참모본부사』(하), 261쪽.

57)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22. 카투사의 총인원은, 1952년 9월 26일 미 국방장관에게 보낸 합참 각서에 따르면, 그 계획이 시작된 이래 매월 평균 약 13,000명이었다.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동참모본부사』(하), 555쪽.

58) 위의 책, 555쪽.

59)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동참모본부사』(하), 265. 국군 확장계획은 미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으나 미 의회가 미 육군이 국군에게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통보받아 왔으며, 국군에 제공된 장비의 보충을 포함하여 미 육군을 위한 자금요청을 승인한 만큼, 암묵적으로 그 계획을 승인하였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같은 책, 557쪽.

60)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요약』, 74쪽.

61)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동참모본부사』(하), 220쪽. 공군은 1952년 6월 18일 제2정찰비행전대를 해체하고 조종사의 훈련업무를 전담할 제15교육비행전대를 창설하였다.

62) 위의 책, 83쪽.

63) 국군 제12사단 제37·제51·제52연대와 국군 제15사단 제38·제39·제50연대「국본 일반명령」제207호(1952.11.8).

64) 국방부,「국본 일반명령」제207호(1952.11.8)

65)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23쪽.

66) 위의 책, 22~23쪽.

67)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제2집, 336쪽.

68)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동참모본부사』(하), 339쪽.

69) 미군은 105mm 3개 대대와 155mm 1개 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70) 리지웨이 대장이 국군에도 사단당 105밀리 3개 대대와 155밀리 1개 대대의 완전 편제를 갖추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르는 포병확장계획을 육군부에 제출하였으며, 이 계획은 그가 유엔군사령관직을 떠난 다음인 5월 27일에 승인되었다.

71) 육군본부, 『병과별 부대역사』, 1959, 육군본부, 76쪽.

72) 위의 책, 47~48쪽.

73) 위의 책, 60쪽.

74) 국방부, 『한국전란3년지』, A57쪽.

75) 위의 책, A58쪽.

76) 군사편찬연구소(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군인공제회, 2001, 9쪽.

77) 외무부 역, 『한국전쟁관련 소련극비외교문서』 3, 133~146쪽; 아나톨리 토르쿠노프 저, 구종서 역,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에디터, 2003, 269~306쪽.

78) 중국군사과학원군사역사연구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5, 569~572쪽;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中共軍의 한국전쟁사 : 抗美援朝戰史』, 세경사, 1991, 348~353쪽.

79)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中共軍의 韓國戰爭史 : 抗美援朝戰史』, 348~353쪽.
80)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7권, 1974, 479쪽.
81)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9~20쪽.
82)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1952.7.16.12:00), 『소련비밀외교문서』 제4권, 157쪽.
83) 위의 책;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비밀전문에 의하면, "이 무렵 육군부대들의 군사행동 시적에게 군사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 몇몇 전선에게 국지전적인 공격을 병행하는 것이 긴요하다고"하였다.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1952.7.16.12:00), 『소련비밀외교문서』 제4권, 158쪽.
84) 전사편찬위원회, 『미 합동참모본부사』(하), 273쪽.
85) 위의 책, 274~275쪽.
86) 위의 책, 274~275쪽.
87) 위의 책, 275쪽.
88)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동참모본부사』(하), 256쪽.
89) 위의 책, 256쪽.
90) 위의 책, 256쪽.
91) 양대현, 『역사의 증언 휴전회담 비사』, 형설출판사, 1993, 252쪽.
92) 위의 책, 253쪽.
93) 위의 책, 253쪽.
94)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동참모본부사』(하), 281쪽.
95) 위의 책, 281~282쪽.
96) 위의 책, 281~282쪽.
97) 위의 책, 282쪽.
98) 이원복, 『전쟁과 협상』(하), 대림기획, 1989, 28쪽.
99)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1952.7.15.03:00), 『소련비밀외교문서』 제4권, 157쪽.
100) 양대현, 『역사의 증언 휴전회담 비사』, 269쪽.
101)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9쪽.
102) 위의 책, 9쪽.
103) *US News & World Report*, 28th Mar, 1952.
104)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35쪽.
105)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12쪽.
106)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12쪽.
107) 국방부, 『한국전란3년지』, A34~A35쪽.
108) 위의 책, A35쪽. 중석불 사건은 정부가 중석(텅스텐)을 외국에 수출하여 획득한 달러(중석불)를 민간 기업에 싼 값에 매각하여 비료와 밀가루를 들여오게 한 뒤 이를 농민에게 비싼 값으로 팔은 사건이었다.
109) 위의 책, A35쪽.
110) 위의 책, A36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11) 서민호 의원 사건은 1952년 5월 6일 서의원이 지방선거시찰차 전남 순천에 도착하여 지방 유지들과 주연을 시작하였을 때, 오후 9시 30분경 현역군인 육군대위 서창선과 격투가 벌어져 보신용 권총으로 서 대위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112) 위의 책, A37쪽.

113) 위의 책, A40쪽.

114) UNCACK(UN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는 전쟁 당시 '유엔민사처'로 주로 호칭되었다.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한국통일부흥위원단보고서』, 1965, 88쪽; 국방부,『한국전란2년지』, C459쪽.

115) 외무부,『한국외교 30년』, 1979, 140쪽.

116) 예종영,「한국전쟁과 국제경제기구 : 미국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강성학 편,『유엔과 한국전쟁』, 리북, 2004, 164~165쪽.

117) 1951년 9월 1일부터 홍콩에서 개최된 대일강화회의에는 한국측 정식대표도 이에 참가할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며 태평양동맹 결성을 주장하여 한국의 입장을 누차에 걸쳐 천명한 바 있다.

118) 위의 책, A37쪽.

119) 위의 책, A38쪽.

120) 위의 책, A39쪽.

121) 위의 책, A40쪽.

122) 위의 책. A46쪽.

123)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2.2.20일자)(1952.7.6일자).

124) 공보처통계국,『대한민국통계년감』, 1952, 295~296쪽.

125)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후방지원사』, 555쪽.

126) 국방부,『한국전란3년지』, D7쪽.

127) 김운태,『해방30년사』, 성문각, 1976, 63쪽.

128) 강광식,「전쟁과 남북한 사회와 문화」, 전쟁기념사업회,『한국전쟁사』제6권, 280쪽.

129) 국방부,『한국전란1년지』, A29~30쪽.

130) 강광식,「전쟁과 남북한 사회와 문화」, 260쪽.

131) 국방부,『한국전란1년지』, D34; *CIA DAILY REPORT KOREAN ULLETIN*(1951.3.20일자). 사회부장관이 남한 내 피난민을 총 5,757,000명으로 집계하였다.

132)「피난민 구호대책본부 직원 김학묵 증언」, 부산일보사,『임시수도 천일』, 부산일보, 1984, 318쪽.

133) 국방부,『한국전란1년지』, D32, D38쪽.

134) 공보처통계국,『대한민국 통계년감』, 공보처, 1952, 293~294쪽.

135) 국방부,『한국전란1년지』, A79~80쪽. 1951년 1월 현재 수용소에 수용된 피난민 수는 65만 명이었고 이들에게 지출된 구호비는 56억 원 정도의 규모였다.

136) 국방부,『한국전란2년지』, C206~207쪽.

137) 부사직할시교육위원회,『부산교육사』, 1987, 206~209쪽.

138)「피난민 구호대책본부 구호계장 김원규 증언」, 부산일보사,『임시수도 천일』, 320~321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39)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1.2.9일자), 피난민문제의 유엔 고문들은 구호품이 속속 도착하여 동년 11월 이후부터 혁신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사회부장관도 파괴된 건물과 가옥을 수리하기 위해 구호품 할당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개의 보수센터에 2,868명의 기술자를 확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같은 자료(1951.10.17일자).

140) 국방부, 『한국전란2년지』, C206~207쪽.

141) 이대근, 『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자본축적』, 까치, 1987, 141~142쪽.

142) 대한민국 국회, 『국회사』, 548쪽.

143)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1.12.11일자).

144) 대한민국 국회, 『국회사』, 615;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1.10.25일자). 서울과 주변지역의 식량, 의류, 피난처 문제가 심각하며 식량은 약 30% 정도만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장 휴전협상의 정체와 결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절	협상 개요
제 2 절	휴전 세부사항 협상
제 3 절	포로교환 협상
제 4 절	일괄타결 모색과 무기휴회
제 5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협상 개요

1952년 초 휴전회담이 시작된 지 약 6개월이 지났으나 실질적인 의제 4개 항목 중에서 일단 타결된 것은 제2의제인 '군사분계선 문제'뿐이었고, 이것마저도 30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15일간의 연장을 제의하기는 했으나 이미 마감기한이 끝나고 말았다. 제3의제 '휴전 세부사항 문제'와 제4의제 '포로교환 문제'도 논의 중이었으나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다.

동년 3월에 접어들어 양측은 '휴전감시 문제'에 대하여 대체적인 타결을 보았으나, 공산군이 주장하는 소련의 중립국 포함문제와 포로의 강제송환 문제가 큰 암초로 부상하였다. 그 후부터 각 분과위원회별 회의가 중심이 되어 개회와 폐회를 반복하였다. 따라서 세계의 언론들은 회담내용의 진전보다는 당일 회담의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예를 들면 휴전감시 분과위원회의 경우, '4월 15일 회담 총시간 25초, 16일 20초' 등 회담시간의 단기기록 갱신에 큰 관심을 보였다.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회담에서 소요된 총시간은 모두 합쳐 5분이 안 되는 시간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에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양측이 합의하여 동년 4월 28일에 정식대표로써 제44차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엔군 수석대표 조이(Charles Turner Joy) 중장이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른바 일괄타결안의 시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포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북한이 억류중인 유엔군 포로 1만 2,000명과 유엔군이 수용중인 공산군 포로 13만 2,000명 가운데 송환을 희망하는 7만 6,000명과를 교환한다. 둘째, 공산군의 비행장건설을 제한하지 않는다. 셋째, 중립국에서 소련을 제외하고 스위스와 스웨덴 그리고 체코 및 폴란드로 구성한다.

이 제안에 있어서 유엔군이 북한의 비행장 건설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중대한 양보였으나, 이는 소련이 중립국에서 제외되는 조건과 상쇄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문제의 초점은 포로의 송환에 강제냐, 자유의사냐 하는 것으로 집약되었다. 당시 유엔군은 13만 2,000명의 공산군포로 가운데 조사결과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7만 6,000명뿐이고 나머지는 송환되기를 거부한 까닭에 이들은 인도적인 견지에서 송환시킬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공산군은 유엔군의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휴회를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동년 5월 2일에 다시 회담이 재개되었다. 공산군이 양측 포로 전원을 강제송환하자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이 일괄타결안 역시 난항이 예상되었다. 이때 유엔군의 거제도포로수용소에서 수용소장이 포로들에게 납치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돌발하여 포로 송환문제를 포함한 설전에서 공산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유엔군은 내부적으로 포로수용소에 동년 5월 17일부터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을 투입하여 포로를 분리 수용함으로써 수용소의 질서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판문점에서는 4월 28일 일괄타결안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동 주장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한 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고히 굳히고, 동 제안을 수락하도록 공산군에 거듭 촉구하는 강경책으로 맞섰다.

이 무렵 동년 5월 12일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경질과 클라크(Mark W. Clark) 장군 임명에 이어, 22일에는 유엔군 수석대표가 교체되어 조이 해군중장 후임으로 해리슨(William K. Harrison) 육군중장이 임명되었다. 이날 조이 중장은 고별성명을 통해 “공산군은 현재 그들의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한 시간을 얻고자 회담을 지연시키고 있다. 더 이상 그들과 협상할 일이 없다”고 강경한 어조로 공산군을 비판하였다. 이 성명은 당시 지지부진한 협상의 진행에 대해 핵심을 지적한 것이었다. 실제 이후 휴전회담은 그의 지적대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유엔군은 동년 6월 말 현재 마지막 포로조사를 끝낸 결과 송환희망자를 8만 3,000명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7월 6일에 남일(南日)이 북한으로 송환될 인원이 중공군 포로를 포함하여 11만 명선이면 타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였다.

이에 동년 7월 13일 해리슨 중장은 송환자의 통계가 수정되었음을 밝히고, 송환될 인원은 북한군 7만 6,600명과 중공군 6,400명이라고 통고하였다. 이에 남일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5일간의 휴회를 요구하였고, 동년 7월 18일 그 숫자를 거부함으로써 다시 휴회의 공전이 되풀이 되었다.

그러다가 동년 9월 28일에 해리슨 중장은 포로송환 문제에 대하여 쌍방의 격의를 좁힐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1안은 "쌍방포로 전원을 비무장지대로 이송한 다음, 국제적십자사나 쌍방합동조사단에 의하여 면담과 조사를 거쳐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과 잔류를 선택하게 하되, 석방된 포로는 민간인의 신분이 되며 재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제2안은 "송환희망자는 신속히 교환하고 송환을 반대하는 자는 비무장지대에서 한국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나라의 대표나 국제적십자사 또는 쌍방합동조사단의 면담 하에 분류한다"는 것이었고, 제3안은 "송환희망자는 신속히 교환하고 불희망자는 비무장지대에 이송한 다음 면담이나 조사 없이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북한대표 남일은 즉각 "포로 전원이 송환하여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다시 10일간의 휴회를 요구하였는데, 본 회의가 재개된 동년 10월 8일에 정식으로 이 제안을 거부하였다. 이에 해리슨 중장은 "유엔군 제안을 수락하던가 아니면 다른 건설적인 대안을 서면으로 제시할 때까지 무기한 휴회를 선언한다"고 경고한 다음 회담장을 퇴장하였다. 따라서 이제 휴전회담은 사실상 결렬된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이 유엔군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자 공산군은 동년 10월 9일 북경 방송을 통하여 "유엔군이 고의로 휴전회담을 결렬시켰다"고 책임을 전가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제7차 유엔총회가 동년 10월 14일부터 뉴욕에서 개최되었는데, 개회 벽두부터 소련외상 비진스키(Andrey Y. Vyshinsky)가 "미국이 휴전회담의 결렬을 획책하였다"고 비난하고 나섬으로써 휴전회담의 설전 무대가 판문점에서 유엔총회로 자리를 바꾸게 되었다.

애치슨(Dean G. Acheson) 미 국무장관은 동년 10월 24일 정치위원회에서 공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이 포로의 비강제 송환의 기본원칙을 수락한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전제하고, 영국 등 우방 20개국의 지지를 받아 공동제안으로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첫째, 6·25전쟁의 휴전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인정하며, 둘째, 포로송환 문제는 자유송환원칙을 견지하기로 총회에 요청하고, 셋째, 중공과 북한정권에 대하여 무익한 유혈을 피하는 휴전을 수락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소련이 여기에 반대하여 동년 11월 10일에 '한국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나라를 포함한 11개국 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의 관장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되, 포로의 송환은 동 위원회의 임무로 하여 강제송환을 원칙으로 할 것'을 주장한 개별의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상치되는 두 개의 안이 회의에서 충돌하자, 인도와 아랍제국이 중재에 나서 인도가 소련과 절충하고 중공의 진의를 타진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고, 동년 11월 17일 절충안이라 자칭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스위스와 스웨덴 및 체코와 폴란드의 4개국으로 포로송환위원회를 설치하고, 둘째, 포로의 송환을 추진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여하한 강제력의 사용도 금지하며, 셋째, 송환을 희망하지 않는 포로는 휴전성립 후 90일이 경과하도록 처리되지 못하면 송환위원회로부터 고위정치회담으로 이관할 것 등을 골자로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는 포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하되 송환되기를 원하지 않는 포로는 정치회담에 그 처리를 일임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포로의 처리문제를 정치회담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장차 이 문제를 정치문제로 발전시키게 될 것이며, 만약 공산군이 그 처리에 대한 시일을 지연시키려 든다면 현재보다도 더 큰 화근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포로를 강제로 송환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보증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한 이를 수락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러자 인도는 다시 "송환 불원(不願) 포로를 정치회담으로 이관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만일 동 정치회담 역시 60일 이내로 송환 불원자 처리에 대한 타협을 이루지 못할 때는 동 정치회담에서 유엔으로 이관한다"고 수정하였다.

이에 이번에는 소련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동년 11월 24일 정치위원회에서 비진스키가 “미국에 우호적인 입장이 분명한 인도 안을 수락할 수 없다. 한국에서 휴전을 성립시키는 유일한 방안은 포로문제를 11개국 위원회로 이관하여 강제 송환하도록 하는 길뿐이다”라고 하여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여기에 인도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 있다고 전제한 중공마저 동년 11월 28일에 소련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힘으로써 인도의 중재적인 입장은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리하여 미국이 인도 안을 지지하여 자국 안을 철회한 가운데, 인도와 소련의 2개안이 12월 1일 정치위원회에서 표결에 붙여졌고, 그 결과 인도 안인 53:5(기권 1)로 가결되고, 이어 12월 3일의 총회에서도 54:5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되었다. 소련안은 40:3으로 부결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유엔총회의 향방이 확인되자, 동년 12월 5일 피어슨 총회의장의 명의로 북한과 중공에 이 결의안을 수락하라는 요지의 권고문을 송환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대는 역시 물거품이 되었다. 따라서 유엔의 노력마저 수포로 돌아간 휴전회담은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2 절 휴전 세부사항 협상

1. 쌍방의 협상 주요 쟁점

의제 제3항 '휴전과 휴전세부사항'은 쌍방이 어떻게 정전을 실행하고 전쟁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건을 보장하며 또 그것의 실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어떤 기구를 설치할 것인가 등에 관한 문제였다. 유엔군과 공산군은 이미 잠정 분계선에 대한 합의를 보기 전부터 의제 제3항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분계선 설정문제가 타결된 이후부터는 휴전세부사항 문제가 큰 난제로 부각되었다.[1)]

공산군의 남일은 유엔군의 제안인 "유엔군의 부대, 보급품, 장비 및 시설증가에 대한 제한과 감시반이 전 한국을 자유로이 접근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2)] 공산군은 "한국에서 외국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한국문제를 최종적으로 평화로이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다"고 주장하였으며, "북한의 시설복구 특히 비행장 복구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수락할 수 없다"고 강변하였다.[3)] 휴전세부사항에 관한 양측의 주장을 도표로써 정리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이로써 쌍방이 주장하는 '휴전과 휴전세부사항'에 관한 초점은 명백해졌다. 공산군은 '모든 외국군의 철군'을 주장하였고, 유엔군은 '군사력 증강금지 및 이를 감시하는 권한'을 주장하였다. 유엔군이 군사시설의 증강을 반대한다고 한 것은 본질적으로 비행장의 건설 또는 복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곧 제공권을 장악한 유엔군이 휴전기간 중에도 이를 계속 유지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3-1> 의제 제3항에 대한 양측의 주장[4)]

미결 사항	쌍방의 주장	
	유엔군	공산군
1, 비행장의 건설 및 복구	휴전의 보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쌍방은 비행장을 현 상태로 유지한다.	비행장 건설 및 복구를 제한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따라서 이를 제한할 수 없다.
2. 지상 및 공중감시	지상감시는 출입항과주요 교통중심지에서 자유로이 실시한다. 공중감시는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지상감시는 한정된 출입항에서만 실시한다. 공중감시는 불필요하다.
3. 인원교체와 장비보충	휴전 발표 시의 주순에서 제한없이 인원교체와 장비의 보충보급을 실시한다.	휴전 발표 후 인원의 교체는 월간 5천 명 이내로 하되, 정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비보충은 불가하다.

2. 비행장 문제의 유보와 중립 감시국 문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의제 제3항의 미결사항 중 쌍방이 모두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최대 현안은 비행장의 건설 및 복구문제였다. 유엔군은 그동안의 토의에서 비행장 건설과 복구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였으며, 공산군은 이 문제를 '내정간섭'으로 규정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끔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방법을 다 동원하여 반대해 왔다.

유엔군은 만일 적이 본질적인 문제를 수정하지 않고 유엔군의 나머지 제안사항을 수락한다면, 항공감시 문제를 포기하겠다고 제의하면서 다른 문제에 관한 또 하나의 타협안을 내놓았다. 이는 곧 공중감시 요구를 철회하는 대가로 비행장 문제에 대한 공산군의 양보를 유도하려는 제안이었다. 공산군은 그 제의에 대해 "일

보 진전된 것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것이 아닌 표면상의 양보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이후 이 문제에 관한 협상은 분과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참모장교회의에서도 시도되었으나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5]



휴전회담장에서 양측 기자단의 모습

공산군은 몇 차례의 회의를 거듭함에 따라 유엔군의 제안이 일보 진전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유엔군이 제시한 양보만 받아들이고 비행장 문제는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처럼 비행장 문제를 놓고 비난과 역비난이 되풀이되었으며 유엔군의 설득과 공산군의 반박으로 회담은 진전 없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었다.[6]

휴전회담이 시작된 지 6개월 정도의 시일이 지났으나 실질적인 의제 4개 항목 중에서 일단 타결된 것은 제2의제인 군사분계선 문제뿐이었고, 이것마저도 30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15일간의 연장을 제의하기는 했으나 곧 마감기한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른 의제는 하나도 타결된 것이 없었다. 판문점에서는 정초의 휴식도 없는 매일같이 입씨름으로 하루하루 허송하였는데 유엔군이 비행장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공산군은 '내정간섭·주권침해론'으로 대응하면서 상대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 무렵 공산측의 입장은 중공외상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전문에 잘 나타나 있다. 즉 그는 1월 7일 리커농(李克農)에게 보낸 전문에서 "현재의 형세는 적이 전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고 스스로 병력을 증원하기 힘들고 국내와 국외에서 휴전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어 특히 적의 지연정책 및 무리한 요구가 미국인들의 심지어 미국의 보수언론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적은 회담에 대해 이미 조급한 입장이다"라고 하여 회담을 지연시키도록 강조하고 있다.[7]

그러다가 이틀 후인 동년 1월 9일 공산군은 다만 비행장의 복구에 관한 모든 관련사항을 무시한 것을 제외하고, 유엔군의 제안을 일부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즉, 첫째, 전투기를 제외한 인원·무기·탄약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과, 둘째, 중립국 감시반을 군사정전위원회의 산하에 둔다는 것이었다.[8] 그러나 공산군은 공중감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제안은 몇몇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는 것이었지만 주요 장애가 되어 왔던 비행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보를 보이지 않았다. 유엔군 대표는 이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하였다.[9]

비행장 문제는 유엔군을 괴롭히는 가장 큰 난제 중의 난제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만약 비행장 문제를 유엔군이 양보할 경우, 공산군의 공군력 증강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위험은 유엔군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의제 제3항은 잠정 휴전기간을 이미 넘기고 새로 연장한 15일간의 마감기한이 다가오는데도 타결되지 못하고 매일같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 그동안의 쟁점이 되어온 지상감시 문제와 인원교체 문제에 대해서는 공산군이 양보하고 공중감시에 대해서는 유엔군이 양보함으로써 타협을 이루었으나 비행장 문제는 더 이상 진전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다.[10]

그러나 동년 1월 10일 유엔군사령관은 미국정부로부터 "비행장 문제가 휴전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립에 유일한 장애가 되고 있다면 이를 양보할 수밖에 없다. 단 의제 제3, 제4, 제5항의 나머지 사항이 완전히 합의될 때까지 비행장 문제의 토의를 연기하라"고 하는 훈령을 접수하였다. 이를 계기로 유엔군은 태도를 변경하여 비행장 문제의 토의를 연기하고 비교적 견해 차이가 적은 안건부터 토의하기로 결정하였다.[11]

결국 동년 1월 25일 유엔군은 쌍방의 참모장교들에게 비행장 문제는 제외하고, 의제 제3항 중 미결된 세부사항을 해결하며 이미 도달한 잠정 합의사항에 대해서 문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참모장교들이 잠정합의한 사항들에 관한 세부적인 작업을 하는 동안, 합동분과위원회의 토의를 계속한다. 2) 참모장교들이 세목에 대한 작업결과를 승인받기 위한 준비가 될 때까지, 합동분과위원회는 임시 휴회한다. 3) 참모장교들이 세부작업을 완료한 후, 이들에게 비행장 문제를 맡겨서 토의하고 권고하도록 한다.

공산군은 유엔군의 절차상의 제안에 대해 예상과 달리 1월 27일 동의함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휴회에 들어갔으며, 이날부터 참모장교회의가 개최되었다. 비행장 문제는 다른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하였다.[12] 참모장교회의의 임무는 합동분과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성문화하는 것과 인원의 교체, 장비의 보충보급, 출입항의 선정, 중립국 감시반의 구성과 감시요령 그리고 연안도서로부터의 병력 철수문제 등을 토의하는 일이었다.

동년 1월 27일 첫날 회의에서 유엔군은 비행장 문제를 포함하여 현안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여 협정 초안을 제출하였다. 유엔군의 초안은 월간 7만 5,000명의 인원교대를 허용하고 남한에 10개소, 북한에 12개소의 출입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중립국 감시요원에게는 조사목적을 위하여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었다.[13] 이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무장지대의 설정과 군사분계선 표지를 한다.
- 한강 하구를 쌍방 선박에 대하여 개방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휴전협정 발효 후 5일 이내에 상대방의 후방지역, 연안 해역 그리고 연안도서로부터 모든 군대 및 장비를 철수한다.
- 유엔군사령관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와 우도를 계속 지배한다.
- 1개월에 7만 5천 명 이내의 인원 교체를 한다.
- 비행장 건설 및 복구 금지, 주요 부대의 위치보고 그리고 공격력 증가 목적으로 병력 및 장비를 재배치하거나 집중하지 않는다.
- 군사장비의 도입을 금지한다.(단, 보충보급 제외)
- 군사정전위원회를 설치하고, 15개의 합동감시반을 그 예하에 두며 그들로부터 협력을 받는다.
- 중립국감시기관을 6개국으로 구성하고, 40개의 감시반을 그 예하에 두고 그들로부터 조력을 받는다.
- 중립국감시반은 한국의 10개소와 북한의 12개소의 출입항에 주둔하며 그 지역 내에서 자유로이 활동한다.
- 휴전협정은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대치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 휴전협정은 1952년 2월 00일 00시부터 발효한다.
- 한국어, 영어, 중국어의 본문은 동등하게 인증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엔군은 이 휴전협정 초안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의지와 신념을 보여주었다. 즉, 월간 교체병력의 수는 7만 5천 명으로 주장함으로써 당시 참전병력을 연간 1회 이상의 교체가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비행장 문제를 끝까지 주장함으로써 공산군의 재침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려고 시도하였다. 또 정전위원회의 합동감시반과 중립국감시반을 많이 설치하여 완전한 감시기능을 보장하려고 하였으며, 휴전협정의 발효시기를 1952년 2월중으로 예상한 것은 1개월 이내에 조인이 가능하다고 낙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참모장교회의가 연일 개최되어 휴전협정 초안을 놓고 검토하는 가운데, 유엔군사령관은 의제 제5항을 동시에 토의할 것을 공산군에 제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1월 31일, 유엔군은 의제 제5항의 토의를 정식으로 제의하였으며, 공산군이 이

에 동의함으로써 2월 6일부터 의제 제5항에 대한 토의가 본 회담에서 개시되었다.

참모장교회의는 부드러운 분위기와 신중하고 사무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상당한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아내었다. 그러나 인원교체 문제에서 공산군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다. 월간교체 가능한 인원을 7만 5천 명으로 하자는 유엔군의 제안은 공산군이 제시한 5천 명과 너무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출입항 선정에 있어서도 유엔군이 북한지역의 12개소와 한국지역의 10개소를 요구한 데 대하여, 공산군은 공평하게 동수로 하여 각각 3개소씩을 제안함으로써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근해의 5개 도서, 즉 38도선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나 군사분계선의 적측에 속하며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는 5개 도서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것은 근해도서의 지위를 군사분계선의 연장에서 설정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한국대표 유재흥 소장은 공산측이 영해를 12마일을 주장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손원일 해군총참모장에게 의견을 타진한 후 영해를 3마일로 제한하여 38선 이남 서해안 일대의 전략적 도서를 확보하도록 유엔군에 건의하였다. 유엔군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여 공산군에 제안하였으며, 공산군도 당시 유엔군이 38선 이북의 제해권까지 장악하여 주요 도서를 확보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수정 없이 동의하였다.[14] 양측은 휴전 이후 유엔군이 계속해서 군사분계선 이북과 38도선 이남에서 한강 하구에 이르는 지역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도를 통제하는 것에 동의했다.[15] 따라서 이 도서들은 유엔군이 보유하게 되었다.

결국 1주일 동안의 참모장교회의에서 추가적으로 합의를 본 사항은 정전위원회 산하 합동감시반을 15개에서 10개로 줄이도록 결정한 것과 38도선 이남에 위치하고 있는 서해 5도를 유엔군이 맡아서 관리하기로 결정한 정도가 고작이었다.[16] 그동안 참모장교회의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회담을 가진 결과 의제 제3항에 대한 쟁점이 대부분 마무리되었으나 몇 가지 미결사항이 남아 있었다. 그에 대한 쌍방의 견해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3-2> 비행장 복구문제에 대한 양측의 견해[17]

미결사항	쌍방의 주장	
	유엔군	공산군
1. 인원교체와 장비보충	1. 휴전발효 시의 수준에서 제한 없이 인원교체와 장비의 보충보급을 실시	휴전발효 후 인원의 교체는 월간 5천명 이내로 하되, 정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비보충은 불가
2. 지상 및 공중감시	1. 지상감시는 출입항과 주요교통중심지에서 자유로이 실시 2. 감시기구는 군사정전위원회 하에 둠.	1. 지상감시는 한정 출입항에서만 실시 2. 공중감시는 불필요 3. 감시기구는 별도로 운용
3. 비행장의 건설 및 복구	휴전의 보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쌍방은 비행장을 현 상태로 유지	비행장 건설 및 복구를 제한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므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음.
4. 근해도서 지위	군사분계선 연장선 북쪽 도서에서 철수	군사분계선을 동해안에서는 동쪽으로, 서해안에서는 서남쪽으로 연장한 어떤 선 북쪽의 연해와 도서에서 철수

한편, 의제 제3항에 대한 협상은 비행장 문제와 인원교대 등 세부문제 외에도 1952년 2월에 접어들어 중립국 감시기구의 구성국가 문제로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2월 1일 쌍방은 감시기구의 명칭을 '중립국감시위원회'라고 정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유엔군에서 감시위원회 구성국으로 스위스·스웨덴·노르웨이 등 3개국을 제의하였으며, 공산군은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소련 등 3개국을 지명하고 양측이 동시에 수락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엔군은 소련을 거부하고 그 대신 노르웨이를 제외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은 소련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엔군은 소련 거부안을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경우에 있어 중립국이란 6·25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국가로 규정하였는데, 공산군은 소련의 참전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유엔군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유엔군은 휴전 후 휴전선 이남에서 활동하는 것을 수용하기를 꺼려함으로써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었다.[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결국 의제 제3항에 대한 협의는 양측이 1952년 2월중에 인원교대에 관한 합의를 보고 3월 15일에는 감시 출입항을 남북 각각에 5개 지역[19]으로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세부사항 문제에 부분적으로 진전을 이루었으나, 비행장 복구 및 중립국 감시기구 구성문제로 부딪치면서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절 포로교환 협상

1. 쌍방의 제안과 쟁점

의제 제4항인 포로교환에 관한 최초의 협상은 의제 제3항(휴전세부사항)의 협상이 분과위원회로 넘어간 1951년 12월 11일부터 시작되었다. 유엔군은 동년 11월 27일 의제 제3항을 협상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문제를 토의하자고 요청하였으나 이때에서야 협상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2년 초부터 양측은 포로교환 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에 설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포로 교환문제에 관해 양측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회담벽두에서 공산군은 쌍방이 보유하고 있은 모든 포로를 휴전협정 조인 이후 즉각 석방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안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군은 포로를 공정하고 적합한 기준에 따라 조기 교환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회담의 첫 단계로 전체포로의 명단교환,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포로수용소 방문을 요구하였다.[20]

포로교환 협상은 표면상으로 비교적 간단한 것처럼 보였으나 협상이 시작되면서 매우 어려운 난제임을 깨닫게 되었다. 쌍방이 서로 인정한 제네바협약 제118조에는 그 서두에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군이 수천 명의 일본과 독일의 전쟁포로를 오랫동안 억류시켜 전쟁복구에 동원한 것과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재발을 막기 위한 데 직접적인 목적이 있었다. 많은 수의 포로들이 송환을 희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 협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대통령의 반공포로 수용소 방문

포로 가운데에는 패전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귀국을 원치 않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자기나라의 정치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3국을 택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귀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바협약에는 이와 같은 사항은 예측하지 못하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이것이 바로 의제 제4항의 토의에 있어 최대 쟁점이 되었다.[22]

제네바협약 이후 이러한 사실이 한국전쟁에서 처음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유엔군이 수용하고 있는 상당수의 공산군 포로가 송환을 불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군으로서 공산군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북한군에 강제 편입되어 다시 국군에 포로된 자와 중공군 포로 중 국부군 출신이 각기 대한민국과 자유중국으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었다. 당시 포로 심문 과정에서 한 포로가, “우리들은 북한군의 포로가 된 국군이며 강제로 북한군의 전열에 가담케 되었다. 우리들은 북한에 돌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데서 문제가 대두되었다.[2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유엔군은 송환을 원하는 포로만 송환시키는 자원송환 원칙을 관철하되, 공산군에 억류된 유엔군 포로도 모두 안전하게 복귀시켜야 한다는 전략으로 1:1 교환방식을 주장할 방침이었다. 반면에 공산군은 협약의 표면상의 문구에 기초하여 모든 포로의 강제송환을 주장하며 전체:전체 교환방식을 주장하고 나섰다.[24] 포로로 억류되어 있던 사람들 중에는 수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강제로 북한이나 중공으로 송환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조약에 따라 이들 수만 명의 희망을 무시하고 공산군에게 인도할 것인가, 이 불행한 사람들을 인도주의에 따라 구할 것인가, 구하려고 한다면 조약의 규정에 위배하여 구할 수 있는가 등등이 문제였다.

합동분과위원회에서 무엇보다도 포로 정보파악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유엔군은 1) 포로의 식별(국별 명단), 2) 포로수용소의 위치, 3) 포로수용소별 인원수, 4)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수용소 출입허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교환을 요청하였다.[25] 그러나 공산군은 협정 시 전체 포로를 교환할 것을 토의하자고 맞섰다. 이러한 논의가 일고 있을 때 최초로 포로문제에 관한 희미하나마 전진될 기미가 보이게 되었다. 적측이 포로의 명단과 기타 자료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상대에 의하여 제공된 목록을 신중히 검토하였다.[26]

그러나 유엔군사령부는 공산군이 제출한 명단에 크게 실망하였다. 공산측이 제출한 명단은 예상하였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들은 다만 국군포로 7,142명, 유엔군포로 4,417명(그중 미군 3,198명) 총 1만 1,559명만을 제시하였던 것이다.[27] 이는 전쟁초기에 북한이 발표한 것만 하더라도 포로는 6만 5천 명을 상회하며, 국군과 유엔군이 추정한 아군 실종자도 국군 8만 8천 명, 미군 1만 1천 5백 명 이상이었으므로 그 차이는 너무도 컸던 것이다.

한편 유엔군이 적에게 건네준 포로명단은 총 13만 2,474명으로서 그중 북한인 9만 5,531명, 중국인 2만 700명 그리고 전 남한인 1만 6,243명이었다. 공산군도 유엔군이 제출한 명단에 대단히 불만이었다. 그들은 실종자를 18만 8,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었는데 약 13만 2,000명만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2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표 3-3> 공산군이 제시한 유엔군 포로내역[29]

소속국	인원(명)	소속국	인원(명)
한국	7,142	호주	6
미국	3,198	남아(공)	4
영국	919	일본	3
터키	234	캐나다	1
필리핀	40	그리스	1
프랑스	10	네덜란드	1
계 : 11,559명			

이에 대하여 유엔군은 “남한 출신의 많은 민간인이 전쟁의 와중에서 잘못 생포되었거나 귀측에 강제 입대 당한 사실을 밝혀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류에 속하는 포로 중 귀측에 자원입대한 자들은 제외하고 3만 7,000명을 민간인 피수용자로 재분류하였으며 그외에도 1만 6,000명이 조사 중에 있지만 이들도 민간인으로 판명되면 송환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30]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한군에 강제로 편입된 국군을 모두 석방해야 하며 강제로 편입된 민간인 포로를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되며, 납치당한 모든 민간인은 복귀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유엔군에 전달하였다.[3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이리하여 포로명부를 확인한 쌍방은 모두 실망과 불신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며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굳어지게 되어 포로문제는 더욱 어렵게 되어 갔다. 공산군은 유엔군의 설명요지에 대해 즉각 항의하였다. 포로의 송환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거주지가 아니라 반드시 포로가 복무했던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왔다. 제네바협약 제4조에는 ‘실제로 군대의 구성원은 아니나 군대에 수행하는 자’도 적국의 수중에 들어가면 포로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공산군의 주장을 그르다고만 할 수도 없었다.[32]

유엔군은 이를 기피하면서 다른 측면에서 반박하였다. 즉, “공산군이 억류하고 있는 1만 1천여 명과 유엔군이 억류하고 있은 13만 2천여 명을 교환하는 것이 옳

은가. 또 의제 제3항을 토의할 때 귀측은 휴전성립 후에 군사력 증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백히 주장하였는데 전체교환을 하게 되면 귀측에게 10개 사단에 해당하는 인원이 증가된다. 그리고 전쟁초기에 귀측이 발표한 전과만도 포로가 6만 5천 명 이상인데 포로명부에는 국군 포로가 불과 7천여 명만 등재된 이유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33]

1952년 1월 중순까지 회의는 연일 계속되었으며 양측의 상호비난이 절정에 달하였다. 유엔군은 공산군의 전체 : 전체 교환 제안을 사기이며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것은 적 포로 13만 명에 대하여 유엔군 포로 1만 2,000명 미만의 석방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공산군은 앞서 국제적십자사로 통보한 보고서에서 누락된 한국 주민 4만 4,000명도 송환할 것을 주장하고 이전에 그들에게 건네준 명단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대응하였다.[34] 이와 같이 포로협상은 포로의 숫자에 대한 공방과 교환방식의 시비로 난항을 겪었다.

유엔군은 포로교환 협상 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유엔군은 민간인 피수용자도 의제 제4항에 포함하여 타결해야 한다고 제안하여 공산군으로 하여금 원칙적인 동의를 얻어내었다. 이것은 억류민간인이 휴전협정 발효 시 그들이 각각 원하는 지역(한국 또는 북한)에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고려되었다.

이 문제는 군사적이라기보다 정치적으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이지만 공산군은 이에는 별다른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35] 이에 고무된 유엔군은 포로교환에 민간인 송환문제를 통합한 유엔군의 안을 설명서 발표와 더불어 제안하였다. 이것의 핵심은 포로와 민간인의 자원송환에 있었다.[36] 그 성명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포로문제가 논의되는 동안 의견차이가 명백히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귀측은 휴전조인에 이어서 모든 포로를 석방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것이 정당한 형식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둘째로 귀측은 이 조치를 포로에 대한 전통적 정책에 의한 것이라 하여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귀측은 포로들이 "재교육"을 받은 후에 자진하여 참전하였다고 하였다. (중략) 우리의 견해는 귀측 군대에 편입된 한국군이 포로로서의 신분으로 환원되어야만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셋째로 귀측은 모든 포로는 그들이 포로가 될 당시의 쪽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1950년 6월 25일 당시의 한국의 선량한 주민들은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점을 중요시하고 있다. (중략) 그리고 한국의 전세는 양측의 수많은 민간인을 그들의 집으로부터 떠나게 하였다. (중략) 유엔군 역시 그들이 원한다면 휴전협정 하에서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지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나 송환문제에 대한 유엔군의 제안은 모든 송환이 자유의사에 따른다는 점에서 귀측 견해와 다르다. 이를 타결하기 위하여 유엔군은 귀측이 주장하는 제안을 참작하였다. 다름이 아니라 포로교환 시 포로 개인이 어느 쪽으로 송환되든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자유선택은 양측이 주장하는 개념에 따라 송환자격이 있거나 혹은 있어야 할 모든 인원을 포함하여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중략) 포로의 인도는 이들을 인수하는 측의 군사 당국에 의하여 이 협정이 수락되어야 한다. 유엔군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송환을 선택한 포로는 상대방에 수용된 교환을 희망하는 모든 포로를 교환완료 시까지 1:1 원칙하에 교환되어야 한다.
2) 그 이후에도 포로를 억류하고 있는 일방은 타방에 피랍된 외국인과 휴전조인 당시 타방의 지배영역 내에 있으면서 송환을 선택하는 민간인 기타 인원과 1대 1로 모두 송환한다. 이렇게 교환된 포로는 그를 석방한 상대방에 대하여 무기를 들지 않겠다는 내용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3) 송환을 거부하는 모든 포로는 포로의 신분에서 석방되고, 그들 각자가 다시는 한국전쟁에서 무기를 들지 않겠다는 내용의 선서를 해야 한다.
4) 휴전조인 당시 타방의 지배지역 내에 잔류하는 모든 민간인은 그들이 선택하면 송환되어야 한다.
5) 송환 선택이 자유로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적십자사 대표들이 모든 포로와 휴전조인 당시 타방의 지배지역 내에 있던 양측의 모든 민간인을 회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제2, 제4, 제5항에서 일방의 민간인과 기타 인원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 현재 한국 또는 북한의 주민으로 정의한다.

요컨대, 유엔군의 제안은 억류하고 있는 측의 군대에 편입되었던 타방의 군인까지도 포함한 모든 포로의 석방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모든 포로가 석방되어야 한다는 귀측의 최초 제안과 일치된다. 송환은 개인의 선택자유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의사를 무시한 강제송환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하략)[37]

유엔군의 포로교환 제안에 대한 공산군의 반응을 예기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으나, 공산군은 유엔군의 성명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거부하면서 "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노예거래가 아니며 20세기가 노예제도의 야만적인 시대가 아니다"라고 맹렬하게 비난하였다.[38] 이 무렵 변영태 외무장관은 "대한민국과 중국인 포로의 강제송환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북한인 가운데서도 교화된 공산주의자나 치유불가한 공산주의 동조자들만 송환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군에 전달하였다.[39]

쌍방대표들이 자원송환이냐 강제송환이냐를 둘러싸고 1주일간이나 입씨름을 벌였지만 아무런 결말을 보지 못하자, 유엔군은 최초의 안이 몇 가지 점에서 모호하다는 적의 불평에 대응하기 위하여 더욱 구체적인 안을 제의하였다. 즉, 그 요지는 "같은 수로 교환 후에도 송환을 원하는 포로가 유엔군의 감시 하에 남는 경우에 그들을 지체 없이 송환하되 공산군은 이들에게 적대행위를 허락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40]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최초의 것보다 공산군에 더 이로울 것이 없었다. 공산군은 유엔군의 입장이 제네바협정의 위반이며 민간인 송환을 위하여 포로를 인질로 사용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비난하였다.[41]

이와 같이 1952년 1월 중순까지 6개월간의 회담은 5개의 의제 중 2개의 의제에서 교착되고 말았다. 양측의 협상자들은 사소한 몇 가지 소항목에 관하여는 합의하였으나, 비행장 복구와 자원송환문제에 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강경하였으며 문제의 본질이 타협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4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산군이 모든 포로의 교환을 고집하는 데에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만약 개개인의 선택에 의한 송환이 결정되면 많은 포로들이 송환을 거절할 것은 자명하고 그 결과로 이후부터는 전선의 군인들이 자진해서 유엔군에 투항하게 될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유엔군에 남게 되는 포로들이 공산정권의 내막을 폭로할 경우 그들은 자멸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다른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43]

공산군이 제네바협약을 그들 나름대로 유리하게 해석하고 나서자 유엔군도 제네바협약에는 송환비율이나 송환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이와 맞서게 되었다. 이리하여 휴전회담은 한동안 제네바협약의 유권적인 해석을 둘러싸고 마치 국제법 토론의 장소가 되다시피 하여 매일같이 회담이 끝난 뒤에는 쌍방대표들이 각기 제네바협약을 연구 검토하는 데 몰두하였다. 모든 포로의 자원송환을 주장한 유엔군측의 제네바협약에 대한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44]

1) **제네바협약 제7조(포로는 여하한 경우에도 현 규정에 의하여 그들에게 보장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없다)에 대한 설명** : 송환에 대한 권리는 포로를 위하여 작용하는 개인 권리이며 특권이다. 그런데 희망하지 않는 강제송환을 통하여 포로에게 냉대행위에 복종하도록 한다는 것은 제네바협약의 목적과 정신에 상반되는 일이다. 송환은 포로가 타당하다고 생각함으로 해서 행사하거나 또는 행사치 않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석방 시에 그가 자기 고국보다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요구하였을 때에는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송환의 특권행사를 거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그 포로는 제7조에 규정된 권리 포기에 대한 금지를 절대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제7조는 그 포로들이 소속하는 국민이나 국가 또는 지역이나 군대에게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며, 순전히 개개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개인은 송환의 특권 수락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하였다 하여 어떠한 권리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선택을 하는 일이 그의 권리이며 이는 곧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을 뜻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제네바협약 제118조에 대한 설명 :** 강제송환은 제118조 위반이다. 제118조가 포로의 강제송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함은 1949년 포로협약의 정신을 분명히 곡해한 소치이다. 동 협약은 포로를 자기의사와 승낙에는 관계없이 절대적인 힘에 의해 강요되지 않도록 개개의 포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되었음이 분명하다. 제118조의 순수한 정신과 목적은 송환의 자유의사를 기초로 하여 행해질 때에 비로소 충족된다. 제118조에 의한 권리 규정은 포로의 소속국가가 그 국가의 일원으로서 포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한 권리이지, 이밖의 어떠한 권리도 포로의 본국에 부여되어 있지 않다. 포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한 송환을 강요하는 일과 같은 권리의 남용은, 이 협정의 본래의 목적을 곡해하며, 그 정신에 위배된 행위이다.

포로의 범주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한 특수협약이 없는 경우 제118조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강제송환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해석될 수 없다. 그와 동시에 이 문제에 관련된 여하한 협정에 관하여도 포로를 강제로 송환시키려는 수용국에 의한 결정은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에 관한 규정인 제6조는 어떠한 특수협정이라 할지라도 포로의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부여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포로의 강제송환을 요구하는 체약국간의 협약은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해 포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비인도적인 처사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는 윤리적 및 도덕적 차원에서 그러한 협정의 체결을 방지하고 있다. 만일에 그와 같은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제법상 인정되지도 않을 것이며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라는 정신에 입각하여 허용되지도 않을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와 같은 유엔군의 제네바협약에 대한 설명과 주장에 대하여 공산군은 나름대로 그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면서 유엔군을 설득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하였다. 공산군의 반박내용은 다음과 같다.[45]

유엔군은 자원송환의 구실과 또한 제네바협약 제118조 및 제7조에 의거하여 귀측에 체포된 아측 인민을 억류하려는 기도와 그들을 조선 및 중국인민의 적에게

수교하려는 기도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다고 말하였다.

귀측은 제네바협약일지라도 포로에게 송환에 관한 권리를 주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측은 제네바협약 제7조에 규정한 것은 만일에 포로가 송환되기를 원한다면 쌍방은 포로의 송환권이 박탈되는 그러한 협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측은 제네바협약을 누차 인용한 귀측이 제네바협약의 규정을 공공연히 곡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놀라고 있다. 제7조 규정의 내용은 자원송환이라는 허울 좋은 구실 하에서 양도할 수 없는 송환권을 포로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귀측의 제안과 같은 그러한 노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그러한 규정은 이 이유 때문에 존재한다. 귀측의 고의적 곡해는 귀측의 불합리한 제안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다.

공산군은 제네바협정 위반 운운하지만, 실제 그들은 전쟁이 발발된 이래 여러 차례 제네바협약을 위반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장에 유리한 조항만을 발췌 인용하여 선전과 주장을 일삼고 여타의 조항은 전혀 무시해 왔다. 좀처럼 회담이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유엔군은 세부적인 문제들을 검토하고 권고하도록 참모장교회의를 신설하자고 제의하여, 1월 23일부터는 참모장교회의가 병행 개최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산군은 동년 1월 26일 회의에서 48명의 억류중인 외국인 명부를 유엔군에 수교하면서 휴전성립 후에는 무조건 석방하고 송환하겠다고 확약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공산군은 유엔군이 제시한 포로명단의 차이를 이용해 주도권을 행사해 나갔다. 공산군은 최초의 목록에 계급과 단대호를 추가해 줄 것을 요망하였다. 그들은 원 명단에는 나와 있지는 않으나 포로들에 관한 많은 요약보고서에 나타난 1,456명의 명단을 원하였다. 그들은 제네바에서 받은 목록에서 뽑았으나 유엔군이 제시한 최초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4만 4,000명의 명단을 원하였다.[46]

동년 1월 28일 유엔군은 정확한 포로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공산군에 제공하였다. 새로운 명부에는 총 13만 2,080명이 등재되었고 그 내역은 중공군 포로 2만 720명과 북한군 11만 1,360명으로 지난번보다 394명이 적었다. 유엔군은 그 이유

로 394명은 민간인 억류자로서 그 후 민간인 억류자 수용소로 이송되었다고 해명하면서 4만 4,000명의 민간인 명부와 공산군이 이미 공표한 6만 5,000명 이상의 포로명부와 교환하자고 제의하였다.[47] 공산군은 제의를 무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유엔군은 이날 '1·2제의'에 기초하고 '자원송환원칙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금까지 합의에 접근한 내용을 중심으로 14개항으로 된 '포로협정 초안'을 공산군에 제시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휴전협정 조인 직후 쌍방은 국제적십자사 대표들의 출입을 허락하고, 그들이 통상적이고 전통적인 역할과 원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포로의 석방과 송환 그리고 민간인의 송환은 휴전협정 발효 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한다.
- 중병이거나 중상포로는 우선적으로 교환하며 가능한 한 포로 중의 의료요원을 동반시킨다.
- 포로의 교환은 판문점 등에서 실행한다.
- 포로 송환의 기준을 설정한다.
- 송환거부포로들은 다시 무장하지 않는다는 선서 후 석방시킨다.
- 휴전협정 조인 직후 포로 교환 및 민간인송환위원회를 설치한다.
- 민간인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 근처에 위치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산군은 제의를 받은 다음날 송환원칙에 대한 합의가 세목의 합의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유엔군 안을 일단 거부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은 유엔군의 새로운 포로명부와 포로에 관한 휴전협정 초안을 접수하고부터는 협상진행에 진일보하는 징조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병상포로 교환의 우선적 처리와 포로교환 지점의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표시하였다.

공산군은 동년 2월 3일 자원송환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엔군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물론 전체 : 전체 교환을 요구한 것이었으나[48], 모든 포로들이 송환 후에는 재차 전투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문제, 북한 및 중공의 적십자요원을 포함시킨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수용소 방문문제, 포로 및

민간인송환위원회의 구성문제 등에 대해서는 많은 양보의 태도를 보이는 제안이었다.



휴전회담 공산군측 대표의 모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그리하여 유엔군은 공산군이 협상에 대해서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교환방법은 일단 차후로 미루고 세부사항의 타결을 시도하였다. 송환될 포로들의 재차 전투행위 참가 금지 조항은 군인에게만 적용하고 민간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선서는 한국전쟁에 국한하여 유효토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것은 포로 중의 직업군인으로부터 생활수단을 빼앗는 결과가 되고, 민간인은 지금까지 직접 전투행위에 종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선서하는 의의가 없다는 데에 착안하여 제의한 것이었다.

선서 요령에 대한 규정에 공산군이 동의함에 따라 쌍방은 참모장교들로 하여금

포로 협정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공산군은 “우리는 국제적십자사를 중립기관으로서 생각할 수 없다”는 종래의 입장을 재차 천명함으로써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겨놓았다. 이로써 1952년 2월 5일, 난항을 거듭해 온 포로문제는 교환방법만을 제외하고 대체로 타결되었지만, 교환방법은 앞으로의 회담의 최대쟁점이 되었다.

유엔군은 지금까지 모호하다고 지적된 ‘송환될 포로들의 재차 전투행위 참가 금지’ 조항에 대해서 민간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또한 한국전쟁에서만 제한한다고 제시함으로써 공산군의 동의를 얻어 내었다. 이와 같이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점에 도달하자 동년 2월 6일부터 쌍방은 참모장교회의로 들어가 포로 협정안의 작성에 착수하였다.[49]

협상의 사소한 점들도 다음 며칠이 지나는 동안에 합의에 도달하였다. 동년 2월 13일 회의에서 공산군은 자원송환 대 강제송환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측간에 의제 제4항에 대하여 원칙상 차이가 없다고 인정하였다.[50] 송환방법에 관해서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도 강제송환의 방식을 수락하지 않도록 하는 입장을 유엔군사령관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있었다.[51]

동년 2월 14일 공산군에 의해 제출된 초안은 더 많은 양보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 초안은 교전당사국의 적십자 요원으로 구성된 팀이 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포로를 돌보고 또 송환을 돕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민간인 송환에 대하여도 유엔군의 요망대로 되지는 않았으나 더욱 명백히 하였다.[52] 그러나 강제송환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였다. 공산군은 유엔군이 이 문제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협정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협정초안에 관한 실무작업이 끝나자 회담은 동년 2월 29일 송환 원칙문제를 다루기 위해 분과위원회로 되넘어갔다. 그러나 포로협상은 유엔군이 거제도에 수용된 포로 중 민간인과 자원송환 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월 17일 친공 포로의 폭동이 돌발하자 공산군이 이를 호재로 휴전협상에서 공세를 취함으로써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게 되었다.[53]

결국 난항을 거듭해 온 포로문제는 1952년 2월 말까지 자원송환이냐 강제송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나 교환방법만을 제외하고 거의 타결이 되었다. 하지만 교환방법은 포로 폭동 사건과 결부되어 그 후 휴전회담의 최대쟁점이 되었다. 휴전 협상자들 가운데 누구도 전쟁이 앞으로 18개월을 더 지속된 후에야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리라고는 전망할 수 없었다.

2. 포로교환 자원송환 입장

미국정부는 포로교환에 있어 자원송환 방식을 정책으로 정리하기까지는 대통령·국무부·군부 등의 의견을 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통상적으로는 모든 포로는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쟁이 끝나면 각자의 나라로 송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북한은 전쟁기간 가용한 한국군 포로와 민간인들을 그들의 군대에 다시 편입시켰다. 거기에다 공산군에 대항하여 싸웠던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남한으로의 이주를 열망하고 있었다. 중공의 이른바 지원군에도 국민당을 따르다가 강제로 징집당한 인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유엔군에게 포로가 된 이들 중공군은 공산 치하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었다. 따라서 분단국인 한국에서 중공과 유엔 회원국이 참전한 한국전쟁은 전쟁포로 처리에 있어서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휴전협상이 시작되기 직전 미 육군 심리전감 맥클루어(Robert A Maclure) 준장은 중공군의 대다수가 강제로 입대하였으며, 강제로 송환된다면 유엔군에게 투항했다 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거나 처형될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포로를 강제 송환시키는 일은 미국의 심리전에 손상을 주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전 국부군 포로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대부분이 대만을 택하게 될 것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송환이 가능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것은 남한에 남기를 원하는 반공포로들을 잔류시키자는 뜻이기도 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공산포로들에게 심리전 측면에서 어떤 언질을 주지는 않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그 대신에 포로 전원에게 음식과 의복 및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자원송환이 강조되지는 않았지만 유엔군 포로수용소에 억류중인 포로를 재분류하였다. 이 인원들은 다음과 같이 5등급으로 분류되었다.[54]

1) 민간인으로서 북한군에 입대한 의용군
2) 민간인으로서 강제로 북한군에 편입된 인원
3) 한국군으로서 공산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강제로 편입된 인원
4) 한국군으로서 낙오되었다가 오인되어 포로가 된 인원
5) 포로집단에 끼었거나 또는 음식을 얻으려고 수용소에 들어간 인원, 혹은 사복한 공산군으로 오인되어 생포된 선량한 주민

콜린스(J Lawton Collins) 미 육군참모총장,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 신임 미 국방장관 로벳(Rovert Lovett)은 자원송환 방식이 인도주의적이며 심리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공산군에서 미군 포로들이 송환을 원치 않는다는 핑계로 그들을 억류할 염려와 미국이 제네바협약을 파기하였다는 선례를 남기는 위험이 따른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를 추가된 의제에 넣어 미 합동참모본부에 제출하였다.

미 육군참모총장은 유엔군 포로의 보호와 안전송환에 대한 적절한 보장책을 마련해 주기만 한다면 미국은 대만이 아직도 중국의 일부이므로 국부군편이라고 주장하는 중공군 포로를 모두 대만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 한 명의 중공군이나 북한군 포로도 각자의 완전한 동의 없이 공산치하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미 합동 전략조사위원회가 건의하고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동의한 자원송환원칙은 미 국무성에 제출되었다.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국내 정치가 아닌 도덕과 냉전적 상황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에 따라 결단을 내렸다.[55]

> 송환되면 죽음을 당하리라고 생각하는 포로들을 공산군에 강제로 인도하라는 주장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도덕적, 인도주의적 원칙에 배치되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것이다. 심리전의 측면에서도 공산독재에 반대하는 미국의 위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미 국무장관은 자원송환 원칙이 휴전회담의 걸림돌이 되고 유엔군 포로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미국 내에서 비판여론을 야기시킬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에게 자원송환 원칙을 승인하도록 촉구하였다.

한편, 미 극동문제담당 국무차관보 직무대리 존슨(U. Alexis Johnson)과 미 육군참모차장 헐(John Hull) 대장이 극동에 파견되어 자원송환 원칙으로 말미암아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들은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는 명단에서 삭제하고 그 나머지만 송환시키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관과 휴전회담 대표들 모두가 반대하였다.

자원송환 원칙은 확고한 정책으로 굳어져 가고 있었으며 미국은 이미 자원송환을 전제로, "우선 전쟁포로의 1:1 송환을 모색한다. 만약 그것이 회담진행에 장애가 되거나 포로송환을 저해한다면 그때 집단송환방식에 따라 전체송환방식을 채택하되, 일정비율로 송환하자는 데 동의할 수도 있다"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이에 따라 휴전회담 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협상지침에 따라 회담에 임하고 있었다.[5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포로송환은 가능한 한 이 문제로 휴전회담을 교착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1:1 송환 원칙 아래 추진한다. 1) 포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송환되어야 한다. 또한 포로송환이 완료될 때까지 국제적십자사 대표단이 모든 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포로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2) 포로송환 협상 시에 한국군 포로의 송환이 먼저 협의되어야 하며, 다른 포로들은 잠정적으로 보류한다. 다른 포로들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중공군 포로와 북한군 포로, 유엔군 포로의 집단송환을 추진한다.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 군인들을 강제로 송환한 일을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참모들과 정책결정을 위한 협의를 가진 결과, 포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송환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

였다. 자원송환정책이 결정되자 미 정부당국은 판문점 휴전회담 수석대표에게 자원송환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게 하였다. 그리고 유엔군은 자원송환에 상호 포함되어야 할 인원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57]

1) 민간 난민, 2) 유엔군에게 억류된 민간인, 3) 유엔군측에 수용된 대한민국 포로, 4) 공산군측에 수용된 대한민국 인원, 5) 양측에 수용되었거나 수용되었다고 기록된 선량한 포로 등

미국 내의 지원송환 반대자들은 이 문제가 전쟁의 재개, 더 나아가 세계대전으로의 확대 가능성까지 감수할 만큼 중대한 것인가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자원송환은 제네바협약의 위반이며 미국의 도덕적 우월성에도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종전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로 휴전회담이 결렬되는 일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거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1952년의 상황은 전선이 교착되어 있었다. 이 기회에 공산군은 전 전선에 걸쳐 갱도와 참호를 구축하고 종심 깊은 방어편성을 완료하였으므로 한국군과 유엔군은 막대한 출혈 없이는 군사적 승리를 얻기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전진에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휴전교섭과 더불어 군사적 승리에 대신할 수 있는 정치적, 심리적 승리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 정부당국은 최종결단을 내리기 위하여 도덕적 측면, 국내정치, 국제정치, 반공적 입장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였다. 그 결과 강제송환은 비인도적이며 부당한 처사라고 결론지었다. 물론, 공산군 포로들이 본국송환을 거부하였을 경우에 나타날 선전효과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러한 사유로 미 정책당국에서는 포로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 자원송환원칙을 정책으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원송환정책의 결정자였던 트루먼 미 대통령과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이 결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그렇게 오래 휴전회담을 교착상태에 빠뜨리거나, 이미 많은 비용이 든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동맹국의 지지를 양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정치생명을 위태롭게 하리라는 사실을 예단하지 못하였다.

미국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공산군이 양보할 것이며, 자원송환이 합의에 의해 이룩되리라고 확신하였다. 선별적인 공중폭격을 단행하고 협상에서 확고부동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교착상태가 타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몇 개월 정도면 전쟁이 끝나리라고 내다보았다.

냉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전쟁포로가 강제송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례는 장래 있을지도 모를 전쟁에서 공산국가의 병력이 이탈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두는 것이었다. 이런 뜻에서 본다면 자원송환 정책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소련의 침공을 억제한다는 장점도 있었다. 이리하여 트루먼 미 대통령은 공산세력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근본대책 중의 하나를 전례로 남겨 놓았다.[58]

3. 의제 제5항 쌍방 관계정부에 건의에 관한 협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의제 제5항은 의제 협의 시 공산군에 의해 거론되었으며, "쌍방은 휴전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정치회담을 통해 토의하도록 관계제국정부에 건의한다"라고 어구를 수정한 바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가 1952년 1월 31일 유엔군이 쌍방 관계제국정부에 대한 건의 문제를 남은 다른 문제와 함께 토의하기 위해 합동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면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 의제는 의제 제3항 협의와 관련하여 한때 거론된 적이 있었으나 유엔군이 의제 제3, 제4항에 대한 초안을 제시한 후, 1952년 1월 31일 마지막 남은 의제 제5항도 다른 나머지 문제와 함께 토의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공산군이 동년 2월 3일 수락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59]

공산군의 남일은 2월 6일 대표단 회의의 발언에서 "기타 각항 의사 일정의 토

론에서 쌍방이 한반도의 휴전이 당연히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교량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었다. 쌍방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동의했고 한반도의 휴전이 일단 실현되면 쌍방의 관련국 정부가 신속하게 고위급 정치회의를 개최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했다.[60]

유엔군은 "관계제국정부에 대한 건의"를 의제로 채택하긴 하였으나, 이 의제에 대해서는 정치회담의 소집을 건의할 것인가의 여부를 토의해 본다는 정도의 의미밖에 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은 휴전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제 제5항을 제3, 제4항과 동시에 토의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쌍방 간에 관련된 제국정부에 대한 건의'라는 용어의 사용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군사휴전의 범주 외의 정치회담에 참가할 구체적인 인원이나 신분·회담의 기능과 형태 등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토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었다.

따라서 휴전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 놓은 문제를 적절히 정치회담을 통하여 토의하도록 해당 정부에 건의한다는 의미였으나 구속력이 없고, 적절했긴 하지만 확정적일 수는 없었다. 반면, 공산군은 "관계국정부에 대한 건의"라는 어구에 정치적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으며, 장차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철군시켜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 정치회담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한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61]

이 무렵 미국정부는 유엔군사령관에게 만일 공산군이 외국군 철군을 고집한다면 수락하라고 승인하였으나, 정치회담에 참가할 국가에 대한 토의 및 토론 형식에 대한 공약은 피하도록 시달하였다. 세부적인 것은 휴전협정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진 후 정치적인 수준에서 해결해야만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 수석대표 조이 제독은 정치회담의 성질이나 규모, 양식에 대해서 정치당국에 지시하거나 또는 그 자체가 군사령관으로서 토의 범위를 넘는 요지를 포함하는 의제를 건의하려고 기도하는 것은 군사령관의 권한 밖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은 공산군이 정치회담에 참가할 국가명을 삽입하려 한다면 이를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나 중공정부만을 수락할 것인지에 대해 미국정부에 문의하였다. 미국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회담 참가국을 지명하는 것에 난색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을 표하면서 휴전회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룰 해당 관계 국명을 거론할 수 있다고 허용하였지만, 소련은 단일국가가 아닌 유엔의 회원국으로 호칭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정치회담 참가국으로 소련을 포함시키려 할 경우에는 미국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엔군은 협상을 신속히 추진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 합동참모본부와 협의하여 의제 제3·제4항과 병행하여 의제 제5항을 다룰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유엔군 수석대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한을 공산군 수석대표에게 전달하였다.

> 의제 제3항에 대한 합동분과위원회 회담의 정체상태를 고려하고 휴전협정 조인을 최대한 촉진시키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의제 제3·제4항의 토의와 아울러서 의제 제5항의 토의를 위한 합동분과위원회의 설치를 제의한다. (중략) 그러나 만약 귀하가 전체회담에서 제5항 토의를 원한다면 본관은 귀하와의 회견을 쾌락할 것이다. 유엔군 대표단은 의제 제2, 제3, 제4항에 대한 휴전협정 초안을 귀측에 전달하였다. 의제 제5항은 귀측의 발안이었고 유엔군이 제2, 제3, 제4항의 초안을 제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귀하가 제5항과 관련된 분과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원한다면 귀측 초안을 현 의제 제3항에 관여하고 있는 귀측 참모장교를 통해 아측 참모장교들에게 전달하면 될 것이다. 귀하의 회신을 기다린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산군은 서한이 전달된 3일 후인 2월 3일 의제 제5항에 대한 회담을 개시할 용의를 표명한 다음과 같은 서한을 유엔군에게 전달하였다.[62]

> (전략) 휴전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측은 의제 제3항 및 제4항과 동시에 제5항을 토의할 것에 동의한다. 아측은 쌍방대표단 전체회담에서 의제 제5항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그후 제5항의 초안 작성을 위하여 쌍방에 의해 임명된 참모장교회의에 인계되어야 하고, 그 다음 이 초안이 협정 중 의제 제5항, 즉 '관계제국 정부에 보내는 건의의 수정조항'이 되기 전에 전체회담의 승인을 받도록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제 제4항에 대한 합동분과위원회 회

의와 의제 제3항을 다루는 참모장교회의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아측은 제5항과 관련된 쌍방 대표단 전체회담이 제3, 제4항 토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기의 합분위 회의와 참모장교회의 시간과 상이한 시간에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중략) 아측은 쌍방대표단 전체회담에서 토의의 기초가 될 의제 제5항에 대한 초안을 제출할 것이다.

공산군의 회답을 받은 유엔군은 이튿날 이 제의를 수락하고 2월 5일 오전 10시에 제1차 회담을 제의하였으나, 공산군이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유엔군이 이를 수락하였다. 이리하여 제38차 본회담에서 의제 제5항이 다루어지게 되었다. 회담이 시작되자 공산군 수석대표는 회의 구성 및 범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초안을 제시하였다.[63]

한국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하게 된 후 3개월 내에 일방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타방으로는 유엔에 관계되는 제국정부들이 정치회담 개최를 위하여 각기 5명의 대표를 임명할 것을 건의한다. 한편 토의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문의 성명으로 대신한다.

한국전쟁은 중단될 것이므로 전쟁에 참가하였던 모든 외국군대는 더 이상 머무를 정당한 근거가 없으며, 한국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의 기초로서 모든 외국군대가 한반도로부터 철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의제 토의 중 쌍방은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군문제는 쌍방 고위층의 정치적 회담에 위임되며 휴전 후에 소집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므로 아측은 정식으로 상기 정치회담은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군에 관한 것을 먼저 토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한다. 모든 외국군의 철군은 한국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측은 정식으로 상기 정치적 회담의 토의에 임해서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 철군문제를 결정하고 또한 협상을 통해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기본방침 및 특수한 건의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제의한다.

한국문제는 하나의 고립된 문제가 아니다. 한국전쟁은 한국 이외의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관계되는 다른 제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반대로 한국에서 평화가 정착할 수 있는 시기는 다른 제 문제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동시에 해결될 때뿐이다.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장애가 되는 모든 논의는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지할 수 없다.

1950년 6월 27일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극동의 다른 제 문제와 관련시켰으며, 한국전쟁을 극동지역에 대한 일련의 전쟁 확산의 구실로 이용하였다. (중략) 한국전쟁의 결과로 파괴된 극동의 평화는 회복될 수 있으며 세계를 극단적인 긴장 상태로 빠지게 한 현 정세는 호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측은 정식으로 상기 정치회담에서 한국의 평화와 관계되는 다른 제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한다.

공산군은 한국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휴전이후 3개월 이내에 양측은 북한과 중공정부를 일방으로, 유엔회원국과 우리 정부를 타방으로 하는 대표를 임명하여 정치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제 제5항의 논제로서 첫째,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 철수, 둘째,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특별건의서, 셋째, 한국평화에 관한 기타문제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보충설명에서 셋째 논제는 한국문제와 관련된 극동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공산군은 한국전쟁의 결과로서 파생되는 휴전회담을 국제적으로 문제 삼아 외국군의 철군을 성취하려 하고 있으며 휴전회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군사작전 국제여론 등을 고려하면서 회담을 지연시키려 하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 있다.

공산군은 의제 제5항의 "관계제국정부에 대한 건의"라는 어구에 정치적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더구나 휴전회담에서 군사문제의 토의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인 문제도 다루도록 하고 이를 관계제국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정치회담에서 주도권을 행사한 다음, 만약 미국이 한국에서 손을 떼면 한반도는 북한의 주도하에 통일이 되는 것이므로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항구적인 평화가 찾아온다는 정략을 관철시키려 하였다.

유엔군과 공산군의 이러한 상반된 의미해석과 입장 때문에 의제 제5항의 논점은 정치회담의 대표자로서 어느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와 어떤 사항을 의제로 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여 건의할 것인가 하는 점에 귀착되었다. 공산군의 제안을 예의 검토한 유엔군은 2월 9일 본 회담에서 이에 대한 수정을 제의하였다.[64]

> 한국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령관들은 각측 정부와 관계당국, 즉 일방 북한과 중공, 타방 유엔과 대한민국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중략) 다음의 제 문제가 최고 수준의 정치회담에서 (중략)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첫째, 한국으로부터 비한국군의 철퇴, 둘째,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셋째, 평화에 관한 기타 한국문제 등

공산군 수석대표의 성명에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의제 제5항을 다루려 하고 있음이 명백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의 결과로서 파생되는 휴전회담을 국제적으로 문제 삼아 외국군의 철군, 다시 말해 미군의 철군을 성취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휴전회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회담의 조기타결보다는 군사작전·국제여론 등을 고려하면서 회담을 지연시키려 하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 있다. 초안 제의에 이어 공산군이 제시한 정식제안은 다음과 같다.[65]

>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휴전협정이 조인되고 발효된 3개월 이내에 일방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타방으로는 유엔과 관련 있는 제국정부 쌍방은 정치회담을 개최하고 아래의 제 문제를 협상할 다섯 명의 대표를 임명한다. 1) 한반도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군, 2)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3) 한국의 평화와 관련되는 기타 제 문제

유엔군은 회담대표에 대한민국을 명시하였고 마지막 논제를 한국문제에 국한시켰다. 공산군은 이튿날 유엔군의 수정제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치회담에서 한국의 제 문제만이 아니라 극동의 다른 제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엔군의 수정 제의를 접수한 공산군은 이튿날 유엔군의 수정안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명확하지 못하다면서 휴전이 조인된 후 3개월 이내에 개최되는 정치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담은 한국의 제 문제만이 아니라 극동의 다른 제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제의 초점은 셋째 항을 유엔군의 주장인 '평화와 관련된 한국내의 기타문제'로 할 것인가 또는 공산군의 주장인 '한국평화와 관련된 기타 제 문제'로 할 것인가에 있었다. 미국은 정치회담의 범위를 한반도내로 축소시키려는 데 비해 공산군은 한국평화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망라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공산군의 주장에 대해 조이 제독은, 공산군은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공산 위성국가들이 북한 공산군을 도와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휴전 후 한국문제를 토의하는 회담에 유엔이 참가해야 한다는 유엔군 주장에 불합리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언명하면서, "공산군은 한국 내에 있는 중공군은 지원군이기 때문에 정치당국의 결정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 하였으니 휴전 후 개최될 정치회담에 중공의 참가를 반대한다"라고 강경하게 대응했다.[66]

유엔군 수석대표에 의해 일격을 당한 공산군은 휴전회담을 무기 휴회할 것을 선언하고 퇴장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은 2월 16일, "한국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쌍방사령관은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이 발생된 후 3개월 내에 고위 정치회담 교섭을 통하여 한반도로부터 모든 외국군대가 철군하고,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위해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쌍방 관계제국정부에 건의한다"라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이 수정안을 검토한 후 유엔군은 이튿날 다음과 같은 성명으로 조건부 수락하였다.[67]

> 의제 제5항에 대해 귀측이 제안한 수정안을 신중히 검토하였다. 유엔군 대표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회담에 임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귀측에게 보이기 위하여, 또한 귀측이 의제 제3, 제4항의 미결문제의 해결을 위한 회담을 지연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 구실을 배제하기 위해 유엔군 대표는 다음 조항을 조건으로 2월 16일부의 귀측 수정안을 수락하는 바이다. 첫째, 우리는 이 건의가 유엔군사령관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거니와 유엔에 송부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둘째, 외국군대라는 용어를 수락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용어가 비한국 군대를 의미한다는 귀측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성명의 기초 위에서 수락하려 한다. 셋째, 우리는 '등'이라는 말을 한국 이외의 사항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것을 희망한다.

공산군은 예상과는 달리 의제 제5항에 대한 세부사항 토의 중 참가국 선정과정에서 북한과 중공을 제시하고 소련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을 참가시키자는 제안에는 묵살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유엔 가맹국의 전부가 전쟁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엔을 참가시키는 것에도 반대했다.

한편 공산군은 유엔군의 안의 '평화와 관련된 한국내의 기타 문제'라는 표현을 '한국의 평화와 관련된 기타 제 문제'로 수정하자는 주장을 관철하려 하였다. 공산군의 주장에는 정치회담에서 특수한 건의를 행할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으며, '특수한 건의'는 곧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인정하라는 건의였다.

양측의 상반된 입장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은 공산군이 제시한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의제 제5항과 관련된 제안을 단서를 붙여 수용하게 되었다. 즉, 조이 제독은 공산군의 초안 문안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수락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유엔군은 동년 2월 17일 부분적인 용어해석을 첨부하여 공산군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유엔군은 '외국'이란 국군 이외의 군대를 의미한다는 것과 '등'이란 한국문제 이외의 것에 관계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수락하였던 것이다.[68]

공산군이 제시한 수정안을 수락하는 3개항의 조건은 고위 정치회담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며, '등'이라는 말이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관한 문제, 예컨대 대만문제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의제 제5항은 유엔군이 공산군의 수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휴전협정 제4조 제60항으로 명문화되었다.[69] 유엔군 대변인의 증언에 따르면, 유엔군이 의외로 간단히 수락하자 공산군은 실책을 범한 것이 아닌가? 이 실책으로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의심하는 빛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70]

의제 제5항이 합의에 이르는 데에 11일 밖에 걸리지 않았으므로 이제까지의 회담에서 가장 좋은 기록이었다. 그러나 쌍방이 이에 대하여 쉽게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 합의가 나중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분히 무시될 수 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을 가능성이 많이 남겨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의제 제5항은 유엔군이 공산군의 수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휴전협정 제4조 제60항으로 명문화되었다.

의제 제5항이 타결됨에 따라 한국의 통일을 '해방전쟁'이라는 방법으로 달성시키려고 했던 북한과 이를 지원하는 공산진영의 목적은 무산되고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정치회담에 그 해결을 위임하게 되었다. 결국 정치회담은 어느 한편이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또는 한반도를 상대방의 자유의사에 맡겨도 좋다고 양보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규약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유엔군은 쉽게 의제 제5항에 합의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의제 제5항이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휴전성립이 공산군의 이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전을 성립시키려 할 것인지는 의문이었다. 소련으로서는 극동에 긴장상태를 유지시켜 놓는 것이 그 전략적인 의도였던 만큼 휴전성립의 전도를 낙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4 절 일괄타결 모색과 무기휴회

1. 유엔군의 일괄타결안 제시

의제 제3항은 정전 및 휴전에 관한 조항 수행을 감독하는 기관의 구성, 권한, 기능을 포함한 휴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 협의이며, 제4항은 포로에 관한 협의였다. 이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쌍방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다.

휴전회담은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의제 제3항의 중립국 감시위원회 문제와 의제 제4항 포로문제는 쌍방에게 군사적 승리를 대신한 정치적 승리를 위한 목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협상이 정체되자 유엔군 수석대표 조이 제독은 1952년 3월 9일 총체적인 타결방법을 모색하게 되어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는 공산군에게 최후통첩을 하되 일정한 양보를 포함시켜 온전한 휴전협정문을 작성하자는 것이었다.[71] 다시 말해서 이 방안은 공산군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수락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끝내고 전투를 시작하든가 양자택일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었다. 조이 수석대표는, 이 방책의 선택 여부는 미국정부의 결심이 필요하고 최후통첩이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전 전선에서 대대적인 작전을 전개하게 되는 위험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휴전협상을 진척시키는 데에는 가장 신속하며 유리하다고 생각하였다.[72]

두 번째는 공산군에게 공개적으로 최후통첩을 하지는 않으나 합리적인 휴전협정문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 방책은 최종적인 노력으로서 이미 제출된 휴전협정 초안에 약간의 어구상의 수정만을 가하자는 제안을 통보한 후 본 회담은 휴회에 들어가고 유엔군은 더 이상 실질적인 토의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유엔군사령부는 휴전협정을 성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무력사용의 시사와 확고부동한 태도만이 협상타결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유엔군사령부는 휴전회담의 쟁점들을 도덕적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지금까지의 방침을 바꾸어서 군사적 압력을 사용하려 하였으며, 미국의 군사력을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이용할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유엔군은 이 시점에 이르러 성공적인 대외정책 수행은 군사력과 잘 결합할 때에만 가능하며, 무력에 호소하지 않고는 국가 이익을 추구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되었던 것이다. 강력한 군사력과 전략을 겸비하지 않은 정치력은 무능과 무력을 의미할 뿐이었다.

이 가운데 제1방책은 정부의 결심이 필요하고 최후통첩이 거절되었을 경우 전 전선에서 대대적인 작전을 전개하게 되는 위험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휴전협상을 진척시키는 데에는 보다 신속하며 유리한 방안으로 고려되었다. 이 중 한 개의 안을 제의한 후 유엔군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이 내용에 대한 추가적 협의를 거부하며 수락을 강요하는 한편, 협상자체를 파기하지 않기 위해 연락장교 논의는 허용하지만 "유엔군의 입장은 불변이며 추가적인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73]

유엔군 수석대표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지하여 이런 구상을 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휴전협정상의 중요한 시점에서 무력사용의 시사와 확고부동한 태도만이 협상타결에 이를 수 있다는 대표단의 판단 하에 협상전략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따라서 두 개의 안은 모두 최후통첩의 성격을 띤 것이었으며 차이점은 시간제한을 둔 것과 두지 않은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안은 협상이 중단될지도 몰라 유엔군사령부로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즉 미국정부는 공산군에게 최후통첩이라는 강경책을 쓰는 일을 원하지 않았고 또 일괄타결안에 최후통첩의 뜻을 함축시키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또한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 또한 두 방안이 모두 최후 통첩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시기상조라 생각하였다.[74]

그러나 이 무렵, 군 지휘관들은 유엔군사령부가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단호한 정책수립을 촉구하였다. 리지웨이 사령관은 합동참모회의로 제출한 상황평가 보고서를 통해 "공산군이 휴전을 원하

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으며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반면 회담에 임하는 공산군의 태도는 점점 강경해져서 날로 유엔군 대표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언급하고 가급적 다수의 한국전쟁 참전국이 유엔군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던가 아니면 무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등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단호한 정책수립을 촉구하였다.[75]

이와 함께 미 육군 작전참모부장 에들맨(C. D. Eddleman) 소장은 만일에 미결된 중요문제를 일괄타결안으로 제시한다면 큰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며, 공산군이 이를 수락하지 않고 협상이 결렬되어 버린다면 유엔군사령부는 회담을 타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에서 휴전회담 결렬의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유엔군사령부는 공산군에 의해 끌려가는 회담진행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전쟁 참전국으로부터 정식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방침을 세우거나 무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미국정부 내에서도 점차 회담노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유엔군사령부의 주장을 지지하게 되었다. 이의 일환으로서 중립국 감시위원회에 소련이 가입할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이에 리지웨이 장군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소련의 회원문제는 2개의 중요한 문제, 자원송환과 비행장 문제를 교환조건으로 일괄타결하기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7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엔군사령관의 보고와 건의를 받은 유엔군 정책당국은 합동참모본부가 중심이 되어 방책을 모색한 끝에 3월 14일 중립국 감시문제도 분리하지 않고 포로송환문제와 비행장 문제를 한데 묶어 일괄타결하기로 정책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때 최후통첩은 하지 않고 세 가지 해결방안을 포함해 완전한 협정문을 작성하여 공산군에 제시하되, 이것이 유엔군의 최종적이며 변경 불가능한 입장이라는 점을 천명하고 그대로 수락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이때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군 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공산군으로 하여금 수락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본질적으로 힘의 위협대신에 고위급 정치적 선언으로 대치하려는 조이 제독의 대안과

같은 것이었다.[77]

미국과 동맹국들은 군사행동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일괄타결안이야말로 정체상태에 빠져든 휴전협상을 타개할 수 있은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하게 되었다.[78] 일관타결안 전달에 대한 최종결정은 미 합동참모본부가 미 국무부·국방부의 동의를 얻고 동년 3월 14일에는 미국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루어졌다. 그후 미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사령관에게 일괄타결안 제안 준비를 지시하고, 이 제안이 공산군에게 타력을 주게 될 것이며, 공산군에 의해 거부된다면 유엔군은 국제여론의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어 회담결렬의 책임은 공산군에 돌아갈 것이라는 소신을 피력하였다.[79]

한편, 일괄타결안이 공산군에 전달되기에 앞서 휴전회담을 성공리에 이끌려는 노력이 비공개 회담이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유엔군은 포로문제에 대한 공산군의 입장을 좀 더 탐색할 목적으로 회담을 참모장교급 협상으로 되돌릴 것을 제의하였고, 공산군도 이에 동의하여 3월 16일 참모장교들이 다시 의제4항을 토의하기 시작하였다.[80] 참모장교들은 의제4항에 관하여 거의 1주일간을 토의하였는데, 약간의 희망이 있었다. 3월 22일 적측이 만일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한다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공언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포로목록 토의에 있어서도 포로 중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포로명단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8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동년 3월 25일부터 참모장교들은 비공개 회의로 들어갔다. 유엔군은 소련을 중립국감시단에서 제외하는 대가로 비행장의 건설 및 복구 제한 문제를 양보하여 휴전회담을 종결시키려 했다. 그러나 만일 공산군이 비공개 회의에서도 포로의 자원송환에 반대한다면, 일관타결안에 세 가지 문제를 포함시켜서 공산군이 두 가지 문제를 양보하도록 하고 유엔군은 한 가지만을 양보해서 휴전을 성립시키려 했다.

유엔군은 공산군이 시사한 점을 고려하여 명단의 수정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며칠이 지나면서 유엔군은 '강력하게 송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포로들을 송환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공산군도 재분류된 남한지역 거주자였던 포로

4만 4,000명에 대하여는 자원송환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명백히 받아들였다. 공산군은 유엔군이 보유하고 있는 약 13만 2,000명의 포로 중 그들이 원 고향이 남한이었던 약 1만 6,000명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역시 동의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은 유엔군이 수용하고 있은 중공군 포로가 송환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생각할 것도 없다고 공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엔군에서는 포로숫자에 관해 1952년 4월 1일 중대한 전술적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적이 협정에 의거 복귀하게 될 포로의 수에 관하여 대체적인 숫자 판단을 요구하였을 때, 유엔군은 짐작으로 약 11만 6,000명 정도가 될 것이라 하였다. 이것은 13만 2,000명에서 남한지역 거주자 출신 1만 6,000명을 뺀 북한과 중국태생 포로의 대략적인 숫자였다. 공산군은 상대적으로 높은 숫자에 관심을 갖고 즉각 명단의 점검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며 원칙의 토의는 그 작업이후에 재개하도록 권고한다고 주장하였다. 4월 3일 제3항 회의가 재개됐다. 유엔군 해리슨과 공산군 세팡이 각각 대표로 하여 먼저 참모회의에서 달성한 협의를 비준하고 다시 비행장 건설 문제와 중립국 선별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원래 입장을 고수했고 전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82] 4월 4일 양측은 유엔군이 더 정확한 대체적인 숫자를 제시할 때까지 휴회할 것에 동의하였다.[83] 적의 태도로 보아 10만 이상의 포로가 송환된다고 판단되면 곧 협정에 이를 것 같이 보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엔군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포로문제에 관한 공산군의 의도를 간파하고 휴회한 후 4월 8일부터 '분산작전(Scatter Operation)' 계획 하에 포로조사와 분류를 실시하였다. 4월 13일까지 심사를 한 10만 6,376명 중 3만 1,231명만이 송환을 희망하였다. 심사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나머지 포로까지 고려하더라도 송환희망자는 약 7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것은 유엔군이 비공개회의에서 발표한 11만 6,000명에 비하여 너무도 적은 숫자였다.[84]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 동안 여섯 차례 회의의 개회시간은 모두 5분 정도였다. 가장 짧은 회의시간은 25초로 기록되었다.[85]

유엔군 참모장교들이 4월 19일 회의에서 70,000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하였을 때

상대방은 “전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다”, “협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라고 항의하는가 하면 4월 25일에는 비공개회의마저 취소하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유엔군은 이에 본 회의를 소집하여 일괄타결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특히 이 안이 유엔군의 최종적인 입장을 담고 있음을 공산군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강경한 성명을 발표하기로 작정하였다.[86]

그러던 중 공산군이 비공개회담을 공개회담으로 전환하자고 제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4월 28일 본 회담이 열리자 유엔군 수석대표는 미결된 3개의 문제인 비행장 재건, 포로교환, 중립국감시위원단 구성 등에 관한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괄타결안을 제시하였다.[87]

1) 유엔군은 휴전기간 중 비행장 건설 또는 복구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하지 않는다는 공산군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이는 귀측이 포로와 중립국감시위원단에 관한 아측의 입장을 수락한다는 조건부라는 점을 절대적으로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2) 공산군이 억류하고 있다고 통고한 약 12,000명의 아군병력과 송환을 반대하지 않고 유엔군의 수용소 내에 수용되어 있은 약 70,000명의 포로를 교환한다는 조건으로 포로를 송환한다.
3) 중립국감시위원단은 양측이 수락할 수 있는 4개의 중립국 대표로 구성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제안은 몇 주 동안 협상대표와 정책당국자간의 협의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마련한 안이었다. 이때 유엔군 대표는 이 일괄타결안의 내용에 더하여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을 포함한 휴전협정 초안을 제출하였다. 일괄타결안을 제시하면서 조이 수석대표는 이 해결안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어떠한 실질적 변경도 고려할 수 없다는 유엔군의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일괄타결안이 전달된 후 트루먼 대통령은 성명을 통하여 미국과 유엔군의 확고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재천명하였다.[88]

미국은 리지웨이 장군이 공산군에 전달한 휴전성립을 위한 제안을 전적으로

찬동하며 지지한다. (중략) 남아 있는 세 가지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유엔군 제안은 이들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하고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즉, 1) 포로의 강제송환은 있을 수 없다. 강제송환은 기본적인 도덕과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가 억류하고 있는 포로들을 강제로 송환하게 된다면 참상과 유혈을 초래할 것이며, 미국과 유엔의 치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양도하여 살육하거나 노예로 만든 대가로 휴전을 사지는 않는다. 2) 유엔군은 비행장의 건설 또는 복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 3)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4개국 대표로서 구성해야 한다. 4개국은 공산군이 선정한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와 유엔군이 선택한 스위스와 스웨덴이다.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의 제안은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휴전협정의 성립은 전체 제안의 수락 여부에 달려 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아울러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도 트루먼 대통령의 성명과 동시에 일괄타결안에 관한 확고한 방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89]

지금까지 휴전회담을 진행시켜 온 결과 세 가지 문제가 미해결된 채 남아 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포로송환에 관한 것, 비행장 건설 및 복구의 제한,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소련의 수락 여부 등이다. 이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유엔군 대표는 남아 있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공정하고 긴요한 해결안을 제시하였다. (중략) 그 해결안은 공산군이 억류하고 있다고 성명한 12,000명의 유엔군측의 포로와 송환을 강력히 반대하지 않는 약 70,000명의 공산군 포로를 교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략) 유엔군은 비행장의 건설 및 복구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또한 유엔군이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공산군 지명을 수락하고 공산군측은 스위스 및 스웨덴에 대한 유엔군의 지명을 수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략) 어떠한 포로도 강제로 공산치하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도주의에 기본을 둔 포로 교환에 대한 유엔군 해결안을 공산군은 계속하여 반대하고 있다. (중략) 우리의 입장은 양보할 수 없으며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평화에 대한 책임은 공산군 지도자들에게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와 동시에 미 국무차관보 포스터(William Chapman Foster)는 휴전회담이 완전히 결렬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도 토의되었다고 언명하였다. 즉, 1) 중국해안의 봉쇄, 2) 중국 해안에 대한 수륙 양면 작전수행, 3) 소련과의 직접협상, 4) 원자탄 사용은 고려치 않음 등을 강조하였다.[90]

다음 회의는 공산군의 제안에 따라 5월 2일에 다시 재개되었다. 남일은 유엔군 제안을 공박하였으나 하나의 중요한 양보의 말을 끝내었다. 그는 중립국감시위원단의 구성에 있어 지금까지 소련을 참석시켜야 한다는 공산군의 주장을 포기하고 유엔군 안을 수락하겠다고 제의하였다. 다만 그 전제로 유엔군이 132,000명의 포로를 12,000명의 포로와 교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엔군은 전체를 통틀어 수락하도록 제안한 것이지 개별 내용을 협상의 대상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고 역설하였다.[91] 하지만 사실상 문제는 하나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제 협정의 유일한 장애물은 포로의 송환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느 쪽도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유엔군은 포로송환에 대해 포로는 석방되어야 하나 강제성을 배제하고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에 한해서 상대방에게 인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산군은 포로 각 개개인을 참작하는 처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포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 단정하고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라 하더라도 강제 송환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맞섰다.[92]

양측 휴전회담 대표들은 9개월 이상이나 한국에서 전쟁을 종식시킬 휴전을 위해 교섭해 왔으며, 유엔군 대표단은 휴전의 합리성을 유지하고 전쟁의 재발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긴장상태의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군용비행장의 건설 및 복구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지극히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회담에 임하였다. 반면, 공산군은 일방에 의한 타방의 내부문제에 대한 간섭이 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였다.

또한, 포로송환에 대해 유엔군은 포로는 석방되어야 하나 강제성을 배제하고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에 한해서 상대방에게 인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공산군은 포로 각 개인을 참작하는 처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포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 단정하고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라 하더라도 강제 송환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공산군의 이러한 주장은 한국전쟁 기간 중 그들이 획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포로를 공산군에 입대시키는 등, 그들에게 수용되어 있던 한국군의 약 80%를 임의 처리해 버린 사실과 상치되는 것이었다.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구성은 상호간에 승인할 수 있는 국가를 지명하도록 쌍방이 합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산군은 유엔군이 수락할 수 없는 국가를 승인하도록 계속 고집하였다. 이들 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쌍방 중의 한편이 모든 문제를 양보하거나 쌍방이 다 미결문제에 대해서 상대방 주장을 수용하는 것뿐이었다.

유엔군은 세 가지 미결문제에 대해 쌍방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한 후 비행장 건설 및 복구에 대해서는 양보하되, 포로문제와 중립국 감시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공산군이 유엔군 안을 수락하도록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유엔군의 일괄타결안에 대해서 공산군은 다음과 같은 성명으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93]

> 귀측이 결정적인 태도를 변경하지 않고 불합리한 제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아측은 회담석상에서 귀측제안의 모순점을 계속 폭로할 것이다. 귀측이 모순된 제의를 계속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른바 포로조사란 전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포로조사 결과라는 것은 2중 3중으로 귀측이 날조한 것이며, 더욱이 귀 포로수용장은 이미 전 세계에 귀측 발의의 모순성을 선언한 바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산군은 일괄타결안의 거부와 함께 쌍방의 포로를 강제 송환하고 비행장의 건설 및 복구에 동의한다면 그들은 소련을 중립국 감시위원회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제의하였다. 공산군의 이 제안은 유엔군 수석대표에 의해서 즉시 거부당하였으며, 포로문제에 대한 쌍방간의 견해 차이를 확인하였을 뿐이었다. 며칠 후 남일 공산군 수석대표는 다음과 같이 유엔군을 비난하였다.[94]

> 우리의 포로들을 귀측의 탄알받이로 억류하려는 흉계대로 양보하느니보다는 그들이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확고부동한 사실과 귀측의 포로수용소장이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을 죽이고 매장하였다는 사실을 공표하였다. 귀측의 위협과 폭

력에도 불구하고 아측 포로들은 포로조사에 저항하였으며, 귀측 포로수용소장은 아측 포로에게 비인도적 대우, 살인적인 폭력, 그리고 무력으로 포로들을 조사하고 재무장하려고 자행한 범죄 및 불법적인 행위를 전 세계에 자백하였다.

양측은 상대방의 입장을 주시하면서 본질문제가 아닌 주변적인 술책에 매달리고 있었다. 유엔군은 자유 송환을 인도주의적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공산군은 포로수용소 내에서 발생한 폭동과 소요를 이용하려 하였다.

유엔군은 협상 결렬의 책임과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회담을 계속하면서 적을 수세로 몰아넣는 한편 아울러 범세계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방안을 갖고 일괄타결안의 본질적 토의를 가급적 피하면서 유엔군 입장의 정당함을 계속 설득하였다.[95] 이와 같이 포로문제가 교착상태에 이르자 이는 국제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일괄타결안을 제안한 시점에서 휴전성립의 근본적 쟁점은 포로처리문제였다. 포로의 처리는 쌍방의 정치적 명분이 걸려 있은 사안이었으며 군사작전으로 전쟁의 승패를 가름할 수 없게 된 전제하에서는 협상의 승리 또는 정치적 승리를 얻을 수 있은 유일한 쟁점이었다. 이때 거제도 포로사건이 위기로 치달아 이 쟁점은 더욱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었다.[96]

공산군의 비난은 1952년 5월 내내 계속되어 국제적으로는 포로의 송환과 조사에 관한 유엔군사령부의 입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선택적 제안 협상과 무기휴회

유엔군 수석대표 조이로부터 휴전교섭의 임무를 인계받은 해리슨(William K. Harrison) 육군소장은 부임하자마자 공산군의 선전공세에 시달렸다.[97] 이 무렵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는 친공 포로와 반공 포로 간에 무참한 유혈사건이 거의 매

일같이 잇달아 일어남으로 해서 공산군의 좋은 선전 구실이 되고 있었다.

더욱이 포로수용소장을 구출하기 위해 포로들에게 작성해 준 콜슨 문서는 유엔군이 포로들에게 잔악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명기하고 휴전회담과 관련된 월권행위가 되는 양보를 포함하고 있어 휴전교섭에 임하는 유엔군 대표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했다. 공산군 수석대표는 회담석상에서 유엔군의 일괄타결안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98]

> 귀측이 완고하게 부당한 제안을 고집하는 한 그 제안의 부조리를 폭로하지 않을 수 없다. 귀측이 제안하고 있는 포로 심사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심사의 결과는 날조한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귀측 포로수용소장이 이미 전 세계에 그 허위성을 공표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공산군은 거제도 포로 폭동사건을 이용하여 유엔군을 궁지에 몰아넣어 정치적으로 압박하려 했다. 이와 함께 공산군은 유엔군이 '세균전'을 전개하였다는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와 휴전회담의 타결보다는 국제여론을 자극시키고자 했다. 1952년 5월중 공산군이 주로 취한 선전과 공격방식은 유엔군이 포로를 학대, 감금, 고문, 사살, 처벌, 강제혈서, 강제날인을 시켰다는 억지를 비롯해서 모든 면에서 배타적이며 잔인하고 야만적인 어휘를 사용했다. 이러한 공산군의 선전은 유엔군이 국제여론에 의해 상처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산군의 회담 교란작전은 유엔군 대표로 하여금 많은 시련을 겪게 만들었다.

해리슨 수석대표는 대부분의 회담이 공산군의 선전공세로 허비되자 본 회담 개회 시 유엔군이 제안한 결정적인 타협안을 공산군이 재검토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휴회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는 유엔군 최종안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 입장의 정당성과 공정성과 자비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여지가 없다"라는 단호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

일괄타결안은, 유엔군이 한 가지 항목에 대해 양보하는 반면에 공산군에게는 두 가지 양보를 하라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공산군의 반대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제안의 최종목적은 비행장 문제와 소련을 중립국감시위원국으로 하자는 문제를 제거하고 포로처리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었다. 유엔군 수석대표는 이러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재차 천명하였다.[99]

> 본인은 우리의 주장이 불변이라는 사실을 재차 알리는 바이다. 우리는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안내용에 대해서 언제든지 설명할 용의가 있다. (중략) 우리가 제안한 재심사라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귀측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재심사는 송환을 맹렬히 반대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포로를 송환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다. (중략) 귀측의 지연작전은 우리의 제안을 실현시키기보다 오히려 전쟁을 계속하고자 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귀측은 아측이 수용하고 있는 포로에 대해서 충성을 선언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또한 귀측을 맹렬히 반대하는 자는 총검을 겨누어서라도 귀측에게 송환시키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략) 귀측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요소에 대한 합리적 타협안을 진정으로 수락할 태도를 취해야 한다.

유엔군과 공산군의 휴전협상에 임하는 상반된 입장은 일괄타결안 협상에 있어서도 극명하게 대립되었다. 따라서 쌍방은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서 회담의제를 풀어나갈 때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서는 먼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뒤 협상을 통한 이익을 반사적으로 얻으려 하였다.

쌍방은 일괄타결안 중 비행장 건설 및 복구 문제와 포로송환 문제의 경중은 불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립국 감시위원회에 소련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명분상의 이익이 공산군에 있었을 뿐이며, 소련 스스로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소속되길 원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괄타결 방식에 의한 타협의 성립은 군사력의 우위를 전제로 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공산군은 포로가 전원 송환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를 체제상의 열악함이 증명될까 두려워하였으며,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양보해야 한다는 심리적 불이익과 정치적 공세라는 측면의 불리함 그리고 협상 주도권 상실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극단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일괄타결안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포로송환 문제였는데 몇몇 국가가 중재에 나서기도 하였다. 네르보(Luis Padillo Nervo) 유엔 주재 멕시코 대사는 리(Trygve Lie) 유엔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내 포로송환 문제 해결에 나섰다.[100]

문제해결에 본질적인 어구만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나 타 유엔회원국의 견해에 따라 수정될 수도 있는 우리 정부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송환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포로는 지체 없이 송환되어야 한다. 기타의 포로에 대해서는 본 제안을 승인하는 각 유엔회원국이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이민 신분을 부여하는 협정에서 합의를 보는 비율로 일정수의 상기 포로를 받아들일 것을 약속한다.

아시아대륙의 한반도 지역이 정상화되는 즉시 포로의 원귀속정부는 이들의 송환에 필요한 편의와 보증을 제공한다. 유엔회원국들은 이들 포로가 이미 언급한 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소속국가로 귀환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송환절차를 밟도록 한다. 이 경우에 유엔은 포로의 희망을 성취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한다. (중략) 포로들에게 인간존엄성의 상징인 자유노동의 권리를 주어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또한 그 자신의 운명을 자유로이 개척할 수 있는 인간의 양도불가한 권리가 널리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국제법 발전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이 제안이 효과적인 합의에 도달한다면 이는 유엔의 전 세계적 목적과 유엔회원국들의 신뢰성에 대해, 송환을 거부한 한국 내 포로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인민의 믿음을 돈독하게 할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오스틴(Warren R Austin) 유엔주재 미 대사는 유엔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101]

유엔군은 공산주의자들과 포로문제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유엔군은 억류중인 모든 포로들을 귀환시키려 하였으나 송환을 반대하는 포로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띠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이 기본적인 입장은 한

국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타 유엔회원국의 완전한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공산정부와 그의 인민으로부터도 일반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믿는 바이다.

또한 유엔군은 송환되기를 원치 않는 포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를 계속 억류하거나 또는 특별히 처리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중략) 중공과 북한은 약 1만 2천 명만을 포로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들만을 송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엔군은 송환을 반대하지 않는 모든 포로를 송환시킬 것과 그 인원수는 대략 8만 3천 명에 달하고 있음을 천명하였다.

한편 유엔군은 1952년 4월 28일에 만약 공산군이 포로에 대한 상기한 계몽적이고 인도적인 입장을 수락할 것을 조건으로 비행장 건설 및 복구에 대한 반대를 철회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략)

미국정부는 멕시코의 제안을 환영한다. 물론 이 제안은 포로를 강제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공산군측이 동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동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 중공과 북한대표들이 강제송환이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여러 가지 제안 중 어느 것이든 수락할 용의가 있다면 이 제안은 송환되지 않는 포로, 특히 한국인이 아닌 송환되지 않는 포로들을 처리하는 데 좋은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휴전회담은 1952년 8월까지 무의미하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8월에 접어들어 휴회가 더욱 빈번하였다. 포로문제에 대한 해결은 지난 4월 이래 조금도 범위가 좁혀진 것이 없었다. 그 속에서도 유엔군에서는 무엇인가 해결하려는 노력만은 버리지 않고 있었으나, 전선에서의 사상자는 더욱 늘어만 갔다.

1952년 8월 3일, 11일, 19일 회의에서도 공산군의 장광설이 끝난 후 유엔군의 요청으로 각각 1주일간의 휴회가 반복되었다. 결국 8월 27일 회의에서 또 휴회가 선언되자 회담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102]

이 무렵 모스크바에서 중·소 회담이 개최 중에 있었기 때문에 미 대통령은 지체되고 있는 휴전회담에 관한 특별성명의 발표를 보류하고 있었으며,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민간인 억류자를 석방하겠다는 유엔군사령관의 건의를 승인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었다. 판문점에서는 공산군의 비난이 계속되자

유엔군 수석대표가 또다시 아래와 같이 포로송환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촉구하였다.[103]

> 귀측은 공산주의 지배 하로는 여하한 희생을 치러도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수천의 중공군 포로들을 휴전의 대가로서 송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휴전협상을 거절하고 있다. 아측은 귀측에게 포로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귀측은 그것마저 거절하였다.
>
> 귀측의 계속되는 휴전협정체결 지연으로 인한 결과를 보면, 1) 귀측은 송환을 반대하지 않는 귀측 포로 8만 3천 명의 송환을 저해하고 있다. 2) 귀측은 전투의 계속을 강요하고 있다. (중략)
>
> 따라서 휴전협정 체결의 지연책임은 귀측에게 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중공포로 문제를 검토해 보면 (중략) 귀측이 이른바 프로레타리아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공산국가가 얼마나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지를 귀측 인민이 알게 되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다. 귀측이 공산지배로부터 도피하려는 자들을 처벌하려 한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우리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포로를 강제 송환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중략)
>
> 귀측은 진실로 휴전을 희구하고 있지 않으며, 협상은 단지 전투를 계속하려는 진의를 감추기 위한 단순한 위장책이 아닌가 의심된다. (중략) 만약에 귀측이 휴전에 동의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는 휴전협정(초안) 제51조에 따라 송환될 포로들의 명부를 교환할 용의가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엔군 수석대표는 8월과 9월에 있었던 모든 일을 재검토하였으며, 이제는 유엔군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작성하여 공산군에게 마지막 타결안을 제안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타결안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공산군이 또다시 반대한다면 회담을 무기한 휴회시키든가 아니면 공산군과의 협상을 끝내든가 양자택일의 시점에 다다랐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공산군이 자원송환 원칙을 여러 가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유엔군에서는 이들을 자유로운 신분으로 석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결심하였다.[104]

이 무렵 트루먼 미 대통령은 공산군이 유엔군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휴회를 선언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결론적으로 공산군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시달하였다. 반면 공산군은 스탈린(Joseph V. Stalin)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비밀전문에 의하면, 스탈린 자신은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05]

1. 지상·해상·공중에서 쌍방의 군사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
2. 국제규범에 따라 모든 전쟁포로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킬 것.
3. 중공 의용군을 포함한 외국군대를 조선에서 2~3개월 내 철수시키며 한국인들 자신이 직접적인 관계국들과 한국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포함한 기타 국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감시 하에 한국 통일정신에 입각하여 한국문제를 조정할 것.

이처럼 포로교환 문제로 하여 양측대표들의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진 상태에서, 9월 20일 유엔군총사령부에서는 "포로심사결과 민간인으로 판명된 1만 1천 명의 억류자를 10월 1일부터 6주일 내에 모두 석방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106]

그러던 중 유엔군 수석대표 해리슨 중장은 미 정부당국과의 협의 후 일괄타결안이 제시된 지 만 5개월이 되는 1952년 9월 28일의 회담에서 침체되어 있던 포로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선택적 타결안을 제안하였다. 그는 포로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장문의 성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새로운 세 가지 선택적 타결안을 제안하였다.[107]

본관은 이제 중대한 성명을 발표한다. 포로문제가 수 주간에 걸쳐 한국의 휴전 성립을 방해하여 왔다. 7월 1일 우리는 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쌍방의 요구조건을 상당한 정도로 만족시켜야 한다고 귀측에게 제안한 바 있다. 귀측은 동 주장의 정당성을 시인한 바 있다. 우리의 요구조건 중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은 자원송환이라는 것이 이제는 귀측에게 명백히 밝혀졌을 것이다. 이 인도적 원칙 내에서 유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은 휴전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해왔다. 유엔군 대표가 포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안출하려고 의도한 객관성과 성실성에는 의심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므로 우리들이 전에 게시하였으나 귀측이 즉석에서 거부한 제안을 재언급하고자 한다.

합동감시반 또는 적십자반이 쌍방의 군사요원을 동반하든 혹은 동반하지 않던 송환을 원치 않는 포로들이 그들의 소속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한다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쌍방의 포로수용소 출입을 허가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쌍방의 모든 포로는 적절한 수로 구성된 집단 형태로 비무장지대에 인도되어야 하고 송환에 대한 포로들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와 다음과 같은 단체 중의 일부 혹은 전체가 행할 회견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안한 바 있다. 1) 국제적십자위원회, 2) 비참전국감시반, 3) 합동군사감시반, 4) 쌍방의 적십자대표 등.

만약 귀측이 동 제안 중의 어느 하나를 수락한다면 휴전은 성립될 것이다. 본관은 이제 세 가지 추가 대안을 제출한다. 이 세 가지 추가 안 중 어느 것이든 귀측이 진실로 희망한다면 휴전의 성립을 가져올 것이다. 동 추가대안은 아측이 휴전에 동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대안에 대하여 신중히 배려하기를 당부한다. 이 제안은 쌍방이 휴전성립 후 다음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에 의거하여 포로처리를 결정하고 쌍방이 우선 휴전을 정식 수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제1안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쌍방관리하의 모든 포로는 석방 및 송환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포로의 석방 및 송환은 휴전협정(초안) 제3조의 각항에 의거하여 개시하여야 한다. 포로의 교환 및 송환에 대한 의무는 비무장지대 내에 합의된 교환지점까지 포로를 이송함으로써 완수되는 것으로 합의한다. 포로들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포로의 성명은 국제적십자위원회 합동적십자반 또는 합동군사반 등의 일원 혹은 전체가 참석한 앞에서 합의된 포로명단에 의거 대조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포로는 협정에 따라 완전 송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점검시 포로가 억류당하여 왔던 측으로 돌아갈 의사를 표명하면 즉시 동 요청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포로들은

원하는 측의 관리 하에 들어갈 것이며 이 포로의 관리측은 동 포로에게 비무장지대로부터 한반도내의 관리지대까지 수송수단을 제공한다. 물론 개개인은 포로로서 억류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자격이며 휴전협정(초안) 제52항에 의거하여 재차 한국전쟁 전투에 참가할 수 없다.

(2) 제2안 휴전협정이 효과를 발생하는 즉시 송환을 희망하는 모든 포로는 조속히 교환되어야 한다. 송환을 거부하는 모든 포로는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쌍방의 군사적 관리로부터 벗어나며 상호 합의한 국가 혹은 군대 중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던 국가의 대표에게 회견 가능한 비무장지대 내에서 소집단 형태로 인도되어야 한다. 이 포로들은 회견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그들이 선택한 측으로 갈 자유를 가진다. 전술한 절차는 각 측의 군사대표가 있든 없든 다음의 단체 중의 일원 혹은 전체의 감시 하에 수행된다. 1) 국제적십자위원회, 2) 합동적십자반, 3) 합동군사반 등

(3) 제3안 휴전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송환을 희망하는 모든 포로는 조속히 교환되어야 한다. 만일 병참능력이 허용한다면 휴전과 동시에 혹은 휴전후 가능한 한 조속히 송환에 이미 반대의사를 표명한 동 포로들은 적당한 수로 구성한 수개 집단으로 비무장지대 내 상호 합의된 장소로 인도될 것이며, 그곳에서 군사적 관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한다. 석방된 개개 포로들은 심문·회견·심사를 받지 않고 그들이 선택한 측으로 갈 자유를 가진다. 만약 희망한다면 국제적십자위원회, 합동군사감시반, 혹은 쌍방 적십자대표의 일부 혹은 전체의 감시 하에서 송환거부 포로의 이동 및 처리에 동의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처럼 유엔군 해리슨 대표는 선택적 타결안을 제안한 직후 공산군에 검토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 10월 8일 오전 11시까지 10일간 휴회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제안은 모두가 자유송환이란 인도적인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엔군으로서는 그 어느 것이나 휴전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유엔군에서 제안했던 어느 제안보다 양보한 것이었으며 또한 유엔군의 최종안이기도 하였다.

유엔군이 제안한 선택적 타결안의 핵심은 첫째 안은 포로전원을 비무장지대로

이송하여 적십자사나 합동군사반 또는 이들이 합동으로 포로를 한 사람씩 확인 검사하며, 만일 포로가 이때 그들을 억류하고 있던 곳으로 가고 싶어 한다면 자유로운 행동을 보장한다. 이럴 경우 이들 포로는 민간인 신분으로서 처우되며 또 다시 한국전쟁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안은 송환을 희망하는 모든 포로는 신속히 교환되어야 할 것이며 모든 송환거부포로는 수개의 집단을 구성, 비무장지대로 이송하여 군통제로부터 석방시키고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국가의 대표가 이들을 면담하는 것으로서 공산군이 원한다면 국제적십자사나 합동적십자반, 혹은 합동군사반의 참관 하에 군사대표와 함께 또는 군사대표 없이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 안은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는 가급적 속히 교환되어야 하며 모든 송환거부포로는 비무장지대로 이송하여 군사적인 통제 하에서 석방시킨다. 그런 다음 심문, 조사나 면담을 하지 않고 석방된 포로는 그들이 선택하는 쪽으로 자유로이 가게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제안에 비해 논리적이며 양보를 포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0월 8일의 공산군 대표 남일은 회담에서 공산군은 선택적 타결안에 대해 "유엔군이 제시한 방안이 비록 새로운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종전까지의 불합리했던 요구를 숨기기 위해 형식과 방법을 달리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논평하여 연초부터 계속 고집해 오고 있던 강제송환 원칙을 되풀이하고 나왔다.[108] 유엔군 해리슨 대표는 10월 8일의 회의에서 선택적 제안이 공산군에 의해 거부되자 회담의 다음과 같은 요지로 무기휴회를 선언하였다.[10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9월 28일 유엔군 대표는 기왕에 귀측에 제시한 제안들을 검토하였으며, 여기에 부가하여 귀측의 고려를 기대하면서 3개의 신 제안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귀측은 우리의 제안을 무조건 거부하였다.

2) 1950년 6월 25일 북한공산군은 대한민국을 침범하였다. 이 사실은 당시 주한 유엔위원단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동 위원단은 호주·중화민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터키의 대표로서 구성되어 있었다.

3) 군사적 침공의 격퇴와 한국의 국내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그럼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유엔은 대한민국을 원조하였고 또 귀측과 전장에서 싸우게 되었던 것이다. 평화를 회복하려는 목적 하에 유엔군은 1951년 7월 10일 이래 한국전쟁의 종식을 초래할 영예로운 휴전 성립을 위해 아낌없는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4) 1952년 4월 28일 유엔군은 휴전을 방해하는 문제의 해결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하나의 제안을 하였다. 이 제안에서 유엔군은 만약에 귀측이 포로문제에 있어 유엔군의 인도적 입장을 수락한다면 이를 조건으로 군용비행장의 건설 및 복구를 거부하는 아측의 합리적인 주장까지도 포기할 것을 제시하였다. (중략)

5) 세계로 하여금 귀측이 제네바협약의 옹호자임을 믿게 하려는 데 반하여 귀측의 행동은 이율배반적이다. 회담이 시작될 때부터 귀측은 완강히 비인도적으로 중병상 포로를 즉시 교환하자는 제의마저 거부해왔다. 귀측은 포로수용소를 끝내 군사목표물에 인접한 지점에 설치해왔다. 귀측은 유엔군 포로명부를 국제적십자사에 교부할 것을 거부하여 왔고 또한 국제적십자위원회나 기타 중립국가의 귀측포로수용소 방문을 허가하길 거부하였다. 귀측은 포로들에게 위문대를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인도적 대우를 소리높이 외쳐 왔다. 그러나 이 훌륭한 언약을 실천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귀측은 제네바협약은 쌍방이 억류중인 포로의 안녕과 구호를 위한 여러 조치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

6) 무엇보다도 가장 큰 모순은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모든 포로가 각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원 귀측에 송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전쟁 초기에 수천의 아측 포로를 귀측군대에 편입시킨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측이 제네바협약에 입각한 휴전을 주장하는 것은 허위이다.

7) 귀측이 모순에 빠져 있는 또 하나의 실례는 한국전쟁에 투입된 중공군운 지원군이라는 주장이다. 귀측은 북한의 위기에 즈음하여 지원군으로서 출전하는 개인의 권리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송환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8) 유엔군은 휴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는 귀측에 억류되어 있는 유엔군 포로와 아측이 수용중인 포로를 교환할 것을 제안하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송환 여부에 대한 포로 자신의 태도를 공평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 중 어느 것에나 동의하도록 제의하였었다. 또한 송환을 수락하고도 변심한 포로는 모두 귀측으로 송환한다는 우리의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9) 유엔군은 앞으로 더 이상 제안할 만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제시한 안들은 개방되어 있다. 유엔군 대표는 단지 귀측의 치욕적이고 허위적인 선전을 듣기 위하여 여기에 온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유엔군은 휴회를 요구한다.

이로써 결국 협상단계는 끝이 나고 말았다. 이제 유엔군이 선택을 공산군에 넘겼고 이후의 문제는 공산군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유엔군이 강제송환을 반대하고 공산군이 전원송환을 고집하는 한, 어느 한편이 정치적 피해를 감수하고 양보하지 않는 이상 절충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해리슨 유엔군 수석대표의 휴회선언으로 제122차 본 회담이 중단되자,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110]

1) 유엔군은 한국에서의 비참한 손실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성실하게 그리고 인내로써 15개월을 기다려왔다. 유엔의 기초인 인류의 제 기본 이념을 지침으로 삼아 한국민의 안전과 평화의 회복을 지향하는 조치로서 쌍방의 합리적이고 명예로운 휴전에 공산군이 참가하도록 설득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공산주의 정권과 전쟁에 투입된 중공군 대표들은 인도주의의 기반이 되어 있는 도덕적인 견지에서 포로문제를 해결 짓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들과 또 그들의 배후에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자들은 개개인이 매매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음을 시인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우리 수중에 있는 그들 인민 대부분이 죽음으로써 공산학정 하로 귀환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9월 28일 유엔군측 대표는 세 개의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 제안은 포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8개월간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4) 공산군은 이 제안들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아무런 건설적인 제안도 제시하지 않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았으며, 판문점회담을 비방과 허위선전의 장으로 이용하여 왔다. (중략)

5)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자유인민의 양심에 따른 휴전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 휴전을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는 공산군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

이처럼 해리슨 대표와 유엔군사령관의 발표로 휴전회담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 처해지자, 이어서 애치슨 미 국무장관도 휴전회담 중단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111]

공산군이 유엔군 대표의 여러 제안을 전적으로 거부한 후 해리슨 수석대표는 휴회를 요구하였다. 이 휴회의 기한은 전적으로 공산군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 (중략) 이 제안(선택적 제안)은 세 개가 모두 자원송환이란 인도적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다. 세 개의 제안 중 그 어느 것이나 휴전을 성립시킬 수 있는 제안이다.

공산군은 유엔군이 포로로 하여금 송환반대의사를 표시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사실은 이와 반대인 것이다. 유엔군은 만약에 그들이 송환을 거부한다면 그들 가족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각 포로들에게 지적하였고, 또한 송환을 거부한 포로의 운명에 대해서 유엔군은 아무런 확약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주었다. 해리슨의 제안은 포로를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중립지대로 이송한 후 자유롭게 남이나 또는 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안까지도 포함되었다. (중략)

우리는 단 한 사람의 포로라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관하여 결코 타협하지 않음을 확언한다. (중략) 우리는 인명을 거래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인류를 공산주의자의 수중에 인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해리슨의 선언이 휴전의 절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이 휴전 성취를 위한 확고한 조치라고 믿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유엔군의 입장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확고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 공산군은 한국평화를 희구하는 전 세계의 희망을 계속하여 희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는 포로문제의 인도적 해결책이 강구되리라는 사실을 계속하여 믿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판문점에서 능히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바이다. 오늘 아침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언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인민들의 양심에 용납될 수 있는 휴전협정을 체결할 용의를 언제나 가지고 있다. 공산군이 이러한 휴전을 우리처럼 원하고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은 오직 그들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회담이 사실상 결렬되기에 이르자 공산군은 동년 10월 9일 방송을 통해 유엔군이 고의로 휴전회담을 결렬시켰다고 책임을 전가하였다.[112] 이제 휴전회담은 미궁에 빠져 지금까지 가장 많은 정력과 시간을 소모시켜 왔던 포로교환 문제를 놓고 결렬상태에 놓이고 말았다. 그것은 협상이 개시된 지 15개월 만에 그리고 유엔군이 1952년 4월 28일 일괄타결안을 전달한지 약 6개월 만에 중단되어 다시 재개되는 1953년 4월 25일까지 근 6개월간 무기휴회로 들어갔다.

3. 유엔의 타결 노력

휴전협상은 개막된 지 15개월 만에 포로송환에 대한 쌍방의 기본입장의 차이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1952년 10월 8일 무기휴회로 들어갔다. 특히 그동안 유엔군은 일괄타결안, 선택적 제안 등을 제의하며 조기타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하였다. 유엔군으로서는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1952년 가을과 겨울간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이 무렵 한국정부의 입장은 “협상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공산군에게 병력과 무기를 증강시켜 주는 계기밖에는 되는 것이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더구나 10월부터 국민들의 휴전반대운동은 더욱 가열되고 있었다. 즉 10월 25일 부산에서 많은 학생들이 “통일 없는 휴전 없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휴전반대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연일 각 도시에서도 일반시민들의 휴전반대 궐기대회가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었다.[113]

공산군은 유엔군에 회담결렬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비난을 계속하는 한편 판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점 주변에서 유엔군이 중립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포로수용소에서의 폭동사건을 빌미로 정치적 선전을 강화하였다. 유엔군의 군사적 압력도 회담에서의 공산군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휴회기간 중에도 판문점에서 연락장교간의 접촉은 계속 유지되었으나 사태전환을 위한 계기를 만들지는 못하였다.[114]

마침내 유엔군이 1952년 10월 14일에 개최되는 제7차 유엔총회에서 그 타결책을 모색하기로 함으로써 휴전을 위한 노력은 유엔으로 장소를 옮겨가게 되었다. 원래 자유진영은 유엔에서 한국문제를 토의할 경우 공산군이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해 왔으나, 포로문제만을 남겨놓은 현시점에서 조기해결 가망성이 보이지 않자 미·영 양국이 그 태도를 바꾸어 공산군에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부득이 그 교섭 장소를 유엔으로 옮기는데 의견 일치를 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공산군도 1952년 9월 중순 이미 유엔군이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그에 대비하여 멕시코·인도·버마 등 각국 입장을 검토하는 한편 유엔군의 입장에 우호적인 국가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거부하도록 결정하고 있었다.

당시 유엔회원국들의 편성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참전 16개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위성국가군 그리고 아시아·아랍 등 중립국가군으로 갈라져 있었다. 이러한 분포에 불만을 가진 소련은 유엔총회 개최 초부터 유엔기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국들이 한낱 미국의 정책도구에 불과하다는 평가아래 외상 비신스키(Andrey Y. Vyshinsky)로 하여금 "미국이 휴전회담의 결렬을 획책하였다"라고 비난하게 하였다.[115] 이제 공산군의 휴전회담의 선전무대가 판문점에서 유엔총회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동년 10월 24일 유엔정치위원회에서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은 공산군이 포로의 비강제 송환이라는 기본원칙을 수락한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전제하고 영국을 위시한 우방 20개국의 지지를 받아 공동제안으로 소련과 중공에 포로의 자원송환원칙에 기초한 휴전에 동의할 것을 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청하며 다음 요지의 결의문을 제출하였다.[116]

1) 한국휴전의 달성을 위하여 미국이 그동안 노력하여 온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2) 포로의 송환문제는 자원송환원칙을 견지하기로 총회에 요청한다.
3) 중공과 북한정부에 대하여 무익한 유혈을 피하는 휴전을 수락하라고 통고한다.

유엔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그 제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비신스키 소련대표가 11월 10일 유엔총회 석상에서 1) 전쟁의 '직접 관계 당사자'와 전쟁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국가로 1국 위원회를 구성하고 2) 이 위원회의 감독아래 6·25전쟁의 모든 문제를 해결토록 지시하며, 3) 포로송환은 이 위원회의 임무로 하되 강제송환을 원칙으로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련대표는 미국을 포함한 21개국이 주장하는 포로 자유송환안을 판문점의 휴전교섭을 결렬시키며 전쟁을 연장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비난하였다.[117]

이렇게 미·소 양대 진영의 의견이 정반대로 대립되자 인도를 비롯한 아랍과 중남미제국(諸國)들이 중재에 나섰다. 각국의 제안 중에는 송환거부자 문제를 후일의 회담으로 미루자고 하는 캐나다의 제안도 또 송환거부자의 임시 피난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처리하자는 멕시코의 제안도 들어 있었지만, 특히 총회의 관심을 끈 것은 인도의 제안이었다. 인도는 11월 17일 메논(V. K. Menon) 대사가 앞장을 서서 비신스키와 절충하는 한편 중공의 의사까지 타진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결의안을 내놓았다.[118]

1) 포로의 석방송환을 실시하기 위하여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스위스·스웨덴 등 4개 중립국으로 포로송환위원회를 구성하되, 2) 포로에 대해서는 송환에 반대하거나 혹은 송환을 종용하기 위한 강제력의 사용을 금할 것, 3) 포로 전원을 비무장지대로 옮겨 송환위원회에 인도할 것, 4) 4개국 위원회는 송환협정의 해석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裁定)위원을 지명할 것, 5) 귀국을 원치 않는 포로들은 휴전이 성립된 90일 이후 송환위원회에서 정치회담으로 넘길 것.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인도의 안은 포로교환을 체코·폴란드·스위스·스웨덴 등 포로송환위원회에 일임하되, 포로들이 본국송환을 원하면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포로송환위원회 구성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지명국을 변경할 수 있으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과 6·25전쟁에 참가한 국가는 제외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도의 제안은 미국의 즉각적인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송환위원회의 책무가 모호하며 심문기간 90일이 너무 길다고 지적하고 특히 "송환을 원치 않는 포로들을 정치회담에 넘긴다"는 내용에 대해 반대하였다.[119] 그러나 인도 안은 광범한 지지 특히 영국·캐나다·프랑스의 지지를 받았다.

미국은 유엔정치위원회에서 인도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포로를 강제로 송환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포함한 명확한 수정이 없는 한 수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결의안에 포로의 강제송환을 막을 수 있는 절차를 반영한다면 인도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자 인도대표는 다시 "만일 정치회담에서 30일 이내에 송환불원포로 처리를 타결하지 못할 경우 포로는 유엔자체로 이관된다"는 수정안을 내놓았다.[120] 여기에 대해서 소련은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한국에서 휴전을 성립시키는 유일한 방안은 포로문제를 11개국 위원회로 이관하여 강제로 송환하도록 하는 길뿐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계속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국 미국이 수정된 인도안을 지지하고 자국의 안을 철회한 가운데 인도의 안과 소련의 안이 12월 3일 유엔정치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인도안이 54 대 5로 가결되고 총회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되었다. 유엔총회의 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21]

(1) 휴전협정 초안 제37항에 해당하는 4개국, 즉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스위스, 스웨덴의 대표로서 구성되는 포로송환위원단을 설치.

(2) 포로의 석방 및 송환은 1949년 3월 12일부 '포로취급에 관한 제네바협정', 확립된 국제원칙과 관행 및 휴전협정의 해당조항에 의하여 실행.

(3) 포로송환에 있어, 포로에게 강제를 행사하여서는 안 되며, 그들에게 폭격을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가하거나 또는 그들의 인격을 능욕하지 않으며, 어떠한 목적이든 인간적으로 대우.

(4) 전 포로는 억류측의 군사적 관리와 수용으로부터 합의된 비무장지대내의 교환장소에서 합의된 숫자로 송환위원단에 이관.

(5) 10월 16일부 김일성과 펑더화이의 서한에서 제안한 포로의 국적 및 본적별 분류는 즉시로 실행.

(6) 상기 분류 후, 즉시 포로는 자유로이 본국으로 귀환하며, 관계당사자는 편의를 도모.

(7) 쌍방은 포로송환에 관계있는 특히 자유송환 사항을 포로에게 고지하며, 자신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설명할 자유와 편의가 부여.

(8) 쌍방 적십자단은 송환위원단의 업무에 조력하며 포로와 접촉할 수 있음.

(9) 포로는 송환위원단에 모든 유관한 문제를 건의 또는 통고할 자유와 편의가 부여.

(10) 상기 제3항의 규정이 있다고 해도 본 송환협약에 규정된 것은 위원단의 권한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됨.

(11) 본 송환협약은 전 포로에게 주지되어야 함.

(12) 송환위원단은 그들의 의무와 임무를 수행하는데 요청되는 정당한 협조를 전쟁당사자, 위원단의 대표단정부, 유엔회원국가에게 의뢰할 권리.

(13) 위원단의 의견이 상충될 시 다수결로 정하며, 다수결이 불가능할 시 제네바협정 제132조와 다음의 조항에 합의를 본 심판인이 결정권을 가짐.

(14) 송환위원단은 심판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심판인 임명이 처음 회합에서 3주일이 되도록 정해지지 않으면 총회에 위임함.

(15) 송환위원단은 휴전 후 그의 기능이 위임되는 기관 및 감시반과 더불어 심판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자를 약정.

(16) 쌍방 당사자가 송환협정에 동의하고 심판인이 지정되는 때에는 휴전협정초안이 발효된 것으로 간주.

(17) 휴전협정 서명 후 90일의 기한이 종료하는 때 본 제안 및 기타 협약에 따라 송환되지 않은 포로의 처리는, 그들의 억류의 종료일자를 포함하여 그들의 권고와 더불어 휴전협정초안 제60조에서 소집할 것이 규정된 정치회담으로 위임한다. 만약 그 후에 30일이 되도록, 회담에서 그들의 장래가 규정되지 않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을 시는, 그들의 보호의 책임 및 이에 부수되는 처리는 그들에 관한 모든 문제를 국제법에 의하여 엄정히 처리할 국제연합으로 위임함.

이 같은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은 북한과 중공에 결의안을 수락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피어슨 의장의 메시지와 함께 권고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공외상 저우언라이(周恩來)는 12월 14일, 북한외상 박헌영은 12월 17일, "포로의 자원송환은 제네바협약과 국제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유엔은 교전당사국의 일방이므로 유엔의 결의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부의사를 밝힘으로써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였다.[122] 이리하여 인도안에 걸었던 모든 희망은 공산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 무렵 후방지역의 포로수용소에서 소규모 폭동사건이 자주 발생하였는데, 12월 14일에는 거제도 인근 봉암도(峰岩島)에서 수용된 친공포로들이 북한(남일)의 지령을 받아 폭동을 일으켰다. 이의 진압과정에서 85명이 사망하고 113명이 중상을 입었다. 공산군은 그 이튿날 판문점에서 "유엔군이 봉암도에 수용되어 있는 공산군포로를 대량 학살했으며 이와 같은 유엔군 행위의 이면에는 한국전쟁을 계속 확대시키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고 비난하였다.[123] 유엔주재 소련대표 그로미코는 피어슨 의장에게 봉암도 포로사건의 조사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유엔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정식의제로 상정할 것을 가결하기에 이르렀다.[124] 물론 12월 22일 총회에서 이 안은 45 : 5, 기권 10으로 부결되었다.

한편, 6·25전쟁에서의 휴전문제가 유엔에서 자유진영과 공산군의 대립으로 난항을 거듭하는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휴전에 대한 열망이 커져 가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6·25전쟁은 선거운동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다. 아이젠하워 공화당 후보는 "아시아인의 전쟁은 아시아인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한국군을 10개 사단에서 20개 사단으로 증강시키고 미군을 한국으로부터 철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여 휴전을 기대하던 유권자들의 호감을 샀다. 그는 당선 후 선거공약에 따라 12월 2일 6·25전쟁을 종결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내한(來韓)하였다.[1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결과적으로 그는 유엔군이 상대하고 있는 공산군은 아무리 설득해도 협상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며 오로지 행동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는 트루먼 행정부의 유화정책을 벗어나 강경한 조치를 통하여 한국전을 종결짓겠다는 적극적인 대공정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1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5 절 분석 및 평가

1. 휴전회담과 전선의 상황

전쟁이 정치의 한 수단이라는 격언은 6·25전쟁의 휴전협상 과정에서도 여실이 입증되었다. 양측이 전쟁을 정치적 협상으로 결말지으려는 정책을 결정한 후 군사작전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게 되었다. 전선의 상황은 협상의 진척에 따라 또는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군 지휘관의 의도와는 달리 작전이 억제되기도 하였고 혹은 별다른 군사적 의미도 없는 상황에서 많은 희생이 뒤따르는 격렬한 전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

1952년 연초부터 설전이 이어진 휴전회담 상황은 포로송환문제로 큰 난관에 부딪쳤다. 유엔군은 공산군에게 결정적인 군사적 압력을 가하여 전쟁을 종식시킬만한 충분한 병력과 해·공군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 점에 있어서는 공산군도 마찬가지였다. 쌍방의 병력수준은 장비면에서 유엔군이 압도적이었고 병력면에서는 공산군이 약간 우세한 편이었다. 공산군은 휴전회담 기간을 이용하여 방어진지를 강화하고 유엔군의 공세작전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체적인 전선의 작전양상은 공산군이 현 상황을 타개하려고 기도하지 않는 한 전초거점 쟁탈전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연초 전선의 상황은 작년 말의 상황과 유사하게 각 전선에서 소규모 탐색전이나 전초진지 쟁탈전이 전개되었으며 동년 여름부터는 비교적 규모가 확대되어 불모고지 전투, 수도고지·지형능선 전투, 백마고지 전투 그리고 저격능선 전투 등 대표적인 고지쟁탈전이 지속되었다. 대체로 동년 9월부터 11월 초까지의 지상전투 상황은 공산군이 전장의 주도권은 장악하고 있는 편이었다. 이런 가운데 11월경 전선의 상황은 쌍방의 전초거점 작전이 끝나고 다시 소강상태로 되돌아가 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찰전과 소규모의 탐색전으로 바뀌는 형국이었다.

휴전회담 상황은 유엔군이 제안한 일괄타결안에 이어 선택적 제안을 공산군이 10월 8일 최종 거부함에 따라 협상이 중지되었고 결국 무기휴회에 들어갔다. 이에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공산군에 압박을 가하여 휴전회담을 타결해 보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그는 미 합동참모본부에, "유엔군이 휴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공산군에 대한 군사적 압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라고 전제하고 평양-원산선까지 진격하는 수륙양면작전과 공수작전을 병행하도록 건의하였다. 이때 그는 중공내의 군사목표물에 대한 해·공군작전을 단행한다는 예비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신임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정치지도자들도 협상을 통해서만 전쟁을 종결지으려 하였다. 이를 계기로 공산군의 공격작전의 빈도가 연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공산군은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서부전선에서 일제히 공세작전을 전개하며 미 제2해병사단, 국군 제1사단, 미 제1사단, 미 제7사단, 미 제1해병사단 방어정면에 대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에 대응한 유엔군의 공세는 공군으로 하여금 공산군의 후방시설을 폭격하였을 뿐 지상에서의 대규모 공격작전을 전개하지 않았다. 이는 곧 공산군이 회담의 휴회기간에 공세작전을 전개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유엔군이 휴전협상에 임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휴전회담 세부 의제 토의

1952년 초 휴전회담이 시작된 지 약 6개월이 지났으나 실질적인 의제 4개 항목 중에서 일단 타결된 것은 제2의제인 군사분계선 문제뿐이었고, 이것마저도 30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15일간의 연장을 제의하기는 했으나 이미 마감기한이 끝나고 말았다. 제3의제 휴전세부사항 문제와 제4의제 포로교환 문제도 논의 중이었

으나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다.

의제 제3항 '휴전과 휴전세부사항'은 쌍방이 어떻게 정전을 실행하고 전쟁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건을 보장하며 또 그것의 실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어떤 기구를 설치할 것인가 등에 관한 문제였다. 유엔군과 공산군은 이미 잠정 분계선에 대한 합의를 보기 전부터 의제 제3항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분계선 설정문제가 타결된 이후부터는 휴전세부사항 문제가 큰 난제로 부각되었다.

공산군의 남일은 "유엔군의 부대, 보급품, 장비 및 시설증가에 대한 제한과 감시반이 전 한국을 자유로이 접근하도록 허용하자"는 유엔군의 제안에 대하여 집중적인 공격을 하였다. 공산군은 "한국에서 외국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한국문제를 최종적으로 평화로이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다"고 주장하였으며, "북한의 시설복구 특히 비행장 복구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수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의제 제4항인 포로교환협상은 의제 제3항(휴전세부사항)의 협상이 분과위원회로 넘어간 1951년 12월 11일부터 시작되었다. 회담벽두에서 공산군은 쌍방이 보유하고 있은 모든 포로를 휴전협정 조인 후 즉각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군은 포로를 공정하고 적합한 기준에 따라 조기 포로교환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회담의 첫 단계로 전체포로명단의 교환,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포로수용소 방문을 요구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포로교환 협상은 표면상으로 비교적 간단한 것처럼 보였으나, 회담이 시작되면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쌍방이 서로 인정한 제네바협약(제118조)은 최초 논란의 여지가 없어보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수의 포로가 송환을 희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포로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귀국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제네바협약에는 이와 같은 사항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의제 제4항의 토의에 있어서 자원송환과 강제송환 문제가 최대의 쟁점이 되었다.

의제 제5항 '관계제국정부에 대한 건의'는 의제 협의 시 공산군에 의해 거론되었으며, "쌍방은 휴전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정치회담을 통해 토의하도

록 관계제국정부에 건의한다"라고 어구를 수정한 바 있었다. 이 의제는 유엔군이 의제 제3, 제4항에 대한 초안을 제시한 후, 1952년 1월 31일 마지막 남은 의제 제5항도 다른 나머지 문제와 함께 토의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공산군이 수락함으로써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유엔군은 제5항을 의제로 채택하긴 하였으나, 이 의제에 대해서는 정치회담의 소집을 건의할 것인가의 여부를 토의해 본다는 정도의 의미밖에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의제는 휴전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 놓은 문제를 적절히 정치회담을 통하여 토의하도록 해당 정부에 건의한다는 의미를 띠는 것이었으며 양측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고 별다른 구속력을 갖지 못한 것이었다.

3. 일괄타결안과 선택적 타협안의 결렬

유엔군사령관은 휴전회담이 난항에 봉착하자 미결된 중요문제를 한꺼번에 제시하여 일괄타결한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적어도 공산군이 이를 수락하지 않고 협상을 결렬시킬 경우에도 유엔군은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아울러 유엔군사령부는 공산군에 의해 끌려가는 회담진행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참전국으로부터 정식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미국정부 내에서도 점차 회담노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하였다. 그 결과 유엔군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소련이 포함될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미 합참과 방책을 모색한 끝에 중립국 감시문제도 분리하지 않고 포로송환 문제와 비행장 문제를 한데 묶어 일괄타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유엔군은 휴전회담에서의 세 가지 미결 문제에 대해 쌍방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한 후 비행장 건설 및 복구에 대해서는 양보하되, 포로문제와 중립국 감시위

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공산군이 유엔군 안을 수락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때 최후통첩은 하지 않고 세 가지 해결방안을 포함해 완전한 협정문을 작성하여 공산군에 제시하되, 그것이 유엔군의 최종적이며 변경 불가능한 입장이라는 점을 천명하고 그대로 수락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유엔군의 일괄타결안은 지금까지의 제안에 비해 상당부분 양보한 것이었지만, 공산군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다시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어 일괄타결안이 제시된 지 만 5개월 이후 1952년 9월 28일 유엔군 대표 해리슨 중장은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포로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세 가지 새로운 '선택적 타결안'을 제안하여 공산군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세 가지의 제안은 모두가 자유송환이란 인도적인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엔군으로서는 그 어느 것이나 휴전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유엔군에서 제안했던 어느 제안보다 양보한 것이었으며 또한 유엔군의 최종안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은 선택적 제안마저 공산군에 의해 거부되자 결국 회담의 무기휴회를 선언하였다. 이로써 결국 협상단계는 끝이 나고 말았다. 이제 유엔군은 선택을 공산군에 넘겼고 이후의 문제는 공산군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유엔군이 강제송환을 반대하고 공산군이 전원송환을 고집하는 한, 그리고 어느 한편이 정치적 피해를 감수하고 양보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절충적인 협상은 불가능하게 보였다. 회담이 사실상 결렬되기에 이르자 공산군은 동년 10월 9일 방송을 통해 유엔군이 고의로 휴전회담을 결렬시켰다고 책임을 전가하는데 노력을 집중하였다. 이제 휴전회담은 미궁에 빠져 지금까지 가장 많은 정력과 시간을 소모시켜 왔던 포로교환 문제를 놓고 결렬상태에 놓이고 말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휴전회담에 관한 전망

휴전협상이 개막된 지 15개월 만에 포로송환에 대한 쌍방의 기본입장의 차이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어 결국 1952년 10월 8일 무기휴회로 들어갔다. 특히 그동안 유엔군은 세부의제 토의에 이어 일괄타결안, 선택적 제안 등을 제의하며 조기타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하였다. 유엔군으로서는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1952년 가을과 겨울간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포로문제를 둘러싼 문제는 공산군이 휴전을 진심으로 원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었다. 만일 그들이 진지하게 이를 희망한다면 아군의 주장하는 원칙에 따를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지연책 혹은 선전도구로서 이용하는데 그 진의가 있다면 아군이 방법문제에 있어 어떠한 고려를 하더라도 타협의 길을 얻을 수 없었다.

휴전회담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사이 참전국들 특히 영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자연 회담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중에는 회담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이 일고 있었다. 비관론은 대체로 공산측의 무성의와 비타협성으로 회담이 교착되었고 더 이상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고, 반면 낙관론은 유엔측이 평화를 갈구하고 있으므로 곧 휴전이 성사될 것이며 공산측도 굳이 거대한 소모와 희생을 무릅써가며 전쟁을 무기한적으로 계속하거나 또는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결국 성립될 것이라는 견해였다.

휴전회담 성사에 관한 낙관론이든 비관론이든 두 견해의 정확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두 견해 공히 설령 휴전이 성립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항구적이 아닌 그야말로 평화를 가장한 일시적인 휴전이 될 가능성이 크고, 공산주의자가 무엇을 계기로 하여 재침략을 감행할지 모른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하물며 그것은 당시 남북분열의 정전을 반대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사실이었다.

(집필 : 양영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註)

1)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One(Washington, D.C.: Office of Joint History,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98), 전사편찬위원회(역),『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군인공제인쇄, 141쪽.

2)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Washington, D.C.: GPO, 1966), 육군본부(역),『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육군본분, 1968, 93쪽.

3) 전사편찬위원회(역),『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96쪽.

4)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서라벌, 1989, 150쪽.

5) 전사편찬위원회(역),『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04쪽.

6) 위의 책, 104쪽.

7)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전광인쇄, 2005, 340쪽.

8)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167쪽.

9) 전사편찬위원회(역),『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08쪽.

10) 육군본부(역),『한국전쟁』제10권, 173쪽.

11)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167~168쪽.

12) 전사편찬위원회(역),『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09. 참모장교회의 임무는 합동분과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성문화하는 것과 인원의 교체, 장비의 보충보급, 출입항의 선정, 중립국 감시반의 구성과 감시요령, 그리고 연안도서로부터의 병력철수 등을 토의하는 것이었다. 같은 책, 168쪽.

13) 위의 책, 147~148쪽.

14)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연구』제2집, 국방부, 1966, 455쪽.

15)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340쪽.

16) 북쪽 5개 지역은 신의주, 청진, 흥남, 만포, 신안주 등이며 남쪽 5개 지역은 인천, 대구, 부산, 강릉, 군산 등이었다.

17) 위의 책, 165쪽.

18) 전사편찬위원회(역),『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49~153쪽.

19) 공산군의 감시출입항으로서는 신의주·청진·만포진·흥남·신의주, 유엔군의 감시출입항으로서는 부산·인천·강릉·군사·대구가 각각 선정되었다.

20) 위의 책, 126쪽. 제네바 소재 국제적십자사는 6·25전쟁 발발 시에 교전당사국들에게 한국에서 봉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미국은 국제적십자사에 "상병포로 협정과 제네바협정의 적부에 관계없이, 인도적인 원칙 특히 제네바협정 제3조에 따를 것이다"고 보장하였다.

21)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135~136.

22)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172쪽.

23) 육군본부(역),『한국전쟁』제10권, 196쪽. 유엔군은 1950년 9월과 10월 중에 공산군이 많은 국군포로를 만주로 이동시켰다고 비난하였다. 이들 포로들은 얼마간의 정치교육을 받은 후 북한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6, 제7, 제8군단에 배속되었다. 적은 국군을 30% 이상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1951년 중 유엔군을 상대로 억지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1950년 12월부터 1951년 8월까지의 한국군 포로는 북한군 제2, 제3, 제5군단에 배속되었다. Msg, CINCFE 64762 to DA for JCS, 5 Mar 52, DA IN 112454.

24) 전사편찬위원회(역), 『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28쪽.

25)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72쪽.

26)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141.

27) 전사편찬위원회(역), 『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29쪽.

28)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04쪽.

29)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75쪽.

30) 위의 책, 123쪽.

31) 전사편찬위원회(역), 『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97쪽.

32)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76쪽.

33)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05; 위의 책, 177쪽.

34) 전사편찬위원회(역), 『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31쪽. 유엔군사령관은 과거 대한민국 인으로 재분류된 자들의 명단을 제출하면서 적이 그것을 통고받을 수 있도록 제네바 주재 국제적십자로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미 국무부가 그 명단을 1951년 12월 26일까지 통보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적은 토의가 시작되었을 때 이들이 포로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고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35)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79쪽; 전사편찬위원회(역), 『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32쪽.

36)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06쪽.

37)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80~181쪽.

38) 전사편찬위원회(역), 『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34쪽.

39) 위의 책, 198쪽. 재인용.

40)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81~182쪽.

41) 전사편찬위원회(역), 『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39쪽.

42) 이것은 비행장문제(의제 제3항)의 토의를 연기하고 다른 의제를 토의하려는 의도였다. 리지웨이 장군은 공산군이 받아들일 것인지 의심하였으나, 동의할 수도 있다는 기대 하에, 유엔군이 즉각 다른 의제의 합의를 목표로 태도를 바꾸어 새로운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Msg CINCFE CX 61505 to DA for JCS, 12 Jan 1952, DA IN 19740.

43)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82쪽.

44) 위의 책, 182~184쪽.

45) 위의 책, 198~184쪽.

46) 전사편찬위원회(역), 『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54쪽.

47)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85쪽.

48) 전사편찬위원회(역), 『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55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9) 위의 책, 154~156쪽.
50) 위의 책, 156쪽.
51) 위의 책, 198~199쪽.
52) 위의 책, 156쪽.
53) 위의 책, 170쪽. 이 항은 유엔군사령관이 미 합동참모본부로 제출한 휴전협상 일일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
54)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97쪽.
55) 위의 책, 198쪽.
56) 위의 책, 198~199쪽.
57) 위의 책, 200쪽.
58) 위의 책, 200~201쪽.
59)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87쪽. 의제 제5항에 관한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리지웨이 장군에게 왜 유엔위원단 방식이 정치회담보다 좋은 이유로, "회담이 확대되어 한국문제 이외의 다른 주제를 포함할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또 유엔의 노력에 보다 큰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Msg, JCS 900323 to CINCFE, 5 Feb 1952.
60)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344쪽.
61)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14쪽.
62) 위의 책, 115쪽. 이때 유엔군 대표단은 페렌바흐 대신에 해리슨이, 이형근 대신에 유재흥이 각각 임명되었다.
63) 위의 책, 115~116쪽.
64) 전사편찬위원회(역), 『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45;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15쪽.
65)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89쪽.
66)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16쪽.
67) 위의 책, 189쪽.
68) 위의 책, 116쪽.
69)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96쪽.
70) 위의 책, 194~195쪽.
71) 위의 책, 204쪽.
72) 전사편찬위원회(역), 『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63쪽.
73) 위의 책, 163~164쪽.
74)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05쪽.
75) 위의 책, 206쪽.
76) 전사편찬위원회(역), 『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 (하), 164쪽.
77) 위의 책, 165쪽.
78)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06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9) 전사편찬위원회(역), 『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65쪽.

80) 위의 책, 172쪽.

81) 위의 책, 177쪽.

82)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342쪽.

83) 위의 책, 178쪽.

84) 7만 명이라는 숫자는 동년 4월 17일 유엔군이 합동참모본부로 "북한인 포로와 중국인 포로의 최대인원을 강제송환하지 않고 공산측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했을 때 명백히 표명되었다. 전사편찬위원회(역), 『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538쪽.

85)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342쪽.

86) 위의 책, 538쪽.

87) 위의 책, 186;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07쪽.

88)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07쪽.

89) 위의 책, 207~208쪽.

90) 위의 책, 208쪽.

91) 위의 책, 131쪽.

92)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10쪽.

93) 위의 책, 210쪽.

94) 전사편찬위원회(역), 『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232쪽.

95) 위의 책, 233~235쪽.

96) 위의 책, 188쪽.

97) 제2대 유엔군 휴전회담 수석대표 해리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제2사단장으로 체코슬로바키아에 주둔했었으며, 전후에는 미 제9사단장을 역임하였다. 1952년 5월 21일 조이 제독과 수석대표직을 교대하고 9월 5일 중장으로 진급하였다.

98) 위의 책, 233~235쪽.

99)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21쪽.

100) 위의 책, 222쪽.

101) 위의 책, 223쪽.

102) 위의 책, 224쪽.

103) 이원복, 『전쟁과 협상』(하), 31쪽.

104)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24~225쪽.

105)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1952.9.17.), 『소련비밀외교문서』 제4권, 164. 이와 동시에 스탈린은 전쟁포로의 20%를 잠정적으로 억류시키는 문제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전쟁포로들을 송환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소련정부가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며 중국이 전적으로 다루도록 하였다.

106) 이원복, 『전쟁과 협상』(하), 35쪽.

107)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25~228쪽.

108) 이원복, 『전쟁과 협상』(하), 39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09)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29쪽.

110) 위의 책, 231~232쪽.

111) 위의 책, 232쪽.

112)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27쪽; 해리슨 중장은 동년 10월 8일 마지막 회담이 결렬되던 날 무기휴회를 선언하면서 공산측 대표 남일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제5권, 90쪽.

113) 이원복, 『전쟁과 협상』(하), 49쪽.

114)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45쪽.

115)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1952.9.17), 『소련비밀외교문서』 제4권, 164쪽.

116)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47쪽; The Text of American Proposal dated Oct. 22, 1952, *Draft Resolution on Korea*, U. S. Dept. of State Bulletin, Vol.27, p.680. 미국의 결의안(1952.10.24.)은 20개국의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21개국 결의안'이라 불려졌다.

117) 소련 대표 비신스키는 지금까지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한국과 국경을 접하는 제국을 기필코 포함하는 기타 정부'라고 막연하게 표현하였으나, 제7차 유엔정치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한국위원회라고 명명하면서 그 구성국으로 미국·영국·프랑스·소련·중공·인도·미얀마·스위스·체코· 북한 및 남한으로 발표했다. 양대현, 『역사의 증언 휴전회담 비사』, 260쪽.

118)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47쪽; 국방부, 『한국전란3년지』, C5~6쪽.

119) 인도정부는 1952년 11월 2일 중공정부의 진의를 타진하기 위하여 공한을 전달하였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송환 시 강제력 사용금지, 중립국송환위원회 설치, 포로들이 그들의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그들의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었다. 그러나 중공정부는 이 제안에 대해 답변이 없었다. 양대현, 『역사의 증언 휴전회담비사』, 258쪽.

120) 위의 책, 258쪽.

121) 국방부, 『한국전란3년지』, C9~C10쪽.

122) 소련대표 비신스키는 동년 11월 24일 총회석상에서 인도안의 부당성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면서 미국과 영국에 대해 비난하였다. 국방부, 『한국전란3년지』, A20쪽.

123) 봉암도 사건은 1952년 12월 14일 봉암도에 있는 9,000명의 포로가운데 3,000명이 수용되어 있던 6개 수용소의 포로들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봉암도 사건을 정치적으로 최대한 이용하려 하였고, 유엔군은 국제적십자사까지도 유엔군의 포로통제 방식을 비난하고 나섬으로써 난처한 입장에 처하였다. 이원복, 『전쟁과 협상』, 81쪽.

124)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49쪽.

125) 이원복, 『전쟁과 협상』(하), 89쪽.

126) 양대현, 『역사의 증언 휴전회담 비사』, 269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4 장 방어진지 보강과 치열한 전초진지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방어진지 보강
제 3 절	치열한 전초진지 쟁탈전
제 4 절	후방지역작전
제 5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유엔군과 공산군은 1951년 11월 27일 일시적이나마 잠정 군사분계선에 대한 문제가 일단 매듭을 짓게 되자, 이를 변경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가 없게 되었다. 양측은 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진하면서 수색정찰과 소규모의 국지공격을 통하여 접촉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선의 소강상태는 대체로 1952년 봄까지 지속되었다.

양측은 교착된 전선에서는 전투보다 진지강화와 부대정비에 전력하였으며, 전초엄호부대사이의 빈번한 탐색전과 소규모 전초진지전투를 통하여 상호 접촉을 유지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면서 방어태세를 강화하였으며, 공산군도 병력과 장비를 꾸준히 증강시키며 방어진지를 구축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쟁의 양상은 쌍방 공히 상대방의 주저항선을 돌파하는 공격보다는 주저항선을 확보 유지하기 위한 방어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전초의 전술적 운용은 지상 작전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전초는 경계부대로서 이를 지연·저지·와해시킴으로써 주방어진지에 배치된 주력부대로 하여금 방여태세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전방경계부대 및 일반전초와 전투전초의 임무를 겸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양측은 전투전초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경계수단으로서 수색정찰대를 운용하여 제한된 규모의 공세적인 전투정찰을 끊임없이 전개하였다. 공산군의 전투정찰대는 흔히 소대 내지 중대 규모로, 드물게는 대대규모로 편성되어 공중으로부터의 관측과 폭격을 피할 수 있는 야간에 한국군 및 유엔군의 방어선에 대한 수색과 정찰을 실시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군과 유엔군은 통상 중대 내지 대대 규모의 전투정찰대를 편성, 대개의 경우 주간에 공산군 진지에 대한 위력수색과 교란을 목적으로 한 국부적

육군본부 군사편찬연구소

인 공격을 실시하였으며, 주저항선에 배치된 전방 연대는 공산군의 야간침투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지경계부대를 운용하였다. 1952년 초 전개된 대표적인 전초진지전은 두매리 부근 전투, 사천강 부근 전투, 크리스마스고지(1090) 부근 전투, 557고지 전투, 662고지 전투, 호도 전투 등이었다.

쌍방의 전투정찰대의 접전은 때때로 전략·전술적 요충지의 통제권을 다투는 작전으로 변하여 격전을 치르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났다. 그러면서도 작전지역의 범위는 예외 없이 국부적으로 한정되기 마련이었다. 이와 같은 전투정찰과 제한목표 공격작전을 통하여 유엔군은 주진지 전방의 유리한 지형지물을 확보하고 전초진지를 강화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공산군에게 전투력의 소모와 출혈을 강요하였다.

1952년 초 동부전선의 문등리 지구와 서부전선 고랑포 지구에서 전초진지 쟁탈전 그리고 정찰전이 주로 전개되었으며, 이외에는 별로 특기할 격전이 없었다. 이 기간에는 비교적 동부전선에서의 중공군의 활동이 활발한 편이었다.

적은 지상전 소강과 아울러 아군진지에 대하여 삐라 포탄의 발사를 시작하였으며, 한편 1952년에 들어서 유엔군이 세균전을 실시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 허위선전은 3월에 최고조에 달하였고 중공신문은 유엔군의 삐라용 폭탄 파편을 세균전용 폭탄파편이라는 등 공산세계 특유의 터무니없는 선전을 되풀이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산군은 이제 병력과 화기 등 각 방면으로 강화되어 증강된 공군력과 함께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대규모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며, 적의 세균전 비난이 이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는 예측할 수 없었다. 이에 미 제8군사령관 밴 플리트(James A. Van Fleet) 장군은 적의 대공세는 적의 대패배로 끝날 것이며 유엔군은 언제든지 이를 격퇴할 수 있다고 재삼 언명하였다. 공산군은 이 시기 군사력을 대폭 강화시키고 있었지만, 그것이 대규모 공세를 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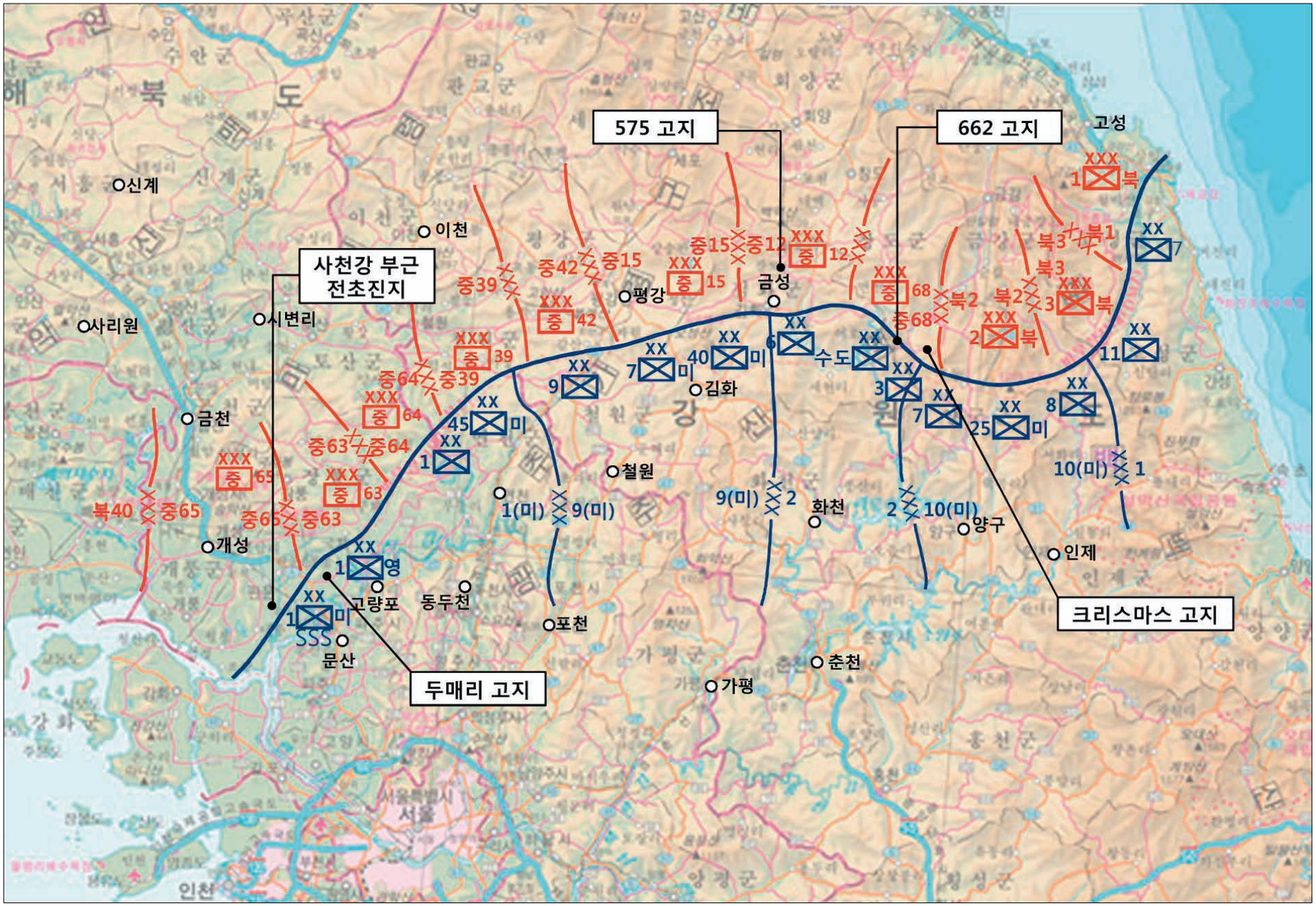
1952년 5월 12일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사령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 총사령관으로 전출하고 클라크(Mark W. Clark) 대장이 그를 후속하였다. 재한 유엔군 편성에 있어서도 작년 말 미 제1기병사단의 일본 홋카이도 전

출과 미 제40, 제45사단의 한국전 투입이 있었는데, 유엔군 전체는 강력하고 완전한 협력 작전으로 불패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군의 향상과 발전은 전란 3년에 들어서면서 놀라울만한 것이 있으며 장교단의 도미 유학과 우수한 신병훈련으로 급속히 강화되고 있었다.

한편 육군본부는 지리산 공비들을 섬멸하기 위해 전방에서 2개 사단을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공비토벌작전을 위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51년 11월 25일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게 될 백야전전투사령부가 설치되었고, 사령관에 백선엽 소장이 임명되었다. 백야사에는 수도사단, 제8사단, 서남지구전투사령부, 경찰부대가 배속되었다. 백야사의 공비토벌작전은 작년 12월 2일부터 1952년 4월 14일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이 작전을 통해 정부는 후방지역에서 치안을 확보하고 민생을 안정시켰으며, 군은 병참선에 대한 안전을 기하게 되었다. 이후 후방지역에서 준동하던 무장공비는 조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세력이 약화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1> 1952년 4월 전선 상황



제 2 절 방어진지 보강

1. 공산군의 방어진지 보강

잠정 휴전선의 결정은 휴전회담 개시 이래의 국부적이면서도 격렬하던 진지쟁탈전을 일시 중지시켰으며 전선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후에는 특별이 전투다운 전투가 없었고 오직 양측 간에 소규모 탐색전이나 포격전이 지속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지상전은 아군이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가운데 새로운 대진의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후의 아군작전은 진지를 강화하고 그 전진진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공세방어를 취하게 되었다.

공산군은 휴전협상 기간을 끌면서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고자 노력했고, 그들의 진지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에 있었다. 적은 유엔군의 사기를 꺾고 일부 빼앗긴 진지도 탈환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하여 휴전회담에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전략 하에 유엔군 진지 중 돌출되어 있거나 취약한 진지를 선정하여 공격한다는 작전을 수립하고 있었다.[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쌍방이 대규모 공세를 중단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진행중인 협상을 통하여 조기종전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대규모 공세는 협상을 결렬시킬 우려가 있었으며, 둘째, 상대방의 강력한 방어진지를 공격할 때 효과보다 희생이 훨씬 크리라는 점이었다.[2)] 즉, 적을 격멸하기 위한 전면공세는 소득에 비하여 매우 엄청난 전투력의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협상의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는 예하 부대에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적대행위가 계속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그는 전 전선에 걸쳐 방어진지의 보수 및 강화를 명령하고 특히 화기진지의 재배치와 이

에 따른 화망구성에 역점을 두도록 강조하였다.

제8군은 휴전협정에 합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협상이 부당하게 지연될 경우 공격작전도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공격작전이란 제8군사령부로부터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적의 공격으로 피탈된 중요 지형지물을 탈환하기 위한 반격에 국한한다는 것이었으며 불필요한 희생을 자제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이 예하 부대에 전달되자 일부 예하 지휘관들은 자기부대 병력사용으로 선 듯 모험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마저 있었다.[3)]

따라서 쌍방은 교착된 전선에서는 전투보다 진지강화와 부대정비에 전력하였으며, 전초 엄호부대 사이의 빈번한 탐색전과 소규모 전초진지전투를 통하여 상호 접촉을 유지하였다.[4)] 국군과 유엔군은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면서 방어태세를 강화하였으며, 공산군도 병력과 장비를 꾸준히 증강시키며 방어진지를 구축하는데 주력하였다. 이 무렵 진지로 연결된 쌍방의 방어선은 각기 다른 특징이 있었다.

공산군은 이전까지 폭우와 같은 유엔군의 포격과 폭격으로 야간에만 진지공사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잠정 휴전기간이 설정된 이후 이 기간을 이용하여 밤낮으로 진지공사에 전력하고 있었다.[5)] 그들은 방어진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의 마지노선이나 독일의 서부방벽을 능가할 만큼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였다. 적은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지의 후사면을 이용하여 땅굴과 참호를 파고 전 병력을 수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일부지역에서는 후방 40㎞의 지역까지 지하보루를 형성한 진지가 있었으며 이런 진지는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연결되었다.[6)]

거미줄처럼 파헤쳐진 고지 정상으로부터 깊이가 2미터나 되는 여러 갈래의 교통호가 반사면을 따라 보급소나 취사장으로 보이는 동굴로 통하고 있었으며 또한 후방의 산기슭으로도 연결되어 있었다. 공중에서 보면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전 전선에 걸쳐 폭 20~30㎞의 커다란 개미집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았다.[7)] 특히 중국 공간사에 의하면, "중공군은 1952년까지 갱도 7,789개, 길이 198.7㎞를 구축하였고 엄체호 75만개, 유개 및 무개 참호 길이 3,420㎞를 작업 완료하였으며, 북한군이 판 갱도는 총 1,730개 88.3㎞였고 각종 엄체호가 3만여 개 참호길이 260㎞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다"고 기술하고 있다.[8]

적은 사격으로부터도 병력을 보호할 수 있는 엄폐를 위해 통나무·바위·모래 등 무엇이든 사용하였다.[9] 예로써 국군 제5사단이 가칠봉을 점령했을 때는 적은 진지 내에 1개 소대가 동시에 집결하여 식사를 할 수 있은 식당까지 마련되어 있었을 정도였다.[10]

적은 통상 고지를 점령했을 때는 즉시 참호를 파기 시작했다. 고지정상 부근에서 아군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로부터 시작하여 고지를 일주하면서 참호공사는 계속되었다. 공산군은 유엔공군과 중포병의 화력세례로부터 그들의 고정된 방어진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엔군의 진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강력한 지하 참호에 병력과 장비를 수용하였다. 후사면으로부터 터널을 파기 시작하여 전사면까지 관통시키고 고지의 내부에 종횡의 망상통로와 각종의 포좌를 만들어 거의 고지전체를 거대한 보호덮개로 축성하였다. 그들은 야포, 전차 등을 땅속에 은폐시켰다가 사격 시에는 땅굴 입구로 끌어내어 사용하고 있었다.[11]

적은 방어진지 주변에는 몇 겹의 철도망으로 둘러쌌고 진지정면에는 수많은 살상지뢰를 묻었다. 더욱이 그들은 진지 피탈시를 고려하여 제2선에 이르는 사이에 지뢰호를 파서 후퇴하면서 즉각 지뢰를 매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적의 방어진지의 구조는 공중 및 야포 공격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매우 견고하게 설계되었다.[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산군은 이와 같은 지하요새들을 전투가 소강상태에 들어가고 휴전회담이 시작된 첫해 동안에 주로 구축하였다. 그들은 확실히 회담의 책략을 통하여 시간을 벌어 방어력을 대폭 증가시켰던 것이다.[13] 이때 구축한 진지에 대하여 마오쩌둥 선집 제15권에 "어떤 사단도 3개월의 식량을 보관할 지하창고가 있었으며 강당도 있어 생활은 대단히 좋다"고 평가하였으며, 북한 공간사에는 다음과 같은 요지로 기술되어 있다.[14]

> 전 전선에 걸쳐 갱도를 근간으로 하는 방어진지가 튼튼히 꾸려졌으며 특히 전술적으로 중요한 고지들과 지점들이 강화되었다. 우리나라 산악지형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사명을 가진 갱도식의 축조물과 그것과 연결된 참호, 교통호들로 이루어진 갱도식진지 방어체계가 튼튼히 완성됨으로써 전선의 북한군 전투원들은 방어의 견고성을 더욱 높이고 적의 공격을 방어정면에서 성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갱도에는 그의 사명과 규모에 따라 전투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까지 갖추어짐으로써 북한군 전투원들은 적의 포위 속에 드는 경우에도 오랫동안 자립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적은 해안선의 방어진지도 지하요새화 하였다. 그들은 아군이 상륙작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전 해안선에 수십만의 인원을 동원하여 해안선 진지를 구축하고 진지 주위에는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은 병력을 준비시켜 두었다. 해안선 진지는 지하요새와 함께 해안으로부터 후방지역에 많은 무개 참호를 파두었다. 이 참호는 해상으로부터 공격을 가하는 어떤 부대도 일단 육지에 상륙하면 참호를 하나하나 공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해안을 따라서는 철조망을 설치하고 도처에 지뢰를 매설해 두었다.[15]

1952년 7월 초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영국의 로이드(Selwyn Lloyd) 국무상은, “현재 3년째를 맞이한 한국전선의 실정은 전선 일대에 걸쳐 견고한 보루를 구축하고 장기간 진행된 휴전회담 기간을 이용하여 전력의 보강을 달성한 중공군이 일대 공세를 취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유엔군 또한 이에 대응할 반격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언명하였다.[16]

이 말은 당시의 형세를 함축성 있게 표현한 것이며, 휴전회담이 시작된 후에 공산군의 병력이 약 2배로 증강되었다는 사실과 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쌍방의 전력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형세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2. 국군과 유엔군의 방어진지 보강

국군과 유엔군은 공산군이 계속하여 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으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당시 지상 작전의 규모와 빈도는 휴전협상의 추이에 따라 그 강도는 크게 좌우되고 있었다. 아군은 협상이 주요쟁점을 둘러싸고 난항에 빠질 경우 이를 타개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적으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조건을 수락하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서 군사작전을 전개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

유엔군은 이른바 적극방어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제한목표 공격으로 압력을 유지하고 적에게 전투력의 소모와 출혈을 강요하면서 적의 공격 기도를 분쇄하려 하였다.[17]

유엔군은 방어진지를 공산군만큼 그렇게 견고하게 설치하지 못하였지만, 제1차 세계대전시의 참호에 가까운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유엔군은 화력의 우세를 십분



방어진지에서 박격포 사격의 모습

발휘할 수 있도록 주저항선을 주로 고지 전방의 전사면에 설치하고 있었다. 주저항선에는 개인호와 기관총 등 화기진지를 구축하고 교통호로 연결하였으며 중요지형 정상부근에는 벙커형태의 전방지휘소와 관측소를 설치하였다. 진지와 벙커

는 잘 위장하였으며 각종 장애물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야전축성은 공산군의 소규모 공세에는 충분히 지탱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주저항선 전방에는 완충효과를 갖게끔 지형지물을 이용한 전초를 두었으나 주저항선 후방에 예비참호를 구축하지 않음으로서 유엔군 진지는 공산군 진지에 비하여 종심이 너무 얇았다.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일련의 정찰기지를 운용하여 방어지대의 종심을 증가시켰다.

혹한의 기후는 다소 공산군보다는 유엔군에 유리하였다. 한풍이 휘몰아치는 추위 속에서도 남쪽에 위치한 국군과 유엔군은 비교적 공산군이 위치한 북쪽 응달보다는 양호한 편이었다. 유엔군은 양지바른 남쪽 사면에서 충분한 보급품과 난방기구 그리고 따뜻한 방한복을 지급 받아 월동준비를 끝내고 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반면 공산군은 보급품도 난방기구도 충분치 못한 가운데 하루 종일 음지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한층 더 추위에 떨어야 했다.[18] 그러나 그들은 유엔군보다 신체적 곤란을 덜 받으며 혹심한 겨울 추위를 견디어 내었다. 오히려 보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유엔군은 많은 동상자를 내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찰과 매복을 자주 교대해야 했기 때문에 거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정도였다. 미 공간사에는 "공산군이 추위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선천적인 순응성과 가난과 결핍을 이겨내는 정신력 그리고 엄격한 규율 때문이었다"고 기술되어 있다.[1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와 같이 동해안으로부터 서해안에 이르기까지의 전 전선의 주저항선 방어진지는 종심 깊은 참호선으로 연결되면서 날로 강화되었고 그 결과 이전에 비해 훨씬 큰 희생과 손실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상태편의 방어선을 돌파하거나 또는 그 일각을 점령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게 되었다.[20] 따라서 쌍방은 출혈이 큰 대규모의 전면공세를 단념하게 되었다. 나도 살고 적도 살게 한다는 소극적 관념이 전선을 지배하는 가운데 유엔군의 사상률은 점차 낮아졌으나 적은 이와 같은 소강기간을 이용하여 전력의 균형을 회복한 다음 유엔군의 방어선에 또다시 중압을 가해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회담과 작전의 양면에서 그 어느 쪽도 상대방의 일방적 후퇴를 강요

할 수가 없는 팽팽한 힘의 균형이 유지되는 가운데 길고도 지루한 교착상태가 계속되었다. 일단 전선이 고정되면 피아간의 협상을 통해 작전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전쟁은 장기 소모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21] 그러던 가운데 잠정휴전 기간으로 합의된 기간이 지났지만 회담은 조금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3. 1952년 초 전선의 상황

1952년 초 전선 상황은 유엔 당국이 협상을 통하여 전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결말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적의 계속적인 증원으로 쌍방의 세력이 점차 균형을 이루게 됨으로써 대규모 작전에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지상전투는 지난해에 비해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고 다만 진지쟁탈전에 의하여 약간의 출입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지난해 회복한 한강유역을 포함한 전선일대를 확고부동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지금 이만한 소강상태를 얻게 된 것도 여기에 기인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한강유역은 37도선~38도선 내외에 걸친 광대한 유역으로서 반도를 제패하는 심장부를 이루는 곳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아군으로서 전면적인 지상공격을 피한 것은 전년의 경험에서 얻은 것과 같이 전면적 공격이 중요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막대한 희생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면으로는 극히 국한된 지상전투를 계속하는 동시에 타방으로는 공중폭격 또는 함포사격으로써 적의 후방을 자주 공격하여 적의 군사기능을 마비시키는 작전을 취하였다던 것이다.

그러나 적도 그간 공군력을 증강하여 백 대 이상의 제트기가 왕왕 편대하여 적의 후방을 공격하는 아군 전투기와 B-29에 대하여 도전해오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엔군의 공군력은 적의 그것에 비하여 결정적으로 우세하고 유리한 입장에

있으므로 적기가 우리 후방 깊이 침범해 올 정도는 아니었다.

아군의 폭격과 함포에 의하여 적이 받은 타격은 점점 심하여 병력, 병기 등의 소모, 건물 철도 차량 교량 비행장 함선 기타의 파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여전히 침략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야음을 타서 전선으로의 보급을 계속하여 우리의 간극을 노리고 있으므로 결국 소모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미 제8군은 1952년 1월중에 미 제1군단 포병들이 중포와 전차를 고지 정상에 추진하고 경사면에 구축된 적의 축성진지를 직접 사격하는 동안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제11사단을 제5사단과 교체하는 한편 제6사단(미 제9군단 배속)의 진지를 제3사단으로 하여금 인수케 하였으며 또한 미제 45사단에 이어 제8군에 배속되어 전선에 배치된 미 제40사단을 미 제24사단의 진지를 인수케 하는 부대교대를 실시하였다.

밴플리트 장군은 2월 2일 '빅 스틱(Big Stick)'이라 명명된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유엔군사령관에 건의하였다. 즉 4월 5일 실시하기로 계획된 이 작전의 요지는 미 제1군단 정면을 북쪽 예성강선으로 추진하고, 미 제1해병사단으로써 동해안에 상륙양공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예상되는 아군 손실 1만 1,000명으로 인해 승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홈 커밍(Home Coming)' 계획을 22일 다시 제출하였다. 이 계획은 앞의 계획과 다른 점은 공격 날짜를 4월 1일로 하고 공격 시 국군만을 운용하며 상륙작전은 취소한다는 것이었다.[22] 결과적으로 이러한 미 제8군의 공격계획은 무산되었다. 그 이유는 "지상 작전은 아군전선의 안전과 경계에 필요한 정찰 및 역습만으로 제한한다"는 유엔군사령관의 작전방침 때문이었다.

한편, 미 제8군은 2월초 위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지금까지 각 부대가 실시하고 있던 타성에 젖은 수색정찰전의 반복실시를 극복하고자 '클램 업(Clam up)'이라는 유인작전을 실시하였다. 이 작전은 아군이 전선에서 일체의 접적활동을 중지하고 철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적을 유인한 후 반격으로써 포획한다는 것이었다.[23]

이에 따라 전선의 양상은 장기 교착상태에서 때때로 공격행동을 취할 때는 다만 전초진지 주위의 주요고지를 목표로 쟁탈전이 전개되곤 하였다. 대부분 전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에서는 연대급 이하의 병력으로 전초진지 쟁탈이 반복된 소위 소부대전투의 연속이었으며 거의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24]



고지에서 포격을 통제하는 모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대장은 4월 1일 제한된 진격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2개의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먼저 '촙스틱(Chop Stick)6 계획'은 증강된 국군 1개 사단으로 미 제9군단 정면에서 평강까지 진격함으로써 현 제9군단 전선을 금성-평강선에서 정리한다는 것이고, '촙스틱16 계획'은 국군 제1군단으로 하여금 남강하구(고성)까지 진격케 함으로써 그 당면의 전선을 남강선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2개의 제한된 공격계획은 모두 강력한 항공 및 포병지원의 수반이 전제된 것이었으며 작전성과에는 부수적으로 훈련의 효과도 있는 것이었다.[25]

그러나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촙스틱6 계획'이 소기의 목표선인 방어선으로서의 지형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다만 '촙스틱16 계획'은 미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승인하였다.

제한된 공격작전이지만 이 계획의 승인으로 전선에서는 일시 활기를 되찾는 듯하였으나, 이도 4월 28일 그간 공전의 난항을 거듭하던 판문점 휴전협상에서 유엔군이 이른바 '일괄타결안'을 제시함으로써 협상의 분위기를 저해할 작전은 피한다는 밴플리트 장군의 결정에 따라 이 작전은 29일 무기한 연기되었다.

일괄타결안이 제시된 뒤로도 4월, 5월 기간 동안 회담은 공전을 되풀이하고 있었으며 전선 상황 역시 경미한 수색전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에 6월 10일 밴플리트 장군은 다시 '촙스틱6 계획'과 유사한 공격계획인 "미 제9군단 정면에서 한국군으로 하여금 평강 북쪽의 새로운 진지선으로 진격케 함으로써 철의 삼각지대를 완전히 장악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유엔군사령관에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 역시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기각되었다. 그 이유는 휴전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성과에 비해 예상되는 손실이 크다는 것이었다.[26]

따라서 1952년 봄의 전선 상황도 여전히 대규모 공격작전을 보류하고 계속 정찰과 기습을 통하여 적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다.[27] 이리하여 대진 상태는 1951년 말과 비슷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쌍방의 방어진지는 더욱 굳어져 있었으며, 다만 아군의 경계선 및 주저항선의 요부에서의 소규모 공방이 전투 초점이 될 뿐이었다.

양측은 전초진지와 주진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접촉선상의 감제고지와 능선의 확보를 중시하게 되었다. 특히 군사분계선을 휴전조인 당시의 접촉선으로 확정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부터 쌍방 간에 보다 유리한 전략적 전술적 위치에서 휴전을 맞이하기 위하여 휴전회담이 종료될 때까지 전초거점 쟁탈전이 국지적으로 전개되어 끊임없는 혈전이 벌어졌다.

유엔군의 전초진지 중에는 불모고지·백마고지·포크찹(Pork Chop)고지·수도고지·크리스마스고지·저격능선·단장의 능선·피의 능선·해안분지 북쪽일대와 351고지 등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중요지형이 많았다. 만일 이들 고지가 상대방에게 점령되었을 경우에는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역습을 감행하여 이를 탈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전쟁 첫해의 격동기에 못지않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와 같은 전초선 상의 중요지형은 대부분 상대방의 주진지를 완전히 감제할 수 있는 고지이거나, 주진지를 위협할 수 있고 만약 상대방에게 피탈될 경우에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요충지였다. 하나의 고지를 놓고 일진일퇴의 치열한 공방전이 되풀이되는 동안 쌍방은 공자와 방자, 승자와 패자를 가릴 것 없이 막대한 인적, 물적 출혈을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유엔군은 화력과 기동 면에서 그리고 해군 및 공군 전력에서 절대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해발 1,000미터 이상이나 되는 험산준령의 전투에서는 이와 같은 우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었으며, 차량보다는 지게와 같은 재래식 도구가, 육중한 곡사포보다는 인력으로 운반할 수 있는 박격포가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1952년 초부터 4월까지 전선의 상황은 국부적이면서도 격렬하던 진지쟁탈전을 일시 중지시키게 하여 전선에서는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그러던 중 동년 5월에 들어서면서부터 공산군은 대규모의 전투정찰을 개시함으로써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이러한 작전을 전개한 이면에는 1951년 유엔군의 하계작전 및 추계작전에서 강요당한 출혈을 감추고 그들의 전투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기도는 한국군과 유엔군에 의하여 좌절되었고 전투정찰은 중지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절 치열한 전초진지 쟁탈전

1. 양측의 탐색전 전개 양상

양측은 상대방에 대한 기선을 확보하고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상대 정보파악이 중요시 되었다. 이를 위해 정찰전과 아울러 전초의 전술적 운용이 지상 작전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28], 특히 수색정찰대 운용을 강화하였고 제한된 규모의 공세적인 전투정찰도 실시하게 되었다.

수색정찰은 적의 방어진지나 활동을 탐색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전투정찰은 매복, 습격 등의 활동으로 적 포로를 획득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운용되었다. 공산군도 마찬가지로 정찰전을 전개하였다. 교착된 전선에서의 정찰활동은 주로 야간에 전개되었다. 따라서 부대는 적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진지주변에 철조망·지뢰·조명장비·부비트랩·네이팜통·백린 등을 설치하는 등 각종 장애물과 방호시설을 강화하였다. 또한 병사들은 국지경계를 강화하고 철조망을 통과하여 순찰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어떤 지역에서는 정찰대와의 작은 충돌로 전투가 확대되어 쌍방간에 수 시간동안 포격전이 전개되곤 하였다. 이때 쌍방의 병력은 진지 내에서 보호를 받아 인명피해가 거의 없으나 포격전이 끝난 후 장비를 점검하고 절단된 전화선을 보수하는 등 반복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하였다.[29]

공산군의 정찰대는 흔히 소대 내지 중대규모로 드물게는 대대규모로 편성되어 공중으로부터의 관측과 폭격을 피할 수 있는 야간에 국군 및 유엔군의 방어선에 대한 정찰을 실시하였다. 예로써 금성 동서방면에 배치된 중공 제12군은 1951년 말부터 1952년 1월 하순까지 정찰 활동을 총 805차례 실시하였으며, 이는 매일 평균 12개 반이 출동한 셈이었다.[30]

이에 비해 국군과 유엔군은 통상 중대 내지 대대 규모의 전투정찰대를 편성, 공산군 진지에 대한 위력수색과 교란을 목적으로 국부적인 공격을 실시하였으며 주저항선에 배치된 전방 연대는 공산군의 야간침투를 사전에 저지하기 위하여 수색정찰을 운용하였다.[31] 국군과 유엔군은 어느 날의 경우 하루에 68회에 달하는 수색정찰대를 전방에 투입하였으며[32], 한 달 동안 제8군의 전부대가 전투정찰을 실시한 회수는 247회에 달하였다.[33]

쌍방의 전투정찰대의 접전은 때때로 전략 전술적 요충지의 통제권을 다투는 작전으로 변하여 격전을 치르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났다. 그러면서도 작전지역의 범위는 예외 없이 국부적으로 한정되기 마련이었다.[34]

이와 같은 정찰활동을 통하여 유엔군은 주진지 전방의 유리한 지형지물을 확보하고 전초진지를 강화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공산군에게 전투력의 소모와 출혈을 강요하였다. 교착된 전선에서의 전투정찰은 최선의 훈련수단이기도 하여 이를 통해 장기간의 진지근무로 해이해지는 병사들은 정신 상태를 바로잡고 후방에서 보충된 신병들은 실전에서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 짧은 시일 안에 장병들에게 고도의 전기를 연마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 특히 담력과 용기를 기르는데 있어서는 야간정찰 이상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다.[35]

이외에도 국군과 유엔군은 전투정찰과 국지작전을 통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의 포로를 획득함으로써 적정을 파악하고 있었다. 정찰을 통한 포로획득은 적정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유엔군은 포로를 획득한 병사에게는 포상휴가를 줌으로써 정찰활동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포로를 획득하는 방법 가운데는 적의 전화선을 절단하고 그 부근에 며칠 밤 매복하여 기다리다가 수리병이 출현하였을 때 생포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우전이 전개되고 소총사격에 의하여 적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빈번하였던데 비하여 포로를 생포하는 경우는 적었으며, 공산군도 비슷한 상황이었다.[36] 국군과 유엔군은 각 연대가 매일 밤 적어도 1개조의 정찰대와 2~3개조의 매복조를 투입하는 것이 규칙처럼 되어 있었다. 정찰대는 사전에 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간 매복요령 및 사격기술을 연마하고 실전과 다름없는 예행연습을 실시한 뒤에 투입되었다.[37]

그러나 정찰전의 성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적이 작전기간 동안 가벼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이며 또 아군 병사들도 주기적인 정찰전의 실시로 인하여 다소 타성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부의 정찰대는 적을 포획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대부분은 적과 사격전을 전개하여 피해를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따라서 국군과 유엔군은 정찰전을 통해 비록 포로를 통한 적정파악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교착된 전선 상에서 해이해질 수 있는 장병들을 긴장시키는 한편 귀중한 경험과 훈련의 기회를 갖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었다.

2. 소규모 전초진지전의 전개

1) 두매리 부근 전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두매리 부근 전투는 1952년 초 서부전선 임진강 북쪽에서 전개된 전형적인 전초진지 쟁탈전이었다. 이 전투는 국군 제1사단과 중공군 제188사단이 문산 정면 임진강 북쪽 두매리 부근에서 1951년 12월 28일부터 1952년 1월 8일까지 전개된 전투였다.[38]

이에 앞서 국군 제1사단은 임진강 남안의 주진지를 강화하면서 정찰전을 전개하다가 미 제1군단의 코만도작전 개시를 계기로 서부전선에서 북진을 단행하였다. 사단은 이 작전으로 제임스타운선(고랑포리 북쪽 4㎞)을 확보한 가운데 두매리 부근에서 수색정찰을 강화하였다.

이후 사단은 사단 지휘소를 오산리에 두고 사단 주력을 임진강 북안으로 전개하여 사미천-백학산-사천을 연하는 선으로 주저항선을 편성하였다. 그리하여 우전방 두매리 남쪽에 제12연대를, 좌전방에 제11연대를 일선에 배치하고 제15연대(-)를 예비로 확보하고 적과 대치중이었다.

이런 가운데 사단은 진지를 강화하면서 훈련에 전력하였으며, 이때 사단의 병력과 장비는 편제상의 90%선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또한 제17포병대대의 직접지원을 비롯한 미 제1군단 포병대대와 전차중대, 그리고 요청에 따라 미 공군지원이 가능하며 화력은 대체로 적보다 우세한 편이었다. 전투기간 중 가장 혹독한 냉한이 계속되었으며 북풍으로 인해 개인동작에는 장애가 되었으나 작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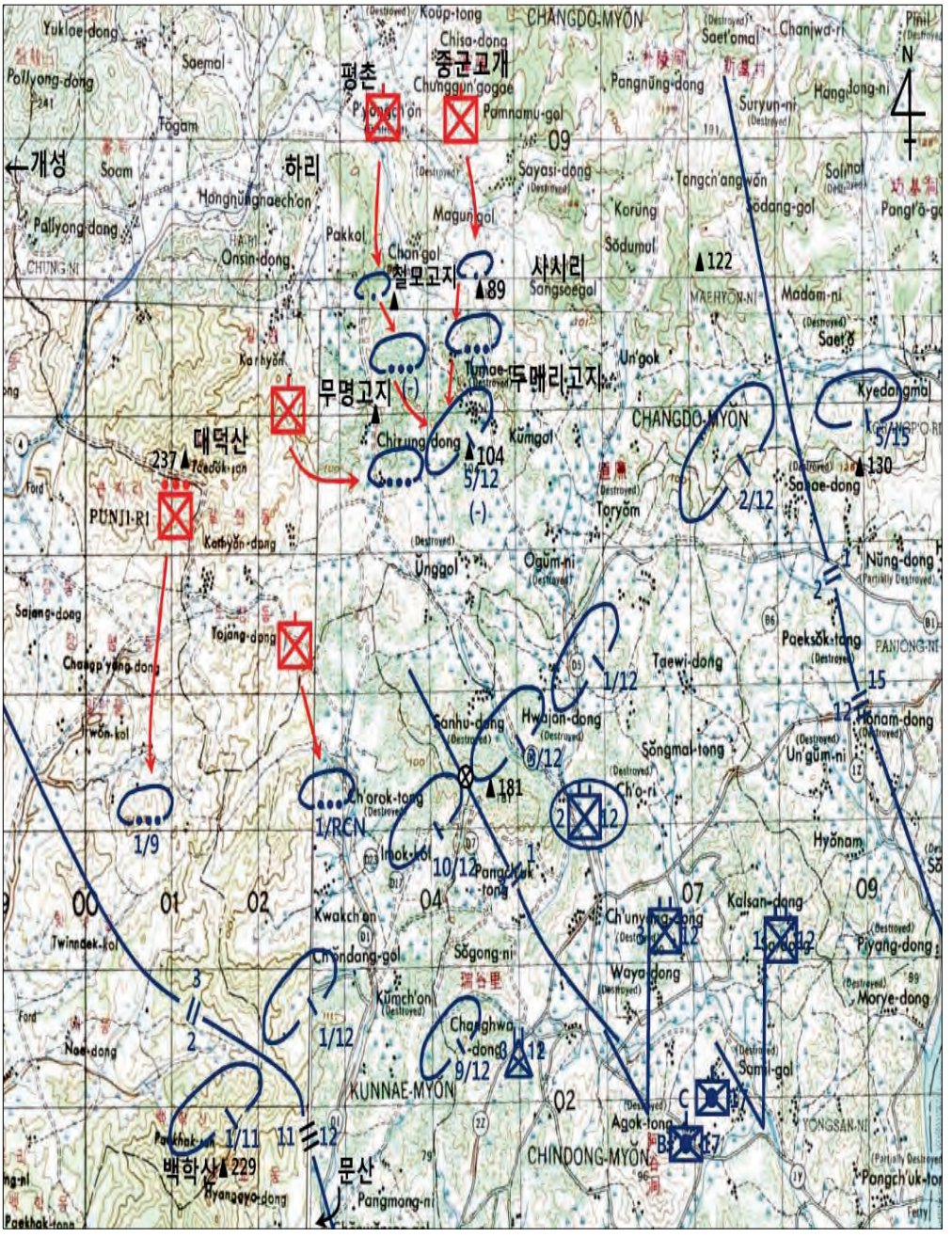
당시 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63군 예하 제188사단이 지휘소를 마산동에 개설하고 주력을 용호산-망회산-반용산 선에 배치하고 있었다. 이들은 경계부대를 비지산-대덕산 전면으로 추진하여 아군의 동정을 살피면서 주야로 진지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들은 국군 제1사단이 주력을 강북으로 추진하자 소규모 병력으로 도발을 기도하여 사단의 주진지 구축을 방해하는 한편, 그들의 전진선을 계속 확장하면서 공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때 중공군은 병력과 화력을 대덕산-반룡산 일대에 중점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병력규모는 7,500여 명으로 예상되었으며 122mm야포 1개 대대와 105mm포 1개 중대 그리고 전차 1개 소대가 전후방 일대에 분산 포진하고 있었다. 국군 제12연대는 배속받은 제15연대 제2대대를 포함 제1, 제3대대를 일선에 배치하고 예비인 제2대대 제5중대로 두매리 부근의 전초진지 방어를 전담케 하였다.

1951년 12월 28일 중공군 188사단 예하 제523연대는 16:00시 경 제5중대의 분견대가 확보한 철모고지 전방 300m에서 신호탄과 함께 104고지와 두매리 고지 일대를 향해 포격을 개시하면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에 제17포병대대에서는 미리 준비한 탄막사격을 집중하였으며 미 제999포병대대는 적의 예상 포진지에 대하여 대 포병사격을 실시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2> 두매리 전투


평촌
중군고개
개성
하리
철모고지
사시리
두매리고지
무명고지
대덕산
PUNJI-RI
백학산
문산
CHANGDO-MYŎN
KUNNAE-MYŎN
CHINDONG-MYŎN
N

28일 16:15분 경 적은 제5중대의 분견대가 점령한 철모고지와 89고지에 2개 중대 규모로 공격함으로써 진지정면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철모고지의 분견대는 적의 공격 일파를 저지한 다음 고지 남쪽 300m 무명고지로 철수하였으며, 89고지의 분견대도 두매리로 철수하였다.

전방의 양 소대는 적이 진지정면으로 진입하자 포병사격을 유도하면서 사격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사격전이 전개되는 동안 모든 유개호가 파괴되고 적이 진내로 돌입하자 양 소대는 결국 104고지로 철수하였다.[39] 이때 연대에서 요청한 F-51전폭기가 두매리와 무명고지일대의 적을 강타하고 포병사격도 적진에 집중되었다.

적은 18:00시 경부터 다시 전차포를 앞세우고 104고지 좌우측 능선을 따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중대는 지원포병의 사격지원을 받아 진지정면의 적에게 저지사격을 가하였으나 수적인 열세로 돌파될 위기에 처하였다. 중대는 달려드는 적에게 수류탄과 백병전으로 혼신을 다하여 혈전을 수행하여 마침내 적을 격퇴하였다.

다음날 연대장은 차기작전을 위하여 반드시 감제고지를 확보하도록 결심하고 상실한 전진거점을 역습으로 탈환하도록 명령하였다. 명령을 수령한 제2대대는 제6중대에 무명고지를, 제7중대에 두매리 고지를 각각 공격하도록 하였다.

06:30분 경 제6, 제7중대는 조금리의 공격개시선을 점령하고 약진하기 시작하였다. 제7중대는 두매리 고지 100m 앞까지 진출하여 포위망을 압축하였다. 중대는 다소 고전하였으나 마침 선봉에 나선 제2소대가 사각지대로 진입하여 목표 50m까지 근접하였으며, 중대주력이 적의 동쪽진지를 향해 돌진하여 수류탄을 투척하고 진내에 돌입하여 마침내 10:10분 경 진지를 탈환하였다.

중대는 수차례 반복된 적의 역습을 받아 그때마다 전 화력을 집중하여 적의 접근을 저지하였으나, 탄약이 소진되고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전력이 급격히 감퇴되어 철수하고 말았다.

한편, 무명고지를 향해 돌진한 제6중대는 가파른 지형을 고려하여 우회공격을 기도하고 있었다. 중대는 먼저 고지일대에 포병사격을 요청하여 포격을 집중한 후 주력이 즉시 돌격선까지 진출하여 소대규모의 적과 격돌하였다. 주력이 혈전을 전개하는 동안 제3소대가 목표우측으로 우회하여 적의 좌측배로 육박한 다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적진으로 돌입하였다. 중대주력이 정면에서 돌격을 감행하여 마침내 고지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제6대대 역시 적의 반격을 받아 중대본부 요원과 화기소대 일부까지 투입하여 적을 격퇴하였으나 다시 돌파될 위기에 처하였다.

한편 양 중대의 역습상황을 살피고 있던 연대장은 당면의 적의 세력으로 목표탈취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열의 재편을 도모한 후에 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6중대에 104고지를 확보하게 하고 그 우측에 제7중대를 배치하였다. 제5중대는 주진지로 복귀시켜 반격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30일이 되어 대대장은 제5중대를 다시 일선에 기용하여 제17포병대대의 화력지원 아래 두매리 고지에 대한 재 역습을 단행하였다. 중대의 선봉은 진지정면 30m에 이르러 적의 집중사격을 받아 공격이 돈좌되고 있었다. 대대장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적진에 81mm박격포 사격을 집중하였다. 중대는 공격의 돈좌로 난전을 치르다가 13:00시 경 일제히 적진으로 돌진을 전개하였다. 중대장은 포격을 유도하여 적의 거점 하나하나를 제압하는 한편, 제3소대로써 적의 측방에 대하여 충격을 가하였다.

이리하여 전황을 타개한 중대는 14:00시 경 모든 화력을 동원하고 돌격을 전개하여 마침내 적진에 돌입할 수 있었으며, 수류탄과 자동화기로 적을 제압하였다. 중대는 이 돌격에서 17명이 전사하고 41명이 부상을 입는 손실을 입었으나 적의 병력은 궤멸하여 살아서 도망친 자가 10여 명에 지나지 않을 정도의 전과를 올렸다.

중대는 고지를 점령한 즉시로 대대에 증원을 요청하고 진지재편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적은 중대가 증원을 받기도 전에 전차포 등 직사포탄 100여 발을 집중하면서 좌우능선으로 역습을 재개하였다. 중대는 역경 속에서도 포병사격을 요청하면서 또 한 차례 격전을 전개하였으나 고전을 면치 못하였으며, 결국 철수명령에 따라 철수함으로써 고지를 적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중대는 적 300명을 사살하고 전사 23명이 전사당하는 격전을 전개하여 얻은 고지를 끝내 확보하지 못하고 104고지 후사면으로 집결하였다.[40]

두매리 부근의 전투는 1952년 초로 이어졌다. 사단장은 두매리 고지가 주요 감제고지이며 차후 공격의 전진발판이므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을 역설하면서 12월 31일 제12연대에 탈환명령을 하달하였다. 제12연대 제3대대가 탈환임무를 부여받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52년 1월 3일 08:00시 경 105mm야포 18문과 155mm야포 6문, 그리고 4.2″박격포 8문이 일제히 포문을 열어 두매리 고지 일대를 집중 사격하였고 곧이어 전폭기 4개가 측방엄호포격을 실시하는 가운데 제3대대는 적선을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대대는 공격일선인 제10, 제11중대에 전차소대를 각각 배속하여 전력을 강화하여 좌우능선을 나누어 분진하였다. 중대는 전차포로써 적진지를 제압한 다음 돌격을 감행하여 동쪽 경사면으로 우회 돌격한 제3소대가 적진으로 돌입하였으며 동시에 중대 주력이 돌격하여 적진을 유린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곧바로 적의 역습을 받기 시작하여 진내에서 백병전까지 실시하면서 적을 저지하였으나 결국 14:00시 경 진지를 이탈하여 병력을 수습하였다.

한편 좌일선인 제10중대는 무명고지를 향해 약진 공격하여 7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적전 30m까지 육박하였다. 이때 제1소대의 김학명 중사 외 5명의 특공대원이 적의 화기진지를 격파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중대 주력이 일제돌격을 실시하여 적 47명을 사살하고 3명을 포로로 잡는 전과를 달성하면서 마침내 13:10분 목표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중대 역시 계속되는 적의 역습을 받고 제17포병대대의 지원사격하에 몇 차례 격퇴하였으나 적 2개 중대의 파상적 공격을 받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사단에서는 반격작전이 부진한 원인과 적전의 추이를 검토분석하고 제15연대에 다시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1월 5일 여명 제15연대는 제3대대를 우일선으로, 제1대대를 좌일선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제3대대는 제11, 제9중대를 일선전개하고 제10중대를 후속시켰다. 이에 양 중대는 목표고지 배후에 포격을 집중하도록 요청하고 제11중대가 격전 끝에 89고지를 확보하고 배후에서 두매리 고지로 공격을 계속하였다. 중대는 제2소대의 특공대가 돌격로를 개척하면서 적진으로 돌입하여 마침내 목표고지를 탈환하였다. 제10중대는 신속히 148고지로 방향을 전환하여 소대규모의 적을 격멸하고 122고지와 148고지를 탈취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좌일선인 제1대대는 제2, 제3중대를 좌우일선으로 병진 공격하여 압박하였다. 양 중대는 고지 동쪽 경사면의 돌출부로부터 적의 자동화기사격을 받아 공격이 돈좌되었으나, 제2중대가 포병의 지원사격하에 공격을 재개하여 적진 20m

앞까지 육박한 다음 혈전을 전개하여 마침내 무명고지를 탈취하였다.

그러나 적은 곧이어 제17포병대대와 미 제1군단 포병대대의 집중포격에도 불구하고 두매리 고지로 전력을 집중하여 반격을 개시하였다. 대대는 전 화력을 집중하여 적을 물리치려 하였으나 89고지가 무너지고 이어 두매리 고지마저 상실되고 말았다.

다음날 1월 6일 연대장은 제1대대로 하여금 두매리 고지를 탈환하도록 함으로써 이날도 치열한 격전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공격이 돈좌되어 화력전만을 교환하였다. 제15연대장은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탈환전에서 적이 많은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히 저항하는 것은 역습부대의 대량투입과 화력의 증강 때문으로 판단하고 대 포병 위력을 강화하면서 제3대대에 탈환 명령을 하달하였다.[41]

제3대대는 대덕산과 두매리 고지의 적의 화력을 포병의 집중사격으로 제압한 후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0중대는 전차포의 지원 하에 적의 진지정면으로 진입하였고, 특공대로써 적의 화기진지를 제압한 후 일제돌격을 감행하여 11:00시 경 마침내 목표고지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이날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적의 역습이 이어졌다. 적은 2개 중대규모로 역습을 개시하는 한편 3개 중대 병력이 후속 하였다. 대대는 1시간동안의 분전 끝에 결국 다시 적에게 고지를 내어주었다.

사단장은 적에 많을 출혈을 강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탈취한 고지를 유지 못한 이유는 두매리 고지 서남쪽 무명고지로부터의 측방사격 때문이라 판단하고 먼저 이를 탈취하도록 명령하였다. 따라서 제12연대 제3대대가 다시 공격을 재개하였다. 대대는 특공대를 양측으로 투입하여 적을 교란하면서 일제돌격을 감행하여 16:20분 무명고지를 탈취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곧이어 적의 반격을 받고 사단 가용포의 집중 포격 하에 저지하였으나 다시 고지에서 물러서고 말았다.

사단장은 적이 많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반격을 가하여 오자 다시 제15연대 제3대대와 제12연대 3대대를 투입하여 일거에 무명고지와 두매리 고지를 확보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전황은 이전의 양상과 마찬가지로 고지를 탈환한 후 곧이어 적의 역습을 받아 다시 피탈되는 양상을 반복하였다.

사단은 8일 미 제1군단(J.W. O'Daniel 중장)의 명령에 의하여 두매리 고지 확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작전을 종료하였다. 이 작전에서 사단은 비록 두매리 고지를 상실하였지만 적에게 치명적이 타격을 주었다. 기간 중 사단은 적 사살 1,611명, 포로 4명의 큰 전과를 올렸으며, 전사 129명, 부상 585명, 실종 2명의 손실을 입었다. 사단은 제15연대를 임진강 남안의 원진지로 복귀시키고 제12연대를 104고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전초진지를 구축토록 하는 한편 위력수색을 전개하도록 하였다.[42]

중공군 제118사단은 대덕산을 중심으로 한 주진지를 계속 보강하면서 새로 입수한 두매리 고지 전면에 대하여 지뢰지대를 설치하면서 공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1월 중순경 국군 제15연대로 하여금 두매리 고지에 대하여 야간 기습을 감행하도록 하여 적을 격퇴하고 고지를 탈취했으나 다음날 명령에 의해 다시 철수하였다. 이로부터 양측은 소규모의 전투만 전개하였을 뿐으로 전선은 또다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표 4-1> 두매리 부근 전투 전과 및 손실[43]

구분 / 부대별	전과					손실		
	사살	포로	노획			전사	부상	실종
			소총	기관총	박격포			
제12연대	757	4	4	1	1	67	243	
제15연대	854		2			62	342	2
계	1,611	4	6	1	1	129	585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사천강 부근 전투

사천강 부근 전투는 한국 해병연대가 중공군의 공격을 방어한 전초진지 쟁탈전이었다. 이 전투는 국군 해병 제1연대가 1952년 4월 1일부터 5일까지 중공군 제195사단의 사천강 부근 전초진지 공격을 격퇴한 전투이다. 1952년에 접어들어 국군과 유엔군은 휴전회담의 진지정면에 따라 수도 서울의 방위에 역점을 둔 군사적 보완책으로 전 전선에 걸쳐 부대를 재배치하는 한편 부대의 인원, 장비의 개편작업에 착수하였다.

중동부전선 펀치볼 일대를 방어하고 있던 국군 해병 제1연대는 미 해병 제1사단과 함께 1952년 3월 17일 서부전선으로 이동하여 임진강-사천 및 한강하류와 서해안 일원의 주저항선을 인수하여 서울로 이르는 적의 주접근로인 개성-서울가도의 방어를 담당하게 되었다.

해병 제1연대는 국군 제15연대로부터 사천강 이동의 진지를 인수하여 제3대대를 좌일선, 제1대대를 우일선으로, 제2대대를 예비로 각각 배치하여 좌인접 미 제1수륙양용장갑 대대와 우인접 미 해병 제5연대와 방어선을 연결하였다. 연대 지역은 백연리의 155고지를 정점으로 하여 사천강을 따라 작은 능선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외에는 대부분 개활지로서 적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연대는 진지를 인수한 후 적의 기습에 대비하여 야간정찰과 진지보강작업에 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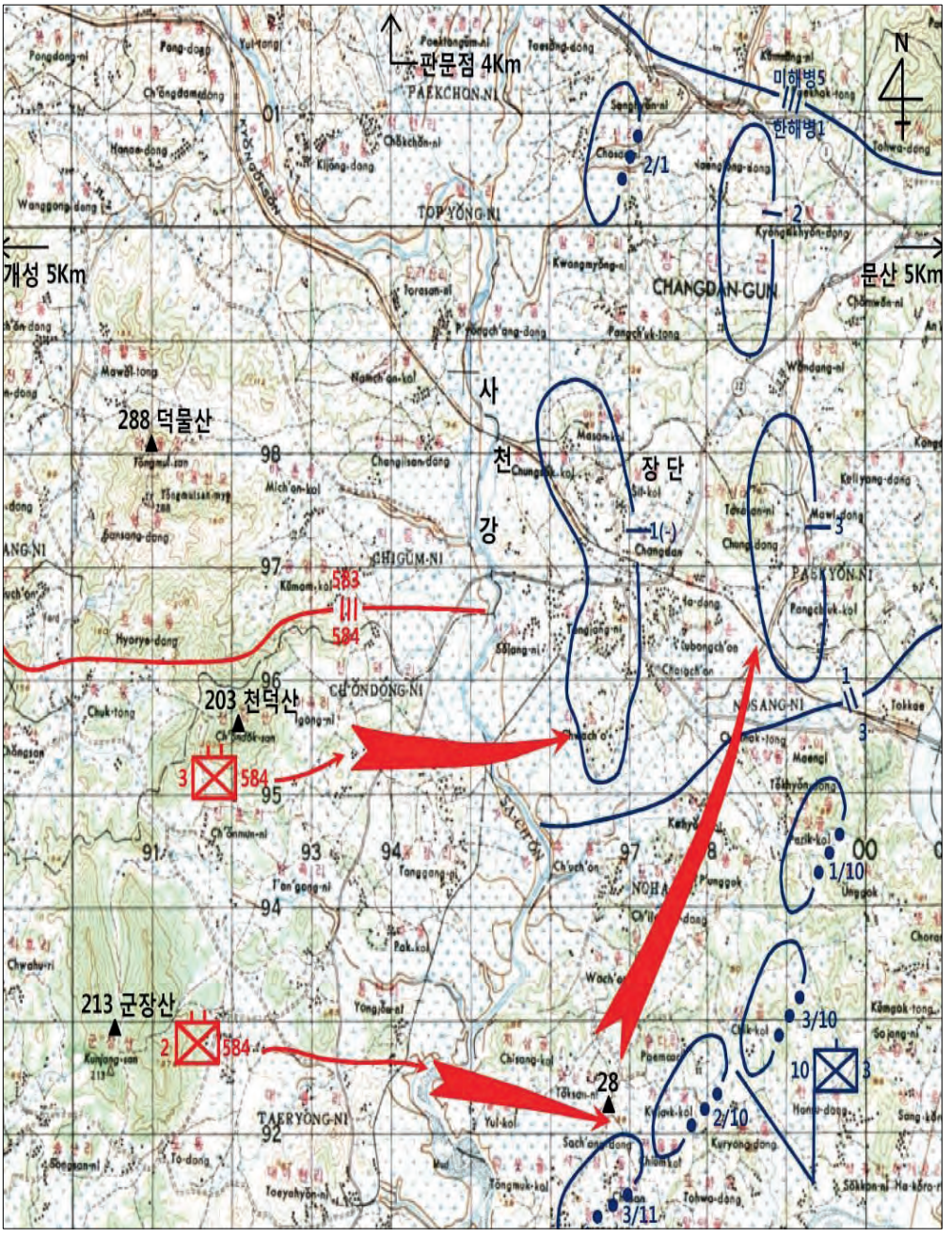
이때 연대 정면에 대치한 적은 중공 제65군 제195사단으로 예하 제584연대가 우일선, 제583연대가 좌일선, 그리고 제585연대가 예비대로 각각 사천강 서쪽에서 덕물산-천산산-군장산 등 전술상 양호한 고지군을 점유하여 강 동쪽의 아군의 전초진지와 주저항선 일대의 개활지를 감제하고 있었다. 지형은 대체로 횡격실을 이루고 있어 적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풍부한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진지와 화력을 보강하고 모든 진지를 거점화했다.

부대교대 후 포격과 더불어 야간기습을 감행하던 적은 4월 1일 22:00시 경 일제히 포문을 열고 2개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대대 전투지경선 부근에서 사천강을 건너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다. 적의 포격은 비교적 정확하여 진지의 일부를 파괴하였으며 연대지휘소마저 위협하였다.[44] 곧이어 적 1개 중대가 제1대대 전초 중대의 좌측방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제1중대는 155mm포의 지원 하에 중대의 전 화력을 집중하여 23:20분 좌측후방으로 침투한 적을 격퇴하였다. 한편 주저항선의 제3중대 전방에서도 22:40분 지뢰가 폭발로 적의 침투가 폭로되면서 치열한 총격전이 전개되었다. 대대장은 화력을 제3중대지역으로 전환하면서 일부병력으로 주요 후방 침투로를 차단하였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3> 사천강 부근 전투



한편 이 무렵 제3대대 지역에서도 적의 선두부대와 교전을 벌이면서 매복조가 철수하자 곧이어 제2소대 지역과 본부지역으로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제1, 제3소대는 적의 후속부대를 차단하기 위해 화망을 구성하고 있었으나 적의 주력은 24:00시 경 이미 제2소대와 중대본부 전면으로 진입하였다. 중대는 밀려드는 적을 향해 사격을 집중하면서 2시간여에 걸친 일진일퇴의 혈전을 전개하였으나, 아군의 포진지가 파괴되고 시간이 갈수록 밀리게 되어 일단 87고지 후방능선으로 철수하였다.[45] 이때 대기 중이던 연대 예비 제2대대가 증원을 위해 출동하였다.

적의 기습으로 제1, 제10중대 진지일각이 적중에 들어가자 곧바로 연대장은 주저항선을 회복하기 위해 예비 제2대대에 역습명령을 하달하였다. 제2대대가 공격개시선에 도달할 무렵 이미 상황은 상당히 변화되고 있었다.[46] 즉 이미 제1, 제3대대에 의한 역습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양 대대는 주저항선 전방에 있는 적의 예상 퇴로와 사천강 연안에 집중 포격을 집중하고 곧이어 제1, 제10중대가 돌격을 감행하여 적을 일거에 격퇴하였다.

<표 4-2> 사천강 부근 전투 전과 및 손실[47]

전과			손실	
사살		121명	전사	53명
추정사살		126명	부상	27명
포로		1명	실종	4명
노획	개인화기	4정		
	공용화기	1정		
	수류탄	56발		
	대인지뢰	7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적은 예상치 못한 역습을 받아 우왕좌왕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어 양 개중대는 좌우 측방으로 분산된 적을 소탕하기 시작하였고 주저항선과 전초진지를 회복하였다. 적은 이번 작전에서 많은 손실을 입어 이후 정찰 및 기습활동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반면 연대는 여세를 몰아 몇 차례의 적의 전초진지를 공격하여 많은 전과를 달성하였다. 4월 5일 야간 10중대 2개 소대가 치밀한 포격지원 계획 하에 적 전초진지에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적 12명을 사살하고 적진에 큰 타격을 주는 등 전초진지상의 확고한 주도권을 장악하였다.[48]

이후에도 피아간에 전초진지 기습전은 반복되었으며, 5월 18일 미 제45사단 배속된 필리핀 제19대대전투단도 연천 북방 아스널·이리고지 상에서 연대규모의 중공군의 공격을 백병전으로 맞서 고지를 방어하는데 성공하였다.[49]

국군 해병연대는 2차에 걸친 예비대의 증원과 보전협동으로 격전 끝에 역습한 적을 전초진지로부터 격퇴한 뒤로 적 포격으로 말미암아 진지의 보수작업이 어려웠으나, 공병지원을 받아 철조망, 지뢰매설 등 장애물을 설치하고 무너진 각 유개호를 견고하게 보강하였다.

사천강을 군사경계로 하여 양측의 전투는 가열되어 정찰전에서 기습전의 형태로 바뀌고 또 대화력전과 같이 전초진지 확보를 위한 전투가 일진일퇴로 계속되었다. 그것은 휴전회담이 성립될 경우 현 전선이 군사분계선으로 확정될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사천강 연안에 배치된 중공군 제582, 제584연대와 예비대인 제581연대는 최전선의 진지구축에 열중하여 폭격으로 파괴된 포병 진지를 보수하면서도 차기전투 준비에 집중하고 있었다.

해병연대는 처음 체험한 보전협동의 이점을 활용하여 주저항선의 방어계획을 수정하는 동시에 포병대대, 전차중대, 공병중대의 증편과 연대본부의 전투체제를 강화하여 해병 제1연대를 해병 제1전투단으로 개편할 준비를 갖추었다.

3) 크리스마스고지 부근 전투

크리스마스고지(1090) 부근 전투는 동부전선 백석산 북방의 전초진지 쟁탈전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었다. 이 전투는 1951년 12월 25일부터 1952년 1월 중순까지 어은산 일대의 중공군 제204사단이 백석산 북방의 1090고지(북) 부근 국군 제7사단의 전초진지를 공격함으로써 격전이 전개된 전투이다. 후일 1090고지 전투는 크리스마스 전투라고 이름 부쳐졌다.[50] 이 고지는 어은산과 백석산을 연하는 종격실 능선상의 고지들인데. 피아가 현 주저항선에서 조금이라도 물러나지 않으려는 의지의 충돌로써 쟁탈전이 되풀이 되었다.

이에 앞서 국군 제7사단은 제8사단과 전선을 교대하여 제5, 제8연대로써 좌우 일선으로 삼아, 어은산 남쪽의 미네소타(Minnesota) 선[51]을 주저항선으로 점령한 뒤로, 중공군 제204사단 제612연대와 맞서 1090고지 및 890고지 부근에서 일진일퇴의 격전을 치렀고 제5연대와 예비대인 제3연대와 진지를 교대시켰다.

당시 중공군 제204사단은 제612연대로서 어은산을 주축으로 890-1218-984고지를 연한 선에서 주저항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국군 제3연대가 새로이 좌일선을 맡은 뒤로는 중공의 정찰대가 암동계곡을 정찰 활동하는 범위가 축소되었고 오히려 계곡 북쪽 주저항선 근방에서 양측의 수색대 사이의 충돌이 잦아지게 되었다.

적으로서는 수색활동의 주저항선에 대한 위협을 배제하는 방편으로 1090고지를 장악하려 하였고, 이 고지가 주저항선상의 핵심인 1218고지 남쪽 500m까지 가까이 있는 까닭으로 마치 눈의 가시처럼 느끼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24일 당시 1090고지 부근에서 적의 주접근로를 방어하고 있던 제3연대는 적이 1090고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기도를 사전 봉쇄하기 위하여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어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에도 정찰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날 적은 17:40분 경 20여 명의 정찰대가 무명고지(B) 일대의 진지정면을 탐색하다가 전초소대와 조우한 뒤 물러간 후 곧이어 120mm와 82mm 박격포탄 400여 발의 공격준비사격과 동시에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공격을 가해왔다.

적은 전초진지를 좌우로 포위 무명고지를 탈환하고 그 기세를 몰아 1090고지까지 기습공격을 기도하여 왔으나 동 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제3중대의 반격을 받아 많은 손실을 입고 무명고지로 퇴각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대는 무명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정까지 4차례나 야간공격을 전개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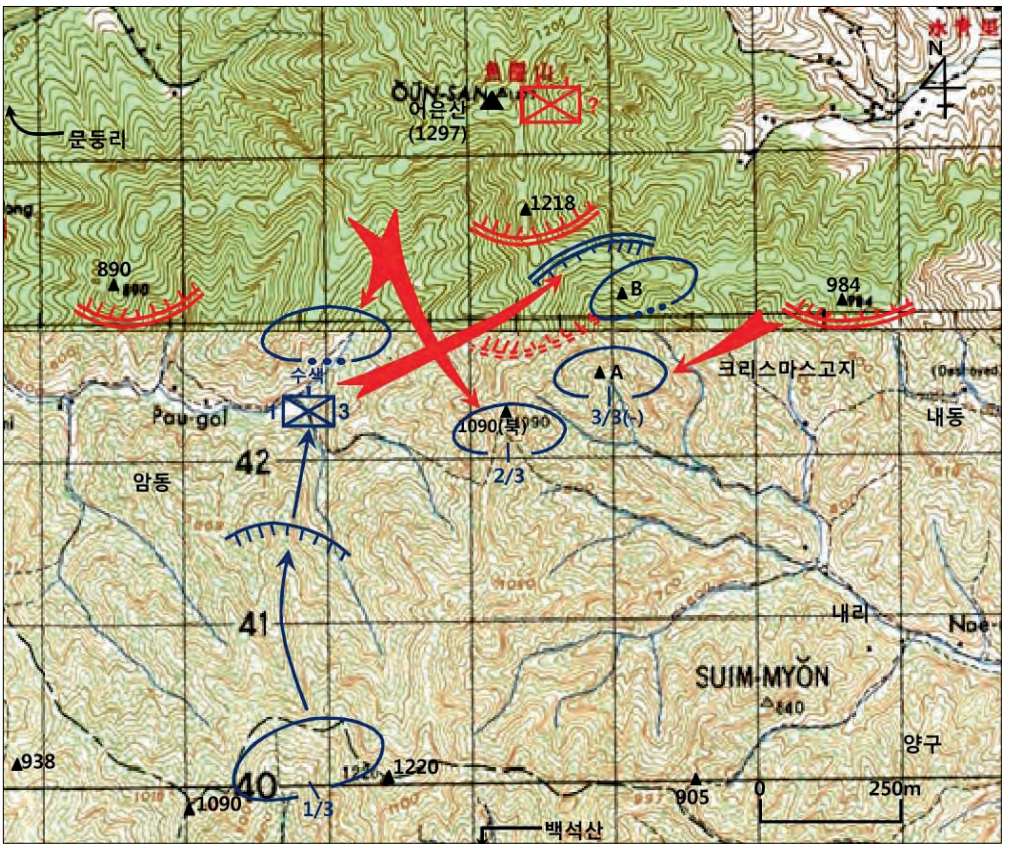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을 받아 철수하였다.

12월 26일 09:00시 경 아군은 포병의 공격준비사격과 동시에 제1중대가 제3중대를 초월 공격하여 적과의 일진일퇴 공방전을 반복한 끝에 14:30분 고지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19:35분부터 적의 야간공격을 받아 다시 피탈되었다.[52]

다음날 27일 아군은 강공으로 다시 무명고지를 탈취하였으나 적의 새로운 증원부대로 보이는 약 2개 중대 병력이 18:30분 경에 기습공격을 가해옴으로써 탄약의 소모와 진지를 지탱하기 어려워 또다시 철수하였다. 그러나 28일 06:00시 경 제1중대가 재차 공격을 감행하여 치열한 백병전 끝에 09:50분 무명고지 정상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53]

<상황도 4-4> 크리스마스고지 전투



이후 1952년 초에 들어 크리스마스고지를 중심으로 몇 차례 소규모 충돌이 있었으나 대체로 소강상태를 이루었으며, 2월 11일에 또 한 차례 이를 탈취하려는 적과 전투를 벌이었다. 이때 아군은 이른바 '클램 업(Clam Up)' 작전개념에 따라 포로획득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전초에서 적을 유인 격멸하려는 전술을 적용하고 있었다. 당시 부대교대로 무명고지(A)에는 제3연대 제2중대가, 고지(B)에는 제2중대의 1개 소대가 각각 전초로 운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2중대는 2월 11일 크리스마스고지를 비워놓고 적의 접근만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자정 무렵 사단의 우일선인 제5연대의 중앙 정면인 내면계곡에 2개 분대 규모의 적이 위협사격과 동시에 제2대대의 경계진지에 접근하였으나 대응치 않자 그대로 북상하였다.

12일 01:35분 적은 2개 대대 규모로서 암동계곡의 연대 좌일선인 제3대대의 경계선을 침투하고자 기도하였다. 그러나 적은 아군 경계조가 진지를 비워놓고 그 남쪽 주진지로 철수하면서 설치한 인계식 지뢰에 촉발케 되자 지뢰지대로 오인하여 퇴각하고 말았다. 20:30분 적은 다시 1개 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증강하여 21:15분 무명고지의 탈환을 기도하였다. 유인격멸의 호기를 맞은 중대는 적이 진지정면에서 수류탄 투척거리에 육박할 무렵 전 중대의 화력과 대대 81밀리 박격포 화력을 기습적으로 집중함으로써 적을 격퇴시켰다.

13일 적은 다시 무명고지를 탈환하고자 02:25분 박격포 사격지원 하에 중대 규모로서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아군의 방어중대는 악전고투 끝에 진지를 사수하는데 성공하였다. 적은 재차 1개 소대 규모의 증원부대를 투입하였으나 격퇴되었다.

이리하여 연대는 적의 수차례에 걸친 공격을 격퇴하여 휴전 후 쌍방의 주저항선을 유지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크리스마스 고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전투결과 1차 전투에서 아군은 적 172명을 사살하고 5명을 포획하였으며, 전사 22명, 부상 109명, 실종 21명의 손실을 입었으며, 제2차 전투에서는 4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하였으며 전사 9명, 부상 9명의 손실을 입었다.[54] 그러나 연대는 원래 목표로 한 포로획득에는 실패하였다.

이 무렵 포로를 획득하기 위해 중동부전선 상 미 제2사단에 배속된 네덜란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대대는 공산군 전초진지인 평강 남방 10㎞ 별고지(430고지)를 공격하였으며, 미 제7사단에 배속된 콜롬비아 대대도 김화지구 적의 전초진지(400고지)를 기습하여 그들의 방어시설을 파괴하였다.[55]

국군 제3연대는 제1대대가 '클램 업(Clam up)' 작전계획대로 적에게 내놓았던 크리스마스 고지를 다시 되찾은 뒤로, 이 작전의 원래취지는 사실상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적이 아군의 유인책을 간파한 듯, 대규모의 건제부대를 투입하지 않았으며 포로로 획득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규모의 정찰활동도 하지 않고 소대 내지 중대규모로써 경계진지에 대한 급습만을 반복하였기 때문이다. 아군으로서는 언제까지나 좌시할 수만은 없어서 적을 격퇴한 것이었다.

이후에도 적이 몇 차례 크리스마스고지를 공격해 왔으나 아군은 이를 모두 격퇴하였다. 14일 적은 전례 없이 무반동총과 로켓포 등을 장비한 1개 소대 규모를 투입하여 암동에 잇는 연대 중앙일선의 대전차 공격대대 제2중대의 경계진지를 공격하였다. 이들은 3시간 가까이 격전을 치른 끝에 격퇴되었다. 이날 적은 다시 1개 소대규모를 투입하여 몇 차례 크리스마스 고지를 공격하였으나 모두 격퇴되었다.

국군 제3연대는 16일 사단「작전명령」제123호에 의해 예비인 제8연대에게 진지를 넘겨준 후 사단예비가 되어 금악리, 장평리, 곡내 일대에 집결하였다. 이때부터 제3연대는 주로 부대정비와 아울러 제5, 제8연대에 대한 보급품운반과 진지보강작업을 지원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575고지 전투

575고지 전투는 국군 제6사단이 중동부전선 상의 575고지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한 전초진지 쟁탈전이었다. 이 전투는 국군 제6사단이 575고지에서 1952년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중공군 제12군 예하 부대들의 공격을 받고 성공적으로 격퇴한 전투이다.

이에 앞서 국군 제6사단은 양구 부근에서 부대정비와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미 제9군단으로 배속되어 다시 전선으로 투입되었다. 제6사단은 1952년 3월

28일 제2, 제7연대를 좌우 일선으로 하여 미 제40사단이 방어하던 금성천 북방의 봉화산(477)-사천리-계암-442-교암산(770)-765을 연한 미조리선 상의 주저항선을 인수하고 제19연대는 예비로 죽동에 확보, 전선을 방어하였다.

사단은 제2군단의 좌익으로서 우로는 수도사단 좌로는 미 제9군단 예하의 미 제40사단과 연결을 유지하고 적의 공격 기도를 사전에 분쇄하여 주저항선을 방어하기 위하여 전초진지를 강화하고 수색과 매복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사단장 백인엽 소장은 주진지를 보강하고 제7연대 정면 575고지를 비롯한 전초진지를 강화하여 접적을 계속 유지하도록 강조하였다.

사단 정면의 중공군 제12군 예하 제31사단과 제35사단은 지금까지 많은 전투경험을 쌓고 비교적 큰 타격을 받지 않은 편이었으며, 보급 및 사기가 양호하여 공수양면의 전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적은 아군의 우세한 공군력과 포병화력으로 전면공세보다는 방어에 역점을 두면서 전초진지 쟁탈전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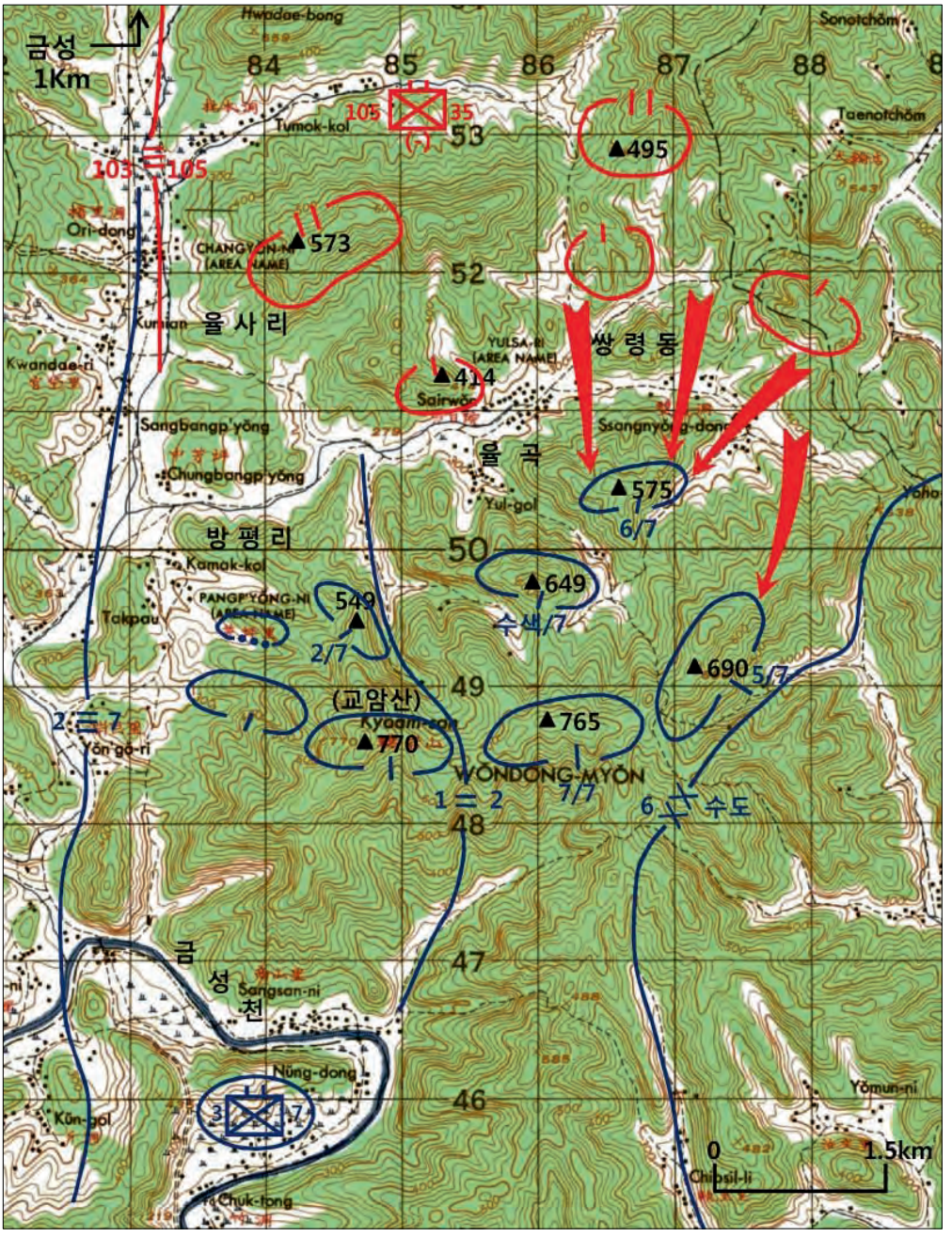
적은 제31사단 일부와 제35사단 일부로서 병력은 6,000명이며 제32포병사단 제406포병연대의 직접지원을 받고 있었다. 적은 방어에 역점을 두면서 전초진지에 대한 국지적 공격을 시도할 것이라 판단되었는데 그 경우 575고지로 지향될 것이라 추단되었다.

575고지는 돌출된 요충으로서 율사리-쌍령동 일대를 감제하여 적의 수색활동을 제어하고 정확한 포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575고지를 적이 탈취한다면 공격거점을 확보함은 물론 지형능선의 서사면을 감제하게 됨으로써 차후공격을 위한 유리한 접근로를 장악하게 되며, 접촉선이 단절됨으로써 이미 휴전회담에서 가조인된 군사분계선의 책정원칙에 따라서 2㎞씩 후퇴할 경우 아군은 요충인 교암산을 계속 확보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었다.

1952년 4월 16일 아침부터 계속된 적의 교란사격은 저녁 무렵부터 제6중대가 점령하고 있는 575고지로 일제히 집중되었다. 575고지 일대는 삽시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분초에서는 2개 중대 규모의 적이 율곡부근의 개활지를 횡단하여 분진접근중임을 관측하였다. 적은 690-649고지를 견제 공격하여 증원을 차단하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575고지를 탈취하고자 기도하는 것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5> 575고지 전투



제7연대장은 즉각 제27포병대대와 미 제300포병대대에 포병제압사격과 차단사격을 요청하였으며, 제2대대장은 제8중대 81mm박격포와 배속중인 4.2″박격포사격을 575고지 일대로 집중하면서 제5중대와 연대 수색중대에 575고지에 대한 측방엄호와 증원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하였다.

제6중대는 야간수색과 매복 차 출동대기중인 각 소대를 전투 배치하였다. 적의 집요한 포격은 산병호와 교통호를 파괴하였다. 이때 일제히 포문을 연 아군 105mm야포는 율곡부근의 개활지와 575고지 북쪽 경사면과 계곡일대에 포격을 집중하였다. 19:50분 집중포격을 헤치고 쇄도한 적은 포위와 돌파의 양면작전을 기도하였다. 중대는 포병대대의 탄막사격 하에 지뢰를 계속 폭파시키고 최후 저지사격을 가하면서 적을 격퇴하였다.

정면으로 쇄도한 적 주력은 그 일부가 우회하여 우인접 연대 수색중대의 증원을 차단하는 가운데 북쪽 능선으로 침투하여 좌일선 제1소대 진지를 돌파하고자 하였다. 이에 제1소대는 연대 수색중대의 측방 지원사격하에 서남쪽으로 우회하는 적을 견제하면서 57mm무반동총과 2.36″ 로켓포 그리고 기관총을 주축으로 화력을 집중하여 진지정면에서 적을 격멸코자 하였다. 그러나 적의 일부가 북쪽능선으로 쇄도하면서 수류탄을 투척하였고 1개 분대 규모의 적이 진내로 침습하였다. 소대는 백병전을 전개하고 전 화력을 집중하였고, 결국 적은 노출된 지형에서 화망에 휩싸여 20여 구의 시체를 유기한 채 퇴각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잠시 후 적은 다시 직사포와 박격포 기관총 사격을 집중하면서 다시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27포병대대는 다시 진내사격을 방불케 하는 탄막사격을 개시하면서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자정 무렵 적의 일부가 진지정면으로 쇄도하면서 처절한 근접전이 전개되었다. 적은 직사포와 기관총 사격을 집중하였고 서북쪽능선으로 일단의 적이 또다시 쇄도하면서 수류탄을 던지고 진내로 침습하였다. 제1소대는 수류탄을 투척하고 곧이어 치열한 혈전을 거듭하였다. 결국 소대는 적을 격퇴하고 돌파된 진지를 회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두지휘하던 제1소대장이 적탄에 맞아 호국의 신으로 산화하였다.

적은 또다시 서북쪽과 동북쪽 능선으로부터 일제히 공격을 재개하였다. 중대장은

정상을 중심으로 사주방어로 전환한 다음 가용 화력을 적진에 집중하였다. 증강된 2개 중대 규모의 적은 삼면을 포위한 채 수류탄을 투척하면서 진지정면으로 육박하였다. 중대장의 진두지휘 하에 사격전을 전개하고 수류탄을 투척하여 접근하는 적을 총검으로 저지하는 혈전이 전개되었다. 이때 중대장이 총탄에 맞아 복부관통상을 입었으나 계속하여 병사들을 독전하였다. 중대는 혼연일체가 되어 마침내 적의 파상공격을 격퇴하였으며 다음날(17일) 날이 밝을 무렵 적은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중대가 진지를 보강하면서 재편성에 착수하고 있을 때 대대장으로부터 여세를 몰아 반격으로 진지를 회복하라는 명령이 접수되었다. 중대장 대리는 포병지원사격을 서북 능선 쪽으로 유도한 다음 제2, 제3소대로 반격에 나섰다. 서북능선으로 돌진할 무렵 적의 역습을 받아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이때 적진에 수류탄을 투척하던 제2소대장이 장렬하게 산화하였다. 협소한 능선 상에서 적탄에 휩싸인 중대는 적진지를 탈취하지 못하고 부득이 제1소대가 확보한 정상부근의 진지로 철수하였다.

제6중대는 15시간에 걸친 격전을 통하여 극도의 피로와 속출하는 사상자를 내면서 중대는 용전분투하여 적을 진지정면에서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중대는 이 전투에서 적 100여 명을 사살하여 진지를 고수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소대장 2명을 포함한 24명의 전사자와 74명의 부상자를 내었다.[5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4-3> 575고지 전투의 전과 및 손실

전과	사살	포로	다발총	소총
	105명	1명	18정	12정
손실	전사		전상	
	2/22명		3/71명	

적은 이후에도 몇 차례 역습을 기도하여 진지정면까지 접근하였으나 그때마다 격퇴되었다. 제6중대는 575고지 북쪽 능선상의 적을 격멸하고, 연대수색 중대는 율곡부근에서 적의 역습을 격퇴했다. 제6중대는 연대명령에 따라 제7중대에게 진지를 인계하였다. 다음날부터 제7중대는 진지를 인수받자마자 적의 공격을 받아

격전을 전개하였으며, 수차례 적의 산발적인 공격을 물리쳤다.

국군 제19연대는 575고지 동북단의 무명고지에 배치된 제10중대가 철수하게 되자, 575고지의 전초진지를 강화하면서 제52포병대대의 직접 지원 하에 전 박격포를 집중하여 적의 공세와 증원을 봉쇄하였다. 연대는 사단 좌일선인 제2연대의 우측 일부진지를 인수하여 765고지-교암산-442고지-연거리에 이르는 4㎞의 주저항선 진지를 담당하였다.

5) 662고지 전투

662고지 전투는 국군 제3사단이 중동부전선 949고지 전방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한 전초진지 쟁탈전이었다. 이 전투는 1952년 1월 15일 국군 제3사단이 미 제9군단의 '클램 업(Clam Up)' 작전개념에 따라 적을 유인하여 타격하고 포로를 획득하기 위해 치른 전투였다.

이에 앞서 국군 제3사단(백남권 준장)은 양구부근에서 부대를 정비한 다음 문등리-동막동 일대로 전진하여 위력수색임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사단은 1952년 1월 12일부터 국군 제6사단의 작전임무를 인수 미 제9군단의 우익으로서 게리(Gary)선상의 949고지를 중심으로 북한강으로부터 석장리간 주저항선을 확보하고 전선을 방어하였다. 당시 군단장 호지(Hoge) 중장은 '침체로부터의 탈출'을 강조하는 미 제8군의 작전지도에 따라 적을 유인하여 타격을 주고 포로를 획득한다는 '클램 업'이라는 작전계획을 하달하였다.

사단 예하 제23연대는 사단 중앙일선으로서 949-739고지를 연한 방어선을 확보하였으며, 제3대대 제9, 제10중대로써 사단 전투지대내에서 가장 중요한 접근로상의 무명고지(550)와 662고지에 전초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당면의 적은 중공 제12군 제35사단 제104연대와 제68군 제203사단 제607,제609연대 양 연대 도합 6천여 명으로서 좌패리-북한강 돌출부-679고지-674고지-송정-암리를 연하는 일대에 거점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수 미상의 박격포(60mm, 82mm, 120mm)와 직사포(57mm, 76mm) 그리고 야포(105mm, 122mm)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주력인 제68군은 북한군 제5군단과 교대한 이래 그 일부는 백석산에서 국군 제7, 제8사단에 의하여 계속적인 타격을 받았으나, 제203사단은 비교적 좋은 전투력을 갖추고 국부적인 공세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군 제23연대(이관식 대령)는 사단이 제6사단의 작전임무를 인수하게 됨에 따라 수동리 부근으로 전진하여 제7연대의 진지를 인수하고 사단 중앙일선으로서 제1대대를 우일선, 제2대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949-739고지를 연한 방어선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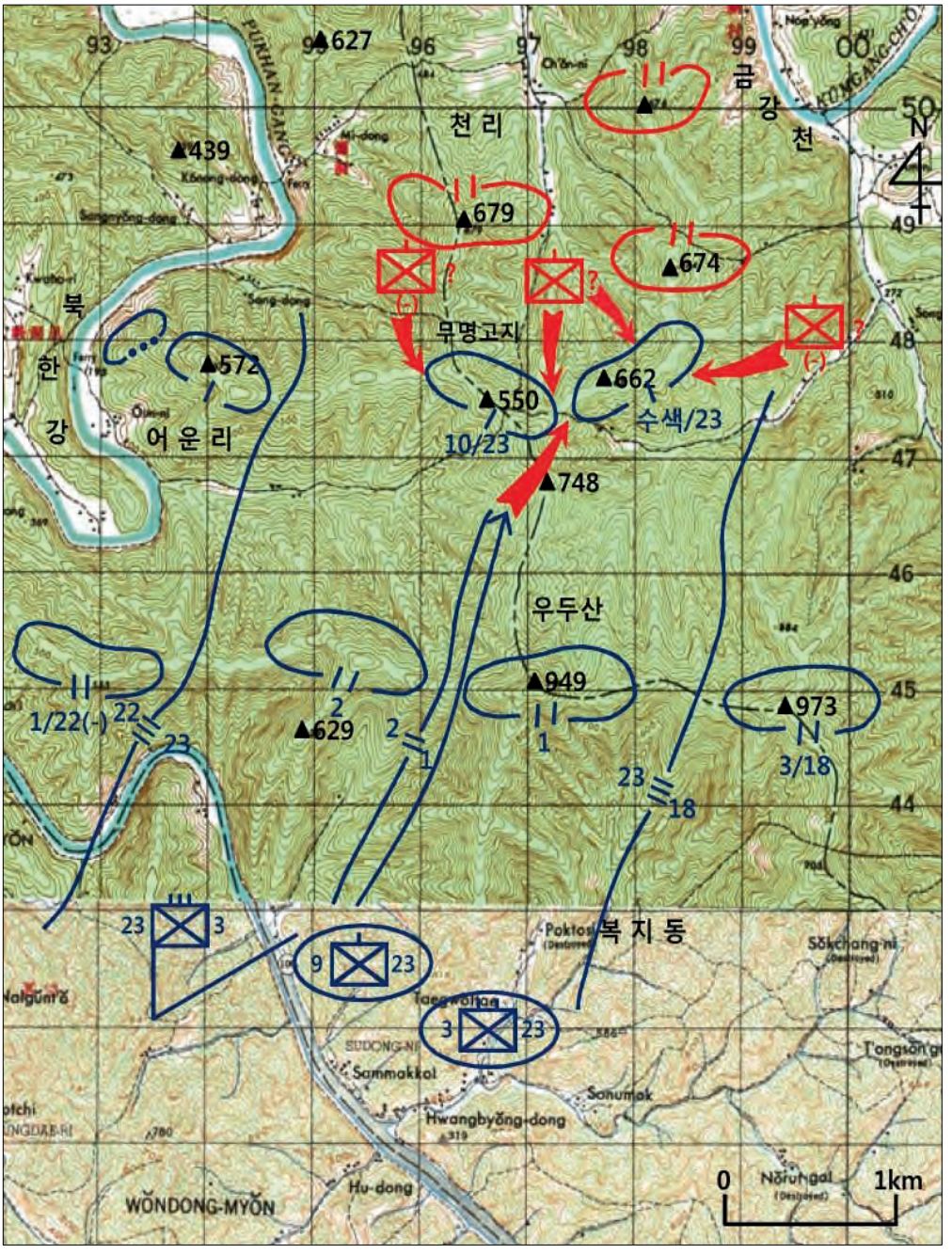
이와 같이 전선을 정비한 연대는 위력수색과 야간매복 그리고 여명기습으로 적의 도발을 유인하고자 하였으나 활발한 접촉을 유지하지 못하던 중 '클램 업' 작전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그 성과를 올리고자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우인접 제18연대는 석장리-949고지 동쪽능선에 이르는 일대를 점령하고 있었으며, 좌인접인 제22연대는 548-좌수동에 이르는 방어선을 담당하고 중공군 제607, 제104연대와 대치하였다.

국군 제23연대는 사단의 작전방침에 따라 작전계획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2월 10일 04:00시 경 제9중대는 완전 철수를 가장하면서 연대 수색중대 및 제10중대에 662고지-무명고지의 전초진지를 인계하였다. 전초진지 상의 양 중대는 철저한 침묵과 위장으로 적의 정찰대를 유인하였으나 별 징후가 없다가 14일 야간 적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2월 15일 01:50분 중공군 제607연대 예하의 1개 소대 규모가 수색중대 우측 제2소대 정면으로 접근하였다. 소대는 적을 지근거리까지 유인한 다음 지뢰를 폭발시키면서 일제사격을 가하였다. 적은 순식간에 대열이 흩어지고 분산 도주하였다. 소대는 추격전을 전개하려 하였으나 이때 고지 서북까지 우회 침습한 2개 중대 규모의 적의 일제사격을 받아 실패하였다. 02:25분 적은 고지로 포격을 집중하면서 일제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의 포격으로 진지가 파괴되거나 노출되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포격 간에 계속 침투한 1개 소대 규모의 적은 제10중대와 간극을 뚫고 수색중대의 좌측을 위협하였으며 또 증강된 2개 소대 규모의 적이 정면으로 침습하면서 중앙돌파를 시도하였고 또 다른 2개 소대의 적이 동북능선으로 침투하여 수색중대 제2소대를 협공하였다. 03:25분 3면으로 공격을 받은 중대는 사격을 집중하여 적의 강습을 저지하였으나 제2소대 진지가 위기에 처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6> 662고지 전투



소대장은 기관총 사수와 부사수가 전사하자 기관총 진지로 달려가 기관총을 발사하였으나 후속하는 적의 수류탄 공격을 받아 결국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다.[57] 산병호 일각이 무너진 소대는 수류탄전과 육박전으로 적을 저지하였으나 중대 정면을 공격하던 적의 일부가 소대의 우측방을 위협하여 불가불 철수하게 되었다.

중공군 제607연대는 일부 병력으로 서측방을 차단한 가운데 그 주력이 동쪽으로 강습하였다. 병력면에서 절대 열세한 중대는 사방에서 밀려드는 적의 공격으로 인해 05:30분 포위망을 돌파하면서 제10중대의 엄호 사격 하에 748고지일대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적의 정찰대를 유인하여 포로를 획득하고자 한 이번 작전 예상을 뒤엎은 적의 공세로 인하여 오히려 주요 전초진지인 662고지를 적중에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제10중대는 662고지 서남쪽 무명고지에 전초진지를 편성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는데 01:50분에 서북능선을 타고 중공군 1개 분대가 진지정면으로 접근하였다. 곧이어 2개 소대 규모의 적이 중대정면으로 침습하였다. 중대는 적을 진지정면 50m까지 유인한 다음 지뢰를 폭발시키면서 화력을 집중하였다. 적은 분산 도주하였으나 얼마 후 박격포 지원사격하에 일부를 우회시켜 좌측방어선을 위협하였다. 적은 중대를 삼면으로 포위한 채 산발적인 공격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중공군 제607연대의 시도는 국군 제10중대를 포위 견제하는 가운데 수색중대의 662고지를 탈취하려 하는 것이 분명하였다. 따라서 중대장은 예비 제2소대에 우측으로 침투한 적에 대해 역습을 명령하였다. 소대는 일제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삼면의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아 일진일퇴의 격전만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중대는 적의 공격과 공세로 인해 사격전만을 계속하였다.

한편, 연대장은 수색중대의 662고지의 피탈을 보고 받고 제3대대에 고지탈환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전날의 진지인 연대 지휘소 부근을 출발한 제9중대는 고지탈환 임무를 부여받고 공격에 나섰다. 중대는 제10중대 진지부근으로 진출한 다음, '클램 업' 작전이 종료되는 14:00시를 기하여 개시된 포병사격의 연신과 동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대는 제1소대를 동쪽으로 우회시키고 주력은 무명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지 동북능선을 따라 662고지로 돌진하였다.

중공군 제607연대 예하의 적은 57mm직사포와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저항하였으나, 제11포병대대의 집중사격으로 진지가 제압되었다. 제9중대는 즉시로 돌격하여 수류탄을 투척하고 백병전을 전개하여 마침내 17:05분 고지를 장악하였다. 중대는 진지를 재편하고 적의 역습에 대비하였다. 이날 연대의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았다.

<표 4-4> 662고지 전투 전과 및 손실[58]

전과	사살	포로	다발총	수류탄
	34명	2명	4정	48발
손실	전사	전상	실종	망실
	28명	34명	8명	경기관총 등 3문, 소총 9정

국군 제23연대는 662고지를 다시 탈취하여 662-무명고지에 이르는 일대에 예하부대를 배치하고 전초진지를 계속 확보하였다. 적은 이 연대 방어선을 눈에 가치처럼 여겨 수차례 야간기습으로 전초진지를 탈취하려 했다. 연대는 공병중대의 지원 하에 3중의 철조망과 500여 개의 지뢰를 매설하여 적의 기습에 대처하였다. 적은 이후 연대의 전초진지의 탈취를 단념하고 소극적인 정찰전으로 전환하였다.[59]

이에 사단은 계속 3개 연대를 일선 전개한 채로 제11포병대대로 하여금 제97포병대대와 제109중포중대의 화력 증원 하에 적진에 화력을 집중하고, 배속된 미 전차 1개 중대를 출동시켜 제22, 제23연대의 전초진지를 위협하는 적진을 강타하였다. 또 위력수색대와 기습조를 적진 깊숙이 침투시켜 교란작전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후 사단은 백야전전투사령부의 우익으로서 제18연대를 우일선, 제23연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석장리-973고지-949고지-739고지에 이르는 주저항선을 확보하고 제22연대는 사단예비로서 등대리에 배치하는 가운데 위력수색과 매복, 그리고 기습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호도 전투

호도 전투는 국군 해병이 해안봉쇄를 위해 실시한 도서방어 전투였다. 이 전투는 해병도서부대 제7대대가 서해안 호도에서 1952년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북한군 제6군단 예하 중대의 공격을 격퇴한 전투였다.

1952년 초 공산군은 아군의 대규모 상륙작전과 해안기습 활동에 대비하여 서해안 경비를 강화하였고 특히 석도와 인접한 장연, 은율, 송화, 용강일대 해안지역에는 사단규모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었다. 북한군 제6군단은 예비 병력을 해안방어에 증원하고 경비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석도 대안인 서포리 반도, 월사리 반도에는 2개 연대병력을 투입하여 점차 공세적 방어를 취하려했다.[60]

국군 해병은 독립 제41, 제42중대에 이어 양도를 선점한 제43중대의 3개 도서작전부대를 모체로 1952년 1월 15일 도서부대를 편성하였다. 이 편성 내용은 독립 제42, 제43중대를 제8대대로, 석도에 진주한 독립 제41중대를 제7대대로 각기 현지에서 증편하고 제9대대와 부대본부 및 직할 근무지원 중대를 신규 편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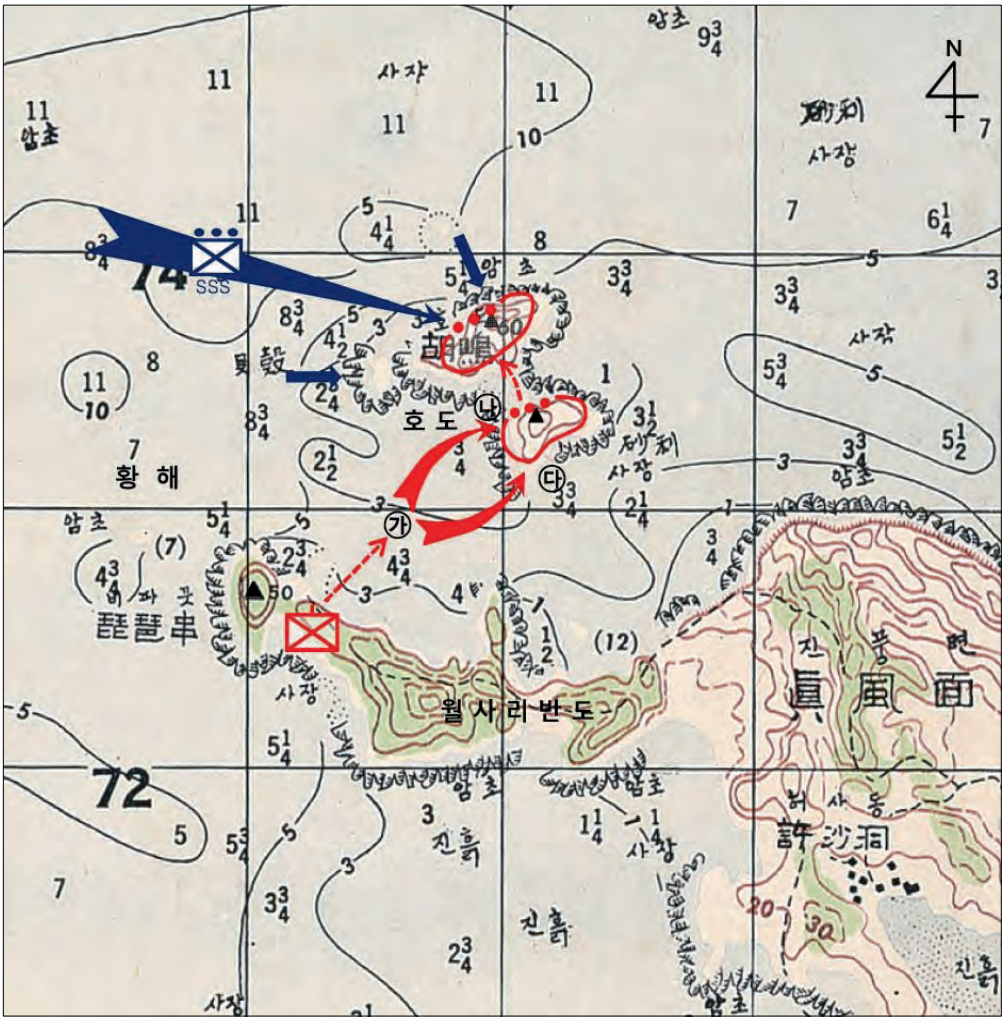
진해 신병훈련소에서 제9대대 편성을 완료하자, 제7, 제8대대를 제외한 이들 1,250명은 도서이동명령 제1호(1952년 1월 15일)에 의거 이동을 개시하였다.[61] 제9대대는 LST 803호에 탑승하여 1월 18일 연평도를, 20일 백령도로 진출하여 제92중대에 경비임무를 부여하였다. 22일에는 백령도 서쪽 60㎞ 숙도로 진출하여 제93중대를 배치하여 석도주둔 제7대대에 배속하였다. 호도전투와 관련이 있는 석도에는 제7대대 제72, 제73, 제74 3개 중대가 사주 진지를 점령하고, 소수병력을 호도(석도 남쪽 2㎞)에 잠복시켜 대안인 월사리 반도의 적정을 살피고 있었으나, 1월 30일 이후 호도에 대한 적의 활동 징후가 날로 격증함으로써 대대 역시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호도는 은율 앞바다 황해에 위치해 있으며 450㎡의 작은 섬으로 2개의 고지대로 형성된 무인도였다. 도서에는 식수가 전무하여 용수는 전략 석도로부터 공급되었고 대안의 월사리 반도와는 450m 거리에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7대대는 호도에 적의 포격이 1월 30일을 기하여 연일 실시되고 더구나 2월 3일에는 상륙을 기도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적선이 출현하였으나 함포지원으로 이를 격퇴하였다. 이에 도서부대장 김두찬 대령은 서해기동함대사령관(CTC 95) 다이어(Dyer) 소장과 협의하여 호도경비를 강화하기로 하고, 2월 13일 제7대대장에게 명령을 하달하였다.[62]

<상황도 4-7> 호도 전투



이에 제7대대는 당일 야간 호도에 병력을 진입시키기로 하고 석도에 배치중인 3개 중대에서 3개 소대병력을 추출하여 이날 미 로켓함의 화력엄호로 범선 2척에 의한 호도상륙을 감행하였다.[63] 그후 대대는 이들로 하여금 호도를 계속 경비하도록 하고 3월 13일에는 1개 소대를 다시 편성하여 1차로 파견된 소대와 경비임무를 교체하였다. 이들은 공병대의 지원을 받아 예상 상륙 해안지점에 72개의 대인지뢰를 매설하는 한편 철조망 30권으로 장애물공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유사시에 대비하고 호도파견소대의 대기선으로 범선 1척이 배당되어 있었다.

3월 25일 이날 적은 10:30분 경 서해리 반도에서 도서부대의 제7대대가 경비하는 호도에 대하여 30발의 포격에 이어 20:10분 월사리반도와 서해리반도로부터 석도와 호도 양 도서에 포격을 집중하였다. 곧이어 북한군 160여 명이 4척의 목선에 분승하여 호도를 기습하기 시작했다.

호도 파견소대는 호도 서쪽 해상 50m 전방에서 접근하는 적선 4척을 발견하자 즉시 저지사격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적의 포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23:00시경 어둠속에 호도에 접근하던 적선은 거리가 가까워지자 그들 진로를 은폐, 기만하기 위해 함수 전면에 연막을 치고 소대의 사계를 차단하고 접근하였다. 일부의 적이 60고지에 접근하고 주력 병력이 돌격 상륙하여 소대를 남북에서 협공하였다.

소대는 많은 피해를 입고 적의 포위망을 뚫고 남쪽 고지로 철수하였으나, 그곳 역시 적의 포화가 집중되어 피해가 속출하였다. 적은 진내에 수류탄을 집중하고 육박하여 소대장 이하 생존자 8명이 북쪽 암석 사이에 잠복하면서 증원부대의 도착을 기다렸다. 석도로부터의 긴급 연락을 접한 도서부대는 호도파견소대를 구원하고 역습을 전개하기 위해 미 해병대 서해사령관 포드(Pen Ford) 대령에게 상륙주정 및 함포지원을 요청하였다.

3월 26일 대대는 1개 정찰조를 투입하여 호도서쪽 무인도로 진출시켰다. 이날 한국 해군 309정이 석도부근으로 출동하였으나 적의 포화를 받아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였다. 호도에 진출한 정찰조는 호도에 적병 60여 명 정도가 진지를 구축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64] 27일 대대는 한국 해군 315정의 지원을 받아 몽금포 서쪽 고지에 구축한 적의 진지를 함포사격으로 파괴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8일 대대는 항공지원 하에 1개 소대 병력을 투입하여 역습으로 적을 격멸하고 호도를 탈환한다는 작전계획을 수집하였다. 다음날 1개 소대 병력이 3척의 발동선에 분승하여 석도해안을 발진하였다. 이때 미 전폭기 4대가 월사리 반도와 호도 지역의 적진을 강타하였다.

소대는 09:00시 경 중기관총 사격의 엄호 하에 호도 북안에 돌격상륙을 감행하였다. 소대는 거의 적의 저항 없이 상륙에 성공하고 아군 항공기의 엄호 하에 북쪽 산악으로 진출하였다. 적은 이미 대부분 철수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큰 접적 없이 호도를 완전히 장악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직후 소대는 대대로부터 "전원 귀환하라"는 명령을 받고 20:00시 경 발동선 2척에 분승하여 석도로 귀환하였다. 그 동안의 전투에서 도서대대의 전과 및 손실은 다음과 같았다.

<표 4-5> 호도 전투의 전과 및 손실[65]

전과	사살	포로	다발총	수류탄
	6명	2명	4정	48발
손실	전사		망실	
	39명		중기 3정, 포 2문, 소총 38정, 무전기 3대 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후 해병 제7대대는 몇 차례 소수 병력을 호도에 투입하여 대안의 적정을 수집하였다. 그러나 대안 일대에 적의 기세가 점차 커지고 포격활동이 증대함에 따라 4월 초 병력을 모두 철수시켰다. 대대는 호도가 지리적으로 매우 불리하여 많은 부담과 손실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의 경비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해병도서대대는 적이 석도와 숙도에 포격을 강화하고 아군활동을 적극적으로 견제하였으므로, 연평도-백령도(대평도, 소청도 포함)-숙도-석도 일대의 경비에 주력하면서 방어진지를 보강하였다.

3. 소규모 전초전의 특징

유엔군은 보다 유리한 전초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이 철원 북서쪽의 전술적 요지를 공격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전 전선에 걸쳐 전초진지전을 전개하였다. 1952년 춘계 전초진지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의 서부전선의 형태로 돌아간 듯하였다. 정적인 상황, 철조망 및 복잡한 교통호로 둘러싸인 종심방어, 포병 및 박격포 사격에 중점을 둔 점, 계속적인 정찰 및 기습 등은 모두 제1차 세계대전의 전선 상황과 흡사하였다.

물론 다른 점도 많았다. 예로써 항공기 발달, 독가스 사용의 금지, 디디티 발명으로 전염병이 줄어든 점 등의 차이가 있었다.[66]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쌍방의 군사력이 완전히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진지전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쌍방 모두가 군사적 이유보다는 전쟁을 협상을 통하여 종결지으려는 동기에 의하여 당시에 형성된 이상 과감한 진격을 자제함으로써 스스로 진지전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한편, 전투원들에게 진지전은 기동전보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다. 일반적으로 평소에 훈련은 기동전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생소한 진지전에 대하여 적응이 잘 안되었다. 심리적으로도 야전에 움직이는 것보다 진지에 앉아 있을 때 더 불안해지고 더 피로를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진지전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진지 내에 앉아서 총격 내지 포격전만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틈이 날 때마다 진지를 강화하고 전방지역에 대하여 수색정찰을 실시하고 적의 심상찮은 움직임에 대하여는 제한적 기동공격 또는 포격을 실시하였다.[67]

유엔군은 진지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병력을 수시로 교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1951년 유엔군은 병사들에게 전방근무 9개월, 후방근무 18개월의 복무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완료되면 다른 병력과 교대하도록 조치하였다.[68]

전체적으로 볼 때 1951년 말부터 1952년 4월까지의 지상전에는 약간의 기습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이 전개되었으나, 쌍방이 점령하고 있는 방어진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공산군은 진지에 박혀 있다가 주로 야간에 작전을 전개하는 반면, 유엔군은 주로 주간에 활동하였으며 지상에 대한 압력이 시들어 감에 따라 점차 공중전투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69]

전쟁이 정적인 진지전 위주로 진행되자 사상자의 수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유엔군사령부가 추정한 적의 사상자는 전년도 11월에 5만 명, 12월과 1952년 1월에 2만 명으로 각각 줄어들었으며 그 후로 4월말까지 매달 1만 1천 내지 1만 3천 명으로 줄었다. 반면 유엔군의 손실도 전년도 10월에 2만 명, 11월에 1만 1천 명, 12월과 1952년도 1월에 각각 3천 명으로 감소되었으며 2월부터 4월까지 매월 2천 5백 명선 이하에 머물렀다.[70] 이와 같이 군사적으로 전초 진지전에서의 주도권은 아군에게 있었으나, 진지전의 장기화 추세는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협상에서도 아군에 유리할 수 없었다.[7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4 절 후방지역작전

1. 개 요

1951년 11월 25일 전주에 사령부를 설치한 백야전전투사령부(이하 '백야사')는 12월 2일부터 1952년 1월 4일까지 수도사단과 제8사단을 주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서남지구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공비의 주력은 와해되었고 체계적인 작전이 불가할 정도로 무력화되었다.[72]

백야사의 소탕작전으로 큰 타격을 입은 서남지구의 공비들은 게릴라 활동에 유리한 산악지역으로의 재잠입을 시도하였다. 이들이 활동 거점으로 삼은 곳은 지리산·백운산·회문산·백아산·덕유산·운장산지구 등이었다.[73]

이에 대하여 백야사는 전투부대를 동시에 투입하여 공비잔당을 격멸할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1952년 1월 4일부터 제3기 작전에 돌입하였다. 수도사단은 사단 주력으로 지리산과 백운산을 차례로 포위공격 하는 한편 일부 부대로서 장안산, 팔공산, 천황산 일대의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였다. 사단은 제3기 작전 중 공비사살 1,867명, 포로 1,155명의 전과를 달성하였으며, 전사 68명, 부상 96명의 손실을 입었다.[74] 제8사단은 회문산, 신선봉, 백아산, 화학산, 조계산의 5개 지구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서남지구전투사령부는 운장산과 대불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공비를 소탕하였다.

백야사는 1월 31일까지 진행한 제3기 작전에서 공비들의 핵심지도자들을 대부분 사살하거나 포획하였다. 이후 백야사는 서남지구의 병력을 축차로 철수시켜 일선에 투입한다는 미 제8군의 계획에 따라 제8사단과 함께 전선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대기하였다.[75] 이에 따라 향후의 공비소탕작전은 수도사단이 중심이 되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남지구전투사령부 및 경찰부대와 함께 잔비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제4기 서남지구 공비소탕작전은 1952년 2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되었다. 작전이 진행된 지 이틀 후에 백야사가 전선으로 복귀함에 따라 수도사단이 중심이 되어 이 작전을 수행하였다. 작전은 최초 백야사의 계획대로 백아산·모후산·조계산·덕유산·장안산·회문산 등지에서 전개되었으며, 작전이 종료된 시점에는 서남지구에서 활동하던 남부군을 비롯한 공비 주력의 대부분이 섬멸되었다.

<표 4-6> 백야전전투사령부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백야전전투사령관	중장	백선엽(白善燁)	1952. 1. 12. 중장 진급
수도사단	사단장	준장	송요찬(宋堯讚)	
	기갑연대장	대령	이 용(李 龍)	
	제1대대장	소령	이붕직(李鵬稙)	
	제2대대장	소령	박익균(朴翊均)	
	제3대대장	대위	박명경(朴明景)	
	제1연대장	중령	박춘식(朴春植)	
	제1대대장	소령	함용익(咸鎔翼)	
	제2대대장	소령	이종록(李鍾錄)	
	제3대대장	소령	김승길(金承吉)	
	제26연대장	대령	이동화(李東和)	
	제1대대장	소령	차문석(車文錫)	
	제2대대장	소령	박기순(朴基淳)	
	제3대대장	소령	우교붕(禹敎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제8사단	제8사단장	준장	최영희(崔榮喜)	
	제10연대장	대령	정 강(鄭 剛)	
	제1대대장	소령	차만석(車萬石)	
	제2대대장	소령	이기만(李基萬)	
	제3대대장	소령	임병근(林炳根)	
	제16연대장	대령	이존일(李存一)	
	제1대대장	소령	이정호(李定浩)	
	제2대대장	소령	한병갑(韓丙甲)	
	제3대대장	소령	정순기(鄭順基)	
	제21연대장	대령	전부일(全富一)	
	제1대대장	소령	김광철(金光哲)	
	제2대대장	소령	김동회(金同會)	
	제3대대장	소령	박창모(朴彰模)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백야사의 제3기 공비소탕작전(1952. 1. 4~1. 31)

서남지구의 공비들은 백야사가 펼친 대대적인 소탕작전으로 큰 타격을 입자 지리산을 비롯한 산악지역으로의 재잠입을 기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백야사(사령관 백선엽 소장)는 지리산·백운산·덕유산에 전투부대를 동시에 투입하여 공비 잔당을 격멸할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작전지시 제17-3호'를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76]

1. 군은 백야전전투사령부로 하여금 제3기 작전을 실시하려 함.
2. 백야전전투사령부는 제1 및 제2기를 통하여 분산 도망한 공비를 각 지구에서 포착 섬멸하며, 특히 지리산 및 백운산지구에 재입산, 재집결한 적을 완전히 소탕하기 위하여 제3기 작전을 실시하려 한다.

D일 H는 1952년 1월 6일 06:00로 예정하나 후달한다.

전투지경선은 D+3일 24:00부로 발효한다.

가. 수도사단

(1) D일 H시를 기하여 주력을 3분해 현 작전지구로부터 목표를 각각 수색, 해당지구의 적을 포착섬멸하고 D+4일 이내로 H공격을 위한 집결지에 집결완료하라. 집결지는 사단장이 선정해 보고하라.

(2) D+5일 H시를 기하여 목표 H를 공격, 해당지구 내의 적을 포착 섬멸하고 그 후 목표 (1)을 공격, 해당 지구의 적을 포착 섬멸하라.

(3) D+4일 24:00까지 정규부대 이외의 부대로서 저지진지를 점령시키되 주력의 목표 (1) 공격시까지 그 일부 병력으로서 계속 목표 (1)을 수색시켜라.

(4) D+3일 24:00부로 제9경찰연대, 제203경찰연대, 제18경찰대대의 작전지휘권을 서남지구전투사령부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해(該)사령관에 이양하라.

(5) D+3일 24:00부로 제110예비연대(-), 제117예비연대,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의 작전지휘권을 사단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이양받으라.

(6) D일 H시를 기하여 (R), (B), (E)지구에 제18경찰대대 및 제203경찰대대, (D)지구에 제9경비대대를 사용, 수색을 개시하여 D+3일 24:00 서남지구전투사령관에게 책임을 인계할 때까지 해(該)지구내의 적을 포착 섬멸하라.

(7) 항상 보병 2개 대대 이상의 기동예비대를 보유하되, 이의 사용은 사령관의 사전 허가를 득하라.

(8) 지경 내 각 거점을 최소한의 병력으로서 점령 수비하라.

나. 제8사단

(1) 사단지구를 3분하되 이를 또 세분하여 각 대대 책임구역으로 할당하라.

(2) D일에 목표 지구를 점령하라.

(3) D+14일 이내로 책임지구를 완전 수색하여 고립된 소수 집단의 적을 포착 섬멸하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부록 제1에 표시된 각 지구에 중점을 두고 수색하라.

(5) 주력으로 목표지구 (B), (A)를 각각 수색하고 일부 병력으로서 (C)지구를 동시 수색하라.

(6) 항상 보병 2개 대대 이상을 기동예비대로서 사단장이 선정한 장소에 보유하되, 이의 사용은 사령관의 사전 승인을 요한다.

(7) 제1경비대대, 제36경찰대대, 칠보경찰대대는 현 임무를 계속하라.

다. 서남지구전투사령부

(1) D+3일 24:00까지 현 임무를 계속하라.

(2) D+3일 24:00부로 제110예비대대(-), 제117예비대대,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의 작전지휘권을 수도사단장이 선정하는 장소에서 해(該)사단장에게 이양하라.

(3) D+3일 24:00부로 제9경비대대, 제203경찰대대, 제18경찰대대의 작전지휘권을 사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이양받으라.

(4) 지경내의 책임을 인수한 후 (R), (E) 및 (D)지구에 계속 강력한 수색을 실시하여 해(該)지구내의 잔적을 소탕하라.

(5) 지경 내 각 거점을 최소한의 병력으로 점령하라.

라. 각대(各隊)는 훈령 제2 및 제3을 엄수하라.

(1) 각 대대는 특히 적의 화기 획득에 치중할 것이며 은닉한 무기도 적극 발견하라.

(2) 아군의 수색으로 거점을 이탈한 소수의 적에 의한 기습에 항상 유의할 것이며, 특히 문서 연락 중의 기습에 의한 기밀 누설에 주의하라.

(3) 각 대대는 5만분의 1 지도에 의한 각대(各隊) 계획을 1952. 1. 2. 12:00까지 당 사령부에 반드시 도착하도록 제출하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작전계획에 의하면 제3기 작전은 1952년 1월 6일에 시작하기로 계획되었지만, 백야사는 1952년 1월 3일 '작전지시 제18호'를 통해 작전개시일을 1월 4일로 앞당겼다. '작전지시 제18호'에 의하면, 제8사단이 1월 4일 06:00시에 작전을 시작하고 이틀 후에 수도사단과 서남지구전투사령부가 작전을 개시하도록 하였다.[77]

제8사단(사단장 최영희 준장)은 제3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문산에 제10연대(연대장 정강 대령)를, 신선봉에 제16연대(연대장 이존일 대령)를, 백아산에

제21연대(연대장 전부일 대령)를, 화학산에 제107예비연대(연대장 김해일 중령)를, 조계산에 제205경찰연대(연대장 김원용 총경)를 각각 전개시켰다. 사단의 배치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0연대는 순창에 연대 전술지휘소를 두고 회문산 서쪽에 3개 대대를 배치하였다. 제16연대는 장성에 연대 전술지휘소를 두고 신선봉 일대에 3개 대대를 배치하였다. 제21연대는 옥과에 전술지휘소를 두고 백아산 서쪽에 3개 대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제107예비연대는 이양에 전술지휘소를 두고 화학산과 그 동쪽 무명고지에 병력을 배치하였으며, 제205경찰연대는 광천리에 연대 전술지휘소를 두고 조계산 일대에 병력을 배치하였다.[78]

제8사단은 1월 4일 06:00시에 일제히 공격을 감행하여 8일까지 5일 동안에 대대적인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여 공비 사살 71명, 생포 17명, 각종 무기 30정을 노획하는 작전성과를 거두었다.[79] 기간 중 각 연대의 작전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0연대는 제1대대가 용연리 일대에서 작전을 개시해 하성 일대-가마골 북방 일대-하리 동쪽 일대에 대한 수색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제2대대가 용연리 일대에서 작전을 개시해 가운리-국사봉 남쪽 기슭 일대-회문산 북쪽 기슭-용동 일대에 대한 수색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가 회문산 서쪽 금창리에서 신선봉 방면으로 수색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6연대는 제1대대가 사가리에서 국사봉 서남쪽 일대와 가운리-용하리 지역에 대한 수색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제2대대가 신선봉 북쪽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가 백양산과 문수산 일대에서 수색작전을 전개하였다.[80]

제21연대는 백아산에서 작전을 전개하다가 1월 10일 회문산 지구로 복귀하였다. 연대는 1월 10일 12:00시부로 하달된 '작전지시 제20호'에 따라 백아산 지역의 작전임무를 경찰에 인계하고 사단 작전지역으로 이동한 후 서남지구전투사령부로부터 운장산 지구 작전 임무를 인수하였다.[81]

이로써 제8사단은 회문산-신선봉 일대에 3개 연대와 배속부대를 집중투입 할 수 있게 되었다. 제8사단은 1월 말까지 신선봉, 회문산, 백련산, 운장산, 팔공산, 성수산, 장안산 등지에서 공비소탕작전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사단은 공비 사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715명, 포로 1,972명과 각종 화기 노획 625정에 달하는 전과를 올린 반면, 전사 48명과 전상 56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82] 제8사단은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122호'에 따라 전선으로 재배치되자 배속부대를 원대 복귀시키고 부대이동 준비에 착수하였다.[83]

한편 수도사단(사단장 송요찬 준장)과 서남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김용배 준장)는 1월 6일 06:00시를 기해 작전에 돌입하였다. 수도사단은 사단 주력으로 지리산과 백운산을 차례로 포위 공격하는 한편 일부 부대로 하여금 장안산, 팔공산, 천황산 일대에서 출몰하는 공비를 격멸하기 위하여 지리산지구 작전을 전반기로, 백운산지구 작전을 후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수도사단 예하 각 연대의 작전 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기갑연대(연대장 이용대령)는 지리산 동쪽에서, 제1연대(연대장 박춘식 중령)는 지리산 서쪽에서, 제26연대(연대장 이동화 대령)는 지리산 북동쪽에서 각각 포위망을 형성하여 적을 압박해 들어가며, 제207경찰연대(연대장 문학등 총경)는 지리산 북쪽의 청량산, 팔공산, 장안산을 연하는 선에서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제117연대(연대장 노영목 중령)는 광양에서 백운산 지구의 퇴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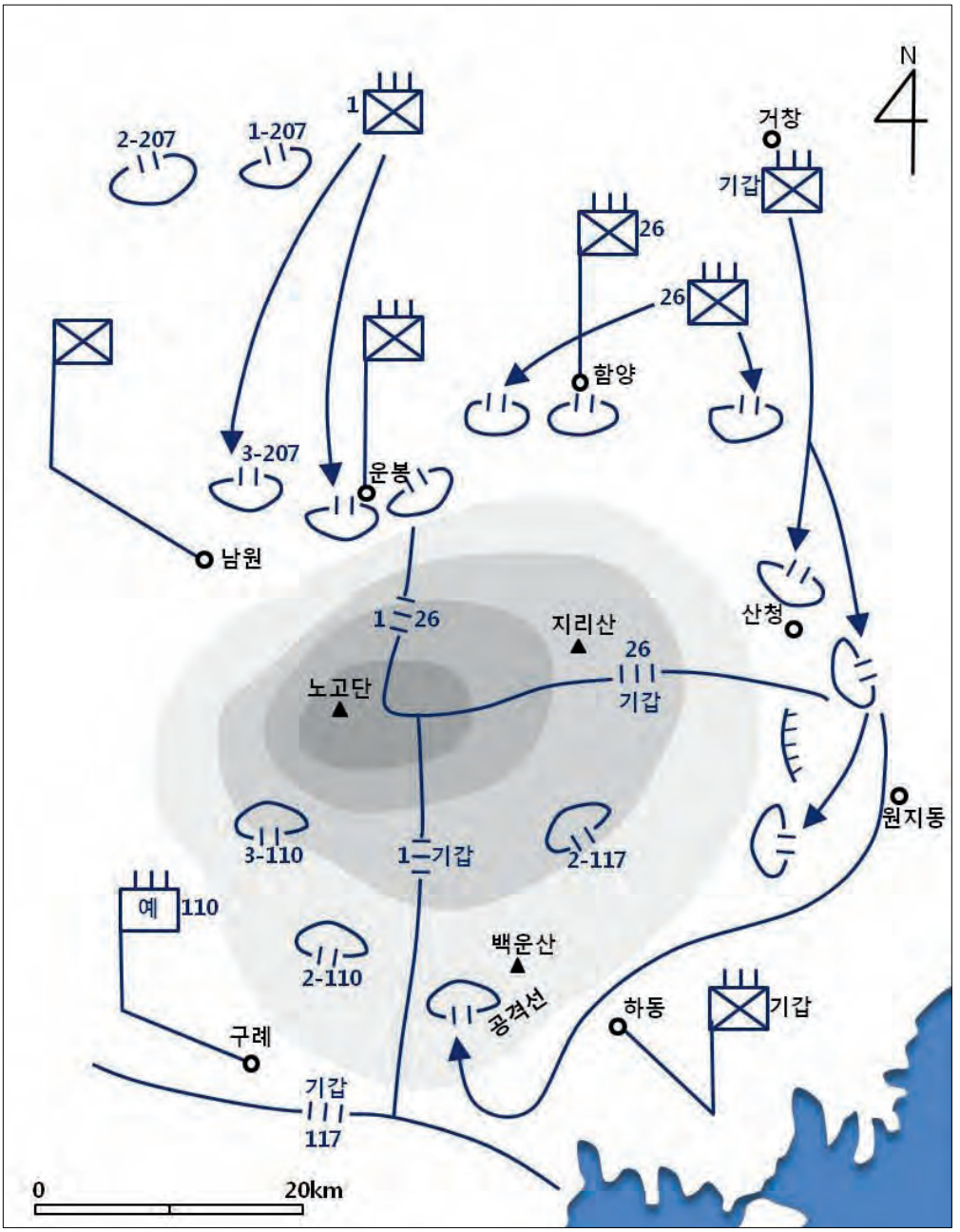
이러한 임무에 따라 수도사단의 각 연대는 1월 5일~6일 기갑연대가 산청을 경우, 지리산 남동쪽의 구곡산으로 이동하였으며, 제1연대가 운봉 남동쪽 5㎞ 지점의 덕두산과 남원 남쪽 2㎞ 지점의 주천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제26연대의 2개 대대가 산청에, 1개 대대가 함양에 각각 집결을 완료하였다.

수도사단은 1월 12일부터 지리산 지구의 공비소탕작전을 개시하였다. 사단은 지리산 중심 지역인 삼정리(천왕봉 북서쪽 7㎞), 천왕봉, 거림, 노고단, 반야봉을 연하는 선 일대를 수색한 후 22일까지 지리산 중심 지역 일대에서 반복수색을 전개하였다.[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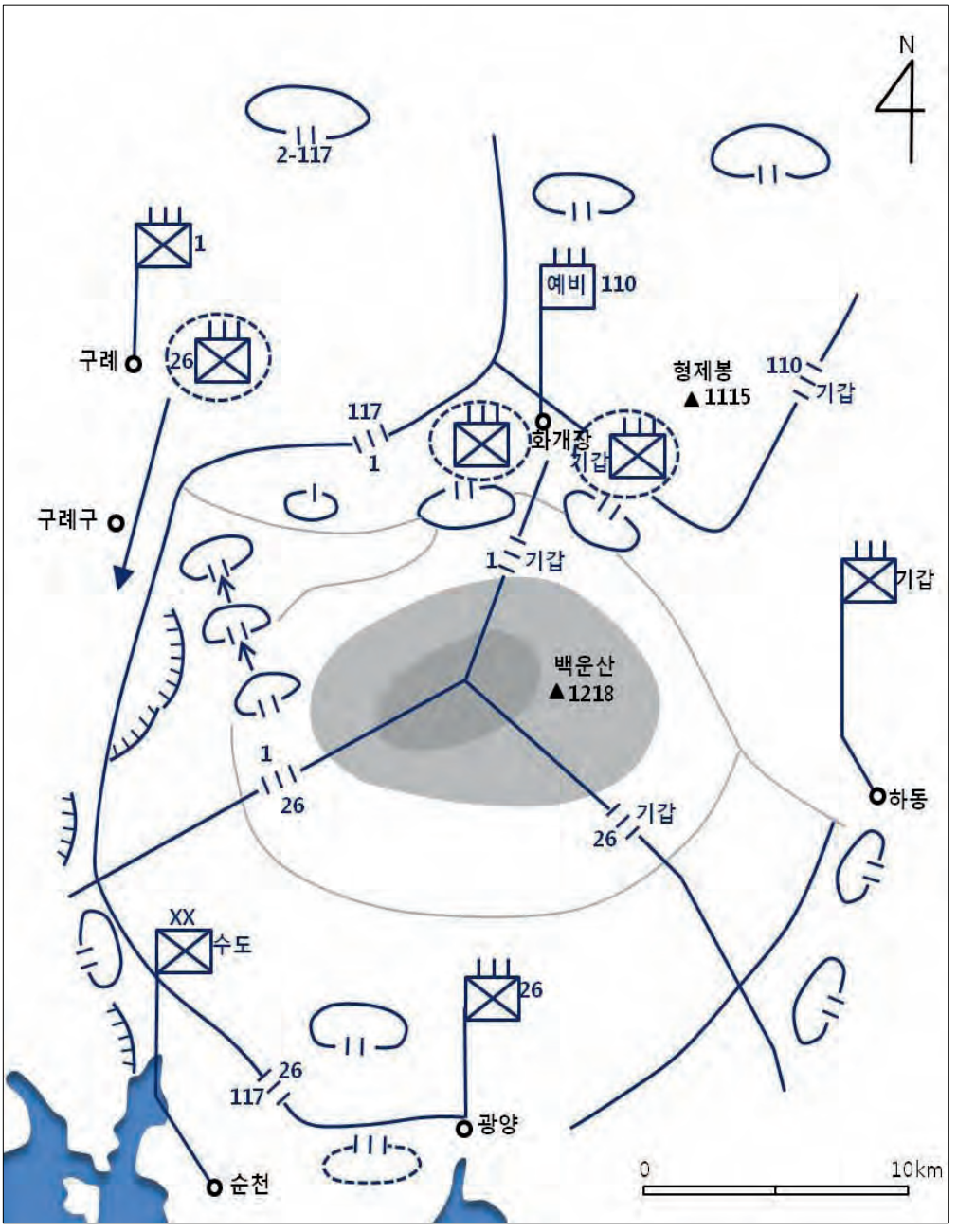
수도사단은 1월 22일 14:00시부로 지리산 지구 공비소탕작전을 종료하였다. 사단이 작전을 종료하였을 때, 이 지역에는 약 300명의 공비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는 못했다.[8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8> 공비토벌 제3기 지리산 지역 작전



<상황도 4-9> 공비토벌 제3기 백운산 지역 작전



지리산 지구 작전을 종료한 수도사단은 1월 24일부터 백운산 지구 작전에 임하였다. 수도사단장은 백운산 지구 작전을 위하여 지휘소를 구례에서 순천으로 옮기고 다음날 기갑연대를 화개장-하동에, 제1연대를 그 북서쪽인 화개장-구례-망릉리(구례 남쪽 10㎞)에, 그리고 제26연대를 광양-대구리(승주군 내면)에 각각 전개시켰다. 이 무렵 백운산에는 약 350여 명의 공비가 집결 중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도사단은 1월 24일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27일 목표 지점에 도달한 후 다음날부터 반복 정밀수색을 전개하여 공비를 소탕하였다. 그 후 사단은 1월 31일 백운산 지역 작전을 종료하고 기갑연대를 하동에, 제1연대를 구례에, 제26연대를 광양에, 제110예비연대를 용강리(화개장 북쪽 5㎞)에, 제205경찰연대를 화개장에 각각 집결시켰다.

제3기 작전기간 중 수도사단의 종합전과는 공비 사살 1,867명, 포로 1,155명과 장비 노획 경기관총 29정, 소화기 66정에 달하였으며, 사단의 피해는 전사 68명, 전상 96명이었다.[87]

서남지구전투사령부는 제3기 작전을 전개하기 위하여 1월 8일 전술지휘소를 장계리(장수군 장계면)에 설치하였다. 같은 날 제9경비대대(대대장 차동준 소령), 제203경찰연대(연대장 조석원 총경), 제18경찰대대가 사령부에 배속되었다. 작전지역 내의 공비는 제2기 작전기간 중 수도사단과 제8사단에 의하여 큰 타격을 입고 운장산과 덕유산 일대로 분산 도주한 충남도당의 제68사단과 전북도당의 장수군당, 진안군당, 무주군당 그리고 거창·김천군당 유격대의 잔여 병력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남지구전투사령부는 1월 12일부터 운장산과 덕유산 일대에 대한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작전은 제9경비대대가 운장산 지구로부터 공비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제203경찰연대가 덕유산을 포위한 후 이를 압축하면서 반복 수색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개되었다.[88] 그리고 1월 15일~17일에는 제8사단 제21연대 제1대대가 서남지구전투사령관의 작전지휘하에 놓이면서 제9경비대대와 제21연대 제1대대가 함께 운장산 지구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후 서남지구전투사령부는 제3기 작전의 잔여기간 동안 운장산에서 덕유산으로 도주하는 공비들을 포착 섬멸하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무렵 제18전투경찰대대는 무주-영동간의 보급로를 경비하면서 공비들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제3기 작전기간 중 서남지구전투사령부는 총 102명의 공비를 사살하고 615명을 생포하였으며, 소화기 16정을 노획하였다.[89]

3. 백야사의 제4기 공비소탕작전(1952. 2. 1~3. 14)[90]

백야사는 1952년 1월 31일부로 제3기 작전을 종료한 후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271호'에 의거 제8사단과 함께 전선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사령관 백선엽 중장[91]은 제4기 작전을 지휘하다가 2월 6일부로 작전지휘권을 수도사단장에게 인계하고 10일 새로운 군단 창설을 위해 남원에서 춘천으로 이동하였다.[92]

수도사단이 중심이 된 제4기 작전은 남아 있는 공비들의 거점을 제거하고 이전에 공비소탕작전이 실시되었던 지역에 대한 재수색작전을 통해 공비들을 일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지리산, 백아산, 조계산, 회문산, 덕유산 일대가 주요 작전지역이었다.

수도사단은 최초 백야사가 계획한 대로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기로 하고, 제1연대와 제26연대를 2월 1일 지리산 지구에서 백아산 지역으로 이동시켰다.[93] 이와 더불어 사단은 2월 3일 사단 전술지휘소를 남원으로 옮겼다. 사단은 4일 06:00시에 제1연대가 조계산 북쪽 지역에서, 제26연대가 조계산 남쪽 지역에서 각각 조계산에 대한 수색작전을 시작했다. 첫날 양개 연대는 남과 북에서 조계산을 포위하여 협공으로 목표를 점령한 후 조계산 일대에서 반복수색을 계속하였다.[94]

제4기 작전기간 중 수도사단 예하 부대들의 주요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월 4일 이후 조계산 일대에서 작전 활동을 수행하던 수도사단 제1연대와 제26연대는 17일을 기해 작전지역을 광주 인근과 회문산 지역으로 변경하였다. 제1연대는 광주 남쪽 산악지역으로 이동하여 제2경비대대와 함께 소규모 게릴라 집단을 찾기 위한 수색정찰을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26연대도 같은 날 회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산 지역으로 이동하여 2월 말까지 수색정찰을 계속하였다. 또한 사단의 작전통제하에 있던 제203경찰연대와 제205경찰연대는 지리산 지역에 남아 계속해서 잔비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수도사단 기갑연대는 2월 1일 지리산 지구에서 운문산 지구로 이동해 육군본부의 직접 통제하에서 독립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연대는 2월 3일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가 공비들의 도주로를 차단한 가운데 지역내의 포위망을 신속히 구축하였다. 8일까지 진행된 작전에서 연대는 항공지원을 받으면서 신속한 기동을 통해 19명의 공비를 사살하고 6명을 포로로 하였으며, 13정의 무기를 노획하였다. 이후 연대는 14일까지 소규모 단위의 정찰활동을 통해 20명의 공비를 사살하고 12명의 포로와 36정의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린 후 2월 15일부로 운문산 지구 작전을 종료하고 원대 복귀하여 호남지구 작전에 참가하였다.

한편 진안에 전술지휘소를 둔 서남지구전투사령부는 제207경찰연대, 제18경찰대대, 제36경찰대대, 제9경비대대가 덕유산 지역에서 수색정찰을 계속하였으며, 새로 창설된 경찰의 '손 부대'(부대장 손계천 총경)가 칠보경찰대대와 계림경찰대대를 지휘하여 전주, 임실, 남원, 담양, 정읍을 연하는 선에서 회문산 지역에 대한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특히 칠보경찰대대는 칠보수력발전소의 경비와 인근 지역의 수색정찰 활동에 집중하였다.[95]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이와 같이 수도사단이 주축이 된 제4기 작전은 3월 14일 종료되었으며, 수도사단은 작전책임지역과 경비부대 및 경찰부대의 작전지휘권을 서남지구전투사령부에 인계한 후 다시 전선으로 복귀하였다.

이로써 1951년 11월 25일 백야사가 전주에 설치된 이래 12월 2일부터 약 3개월 보름가량 4단계에 걸쳐 진행된 백야사의 '쥐잡기작전'은 남부군을 비롯한 공비 주력을 대부분 섬멸하고서 1952년 3월 14일 종료되었다. 백야사가 수행한 '쥐잡기작전'의 전과는 공비 사살 5,009명, 생포 3,968명, 귀순 45명, 각종 무기 노획 682정(문), 은거지 파괴 341개 소 등이었다. 반면에 피해는 전사 33명, 부상 72명이었다.[96]



토벌부대의 출동 모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제1사단의 공비소탕작전(1952. 7. 13~8. 4)

쥐잡기작전의 성공으로 호남지역의 공비들은 대부분 소탕되었으나, 토벌대의 포위망을 탈출한 일부 공비들이 후방지역 곳곳에 분산 은거하였다. 서남지구전투사령부의 계속된 소탕작전에도 불구하고[97], 분산 은거 중이던 소수의 공비들은 다시 행동을 개시하여 재편성을 서두르는 등 병력수습에 동분서주하였다. 특히 이들은 4월 24일 지방의원 선거와 5월 1일 노동절을 전후하여 선거방해와 민심교란을 위한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당시 공비들은 백야사의 토벌작전으로 남부군의 주력이 붕괴되자 남부군 예하

의 핵심부대인 제81사단이 김지회부대로, 제92사단이 박종하부대로 각각 개편하였고, 부대명칭도 독립 제4지대로 변경하였다. 또한 전북도당의 유격대인 제45사단이 항미연대로, 제46사단이 복수연대로 각각 개편되었다.

이들 공비들은 6월 초순에 이르러 산림이 무성해지자 조직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각처에서 차량을 기습하고 군의 보급로를 위협하는 게릴라 활동을 재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리산 지역에 있던 독립 제4지대가 덕유산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더욱이 북한은 대남공작원을 대폭 증가시키는 한편 오대산 남쪽의 가리봉 일대에 '역마통신대(驛馬通信隊)'를 배치하여 전선 후방의 게릴라 활동을 지원하였다. '역마통신대'는 태백산맥을 이용하여 남하 또는 북상하는 공작원의 안내, 연락, 식량조달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98]

서남지구전투사령부의 공비소탕작전이 계속해서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비들의 활동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자, 미 제8군사령부는 미 제1군단 예비로 있던 국군 제1사단(사단장 박임항 준장)을 호남지구 공비토벌작전에 투입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1952년 7월 9일 경기도 전곡에서 전북 남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사단장 박임항 준장은 제11연대(연대장 최주종 대령)와 제12연대(연대장 정영홍 대령)를 지리산, 회문산, 장안산, 덕유산 일대에 전개시키고, 영남지역 작전을 위해 제15연대(연대장 김진위 대령)를 밀양에 전개시키기로 결심하였다. 이러한 사단장의 작전개념에 따라 사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작전명령 제19호'를 하달하였다.[99]

1. 가. 생략
   나. 사단은 7월 10일부로 남부경비사령관 지휘하에 임한다.
   다. 남부경비사령부는 제1기 제1단계 작전을 실시한다(5일간).
   라. 이 작전은 "몬구스"작전이라 칭한다.
   마. D일 H시는 1952. 7. 13. 06:00로 예정한다.
2. 가. 사단 D일 H시를 기하여 주력으로서 목표를 수색하여 공비를 포착 소탕하며 그 물자 및 보급품을 파괴하려 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나. 생략

다. 생략

3. 제11연대

가. 전투지경내, 특히 A, B, C, D, E에 대하여 중점으로 두고 공비를 포착 소탕하며 물자보급품을 파괴하라.

나. 1개 대대의 기동예비대를 보유하라. 예비대 사용은 사령관의 지시가 있어야만 허용된다.

다. 사단 수색중대를 1952. 7. 12부로 제11연대장 지휘하에 임하게 한다. 수색중대는 회문산-지리산 간의 공비 루트를 차단하도록 오수리 부근에 배치한다.

4. 제12연대

가. 전투지경내 특히 H, I, F, E, G, O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공비를 포착 소탕하며 물자보급품을 파괴하라.

나. 1개 대대의 기동예비대를 보유하라. 예비대 사용은 사령관의 지시가 있어야만 허용된다.

다. 칠보경찰대대를 1952. 7. 12 00:01분부로 제12연대장 지휘하에 있게 하라. 이 대대는 계속 현 경비임무를 담당케 하라.

이 작전명령에 따라 제11연대는 7월 13일 회문산 지구에 출몰하는 공비를 소탕하기 위하여 '몽구스작전(Operation Mongoose)'을 개시하였다. 이때 임실 북방 13㎞ 지점의 갈미산에 배치되었던 제1대대는 백련산을 경유하여 회문산 북동쪽으로 진출하였으며, 제2대대는 임실 남쪽의 오암리를 출발하여 회문산 동쪽에서부터 수색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연대 예비인 제3대대는 7월 16일 제1·2대대의 진출선과 보조를 맞추면서 회문산 북쪽으로 진출하였다.

몽구스작전의 주축 부대인 제11연대는 회문산 동쪽의 임실-순창 지역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수색작전을 전개하였다. 17일까지 진행된 회문산 일대의 수색작전에서 연대는 별다른 접적을 갖지 않았다. 이에 사단에서는 7월 18일 17:00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작전명령 제18호'를 하달하여 제11연대를 지리산 지구로 이동시켰다.[100]



토벌부대의 포위망 압축 장면

1. 가. 사단은 1952. 7. 18. 05:00를 기하여 목표(A)작전을 계속하며 주력을 지리산 지구에 이동하여 목표(B)를 수색하여 공비를 포착 섬멸하며 그 물자 및 보급품을 파괴하려 함.

   나. 공격개시 일시는 1952. 7. 19. 05:00.

2. 제11연대(사단수색중대, 공병 1개 중대 배속)

   가. 현 전투지역 내의 공비소탕 임무를 1952. 7. 18. 05:00부로 제12연대장에게 인계하라.

   나. 1952. 7. 18. 05:00까지 임실, 오수리 부근에 집결하여 별지 투명도와 같은, 산청, 망종리, 무등 부근에 1952. 7. 18. 24:00까지 집결하라.

   다. 1952. 7. 18. 05:00를 기하여 목표(B)를 포위 수색하여 적을 소탕하며 적 물자보급품을 파괴하라.

   라. 205경찰연대 제2, 제3대대는 1952. 7. 18. 12:00부로 제11연대장 지휘하에 임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마. 계림경찰대대는 1952. 7. 18. 15:00부로 제11연대장 지휘하에 임한다.

바. 이 작전을 1952. 7. 23까지 완료하라.

사. 칠보경찰대대는 7. 18. 15:00부로 제11연대장으로부터 배속 해제하여 제12연대장 지휘하에 임한다.

3. 제12연대

가. 현 전투지경 내의 공비소탕임무로 1952. 7. 18. 05:00부로 제11연대장으로부터 인수하라.

나. 칠보경찰대대는 7. 18. 0:5:00부로 제12연대장 지휘하에 임한다.

나. 현 작전을 7. 23까지 연기하라.

라. 현 전투지역을 제11연대장으로부터 인수한 후에 작전계획을 신속히 사령부에 보고하라.

이 작전명령에 따라 제11연대는 7월 18일 05:00시부로 회문산 지역 작전을 종료하고 제12연대와 임무를 교대한 후 임실을 거쳐 산청으로 이동하였다. 연대는 이곳에 전술지휘소를 설치하고 제1대대를 산청에, 제2대대를 무등에, 그리고 제3대대를 방종리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때 연대에는 제205경찰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 그리고 계림경찰대대가 배속되었다.

지리산 지구 작전에 임한 제11연대장 최주종 대령은 지리산의 최고봉인 천왕봉을 최종목표로 하여 남·동·북의 3개 방향에서 서서히 포위망을 압축해 작전지역 내의 공비를 격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7월 19일 06:00시에 제2대대가 배속된 제203경찰연대와 더불어 남쪽에서 행동을 개시하였고, 제1대대가 계림경찰대대와 함께 산청 부근에서, 그리고 제3대대가 북쪽에서 각각 천왕봉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연대는 7월 23일까지 지리산 지구 공비토벌 작전을 전개하였지만 20~21일 유평리 일대에서 제3대대가 소규모 교전을 벌인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접적을 갖지 않았다. 연대는 23일 예하 3개 대대와 배속부대들을 최종 목표인 천왕봉과 유평리 일대에 진출시켜 최종적으로 수색을 실시한 후 지리산지구 작전을 종결하였다. 연대는 24일 10:00시부로 제203경찰연대 제2·3대대와 계림경찰대대의 배속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해제하고 지리산지구의 잔여공비 소탕임무를 제203경찰연대에 인계한 후 산청에 병력을 집결시켜 차후작전에 대비하였다.[101]

제11연대는 '사단 작전명령 제82호'에 의거해 7월 25일 경남 산청에서 전북 장안산으로 이동하여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때 제1대대는 평정(장안산 남동쪽 12㎞)에서 장안산 남쪽으로, 제2대대는 은행정(장안산 동쪽 7㎞)에서 백운산을 거쳐 장안산 동쪽으로 그리고 제3대대는 920고지(장안산 남쪽 10㎞)에서 서쪽으로 진출하면서 책임지대를 수색하였다. 27일 제2대대는 포위망을 뚫고 도주하던 수 미상의 공비를 격멸하였으며, 제3대대는 공비들의 은거지 2개소를 파괴하였다. 연대는 접적상황이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이날로 장안산지구 소탕작전을 종결지었다.

7월 27일 장안산지구 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한 제11연대는 다음날 덕유산지구로 이동하여 제203경찰연대 예하 2개 대대와 더불어 공비소탕작전을 개시하였다. 제1대대는 거창 북쪽 2㎞ 지점의 동변리에서 출발하여 위천-북상을 거쳐 덕유산 동쪽으로 진출하였고, 제2대대는 거창 서쪽 5㎞ 지점의 상촌에서 금원산을 거쳐 덕유산 남쪽으로, 그리고 제3대대는 거창 남서쪽 7㎞ 지점의 고산에서 금원산을 경유하여 덕유산 남쪽으로 각각 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대에 배속된 제203경찰연대는 제3대대와 제5대대가 덕유산 동쪽 15㎞ 지점의 구룡동과 골담에서 덕유산 동쪽의 궁항리 일대까지 진출하면서 공비들의 은거지로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하였다.

연대는 덕유산 지역의 작전을 전개하면서 지역수색과 공비소탕에 중점을 두었으나 8월 3일까지 접적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날 00:01분을 기해 작전을 종료하고 무주에 병력을 집결시켰다. 이로써 제11연대의 호남지역 공비소탕작전은 종료되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10> 제1사단 작전 완료 후 국내 공비 현황(1952. 8. 4)



제11연대의 작전 종료는 사실상 제1사단의 호남지역 작전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제11연대가 회문산, 지리산, 장안산, 덕유산 일대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는 동안에, 제12연대가 회문산, 내장산, 장성 일대에서, 그리고 제15연대가 영남지구에서 작전을 전개하였지만 특기할만한 성과는 없었다. 제1사단은 8월 9일부로 제12연대와 제15연대의 작전을 종료시키고, 다음날 무주를 떠나 충북 영동을 경유하여 경기도 연천으로 이동하였다.[102]

이후 호남지역에서는 1952년 가을에서 겨울까지 서남지구경비사령부가 주도한 '블러드하운드 작전(Operation BloodHound)'이 전개되었다. 이 작전은 잔존 공비들에게 끊임없는 압박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작전 결과 1953년 1월에 남한 지역에서의 공비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으며, 더 이상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못하였다.[10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5 절 분석 및 평가

휴전회담의 시작은 전장에서의 전선교착을 의미했다. 전투행위는 계속되었으나, 교착된 전선의 등장은 교전 양측에게 방어진지의 강화와 후방안전을 도모하고, 수색정찰과 고지쟁탈전을 병행하는 전투를 수행하게 하였다. 특히 1951년 11월 27일 비록 일시적이나마 잠정 군사분계선에 대한 문제가 일단락되자, 쌍방은 이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결하면서 수색정찰과 소규모의 국지공격을 통하여 접촉을 유지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쟁의 양상은 쌍방 공히 상대방의 주저항선을 돌파하는 공격보다는 주저항선을 확보 유지하기 위한 방어에 중점을 두면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고자 상대에 대한 정보파악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색정찰과 아울러 전초의 전술적 운용이 지상 작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특히 양측은 수색정찰대 운용을 강화하고 제한된 규모의 공세적인 전투정찰도 실시하였다.

수색정찰은 적의 방어진지나 활동을 탐색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전투정찰은 매복, 습격 등의 활동으로 적 포로를 획득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운용되었다. 교착된 전선에서의 정찰활동은 주로 야간에 전개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각 연대가 매일 밤 적어도 1개조의 정찰대와 2~3개조의 매복조를 투입하는 것이 규칙처럼 되어 있었다. 정찰대는 사전에 야간 매복요령 및 사격기술을 연마하고 실전과 다름없는 예행연습을 실시한 뒤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정찰전의 성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적이 작전기간 동안 가볍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이며 또 아군 병사들도 주기적인 정찰전의 실시로 인하여 다소 타성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부의 정찰대는 적을 포로로 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대부분은 적과 사격전을 전개하여 피해를 주는 정도에 그쳤다. 따라서 국군과 유엔군은 정찰전을 통해 포로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획득과 이를 통한 적정파악이라는 본래의 정찰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정찰전은 교착된 전선 상에서 해이해질 수 있는 장병들을 긴장시키는 한편 귀중한 경험과 훈련의 기회를 갖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쌍방의 전투정찰대의 접전은 때때로 전략·전술적 요충지의 통제권을 다투는 작전으로 변하여 격전을 치르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였다. 1952년 초 서부전선의 두매리 전투와 사천강 전투, 중동부전선의 크리스마스고지 부근 전투와 575고지 및 667고지 전투 등이 대표적이었다. 전투가 확대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지역의 범위는 예외 없이 국부적으로 한정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제 전선의 양상은 장기 교착상태에서 때때로 공격행동을 취할 때는 다만 전초진지 주위의 주요고지를 목표로 쟁탈전이 전개되는 형태가 고착되었다.

1952년 춘계 전초진지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의 서부전선의 형태로 돌아간 듯하였다. 정적인 상황, 철조망 및 복잡한 교통호로 둘러싸인 종심방어, 기관총의 위력, 포병 및 박격포 사격에 중점을 둔 점, 계속적인 정찰 및 기습 등은 모두 제1차 세계대전의 전선 상황과 흡사하였다.

물론 다른 점도 많았다. 예로써 항공기 발달, 독가스 사용의 금지, 디디티 발명으로 전염병이 줄어든 점 등의 차이가 있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쌍방의 군사력이 완전히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진지전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쌍방 모두가 군사적 이유보다는 전쟁을 협상을 통하여 종결지으려는 동기에 의하여 당시에 형성된 전선이상 과감한 진격을 자제함으로써 스스로 진지전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한편, 전투원들에게 진지전은 기동전보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다. 일반적으로 평소에 훈련은 기동전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생소한 진지전에 대하여 적응이 잘 안되었다. 심리적으로도 야전에 움직이는 것보다 진지에 앉아 있을 때 더 불안해지고 더 피로를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진지전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진지 내에 앉아서 총격 내지 포격전만을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틈이 날 때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진지를 강화하고 전방지역에 대하여 수색정찰을 실시하고 적의 심상찮은 움직임에 대하여는 제한적 기동공격 또는 포격을 실시하였다.

유엔군은 진지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병력을 수시로 교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1951년 유엔군은 병사들에게 전방근무 9개월, 후방근무 18개월의 복무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완료되면 다른 병력과 교대하도록 조치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51년 동계 및 1952년 춘계작전 시기의 지상전에는 약간의 기습작전이 전개되었으나, 쌍방이 점령하고 있는 방어진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공산군은 진지에 박혀 있다가 주로 야간에 작전을 전개하는 반면, 유엔군은 주로 주간에 활동하였으며 지상에 대한 압력이 시들어 감에 따라 점차 공중전투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전쟁이 정적인 상황으로 돌입하게 되자 사상자의 수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유엔군사령부가 추정한 적의 사상자는 1951년 10월에 8만 명, 11월에 5만 명, 12월과 1월에 2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그 후로 4월 말까지 매달 1만 1천 내지 1만 3천 명으로 줄었다. 반면 유엔군의 손실도 10월에 2만 명, 11월에 1만 1천 명, 12월과 1월에 각각 3천명으로 감소되었으며 2월부터 4월까지 매월 2천 5백 명선 이하에 머물렀다.

한편 후방지역에서 전개된 백야사와 제1사단의 공비토벌작전은 병참선과 치안확보라는 목적 하에 공비들을 포위 격멸한 기습작전이었다. 1951년 12월 2일부터 1952년 3월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백야사의 '쥐잡기작전'은 공비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호남·지리산지구의 공비들이 더 이상 재기할 수 없게끔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작전이었다. 그리고 제1사단의 '몽구스작전'은 20~30명 단위로 연명을 위해 유격전이라기보다 차라리 약탈전에 가까운 활동을 벌이던 잔여 공비들을 대부분 섬멸하여 치안을 확보한 작전이었다.

백야사와 제1사단의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과의 신뢰를 토대로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사살보다는 생포 또는 귀순 위주의 작전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심리전을 강화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오랫동안 반복된 공비들의 보급투쟁으로 산악지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주민들의 반감이 컸고, 또 많은 주민들이 마을을 떠난 상황을 토벌작전부대가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결국 백야사와 제1사단의 공비토벌작전은 작전의 기간 및 시기, 민군간의 협조체계, 효율적인 심리전 운용, 지휘관의 용맹성과 리더십 등 작전수행에 필요한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안정적인 병참선 확보와 후방지역의 치안확립 등을 가져온 성공적인 작전이었고 할 수 있다.

(집필 : 양영조 · 박동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註)

1) 국방군사연구소,『중공군의 한국전쟁』, 1994, 신오성, 53쪽.
2) U.S. Army, *Korea: 1951-1953*, USGPO, 1956, p.205
3) 육군본부(역),『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28쪽.
4)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7권, 1974, 479쪽.
5)「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27쪽. 중공의 공간사에는 이에 대해 "중대급 이하의 분대 단위가 정찰과 역정찰, 매복과 역 매복, 기습과 강습 등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유엔군의 진영에 소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력부대의 진지공사를 엄호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국방군사연구소(역),「중공군의 한국전쟁」, 65쪽.
6)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New York: Haper & Brothers, 1954), p.96.
7) 육군본부(역),『한국전쟁』제9권, 65쪽.
8) 국방군사연구소(역),『중공군의 한국전쟁』, 64쪽.
9) 육군본부(역),『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31쪽.
10) 안용현,『한국전쟁 비사』제4권, 경인문화사, 1992, 105쪽.
11) 육군본부(역),『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27쪽.
12)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140쪽.
13)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 p.96.
14) 북한 사회과학력사연구소,『조선전사」제27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121~122쪽.
15)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 p.97.
16)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237쪽.
17) 육군사관학교,『한국전쟁사』, 일신사, 1989, 576쪽.
18) 육군본부(역),『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29쪽.
19) 위의 책, 130~131쪽.
20) 육군사관학교,『한국전쟁사』, 576쪽.
21) 위의 책, 577쪽.
22)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7권, 17~18쪽.
23) 위와 같음.
24) 육군본부(역),『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30~131쪽.
25)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8권, 9~11쪽.
26) 위와 같음.
27) 육군본부(역),『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35쪽.
28)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7권, 479쪽.
29) Max Hastings, *The Korean War*(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7), pp.272~273.
30) 전사편찬위원회(역),『中共軍의 韓國戰爭』, 65쪽.
31) 육군본부(역),『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35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2) 미 육군부 전문 제4170호, 육군본부(역), 『한국전쟁』 제9권, 65쪽 재인용.
33) 육군본부(역), 『한국전쟁』 제9권, 65쪽.
34) 육군사관학교, 『한국전쟁사』, 578쪽.
35)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188~192.
36) ibid., p.279.
37) 육군본부(역), 『한국전쟁』 제9권, 65~66쪽.
38)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7권, 588쪽.
39) 제12연대 제2대대 제5중대장 김영준 대위 증언,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7권, 609쪽.
40) 위의 책, 588~595쪽.
41) 「제15연대장 김진위 대령 증언」, 위의 책, 609쪽.
42) 위의 책, 595~608쪽.
43) 위의 책, 608쪽.
44) 「연대 작전주임장교 조성준 대위 증언」,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500쪽.
45) 「제3대대 중화기중대 81mm박격포 사수 진일식 일등수병 증언」, 위의 책, 500쪽.
46) 「연대 작전주임장교 조성준 대위 증언」, 위의 책, 500쪽.
47) 위의 책, 516쪽.
48) 위의 책, 493~499쪽.
49)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요약』, 164쪽.
50) 크리스마스고지 전투라는 명칭은 제2차 1090고지 전투부터 붙여진 명칭이지만, 실제 동일한 지역의 전투이고 양측부대의 전투서열도 같았으므로 모두 묶어 크리스마스고지 전투라고 하였다.
51) 미네소타 선은 내동 남쪽 1㎞에 있는 표고 610m 정도의 무명고지-905-987-1220-1090-938-통선골을 잇는 선이다.
52) 「제3연대 제1중대장 이석철 중위 증언」. 위의 책, 576~577쪽.
53) 위의 책, 561~569쪽.
54) 위의 책, 569~576쪽 ; 육군본부, 『전사연구』 제9집, 37~47쪽.
55)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요약』, 153쪽, 180쪽.
56) 육군본부, 『전사연구』 제9집, 267~277쪽.
57) 「제23연대 수색중대 제1소대장 김치국 소위 증언」,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7권, 586쪽.
58) 위의 책, 585쪽.
59) 위의 책, 578~585쪽.
60)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7권, 623쪽.
61) 국군 해병도서부대, 「작전명령 제1호」(1952. 1. 15).
62) 국군 해병대도서부대, 「작전명령 제4호」(1952. 2. 13).
63)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7권, 624쪽.
64) 「호도전투정찰대장 한영운 증언」, 위의 책, 629~630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5) 위의 책, 629쪽.

66) 위의 책, 134쪽.

67)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5권, 234쪽.

68) 육군본부(역), 『한국전쟁』 제9권, 79쪽.

69)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39쪽.

70) 위의 책, 143쪽.

71)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15

72) 백야전전투사령부는 1951년 11월 25일 창설되었으며 수도사단, 제8사단, 서남지구전투사령부 및 경찰부대를 통합지휘하였다. 백야사는 1951년 12월 2일부터 1952년 3월 14일까지 4단계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제1·2단계 작전은 1951년 12월 2일에 시작되어 1952년 1월 4일에 완료되었다. 이 작전에 관해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 제9권, 2012, 585~595쪽 참조.

73)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1971, 415~417쪽.

7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1997, 272~273쪽.

75)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271호」(1952. 1. 20).

76) 백야전전투사령부, 「작전지시 제17의 3호」(1951. 12. 30. 24:00).

77) 백야전전투사령부, 「작전지시 제18호」(1952. 1. 3. 18:00).

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 1988, 213쪽.

79) 위의 책, 214쪽.

80)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1971, 423~427쪽.

81) 백야전전투사령부, 「작전지시 제20호」(1952. 1. 10. 12:00).

8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 214쪽.

83)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122호」(1952. 1. 25).

8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 209~210쪽.

85) 위의 책, 210쪽.

86) 1952년 1월 22일 현재 전국 각지에 분포한 공비 규모에 대해서는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796쪽 참조.

8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 210~213쪽;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439~440쪽.

8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 214~215쪽.

89) 백야전전투사령부, 「작전지시 제21호」(1952. 1. 10. 12:0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 214~215쪽.

90) 제4기 작전의 시점에 대해서는 2월 1일과 2월 4일의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전자는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보고서에 나타난 일자이며, 후자는 『대비정규전사』에 기록된 일자이다. 이 글에서는 주한미군사고문단의 보고서를 근거로 작전 개시일을 설정하였다(KMAG, "Narrative Summary", *Command Report, February 1952*, p.6, RG 407,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Non Organic Units, USMAG Korea AYUT 8202, Box 578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91) 백선엽 백야사사령관은 1952년 1월 12일부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였다.

92) 백야사는 새로운 군단 창설 임무를 띠고 2월 10~12일 사이에 남원에서 춘천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앞서 제8사단이 2월 5일부로 전선에 복귀함에 따라 쥐잡기작전(Operation RATKILLER)의 제4기 작전은 수도사단이 중심이 되어 서남지구전투사령부와 함께 수행하였다(KMAG, "Narrative Summary", *Command Report, February 1952*, p.11).

93) KMAG, *"Narrative Summary"*, *Command Report, February 1952*, p.12

9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 216쪽.

95) KMAG, *"Narrative Summary"*, *Command Report, February 1952*, p.12

9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 216쪽.

97) 서남지구전투사령부는 1952년 3월 15일부터 호남지역에 은거 중인 잔여 공비들을 토벌하기 위해 '패릿작전(Operation Ferret)'을 실시하였다. 이 작전은 7월 12일까지 계속되었다(Kenneth W. Myers, *U.S. Military Advisor Group to the ROK : KMAG's Wartime Experiences, 11 July 1951 to 27 July 1953*, (Undated), RG 338, Military Historians Files, Boxes 12-13, p.367).

9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 219~220쪽.

99)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501~502쪽.

100) 보병 제1사단, 「작전명령 제80호」(1952. 7. 18. 17:00).

10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222~223쪽.

102) 위의 책, 223~224쪽.

103) Kenneth W. Myers, 앞의 책, 368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5장 포로수용소 사건과 세균전 설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1절	사건 개요
제2절	북한의 공작과 포로 폭동
제3절	거제도 포로수용소장 피랍
제4절	세균전 설전
제5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사건 개요

판문점에서 휴전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1952년도에 접어들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는 유엔군 측에게 대단히 불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전쟁 초기부터 포로수용소에서는 종종 폭동·시위·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큰 문제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공군이 참전한 이후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철수시 유엔군은 포로를 즉각 부산 주변 지역으로 집결시켰다. 포로 숫자는 10만 명을 훨씬 넘겼는데, 이는 안보상의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엔군의 주된 해상보급 및 증원의 주요 항인 부산지역의 군수작전에 방해가 되었다.

유엔군 측은 포로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작전에 부담이 없는 곳으로 재배치할 방안을 연구하여 남해안의 거제도에 격리 수용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거제도에는 1951년 1월에 32개의 막사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달 말에 50,000명의 포로가 육지에서 이송되었다. 32개의 막사는 각각 700~1,200명의 포로를 수용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실제 이 인원의 5배 가량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문제가 일어날 소지는 이러한 과밀한 수용에 있었으며 그밖에 경계병의 부족과 경계 미숙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1951년 가을 무렵에는 북한군 130,000명과 중공군 20,000명 등 총 150,000명의 포로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이때부터 곧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주로 국군 경계병과 포로들과의 알력에서 비롯되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포로가 친공포로와 반공포로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공산군 측에서 친공포로들을 조정하여 폭동을 유발시킨데 있었다.

당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는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들이 포로로 투항하여 수용소에 침투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북한군 특별부대 소속이었는데 그 임무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수용소 내에서 다른 대원을 훈련시키는 것이었고, 둘째는 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문점 공산군측 휴전회담 대표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었다.

이들에 의해 수용소 내 친공포로 조직이 결성되어 그 세력을 넓혀 나가자 반공포로들도 조직을 구성하여 이에 맞섰다. 자연히 이들 간에는 유혈충돌이 발생하였다. 경비병들이 야간에는 수용소 내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충돌하였으며 폭행과 살인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친공포로와 반공포로가 주도권 장악을 위해 세력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포로수용소에서는 공산측으로 송환되기를 원하는 포로와 이를 거부하는 포로의 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포로심사를 시작하였다. 포로심사는 포로의 관리를 위한 조처였으나 친공포로들을 더욱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용소 내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지만, 그 중에서도 1952년 5월 7일에 발생한 포로수용소장 인 돗드(Francis T. Dold) 준장 피랍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판문점 휴전회담장에서 포로처리문제를 두고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시기였으므로 포로수용소장인 미군 장성이 포로에게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일이었다.

제8군사령관은 이 사건에 긴급대처하기 위해 미 제1군단 참모장 콜슨(Charles F. Colson) 준장을 신임 수용소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는 콜슨 준장을 통해 돗드(Francis T. Dodd) 준장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는 요구서를 포로들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사령관은 콜슨 장군에게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무력을 사용해 구출작전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포로대표단은 '포로의 인권과 개인생활 보장', '자원송환 즉각 중지', '강제심사 즉각 중지', '포로대표단 승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개항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그들은 이 요구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회신이 있으면 돗드 장군을 돌려보내겠다고 하였다.

콜슨 장군은 포로대표단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만, 무력진압도 포로들의 탈출 가능성과 민간부락의 소개 문제 등으로 인해 여의치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콜슨 장군은 포로대표단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때 콜슨 장군은 전화상으로 피납된 돗드 장군으로부터 포로들의 요구사항

을 수용할 것을 제안받았다. 콜슨 장군은 돗드 장군의 제안에 동의하고, 친공포로들의 4가지 요구사항 중 '자원송환 요구'를 제외한 3가지 사항을 인정하는 서신을 포로대표단에게 회신하였다.

회신을 받은 친공포로들은 돗드 장군을 석방하였지만, 유엔군사령부 내에서는 사건 수습과 관련해 책임자 추궁이 뒤따랐다. 돗드와 콜슨 장군은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었다.

두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포로수용소장 피랍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다. 공산군 측은 교섭 과정에서 작성된 소위 '콜슨문서'를 가지고 유엔군 측을 공격하였다. 유엔군 측은 그 문서의 효력을 부인했으나, 문서라고 하는 증거자료를 포로수용소장이 작성해 준 것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유엔군 대표의 입장은 대단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 무렵 휴전회담장에서는 포로수용소 사건과 더불어 또 하나의 정치선전용으로 공산군 측은 세균전 문제를 적극 제기하였다.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이 만주와 북한지역에서 세균전을 감행했다고 하면서 유엔군 측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였다.

이러한 선전공세는 이미 1951년 5월 북한외상 박헌영이 "미국인들이 북한지역에 천연두균을 살포하고 있다"고 비난의 포문을 연 데서 비롯되었다.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여론화된 것은 1952년 2월 2일 파리의 유엔총회에서 소련 대사 말리크가 "유엔군 측이 유독성 가스를 살포하였다"고 한 연설에서 시작되었으며, 곧이어 소련의 모스크바 방송이 "유엔군 측이 북한지역에 간첩을 보내어 우물에 독약을 넣고 천연두, 장티푸스균을 살포했다"고 주장하였다.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의 주장이 증거 제시가 없는 사실무근의 주장이라고 부인하였다. 또한 유엔 참전국들도 공산측이 터무니없는 선전을 하고 있다는데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군 측의 계속되는 선전공세로 일부 아시아국가들이 동요하는 기미를 보이자 유엔군 측은 사태수습을 위해 국제적십자사에 진상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의하였다.

공산군 측의 세균전과 관련된 선전은 뚜렷한 상황설명이나 물증이 없어 더 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 지속할 수 없게 되자 잠잠해졌다. 그러나 공산군 측은 포로폭동이 점차 확대되면서부터 세균전을 다시 선전 자료로 활용하였다.

1952년 여름 공산군 측은 세균전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켜 유엔군 측을 궁지에 빠뜨리려 하였다. 심지어 유행성 감기도 유엔군이 살포한 세균 때문이라고 선전하였다. 이러한 공산군 측의 세균전 선전은 1952년 여름이 지나면서 유엔군 측이 공중폭격을 재개하고 아울러 세계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자 유야무야 되었다.

결국 공산군 측의 세균전 주장은 대내적으로 만연되고 있던 전염병을 유엔군 측의 세균전 결과로써 책임을 전가하여 국내 전열을 정비하고 다른 한편 세계여론을 이용하여 당시 진행 중인 휴전협상에서 유엔군 측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날조된 주장은 끝내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2 절 북한의 공작과 포로 폭동

1. 포로수용소 상황

포로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제도 포로수용소 내에서는 친공포로에 의한 의도적인 소요사태와 반공포로, 친공포로 간의 유혈 살상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유엔군이 관리하는 포로는 공식적으로 북한군과 중공군 소속의 군인들이었지만, 여기에는 귀순한 공산군도 포함되어 있었고 남한에서 북한군에 지원했거나 강제로 입대한 '의용군'도 있었다. 심지어 국군 낙오자도 있었고 공산군에 포로가 되어 탈출했거나 실종되었다가 복귀한 국군도 일부 섞여 있었다. 다수의 민간인과 여자도 포함되어 있었다.[1)]

포로수용소에서의 갈등은 1951년 초 포로들이 부산수용소에서 거제도수용소로 이송된 후 수용소 내의 세력변동이 일어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물론 전쟁 초기에도 포로수용소에서는 폭동·시위·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했지만 큰 문제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국제적십자사 대표는 휴전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 포로수용소는 일반적으로 질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2)] 이러한 포로수용소의 질서 유지는 한 반공포로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에 의하면 1951년 초에는 포로들이 수용소 건설에 동원되어 매일 고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충돌할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3)]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부산지역에 수용되었던 포로들을 분산 수용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다. 당시 미 제8군사령관이었던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는 부산지역에 포로의 수가 137,000명에 달하여 안보상의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유엔군의 주된 해상보급 및 증원의 주요 항인 부산지역의 군수작전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였다.[4]

리지웨이 미 제8군사령관은 1951년 1월 6일 맥아더(Douglas MacArthur)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용 중인 포로의 처리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리지웨이는 전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약 14만 명이나 되는 포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그는 적과 싸우는 데도 모자라는 병력을 수용소 경비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과 빈약한 수송수단을 포로들의 의식주용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다.[5]

유엔군사령관은 포로수용소 설치 권한을 제8군사령관에게 위임하였다. 제8군사령부는 포로들을 안전하면서도 작전에 부담이 없는 곳으로 재배치할 방안을 연구한 끝에 남해안의 거제도에 격리 수용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를 비롯하여 미국 영토 내 또는 미국이 관할하는 지역 등이 수용소 부지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결국 거제도가 선정되었다.[6]

제8군사령부는 섬이라는 조건과 본토로부터의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포로수용소 이전 장소로 거제도를 선정하였다. 거제도는 남해안의 진해만 앞에 있는 섬으로 부산으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70㎞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본도(本島)는 면적 389㎢로 한반도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이고 본도를 중심으로 60여 개의 유·무인도가 존재하였다.[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거제도는 포로를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수많은 포로를 수용할 적당한 장소는 못되었다. 당시 거제도는 숙영지의 건설이나 포로의 처리에 적합한 평지가 거의 없으며 발가벗은 암석지대였다. 또한 그곳에는 이미 200,000명 이상의 주민과 피난민이 거주하고 있었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8군사령부는 1951년 1월 거제도 내의 4개 장소를 선정하여 철조망 울타리를 치고 각 구역에는 8개의 단위 수용소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951년 1월 말부터 부산의 각 수용소에 있던 포로들이 거제도로 옮겨졌는데, 2월 말에 53,588명이었던 포로가 3월 말에는 98,799명, 5월 말에는 11만 5,884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리고 부산으로부터 포로 이송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던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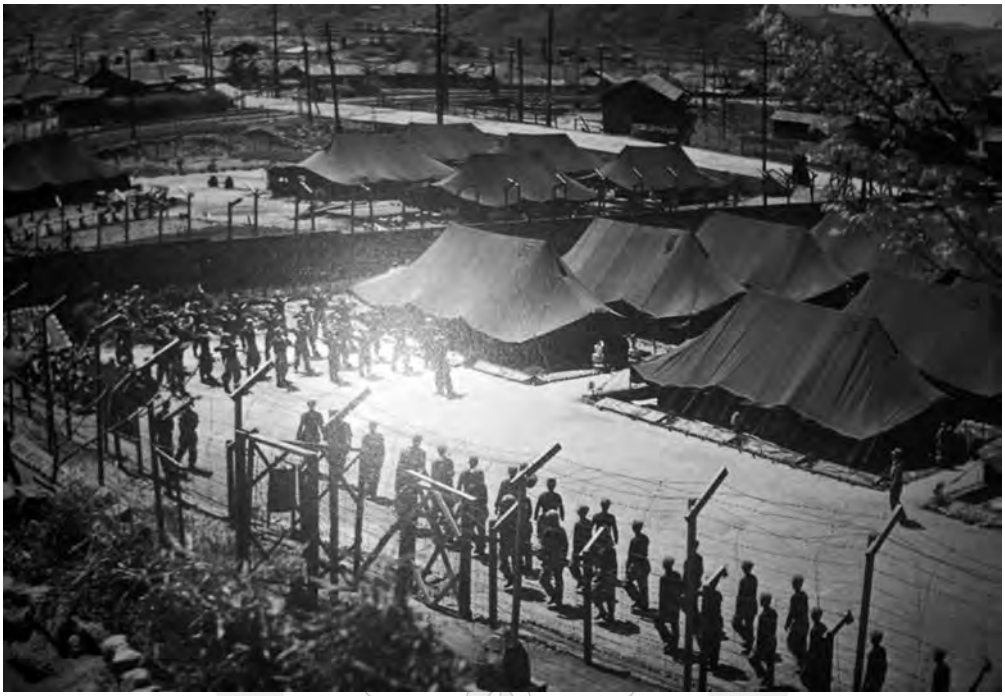
포로수용소가 설치될 거제도

말에는 수용 인원수가 14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고, 그 후에도 새로 들어오는 포로는 모두 거제도로 보내졌다.[9]

원래 거제도 포로수용소에는 5만 명 정도의 포로를 32개 단위 수용소에 각각 700~1,200명씩 수용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능력의 3배 이상을 수용해야만 했다.[10] 예를 들어 제72수용소의 경우에는 8,500명, 제86수용소의 경우에는 8,150명이 수용되기도 하였다.[11]

실제로 문제가 일어날 소지는 이러한 과밀한 수용에 있었으며 그밖에 경계병의 부족과 경계 미숙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단위수용소 사이의 공간까지도 포로 수용에 이용되었고, 1951년 가을 무렵에는 북한군 130,000명과 중공군 20,000명 등 총 150,000명의 포로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포로수용소 내에 포로가 증가하면서 각종 사건들도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주로 국군 경계병과 포로들과의 알력에서 비롯되었으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포로가 친공포로와 반공포로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공산군 측에서 친공포로들을 조종하여 폭동을 유발시킨데 있었다.[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거제도 포로수용소

포로들은 외부 정세의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았다. 유엔군이 전쟁을 이기게 될 것 같았을 때 북한포로들은 순종적이며 협조적이었다가, 중공군이 개입하자 태도를 바꾸었다. 1951년 3월부터 수용소에서 단식과 농성, 작업거부, 선동적인 연설 등 불온한 기운이 나타났다. 미군헌병대에서도 1951년 상반기에 폭동과 도망을 포함한 많은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13)]

중공군의 개입 이후 좌익 포로들이 힘을 얻어 일부 수용소에서는 새로운 좌익 지도자들이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이러한 현상은 부산 포로수용소에서 수용소를 장악했던 남한 출신 포로들이 별도로 수용됨으로써, 북한군 포로들 사이에 힘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이에 더하여 당시 우익 포로 지도자들은 교육적 배경도 열악해서 반공주의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려 했고, 그들의 권한을 남용하여 포로들 사이에 신임을 잃어버린 점도 있었다. 반공지도자들은 공동의 신조를 지닌 것도 아니고 별도의 훈련을 받았던 것이 아니어서 공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의에 대해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정리할 형편이 못되었다. 이에 비해 좌익지도자들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훈련을 받아 왔기 때문에 포로에 대한 장악력이 더 뛰어났다.[14]

한편 거제도 포로수용소에는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들이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포로로 투항하여 침투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북한군 정치보위부 소속이었는데 그 임무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수용소로 들어간 다음 특별 지시를 수행할 대원을 훈련시키는 것이었고, 둘째는 판문점 공산군측 휴전회담 대표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었다.[15] 그밖에도 이들은 피난민으로 가장하여 거제도로 잠입하여 포로지도자들과 접촉을 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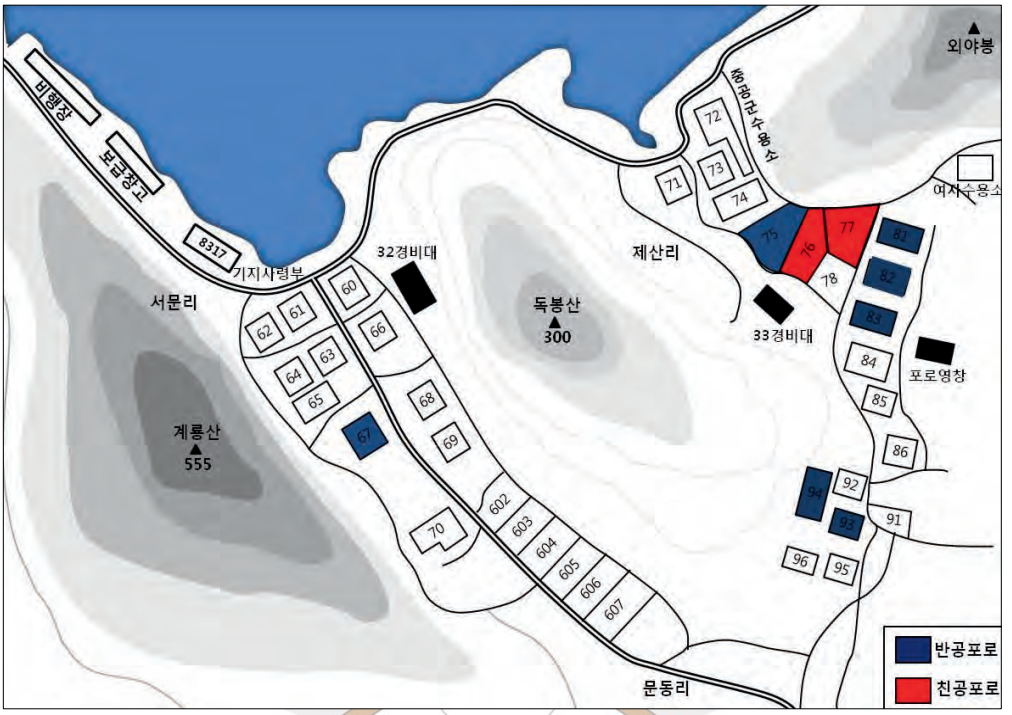
이들이 침투하자 친공포로 조직이 결성되기 시작하고 포로수용소 내의 병원은 첩보를 교환하는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친공포로의 본거지로 활용되었다. 북에서 파견된 공작원들은 포로수용소 내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철두철미하게 배후에서만 활동함으로써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다.[16]

친공포로들은 공식적인 조직 외에 비밀단체를 결성하여 다른 포로를 통제하였다. 그들은 1951년 4월 제77수용소에 '해방동맹'을 결성했고, 5월에는 제92수용소에 북조선노동당 거제지부를 조직했다. 제62수용소에서도 이 무렵 노동당 세포조직이 결성되었고, 병원에도 '호스피털라인(병원선)'이 생겼다. 이후 이들 조직들은 '백두산사단'으로 통합되었다.[1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당시 포소수용소 북조선노동당 거제지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을 하기도 했다. ① 우리는 재생한 당원이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고 당을 위해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겠다. ② 우리는 재생한 당원으로 당에 충성하고 모든 포로들을 교도하기 위한 당 선언을 이행하겠다. ③ 우리는 정강을 실천하고 모든 포로와 피난민 그리고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우리의 정강을 옳게 인식시키겠다. ④ 우리는 국제 공산주의를 조장하고 중공군과 친교를 도모하여 유엔군 장병들에게 계급의식을 고취시키겠다.[18]

<상황도 5-1> 거제도 포로수용소 배치도



친공포로의 최고 지휘자는 북한 장교수용소 제66수용소에 수용된 이학구 총좌였다. 이학구는 북한군 제13사단 참모장으로 1950년 9월 21일 낙동강 전선에서 미 제1기병사단 제8기병연대에 투항한 인물이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는 북한으로부터 밀명을 받고 일부러 포로가 되어 수용소 내 포로들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다고 한다. 당시 유엔군은 수용소를 여단 단위로 분류하고 1개 수용소에 5천 명에서 1만 명까지 수용하여 대대·중대·소대·분대로 편제하였다. 여단장 밑에는 부여단장과 비서가 있었고 대대에는 일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서기장이 있었으며, 이밖에 수용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포로경찰인 감찰대가 편성되어 있었다. 당시 이학구는 이름뿐인 포로 지휘관의 뒤에 숨어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포로들을 조종하였다.[19]

이학구 이외에도 포로수용소 내에는 북한군 총좌인 박상현이 배후에서 각종 사

건을 주도했다. 정문일로도 알려진 박상현은 1945년 9월 김일성과 함께 북한에 들어온 소련파로서 제77수용소에서 사병으로 위장하고 있으면서 각종 사건을 주도했다. 이외에도 남로당 출신의 홍철도 핵심인물로 활동했다. 이들은 비밀단체를 통해 지하신문을 만들고 정치학습을 전개하여 수용소 내의 포로에 대한 통제와 수용소 외부와의 연락을 취했으며, 때로는 수용소 당국에 도전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20]

친공포로들이 포로수용소 내에서 조직을 강화하여 세력을 넓혀 나가자 반공포로들도 이에 맞섰다. 자연히 친공포로와 반공포로 간에는 유혈충돌이 발생하였다. 1951년 5월 중순에 이르면 북한 출신 포로들이 수용된 곳은 좌익포로들이 장악하고, 남한 출신 포로들은 반공계가 장악했다. 이 시기에 좌우익 포로들은 각각 자신들의 비밀단체를 통해 다른 포로를 통제하고, 주도권 장악을 위한 조직 확대를 계속해서 시도하였다.[21] 친공포로와 반공포로의 충돌은 경비병들이 수용소 내에 들어가지 않는 야간에 주로 이루어졌다.[22]

2. 포로의 송환 협상과 갈등 격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군의 제5, 6차 공세가 국군과 유엔군의 적극적인 반격으로 저지된 뒤, 1951년 중반 전쟁은 어느 일방도 결정적인 승세를 확보하지 못한 채 교착되면서 휴전협상 국면으로 전환했다. 이제 미국은 무력으로 통일한국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최소한 38도선 이남의 남한을 보호하려는 선에서 전쟁을 마무리하려 했다. 공산군 측도 전쟁 전 상태를 회복하였으므로 대화와 전쟁을 병행하면서 휴전을 모색하려 했다. 1951년 5월 초 말리크(Yakov A. Malik) 유엔주재 소련대사는 미국 측과 접촉하여 평화회담의 희망을 흘렸고, 미국이 이를 수용하여 휴전협상이 시작되었다.

미국 정책 당국자나 공산군 측도 휴전협상에서 포로문제가 큰 이슈가 될 것으

로는 예상하지 못했다. 미 합동참모본부에서는 휴전협상의 지연이 공산군 측에게 유리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협정을 타결짓고자 했으며, 애치슨(Dean G. Acheson) 미 국무장관도 포로문제로 휴전협상이 지연되자 이를 전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장애라고 말했다. 마오쩌둥(毛澤東)은 1951년 11월 중순까지 포로문제에 대한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했다.[23] 이 문제는 가장 어렵고 오랜 논쟁을 거친 의제로 1951년 12월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거의 20개월이 소요되었다.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포로수용소 당국은 포로들 가운데 이질적인 요소가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송환협상이 논의되기 전까지는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들에게 자치를 허용하면서 그들에 대한 통제를 거의 하지 않는 정책을 취했다. 이는 휴전협상을 전후하여 수용소에서 좌우익의 포로들이 투쟁을 점차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수용소 당국은 1951년 3월 초 포로들 사이에서 유엔군 포로와 공산포로와의 교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음을 파악했다. 그것은 북한이 미군 1명당 북한군 1명을, 유엔군이 미군 1명당 북한군 4명을 교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5월 초에는 중공군 포로들이 유엔군 포로와 교환될 것이고,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은 잔류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러한 정보는 포로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미 1951년 7월 중에 포로로부터 휴전협상이 38선 회복으로 그치는 것에 반대하는 22통의 항의 청원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다.[24]

휴전협상이 진행되면서 포로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며 이념대립을 더욱 날카롭게 보였다. 이 시기 거제도 수용소에서 좌익분자들이 투쟁행위를 표면화한 것은 1951년 여름 '하복사건' 직후쯤이었다. 당시 제2군수사령부는 포로의 여름 제복으로 붉은 색상의 길이가 짧은 상하의 한 벌씩을 지급했다. 중공군 포로들은 아무런 반발 없이 받아들였지만 북한군 포로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붉은 옷 지급을 유엔군 측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빨갱이', '전쟁범죄자'로 몰아 넣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북한군 포로들은 철조망 너머의 경비병에게 붉은 옷 뭉치를 집어 던졌다. 한 막사에서는 옷 뭉치를 쌓아 두는 소란이 벌어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던 와중에 한국군 헌병 한 명이 그 밑에 깔리는 일이 생겼다. 그렇지 않아도 포로들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병사들이 포로들로부터 이러한 위협과 모욕을 받게 되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위협사격을 가했던 것이 결국 3명의 포로가 사망하는 사건이 되었다.[25] 이 사건은 당시 우익포로들도 "구한말 죄수들에게 푸른 옷을 입혔으나 일제시대에 들어 죄수들에게 붉은 옷을 입혔다"는 이유를 들어 함께 반대함에 따라 결국 유엔군사령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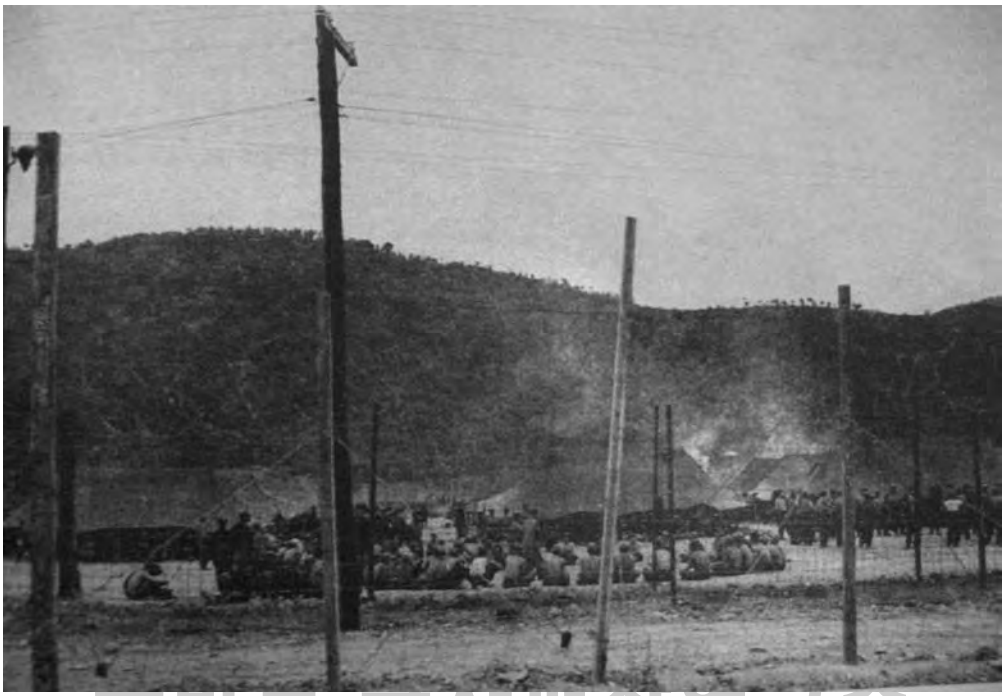
그 후에도 수용소에서는 포로들이 탈영을 시도하다가 죽거나 다쳤다. 제62수용소에서는 1951년 7월 19일 공산포로들이 반공포로 10여 명을 공격하여 2명을 살해하고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9월 중순에는 더 많은 포로들이 희생되었다. 반공포로들은 9월 16일~21일 사이에 좌익포로들이 제76~78수용소에서 우익포로 300~5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26] 유엔군보고서에 의하면 반공포로들의 주장처럼 포로의 희생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수용소 당국은 1951년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제78호와 제85호에서 수용소를 장악하기 위해 좌우익포로들이 폭력을 행사하여 20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했고, 9월 중 좌익포로들이 인민재판 등을 통해 반공포로를 살해한 수가 총 115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27]

상황이 악화되자 미 제8군사령부는 수용소 소장의 교체, 미군과 한국군의 재편과 증강, 범죄수사대의 배치, 포로 지도자의 파악과 분리, 포로살해와 공격사건 50건에 대한 조사 등의 조치를 취했다. 포로들 사이에 연락처가 되었던 부산 병원 수용소에서 환자와 부상자를 제외하고, 상당수의 포로가 거제도로 이송되었다. 또한 포로들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이나 인민재판 금지 등과 함께 경비병의 수용소 점검 및 순찰 강화, 수용소 당국의 활동을 방해하는 포로단체의 결성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등을 지시했다.[28]

그러나 친공포로와 반공포로의 투쟁은 계속해서 가열되기만 하였다. 어느 한편이 상대에게 전면 항복하지 않는 한 구역 내의 패권 싸움, 예를 들면 구타, 사형(私刑), 인민재판과 이것들을 제지하거나 보복하려고 하는 폭력행위 등은 중지될 수 없었다. 급기야 12월 18일에는 투석전이 일어났고 이어서 폭동으로 발전하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망자 14명, 부상자 다수가 발생하는 사태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흥분된 수용소 내의 분위기는 민간인 억류자의 심사문제가 대두되면서 더욱 고조되기 시작했다.[29]



포로수용소 내 친공포로들의 집회 모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포로수용소에서는 반공포로들과 친공포로들이 파벌을 조성하여 수용소 내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세력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이들을 상호 격리 수용하는 한편 송환희망포로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포로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민간인억류자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민간인억류자들은 남한 출신으로 북한군에 강제로 편입되거나 자원입대한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미 제8군사령부는 1951년 11월~12월 2달간 3만 7천 명의 포로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1952년 1월 재조사에 착수하여 2월까지, 조사를 격렬하게 거부한 제62수용소 포로 5,600명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민간인억류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30]

심사과정에서 친공포로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제62수용소에서는 조사단이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수용소 당국과 포로들간에 충돌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제62수용소는 남한 출신 의용군들이 수용된 곳으로 한때 남한계 수용소로 인식되었지만, 자원입대한 친공계가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과격해졌다.

소위 '2·18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제62수용소에서 공산계의 장악으로 수용소의 행정이 거부되고, 아직 남아 있는 우익계열이 계속해서 구타 혹은 살해되는 일이 일어나자 이들을 친공포로로부터 분리시킬 목적으로 재심사를 강행하면서 일어났다.

수용소 당국은 억류자들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사전 예고 없이 1952년 2월 18일 새벽 5시에 면접을 위한 행정 요원과 지원 병력으로 제27연대 제3대대 장교와 사병 850명을 착검 상태로 정문에 배치시켰다. 이때 수용소에는 쌀 포대로 만든 인공기가 나부끼고 있었다. 4개 중대 병력이 수용소의 4곳에 배치되었다. 이곳에 수용된 민간인억류자 5,600명 가운데 1,500명이 진압병력과 대치 중 돌·곤봉·칼·도끼·천막봉·철조롱 등을 던지면서 계속 다가오자 경비대에서 발포를 했다. 05:55분 포로들이 돌과 몽둥이로 대항하자, 경비대 병력이 물러났다가 06:15분 경 그들의 대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발포하여 폭동을 진압했다.[31]

폭동은 1시간 30분 만에 진압되었으나 그 결과는 미군 1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포로 측에서는 55명이 즉사하고 159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포로 부상자 중 후에 22명이 더 사망했다.[32]

이 사건을 두고서 2월 23일 판문점 공산군측 대표단은 '수많은 우리의 인원을 야만적으로 학살한 유혈사건'이라며 항의를 하였다. 분명 이 사건은 유엔군측 대표단에 불리하게 작용되었다.[33] 유엔군 측은 민간인 억류자 심사가 한국의 내정문제이며 휴전회담의 범위 밖이라고 하여 곤경을 모면했다. 그러나 유엔군사령관이 수용소장을 경질하고,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에게 "자체 계획에 의하여 포로를 철저히 통제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던 사실을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대단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3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는 수용소 내 규율을 확립하기 위하여 2월 20일 돗드(Francis T. Dodd) 준장을 신임 수용소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폭동과 사건은 계속되었다. 3월 13일에도 포로막사 옆으로 지나가던 포로 및 경비대 행렬에 막사 내의 포로들이 무차별 투석을 가한 것이 계기가 되어 발생한 충돌에서 포로 즉사 10명, 치명상 2명, 부상으로 후송 26명이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크고 작은 사건이 2월과 3월에 각각 20건과 25건이 발생했다.[35]

이러한 폭동은 북한군과 중공군에 대한 포로 심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격렬해졌다. 1952년 4월 4일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은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의 송환여부에 대한 심사와 분리·분산 계획을 승인했다. 계획은 먼저 포로 전체를 친공포로와 반공포로로 분리하고, 마지막으로 관리하기에 용이하도록 수용소의 크기를 세분화하는 일련의 작업이었다.

밴플리트 미 제8군사령관은 4월 8일 포로 심사를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분리(scatter) 작전'이 실시되었다. 이 작전은 포로 집단을 휴전 성립시에 북한 또는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송환희망 포로와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송환거부 포로로 나눔으로써 서로 성격이 상이한 두 부류의 포로를 가시화하려는 것이었다. 이 일의 성공 여부는 모든 포로들을 대상으로 송환희망과 송환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심사를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느냐에 있었다.[36]

북한군과 중공군에 대한 포로 심사는 시작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친공포로들은 심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격렬하게 저항했다. 4월 10일에는 한국군과 미군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제95수용소에서 포로 1명이 경비병에게 돌을 던진 것에서 비롯되었다. 제95수용소는 사병 출신 친공포로가 수용된 곳으로, 1951년 9월 이래로 선동·구타 등이 있었지만, 전체 포로가 공개적으로 도전한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1952년 4월 10일 18:30분 경 포로들이 경비병에게 돌을 던지자, 국군 경비병이 발포하여 한 포로가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 미군 대위와 사병 2명이 비무장한 채로 부상포로를 인계받으려 했지만, 표로들은 이를 거부했다. 부상포로의 인계를 계속해서 거부하자, 직접 현장까지 나온 돗드 소장은 비무장 한국군 경비병 100명을 수용소 안으로 진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경비병 1명이 포로들에게 납치되어 끌려가자 외곽 경비병이 총기를 발사했다. 이에 맞서 포로들이 열린 문으로 달려 나오자 미군 장교의 명령을 받은 미군 2명이 지프에 장착된 30구경 기관총을 발사하여 포로들의 돌진을 저지시켰다. 사건 후 미군 측이 밝힌 사상자는 한국군 4명이 죽고 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미군 장교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그리고 포로들은 3명이 죽고, 57명이 부상을 당했다.[37]

친공포로들은 친공적인 수용소에 대한 포로 심사를 끝까지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외의 수용소에서는 비교적 쉽게 포로 심사가 마무리되었다. 이 심사에는 118,158명의 포로들이 참여했다. 그 결과 본인의 의사를 표명한 전체 인원 중에서 30.55%에 해당하는 36,103명이 본국으로 송환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69.45%에 해당하는 82,056명은 송환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38]

포로 심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수용소 당국은 '분산(Spread out) 작전'을 1952년 4월 19일부터 시작하였다. 이 작전은 송환 여부를 묻는 심사, 즉 분리작전에서 귀환을 강력하게 거부한 일명 '반공포로'를 다른 수용소에 분산시키는 일이었다. 5월 1일까지 진행된 이 작전에서 거제도에 있던 약 82,000명의 송환거부 포로 및 민간인억류자들이 새롭게 육지에 세워진 수용소와 제주도로 이송되었다. 즉 송환거부 북한 출신 포로는 부산, 광주, 논산에 세워진 제11, 15, 16수용소에, 그리고 남한 출신 포로는 마산의 제12수용소에, 남한 민간인억류자는 영천의 제14수용소에, 그리고 송환거부 중공군 포로들은 제주도 모슬포의 제13수용소에 각각 수용되었다.[3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는 약 7만 명의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포로와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만이 남겨졌다. 분산작전이 종료되기 이틀 전인 4월 29일 미 제8군 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친공적인 수용소에 대한 심사가 폭동의 발발과 많은 희생자의 발생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포로 심사의 중단을 유엔군사령관에게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물론 워싱턴 당국도 이를 승인했다. 리지웨이 장군은 추가적인 폭동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포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통제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40]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된 약 7만 명에 대한 '분산(Break up) 작전'이 5월부



포로들의 폭동에 불타는 수용소

터 시작되었다. 이 작전의 골격은 7만 명의 포로를 3등분하여 거제도, 제주도와 육지에 분산 수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거제도와 제주도의 여러 곳에 몇 개의 새로운 보조 수용소를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기존 수용소 내의 수용동에는 5,000~6,000명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관리·통제가 대단히 어려웠다. 수용소 관리 당국의 힘으로는 인원 파악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수용소 안에 들어가기도 어려웠다. 소위 포로자치제라는 명분하에 수용소 울타리 안은 포로의 천국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관리하기 용이한 단위로 나누는 것이 이 작전의 목적이었다.[41] 이 작전 실시되던 중에 포로수용소장이 친공포로들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절 거제도 포로수용소장 피랍

1. 사건의 발생 배경과 과정

유엔군 측의 포로 심사에 맞선 공산포로의 저항으로 1952년 5월 7일 거제도 포로수용소장 돗드 준장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월 10일 포로들로부터 풀려날 때까지 돗드 준장은 78시간이 넘도록 감금당했다. 수용소장이 '포로의 포로'가 된 이 사건은 수용소장이 포로에게 납치되었다는 상징성과 함께 신임 수용소장 콜슨(Charles F. Colson)이 돗드 석방을 위해 작성한 각서 내용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돗드 장군이 포로에게 납치된 날은 5월 7일이었다. 이날은 트루만(Harry S. Truman) 대통령이 강제송환원칙에 관해 '도덕적이고 인도적 원리'를 위해 싸우는 유엔군의 목표와 배치된다고 주장한 날이기도 했다. 유엔군 측은 포로들이 공산군 측으로 강제 송환되면 자살을 강행할 것이라고 알리면서 자원송환원칙을 휴전협상에서 관철시키려 했다. 그러나 공산군 측은 포로들로 하여금 수용소장을 납치해서 포로 심사와 송환거부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했다.[42]

포로들이 수용소장을 납치하기로 계획한 것은 4월부터였다. 북한군 총좌 출신으로 포로대표 역할을 한 박상현은 후일 증언에서 1952년 4월에 남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령을 받았다고 했다. 그 내용은 "수용소 당국이 포로 심사를 하려는 어떠한 기도나, 수용소 내에서 반공포로를 분리시키려는 기도를 죽음으로써 저지하라. 또한 유엔군 당국으로부터 포로 심사 계획을 중단케 하는 보장을 얻기 위한 흥정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미군 장교 중에서 가능하면 고위 장교를 납치하라"는 것이었다.[43] 당시 수용소의 친공포로들은 외부와 연락이 가능했고, 휴전협상 대표였던 공산군 측 대표 남일의 지령도 수령할 수 있었다.[44] 제76수용소 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밀 지하실에는 라디오가 숨겨져 있어서 휴전협상과 북한, 북경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었다.[45]

박상현은 이와 같은 지령을 실행에 옮길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는 1개 사단 병력에 해당하는 포로들을 동원할 수 있었는데, 이들을 이용하여 실력으로 미군들을 공격해서 고급 장교를 납치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특히 수용소장을 표적으로 하여 수용소의 제반 사정과 돗드 준장의 습성을 충분히 연구하고 있었다.[46]

5월 6일 제76포로수용소의 포로 대변인은 경비병에 의한 폭행과 수용소 내의 금품수색을 구실로 헌병대장과의 면회를 요청하였다. 헌병대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조사를 확약받자 포로 대변인은 다시 포로수용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는 "만일 수용소장이 면회를 허락한다면 포로 명부 작성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돗드 준장은 포로명단 작성을 위해 면담에 응하기로 하였다. 돗드 장군의 보좌관들은 포로들이 과격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면회를 거절하라고 종용했다. 그러나 그는 이 수용소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아보겠다면서 오후 2시 부관인 레이븐 중령만 데리고 그곳으로 갔다.

돗드 준장은 포로수용소장으로 부임한 이후 수용소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했으며, 비무장 상태로 비상구에 나타나서 포로 지휘자들과 대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포로들을 가깝게 만남으로써 실정을 파악하고 친근감을 갖게 하려고 애썼던 것이다.[47]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그는 제76수용소나 제77수용소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수용소장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포로들의 불만을 직접 듣기 위해 대표와 면담을 하곤 했다. 또 1952년 4월 1일경 제78수용소에서 경비대 부사관 4명이 포로들에 붙잡혔을 때 그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포로들과 직접 대화한 적도 있었다.[48] 포로들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서 계획을 짰던 것이다.

돗드 준장은 평소와 같이 잠겨 있지 않은 수용소의 비상문으로 가서 포로 지휘자와 면담했다. 많은 포로들이 비상구로 몰려 이야기를 들으려 했기 때문에 돗드 준장이 철조망에 접근하자 포로 작업조가 문을 반쯤 연 채로 지나가고, 그 문을 통해 몰려든 포로들이 순식간에 그를 수용소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버렸다. 이때 부관 레이븐 중령은 용케 피납을 면했다. 이렇게 해서 포로수용소장이 포로에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돗드(왼쪽) 준장이 포로수용에서 압수한 철조망을 들고 폭동에 사용된 나무막대를 살펴보고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포로가 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49]

돗드 준장의 납치를 주도한 이는 공산포로들 사이에서 '제갈공명'으로 일컬어지는 박상현이었으며, 주택운, 오병결, 오성권, 김창모 등 20여 명이 행동대원이었다. 당시 제76수용소에는 6,418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돗드 소장의 피랍시 총기를 발사하지 못한 요인 중의 하나는 그의 신변안전 문제도 있었지만 포로가 도주를 시도할 경우를 제외하고 총기발사를 금지했던 당시 규정 때문이기도 했다.[50]

포로들은 돗드 소장을 납치하자 즉시, "우리는 돗드를 납치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전문을 판초우의에 써서 내걸었다. 또한 그들은 요구사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수용소 측의 허락을 받아 포로수용소 내의 모든 포로지도자들을 제76수용소 막사로 모이게 하였다. 포로들의 최초 요구는

각 수용소 간에 전화 시설을 갖추고 포로조직을 인정하라는 등 7개 항이었다.[51]

포로수용소장의 피랍사실은 즉시 제8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에게 보고되었다. 이 사실은 제8군사령관을 비롯해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과 그 후임인 클라크 장군을 놀라게 하고 워싱턴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제8군사령관은 이 사건에 긴급대처하기 위해 미 제1군단 참모장 콜슨(Charles F. Colson) 준장을 신임 수용소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와 아울러 그는 콜슨 준장을 통해 돗드 준장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는 요구서를 포로들에게 전달하였다.[52]

밴플리트 제8군사령관은 제64전차대대 B중대를 거제도로 급파했다. 신임 수용소장 콜슨 준장은 포로들에게 돗드를 10일까지 석방하지 않으면 무력진압을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실제로 콜슨 준장은 5월 10일을 목표로 제76수용소를 무력진압할 계획을 세웠다.[53]

그러나 포로들은 이에 대해 강경히 맞서면서 버티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요구 조건을 내세웠다.

① 포로수용소측은 야만적인 행동, 소총·기관총·유독성가스·세균무기 사용 및 원자탄 실험을 중지하라. 그리고 국제법에 명시된 포로의 인권과 개인생활을 보장하라.
② 불법적이고 부당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자원송환을 즉각 중지하라.
③ 수천 명의 인민군과 중공군 포로를 영구히 그리고 불법적으로 재무장시켜 노예로 만드는 강제 조사를 즉각 중지하라.
④ 인민군과 중공군 포로로 구성된 포로대표단을 승인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라. 동 포로대표단은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회신을 접수하면 돗드 장군을 돌려보내겠다.[54]

미 제8군사령관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두 차례나 거제도를 찾아와 사태를 검토했는데 포로들의 불합리한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그는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 당시 리지웨이 장군은 밴플리트 장군에게 이들 포로의 요구사항 특히 가스와 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균전에 관한 요구사항을 수락하면, 세계여론에서 유엔군 측의 입장에 헤아릴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급송하였다. 그는 상황이 5월 11일 아침까지 개선될 조짐이 없다면 그 포로들에 대한 필요한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강조하였다.[55]

포로들은 돗드 장군을 소위 '인민재판'에 회부하면서, 그를 인질로 하여 교섭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태 수습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던 콜슨 장군은 돗드를 구출하기 위해 포로들의 요청에 의해 우선 수용소 안에 전화를 가설하고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데 포로들의 태도는 조금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수용소 당국이 무력행사로 돗드 장군을 구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포로들은 돗드 장군을 살해하고 동시에 전 수용소에서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콜슨 장군은 재차 돗드 장군을 석방하지 않으면 무장병력을 수용소 내에 투입하겠다고 강경한 경고를 보냈는데도 포로들은 여전히 요구사항의 관철만을 주장하였다.[56]

콜슨 준장은 무력진압을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포로들의 반응에 전혀 변함이 없자 5월 10일 포로들의 요구에 응하기로 결심했다. 이러한 콜슨 준장의 심경 변화는 제76포로수용소를 공격하면 즉시 다른 포로수용소에서 대규모 탈출을 시도할 것이라는 첩보가 있었고 또 무력진압을 위해서는 민간부락을 소개시켜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콜슨 준장은 다음과 같은 회신을 포로대표에게 보냈다. 즉, 포로들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를 약속하지만,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의 자원송환 문제는 판문점에서 토의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포로수용소장 권한 밖의 문제이고, 포로의 강제심사나 개인심사는 철회할 수 있으며, 포로대표단 조직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내용이었다.[57]

그러나 친공포로들은 콜슨 준장의 회신에 대하여 확정적인 공약이 못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때 콜슨과 돗드 준장과의 전화통화가 있었는데 돗드는 '포로들이 살해된 적이 있었음을 시인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포로들이 필수적이라고 요구하는 사항들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콜슨은 돗드의 제의에 동의하고 포로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락의 내용을 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포로들에게 전달하였다.

① 요구사항 제1에 관하여 본인은 유엔군이 다수의 포로들을 살상한 유혈사건이 있었음을 시인한다. 본인은 국제법에 의해 장차 본 수용소 포로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약속한다. 본인은 장차 폭행 및 유혈사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장차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에는 본인이 그 책임을 지겠다.
② 요구사항 2항의 북한군 및 중공군 포로의 자원송환에 대해서는 판문점에서 토의되고 있다. 포로수용소장은 휴전회담에서의 결정을 좌우할 권한이 없다.
③ 요구사항 제3항의 강제 심사에 관하여는 돗드 준장이 무사히 석방되면 본 수용소 포로들에 대한 강제 심사나 개인 심사가 없을 것을 확언한다.
④ 요구사항 제4항에 있어 돗드 준장의 동의와 본의 승인을 얻은 세칙에 의해 포로들로 구성된 포로 대표단을 조직할 것을 승인한다.[58]

이러한 약속을 얻어낸 친공포로들은 돗드 장군을 5월 10일 22:30분에 석방하였다. 그러나 콜슨이 포로들에게 한 약속은 지켜질 수 없는 것이었다. 돗드 준장이 석방된 후 리지웨이 장군의 후임인 유엔군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 대장은[59] 즉각 콜슨의 협정을 공갈에 의한 것이라며 무효를 선언하였다. 그는 포로들의 사망은 그들 자체 조직 지휘자들의 사주에 의한 폭동의 결과이며, 또 이곳 포로수용소에는 국제적십자사 대표나 기자단 대표들이 자유롭게 방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60] 그는 거제도에서 일어난 모든 폭동이 수용소의 질서를 파괴하고 온갖 수단으로 유엔군사령부를 난처한 입장에 몰아넣으려는 악질적인 공산주의자들의 계획적인 음모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수용소 당국이 무기를 사용한 것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61]

클라크 장군은 5월 12일부로 콜슨 준장을 포로수용소장 직에서 해임하고, 그의 후임으로 제2사단 부사단장 보트너(Haydon L. Boatner) 준장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참모부장 브라이언 소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이 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클라크 장군은 돗드 및 콜슨 준장을 처벌하도록 워싱턴에 건의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였는데, 결국 두 사람은 대령으로 강등되는 불명예를 감수해야만 했다. 이와 더불어 유엔군사령관은 즉시 거제도 경비대를 증원하기 위해 5월 20일까지 제187공정연대전투단과 전차 1개 대대를 급파시켰다. 이로써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전체 경비 병력은 14,820명에 달하게 되었다.[62]

콜슨의 동의서는 미군의 우려대로 휴전회담석상에서 공산군 측에게 좋은 선전무기가 되었다. 5월 9일 휴전회담 석상에서 공산군측 수석대표 남일은 콜슨의 회신문에 기초하여 "끝없는 일련의 유혈사건이 유엔군측 포로수용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유엔군의 이른바 포로조사라는 것이 공산군측 포로들을 강제로 잡아두려는 음모임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다"고 선전하였다.[63]

다음날 남일은 "유엔군 측은 포획당한 우리의 인원을 강제로 유보시키려고 오랜기간에 걸쳐 고안한 당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야만적인 조치를 계획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64] 또한 남일은 5월 16일 포로 심사를 용납할 수 없으며, 그 결과는 날조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로수용소장이 이미 전 세계에 포로 심사의 허위성을 공표했다고 공세를 펴면서, 미국의 포로송환거부라는 주장이 위선적이고 사기였음이 폭로되었다고 말했다.[65]

그러나 공산군 측의 그러한 성명은 휴전협상을 지연시키려는 '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된 선전'이었다.[66] 유엔군 측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포로들에 대한 인권존중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으며 특히 보급면에서는 오히려 국군의 경비 병력보다 양호한 대우를 해주고 있었다.

포로들은 의도적으로 수용소 내에 침투한 공작원의 조종에 따라 휴전협상에서의 공산군 측의 입장을 지원하며 유엔군 측의 입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결국 4월 28일 휴전협상에서 유엔군이 제안한 일괄타결안도 포로사건과 맞물려 타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포로 분산과 수용소 정비

유엔군사령부는 돗드 사건이 수습되자, 미 제8군사령관에게 즉각 포로들을 장악하라고 지시했다. 새로 임명된 보트너 소장은 포로행정이 친절과 정의, 확고함으로 수행되어야 하지만, 친절은 수혜자가 인지할 때에 가능한 것이고 좌익포로들의 공개적인 반란에 대해 완전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67] 그는 비록 포로들이 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임기응변으로 경비부대를 공격할 수 있는 무장을 갖춘 전투원이며, 저돌적이고 광신적인 기질을 가진 이들은 강력한 방법에 의해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68]

돗드 장군 석방 후 포로들은 수용소 내에 인공기를 게양하고 미군을 모욕하는 플래카드를 곳곳에 걸어두었다. 뿐만 아니라 제76수용소에 모였던 각 수용소 대표들은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며 모종의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했으며, 집단 시위를 계속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로 심사 같은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보트너 장군은 한 가지씩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그는 우선 수용소를 관리하는 장병들 자체의 군기가 문란한 것을 보고 이를 바로잡았다. 그 다음으로는 병력을 증원하여 무력으로 포로를 제압할 계획을 세웠다. 거제도로 부임할 때 그는 이미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포로의 효과적인 관리와 질서 회복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받고 있었다.[69] 이에 따라 그는 과감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다. 5월 16일 보트너 장군은 포로 대표들과 처음으로 회견하는 자리에서 우선 수용소 내에 게양된 인공기를 철거하도록 지시하는 동시에 포로들이 수용소 당국에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인공기와 선전물의 게시, 욕설 플래카드, 각종 표어, 김일성과 마오쩌둥의 초상화 게시가 여전히 횡행하자, 보트너 장군은 무장병력을 수용소 안에 진입시켜 실력으로 철거시키는 강경책을 보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계속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포로는 발견되는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내리고 포로들에게도 이를 알렸다. 그 후 제62수용소에서 2명이 인공기를 게양하다가 사살된 일이 있었는데, 이후 거제도에서 인공기는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



포로들의 폭동으로 아수라장이 된 수용소 막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보트너 장군은 6월 1일 강력한 실력행사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수용소를 장악함으로써 포로들을 분리시키거나 준비된 다른 수용소로 보내기 위한 작전인 동시에 실추되었던 통솔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66수용소에서 이학구를 특별영창에 감금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제60, 제85, 제96, 제607수용소 지역에는 전차부대와 공수부대가 투입되었다. 포로들은 미리 준비한 사제 무기를 가지고 항거하였지만 결국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70]

6월 10일 마침내 보트너 포로수용소장은 돗드가 감금되었던 악명 높은 제76수용소를 공격 목표로 삼았다. 보트너 수용소 소장은 포로들에게 10일 06:00시까지 제76수용소를 비우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포로들은 고함과 욕설을 퍼붓고 창,

도끼, 몽둥이, 칼, 화염병 등으로 무장하고 정문 안쪽에 깊이 파놓은 교통호에서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보트너 수용소장은 공수부대와 전차부대를 동원하여 제76수용소에 진입했다. 그는 "포로들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제187공정연대 병력과 전차 6대를 동원하여 진압했다. 미군은 충격탄과 최루탄, 화염방사기와 총검을 이용해 진입을 시도하였고, 포로들은 화염병, 창, 돌 등을 사용하여 저항하였다. 2시간 30분 동안의 치열한 전투 끝에 진압 병력은 저항하는 포로들을 완전히 제압하였다.[71]

진압 과정에서 포로 40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부상당했으며, 미군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날 사망한 미군은 부검결과 허벅지와 동맥이 낫이나 삽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잘린 것으로 밝혀졌다.[72] 이것이 이른바 '6·10사건'이었다.

공산국가들에서는 이를 선전용으로 활용했다. 6·10사건이 있은 후 평양방송은 거제도에서 포로학살에 대해 항의를 했다. 북한의 군부대에서도 거제도포로의 호소문이 전달되어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그외 소련뿐만 아니라 동유럽에서도 이 사건에 대하여 규탄했다. 유엔군사령부에서는 이 사건이 판문점협상에서 유엔군 측의 입장을 약화시키기 위해 외부지시에 의한 공산주의자의 전술차원에서 일어난 것으로 간주했다.[7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10사건이 있은 후 수용소 내부를 수색한 결과, 포로들은 수용소를 점령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과 막대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제76수용소에서는 소위 인민재판에 의해 희생된 반공포로의 시체와 창 3,000개, 화염병 1,000개, 칼 4,500개, 몽둥이, 손도끼, 망치, 철조망 도리깨 등이 발견되었다. 창은 천막 봉으로, 화염병은 가솔린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제76수용소와 제77수용소를 연결하는 터널과 은신처들이 공사 중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수용소 당국의 분리 수용 작전에 대항하기 위한 작전계획서도 발견되었다.[74]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발생한 포로들의 폭동사태를 경험한 유엔군사령부는 포로들을 관리하는 데에서 비공산포로와 핵심 공산주의자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건이 일어났지만, 포로들의 세력은 약화되었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경비병들은 최루탄을 발사하여 진압했다.



정비된 포로수용소 모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돗드 소장 피랍 사건 후 유엔군사령부는 포로들을 쉽게 통제하기 위해 여러 곳으로 분산시켰다. 이에 따라 7곳에 새로운 수용소가 건설되었으며, 거제도 포로수용소도 약 5만 명을 수용하도록 개편되었다. 새로운 수용소 지역은 거제도의 저구리와 인근의 용초도 및 봉암도 등이었다. 분리 수용의 결과 60, 70 단위의 수용소에는 친공포로를, 그리고 80, 90 단위에는 반공포로를 수용하였다. 그 후 반공포로들은 새로 마련된 수용소에서 송환 개별 면담 심사를 받고, 육지에 신설된 수용소로 분리 수용되었다.[75]

이로써 돗드 포로수용소장의 피랍으로 혼란의 절정에 달했던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혼란은 진정되었으며, 포로 관리는 비교적 안정기를 맞게 되었다.

제 4 절 세균전 설전

1. 세균전 논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공산군 측은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포로수용소 사건을 정치선전용으로 이용하는 것 외에도 유엔군 측이 만주와 북한지역에 세균전을 감행하였다고 하며 또 다른 선전공세를 펼쳐 유엔군 측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였다.

공산군 측의 선전공세는 이미 1951년 5월 북한외상 박헌영(朴憲永)이 "미국인들은 북한지역에 천연두균을 살포하고 있다"고 비난의 포문을 연 데서 비롯되었다.[76] 그리고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여론화된 것은 1952년 2월 2일 파리의 유엔총회에서 소련 대표 말리크가 "유엔군 측이 유독성 가스를 살포하였다"고 한 연설에서 시작되었다.[77] 곧이어 소련의 모스크바 방송은 "유엔군 측이 북한지역에 간첩을 보내 우물에 독약을 넣고 천연두, 장티푸스균을 살포했다"고 주장하였다.[7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이 세균전 문제를 국제적으로 여론화하자 뒤이어 평양과 베이징에서는 1952년 2월 하순에 "미국이 지난 1월 28일과 2월 17일 사이 세균을 지닌 많은 양의 곤충을 북한지역에 조직적으로 투하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먼저 북한외상 박헌영이 2월 22일에 "미국은 세균전을 감행하는 잔인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세계만방의 인민들에게 알린다"고 유엔에 항의하였다. 그는 미군이 1952년 1월 28일부터 페스트, 콜레라 등으로 감염된 파리, 벼룩 등을 살포하기 시작하여 2월 17일까지 지속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24일에는 중국 외상 저우언라이(周恩來)가 북한과 같은 내용의 비난 성명을 발표하였다.[79]

공산군 측의 이러한 비난은 전 세계로 빠르게 전파되었고, 공산권국가들의 신문과 방송은 앞다투어 이 사실을 보도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대포로 세균을 발사

하였으며, 감염된 파리, 달팽이, 설치류 등을 비행기로 투하하였다고 비난하였다.[80] 미군의 조사에 의하면, 이들의 세균전에 대한 비난은 1952년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평양 방송의 337개 뉴스 중 9.8%를 차지하였고, 같은 기간에 베이징 국제방송도 21.7%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매우 높았다. 아울러 공산권국가들의 신문과 잡지에는 세균전과 관련해 다양한 기사들이 실렸다.[81]

유엔군사령부와 미국정부는 즉시 회보와 기자회견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의 세균전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라고 강력히 부인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2월 27일에 발행된 회보를 통하여 공산군 측의 주장을 거짓된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3월 6일에는 애치슨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의 세균전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며, 북한에 만연한 전염병 탓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염병을 통제할 수 없어 손쉬운 희생양으로 미국을 비난한다"고 밝혔다.[82]

공산군 측의 세균전 주장에 대한 유엔군 측의 견해는 3월 4일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이 미 합참에 보낸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 리지웨이는 세균전에 대한 비난이 일반적인 선전으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구체적인 비난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첫째, 적은 국내 청중을 위해서나 세계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단순히 선전을 조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적은 그들 영토내의 전염병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차장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셋째, 적은 세균전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될 때 세균전의 실시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8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리지웨이는 공산군 측이 자국 내에서 발생한 전염병을 정치선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산군 측에서 세균전을 실시할 지도 모른다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판단하였다. 당시 미국은 소련과 중공이 세균전을 실시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지만, 적어도 세균전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다.[84] 특히 미국은 소련이 많은 양의 독가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중공군이나 북한군이 동시베리아, 바이칼호 지역, 외몽고, 만주지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85]

1951년 당시 북한지역에는 장티푸스·콜레라·발진티푸스·천연두 등의 전염병이

만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1952년에 다시 전염병이 만연된다 해도 공산군 측으로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86] 따라서 공산군 측의 주장은 다분히 전염병을 유엔군 측의 세균전의 결과로 비난함으로써 이완된 민심을 정비하기 위한 측면이 농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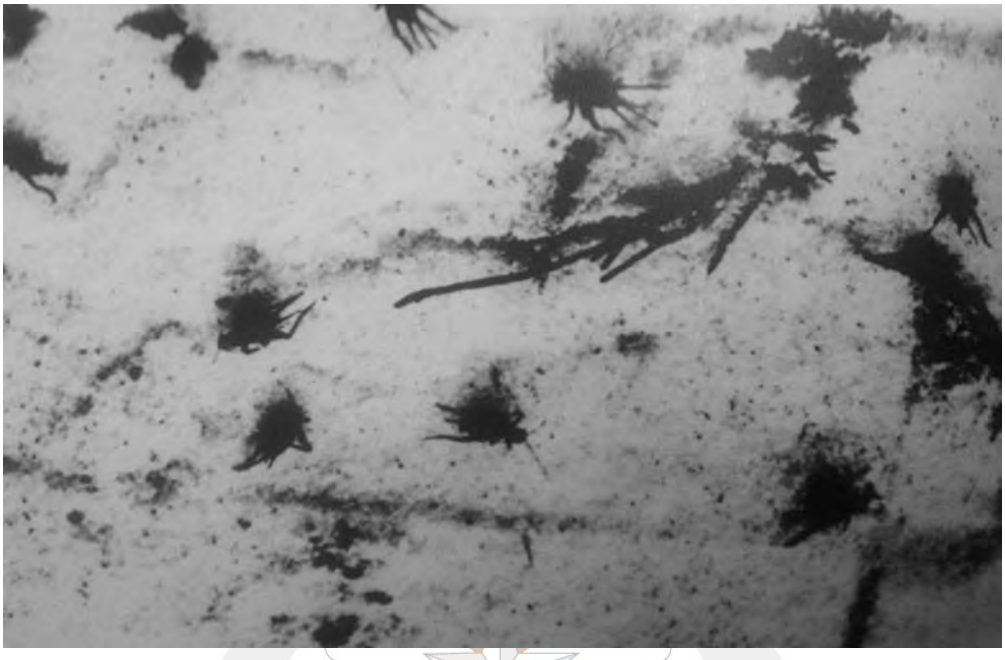
미국 정부는 공산군 측의 세균전 주장에 대해 국제적인 차원의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과 더불어 유엔군사령관에게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3월 4일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현지조사를 제의했고, 국제적십자사도 스위스 대표 3명과 인도 대표 2명, 그리고 1명의 파키스탄 대표의 파견을 제의하였다.[87] 또한 3월 7일 미 합참은 유엔군사령관에게 "휴전회담에서 공산군 측이 세균전 문제를 들고 나오면 '신속하고도 적극적이며, 그리고 명백하게' 공산군측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밝힐 것"과 유엔군사령부의 세균전 관련 공개성명에 대한 권한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하였다.[88]

국제적십자사를 비롯해 세계보건기구가 미국 정부가 제기한 현지조사를 적극 지지하였다. 국제적십자사는 3월 12일 북한과 중공에 "만일 자신들이 북한에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된다면, 북한 주민의 건강상태에 관해 과학적 조사를 하겠다"고 제의하였다. 또한 거의 같은 시기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에 만연한 전염병이 다른 국가를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전염병 억제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89]

그러나 공산군 측은 미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제기한 현지조사를 거부하고 선전공세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공산측은 국제적십자사나 세계보건기구가 미국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워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심지어 북한측은 미국의 제안이 세균전을 은폐하고 조사단이라는 명목으로 자기들의 충복을 합법적으로 파견함으로써 세균무기 사용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며, 북한의 후방에 대한 합법적인 정탐을 요구하는 처사라고 반박하였다.[90]

공산군 측의 선전공세는 3월과 4월에도 계속되어 유엔군 측이 병균에 감염된 거미, 벼룩, 탄저병균을 전염시키는 갑충과 들쥐를 투하하였다고 발표하면서 기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산군 측이 세균전의 증거물로 제시한 병든 곤충

를 높였다.[91] 3월 7일 베이징 라디오 방송은 2월 28일부터 3월 5일 사이에 400기 이상의 미 항공기가 한만 국경선에 전염병을 전파시키기 위하여 곤충과 병든 해충을 투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중공 수상 저우언라이도 다음날 미국에 대한 경고방송을 하였다. 그는 미국이 중국영토의 침입, 세균전의 이용, 그리고 무분별한 폭격과 기총소사에 의한 중국민의 살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였다.[92]

이와 더불어 공산권에서는 북한과 중공의 요구로 세균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제민주법률가협회조사단'을 구성하였다. 1952년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북한에서 현지 조사를 한 후, "미국 비행기들이 북한에 전염병으로 감염된 곤충을 투하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93] 조사가 진행 중이던 3월 14일에는 말리크 유엔주재 소련대사가 다시 미국이 세균전을 전개하였다는 내용의 비난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3월 15일자 북경 '인민일보'에는 세균전의 증거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확보했다는 내용과 더불어 사진을 실었다. 그 사진들은 미국이 투하했다는 한줌의 병든 곤충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세균폭탄'이라고 주장한 것을 그린 것들이었다. 과학 및 군사전문가들은 이들 주장에 대해서, 세균폭탄은 미 공군이 북한에 전단을 살포할 때 사용한 폭탄과 사실상 같은 형태의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완전한 사기라고 반박하였다.[94]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의 주장이 증거 제시가 없는 사실무근한 주장이라고 부인하였다. 3월 26일,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은 그들이 전염병 방역의 미비함을 은폐하기 위하여 고안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95] 또한 유엔 참전국들도 공산측이 터무니없는 선전을 하고 있다는데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군 측의 계속되는 선전공세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동요하는 기미를 보이자 유엔군 측은 사태수습을 위해 다시 한 번 국제적십자사와 세계보건기구에 진상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의하였다. 국제적십자사는 중공과 북한이 비난한 것과 관련하여 그들의 영토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허가를 계속해서 요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96]

공산군 측의 세균전 주장이 계속되자 한국정부도 이에 관해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 부사무총장(Cordier)과의 회견에서 유엔군의 세균전 주장에 대한 공산측의 선전이 완전한 거짓이며 조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97] 그리고 변영태 외무부장관도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9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최근에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이 세균전을 하였다고 연일 선전을 하고 있다. (중략) 이러한 선전 모략의 동기는 전염병이 창궐하는데도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민중의 원성을 사게 되자 이를 타인에게 전가하자는 데 있다. (중략) 공산군측은 국제적십자사의 공정한 조사를 막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산군 측은 '국제민주법률가협회조사단'을 구성한 데 이어서 3월 29일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열린 '세계평화회의 집행위원회'에서 이 기구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만주와 북한에 보내어 진상을 파악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친공산권 인사들로 구성된 '국제과학조사단'이 구성되었다.[99]

이에 더하여 공산군 측은 미국이 거제도의 공산군 포로에게 세균전 무기를 시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선전을 확대해 나갔다.[100] 이 무렵 공산군 측은 고문을 통해 만들어진 포로들의 허위 자백을 가지고 유엔군 측을 압박하고자 했다.

2. 세균전 논쟁의 결과

1952년 5월에 접어들면서 공산군 측은 지난 1월에 격추 당한 두 명의 미군 조종사로부터 세균폭탄을 북한에 투하 하였다는 자백을 만들어냈다. 유엔군 측은 그 자백문을 공산군들이 부르는 대로 받아썼으며 협박 하에 서명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되받았다.

공산군 측의 세균전과 관련된 선전은 뚜렷한 상황설명이나 물증이 없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자 잠잠해졌다. 그러나 공산군 측은 포로폭동이 점차 확대되면서부터 세균전을 다시 선전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5월 15일 공산군측 수석대표는 평양시와 선천군 일대에 유엔군 측이 세균을 살포하여 중공군이 감염되었다고 주장하였다.[101] 이에 대하여 클라크 사령관은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에서 화생방전을 기도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선수를 치는 지도 모른다고 역공세를 가하였다.[1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산군 측의 선전공세를 중지시키려는 노력이 실패하자 미국의 유엔대표 그로스는 6월 18일 국제적십자사와 국제적인 과학자들로써 세균전 비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였다. 그 결의안은 소련의 거부권에 의해 부결되었다.[103]

중국은 세균전조사를 위한 '국제과학조사단'을 구성, 1952년 7월에 현지를 조사하여 작성했다고 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친공산주의적인 국제과학조사단의 보고서에는 총 50건의 사건이 수록되었다. 그러나 이 조사단은 중공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균전에 관한 기록에 근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형식적으



세균전 주장과 함께 세균 태우기에 나선 공산군측 병사

로 실시함으로써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다.[104]

국제과학조사단은 1952년 6월 하순 베이징에 도착하여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지역을 2개월 이상 조사한 후 미군이 세균전을 감행하여 북한과 중국민이 세균무기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조사단의 보고서에는 미군이 세균전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중국에 보냈다고 주장하는 중국인 위장간첩의 자백서도 함께 실었다.[105]

그러나 공산군 측의 일방적인 조사단 구성은 공정성을 얻지 못했고, 현장조사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들 조사단들은 현장조사를 강조하였지만, 북한과 중국 과학자나 증인들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양국 정부에 의해 선정된 재료에 대한 조사를 하였을 뿐 독자적으로 현지조사와 분석을 하지 않았다. 특히 북한조사는 언어적 장애와 전시상황 때문에 10일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다. 그것도 평양에서 3일간의 회의와 2일간의 포로 진술을 듣는 것으로 대부분을 할애하였다.[10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또한 국제과학조사단의 보고서에서는 최근 500년간 한국에서 페스트의 유행이 없었으며, 중국에서도 1949년 이후 3년간의 방역사업으로 천연두가 거의 근절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1947년에 페스트가 발견되었음이 보고된 바가 있었다. 1947년 11월 미군정 당국은 북한의 함경북도로부터 온 3통의 편지를 통해서 이 지역에 페스트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중국에서도 국제과학조사단의 평가와는 달리 1952년 2월에 산동성, 하북성 등지에 홍역, 천연두, 회귀열 등이 유행하고 있었으며, 동북지방에서는 1949년에 천연두 환자 13,772명이 발생하여 3,156명이 사망하였고, 1950년에는 6,247명의 환자 중에서 783명이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서 중국정부는 1951년부터 3년간 천연두 박멸을 위한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107]

이와 같이 1947~52년 한국과 중국에서 천연두 환자가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제과학조사단의 보고서 내용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다. 당시 국제과학조사단이 내놓은 증거는 소련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은 전염병 방역 특수대원들이 미리 세균전 증거들을 뿌려두고 조사단을 그곳으로 안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108]

이처럼 1952년 여름에 공산군 측은 세균전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켜 유엔군 측을 궁지에 빠뜨리려 하였다. 심지어 유행성 감기도 유엔군이 살포한 세균 때문이라고 선전하였다.[109] 이러한 공산군 측의 세균전 선전은 1952년 여름이 지나면서 유엔군 측이 공중폭격을 재개하고 아울러 세계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자 유야무야 되었다.

추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1952년 상반기에 미군의 생물학전 능력은 시험수준 단계에 있었다. 1952년 6월초 미 육군부장관 페이스(Frank Pace)는 국방장관에게 올린 보고에서 생물학전과 화학전 계획과 관련해 민간인 전문가를 감독관으로 하여 약 2년간의 계획으로 연구와 개발, 시험공장, 초기생산 등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하였다.[110] 또한 7월에 극동군사령부가 국방부에 보내는 건의안에는 '생물학전 능력이 1954년 이후에 가능'하므로, 공산군 측의 생물학전 또는 화학전에 대비하여 화학전 군수품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11]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1952년 미국의 생물학전 능력은 시험 수준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결국 공산군 측의 세균전 주장은 대내적으로 만연되고 있던 전염병을 유엔군 측의 세균전 결과로써 책임을 전가하여 국내 전열을 정비하고 다른 한편 세계여론을 이용하여 당시 진행 중인 휴전협상에서 유엔군 측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날조된 주장은 끝내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5 절 분석 및 평가

6·25전쟁 기간 중인 1952년 5월 7일 거제도에서 일어난 포로수용소장 피랍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판문점 휴전회담장에서 포로처리문제를 두고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던 시기였으므로 포로수용소장인 미군 장성이 포로에게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일이었다.

이어서 사건을 수습할 임무를 띠고 부임한 신임포로수용소장이 공산포로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함으로써 남긴 후유증도 컸다. 공산군 측은 이 문제를 대미 선전에 대대적으로 활용하였던 반면, 유엔군 측은 이 사건을 수습하느라 고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 이 일에 연루되었던 전·후임 포로수용소장은 준장 계급에서 대령 계급으로 강등되는 불명예를 당하게 되었다. 거제도포로수용소는 수용소장의 무덤이 된 셈이었다.

포로수용소장 피랍사건은 공산군 측이 포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군측이 공산군 포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취급하였는지를 여실히 나타내 준 사건이기도 하였다. 아울러 6·25전쟁에서 포로문제가 과거의 모든 전쟁에서의 포로문제와 어떻게 다른가를, 그리고 이 전쟁에서 포로문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웅변으로 증명해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 발생 1개월 후인 1952년 6월 9일, 거제도 포로수용소장 피랍사건과 관련하여 미 하원 청문회가 열릴 정도로 사건은 대단한 파급력을 가졌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들 중에는 유엔군 측이 공산주의와 친공포로의 속성을 너무 몰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친공포로들이 공산주의 선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도 하찮게 생각하고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미국인으로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었다.

청문회 내용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군 당국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에서 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험했던 서양 군대의 포로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일단 포로가 되면 포로로서의 자세를 유지하고 그 대신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대로의 대우를 요구하는 서양 군인의 사례를 공산포로들에게 기대하고 적용하려 했던 데서 큰 착오를 범한 것이었다. 미군 당국은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자와 그것을 거부하는 자와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한 줄짜리 철조망이 아니라 땅바닥에 줄을 그어놓고 이 선을 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지키는 부류와 그와는 정반대의 부류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이다. 청문회에서 "전적으로 종류가 다른 일단의 사람들"이라고 한 페이스 미 육군부장관의 진술은 이 모든 점들을 함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거제도 포로수용소장 돗드 장군의 피랍사건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친공포로들의 조직적인 폭동이었으며, 최초 의도한바 대로 사건 이후 휴전회담 석상에서 공산군 측에게 세균전 문제와 더불어 좋은 선전무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산군 측의 세균전 주장은 전염병 발생을 은폐하기 위한 선전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국제적인 선전효과 외에 중국 내의 '혁명적 계기'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미군이 세균전을 대응차원이 아니라 공격용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나, 세균전 논쟁 시점인 1952년 초에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세균에 감염된 파리, 벼룩 등을 수백 회에 걸쳐서 살포했다고 공산군 측은 주장했으나, 만약 미국이 세균전을 실행했다면 그러한 원시적인 방법보다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인 물이나 공기 등을 이용했을 것이다. 현재까지 물과 공기를 이용한 세균전 주장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

결국 공산군 측의 세균전 주장은 대내적으로 만연되고 있던 전염병을 유엔군 측의 세균전 결과로써 책임을 전가하여 국내 전열을 정비하고 다른 한편 세계 여론을 이용하여 당시 진행 중인 휴전협상에서 유엔군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심리전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집필 : 박동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註)

1) 육군본부, 『한국전쟁과 반공포로』, 2002, 33쪽.
2) 「국적대표의 유엔군 제1수용소 방문 보고」, 1952. 1. 23, 12/389.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183쪽 재인용.
3) 박종은, 『그날 0시』, 86쪽, 95쪽, 조성훈, 위의 책, 183쪽 재인용.
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314쪽. 중공군의 제3차 공세가 시작되었던 1951년 1월 1일 현재 포로의 수는 약 137,000명에 달했다.
5) 매듀 B. 리지웨이, 김재관 역, 『한국전쟁』, 정우사, 1981, 229쪽
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1996, 62쪽.
7) 위의 책, 63쪽.
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314쪽.
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67쪽.
10)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2008,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82쪽.
11) 조성훈, 앞의 책, 82쪽.
1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314쪽.
13) 「작전보고」, 『헌병대활동』, 1952. 4, 17/338, 5~6쪽; HQ, 2d Logistical Command, "Factual Summary of Situation in UNC POW Camp No.1, Koje-do", May 31, 1952, p.4, 60th General Depot, "monthly Command Report" Jan.-April 1951, 군사편찬연구소 HD 1495.
14) Kim Sun Ho, "Koje-Do in Complication", p.viii, pp.11, 15~19. 조성훈, 앞의 책, 183~184쪽 재인용.
15)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968, 168쪽.
16)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 New York : Haper & Brothers, 1954, pp.50~51. 유엔군사령부는 거제도 및 기타 지역 포로수용소에서의 폭동과 다른 문제들이 공산군 고위 사령부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지시는 고도로 훈련된 첩자에 의하여 포로수용소로 전달되었다.
17) 조성훈, 앞의 책, 111쪽. 이들 조직들은 1951년 10월 하순에 '백두산사단'으로 통합되었다.
1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117쪽.
19)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68~169쪽; 제83수용소 여단장 이관순 증언, 육군본부, 『판문점』(상), 1972, 260쪽 재인용.
20) 조성훈, 앞의 책, 111~112쪽.
21) 조성훈, 위의 책, 184~185쪽.
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13쪽.
23) 조성훈, 「6·25전쟁 휴전협정을 둘러싼 국제관계」, 하영선·김영호·김명섭 편, 『한국외교사와 국제정치학』, 성신여대출판부, 2005, 253~254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4) 조성훈, 앞의 책, 210쪽.
2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114~115쪽.
26) 조성훈, 앞의 책, 217쪽.
27) 「월간보고서」 1951. 9, 5235/407; "Koje-do" 1952, 12/389, 2쪽, 조성훈, 앞의 책, 218쪽 재인용.
28) 조성훈, 위의 책, 218~219쪽.
2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116쪽.
3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미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991, 162쪽;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70~171쪽.
31) 조성훈, 앞의 책, 249~250쪽.
3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미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62쪽.
3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미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62쪽.
3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123쪽.
35) 조성훈, 앞의 책, 249쪽.
3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68~69쪽.
37) 조성훈, 앞의 책, 251~252쪽.
3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69쪽.
39) 위의 책, 69쪽.
40) "전쟁포로", 『서울신문』, 1995. 9. 18.
4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69~70쪽.
42) 조성훈, 앞의 책, 252~253쪽.
43) 죠셉 굴든, 『한국전쟁』, 613쪽; 윌리암 린드세이 화이트, 조영철 역, 『한국전쟁 포로』, 214쪽;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123쪽.
44) 김행복, 「한국전쟁시 포로장악을 위한 공산군 및 친공포로의 조직과 그 연락체제」, 198~200쪽. 조성훈, 앞의 책, 255쪽 재인용.
45) 장택석, 손준식 역, 『중국군 포로의 6·25전쟁 참전기』, 222~223쪽. 조성훈 위의 책, 255쪽 재인용.
4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124쪽.
47) 위의 책, 124쪽.
48)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74쪽.
4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124쪽.
50) 조성훈, 앞의 책, 253쪽.
51)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76쪽. 이날 제76수용소 막사에 모인 주요 포로대표들은 제66수용소에서 이학구 총좌, 신태봉 중좌, 엄정엽 중좌, 제77수용소에서 남한 출신 김용성, 원현성, 제62수용소에서 남한 출신 김남수, 민간억류자 박제두, 제78수용소에서 김인갑, 이종여, 제80수용소에서 남한 출신 민간억류자 김정자(여), 김정숙(여), 제85수용소에서 권태국, 유성배, 제92수용소에서 권재열 대위, 남한 출신 민간인억류자 권경회, 제96수용소에서 김진환, 김기남, 제602수용소에서 손천관 중공군 대위, 제605수용소에서 최인호, 천태성 등이었다(조성훈, 위의 책, 255~256쪽).

국방군사편찬연구소

5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989, 216쪽.

53) 위의 책, 216쪽.

5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16~217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미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91쪽.

5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91쪽. 리지웨이 장군은 이 조치에 대하여 자신의 저서에서 "전쟁포로가 나의 으뜸가는 관심사였지만, 그들의 취급 권한은 육군 사령관에게 위임되었다. 주책임은 밴플리트 장군에게 있었으므로 나는 곧 그에게 그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였다. Matthew B. Ridgway, The Korean War, 1967, pp.210~213.

5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127쪽.

57)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77쪽.

5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127~128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17~218쪽.

59) 클라크 장군의 임명은 나토군사령관 아이젠하워 원수가 1952년 11월로 예정된 차기 미국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내정되어 퇴역하게 됨에 따라 그 후임으로 리지웨이 장군이 임명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미 본토 지상군사령관인 클라크 대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제5, 제15군 사령관을 역임하여 야전경험이 풍부하고 전후 오스트리아 강화조약에 마샬 미 국무장관 대리로 소련측과 직접 협상한 경험이 있었다. 그는 1952년 5월 12일 유엔군사령관으로 부임하였다(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78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90쪽).

6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미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92쪽.

61) 조성훈, 앞의 책, 258쪽.

6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128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93쪽.

6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19쪽.

6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93쪽.

65) 조성훈, 앞의 책, 258~259쪽.

6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93쪽.

67) 조성훈, 앞의 책, 263쪽.

6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129쪽.

69) 위의 책, 129쪽.

70) 위의 책, 130쪽.

71) 조성훈, 앞의 책, 264쪽.

72) 위의 책, 266쪽.

73) 위의 책, 266~267쪽.

74)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판문점』 상, 1972, 320쪽;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131쪽.

7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131쪽.

76) David Rees, *Korea:The Limited War*, London : Macmilan, 1964, p.35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991, 225쪽.

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01~202쪽.

79) World Peace Committee, *Exhibition on Bacteriological War Crimes Committed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eking, 1952, p.12.

8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226쪽.

81) 조성훈, 「한국전쟁의 세균전 논쟁 비판」, 『군사』 제41호, 2000, 355~356쪽.

8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미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226쪽.

83) 위의 책, 227쪽.

84) 위의 책, 227쪽.

85) Lt. Col Martin 57-8336, "Estimate of the Situation-Initiation of Gas Warfare by the Communists" 8 May 1952, 5/407. 조성훈, 앞의 논문, 364쪽 재인용.

8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02쪽.

87) Milton Leitenberg, "New Russian Evidence on the Korean War Biological Warfare Allegations". 조성훈, 앞의 논문, 356쪽 재인용.

8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미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227쪽.

89) 위의 책, 228쪽.

90) 「미제는 세균전 죄악을 어떠한 기만 술책으로도 엄폐할 수 없다」, 『로동신문』 1952. 3. 29자 사설. 조성훈, 앞의 논문, 356쪽 재인용.

9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02쪽.

9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226쪽.

93) 위의 책, 229쪽.

94) 위의 책, 『미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229쪽.

95) Milton Leitenberg, "New Russian Evidence on the Korean War Biological Warfare Allegations". 조성훈, 앞의 논문, 356쪽 재인용.

9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229~230쪽.

9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자료집』 31, 1996, 47쪽. 조성훈, 위의 논문, 356쪽 재인용.

9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03쪽.

99) 김주환 편,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 청사, 1989, 165~175쪽.

10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미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230쪽.

10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03~204쪽.

102) David Rees, *Korea:The Limited War*, p.358.

103) 위의 책, 230쪽.

104) 위의 책, 359쪽.

105) 「한국과 중국에서 세균전 사실에 대한 국제과학조사단의 보고서」, 김주환, 앞의 책, 211~217쪽.

106) 조성훈, 앞의 논문, 358쪽.

107) 『동북조선일보』, 1951. 3. 10; 김주환, 앞의 책, 234쪽, 264~265쪽. 국민방첩연구소편, 『세균모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 81~98쪽;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편, 『주한미군정보일지』 4, 75쪽;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편, 『주한미군정보일지』 5, 239쪽. Zhang Shugu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Kansas :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 165~186. 조성훈, 위의 논문, 359쪽 재인용.

108) David Rees, Korea: The Limited War, p.359.

10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04쪽.

110) "Report of Army Scientific Advisory Panel on BW and CW" June 4 1952, 3864/407. 조성훈, 앞의 논문, 365쪽 재인용.

111) "CINCFE, Tokyo to DEPTAR"(1952. 7. 17), 6/407. 조성훈, 위의 논문, 365~366쪽 재인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6 장 고지쟁탈전 격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임진강-역곡천 부근 전투
제 3 절	철원-김화-금성천 부근 전투
제 4 절	북한강-소양강-남강 부근 전투
제 5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1. 전선 상황 요약

1952년 5월 12일 미국정부는 클라크(Mark W. Clark) 대장을 휴전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임자로 신임 유엔군총사령관에 임명했다. 클라크는 총사령관에 임명되면서 승리가 아니고 조속한 휴전을 실현시키는데 노력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유엔군총사령관은 바뀌었지만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지 않은 전쟁 양상은 그대로 지속되었다. 전선은 교착된 채 쌍방은 상대방을 크게 자극할만한 대규모 작전을 피하였다. 중공군이 진지보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 국군과 유엔군도 전 전선에 걸쳐 진지보수 및 강화를 시도했다.

이때 공산군 측의 군사력은 훨씬 강해졌고 준비상태도 크게 개선되었다. 1952년 5월 1일 현재 공산군 측은 전선에 29만 명, 후방에 직접 및 일반 지원 병력 62만 명 등 총 91만 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중에 중공군이 63만 명이었다. 이러한 공산군 측의 병력은 휴전회담이 개시된 이래 10개월 동안 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국군과 유엔군은 국군 9개 사단, 미군 4개 사단, 영국군 1개 사단 등을 전선에 배치하여 모두 25만 명이 공산군과 대치하고 있었으며, 후방에 있는 병력까지 합하면 총 병력은 70만 명이었다.

또한 더욱더 크게 달라진 것은 적의 포병화력이 꾸준히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공산군 측은 1952년 4월 전선에 710문의 야포를 배치하였는데, 6월에 그 숫자가 884문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포술도 향상되었다. 공산군은 8문 내지 10문의 야포를 동시에 사용하는 집중사격을 실시하였으며 그것을 여러 진지에서, 그리고 유동적인 위치에서 실시함으로써 유엔군의 대포병사격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그밖에 공산군은 1952년 7월 현재 520대의 전차와 자주포로 장비한 3개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기갑사단을 전선에 배치하였으며, 만주에 항공기 1,25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공산군의 병력, 화력, 진지 등이 현저하게 강력해진 여건에서 유엔군이 대규모 공세를 취하더라도 군사적 승리를 쉽게 이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따라서 다시 그러한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엔군도 병력증강이 시급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더 이상의 병력증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반적으로 1952년 8월까지는 아직도 유엔군이 공격적인 입장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 기간에 유엔군은 에리고지, 포크찹고지, 불모고지 등에 대한 제한공격을 실시하면서 일부 전초선을 전방으로 추진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9월에 접어들자 공산군은 수색활동을 강화하면서 전 전선에 걸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징후는 특히 중부전선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중공군은 9월 6일에 국군 수도사단이 확보 중인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을 탈취하기 위해 공격의 신호탄을 올린 후 9월 말경 국군 제2군단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전선으로 확대된 공세를 실시하였다. 이때부터 전선에서 작전의 주도권은 공산군 측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었다.

이에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는 국군 제2군단의 좌측을 담당하고 있던 미 제9군단으로 하여금 견제작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미 제9군단은 김화부근에서 공세작전을 실시하여 기선을 제압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의 승인을 받아 10월 14일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군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의 공격목표는 각각 김화 북방의 저격능선과 삼각고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아군의 공격에 앞서 8일 전에 중공군은 이미 그들의 1952년도 추계공세 계획대로 수도고지, 지형능선, 백마고지, 베티고지 등에서 공격을 실시함으로써 전 전선에서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전개되었다. 그 중에서도 방어전이었던 백마고지 전투는 국군 제9사단이 막강한 포병화력의 지원과 유엔 공군의 항공근접지원 하에 완강히 대항하는 중공군을 섬멸하고 고지를 확보한 가장 성공적인 전투였다. 그러나 공격전이었던 저격능선과 삼각고지 전투는 예상외로 많은 피해를 입고 무려 42일간이나 끌게 되는 작전 끝에 저격능선만을 확보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는 당시 전선의 형태와 부대의 준비태세가 공격보다는 방어에 유리하게 전개되어 있는데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나온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1952년 10월과 11월의 치열한 격전이 끝나고 난 뒤 전선은 겨울이 몰고 온 한파와 함께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전투양상은 전초진지 쟁탈전이 사라지고 폭격, 수색정찰 및 극히 제한된 소부대 전투로 환원되었다.

2. 작전지역의 특징

1952년 고지쟁탈전은 주로 임진강-문산-전곡-운천-화천-양구-간성을 연하는 선의 남북지역이 주 무대였다. 이 지역은 한반도의 중앙지역으로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고서저의 지세를 보여주고, 작전이 진행된 가을철의 기상조건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어 시계의 제한을 주지 않았으나, 겨울철에는 많은 적설량과 혹한으로 부대의 기동 등 작전수행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대략 4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작전지역은 전반적으로 공자에게 불리하고 방자에게 유리한 지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서부지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김포반도로부터 연천-동두천-의정부 축선의 이서(以西)지역을 아우르는 서부지역은 대체로 표고 100m 내외의 구릉과 비옥한 충적토, 간석지, 갯벌, 해안평야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내의 주요 고지는 임진강 북쪽의 개성 고지군과 임진강 남쪽의 파평산과 감악산 등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하천은 경기 북부를 거쳐 서해안으로 흘러드는 예성강과 마식령 부근에서 발원하여 파주를 지나 한강 본류와 합류하는 임진강이 있다.

지역 내의 주요 도시는 개성과 문산, 적성, 연천, 전곡 등으로 이들 도시를 연결하는 철로와 도로망이 종횡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 주요 철로와 도로는 경의선 및 경원선 철도와 함께 개성-문산-서울을 잇는 1번 도로, 연천-동두천-의정부를 연결하는 3번 국도가 남북으로 그리고 문산-법원리-동두천을 잇는 도로가 동서로

발달되어 있어 차량 및 전차의 기동이 가능하였다.

작전지역의 기상조건은 여름철인 6~8월은 비가 많아 작전을 제한하였으나 가을철인 9~11월은 맑은 날씨가 계속되어 시계의 제한을 주지 않았고, 기온과 풍속 및 풍향도 작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서부지역은 습지와 하천, 갯벌 등의 천연장애물로 인해 전반적으로 공격보다는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나 종횡으로 발달된 도로망과 비교적 낮은 고지 사이로 발달된 개활지는 공격에 유리하였고, 특히 서울에 이르는 최단거리 접근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2) 중서부지역

중서부지역은 연천-동두천-의정부 축선의 이동(以東)으로부터 북한강 서안지역을 포함한다. 이 지역의 지세는 고지대의 경우 표고 400~800m의 고지군과 계곡이 어우러져 기복이 심하고 삼림이 울창한 반면 논과 밭이 산재한 저지대는 표고 100~200m의 기복이 완만한 구릉지와 평야지로 철원-김화평야가 대표적이다.

지역 내의 주요 고지는 철원-김화평야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서방산과 효성산, 오성산, 교암산 등이, 그리고 남쪽에는 대성산, 적근산, 백암산, 금학산, 고대산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강과 하천은 연천 남부를 흘러 임진강과 합류하는 한탄강과 평강지역에서 발원하여 395고지를 남쪽으로 감돌아 다시 서쪽으로 흐르는 역곡천, 그리고 금성 북방에서 남동쪽으로 흘러 북한강과 합류하는 금성천 등이 있다.[1] 지역 내에는 평강과 김화, 철원, 포천 등의 거점도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도시를 잇는 주요 도로는 서울-원산 간 3번 도로와 포천-의정부를 잇는 43번 도로 등이 남북으로 발달되어 있었다. 또한 작전지역의 기상조건은 서부지역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은 종적으로 발달된 고지군 사이에 비교적 양호한 다수의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어 인접부대와의 횡적인 연계가 불리한 반면 기계화부대의 운용에는 유리한 지리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중동부지역

중동부지역은 북한강 동안으로부터 태백산맥 북부지역을 아우르며, 태백산맥과 그 지맥인 광주산맥 등의 영향으로 표고 1,000m 이상의 고봉들이 종횡으로 연결된 험준한 산악지대이다. 협소한 계곡과 경사도가 높은 이 지역의 주요 고지는 어은산과 삼각산, 가칠봉과 백석산, 대우산과 대암산 등으로서, 직경 15~20cm 정도의 소나무와 잡목 그리고 잡초와 칡덩굴 등이 뒤섞여 우거져 있는 울창한 삼림지대이다. 주요 강과 하천은 북한강 상류가 동북쪽에서 서남 방향으로 흐르며, 문등리 계곡을 따라 흐르는 수입천과 사태리 계곡의 소하천, 그리고 군량천 등이 화천저수지나 소양호로 흘러드는데[2], 하천의 유속이 빠를 뿐 아니라 강우시에는 하천의 깊이와 폭이 불시에 증가한다.

작전지역 내의 주요 거점도시는 인제와 원통 그리고 양구와 화천 등이고, 이들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은 간성-인제-홍천-서울 간 44번 도로가 동서로, 화천-춘천-홍천 간 5번 도로와 양구-춘천-가평 간 46번 도로 그리고 인제-현리-홍천을 잇는 451번 도로가 남북으로 발달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로는 굴곡과 함께 노면상태가 불량한 산악 단차로로서 차량 통행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작전기간 중 지역의 기상조건은 산악지대의 지세적인 특징과 내륙인 관계로 한서의 차가 심하며, 가을로 접어들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를 보인다. 기온은 연평균 12.3℃이다.

결론적으로, 중동부지역은 험준한 산악과 불규칙한 지형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남쪽과 서쪽으로 흐르는 북한강과 소양강을 비롯한 각종 천연장애물이 산재해 있고, 종적 및 횡적인 도로망이 제한됨으로써 전반적으로 공격에 불리하고 방어에 유리한 지형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4) 동해안지역

태백산맥으로부터 동해안에 이르는 동해안 지역은 서부의 경우 태백산맥에 연하여 표고 1,000~1,700m의 높은 산지가 주능선을 이룬 험준한 지세를 나타내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반면에 동부해안지대는 모래해안이 주를 이루며 내륙은 150m 이하의 구릉과 야산이 동해와 접하고 있다. 지역 내의 주요 고지는 북쪽의 적벽산과 월비산, 351고지 등과 남쪽의 고황봉과 339고지, 향로봉과 건봉산 등이 위치하고 있다.

주요 하천은 지역을 동서로 갈라놓은 남강이 있다. 금강산에서 발원한 남강은 남쪽으로 흐르다 신탄리 부근에서 다시 북으로 방향을 바꾸어 고성 근처에서 동해로 흘러든다. 강폭은 평균 60~80m이나 수폭은 대략 20m 내외이며, 유속은 초속 1.8m로 기갑 및 차량부대의 기동을 제한하지만 도보부대의 도섭은 가능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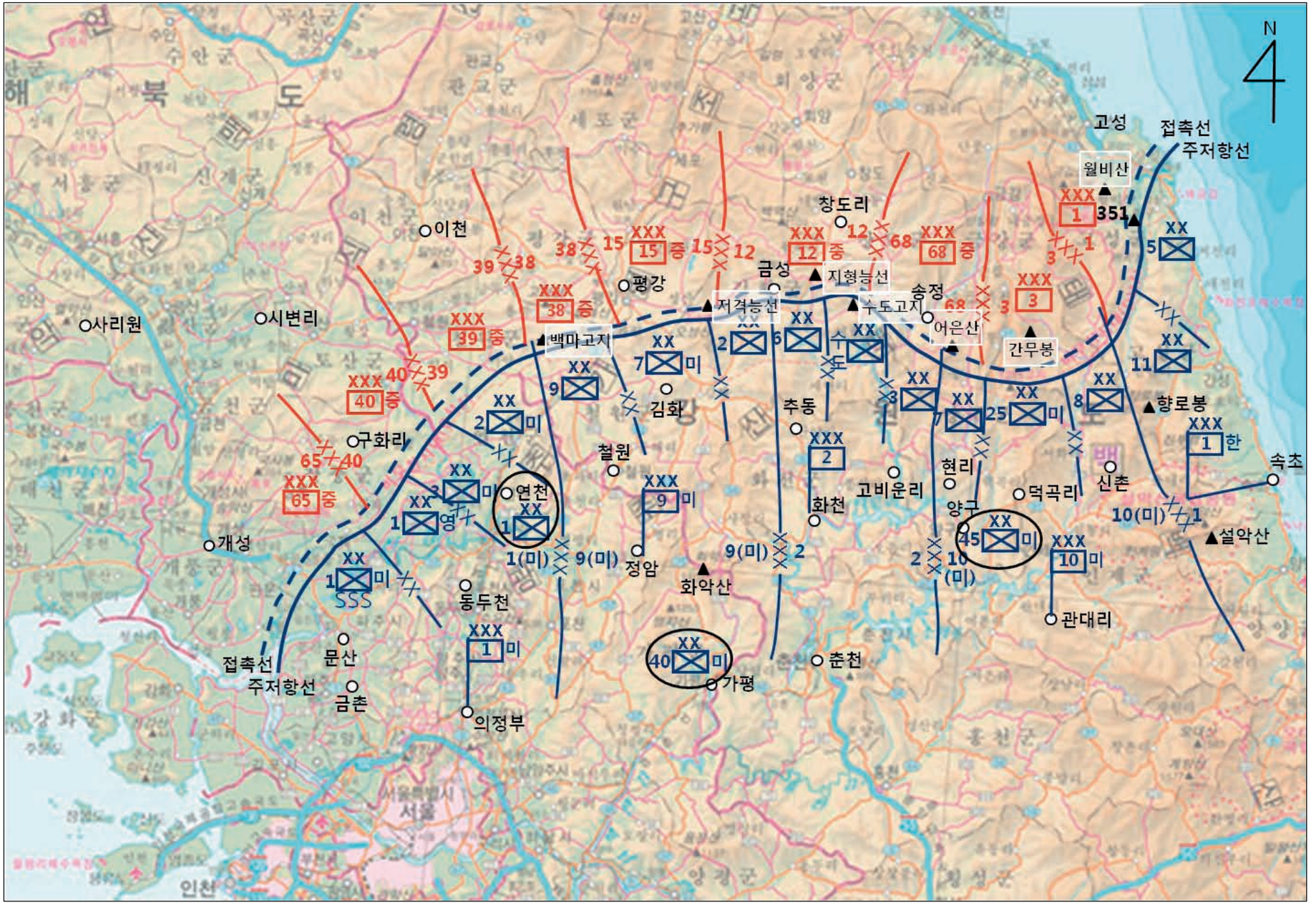
지역 내의 주요 거점도시는 고성과 통천 그리고 간성과 거진 등이며, 도로망은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연결된 7번 도로와 강정-남강-사기점을 잇는 7002번 도로가 있다. 동해안 일대는 비교적 개활한 지형으로 도로망이 다소 발달되어 있으나, 내륙쪽은 험준한 지세로 인해 인마의 통행이 가능한 산간소로 밖에 없고 우마차가 통과할 수 있는 도로는 거의 없어 작전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다.

작전기간 중 이 지역의 기상조건은 산악지역 특성에 따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였으나 작전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동해안 지역은 발달된 횡격실 능선과 종적 도로망의 제한, 협소한 기동공간 등으로 인해 공격보다는 방어에 유리한 지역으로, 특히 해상과 산악지역을 통한 특수전부대의 침투 및 상륙에 유리한 지역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6-1> 1952년 후반기 전선 상황



3. 피 · 아 상황평가 및 의도

1) 공산군측 상황평가 및 의도

(1) 작전기도 및 방침

1952년 상반기 이후에도 쌍방은 전 전선에 걸쳐 첨예하게 대치하였으나 대규모의 전면공세를 실시할 태세를 취하지는 않았다. 휴전회담장에서는 서로 유리한 휴전조건을 쟁취하려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쌍방은 그 결과를 주시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선이 교착된 상황에서 공산군 측의 병력은 날로 보강되었다. 1952년 5월 공산군은 중공군 63만 명, 북한군 28만 명 등 총 91만 명을 보유하였으며, 9월에 이르러서는 1,008,900명으로 증가되었다.[3] 결과적으로 공산군 병력은 휴전회담이 개시된 이래 10개월 동안 많은 전투손실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병력뿐만 아니라 공산군 측은 포병화력도 대폭 증강시켰다. 특히 1952년 7월~9월 사이 중공군의 포병화력 증강이 두드러졌다. 1952년 9월 중공군의 주요 무기는 1951년 7월과 비교해서 산포(山砲), 야포, 유탄포가 1,141문에서 1,493문으로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야포가 388문에서 507문, 유탄포가 347문에서 578문으로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고사포는 805문에서 988문, 무반동총은 443문에서 1,030문, 로켓포는 73문에서 162문으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중공군은 1952년 6월, 로켓발사기 3,028개, 경박격포 4,899문, 중박격포 241문, 고사기관총 2,462정을 보유하고 있었다.[4]

공산군은 포병의 증강 이외에도 1952년 7월에 520대의 전차 및 자주포로 장비한 중공군 2개 기갑사단과 북한군 1개 기갑사단 및 2개 기계화사단을 전선에 배치할 정도로 전력을 증강시켰다.[5] 아울러 운송차량은 1951년 7월 6,860대에서 1952년 6월 10,323대로 늘었고, 그 중에서 각 군단에 배속된 운송차량이 150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상이었다.[6]

한편 공군력에도 유사한 변화가 진행되어 총 500기에서 1,250기로 대폭 강화되었다. 제트전투기도 450대에서 800대로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적 공군은 북한 상공에서나마 유엔 공군 폭격기대에 대한 공대공 작전을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7]

중공군의 무기와 장비는 유엔군과 비교해 여전히 열세였지만, 작전 조건은 이미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한반도내의 교통 운송이 크게 개선되어 후방 보급과 특별 물자의 공급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제1선 부대의 식량과 탄약이 풍부해졌다. 또한 갱도를 핵심으로 하는 견고한 진지 방어체계의 형성으로 진지는 더욱 공고해졌다.[8]

1952년 8월 마오쩌둥은 정치협상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반도에 있는 중공군의 수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 타격을 가할 수 있는가? 둘째, 방어할 수 있는가? 셋째, 식량은 충분한가?"라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마오쩌둥은 첫 번째 문제는 2~3개월 내로 해결될 것이며, 두 번째 문제는 갱도진지로 방어가 충분하며, 세 번째 문제는 현재 각 사단이 모두 3개월분의 식량을 비축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9]

이러한 중국 측의 자신감은 1952년 8월 15일 중국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소련을 방문한 저우언라이가 8월 20일 스탈린과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회담에서도 확인된다. 이때 저우언라이는 중공군 작전 능력과 관련해 마오쩌둥의 다음과 같은 견해를 스탈린에게 전달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우리가 적을 격퇴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둘째, 우리가 현재의 진지를 사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금년의 상황이 우리가 이들 진지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증명해 주고 있다. 셋째, 우리가 진공을 개시하여 적을 공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과거에 우리는 우리가 7일 이상의 공격 작전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더 긴 시간의 작전을 진행할 수 있으며, 폭격을 견딜 수 있고, 견고한 갱도 진지를 구축했다"라고 말했다.[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력 증강에 기초하여 공산군은 전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추계공세작전을 준비했다. 1952년 9월 10일 덩화, 박일우, 양더즈, 간쓰치, 장원저우는 연명으로 중앙군사위원회에 전문을 보내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 우리는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적을 타격하여 새로 배치된 부대가 더 많은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방어 임무를 교대하기 전에 제39군단, 제12군단, 제68군단을 중심으로 각각 3~5개의 목표를 선택해 전술적인 연속 공격을 전개해 적의 일부를 섬멸하고 적과의 반복적인 공방전을 통해 대량의 적을 살상해야 한다. 기타 각 군단 역시 1~2개의 목표를 설정해 연합해야 하며 우리가 여러 곳에서 반격하면 적은 반드시 이에 응해 보복적으로 국부적인 공세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적을 살상하는데 더 유리하다. 반격 전투는 이번 달 20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진행할 계획이고 10월 말 방어 임무를 교대할 것이다. 이상에 대해 각 군단이 준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시를 바란다.

9월 12일 중공 중앙군사위원회는 답신을 보내 중공군 3개 군단의 방어 임무 교대 계획과 교대 전의 전술적 행동에 동의했다.[11]

⑵ 작전계획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52년 하반기 공산군은 제1선에 모두 7개 군단이 포진하고 있었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 있었다.

제19병단 예하의 제65·제40·제39군단이 예성강 하구, 구화리, 마량산, 상포방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고, 제63군단이 병단 예비대로 연안, 백천, 누천리 지역에 위치하며 서해안 방어 임무를 지원했다.

제3병단 예하의 제38·제15군단이 장군동, 효성산, 서방산, 충현산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고, 병단 예비대로 제60군단이 곡산 부근에 위치하였다.

제20병단 예하의 제12·제68군단이 아심리, 금성, 문등리 북한강 동서 지역에서 방어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제67군단이 병단 예비대로 세포리와 회양 지역에 주둔하였다.

북한군전선사령부(사령관 김광협[12]) 예하의 북한군 제3군단과 제1군단 주력이 논리(論里), 응봉, 사기점에서 동해안 포외진리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하고, 다른 4개 연대가 고성, 통천 지역 해안방어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북한군전선사령부 예비대로 북한군 제2군단이 봉현리, 화천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다. 또한 후방에는 서해안사령부 예하의 중공군 제50·제42·제64군단과 북한군 제4군단이 북쪽의 용암포에서 남쪽으로 해주 지역까지의 해안방어 임무를 담당했으며, 중공군 제9병단 사령부가 겸임하던 동해안연합사령부 예하의 중공군 제20·제27군단과 북한군 제7·제5군단이 고저, 원산, 퇴조 지역의 해안방어 임무를 담당했다. 이밖에 중공군 제47군단이 강동, 성천 지역에 주둔하며 총예비대의 역할을 담당했다.[13]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작전방침에 따라 조중연합사령부는 9월 14일 23시 20분을 기해 덩화, 양더즈, 박일우, 간쓰치, 장원저우의 연명으로 소위 '전술적 반격', 즉 추계공세 계획을 예하부대에 하달했다. 이때 하달된 명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미 제1기병사단이 여전히 일본에 주둔해 있고 한국군 제1사단이 계속해서 원래의 방어지를 지키고 있어 적이 장마 후에 우리의 측면에서 상륙을 시도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적이 우리를 향해 국부적인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둘째, 현재 우리의 정면 제1선 진지는 모두 완성됐고, 우리의 제63군단과 제64군단 일부가 이미 연안, 백천, 해주 지역에 전개했고 현재 진지 구축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비록 적이 이 지역으로 상륙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동시에 우리의 동서해안에는 현재 부분적인 영구진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10월 말 제68군단, 제12군단, 제39군단이 임무를 교대하고 휴식과 부대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어기간동안 제39군단과 제12군단은 적극적으로 몇 차례의 전술적 반격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1개 사단이 최근에 교대되었고 나머지 각 군단도 반격 경험이 적다.

셋째, 적의 가능한 국부적 공격을 분쇄하고 주도권을 확보하여 대량의 적을 섬멸하며 더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 임무를 교대하기 전에 제39·제12·제68군단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심으로 각자 3~5개의 유리한 목표를 설정하여 전술적인 연속 반격을 전개하여 적의 일부를 섬멸하고 반복적인 공방전을 통해 다시 대량의 적을 살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3개 군단의 작전을 돕기 위해 기타 각 군단 역시 각자 1~2개 목표를 선택해 반격을 진행한다. 우리가 여러 곳에서 반격하면 적은 반드시 이에 응해 보복적인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대량의 적을 섬멸할 좋은 기회이다.

넷째, 반격전 개시시간은 9월 20일부터 10월 20일 사이로 결정됐다. 각 부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목표를 선정하고 준비 정도에 따라 전투시간을 확정하라. 그러나 반드시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원칙을 지켜 공격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다섯째, 각 반격 전투에서 적을 섬멸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아래의 사항을 제안한다.

① 반드시 준비가 철저한 상태에서 공격하라. 갑작스런 공격은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반격을 담당하는 부대의 각급 보병, 포병지휘관(주 공격부대 보병의 전투부대장)은 예상 목표, 적정, 지형에 대해서 반드시 반복적인 정찰을 실시하고, 정예 병력을 투입해 적의 측후방을 관찰하여 적의 진지 구축, 병력 배치, 각종 화기(특히 곡사포)의 위치, 방어배치 등에 대해 철저하게 파악한 다음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주공격 방향(2~3개면 가능하고 가급적이면 측후방을 공격하라)과 병력의 사용(적의 포화를 단절시키고 제때에 작전에 투입하기 편하도록 제2제대는 반드시 제1제대를 바짝 따라야 한다), 화력의 배치, 포병 진지의 구축과 선정, 돌격 출발지점의 병력 대기소 구축 등을 확정하고 동시에 모래로 지역 모형을 만들거나 비슷한 지형을 선정해 예행 연습을 진행하고 각종 통신 연락 도구와 통신 방법에 대한 준비 훈련을 실시하여 전투에서 통신이 단절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인원과 무기의 배치와 각종 탄약 물자를 조정하라.

② 전투 중 보병과 포병의 합동작전이 승부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래서 반드시 주도면밀한 합동작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된 지휘체계와 여러 종류의 통신 수단을 준비해 연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포병은 적정, 지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격 계획을 수립하고 전선에 대한 관찰을 강화하고 진지를 최대한 앞으로 이동시켜 보다 효과적인 사격을 진행해야 한다(상황에 따라 먼저 적에 대한 파괴 사격을 가할 수 있음). 탄약을 절약(특히 소련식 포탄은 적게 들여와 재고가 이미 바닥남)하고, 특히 박격포 이하의 화포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위력을 발휘(제12군단은 이 방면에 준비가 잘됨)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대는 반드시 각 단계별로 각 화포의 사격 예상소모량을 작성해 사령부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라.

③ 각 군단에는 모두 일정 수량의 탱크가 배속되어 있다. 각 부대는 지형 조건에 따라 탱크의 기동 공격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보병의 돌격을 지원하거나 혹은 적 측후방을 우회하여 적의 도주로를 끊고 적의 보병과 탱크의 지원을 차단하며 우리의 젊은 탱크부대를 단련시켜라. 그러나 모두 합동작전 경험이 없으니 반드시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탱크가 출동하는 도로상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적의 대전차 화기를 소탕하도록 해야 하며, 탱크부대는 대담하고 용감하며 지혜롭게 작전에 임해야만 새로운 병과가 점차 단련되고 성숙될 수 있는 것이다.

④ 공격이 성공한 후 반드시 적의 연속 반격을 격퇴할 준비와 반복적인 공방전을 며칠 더 전개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적을 유인해 진지 밖으로 나오게 하여 대량으로 적의 인적 전력을 소모시킬 좋은 기회임을 알아야 하며 이렇게 해야 진지 전방에서 섬멸전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전에 반드시 탄약을 충분히 준비하고 예비대를 점검해야 한다. 진지를 점령한 다음 신속하게 구조물을 구축하여 지형을 바꿔야 한다. 동시에 반격이 성공한 다음 포병이 바로 전투에서 물러나는 것은 좋지 않고 보병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적의 연속 반격을 격퇴하고 소탕해야 한다(사전에 계획을 수립). 만약 공격이 실패하고 제1·제2제대가 큰 손실을 입는다면 전투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퇴각하라.

이상 각 부대의 연구를 기대하며 철저히 관철하고 실행하라. 또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으로 보고하라.[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명령에 따라 공산군은 방어작전에서 공격작전 준비로 전환했다. 덩화는 공격 작전에서 포탄의 사용을 직접 계획했다. 공산군의 공격계획은 2단계로 구분되었다. 제1단계가 9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였으며, 제2단계가 10월 6일부터 31일까지였다.[15]

⑶ 지휘관계 및 전투편성

중공군사령부는 예하에 3개 사령부(후방병참·공군·전방철도운송사령부)와 3개 지휘소(포병·공병·장갑병지휘소), 그리고 4개 병단(제3·제9·제19·제20병단)과 4개 직할

군단을 두었고, 이들은 총사령관의 지휘 및 통제 하에 있었다.

중공군과 북한군은 한반도 국경 안의 모든 작전과 이에 관계되는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조중연합사령부를 편성하고 중공군은 물론 북한군 및 모든 유격부대들을 조중연합사령부의 지휘체계 하에 두었다.[16] 따라서 모든 작전은 이 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사령관인 펑더화이(彭德懷)는 중공군 각 병단과 북한군 전선사령부에 대한, 그리고 각 병단사령관은 예하의 각 군단에 대한 지휘 및 통제를 실시하였다.

한편 북한군은 전쟁 전반을 지휘 및 통제하는 최고사령부와 총참모부를 설치하고 예하의 전선사령부를 비롯한 해군사령부 및 공군사령부와 포병사령부, 그리고 후방행정사령부와 정치국을 관장하였다.[17] 그러나 전선작전의 총괄을 담당한 전선사령부의 작전에 관한 지휘 및 통제는 조중연합사령부에 있었다. 제1선에 배치된 3개 군단, 즉 제1·제2·제3군단은 전선사령부, 서해안의 제4군단은 서해안방어사령부, 제5·제7군단은 동해안방어사령부의 지휘 및 통제를 받았다.[18]

공산군의 전투편성은 대체로 3각 개념에 의해 편성되는데, 중공군은 3개 사단으로 편성된 군단급 부대인 군(軍)이 작전의 기본단위이고, 전투단위는 3개 보병대대와 1개 포병대대로 편성된 연대급 부대인 단(團)이다. 일반적으로, 보병사단은 3개 보병연대와 포병대대, 박격포대대, 공병중대, 수색중대, 경비중대, 본부중대, 통신반과 후방근무대로 구성되었으며, 장교 1,500여 명을 포함한 10,000~12,000명의 병력을 보유하였다. 또한 주로 병단에 배속되어 운용된 포병사단은 3개 포병연대와 고사포대대, 공병대대, 경비대대, 본부중대, 통신반과 후방근무대로 편성되었고, 1,100여 명의 장교를 포함한 9,000여 명의 병력과 함께 57~155㎜ 곡사포 108문과 37㎜ 고사포 12문을 편제하고 있었다.

작전기간 중 중공군사령부는 제3병단과 제9병단(동해안사령부 겸), 제19병단과 제20병단, 그리고 서해안사령부와 총예비대 임무를 담당한 제47군단을 관장하고 있었다. 다음의 표는 1952년 8월 중공군 전투서열을 나타낸 것이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표 6-1> 중공군 전투서열

병 단	군(군단)	사 단	비 고
중공군사령부 직할	제42군	제124·제125·제126사단	서해안사령부 소속
	제50군	제148·제149·제150사단	〃
	제64군	제190·제191·제192사단	〃
	제47군	제139·제140·제141사단	중공군 총예비대
제3병단	제15군	제29·제44·제45사단	
	제38군	제112·제113·제114사단	
	제60군	제179·제180·제181사단	
제9병단 (동해안사령부 겸)	제20군	제58·제59·제60사단	
	제27군	제79·제80·제81사단	
제19병단	제39군	제115·제116·제117사단	
	제40군	제118·제119·제120사단	
	제63군	제187·제188·제189사단	
	제65군	제193·제194·제195사단	
제20병단	제12군	제31·제34·제35사단	
	제67군	제199·제200·제201사단	
	제68군	제202·제203·제204사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중공군사령부의 주요 지휘관은 작전의 총책임을 맡은 사령관 겸 정치위원인 펑더화이를 비롯하여 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인 덩화(鄧華)와 부사령관 홍쉐즈(洪學智), 한셴추(韓先楚), 천경(陳賡), 그리고 참모장인 셰팡(解方)과 정치부주임인 두핑(杜平) 등이었다. 예하 사령부 및 지휘소의 주요 지휘관은 지원군사령부 부사령관 홍쉐즈(洪學智)가 후방근무사령관을 겸임하였고, 공군사령관 류전(劉震),

전방철도운수사령관 허친녠(賀晉年), 포병지휘소 주임 쾅위민(匡裕民), 공병지휘소 주임 천정펑(陳正峰), 장갑병지휘소 주임 황후시안(黃鵠顯) 등으로서,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2> 중공군 지휘부 편성

구 분	직 책	성 명	비 고
중공군사령부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정치위원 겸임
	부사령관	덩화(鄧華)	사령관 대리 겸 정치위원 대리
		양더즈(楊得志)	제2부사령관
		홍쉐즈(洪學智)	부사령관
		간쓰치(甘泗淇)	부정치위원 겸 정치부주임
	참모장	셰팡(解方)	
후방병참사령부	사령관	홍쉐즈(洪學智)	중공군부사령관 겸직
	정치위원	저우춘췐(周純全)	
공군사령부	사령관	류전(劉震)	
	참모장	황웨이화(黃煒華)	
철도운수사령부	사령관 겸 정치위원	류쥐잉(劉居英)	
포병지휘소	주임	쾅위민(匡裕民)	
공병지휘소	주임	탄산허(譚善和)	
장갑병지휘소	주임	자오제(趙杰)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각 병단의 장은 제3병단 부사령관 왕진산(王近山), 제9병단장 왕젠안(王建安), 제19병단장 한센추(韓先楚), 제20병단장 쩡웨이산(鄭維山)이며, 이밖의 주요 지휘관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3> 중공군 병단별 지휘부 편성

구 분	직 책	성 명	비 고
제3병단사령부	부사령관	왕진산(王近山)	
	참모장	왕윈루이(王蘊瑞)	
제9병단사령부	사령관	왕젠안(王建安)	정치위원 겸임
	부사령관	타오용(陶勇)	
	참모장	탄젠(覃健)	
제19병단사령부	사령관	한센추(韓先楚)	
	부사령관	쩡쓰위(曾思玉)	참모장 겸임
	정치위원	리즈민(李志民)	
제20병단사령부	사령관	쩡웨이산(鄭維山)	
	참모장	샤오원쥬(蕭文玖)	
	정치위원	장난성(張南生)	

각 병단 중 제1선에 배치된 병단의 주요 지휘관을 살펴보면, 제3병단은 제15군단장 친지웨이 참모장 장윈위, 제38군단장 장융후이와 참모장 왕량타이 그리고 제60군단장 장주량과 참모장 덩스쥔이고, 제19병단은 제39군단장 우신췐과 참모장 장제청, 제40군단장 원위청과 참모장 덩웨, 제63군단장 촨충삐와 참모장 두위화, 제65군단장 샤오잉탕과 참모장 롄핑, 제20병단은 제12군단장 쩡사오산과 참모장 샤오용인, 제67군단장 츄웨이와 참모장 류수, 제68군단장 천팡런과 참모장 숭쉐페이이다.

그리고 북한내 해안방어의 통일된 지휘를 위해 설치된 해안방어사령부 중 서해안방어사령부의 사령관은 중공군 부사령관인 한센추이고 부사령관은 북한군 제4군단장 박정덕이었다. 동해안방어사령부는 제9병단이 겸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6-4> 중공군 군(단)별 지휘부 편성

병 단	군(군단)	직 책	성 명	비 고
제3병단	제15군	군 장	친지웨이(秦基偉)	
		참 모 장	장윈위(張蘊鈺)	
		정치위원	구징성(谷景生)	
	제38군	군 장	쟝융후이(江擁輝)	대리
		참 모 장	왕량타이(王良太)	부군장 겸임
		정치위원	우따이(吳岱)	대리
	제60군	군 장	장주량(張祖諒)	
		참 모 장	덩스쥔(鄧仕俊)	부군장 겸임
		정치위원	위안쯔친(袁子欽)	
제9병단 (동해안 사령부)	제20군	군 장	장이샹(張翼翔)	정치위원 겸임
		참 모 장	황차오톈(黃朝天)	
		부군단장	랴오정궈(廖政國)	
	제27군	군 장	펑더칭(彭德淸)	
		참 모 장	리웬(李元)	
		정치위원	쩡루칭(曾如淸)	
제19병단	제39군	군 장	우신촨(吳信泉)	
		참 모 장	장제청(張竭誠)	부군장 겸임
		정치위원	리쉐싼(李雪三)	
	제40군	군 장	원위청(溫玉成)	
		제1부군단장	덩웨(鄧岳)	참모장 겸임
		제2부군단장	리버츄(李伯秋)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63군	군 장	촨충삐(傳崇碧)	
		참 모 장	두위화(杜瑜華)	
		정치위원	룽다오췐(龍道權)	
	제65군	군 장	샤오잉탕(蕭應棠)	
		참 모 장	롼핑(阮平)	
		정치위원	왕다오방(王道邦)	
제20병단	제12군	군 장	쩡사오산(曾紹山)	
		참 모 장	샤오용인(蕭永銀)	부군단장 겸임
		정치위원	리전(李震)	
	제67군	군 장	츄웨이(邱蔚)	
		참 모 장	류수(劉蘇)	
		정치위원	광푸자오(曠伏兆)	
	제68군	군 장	천팡런(陳坊仁)	
		참 모 장	숭쉐페이(宋學飛)	
		정치위원	리청루이(李呈瑞)	
서해안 사령부	제42군	군 장	우루이린(吳瑞林)	
		참 모 장	랴오중푸(廖仲符)	
		정치위원	저우뺘오(周彪)	
	제50군	군 장	쩡저셩(曾澤生)	
		참 모 장	수항(舒行)	
		정치위원	쉬원례(徐文烈)	
	제64군	군 장	탕쯔안(唐子安)	
		참 모 장	마웨이화(馬衛華)	
		정치위원	황원밍(黃文明)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북한군의 전투편성 역시 3각 편제로서, 군단은 독립통신대대, 독립공병대대, 독립차량운송대대, 군단예비연대, 교육연대, 군관예비대대, 2~3개 야전이동병원과 군단보급기지로 편성되었다. 전선의 제1선 부대 중 제1·제2·제3군단은 예하에 3개 보병사단을, 그리고 제6군단은 2개 보병사단과 1개 기계화사단 및 육전여단을 두었다. 그리고 주로 해안방어를 담당한 제2선 부대인 제1군단은 3개 보병사단을, 제4군단은 3개 보병사단과 1개 기계화사단 및 육전여단을, 그리고 제7군단은 4개 보병사단과 2개 육전여단을 예하에 두었다.

또한 보병사단은 3개 보병 및 1개 포병연대, 대전차포·고사포·통신·공병·의무대대, 정찰·수송중대, 그리고 후방부로 구성되었고, 기계화사단은 2개 전차연대와 1개 포병연대, 산악포병대대와 기술보장대대, 기타 부대로 편성되었다. 육전여단은 6개 보병대대와 1개 포병대대, 120㎜ 박격포대대, 공병대대와 통신대대, 기관총중대와 정찰중대, 의무중대와 수송중대, 그리고 후방부로 편성되었다.[19]

북한군의 군단은 최고사령부 직할의 3개 군단과 전선사령부 예하의 4개 군단 등 7개 군단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군단 및 사단별 편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20]

<표 6-5> 북한군 군단별 전투서열

구 분	군 단	사 단	연 대
최고사령부	제1군단	제8보병사단	제81·제82·제83보병연대, 제8포병연대
		제19보병사단	제36·제37·제38보병연대, 포병연대
		제47보병사단	제113·제123·제124보병연대, 포병연대
	제4군단	제4보병사단	제5·제16·제18보병연대, 제4포병연대
		제5보병사단	제10·제11·제12보병연대, 제5포병연대
		제10보병사단	제25·제27·제29보병연대, 포병연대
		제105기계화사단	제1·제2·제3전차연대, 훈련연대
		제26육전여단	

	제7군단	제3보병사단	제7·제8·제9보병연대, 제31포병연대
		제7보병사단	제51·제53·제54보병연대, 제7포병연대
		제37보병사단	제74·제75·제76보병연대,
		제46보병사단	제93·제94·제95보병연대, 제66포병연대
		제24육전여단	
		제63육전여단	
전선사령부	제2군단	제2보병사단	제4·제6·제17보병연대, 제2포병연대
		제13보병사단	제19·제21·제23보병연대, 제13포병연대
		제27보병사단	제172·제173·제174보병연대, 제25포병연대
	제3군단	제1보병사단	제2·제3·제14보병연대, 제1포병연대
		제15보병사단	제45·제48·제50보병연대, 제15포병연대
		제45보병사단	제89·제90·제91보병연대, 제51포병연대
	제5군단	제6보병사단	제1·제13·제15보병연대, 제6포병연대
		제12보병사단	제30·제31·제32보병연대, 제12포병연대
		제32보병사단	제39·제40·제41보병연대,
	제6군단	제9보병사단	제85·제86·제87보병연대, 제9포병연대
		제17기계화사단	제33·제34보병연대, 제35전차연대
		제18보병사단	제20·제22·제24보병연대, 포병연대
		제23육전여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작전기간 중 북한군 주요 지휘관은 총사령관 김일성을 비롯하여 부사령관인 최용건과 후임 김웅, 총참모장 남일, 전선사령부 사령관 김광협, 후방행정사령관 최홍갑 상장 등으로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6> 북한군 주요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최고사령부	총사령관	원수	김일성(金日成)	
	부사령관	부원수	최용건(崔庸健)	7.6부 조중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김 웅(金 雄)	7. 6부
총참모부	총참모장	상장	남 일(南 一)	
전선사령부	사령관	상장	김 웅(金 雄)	
			김광협(金光俠)	7. 6부
	참모장	중장	최 광(崔 洸)	
포병사령부	사령관	-	-	
후방행정사령부	사령관	중장	최홍갑(崔弘甲)	

그리고 각 군단장은 제1군단장 이권무, 제2군단장 최현, 제3군단장 유경수, 제4군단장 박정덕, 제5군단장 방호산, 제6군단장 최용진, 제7군단장 이이법 중장이며, 각 군단 예하의 사단장과 여단장은 다음의 표와 같다.[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6-7> 북한군 군단별 주요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제1군단	군단장	중장	이권무(李權武)	전선사령부 예속
	제8사단장	소장	김봉문(金奉文)	
	제19사단장	소장	김창봉(金昌鳳)	
	제47사단장	소장	임 해(林 海)	
제2군단	군단장	중장	최 현(崔 賢)	
	제2사단장	소장	이철용(李喆用)	

	제13사단장	소장	정병갑(鄭炳甲)	
	제27사단장	소장	조 관(趙 寬)	
제3군단	군단장	중장	유경수(柳京洙)	
	제1사단장	소장	정 범(鄭 範)	
	제15사단장	소장	주 연(朱 燕)	
	제45사단장	소장	지병학(池炳學)	
제5군단	군단장	중장	방호산(方虎山)	
	제6사단장	소장	최봉준(崔鳳俊)	
	제12사단장	소장	최아립(崔阿立)	
	제32사단장	소장	김대홍(金大弘)	
제4군단	군단장	중장	박정덕(朴正德)	최고사령부 직할
	제4사단장	소장	송덕만(宋德萬)	
	제5사단장	소장	이덕원(李德原)	
	제10사단장	소장	이방남(李芳南)	
	제105기계화사단장	소장	강주필(강주필)	
	제26육전여단장	소장	이채윤(이채윤)	
제6군단	군단장	중장	최용진(崔勇鎭)	
	제9사단장	소장	박성철(朴成哲)	
	제17기계화사단장	소장	정철우(鄭哲宇)	
	제18사단장	소장	임한식(임한식)	
	제23육전여단장	소장	오백룡(吳百龍)	
제7군단	군단장	중장	이이법(李離法)	
	제3사단장	소장	김태련(金泰練)	
	제7사단장	소장	이익성(李益成)	
	제37사단장	소장	전 우(全 宇)	
	제46사단장	소장	이 명(李 明)	
	제24육전여단장	소장	채문철	
	제63육전여단장	소장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유엔군측 상황평가 및 의도

(1) 작전기도 및 방침

1952년은 전 전선에 걸쳐 수색 및 정찰전, 간헐적인 포격전, 그리고 유엔 공군에 의한 차단폭격작전을 제외하고는 소강상태가 지속되었다. 1월 초 서부전선의 국군 제1사단이 문산 북방 두매리 고지에서, 중동부전선의 국군 제7사단이 크리스마스고지에서 적과 충돌한 것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조용하였다. 그 후에도 교착된 전선상에서 큰 전투는 없었으나 다만 피아간에 수색 및 정찰활동은 활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제8군은 적극적 방어계획의 일환으로 적 포로 획득을 목적으로 특별한 실험 작전을 실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적은 이 기간을 진지강화에 이용함으로써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밴플리트 미 제8군사령관은 불투명한 전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보다 진취적인 작전, 즉 서부전선에서 예성강-개성까지 약 30㎞ 진출하는 작전을 유엔군사령부에 건의한 바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은 휴전협상의 진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승인받지 못하였다.

당시 판문점에서는 쌍방간에 대부분의 의제에 대하여 의견이 좁혀졌으나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팽팽하게 의견이 맞섰다. 그것은 포로처리에 관한 문제로서 유엔군 측이 주장하는 자유송환이냐 아니면 공산측이 주장하는 강제송환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는 긴 협상을 통해서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52년 5월 12일 유엔군총사령관 리지웨이 대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령관으로 전임되고 그 후임으로 클라크(Mark W. Clark) 대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클라크는 제2차세계대전 후 오스트리아 진주군사령관직을 역임한 바 있으며 그때 소련측과 2년간에 걸친 협상경험을 가졌던 장군이었다. 미국정부는 클라크를 휴전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임자로 고려하고 그를 임명하였다. 총사령관에 임명되었을 때 클라크는 “승리가 아니고 조속한 휴전을 실현시키는데 노력하라는 임무가 부여되었다”고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엔군총사령관은 바뀌었지만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지 않는 전쟁양상은 그대로 지속되었다. 전선은 교착된 채 쌍방은 상대방을 크게 자극할만한 대규모 작전을 피하였다. 중공군이 진지보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 밴플리트도 전 전선에 걸쳐 진지보수 및 강화를 명령하고 특히 사격진지의 재배치와 이에 따르는 화망 구성에 역점을 두었다.

유엔군이 대규모 공세를 취하더라도 군사적 승리를 이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다시 그러한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엔군도 병력증강이 시급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유엔군측 입장은 각국 정부로부터 더 이상의 병력증원을 받기 어려웠다.

전선의 상황은 8월까지 유엔군이 공격적인 입장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9월에 접어들어 공산군 측의 수색활동이 강화되었다. 중공군은 국군 제2군단이 담당한 전 정면으로 공세를 실시하였다. 이때부터 작전의 주도권은 공산군 측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었다.

이에 밴플리트는 국군 제2군단의 좌측을 담당하고 있던 미 제9군단으로 하여금 견제작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미 제9군단은 김화 부근에서 공세작전을 실시하여 기선을 제압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의 승인을 받아 10월 14일 공격을 개시하였다.

견제공격 이외에도 유엔군사령관은 공산군 측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압력을 계획하였다. 클라크는 판문점회담이 난항을 거듭하고 전선 교착상태가 장기화되자 대규모 작전을 통하여 돌파구를 타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1952년 10월 초 미 육군참모총장 콜린즈(J. Lawton Collins)에게 휴전회담을 조속히 성립시키기 위한 군사적 압력의 필요성과 그에 따르는 대규모 군사작전계획을 건의하였다. 이 계획은 약 20일의 작전기간을 설정하고 평양-원산선을 목표로 한 지상군의 포위공격, 수륙양면 기습작전 및 공수작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 본토 내의 중요 군사목표에 대하여 해·공군이 공격을 가한다는 내용의 원대한 작전계획이었다.[22]

그러나 유엔군사령관의 군사적 압력 계획은 미국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국정부는 휴전회담을 통한 조속한 전쟁 종결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클라크의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유엔군사령관은 현 전선에서 적에 대한 '견제와 고착'을 통한 압력과 휴전회담의 조기 타결을 목표로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⑵ 작전계획

미 합동참모본부는 1952년 9월 25일자로 극동군사령관에게 공산군 측이 9월 28일에 제의할 유엔군 측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휴전협상을 무기한 휴회하도록 인가하는 동시에 공중작전을 통한 군사적 압력을 늦추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지시에서 지상공세작전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23]

대규모 지상작전을 배제한 미 합참의 조건부 지시는 10월 8일에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의 휴전협상 제안을 거부함과 동시에 9월과 10월 초에 일련의 국지공세를 취했다.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는 적이 겨울이 되기 전에 진지를 개선하려는 의도라고 파악했다.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공산군 측의 협상거부와 국지공세에 대한 대응으로 김화 북방 '철의 삼각지'의 고지군을 점령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현재 작전의 주도권이 공산군 측에 있다는 전제하에 "현 사태를 역전시키기 위하여 적으로 하여금 수세를 취하도록 소규모의 공격작전으로 아군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 매우 요망되며, 적이 쥐고 있는 주도권 아래서의 현재 아군의 방어대책은 1951년 10월과 11월의 치열한 전투 이래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게 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24] 이러한 상황판단하에서 밴플리트는 소규모 공격작전으로 '쇼다운 작전(Operation Showdown)'을 계획했다. 이 계획은 미 제9군단 정면에서 미군 2개 대대와 국군 1개 대대, 16개 포병대대, 200소티의 전투기를 동원해 김화 북방의 방어선을 개선한다는 계획이었다.[25]

밴플리트 장군은 쇼다운 작전기간을 5일간으로 상정했으며, 약 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작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에 부쳐졌으며, 전술사항의 착수 여부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시를 해당 부대에 하달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그러나 미 제8군이 쇼다운 작전을 실시하기 전에 공산군 측에서 먼저 추계공세를 개시했다. 공산군 측의 추계공세는 국군 제2군단 정면의 수도고지와 지형능선, 미 제9군단 정면의 백마고지 그리고 미 제1군단 정면의 니키고지와 테시고지 등에 일제히 집중됨으로써 전 전선에서 격전이 재현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공산군의 추계공세를 맞아 이를 물리치는 한편, 미 제9군단에게 저격능선과 삼각고지를 목표로 하는 공격을 준비시켰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은 서부전선에서 방어를, 중동부전선에서 공격을 수행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26]

⑶ 지휘관계 및 전투편성

국군과 미군을 비롯한 모든 유엔군의 작전을 지휘 및 통제하는 기구는 유엔군사령부로서 예하에 미 제8군을 편성하고 있었다. 주요 지휘관은 극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인 클라크(Mark W. Clark) 대장과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대장, 그리고 극동해군사령관 브리스코(Robert C. Briscoe) 중장과 극동공군사령관 웨이랜드(Otto P. Weyland) 대장 등이었다. 작전기간 중 유엔군사령부의 주요 지휘관 및 전투서열은 다음의 표와 같다.[2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6-8> 유엔군사령부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유엔군사령부	사령관	대장	Mark W. Clark	극동사령관 겸직
	부사령관	중장	Doyle O. Hickey	
	참모장	중장	Doyle O. Hickey	
미 제8군사령부	사령관	대장	James A. Van Fleet	
	부사령관	중장	John B. Coulter	
	참모장	소장	Henry I. Hodes	
극동해군사령부	사령관	중장	Robert C. Briscoe	
극동공군사령부	사령관	대장	Otto P. Weyland	

작전기간 중 서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1군단은 미 제1해병사단, 미 제2보병사단, 미 제3보병사단, 영연방 제1사단, 국군 제1사단으로 편성되었다. 미 제1해병사단은 예하에 제1·제5·제7해병연대와 배속된 국군 제1해병연대를, 미 제2보병사단은 제9·제23·제38연대와 배속된 프랑스대대, 네덜란드대대, 태국대대를, 미 제3보병사단은 제7·제15·제65연대와 배속된 벨지움대대를, 그리고 영연방 제1사단은 영국 제28·제29보병여단과 캐나다 제25보병여단을 예하에 두었다. 또한 국군 제1사단은 제11·제12·제15연대를 예하에 두었다. 미 제1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 오다니엘(John W. O'Daniel) 중장과 후임의 켄달(John W. Kendal) 중장을 비롯하여 미 제1해병사단장 셀든(John T. Selden) 소장과 후임 폴락(Edwin A. Pollock) 소장, 미 제2보병사단장 프라이(James C. Fry) 소장, 미 제3보병사단장 둘라네이(Robert I. Dulaney) 소장과 후임 심스(George W. Symthe) 소장, 영연방 제1사단장 카젤스(A. J. H. Cassels) 소장과 국군 제1사단장 박임항 준장 등이었다. 미 제1군단의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9> 미 제1군단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1군단	군단장	중장	John W. O'Daniel	
		중장	John W. Kendall	6. 29부
미 제1해병사단	사단장	소장	John T. Selden	
		소장	Edwin A. Pollock	8. 29부
	부사단장	준장	W. J. Whaling	
	제1연대장	대령	Walter F. Layer	
	제5연대장	대령	Richard W. Hayward	
	제7연대장	대령	Herman Nickerson, Jr.	
	제11연대장	대령	Joseph L. Winecoff	포병
	국군 제1해병연대장	대령	김동하(金東河)	배속부대
		준장	김석범(金錫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제2사단	사단장	소장	James C. Fry	5. 5부
	제9연대장	대령	Wilbur Wilson	
	제23연대장	대령	George C. Mergens	
	제38연대장	대령	William F. Kernan	
	프랑스대대	중령	Francois Borreil	배속부대
	네덜란드대대	중령	G. H. Christan	배속부대
	태국대대	중령	Oang Potikanita	배속부대
미 제3사단	사단장	소장	Robert I. Dulaney	4. 29부
		소장	George W. Symthe	10. 9부
	제7연대장	대령	James O. Boswell	
	제15연대장	대령	Dennis M. Moore	
	제65연대장	대령	William W. Harris	
	벨지움대대장	중령	B. E. M. Crahay	배속부대
영연방 제1사단	사단장	소장	A. J. H. Cassels	
	영 제28여단장	준장	J. F. M. Macdonald	
	영 제29여단장	준장	A. H. G. Ricketts	
	캐나다 제25여단장	준장	J. M. Rockingham	
국군 제1사단	사단장	준장	박임항(朴林恒)	
	제11연대장	대령	최주종(崔周鍾)	
	제12연대장	중령	정영홍(鄭永洪)	
	제15연대장	대령	김진위(金振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서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9군단은 미 제7보병사단과 미 제40보병사단, 국군 제2·제9사단으로 편성되었다. 미 제7사단은 예하에 제17·제31·제32연대와 배속된 에티오피아대대를, 미 제40보병사단은 제160·제223·제224보병연대와 배속된 콜롬비아대대를 예하에 두었다. 그리고 국군 제2사단은 제17·제31·제32연대를, 국군 제9사단은 제28·제29·제30연대를 예하에 편성하였다.

미 제9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 젠킨스(Reuben E. Jenkins) 중장을 비롯하여 미 제7사단장 렘니처(L. L. Lemnitzer) 소장과 후임 스미스(Wayne C. Smith) 소장, 미 제40사단장 허델슨(Daniel H. Hudelson) 소장과 후임 클리랜드(J. P. Cleland) 소장, 국군 제2사단장 정일권 중장, 국군 제9사단장 김종오 소장 등이었다. 미 제9군단의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10> 미 제9군단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9군단	군단장	중장	Reuben E. Jenkins	
미 제7사단	사단장	소장	L. L. Lemnitzer	
		소장	Wayne C. Smith	7. 4부
	제17연대장	대령	Royal Reynolds, Jr.	
	제31연대장	대령	Lloyd R. Moses	
	제32연대장	대령	Charles M. Mount, Jr.	
	에티오피아대대장	대령	Kebbede Guebre	
미 제40사단	사단장	소장	Daniel H. Hudelson	
		소장	J. P. Cleland	6. 3부
	제160연대장	대령	Elmer C. Leagor	
	제223연대장	대령	Louis V. Truman	
	제224연대장	대령	Hugh P. Harris	
	콜롬비아대대장	중령	Jaime Polania Puyo	
국군 제2사단	사단장	중장	정일권(丁一權)	
	제17연대장	대령	은석표(殷碩杓)	
		중령	김필상(金弼相)	11. 1부
	제31연대장	대령	김용순(金容珣)	
	제32연대장	대령	유근창(柳根昌)	
국군 제9사단	사단장	소장	김종오(金鐘五)	
	제28연대장	대령	이주일(李周一)	
	제29연대장	대령	김봉철(金鳳喆)	
	제30연대장	대령	임익순(林益淳)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동부전선은 국군 제2군단과 미 제10군단이 담당하였다. 1952년 4월 5일부로 재창설된 국군 제2군단은 수도사단, 제3사단, 제6사단으로 편성되었다. 수도사단은

예하에 제1·제26연대와 제1기갑연대를, 제3사단은 예하에 제18·제22·제23연대를, 제6사단은 예하에 제2·제7·제19연대를 두었다. 국군 제2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 백선엽 중장과 후임 유재흥 중장을 비롯하여 수도사단장 송요찬 준장과 후임 이용문 준장, 제3사단장 백남권 준장, 제6사단장 백인엽 준장 등이었다. 국군 제2군단의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11> 국군 제2군단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군 제2군단	군단장	중장	백선엽(白善燁)	4. 5부 창설
		중장	유재흥(劉載興)	7. 23부
수도사단	사단장	준장	송요찬(宋堯讚)	
		준장	이용문(李龍文)	7. 11부
	제1연대장	중령	박춘식(朴春植)	
	제26연대장	대령	이동화(李東和)	
		대령	정 운(鄭 雲)	6. 20부
	제1기갑연대장	대령	이 용(李 龍)	
		중령	최재흥(崔在鴻)	9. 3부
		중령	육근수(陸根洙)	10. 14부
국군 제3사단	사단장	준장	백남권(白南權)	
	제18연대장	대령	김덕준(金德俊)	
	제22연대장	대령	김선규(金璿圭)	
	제23연대장	대령	김태규(金泰圭)	
국군 제6사단	사단장	준장	백인엽(白仁燁)	
	제2연대장	대령	송대후(宋大厚)	
	제7연대장	대령	양중호(梁仲鎬)	
	제19연대장	대령	송호림(宋虎林)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제10군단은 미 제25보병사단과 미 제45보병사단, 국군 제7사단과 제8사단으로 편성되었다. 미 제25사단은 예하에 제24·제27·제35연대와 터키여단을 두었으며, 미

제45보병사단은 제179·제180·제279연대와 배속된 필리핀대대를 두었다. 또한 국군 제7사단은 제3·제5·제8연대를, 국군 제8사단은 제10·제16·제21연대를 예하에 두었다.[28]

미 제10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 팔머(Williston B. Palmer) 중장과 후임 화이트(Issac D. White) 중장을 비롯하여 미 제25사단장 스위프트(Ira P. Swift) 소장과 후임 윌리암스(Sammuel T. Williams) 소장, 미 제45보병사단장 러프너(David L. Ruffner) 소장, 국군 제7사단장 이성가 준장과 후임 임충식 준장, 그리고 제8사단장 김익렬 준장 등이었다. 미 제10군단의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29]

<표 6-12> 미 제10군단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10군단	군단장	중장	Williston B. Palmer	
		중장	Issac D. White	8. 15부
미 제25사단	사단장	소장	Ira P. Swift	
		소장	Sammuel T. Williams	7. 18부
	제24연대장	대령	John T. Corley	
	제27연대장	대령	Gilbert J. Check	
	제35연대장	대령	Henry G. Fishir	
	터키여단장	준장	Tahsin Yazici	
미 제45사단	사단장	소장	David L. Ruffner	
	제179연대장	중령	Joseph C. Sandlin	
	제180연대장	중령	Ellis B. Ritchie	
	제279연대장	대령	Preston J.C. Murphy	
	필리핀대대장	대령	Salvador Abcede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제7사단	사단장	준장	이성가(李成佳)	
		준장	임충식(任忠植)	9. 1부
	제3연대장	대령	유의준(兪義濬)	
	제5연대장	대령	채명신(蔡命新)	
		중령	손창규(孫昌圭)	9. 15부
	제8연대장	대령	김기동(金基東)	
국군 제8사단	사단장	준장	김익렬(金益烈)	
	제10연대장	대령	신언국(申彦國)	
	제16연대장	대령	유재성(劉載成)	
	제21연대장	대령	공국진(孔國鎭)	

동부전선을 담당한 국군 제1군단은 제5사단과 제11사단으로 편성되었다. 제5사단은 제27·제35·제36연대를, 제11사단은 제9·제13·제20연대를 예하에 각각 두었다.[30]

국군 제1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 이형근 중장을 비롯하여 제5사단장 장창국 준장과 후임 김종갑 준장, 그리고 제11사단장 임부택 준장 등이었다. 국군 제1군단의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13> 국군 제1군단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군 제1군단	군단장	중장	이형근(李亨根)	
국군 제5사단	사단장	준장	장창국(張昌國)	
		준장	김종갑(金鍾甲)	8. 1부
	제27연대장	대령	오창근(吳昌根)	
	제35연대장	대령	고백규(高白圭)	
	제36연대장	대령	최재홍(崔在鴻)	
국군 제11사단	사단장	준장	임부택(林富澤)	
	제9연대장	대령	김안일(金安一)	
	제13연대장	대령	최석용(崔錫鏞)	
	제20연대장	대령	박원근(朴元根)	

제 2 절 임진강-역곡천 부근 전투

1. 개 요

임진강-역곡천 부근 전투는 1952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이 중공군 3개 군단(제65·제40·제39군단)과 전초진지 및 주요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벌인 고지쟁탈전이다.

서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1군단(군단장 Paul W. Kendall 중장)은 1952년 7월 중순 미 제9군단으로부터 미 제2사단을 배속받고 미 제45사단을 미 제10군으로 전환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1군단은 미 제1해병사단(국군 제1해병연대 배속), 영연방 제1사단, 국군 제1사단, 미 제2사단 순으로 임진강 하구에서 철원에 이르는 전선에 배치하고 미 제3사단을 예비로 두었다.[31]

미 제1군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19병단 예하의 제65군단이 개성, 제40군단이 구화리, 제39군단이 삭녕, 제60군단이 곡산, 제63군단이 배천에 예비로 집결하고 있었다. 중공군은 전초진지 방어작전을 펴면서 조중연합사령부의 전술적 반격계획에 따라 추계공세를 준비하였으며, 9월 18일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는 2개 단계로 계획된 것으로 제1단계 작전은 9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2단계는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었다.[32]

군단은 지난달까지 우익인 미 제45사단으로 소위 '카운터작전(Operation Counter)'을 전개하여 철원 서쪽 역곡천변의 주요 고지군을 확보한 뒤로 적의 역습을 받아 고지쟁탈전을 반복하기에 이르렀다. 주로 미 제1해병사단이 벙커(Bunker)고지에서, 미 제2사단이 불모(Old Baldy)고지 일대에서, 국군 제1해병연대가 사천강 일대의 전초진지에서, 국군 제1사단이 테시(Tessie)와 닉키(Nickie) 양 고지의 쟁탈전에 이어 베티(Betty)와 노리(Nori)고지에서 각각 쟁탈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불모고지(포크찹(Porkchop)고지, 티본(T-Bone)고지 포함)일대에서의 전투는 7월 중순 미 제2사단이 진지를 인수한 이후 여름 내내 계속되었다. 특히 포크찹 고지(△234)에서는 미 제2사단에 배속된 태국대대가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중공군 2개 연대의 공격을 격퇴하고 동 고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태국대대는 그 용감성을 인정받아 '작은 호랑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반면, 임진강 일대에서의 전선은 장마로 인하여 7월까지 비교적 소강상태가 유지되었으나, 장마가 끝나자 전초진지에서 다시 전투가 격화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8월에 들어 미 해병사단이 적의 공격에 맞서 분전 끝에 벙커고지를 확보하였고, 9월에 국군 해병연대가 다시 사천강변에서 격전을 수행하였다. 사천강 부근에서의 전투는 해병연대가 전투단으로 개편된 10월 초에서 11월 초까지 계속되었다.

이 기간 임진강 북방 고왕산(△355)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캐나다 제25여단은 중공군의 공격을 받아 한때 위기를 맞았으나 돌격부대의 역습으로 적을 격퇴하는데 성공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9월에 미 제3사단과 교대한 후 10월에 들면서 중공군의 제2단계 공세인 '10월 공세'를 맞게 되었다. 그리고 화살머리고지(△281)에서는 프랑스대대가 우인접인 백마고지의 국군 제9사단과 더불어 중공군 제38군단의 침공에 맞서 격전을 치렀다. 11월의 군단 정면은 대체로 소강상태였으나, 12월 초 국군 제1사단이 적의 침공에 맞서 노리 및 베티고지에서 적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전투가 전초진지를 놓고 쟁탈전을 반복하는 양상이었으므로 군단의 주진지는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벙커고지 부근 전투

벙커고지 부근 전투는 1952년 8월 9일부터 16일까지 미 제1해병사단이 중공군 제40, 제65군단과 서부전선의 벙커고지 일대에서 치룬 전투였다.

미 제1해병사단은 1952년 3월 중순에 실시된 미 제8군의 전선 재조정에 따라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에서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으로 소속이 전환되었다. 사단의 서부전선 이동은 1952년 3월 12일 미 제8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적이 장악하고 있는 개성 일대의 서부전선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김포반도를 비롯한 서부전선의 방어 취약성을 해소하고자 한 데에서 취해진 조치였다.[33]

사단은 3월 21~24일에 국군 제1사단이 담당하던 제임스타운(James town) 선상의 진지를 인수하여 미 제1군단의 좌측 사단으로서 중공군과 대치하게 되었다. 부대 전개가 완료되자 사단장 셀든(John T. Selden) 소장은 4월 10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작전계획 4-52(Operation Plan 4-52)'를 예하부대에 하달했다.[34]

① 사단은 현 진지를 정비 보수하는 한편 강력한 위력수색작전과 계획적인 파괴사격을 실시하여 담당지역 내 제임스타운(James town)선을 방어하려 한다.
② 제1연대(증강)
  ㉮ 담당지역 내 제임스타운 선을 계속 점령하고 이를 방어하라.
  ㉯ 주저항선 진지의 경계를 위해 전초진지를 점령하라.
  ㉰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철수계획에 의거해 후방진지로 철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③ 제5연대(증강)
  ㉮ 담당지역 내 제임스타운 선을 계속 점령하고 이를 방어하라.
  ㉯ 판문점 동쪽 일대를 감제하는 고지에 엄호부대를 보유하여 유엔군 휴전회담 대표들의 철수를 엄호하라.
  ㉰ 주저항선의 경계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전초진지를 점령하라.
  ㉱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철수계획에 의거해 후방진지로 철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④ 한국군 제1해병연대(증강)
  ㉮ 담당지역 내 제임스타운 선을 계속 점유 방어하라.
  ㉯ 주저항선의 경계를 위하여 필요한 전초진지를 점령하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철수계획에 의거해 후방진지로 철수할 준비를 하라.

⑤ 제1수륙양용차대대(증강 혹은 감소)는 담당지역 내 한강 동안(東岸)과 임진강 서안(西岸)을 경비하라.

⑥ 김포 임시연대

㉮ 사단 좌측을 방어하며 담당지역 내의 지원 및 통신 시설을 적의 공수부대 혹은 지상부대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라.

㉯ 제11연대와 포병화력에 관하여 협조하라.

⑦ 제11연대(증강)

㉮ 제1대대(105㎜)는 제5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 제2대대(105㎜)는 한국군 포병대대를 증원하여 일반지원하며 별명이 있으면 김포 임시연대를 직접 지원하도록 준비하라.

㉰ 제3대대(105㎜)는 제1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 제4대대(155㎜)는 일반 지원하라.

㉲ 제1 4.5″로켓중대는 일반 지원하라.

㉳ 탄약 제한량 내에서 적의 진지 및 일원에 타격을 가하라.

⑧ 제1전차대대

㉮ 주저항선 각 연대에 각각 1개 중대로서 직접 지원하고 적의 기갑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라.

㉯ 한국군 해병대의 임시 전차중대를 훈련하여 별명이 있을 때 한국군 제1해병연대를 지원하도록 준비하라.

㉰ 전차 1개 중대를 임진강 남방 예비대와 같이 위치시켜 훈련하라.

㉱ 제11연대와 협조하여 적 시설 및 활동에 대한 계획적 파괴사격을 가해 방어를 지원하라.

⑨ 제1공병대대

㉮ 주저항선 연대에 도로사용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개설 보수하라.

㉯ 주저항선을 점령 중인 각 연대에 대하여 1개 공병중대로서 직접 지원하라.

㉰ 철수 계획에 의거 교량을 파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⑩ 제1 SP대대(감소)는 별명이 있을 때 김포 임시연대에 임시로 1개 소총중대를 차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⑪ 제1병기대대

㉮ 별명이 있을 때 탄약 보급소를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별명이 있으면 임시 1개 소총중대를 제1수륙양용차대대에 배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⑫ 제161헬리콥터중대(증강)

㉮ 주야를 불문하고 수송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 별명이 있으면 기타 전술 및 병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⑬ 사단 예비대(제7연대)는 별명이 있으면 예비 진지인 와이오밍선 및 캔자스선을 점령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⑭ 협조지시

㉮ 중립지대 제한 조치를 준수하라.

㈏ 사단 지역 내에서 계획이 없는 사격연습은 금한다. 후방 지역에서 고탄도(4.2″중박격포 등) 화기의 연습은 실시 3일전까지 보고하라.

㈐ 최전선에 연하여 후사면에 대공표지판을 표시하여 아군 항공기를 지원하라.

㈑ 임진강 후방의 모든 주민을 철수시켜라.

⑮ 행정명령 52-4 및 통신예규를 참조하라.

⑯ 사단 CP는 용지리에 위치한다.

이 명령에 따라 미 제1해병사단은 8월까지 국군 제1해병연대와 예하 3개 연대를 주기적으로 교대하면서 주저항선에 대한 방어에 주력하였다. 사단의 책임지역은 김포-판문점-사미천에 이르는 약 60㎞였다. 사단이 점령한 주저항선은 중공군이 점거한 대덕산(△236) 일대의 고지군에서 대부분 감제되는 해발 150m 정도의 낮은 구릉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가운데에서 판문점 동남쪽 5㎞ 지점의 백학산(△229)이 유일한 고봉으로 주진지상의 요충지였다. 사단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전방에 견고한 전초진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8월 초 사단의 배치는 서쪽에서부터 국군 제1해병연대, 미 제1해병연대, 미 제5해병연대 순이었으며, 미 제7해병연대가 예비로 있었다.[35]

미 제1해병사단 정면의 적은 중공군 제65군단 예하 제194사단 제180연대와 제40군단 예하 제118사단 제352, 제354연대였다. 당시 중공군 제65군단은 예성강 하구에서 판문점까지, 제40군단은 판문점에서 구화리까지의 전선을 담당하고 있었다.[36]

서부전선으로 이동한 이후 미 제1해병사단이 치룬 가장 격렬한 전투는 8월 9일 미 제1해병연대 제2대대 지역에서 적의 기습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01:00시 경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대덕산 남동쪽 2㎞ 지점의 120고지와 110고지 일대에서 접근한 1개 소대 규모의 적이 제2대대 제E중대의 전초진지인 58ABLE(이하 '58A')고지를 공격했다.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은 증강된 1개 분대 규모의 미 해병은 이렇다할만한 교전도 못한 채 접적이 있은 지 45분 만에 주저항선으로 철수하였다. 적은 58A 전초진지를 일거에 유린한 다음 계속해서 주저항선까지 밀고 내려왔다.

제2대대는 제11포병연대에 탄막사격을 요청하여 이를 격퇴함과 아울러 E중대로 하여금 역습을 전개하도록 했다. 중대는 즉시 역습소대를 편성,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04:00시에 역습을 개시했다. 역습소대는 신속한 기동으로 목표지점에 접근하고자 했으나 지형의 불리와 사계의 불량으로 인해 목표 탈환에 실패하고 05:45분 경에 주저항선으로 철수하였다.[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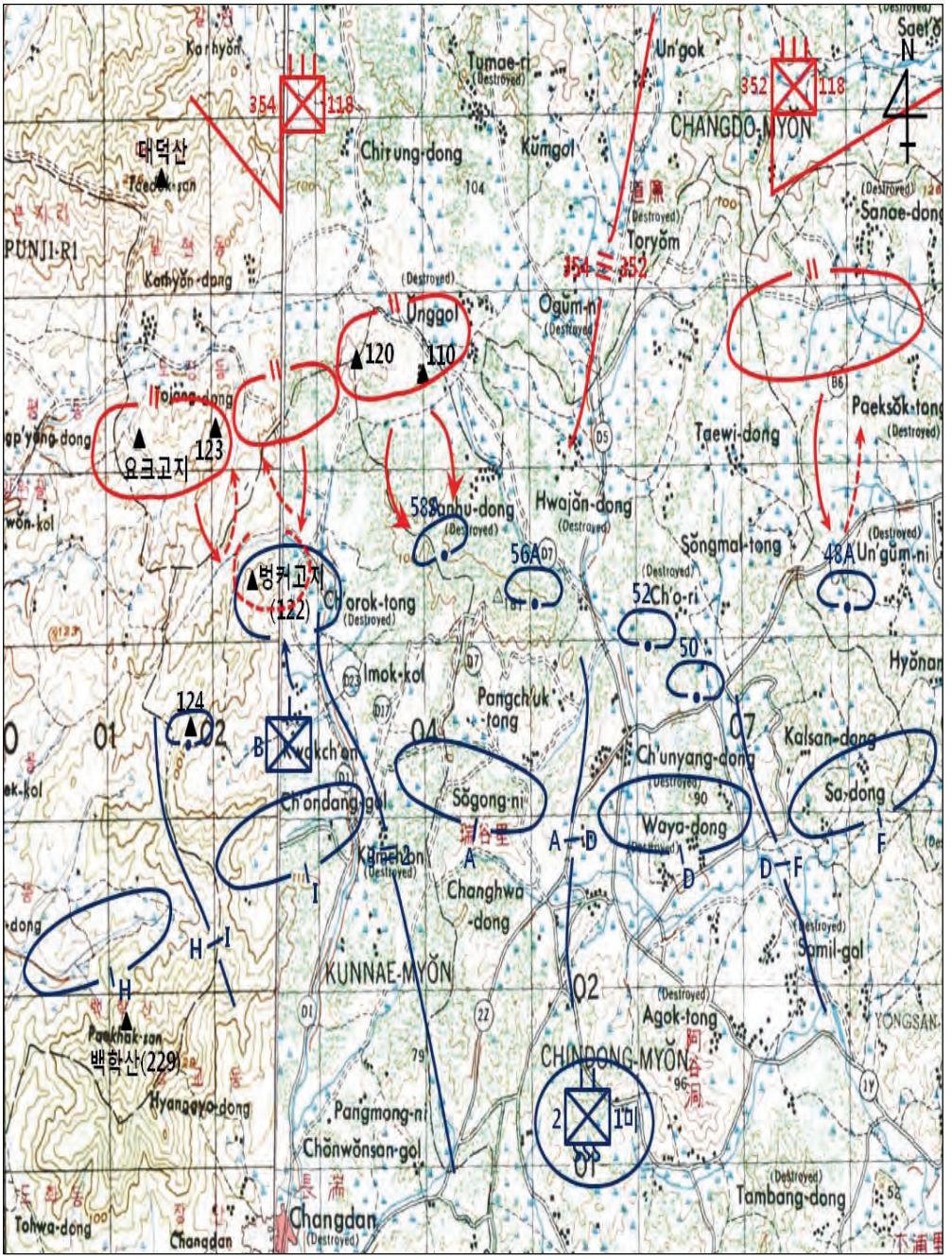
E중대의 역습이 실패하자 사단에서는 목표지점에 대해 항공 폭격을 유도하고 포격을 집중했다. 항공폭격은 해병과 공군의 항공기들이 동원되었다. 06:45분 경 해병 F9F기가 58A 전초진지에 네이팜탄과 500파운드의 폭탄을 투하했으며, 3시간 후에는 미 공군 F80 제트기가 1,000파운드의 폭탄을 투하했다. 항공기의 폭격이 끝난 후에는 포병이 목표지점에 대해 5분간에 걸쳐 포격을 실시했다.[38]

곧이어 10:00시 경 연대예비인 제1대대의 A중대에서 차출된 증강된 1개 소대가 E중대 1개 소대의 지원을 받아 두 번째 역습을 감행했다. 역습부대는 목표고지 남쪽으로 진출하여 치열한 총격전을 전개하면서 일진일퇴를 거듭한 끝에 11:05분 경 전초진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제2대대장은 즉시 방어망 보강을 위해 E중대 지원소대를 전방으로 추진시켰다. 그러나 이 증원부대가 58A고지에 도착하여 참호를 파기도 전에 적의 맹렬한 포격과 박격포탄 공격이 집중되었다. 적의 포탄이 빗발치자 해병들은 고지 남쪽의 경사진 지형으로 일단 후퇴하고 대대에 포병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아간에는 치열한 포격전이 전개되었다. 이 전투에서 적은 약 5,000발의 포탄을 고지에 집중시켰다. 미 해병들은 큰 손실을 입고서 주저항선으로 또다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차례의 공격이 무위로 돌아가자, 연대장 레이어(Walter F. Layer) 대령은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은 제2대대 E중대를 제1대대 A중대와 교대시키는 한편 제1대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6-2> 벙커고지 전투



C중대로 하여금 야간 역습을 감행하여 58A고지를 탈환하도록 명령하였다. C중대는 날이 저물기 전에 제1대대 예비중대 진지를 출발하여 제2대대 후방의 집결지에 도착한 후 22:45분에 주저항선을 통과하였다. 중대는 58A고지 동남쪽 약 500m 지점에 위치한 56A고지(일명 '사모아') 쪽으로 우회하여 우측방에서 58A고지를 기습하고자 하였다.[39]

제1대대 C중대는 8월 10일 01:05분에 일제히 돌격을 감행하였다. 진지에 돌입한 병사들은 적과 격렬한 백병전을 전개하여 목표를 탈환하였으나, 중대 병력으로 증강된 적의 반격을 받아 다시 주저항선으로 철수하였다.

결국 58A고지는 미 해병대가 이틀간에 걸쳐 3차례의 공격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초기전투에서 미군이 58A고지를 적에게 빼앗긴 가장 큰 이유는 이 고지가 적으로부터 감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3차에 걸친 쟁탈전에서 아군이 탈환하는 경우에도 즉시 적의 포격에 노출되어 많은 희생자를 내고 즉시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 제1해병연대는 적이 58A고지를 감제하는 전초고지인 서남방 1㎞ 지점에 위치한 벙커고지(△122)를 확보해야 했다.

연대는 새로운 공격목표로 벙커고지를 선정하고 이 고지를 확보하기로 계획하였다.[40] 연대가 벙커고지를 주요 공격 목표로 삼은 것은 이 고지를 확보하면 적의 후방을 깊숙이 관측할 수 있다는 점, 58A고지와 56A고지 등 적의 주요 전초진지를 중립화시킬 수 있다는 점, 벙커고지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아군의 주저항선을 보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41]

8월 11일 미 제1해병연대는 제2대대장의 작전지휘아래 B중대가 주공, D중대가 조공의 임무를 띠고 벙커고지에 대한 기습공격을 시작하였다. 이 공격에서 B중대의 선두소대가 적의 경미한 저항을 제압하면서 고지 정상까지 돌진하여 적과 치열한 접전을 전개하는 동안 다른 소대가 고지 우측에서 적을 격퇴함으로써 다음날(12일) 02:30분 경에 고지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다.

B중대는 선두소대가 122고지 정상을 탈환하자 노무대원을 배속받아 참호보강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5:00시 경 적의 집중적인 포격을 받아 많은 사상자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발생하고 진지마저 파괴됨으로써 부득이 동측방으로 이동하였다. 적은 계속해서 19:00시 경에 2개 중대 규모로 B중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중대는 다행히 I중대의 지원으로 적의 공격을 격퇴하였으나 이날 야간 전투에서 34명이 전사하고 29명이 부상을 당하는 손실을 입었다.[42]

미 제1해병사단장은 벙커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1개 정찰소대를 벙커고지 서남쪽 1㎞ 지점의 124고지에 배치하고 사단 보충대 전 병력을 제1해병연대 지역에 투입하였다. 또한 제7해병연대 제3대대 잔여 병력을 제1해병연대 제3대대에 배속시키는 한편, 제1연대 각종 지원포와 기관총을 122고지 능선에 대한 탄막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때 사단에 배속된 노무대원(KSC)이 동원되어 진지보강에 필요한 자재들을 고지로 추진하고 참호 보강 공사를 지원하게 되었다.

적은 8월 13일 자정부터 공격을 재개하였는데, 벙커고지 동쪽 제2대대 F중대의 전초진지(48A고지)와 주저항선에서 격전이 전개되었다. 해병들은 박격포 등의 지원을 받으며 주저항선을 돌파하려는 적의 공격을 진지 앞에서 물리치면서 끝내 진지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F중대장은 1개 소대를 투입하여 48A고지를 포위한 적을 격퇴시켰다.

48A고지에서 F중대가 결전을 벌이는 동안 벙커고지 서남쪽에 위치한 제3대대 I중대도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01:30분 경 1개 대대 규모의 적이 I중대 진지에 포격을 가한 후 공격을 개시했다. 중대는 우일선과 중앙에서 치열한 접전을 전개하였으며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져 갔다.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자 제3대대장은 각각 제5, 제7해병연대에서 증강된 병력들을 벙커고지에 투입하여 방어선을 틀어막으면서 적과 최후의 결전을 벌였다.

미 해병의 효과적인 증원과 포병연대 및 전차부대의 화력지원으로 인해서 벙커고지 정상 주변의 사태는 점차 호전되었으며, 마침내 제1해병연대가 주축이 된 미 해병은 적을 격퇴하였다. 이날 정오 무렵 제7해병연대 제3대대 H중대가 벙커고지 인수명령을 받아 교대를 시작하였으며, 연대의 나머지 증원부대는 이날 오후 원래의 위치로 복귀하였다. 이날 전투에서만 제1해병연대는 적 사살 470여 명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부상 635명의 전과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연대도 31명의 전사자와 25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벙커고지에 대한 적의 공격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계속되었는데, 이 시기 적의 공격은 먼저 소규모 특공부대에 의한 침투를 실시하고 이어서 돌파된 아군 방어진지에 대한 증강된 공격 순서로 진행되었다.

적은 8월 14일 미명 58A고지 서북쪽에서 벙커고지로 기관총사격을 집중하면서 소대 규모로 벙커고지를 공격했으나 즉각 격퇴되었다. 제3대대장은 제1대대 A중대로부터 1개 소대를 지원받아 동 고지의 방어를 강화하였다. 또한 8월 15일 01:00시 경에는 벙커고지 서쪽으로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후 교전이 124고지-벙커고지 일대로 확대되었다. 적은 H중대의 방어망을 돌파하고자 집요하게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아군의 야포와 전차포의 강력한 화력에 밀려 04:00시 경 완전히 격퇴되었다. 오전에 H중대는 제1연대 제1대대 B중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주저항선으로 복귀하였다. 그리고 이날 자정 무렵에는 적이 벙커고지 북쪽에서 협공을 시도하였다. B중대는 계속된 적의 파상공격에 방어진지 일부를 돌파당하기도 했으나, 증원된 제7해병연대 제3대대 I중대와 더불어 16일 03:15분 경까지 치열한 백병전을 전개해 마침내 적을 격퇴하는데 성공하였다.[43]

결국 미 제1해병사단은 8월 9일부터 16일까지 벙커고지에 가해진 7차에 걸친 적의 공격을 혈전 끝에 성공적으로 격퇴하여 전초진지를 지키고 주진지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전투에서 미 제1해병사단은 적의 공격이 집중된 제1해병연대에 사단 예비대와 인접 연대의 예비 병력까지 지원하여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사단은 아군이 강력한 포병지원과 적절한 항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 결과 아군은 적의 집요하고도 축차적인 공격을 격파할 수 있었다.

벙커고지 전투는 비록 낮은 전초진지를 차지하기 위한 공간상으로 제한된 소규모의 전투에 불과했지만, 적은 전사 580명, 부상 1,500여 명의 피해를 입었고, 미 해병도 전사 92명, 부상 529명의 희생을 치룰 정도로 격렬하고 치열한 전투였다.[4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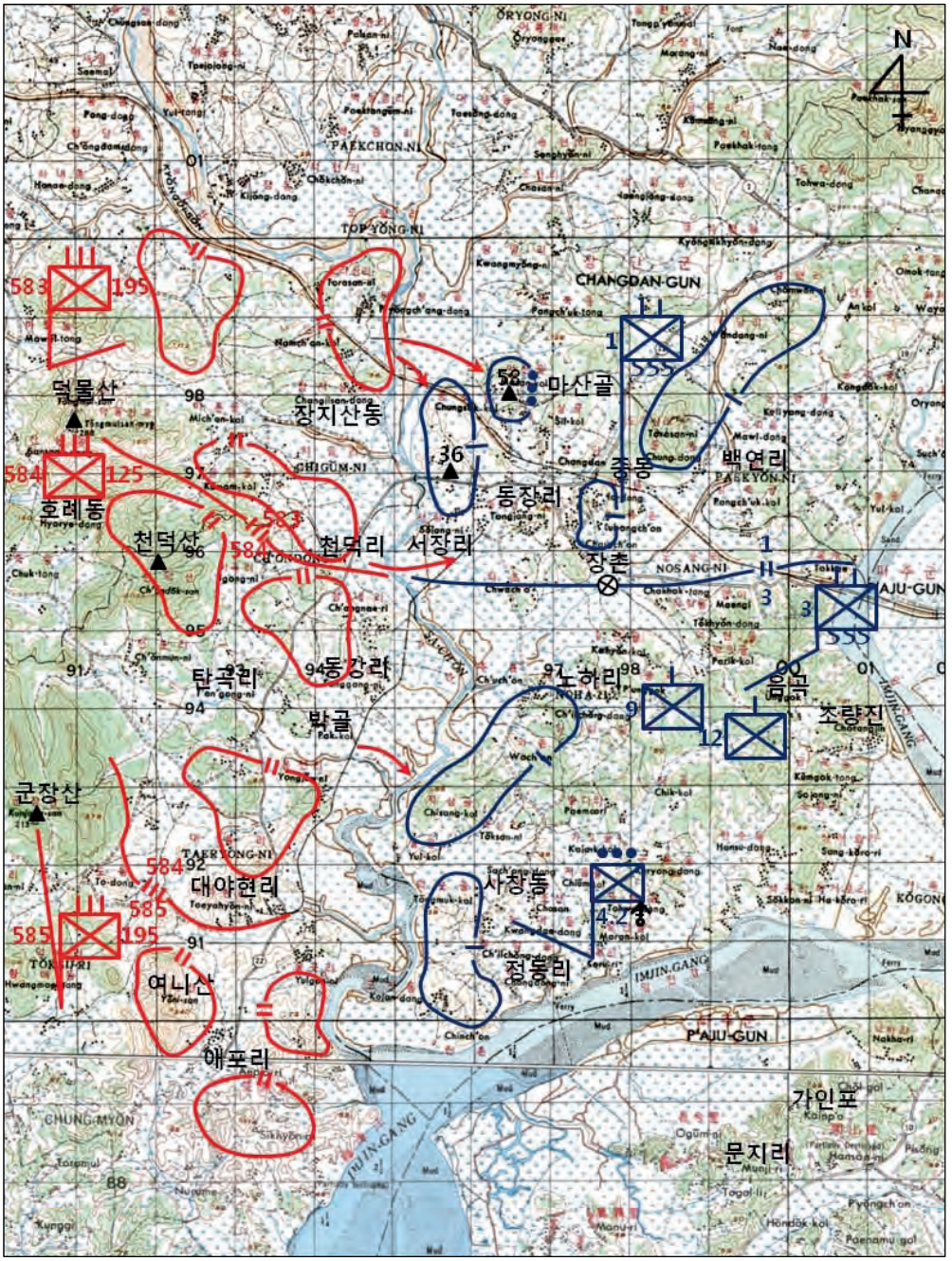


벙커고지 전투 중 유엔공군기의 폭격

3. 사천강 전투

사천강 전투는 미 제1해병사단에 배속된 국군 제1해병연대가 임진강 하구에서 판문점까지 11km에 달하는 연대의 주저항선 전방의 8개 전초진지에서 중공군과 대결한 방어전투였다.

<상황도 6-3> 사천강 부근 전투 상황



미 제1해병사단이 판문점 동남방 임진강 유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사단 방어지역 서쪽에 위치한 사천강 일대에서는 국군 제1해병연대가 지난 4월에 이어 재차 격전을 전개하게 되었다.[45] 당시 국군 제1해병연대는 1952년 3월 중순이래 미 제1해병사단 좌일선 부대로서 임진강 하구에서부터 판문점 남쪽까지 약 11km에 이르는 주저항선과 김포반도를 방어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제1해병연대는 제1대대와 제3대대를 사천강 동쪽에 배치하고 제2대대를 예비대로 확보하고 있었다.[46]

사천강을 사이에 두고 국군 제1해병연대와 대치한 적은 중공군 제65군단 예하 제195사단으로서 천덕산(△203)을 경계로 하여 제583연대를 국군 제1해병연대의 우일선 부대인 제3대대 정면에, 제584연대를 좌일선 부대인 제1대대 정면에, 그리고 제585연대를 사천강과 임진강의 합류 지점 부근에 각각 배치하고 있었다.[47]

제1해병연대가 점령하고 있던 사천강 동쪽은 도라산리의 155고지[48]를 제외하고는 모두 표고 50m 미만의 구릉과 전답으로 이루어진 개활지이며, 임진강을 배후에 두고 있었다. 반면에 중공군이 점령한 사천강 서쪽은 여니산(△241)-김장산(△278)-천덕산(△203)-덕물산(△288) 등의 횡격실 고지군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중공군은 전술상 양호한 고지군을 점유하여 강 동쪽의 아군 전초진지와 주저항선 일대의 개활지를 감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형상의 이점에 더하여 적은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풍부한 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진지와 화력을 보강하고 모든 진지를 거점화하였다. 중국 공간사에 의하면, 이때 중공군은 이미 진지를 공고히 하고 보급선을 유지했으며 무기와 장비, 특히 포병 화력이 증강되었고 부대의 사기도 매우 높았다고 한다.[49]

작전지역은 대체로 7월~8월 사이 강의 수위가 높아져 사천강의 도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대가 낮고 진흙땅이어서 부대기동이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피·아는 공히 포격전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다가 9월에 이르러 기후와 지형의 제약이 해제되자 피·아는 그간의 전선 소강상태를 깨고 연일 강력한 화력 지원하에 기습과 정찰을 계속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1해병연대장 김석범(金錫範) 준장은 8월 말부터 사천강이 도섭 가능하게 되자 주저항선 부대로 하여금 전초진지를 강화케 하였다. 그러던 중 9월 6일 18:00시 적이 대대 전초진지에 포탄을 집중하면서 증강된 1개 중대규모가 기습적으로 사천강을 도하하여 마산동에 있는 제10중대의 전초진지를 포위하였다.[50]

중대 전초진지는 사천강 도하지점에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적진으로부터 1km 내에 위치하고 연대 주저항선으로부터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날 기습 공격을 감행한 적은 그동안 제3대대와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던 중공군 제584연대 제2대대였다.

최초 적은 연대 주저항선 일대와 제10중대 지휘소 및 대대 관측소 등을 포격하여 교란시키고 전차와 자주포가 대안에 출현하여 도하부대를 엄호하였다. 아군은 전초진지가 적의 지근거리에서 감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화기엄체호와 개인호, 포진지 등을 모두 이중으로 구축하여 포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

도하한 적이 제2소대의 혼비고지(36진지)를 포위하자 중대장은 도섭지점에 배치된 잠복조를 비롯한 수개의 잠복정찰조를 철수시키고 사주방어로 진지를 고수하도록 하는 한편 연대에 화력지원을 요청하였다. 곧이어 적의 일부가 교통호까지 돌입하자 피아간에는 수류탄 투척에 이어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수적으로 우세한 적이 진지 일각으로 진출하자 중대장은 진내사격을 요청하였다.

잠시 후 전초 진지상에 VT탄의 탄우가 집중되자 진내를 장악하려던 적은 순식간에 많은 사상자를 내고 우왕좌왕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지하호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해병들이 일제히 돌격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적은 수차에 걸친 파상공격에도 불구하고 36진지를 점령하지 못하자 공격목표를 제1소대의 37진지로 수정하였다. 제1소대는 적이 진전에 나타날 때마다 최후저지사격으로 저지하였고 포 지원사격으로 적의 집결지와 진입로를 차단하였다. 결국 37진지를 공격하던 적은 그동안의 전투에서 많은 전력을 소비하였음인지 분산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연대는 적이 양개 전초진지를 점령하지 못하고 퇴각하려는 기색이 보이자 36진지와의 연계와 아울러 아직 포위하고 있는 잔적을 격멸하기로 하고 제9중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로 하여금 역습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미 제1해병사단은 155mm포 지원을 계속하면서 양개의 전초진지를 반드시 확보하라는 명령을 연대에 하달하였다. 이는 만약 연대가 진지를 함락당한다면 주저항선이 위협을 받아 임진강까지 철수해야 하고 인접 부대 작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51]

이러한 혼전 상황에서도 고지의 병사들은 끝내 진지를 사수하고 있었다. 제9중대장은 9월 7일 03:00시 경 전차 1개 소대의 지원하에 1개 소대를 역습부대로 편성하여 36고지로 투입하였다. 역습부대는 잔류부대와 함께 잔적을 소탕하는 한편 36고지 전방까지 진출하여 사천강 일대로 분산 퇴각하는 적에게 위협사격을 가하였다. 이후 이 고지는 적을 혼비백산시켰다고 하여 '혼비(魂飛)고지'라고 불리게 되었다.

대대는 36진지에서 적을 격퇴하자 곧 진지방어에서 큰 손실을 입은 제10중대를 제11중대와 교대시키고 다시 전초진지를 구축하고 장애물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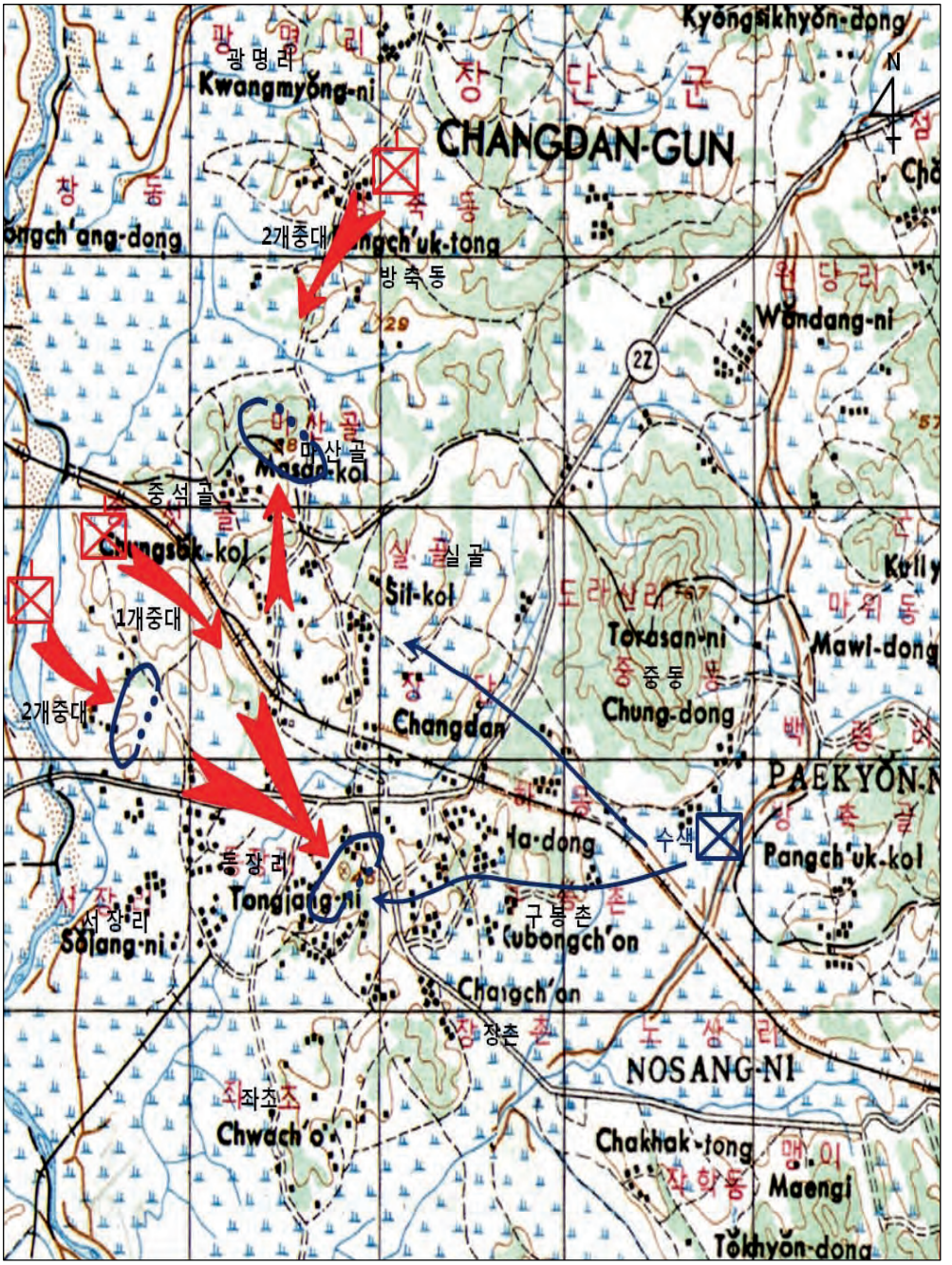
적은 그 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간에 기만전까지 벌이면서 9월 19일 18:00시에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재공격을 감행하였다. 적은 이날 15:00시에 혼비고지(36진지) 전방에서 소부대를 도하시켜 양동작전을 전개한 후 18:30분경에 주저항선 일대에 포격을 가하고 주공지역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초진지(36-37-33-31)에 전차포격을 집중하면서 2개 중대 규모로 파상공격을 전개하였다.

이 공격은 1952년 중공군의 추계공세 제1단계 작전에 따른 것이었다. 중공군은 9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통일된 배치와 방침에 따라 제39군단, 제12군단, 제68군단을 위주로 유엔군에 대해 공격을 개시했고 제65군단, 제40군단, 제18군단과 북한군 제3군단, 제1군단도 목표를 선정해 공격을 개시했다. 이를 두고 중국의 공간사는 "마치 들 전체에 꽃이 피듯이 전 전선에 걸쳐 전술적 반격이 전개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52]

국군 제1해병연대장은 미리 계획되어 있던 야간기습작전을 중지시키고 제3대대 방어병력을 증강시켰다. 제3대대는 제9, 제10중대에 측후방을 엄호하도록 하고 제11중대에 접근 중인 적에게 일제사격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곧이어 적은 36진지에 주공을 지향하여 결사적으로 육박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6-4> 사천강 36-58고지 전투



19:30분 경 적은 증원부대와 합세하여 쏟아지는 포격을 틈타 필사적으로 진내에 육박하였으며, 진내에서는 대낮처럼 밝힌 조명탄 하에서 처참한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적의 도하부대는 연대의 포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원되어 36진지를 사방으로 포위하였고 수차례의 파상공격으로 진지를 점령함으로써 전투의 양상은 호 내와 호 외의 대결이 되었다.

결국 36진지 상에는 또 한번의 VT탄 진내사격이 실시되었으며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적은 많은 손실을 입고 분산되었다. 그러나 잠시 후 적은 다시 병력을 증원시켜 진내 벙커를 파괴하면서 진지 일각에 압력을 가하였다.

대대장은 즉시 역습부대를 편성하여 36진지로 출동시켰다. 9월 20일 01:00시 역습부대는 포 지원사격하에 돌격하여 진지 외곽을 포위한 적과 백병전까지 전개하여 마침내 적을 구축하였다.

잠시 후 사천강 도하지점이 아군 포격으로 봉쇄되자 적은 강력한 포 지원사격하에 부대를 재편하여 다시 36진지를 공격하였다. 미처 진지를 재편성하기도 전에 적으로부터 불의의 공격을 받은 역습부대는 8시간 이상의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진지를 적에게 내어주고 말았다. 이때 연대에서는 사천강 도하지점 일대에 포격을 집중하였고 미 해병 전폭기가 적의 집결지를 강타하여 증원부대를 차단하였다.

10:00시 경 연대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진지 탈환 명령을 받은 제3대대는 전차 2개 소대의 엄호하에 제9중대를 투입해 반격에 나섰다. 이때 아군의 전차포와 105mm포, 그리고 4.2″중박격포가 36진지 일대에 일제히 포격을 가했다. 중대는 전차 1개 소대를 선두로 보·전 협동 돌격을 개시하였다. 중대는 적의 집중적인 포화를 헤치며 진지 앞까지 진격하였다.

이때 공격부대를 지원하는 전폭기가 두 차례에 걸쳐 적의 진지와 도하지점에 네이팜탄과 VT탄을 작열시켜 적의 증원부대를 차단하고 포진지를 침묵시켰으며, 공격부대와 같이 진격한 전차는 적진에 직격탄을 퍼부어 대안의 적 전차와 자주포를 제압하였다. 공격부대는 14:00시 경에 36진지를 재탈환하였다. 이와 같이 연대는 그동안 인해전술과 포격으로 사천강의 전초진지를 점령하여 사단 주저항선을 위협하려던 적의 기도를 끝내 좌절시켰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후에도 연대는 주저항선 일대와 전초진지 일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공격을 감행하는 적을 격퇴하였다. 연대는 10월 2일 중공군의 제1차 추계공세의 마지막 대규모 공세를 격퇴하였다.[53] 또한 연대는 중공군의 제2차 추계공세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적으로부터 전례 없이 치열한 집중포격과 전초진지 일대의 공격을 받아 일시 진지의 일부가 피탈되는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과감한 역습을 전개하여 끝내 진지를 고수하였다.[54] 연대는 그동안의 전투에서 약 1,550여 명의 중공군을 사살하고 아군 전사 66명, 부상 262명의 희생을 입으면서 진지를 고수하였다.

국군 제1해병연대가 점령하고 있던 사천강 동쪽의 장단지역은 개성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1번 국도의 방어를 위한 요충지였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휴전시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한다는 휴전회담의 방침에 따라 아군으로서는 수도권의 방어에 전초가 되는 지역이었다. 반면에 적에게는 최소한 임진강까지의 진출에 발판이 되는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이곳의 전초진지를 놓고 피·아는 피나는 쟁탈전을 되풀이 하게 되었던 것이다.[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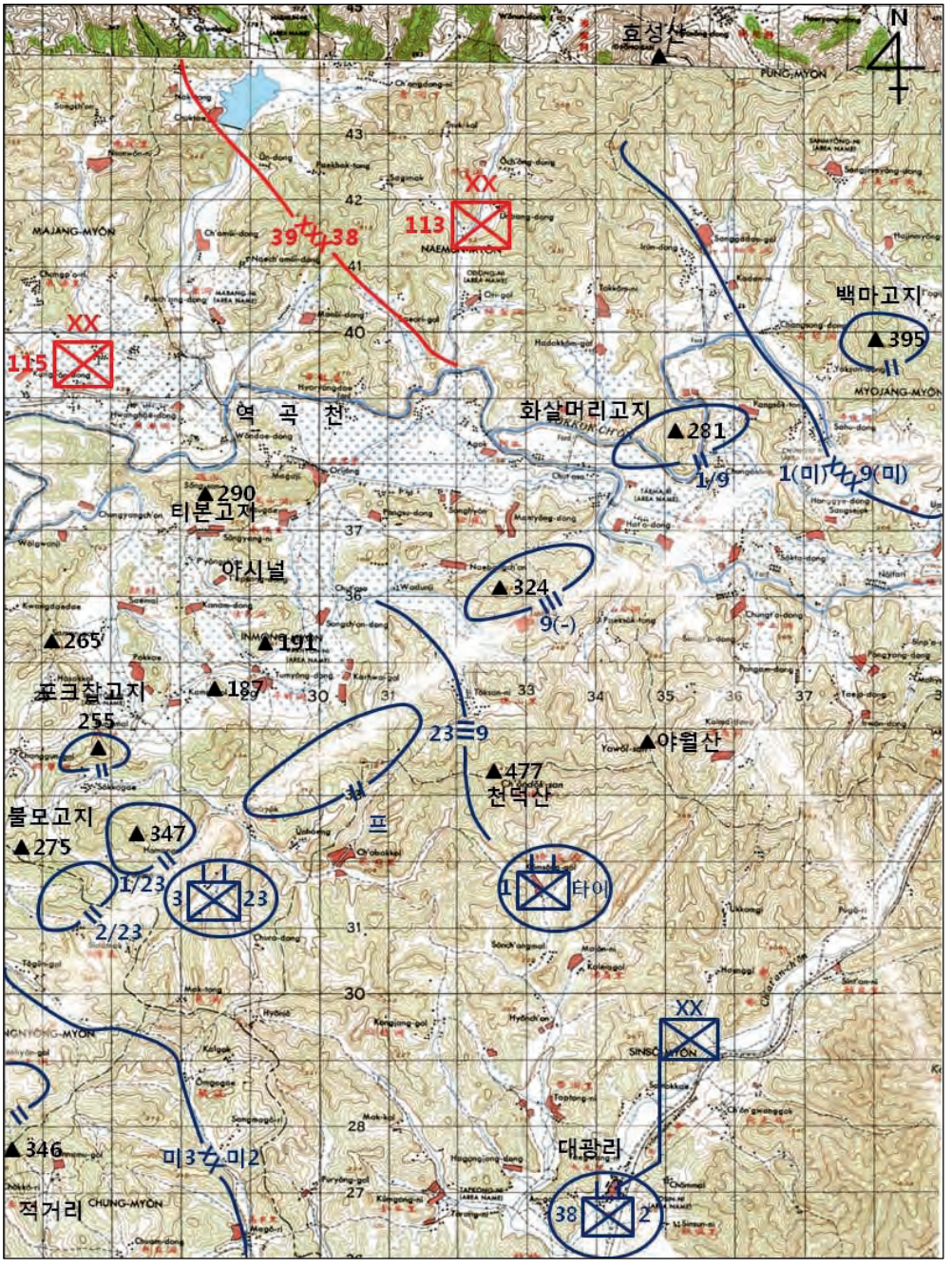
4. 불모고지 부근 전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불모고지 전투는 연천 북방의 천덕산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미 제2사단이 7~10월 중공군 제38군단과 제39군단 예하의 병력으로부터 역습을 받았을 때, 사단의 11개 전초진지 중 하나인 불모고지에서 적의 역습을 저지해낸 방어전투였다.

미 제9군단 예비대로 있다가 미 제1군단으로 배속된 미 제2사단은 1952년 7월 17일 군단 서쪽 지역을 담당하던 미 제45사단으로부터 덕은동-281고지 일대의 역곡천 남쪽 주진지와 전초진지를 인수하기 시작하였다. 사단장 프라이(James C. Fry) 소장은 제23연대(프랑스대대 배속)를 좌일선 역곡천 동안 진지에, 제9연대(태국대대 배속)를 우일선 동광리 동쪽 천덕산 일대의 진지에 배치하였으며, 제38연대 제3대대와 네덜란드대대를 예비대로 확보하였다.[56]

<상황도 6-5> 불모고지 부근 상황



미 제2사단이 작전지역을 인수하기에 앞서 미 제45사단은 6월의 '카운터작전(Operation Counter)'으로 역곡천 남안에서 적을 격퇴하고 방어에 유리한 전초진지를 확보하였다. 당시 제45사단장 데이비드 러프너(David Ruffner) 소장은 북쪽의 고지군을 장악하고 있는 중공군 진지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제45사단은 6월 6일부터 카운터 작전을 시작하여 중공군이 점령하고 있던 14개의 전초진지를 탈취하였다.

이 고지들이 후에 '불모고지(Old Baldy)', '포크찹고지(Porkchop Hill)'라고 명명되었다. 이 작전의 승리로 러프너 장군은 공세를 고지의 동북쪽 계곡 건너편의 에리(Eerie)고지까지 확대하였으며, 결국 미 제2사단은 이 고지마저 확보하였다.[57] 미 제45사단은 6월 말까지 20차례가 넘는 적의 공격을 격퇴시켰다. 사단은 6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전투에서 약 3,500명의 중공군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린 것으로 추정되었다.[58]

목표는 확보되었지만 이를 되찾으려는 중공군의 역습은 끊이지 않았다. 7월 초 며칠간의 소강상태를 보이던 이 지역의 전투는 7월 중순에 다시 격화되었다. 중공군은 미 제45사단과 제2사단의 교체시기에 맞춰 공격을 개시하였다. 따라서 사단의 전초진지인 불모고지(△266)-포크찹고지(△255)-에리고지(△191)에서는 매일 공방전이 되풀이 되었다. 특히 불모고지는 역곡천 바로 남안의 주요 감제고지로써 북·서·남쪽의 삼면을 모두 통제할 수 있어 피아 모두에게 중요하였다.[59]

미 제2사단 정면의 적은 중공군 제39군단 예하 제115사단이었다. 중공군 제39군단은 제115사단과 제117사단을 전방에 배치하고 제116사단을 예비로 두었다. 그리고 미 제2사단 정면 동쪽에는 중공군 제38군단 예하 제113사단이 있었다. 이들 제39군단과 제38군단 예하의 부대들은 포병 10개 대대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60] 또한 중공군 제39군단 제115사단이 미 제2사단의 서쪽지역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이들은 역곡천 북안의 주요 감제고지를 차지하여 지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61]

적은 아군의 부대교대를 틈타 7월 17일 야간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은 대규모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제23연대 전초진지이며 제2대대 F중대가 교대 중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불모고지에 접근하였다.[62]

22:50분 대대 규모의 적이 계속되는 포격의 지원하에 전초진지로 육박하기 시작하였다. F중대가 고지에서 분전을 계속하는 동안 대대는 23:30분 E중대를 투입하여 지원토록 하였다. 7월 18일 E중대가 고지에 진출했을 때 이미 고지 정상은 피탈되었다. 중대는 즉시 역습을 감행하여 뺏고 빼앗기는 악전고투를 연속하였으나 결국 15:00시 경에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제23연대는 불모고지의 적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계획, 제3대대 K중대가 전차의 지원하에 E·F중대와 합세하여 반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적의 집중적인 포화를 받아 실패하고 말았다.

연대는 이날 야간에 다시 1개 대대 규모의 공격부대를 편성하여 재반격을 개시하였으나 역시 진출이 지연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내려 진흙탕 속에서 공격이 진척되지 않았다. 특히 B중대의 경우 20여 명밖에 남지 않는 병력 손실을 입으면서 철수하였다.[63]

다음날 아침부터 대대는 I·L중대로 공격을 재개하여 몇 차례 반격을 실시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적의 집중포화를 받아 많은 병력손실을 입은 채 실패하였다. 이날 미 제2사단 제38연대 제1·제2대대가 인천에서 전곡일대로 집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제45사단과의 진지교대를 완료하였다.

제23연대는 불모고지 탈환을 위해 계속 반격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연일 계속되는 강우로 인하여 도로·교량이 유실되어 병력 일부가 고지 동남쪽 일부를 차지한 채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이러한 가운데 연대는 제1대대를 공격부대로 선정하였다. 당시 제1대대는 제3대대와 진지교대를 한 후 후방에서 1주일간 계속된 강우에도 불구하고 '리틀 조(Little Joe)'라고 명명된 반격작전 훈련(예행연습)에 주력하고 있었다. 제1대대의 반격작전에는 제37야포대대가 직접지원하며 공병대대 B중대와 전차 및 중박격포중대 등이 지원토록 되었다. 또한 항공정찰이 행해지고 별도의 통신대책과 전진에 따른 보급대책까지 모두 마련되었다.[64]

마침내 7월 31일 22:00시 비가 그치자 제23연대 제1대대는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C중대는 병진하여 목표로 진격하였다. 양 중대는 적의 포격이 집중되는 가운데 고지 양쪽에서 적을 압박하였다.[65] 다음날 04:25분 경 A·C중대는 고지 정상까지 약진하여 수류탄을 투척하고 백병전을 전개하여 마침내 적을 격멸하고 09:10분 정상에서 합세함으로써 10여 일만에 다시 불모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연대는 적의 역습에 대비하여 주간에 참호작업과 지뢰 매설, 그리고 통신망 가설에 주력하였다. 이후 미 제2사단은 간헐적인 적의 공격을 격퇴하고 소규모 수색·정찰전을 전개하면서 불모고지를 방어하였다.[66]

9월 18일 중공군은 다시 미 제2사단을 고지에서 몰아냈으나, 미군은 즉각적인 역습과 전차의 지원으로 9월 20일에 불모고지를 재탈환하였고, 이에 따라 중공군은 후퇴하게 되었다.



불모고지 뒤편의 적 진지에 대한 아군의 야포 사격

불모고지 전투로 인해 미군은 전사 39명, 부상 234명, 실종 84명의 손실을 입었으며, 중공군 측에서는 약 1,09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952년 여름, 전 전선에 걸친 국군과 유엔군의 또 다른 공격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피해를 낳았으나 얻은 것은 별로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러한 상대적인 병력손실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당시 미국 내에서 전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휴전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민감한 분위기에서 미군의 병력손실은 새로 점령한 지역의 가치에 비해 그 대가가 너무 큰 것이었다. 이에 따라 클라크 장군은 차후 대대급 이상의 작전수행은 반드시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5. 고양대 · 임진강 부근 전투

고양대·임진강 전투는 1952년 가을과 겨울, 연천 북방의 임진강 북안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국군 제1사단이 고양대와 임진강 일대의 전초진지(닉키고지, 테시고지, 노리고지, 베티고지)에서 중공군 제47군단과 접전한 방어전투였다. 일반적으로 1952년 10월 6일에서 9일까지 전개된 닉키(Nickie)와 테시(Tessie)고지 전투를 고양대 부근 전투라 하며, 1952년 12월 11일에서 13일까지 전개된 노리(Nori)와 베티(Betty)고지 전투를 임진강 부근 전투라고 일컫는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제1사단은 불모고지 전투가 소강상태에 들어간 1952년 10월 1일, 군단 예비에서 군단의 중앙 미 제3사단의 작전지역을 인수하였다. 이때 국군 제1사단은 좌측으로 영연방사단, 우측으로 미 제2사단과 병행하여 임진강 동·서안에서 역곡천 남안을 연한 주저항선을 방어하게 되었다.

사단장 박임항(朴林恒) 준장은 제15연대를 좌일선, 제12연대를 우일선으로 그리고 제11연대를 예비대로 하여 임진강 서안 신촌-동안 264고지-고작동-역곡천 남안 음지촌-양지촌을 연한 선(제임스 타운선)상의 주진지를 확보하고 테시(Tessie,

△150)-닉키(Nickie, △130)-소(小)노리고지(Nori, △110)-199고지-250고지-168고지 일대의 전초진지를 점령하였다. 사단 장병들은 장기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였기 때문에 전투력이 우수하고 사기가 왕성한 편이었다.[67]

작전지역은 평균 200~300m 내외의 구릉으로 형성되어 있고 전초진지는 물론 주저항선의 일부도 적의 감제하에 놓여 있었다. 또한 임진강이 역곡천과 합류하여 S자로 흐르면서 좌일선 연대인 제15연대의 작전지역을 양단하고 있어 방어에 불리하였다. 특히 제15연대의 전초진지인 테시-닉키-노리고지는 마량산(△315)보다 낮은 능선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수의 진이 되어 방어에 매우 불리하였다. 작전기간 중 날씨는 계속 청명하였으나 새벽의 짙은 농무로 인하여 감제 및 항공지원이 크게 제한을 받았다.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는 취약한 전초진지인 테시고지 및 닉키고지에 대한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준비를 갖추면서 진지를 보강하고 있었다. 연대는 제17야전포병대대 예하 A·B포대, 미 제58 및 제9야전포병대대, 미 제72전차대대 A중대 및 공병 제3중대 1개 소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보급도 극히 양호한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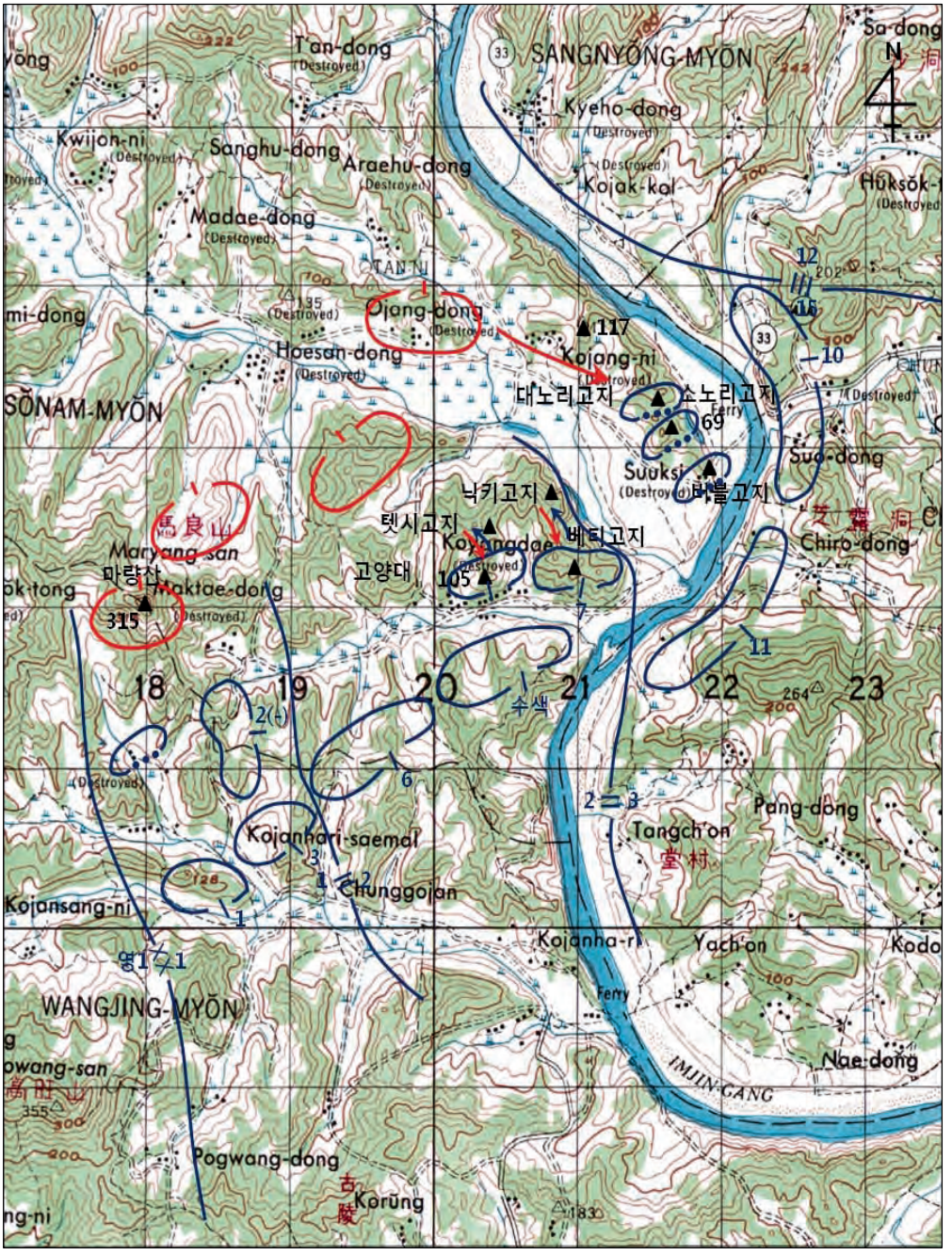
국군 제1사단 정면의 적은 중공군 제39군단 제116사단이었다. 중공군 제116사단은 대부분 국부군의 투항병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군사훈련과 전투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산악전에 강한 편이었다. 그러나 아군의 부단한 폭격과 포격으로 인하여 보급과 사기는 저조한 편이었다.[68]

사단이 교대한 지 6일째인 1952년 10월 6일 중공군 제116사단은 사단 작전지역에 강력한 포격을 가한 후 19:55분 경 제348연대 제2대대가 국군 제15연대 제3대대 전초진지인 테시고지 및 닉키고지를 공격하였다. 적은 2개 중대 규모로 나누어 양 고지를 공격해 20:15분 경 고지 전면 50m까지 접근하였다.[69]

연대 수색중대 전초소대가 이를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적의 공격준비사격에 철조망, 지뢰, 교통호가 거의 파괴되었다. 전초소대는 교통호에서 적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적의 포격에 통신마저 두절되어 지원사격을 받지 못하였다.[7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6-6> 고양대·임진강 부근 전투



전초소대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자 적은 21:50분 경 좌우측으로 각각 1개 소대씩 우회시켜 진지를 포위하는 동시에 아군의 철수로를 차단하였다. 전초소대는 적에게 최후저지사격을 가하면서 진지를 고수하고자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진지를 점령당할 위기에 처하였다.

연대는 전초진지가 적에게 점령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탈환하기 위하여 연대수색중대 1개 소대와 지원받은 사단수색중대 2개 소대로 다음날 08:20분 동 고지에 대하여 역습을 실시하였다.

연대수색중대 1개 소대가 테시고지로, 사단 수색중대 2개 소대가 닉키고지로 각각 진출, 8부 능선까지 도달하여 일제히 돌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공격은 고지상의 적으로부터 완강한 저항을 받아 성공하지 못하였다.[71]

이 무렵 제3대대에는 사단장의 지시로 제11연대 제10중대가 배속되었다. 제3대대장은 제11연대 제10중대를 자대의 제10중대와 진지교대를 시킨 후 공격을 감행하게 하였다. 제11연대 제10중대는 2개 소대로 테시고지를, 1개 소대로 닉키고지를 각각 공격하였다. 15:10분 경에 닉키고지를 목표로 공격하던 1개 소대는 진출도중 사단수색중대 2개 소대와 합류하여 고지의 8부 능선까지 진출하였으며, 테시고지를 목표로 공격하던 2개 소대는 연대수색소대와 합류하여 목표 고지를 향해 일제히 돌격을 재개하였다.

이번 역습에는 연대 4.2″박격포는 물론 포병지원사격과 F-80전폭기의 지원까지 받았으나,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하여 목표고지 탈환에는 실패하였다. 이에 연대에서는 제10중대 병력을 수습하여 다음 공격에 대비시키고, 사단과 연대수색중대를 후방으로 철수시켜 부대 재편성을 실시하게 하였다. 제10중대는 다음날인 10월 8일 03:00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닉키고지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였으나 이마저도 실패하고 말았다.[72]

사단장은 그동안의 탈환전이 계속해서 무위로 끝나게 되자 다시 사단 예비대인 제11연대 제3대대를 제15연대에 배속시켜 집중적인 역습을 감행토록 명령하였다. 제15연대 제3대대장은 제11연대 제3대대에 진지를 인계하고 제15연대 제9, 제11중대를 209고지 남단에 집결시켰다.[7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15연대장은 반드시 닉키와 테시고지를 탈환하기로 결심하고 제3대대의 1개 중대를 포병의 집중 지원하에 테시고지로, 주력을 닉키고지로 향하게 하였다. 이에 제11중대가 10월 9일 01:00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105고지를 일격에 탈취한 후 테시고지를 공격하는 가운데 제9, 제10중대가 닉키고지로 약진하였다. 공격부대는 적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 공격이 일시 좌절되었으나 사단장의 독전을 받고 다시 12:00시에 공격을 재개하였다.

공격 주력은 F-80전폭기의 항공근접지원과 포병의 제압사격에 뒤이어 미 제72전차대대 A중대의 모든 전차가 닉키고지로 포격을 집중하는 가운데 돌격을 재개하였다. 공격부대는 진전에서 쏟아지는 적의 진내사격과 호 속에서 자동화기와 수류탄으로 완강히 저항하는 적을 맞아 6차례에 걸쳐 돌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공격부대는 끝내 목표점령에는 실패하였다.

공격작전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던 16:30분 경에 사단을 방문한 군단장이 공격 중지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때 군단장은 전투상황을 보고받고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현 상황에서 공격을 계속할 경우 병력손실만 가중된다고 판단하였다. 군단장은 "일단 역습을 중지하고 현 진출선에서 전초진지를 확보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단은 현 진출선에서 전초진지를 재편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제15연대는 3일간의 혈전에도 불구하고 전초진지인 테시와 닉키고지를 탈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역습을 중지하고 그 남쪽 약 500m 지점의 105고지-베티고지를 연하는 선에 전초진지를 새롭게 편성하였다.[74] 이후 사단은 당시 군단의 작전목표 중 하나인 포로획득에 주력하면서 역습재개의 기회를 노렸다. 이 무렵 군단의 지시(10월 22일)로 사단은 작전지역을 서쪽으로 다소 조정하게 됨에 따라 일선에 배치된 제11연대와 제12연대의 전투지경선이 임진강을 경계로 조정되었다. 또한 이때 제51연대가 사단에 배속되어 측후방과 주보급로의 경계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1월에 접어들어 사단은 포로획득과 적 전초진지 파괴 작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11일에는 다시 좌전방 부대교대로 제15연대가 일선으로 나섰다. 이 무렵 적도 부대교대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중공군 제47군단 예하 제140, 제14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단이 국군 제1사단과 정면으로 대치하게 되었다.[75]

다시 좌전방 연대가 된 제15연대는 105고지-베티(Betty)고지-소노리(Nori)고지를 연하는 선에 전투전초를 설치하고 전투정찰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 지역은 대부분 표고 150m 이하의 야산지대였기 때문에 적이 점거 중인 마량산으로부터 감제 당하고 있었다. 특히 우전방의 소노리고지(△110)는 배수의 진에 3면이 적에게 노출되는 취약성을 안고 있어 진지의 확보나 보급 및 전투근무지원이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었다.[76]

12월 11일 01:00시 적은 그동안의 소강상태를 깨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틈을 이용하여 제15연대 방어전면으로 공격을 재개하였다. 연대 규모의 중공군이 공격준비사격에 뒤이어 소노리고지와 베티고지로 주공을 지향하고 대거 침공함으로써 국군 제1사단의 주저항선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77]

소노리고지의 제9중대 정면에는 중공군 1개 대대가 양측방에서 집중 돌파를 시도하고 일부병력이 후사면으로 포위를 꾀하였다. 중대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적의 파상공격에 결국 고지를 내어주고 말았다. 반면 베티고지 상의 제7중대는 용전분투 끝에 적을 물리치는데 성공하였다.

이때 연대장은 적의 기도가 전면공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기작전에 유리한 전초진지를 탈환하는데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소노리고지를 역습토록 하였다. 08:00시 제15연대 제3대대는 제11연대 수색중대의 지원을 받아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적전 30m 지점에서 수류탄과 자동화기로 완강하게 저항하는 적에게 공격이 가로막혔다. 대대는 곧이어 병력을 수습한 후 재공격에서 적진을 돌파하고 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제3대대는 연이은 적의 역습에 재차 고지를 상실하고 말았다.

사단장은 제15연대의 역습이 무위로 끝나게 되자 사단예비대인 제11연대를 투입하였다. 사단장은 소노리고지의 상실로 주저항선이 적에게 감제되고 있었으므로 기필코 이를 탈환하도록 강조하였다.[78] 그러나 제11연대는 처음에 제2대대를 투입하여 3차에 걸쳐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이 또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곧바로 제3대대를 투입하였다. 제3대대는 약 2주간에 걸쳐 특수훈련시범을 끝마친 정예부대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노리고지와 임진강

공격계획을 완성한 제3대대장은 사단장과 미 제1군단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작전계획을 보고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대장은 “공격의 목표를 소노리와 대노리(추정과업)의 탈취에 두고 증강된 1개 중대 규모를 투입하되 양개 목표에 최초 1개 소대씩 배당하고 상황 진전에 따라 예비소대를 후속 투입할 것”이라는 공격계획을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사단장은 “이때까지 대대 규모 부대를 투입해도 탈환하지 못한 고지에 1개 중대, 그것도 원 목표인 소노리에 1개 소대만 투입해서 승산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하였다. 이에 대대장 최일영 중령은 사단장에게 협소한 공간에 대규모 부대투입은 회피해야 한다는 점과 소노리고지 방어의 발판인 그 북쪽의 대노리고지의 탈취 필요성을 강조하여 승인을 얻었다.[79]

대대는 목표를 소노리와 대노리고지의 탈취에 두고 증강된 1개 중대 규모를 투입하되 상황진전에 따라 예비대를 후속시키기로 하였다. 공격에 앞서 12개 포병대대가 소노리고지 일대에 포격을 집중하였으며, 유엔 공군기 B-26 6대가 목표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점을 폭격하였다.[80]

12월 12일 15:00시 제11연대 제3대대 제9중대의 제2소대가 소노리고지를, 제1소대가 대노리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했다. 소노리고지에서는 7부 능선 상에서 적의 집중포화와 수류탄 공격을 받아 공격이 지체되었지만, 대노리고지에서는 전차소대의 지원하에 제1소대가 대노리고지를 확보하였다. 당시 대노리고지는 동굴화되어 있었다. 4개의 출입문이 밀폐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이 엉겁결에 은신한 것으로 판단한 소대장은 연막 수류탄을 거두어 동굴 입구의 틈을 통해 집어넣고 잠시 기다린 후 반응이 없자 휴대했던 폭약 전량을 장전하여 동굴 출입구를 폭파 폐쇄시켜 버렸다. 사단정보참모의 증언에 의하면 대노리고지 공격을 시종일관하던 미 제1군단장은 감탄사를 연발하였다고 한다.

제9중대는 대노리고지를 점령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계속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18:30분부터 적은 야음을 이용하여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대노리고지를 3방향에서 파상 공격하였다. 대담하고 불퇴전의 투혼을 발휘하던 제1소대였지만 탄약이 고갈되고 피해가 점증하자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려웠다. 상황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던 군단장 캔달 장군은 제9중대의 철수를 승인하였다. 제3대대장은 오늘의 경험을 살려 공격의 탄력과 지속력을 유지하기 위해 좀 더 규모가 큰 중대 단위의 공격계획을 완성하여 상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12월 13일 제3대대는 제11중대를 소노리고지로, 제10중대를 대노리고지로 투입하여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에 앞서 전폭기 편대가 40분간에 걸쳐 집중폭격을 가하였으며, 뒤이어 약 100문에 달하는 포병의 공격준비사격이 실시되었다.

09:30분 공격을 개시한 대대는 제11중대가 고지 7부 능선 상에서 일시 공격이 지체되었으나 예비소대를 측후방으로 투입시켜 마침내 목표를 탈취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때 돌격소대는 백병전 끝에 적병 36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대대장은 즉시 대대 예비의 일부를 제11중대에 증원하여 진지를 강화토록 조치하였다. 이 무렵 대노리고지를 공격중인 제10중대는 많은 병력 손실을 입으면서 철수하고 있었다.

전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단장은 대노리고지 탈취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격부대의 철수를 명령함과 동시에 혈전 끝에 탈환한 소노리고지에 대한 방어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81]

이 작은 전초진지 쟁탈전에서 사단도 많은 인명손실을 입었지만 중공군 제140사단 제420연대도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여 예비로 전환될 만큼 큰 타격을 받았다. 이후 국군 제1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139사단이 배치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절 철원-김화-금성천 부근 전투

1. 개 요

철원-김화-금성천 부근 전투는 1952년 7월부터 12월까지 중서부 전선의 미 제9군단과 중동부전선의 국군 제2군단이 중공군 4개 군단(제38·제15·제12·제68군단)과 전초진지 및 주요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벌인 고지쟁탈전이었다.

철원-김화지구의 중서부전선에서는 미 제9군단이 7월 중순 국군 제9사단, 국군 제7사단, 미 제2사단을 전방에 배치하고 미 제40사단을 예비로 확보하여 중공군 제15·제38군단과 대치하고 있었으나 여름 동안 별다른 접전 없이 소강상태를 유지하였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북한군과 중공군이 아군 전초진지에 대하여 대대적인 선제공격을 전개하였으며, 국군과 유엔군 측에서도 이에 맞서 제한적이나 적극 공세를 취함으로써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전개되었고 10월에 접어들어 절정에 달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기간 중 군단 좌측의 국군 제9사단이 10월 6일부터 백마고지에서 혈전을 벌였고 백마고지 전투가 시작된 6일 제9사단의 좌인접 부대인 미 제2사단에 배속된 프랑스대대가 중공군 1개 연대로부터 화살머리고지 공격을 받았으나 지원화력의 엄호 하에 치열한 근접전까지 수행하여 동 고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군단 우측에서는 백마고지에 대한 적의 공세에 대응하여 국군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이 10월 14일 김화 북쪽의 저격능선과 삼각고지를 선제공격하였다.

따라서 기간동안 군단 정면의 주요 전투는 철의 삼각지대에서 유리한 통제권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철원에서는 적이 백마고지를 선제공격하였고 김화에서는 아군이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특이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한편 휴전회담이 개최된 지 1년이 지나도록 포로송환 문제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좌초된 상태에서 적은 아군 정면에 강력한 국지공격을 감행, 회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였다. 이 무렵 금성천 부근의 방어를 담당한 국군 제2군단은 1952년 4월 5일 화천에서 재창설된 후 미 제9군단으로부터 금성-북한강 동안까지의 전선을 인수하고 제6·수도·제3사단을 배속받아 중동부 전선을 방어 중이었다. 당시 군단의 주저항선은 금성 남쪽 3㎞ 봉화산-교암산-663고지-북한강 동안 어운리-949고지-973고지-통선골로써 이미 1951년 추계공세 때 주로 국군이 제한공세작전에서 확보한 선이었다.

이때 군단의 방어중점은 금성의 통제를 최우선으로 하였다. 군단은 주저항선의 주요 고지군을 확보하여 17번 도로, 103번 도로 그리고 949고지에서 북한강에 이르는 적의 접근로를 봉쇄함은 물론 주저항선 전방에서 적의 공격을 격퇴, 현 전선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군단과 대치중인 적은 중공군 제12군단과 제68군단 일부로 판단되었다. 제12군단은 제67군단과 교대한 군단으로서 제31사단을 국군 제6사단 전방의 금성 북쪽에, 제35사단을 수도사단 전방의 율사리 672고지-747고지-좌수동 748고지에 배치하고 제34사단을 창도로에 예비로 보유하고 있었다. 제68군단은 제12군단과 연하여 북한강 동안 어운리에서 문등리 간 전선을 담당하였으며 그 예하의 제203사단이 국군 제3사단과 대치중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러한 대치국면은 국군 제2군단이 이곳의 방어임무에 투입된 이래 쌍방이 주로 진지강화와 정찰활동에 주력함으로써 전선은 소강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국군 제2군단장이 6월 10일에 각 사단으로 하여금 적정탐지와 적진파괴 및 교란을 목적으로 한 제한목표공격을 실시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전초진지 쟁탈전이 재연되었다. 이 작전에는 1개 대대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부대를 운용하도록 하였다.[82] 이 선제공격에 적의 하계 및 추계공세가 이어짐으로써 1952년 후반에는 군단 전역에서 전초진지 전투가 전개되었다.

그 중에서도 수도사단의 전초진지인 수도고지 및 지형능선, 제3사단의 949고지 북쪽 전초진지인 독수리고지 및 피의고지, 그리고 제6사단 정면이며 금성 동측 2km 지점의 A·B고지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특히 금성돌출부에 배치된 수도사단은 중공군 제12군단 제35사단을 맞이하여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을 놓고 1952년 7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군단작전 중 가장 치열한 전초진지 쟁탈전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사단은 군사분계선 설정에 대한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며 주저항선 전방의 작전상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2. 백마고지 전투

백마고지(△395) 전투는 철원 북방의 백마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국군 제9사단이 중공군 제38군단의 공격을 받고 1952년 10월 6~15일까지 10일 동안 뺏고 빼앗기는 사투를 벌인 끝에 고지방어에 성공한 전투였다.[83]

군단 좌측의 국군 제9사단은 이 전투가 벌어지기 1년 전인 1951년 10월 17일부터 철원지역의 주저항선에 투입되어 395고지(백마고지)로부터 중강리까지 약 11km의 철원평야를 방어하고 있었다.

백마고지 전투는 395고지가 점하는 작전상의 중요성 및 휴전회담과 관련된 정치성으로 말미암아 숙명적으로 피·아간의 격돌을 낳았다. 즉, '철의 삼각지'로 불리는 지역에 위치한 395고지는 피아간에 서로 확보 고수하지 않을 수 없는 요충지였다. 평강을 정점으로 하고 김화와 철원을 저변으로 하는 철의 삼각지는 한반도의 중앙 고원지대로서 교통의 요충지인 동시에 주요 병참로였다.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적이 전 전선의 생명선으로 사수하려는 이 철의 삼각지를 무너뜨려야만 한다"고 누차에 걸쳐 역설했다. 그만큼 미 제8군은 철의 삼각지 점령을 매우 중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은 1951년 고지쟁탈전 시기에 김화-철원선을 확보했다. 하지만 휴전의 타결을 모색하던 판문점회담으로 인한 정치적 제약을 받아 평강 공략은 보류한 채 적과 대치하게 되었다.

미 제8군이 김화-철원선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차기작전의 이점을 얻게 되었던 반면에 적에게는 삼각지대의 상실이 작전상 큰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에 따라 적은 1개 군단을 투입하여 철원 공략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 주공의 목표가 바로 백마고지였다.

백마고지는 철의 삼각지의 좌측 외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이 고지를 점령확보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었다. 첫째, 철원 평야를 감제함으로써 철원 및 김화를 제압할 수 있다. 둘째, 적에게 고지를 빼앗길 경우, 미 제9군단의 주저항선은 고대산 선까지 밀리지 않을 수 없으며, 남으로 고대산과 보개산령의 사면을 연하여 서울로 통하는 유엔군의 주보급로를 마비시키게 된다. 셋째, 이 고지를 점령한 측이 휴전회담에 유리한 차기작전의 발판을 굳히게 된다는 점 등이었다.[84]

국군 제9사단은 1952년 9월 22일부로 좌전방에 제30연대, 우전방에 제29연대를 배치하고 제28연대를 예비로 확보하는 한편, 그밖에 배속 받은 제51연대도 대대단위로 운용하면서 주저항선을 방어하였다. 이 중 백마고지 방어를 담당한 제30연대는 395고지에 제1대대를, 중마산 일대에 제2대대를, 역곡천 남안에 예비대로 제3대대를 각각 배치하고 있었다.[85]

사단 정면의 적은 중공군 제38군단 예하 제114사단 제340, 제324연대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제113사단이 좌인접 미 제2사단 정면에, 제112사단이 제38군단 예비로서 수정덕산 부근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일제 장총, 다발총, 기관단총, 중기관총, 무반동총, 박격포 등으로 장비되고 보급·훈련 등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단은 당시 적의 기도를 백마고지를 탈취하여 철원평야를 제압하는 동시에 차기 대공세를 위한 발판을 구축하며, 철원을 중심으로 한 광범한 지역을 통제함으로써 중부전선에서 전략적 이점을 확보하고 아군을 크게 위협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86]

작전기간 중 기상은 대체로 청명하였으며 야간에도 월광으로 인하여 비교적 관측이 양호하였다. 특별한 제한요인이 없는 한 월광은 야간공격을 위주로 하는 적에게 유리하였고 청명한 날씨는 아군의 항공지원에 유리하였다.

이 무렵 전 전선에 걸쳐 적의 공세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정찰과 경계를 강화하고 있던 10월 3일경에 중공군 군관 1명이 귀순하여 중공군이 10월 4~6일 사이에 395고지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사단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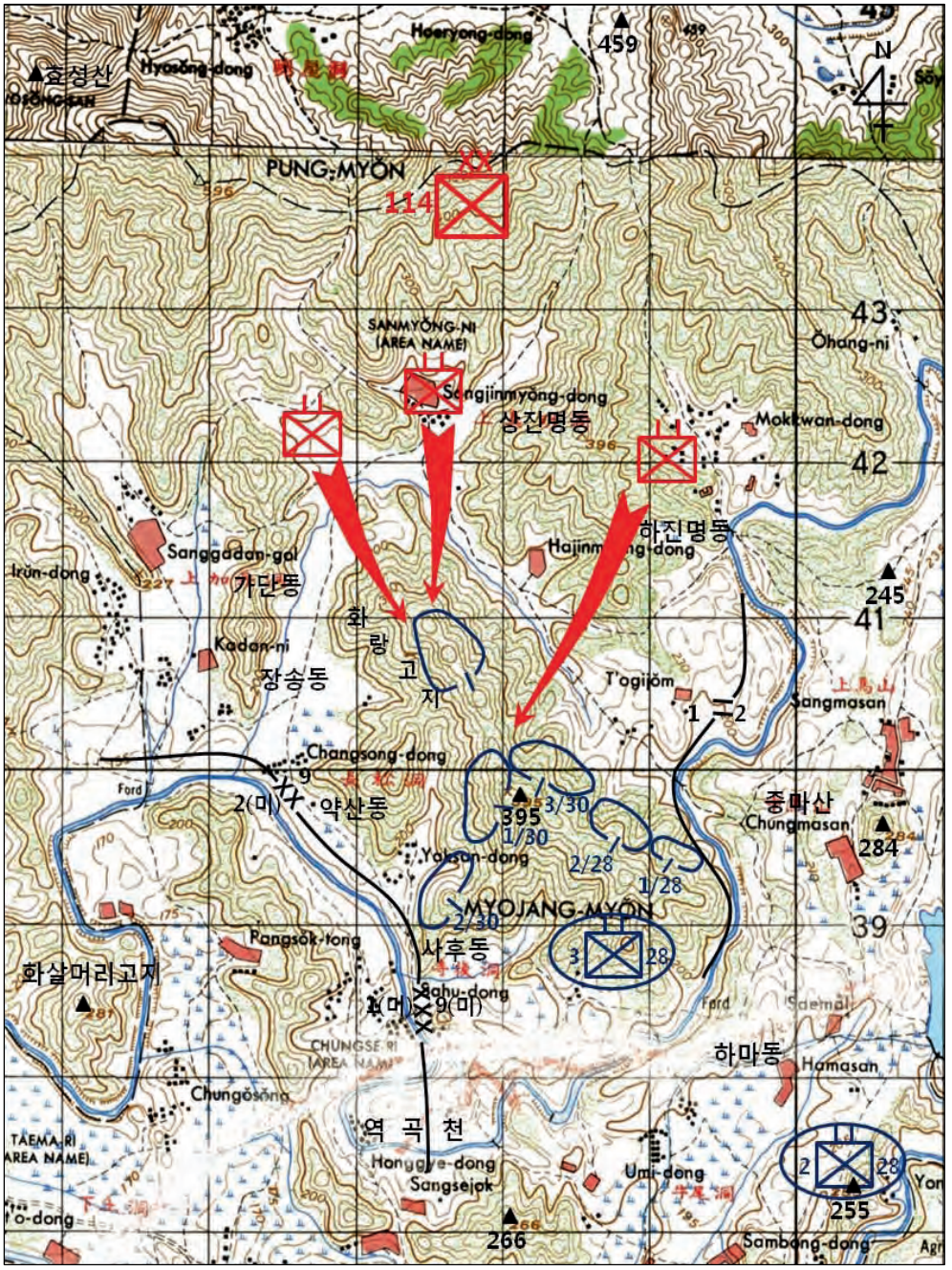
백마고지 방어병력을 2개 대대 규모로 증강하고 사단 예비연대에게는 즉시 역습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조치하고 정찰활동을 강화하였다.

사단장 김종오 소장은 10월 3일에 긴급히 소집한 연대장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87]

① 사단은 명 4일 또는 수일 이내에 적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395의 방어책을 긴급히 보강함으로써 진전에서 격멸하려 한다.
② 제30연대
  ㉮ 연대 예비대(제3대대)의 일부로써 △395의 주진지를 보강하고, 주력으로써 고지전방의 전초진지 공사를 긴급히 완료케 하라.
  ㉯ 10월 4일 17:00시부터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제53전차중대를 통합 지휘하라.
  ㉰ 10월 4일 12:00시부터 미 제73전차대대 C중대를 통합 지휘하라.
③ 제29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④ 제28연대
  ㉮ 사단 역습명령이 하달되면 즉각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
  ㉯ 예하 2개 대대를 10월 4일 19:00시까지 △255에 이동시켜 별명이 있을 때까지 대기케 하라.
  ㉰ 공병 1개 중대를 10월 4일 17:00시부로 배속한다.
⑤ 제51연대는 별명이 있을 시에 2개 대대병력을 부근으로 기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⑥ 제1포병단장은 별첨한 포병부록에 준거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에 임하라.
  제50포병대 : 제30연대 직접지원, 제51포병대대 : 제29연대 직접지원, 제52포병대대 : 사단 일반지원
⑦ 제53전차중대는 10월 4일 17:00시부로 제30연대장의 작전지휘를 받으라.
⑧ 협조지시
  ㉮ 각 부대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라.
  ㉯ 각 단위부대장은 식량과 탄약 및 차량을 확보 정비하라.
  ㉰ 일선부대는 진지구축작업을 계속하면서 야간경계에 철저를 기하라.
  ㉱ 역습부대는 각 개인에게 비상식량 1일분을 휴대시키라.
  ㉲ 제28연대의 2개 대대는 도보행군으로, 제51연대의 2개 대대는 차량수송으로 이동한다.
⑨ 사단 OP는 △254에 위치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6-7> 백마고지 전황



사단장 김종오 소장은 또한 봉래호가 파괴되어 395고지를 삼면으로 둘러싼 역곡천이 범람해 보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1주일 분의 식량과 음료수 그리고 탄약 등을 고지에 비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무렵 미 제5공군의 각종 전폭기가 10월 3일 22:30분부터 10월 6일 15:10분까지 적의 공격 기세를 사전에 격파하고자 총 19회에 걸쳐 적 후방 일대를 비롯한 예상 집결지와 포진지 및 접근로 등에 폭격을 실시했다.

그러나 적의 포격도 10월 3일부터 점차 강화되어 5일 17:00시~6일 17:00시의 24시간 동안 2,000발의 포탄이 집중하였다. 이 집중포화는 395고지의 아군 방어진지에 대한 파괴사격으로 간주되었는데, 사단이 현 방어정면을 인수한 이래 가장 치열한 포격이었다.[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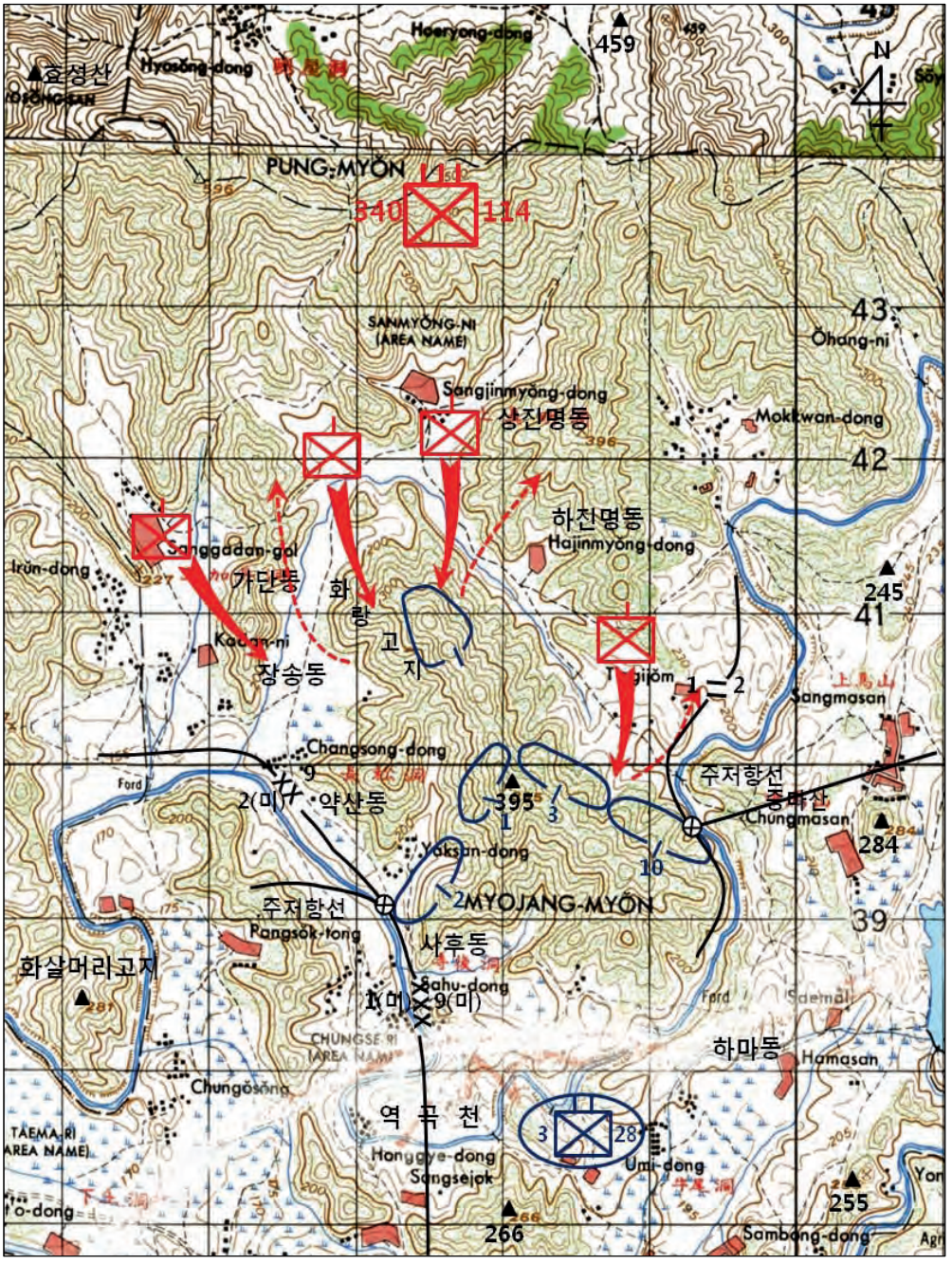
1) 제1차 공방전(10월 6일 19:15~20:15)

10월 6일 아침부터 국군 제9사단 정면에 포격을 집중하던 적은 봉래호 제방을 파괴하여 역곡천을 범람시키며 395고지 일대에 대한 아군의 기동을 제한한 다음, 19:00시 경부터 중공군 제114사단이 395고지에 대한 정면공격을 시작했다. 적은 제340연대가 1개 대대를 고지 주봉에서 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능선으로 투입하고, 1개 대대를 주봉으로 직접 투입하였다.[89]

적은 적색 신호탄 2발의 발사를 신호로 하진명동과 상진명동의 2개 방향에서 공격하였다. 고지 주봉의 동쪽에 배치된 제10중대(중대장 방초호 대위)와 제3중대(중대장 김정식 대위)의 간격정면으로 1개 중대가, 화랑고지라 이름 붙여진 북측 전초진지의 제11중대(중대장 손월용 대위) 좌우 측면으로 1개 대대가 공격하였다. 사단 우일선 제29연대 제3중대(중대장 이효성 대위)의 259고지에도 양공으로 보이는 중대 규모의 적이 출현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6-8> 백마고지 제1차 공방전



이와 더불어 중공군은 이날 밤 395고지 공격에 앞서 좌인접 미 제2사단 방어지역이며 395고지 서남방 3㎞ 지점의 화살머리고지(△281)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는 395고지에 대한 양공작전으로 판단되었으며, 이 고지에 배치된 프랑스대대는 지원화력의 엄호하에 근접전투를 벌여가며 적의 파상공격을 방어하였다.[90]

적의 공격이 시작되자 아군 포병은 일제히 포격을 실시했다. 제1포병단(단장 박병주 중령) 예하의 제52포병대대(대대장 하영섭 소령)와 사단의 제30포병대대(대대장 권오명 대위) 및 제9중박격포중대(중대장 문일수 대위)가 일제히 포문을 열어 접근로 상에 노출된 적의 공격대열을 집중 강타하고, 중마산(△395의 동쪽 1.2㎞) 능선에 배치된 제53전차중대(중대장 조칠성 대위)의 1개 소대와 미 제73전차중대의 1개 소대가 제3중대 정면으로 접근 중인 적 공격제대의 측방을 강타하였다. 또한 독서당하리 부근에 포진한 미 제213포병대대와 미 제955포병대대가 효성동 일대의 적 예상 포진지와 집결지에 155mm의 포격을 집중하였다.

제30연대는 이날 밤 적과 3차에 걸쳐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한 끝에 적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격퇴하였다.[91]

2) 제2차 공방전(10월 6일 20:40~24:0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과 유엔군의 정확한 집중 화력과 제11중대의 분전으로 제1차 공격에 실패한 중공군은 공격을 중지한지 불과 25분만인 20:40분부터 제2차 공격을 시도하였다. 중공군은 제38군단 예비인 제112사단 예하 제334연대의 1개 대대로서 제10중대와 제3중대의 정면으로 공격을 지향하였다. 적의 기도는 하진명동 남쪽의 개활지 접근로를 확보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추측되었다.

국군 제9사단장 김종오 소장은 사단 예비대인 제28연대에 출동 준비를 시키고 지원화력을 이곳에 집중시켰다. 제10중대와 제3중대는 1차 격전에서 파손된 진지를 보수할 사이도 없이 적을 맞이하게 되었다.

밝은 달빛과 조명탄에 의해 관측되는 적은 선발대인 1개 중대를 후속하여 1개

대대로 추산되는 부대가 하진명동 남쪽으로 펼쳐진 들판을 가득 메우는 듯이 보였다. 이들은 아군 포화가 집중되는데도 불구하고 독전대의 총뿌리에 몰리고 있는 듯 계속해서 아군 진지로 접근하였다. 아군의 최후저지선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사격전과 수류탄전이 전개되었다.

제1대대(대대장 김영선 소령)는 가용 화력을 총 동원하여 적에게 출혈을 강요하였으나 22:00시에 이르러 제10중대 제2소대의 왼쪽 진지 일부가 돌파당했다. 제10중대장 방초호 대위는 즉시 제3소대를 지원부대로 투입하였다. 제2소대와 제3소대는 돌파구로 계속해서 밀려드는 적과 처절한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적은 돌파구를 확대하고자 후속병력을 계속해서 투입해 압력을 가했다. 제1대대장은 제10중대의 위급한 상황을 연대에 보고하는 한편, 제3중대에게 주봉의 동남쪽 측면과 후사면에 저지진지를 급편하게 하고 제10중대의 병력손실을 감안하여 일시 철수를 명령하였다. 그동안 제30연대장의 역습명령을 받고 출동한 제9중대마저 적의 화망에 걸려 적전 50m을 끝내 돌파하지 못한 채 퇴각하였다.[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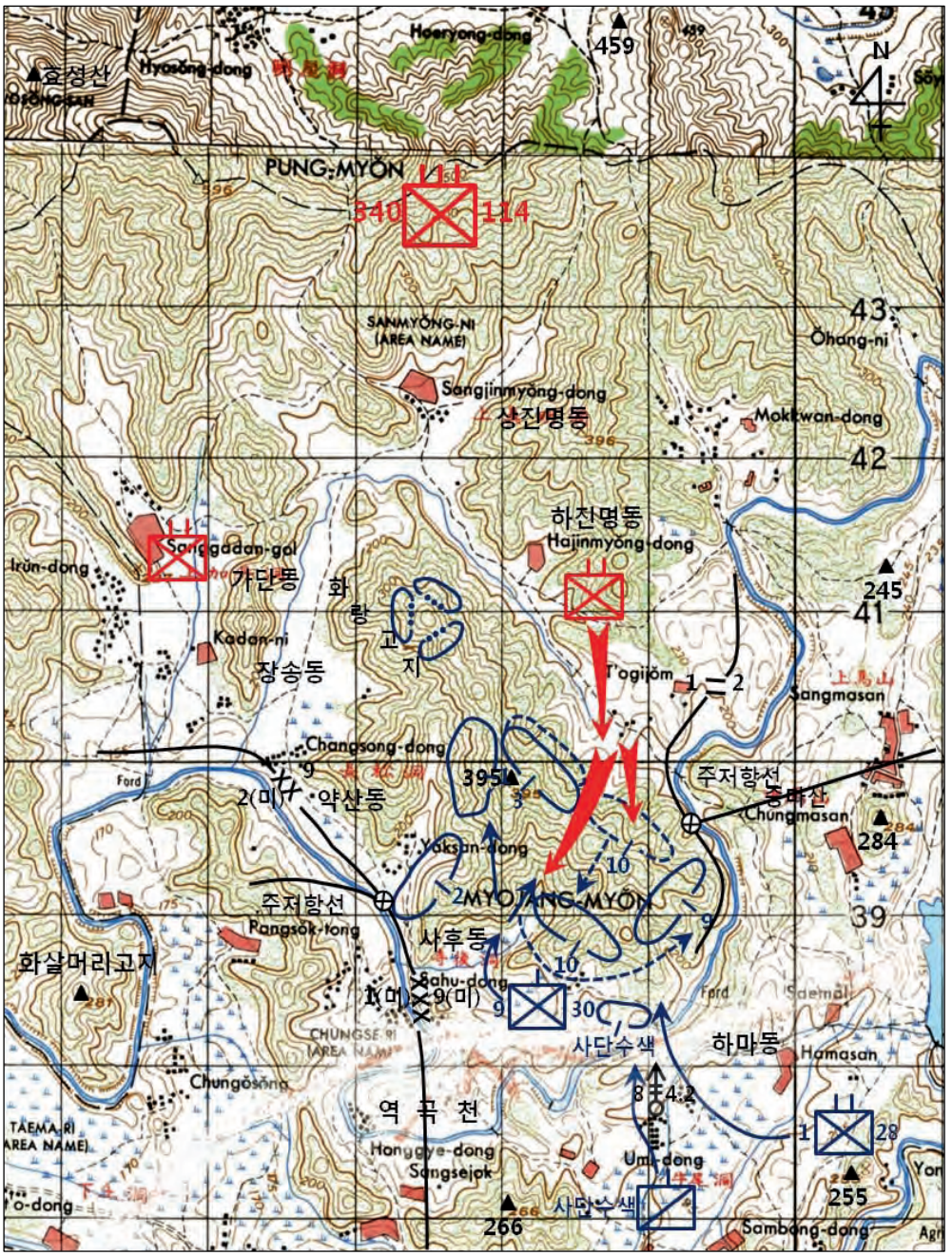
이와 같은 전황을 보고받은 사단장 김종오 소장은 강력한 역습을 감행하기로 결심하고 사단예비인 제28연대 제1대대(대대장 김삼회 대위)와 사단수색중대(중대장 강장헌 대위)를 제30연대에 배속시킴과 동시에 증원부대로서 제28연대 제2대대(대대장 윤영모 소령)를 255고지로 이동시켰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단의 모든 지원화력이 적의 점령지역에 집중된 후 23:20분 경에 제1중대와 제2중대가 각각 우측과 좌측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가파른 경사면을 돌진해 나간 제1중대는 중대장 김두식 중위의 진두 지휘하에 적의 화력거점을 하나씩 격파하면서 적진을 향해 돌진하였다. 이를 계기로 제2중대마저 수류탄을 투척하며 적진지로 돌격하자 완강히 저항하던 적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많은 시체와 장비를 유기한 채 하진명동 북쪽 방향으로 후퇴하였다.

대대는 고지 동남쪽 측면과 배후의 주진지를 완전히 탈환하고 적의 역습에 대비하여 진지재편성을 서둘렀다. 이 무렵 화랑능선과 제30연대 제3중대 정면을 공격하던 적도 주공제대의 치명적인 패주와 때를 같이하여 물러갔다.[93]

<상황도 6-9> 백마고지 제2차 공방전



3) 제3차 공방전(10월 7일 00:40~05:10)

3개월 동안 예행연습을 실시했다는 중공군 제340연대의 집념도 집요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공격에서 막대한 출혈을 강요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에서 물러선 지 1시간도 채 못 되는 10월 7일 00:40분에 제3차 공격을 감행했다. 적은 종전과 다름없이 1,000여 발의 포격으로 또 한 차례 백마산 일원을 강타한 후 2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거의 동시에 투입하여 집중적으로 395고지를 공격하였다.

00:40분에 제일 먼저 출현한 중대 규모의 적은 395고지의 우측 능선에 위치한 제3중대 정면으로 침투하고, 이어서 또 다른 중대 규모가 바로 그 남쪽의 제28연대 제1중대 지역으로 쇄도하였다. 또한 50분 후인 01:30분에는 395고지 서쪽의 제30연대 제1중대 정면에 증강된 대대 규모의 적이 약산동 계곡에서 출현하여 395고지의 측후방으로 공격하였다. 이로써 395고지의 아군은 삼면에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다.[94]

제9사단장은 즉시 전술폭격을 긴급 요청하는 동시에 전 지원포병의 화력을 주진지 전면의 탄막지대에 집중시켰다. 사단 지원포병은 적의 공격이 시작됨과 동시에 제1포병단(105mm 32문), 미 제213포병대대 및 제955포병대대(155mm 32문), 제9중박격포중대(4.2″박격포 7문)가 탄막사격을 가하고, 중마산 일대에 위치한 제53전차중대와 제73전차중대가 전차포로 적 제대의 측면을 공격하였다. 또한 02:10분 경 달빛과 조명탄 속에서 4대의 B-29중폭격기가 1,0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하였다.[95]

적의 제3차 공격은 제30연대 제1대대 지역에 집중되었다. 적은 주봉과 화랑고지(주봉 북쪽) 사이의 고지 중간 부분에 돌파구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적 1개 중대가 주봉 우측의 제3중대를 공격하고 후속한 적 2개 중대가 주봉 좌측의 제3중대와 주봉 서남쪽 능선의 제2중대를 각각 공격하였다. 또한 전초진지인 화랑고지의 제11중대 정면에도 증강된 적 1개 중대가 상진명동 방면에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이로써 제1대대는 적과 사투를 벌이게 되었다. 병사들은 수차에 걸친 적의 집중포격으로 산병호와 교통호가 대부분 파괴됨에 따라 몸이 노출된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겨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의 투혼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빛을 발했다. 실탄이 떨어지면 그들은 이미 산화한 전우의 탄대를 끌어당겨 실탄을 보충하였으며, 눈앞으로 다가서는 적병을 발견하면 그들은 즉시 총검을 휘두르며 돌진하였다. 수류탄이 난무하고 탄우가 교차되는 가운데 진지 앞에서는 피아간에 혈전이 거듭되었다.

처절한 사투가 반복되는 동안에 사단에서는 지원화력을 총동원하여 탄막사격과 저지사격으로 적의 병력증강을 저지하였다. 이로 인하여 진지 앞에서의 적 공격은 점차 위축되었으며, 마침내 05:10분 경부터 적이 물러나기 시작하였다.[96]

이 무렵 화랑고지의 전초진지에서는 제11중대가 제3차 공격의 조공으로 보이는 적의 공격을 맞아 격퇴하였다. 하지만 이곳으로 침투한 적 병력 중 일부가 주봉의 서쪽에 위치한 무명고지에 집결하여 차후 작전을 준비하였다. 이 무명고지는 적의 장송동 접근로에서 용이하게 올라올 수 있는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화랑고지의 좌측과 395고지 서쪽 측배후를 위협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곳에 중대 규모의 적 병력이 주둔하는 것은 앞으로의 화근이 될 것이 분명하였다. 이에 사단에서는 무명고지에 화력을 집중하여 적을 몰아내고자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제3차 방어 작전을 마무리 지었다.[9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제4차 공방전(10월 7일 14:00~8일 02:40)

사단은 제3차 방어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지만, 차기 작전에 차질을 가져올 하나의 문제를 남겼다. 즉 395고지 정면의 무명고지에 있는 중대 규모의 적을 완전히 구축하지 않고 작전을 일단락지은 것이었다. 무명고지를 확보한 적은 계속해서 병력을 증파하여 395고지와 전초진지인 화랑고지 사이를 격리시키고자 하였다. 적은 아군의 제압사격에도 불구하고 이날 무명고지의 병력을 2개 중대로 증강시켰는데, 국군 제9사단으로서는 전초진지와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

이곳의 적을 구축하지 않을 수 없었다.[98]

사단은 무명고지의 적 2개 중대 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30연대의 예비대였던 제3대대를 투입하였다. 제3대대는 제9중대와 제10중대를 주공으로 하여 14:00시경에 제30연대 제1대대의 배치선에 이동 집결한 후 역습으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적은 아군의 역습을 예상이라도 한 듯 제1대대(-)의 역습공격이 개시됨과 동시에 포격을 집중하였다. 이는 효성산 부근의 야포와 396고지 및 500고지에서 발사하는 직사화력이었다. 뿐만 아니라 무명고지의 적 2개 중대는 거점을 고수할 각오로 필사적으로 대항하였다.

이때 미 제5공군 소속의 F-80과 F-84의 각 1개 편대가 6회에 걸쳐 상진명동-500고지-효성산 일대의 적 포진지에 3,000여 파운드의 폭탄을 투하한 후 기수를 반전시켜 무명고지에 기총소사와 네이팜탄을 퍼부었다. 또한 연일 중마산에서 화력지원 중이던 제53전차중대의 1개 소대가 우미동 부근의 도로까지 추진되어 무명고지를 강타하였다.

아군의 강력한 지원화력에도 불구하고 장송동에 근접한 지형적 이점을 이용하는 적은 1개 소대가 섬멸되면 2개 소대를 보충하면서 완강하게 저항했다. 결국 제1대대는 적진에 돌입하지 못하고 20:30분에 명령에 따라 철수하였다.[99]

그런데 이보다 앞선 이날 15:30분에 화랑고지 전초진지의 제11중대가 새로운 적으로부터 압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들 적은 중공군 제340연대를 대체한 제112사단 예하의 제334연대 병력이었다.

제11중대는 교전 개시 이후 22시간 동안을 화랑고지 제1봉에서 전면방어태세로 버티며 전초진지를 고수하였으나 보급이 두절되고 교신마저 끊긴 데다 퇴로까지 차단되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후 4차에 걸친 교전과 피아를 구분할 수 없는 포격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여기에 실탄의 부족과 급수 문제까지 겹쳐 더 한층 고충을 겪고 있었다.

화랑고지의 제11중대는 대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정면공격을 받게 되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적의 대병력이 좌우측방에서 남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7:00시 이후에는 아군의 공격마저 중단됨으로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절망상태에 빠졌다. 이로부터 제11중대는 현저하게 전의를 상실하여 사격의 손길이 둔해지면서 진지 이탈자가 늘어가고 방어진용에 균열이 생기는가 하면 급기야는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 상황은 삽시간에 중대의 전 진지로 번져 누구도 수습할 수 없는 돌변사태로 변하고 말았다.

고군분투의 보람도 없이 허무하게 진지가 와해되자 중대장은 "각자 최선을 다하여 395고지 남쪽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전 중대원은 적의 포위망을 뚫고 철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다음날(8일) 아침에 아군 진지까지 찾아온 병력은 중대장을 포함하여 2개 분대에 지나지 않았다.[100]

전초진지인 화랑고지가 적에게 피탈됨으로써 제1대대의 주봉 방어도 위기에 처하였다. 새로운 적이 출현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3대대(-)를 철수시키는 동시에 이 적을 포착 격멸하려 하였다. 그러나 적은 이미 탈취한 화랑고지를 발판으로 하여 직접 395고지를 공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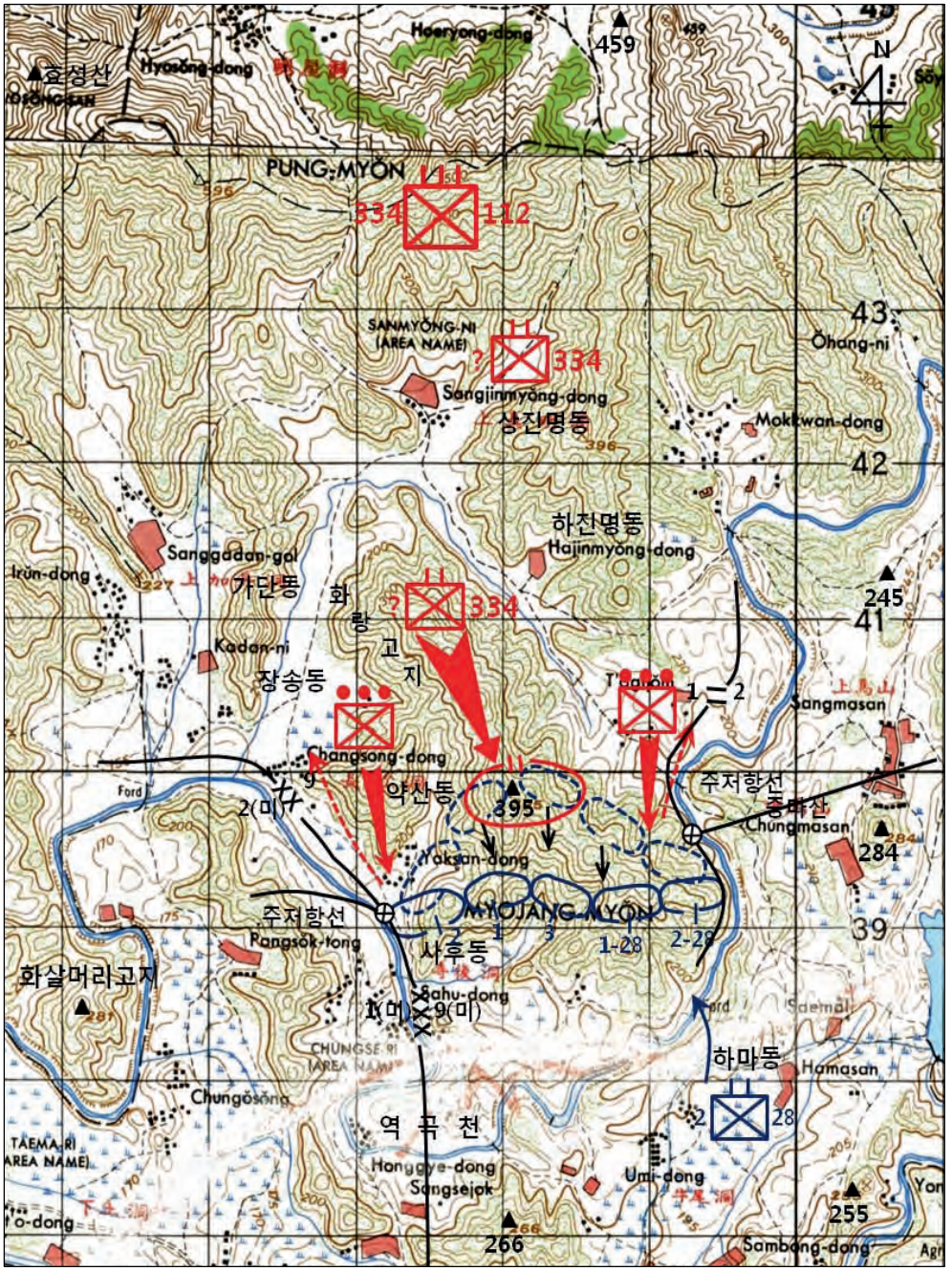
리창핑이 지휘하는 중공군 제334연대는 최초 공격단계에서부터 그 기도가 분명하였다. 종래의 공격부대와는 달리 오직 395고지만을 노리는 듯 화력과 병력을 이곳으로 집중하여 강력한 공격을 가해 왔다. 약 2시간의 치열한 교전 끝에 395고지의 제1중대가 철수함에 따라 결국 395고지는 백마고지전투가 시작된 이후 최초로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101]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사단장 김종오 소장은 상당한 충격을 받고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진두에 나섰다. 사단장은 우선 부대교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제30연대로 하여금 전열을 정비하여 적의 돌파구 확대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게 하고, 그동안 제28연대(-)를 진출시켜 진지를 회복한 후 양 연대를 현지에서 교대시키기로 결심하였다. 사단은 8일 02:00시부로 '작전지시 제65호'를 하달하였다.[102]

이 작전지시가 하달되었을 때, 제28연대(연대장 이주일 대령) 제1대대가 6일 23:30분부로 제30연대에 배속된 후 계속해서 395고지 남동쪽 진지를 방어 중에 있었으며, 제2대대가 255고지에서 사단으로부터 직접 역습 명령을 받고 전방으로 이동 중에 있었다. 그리고 제3대대는 제2대대가 떠난 후 사단의 예비로 대기하기 위해 255고지에 도착해 부대정비를 하고 있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6-10> 제1차 백마고지 철수 상황



따라서 제28연대의 3개 대대 중 연대장이 작전에 가용할 수 있는 병력은 제2대대와 제3대대뿐이었으며, 그 중 제2대대가 역습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제2대대는 22:45분에 255고지를 출발하여 23:40분에 충성교 북쪽의 공격대기지점에 도달하였다. 이곳에서 대대는 최종적인 점검을 완료하고 8일 00:40분을 기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백마고지 정상을 향해 공격 중인 국군 제9사단 장병들

제5중대를 우, 제6중대를 좌, 제7중대를 예비로 하여 공격을 개시한 제2대대는 우일선 중대가 능선을 따라 395고지 정면으로 공격하고 좌일선 중대가 계곡을 따라 병행 진출하였으며, 예비인 제7중대가 제6중대를 뒤따랐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적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제5중대의 공격은 8부 능선에서 세 차례나 저지되는 상황에 봉착하였다.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좌측 능선

으로 진출한 제30연대 제1대대가 측방에서 제2대대를 지원하면서 제2대대의 공격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 결과 제28연대 제2대대는 8일 02:40분에 395고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395고지를 상실한 지 3시간 40분 만에 주진지를 회복하여 백마고지를 장악하게 되었으며, 이날 제28연대와 제30연대의 부대교대도 완료하였다.[103]

5) 제5차 공방전(10월 8일 06:50~23:05)

10월 8일 새벽 395고지 전역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자 적은 제5차 공세를 전개하였다. 중공군 제334연대는 전날 395고지를 점령했다가 아군의 맹렬한 포격에 의하여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주봉을 탈취하려는 듯 파상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들은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05:30분에 여명공격을 가해 옴으로써 이제는 피아간에 기상 조건과 주야의 관계없이 서로 뺏고 빼앗기는 쟁탈전을 반복하게 되었다. 공격 양상은 피아간이 대동소이하여 일단 고지를 빼앗기면 포격으로 초토화시킨 후 새로운 공격부대를 투입해 집중적으로 395고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일관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재공격을 감행한 중공군 제334연대는 그들의 저지진지인 화랑고지 제3봉과 장송고지를 발판으로 하여 증강된 대대 규모의 새로운 공격부대를 투입해 3면에서 395고지를 공격하였다.

395고지 정상을 굳게 지키고 있던 국군 제28연대 제2대대(-)의 장병들은 적 부대의 공격을 맞이하여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짙은 안개와 유엔 공군기의 오폭으로 인해 08:10분 경 고지 정상을 적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특히 유엔 공군의 오폭은 395고지의 제5중대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고지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104]

395고지를 다시 상실하였다는 보고를 접한 사단에서는 고지 탈환을 위해 사단 예비인 제28연대 제3대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작전지시 제66호'를 12:00시부로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105]

이 작전지시에 따라 제28연대 제3대대(대대장 최창룡 중령)는 14:00시에 255고지를 출발하여 충성교 부근의 공격대기지점으로 이동하였다. 여기에서 공격준비를 완료한 대대는 다시 16:50분까지 3차로 부근의 S자형 능선 상에 병력을 전개하여 17:00시에 일제히 공격개시선을 통과할 예정으로 잠시 대기하였다.

그동안에 아군 포병의 포격과 유엔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이 계속되었다. 제2대대가 역습에 실패한 이후 줄곧 제압사격을 가하던 아군 포병은 16:40분부터 공격준비사격으로 전환하여 17:00시까지 20분 동안에 걸친 집중포격으로 395고지 일대를 초토화시켰다. 이에 앞서 미 제5공군 소속의 전폭기 편대가 12:40분부터 공격개시 전까지 10회에 걸쳐 적의 집결지와 포진지 및 효성동 계곡에 출현한 적 전차를 강타하는 등 사단을 근접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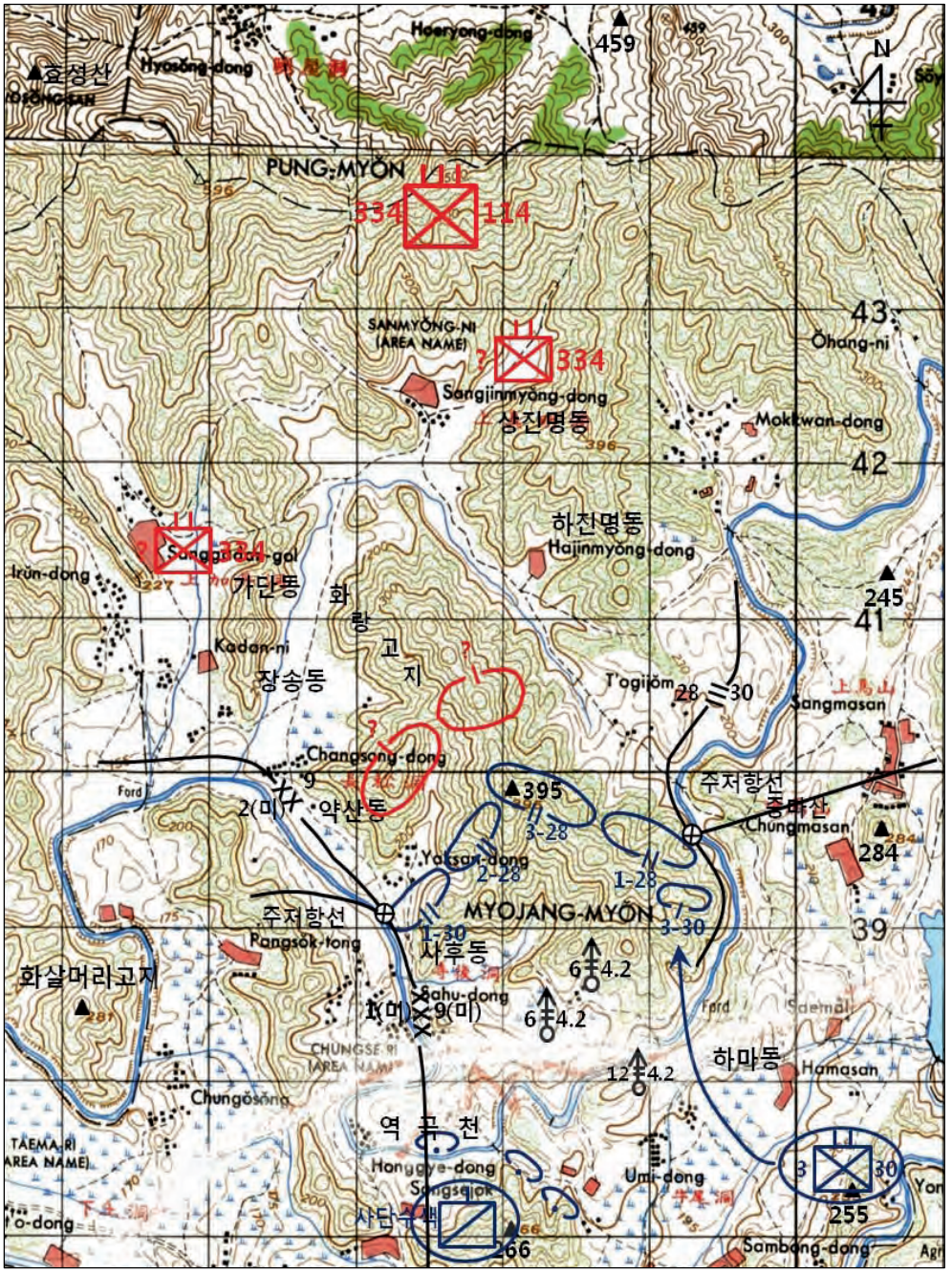
제28연대 제3대대는 17:00시를 기해 공격개시선을 통과해 1㎞ 전방의 395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대대는 19:20분 경 목표지점 200m전방까지 접근했으나 적으로부터 완강한 저항을 받아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였다. 대대는 적의 집중 포격과 진지상의 완강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사상자만 속출할 뿐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 무렵 적도 포격을 대폭 강화하고 병력을 증강시켰다. 적은 17:20분 경부터 포격을 대폭 증강하여 공격부대뿐만 아니라 백마산의 주저항선 일대를 초연으로 뒤덮이게 하였다. 그동안 적은 일일평균 4,000~5,000발의 포격을 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이날의 포격은 그 배를 능가하였으며, 특히 제3대대의 공격이 개시된 이후에 가해진 포격은 가장 치열한 것이었다. 또한 적은 20:00시를 전후하여 증강된 연대 규모의 병력으로 반격의 징후를 보이기도 하였다.[106)]

사단에서는 즉시 가용할 수 있는 화력을 총동원하여 최대한의 지원사격을 가하는 한편, 좌우 인접사단에도 협조를 요청해 화력증원을 꾀하였다. 항공조명하에 4개의 105㎜야포대대와 2개의 155㎜야포대대, 그리고 미 제49포병대대의 8″포는 물론 인접사단의 포병까지 가담하여 사격 지휘본부의 목표 제시에 따라 맹렬한 포격을 가하였다. 또한 2개 전차중대와 1개 중박격포중대, 그리고 보병대대의 중화기중대까지 이에 합세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6-11> 제5차 공방전 후 백마고지 상황



강력한 화력 지원 하에 제3대대는 22:00시를 기해 재공격을 감행하여 고지 정상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대대는 제2대대의 측방지원을 받아가며 1시간 동안에 걸친 수류탄 공방전을 전개하던 중 중앙의 제10중대가 적의 완강한 저항을 무릅쓰고 과감한 돌격을 가한 끝에 23:00시 경 마침내 목표인 395고지 정상을 탈환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2번째로 395고지를 빼앗긴지 15시간 만에 재탈환하였다.[107]

그러나 10월 6일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밀고 밀리는 공방전에서 국군 제28연대와 제30연대는 재편성이 불가피할 정도로 많은 병력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사단장은 적 포로의 진술을 기초로 적의 공격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단에 배속된 국군 제51연대를 우측 일선에 투입하고 제29연대를 395고지에 운용할 복안으로 '작전명령 제86호'를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108]

이로써 제29연대는 전선을 제51연대에 인계함과 동시에 10월 8일과 9일 밤사이에 제1대대와 제3대대를 각각 255고지와 화전리 지역으로 이동시켰으며, 9일과 10일 밤사이에 제2대대를 255고지에 집결시켜 사단 예비로서 역습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6) 제6차 공방전(10월 9일 00:20~10일 00:30)

중공군은 2개 연대의 병력을 투입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인적 손실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듯 395고지에서 물러난 지 1시간 30분 분도 안된 9일 00:20분에 다시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6차 공세를 감행한 적은 중공군 제114사단 예하 제342연대였다. 이 부대는 선호태가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투에 새롭게 투입된 부대였다.[109]

적측에서는 먼저 공격에 앞서 전과 다름없이 대대적인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였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 포격은 395고지를 비롯한 그 좌우의 주저항선 지대와 배후의 저지진지선 지대에 이르기까지 국군 제28연대 병력 배치지역 거의 전지역을 1,100여 발에 달하는 동시집중사격으로 강타하였다. 그 결과 교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군의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6-12> 백마고지 제6차 공방전



395고지 주봉에 배치된 제28연대 제3대대 장병들은 적의 포격이 멈추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대대의 전 화기를 동원해 최후저지사격을 가하였다. 또한 포병은 협조된 화력 계획에 따라 탄막사격을 실시하였으며, 4.2″박격포 중대와 대대의 81㎜박격포 중대도 모두가 최후저지사격에 가담하였다.

00:40분까지 교전이 계속되는 동안에 판명된 적의 공격 규모는 395고지 전방에 대대 규모의 적을 비롯해 우측의 제28연대 제1대대 정면에 2개 중대 규모, 그리고 좌단의 제30연대 제1대대 정면에 1개 중대 규모 등 총 2개 대대 병력이었다. 이들 적은 삼면에서 파상공격을 감행하였는데, 특히 395고지 정면의 적이 가장 집요하게 공격해 왔다.

395고지의 제3대대는 세 차례에 걸친 수류탄 투척전을 벌인 끝에 진지를 고수하였다. 이때 제30포병대대의 지원 포격은 395고지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제30포병대대는 18문의 포를 모두 395고지 북쪽 능선으로 지향시켜 시한신관에 의한 집중포격을 가해 적의 활동지역을 살상지대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포격과 사격 및 수류탄 투척으로 연속적인 타격을 가하자 기세가 꺾인 적은 교전 40분 만에 다수의 사상자를 남긴 채 물러났다.

그러나 백마산의 공방전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중공군 제342연대가 일격을 받고 물러선 뒤로 적측에서는 다시 포격을 재개하여 전보다도 더 격렬한 사격으로 395고지 일원을 강타함에 따라 1시간 동안의 낙탄수만 하여도 1,780발을 헤아렸으며, 이에 맞선 아군의 제압사격이 또한 그 배를 능가하게 되어 또다시 전장은 초연에 뒤덮였다.

포격이 뜸해진 것은 02:00시였으며, 적이 진지 앞에 나타난 것은 바로 5분 후인 02:05분이었다. 교전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난 03:00시 경 적은 병력을 증강하여 집중적으로 395고지를 공격하였다. 이로 인해 395고지의 제3대대가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진 상태로 철수하였다. 395고지를 넘어선 적은 계속해서 제28연대 제2대대 지역까지 진출하여 돌파구를 확대해 나갔다.

이 전투로 인해 국군 제9사단은 전투가 시작된 10월 6일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적의 압력은 시시각각으로 가중되어 제28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장병들이 무질서하게 역곡천까지 철수하는가 하면, 우측의 제1대대 진지에서는 백병전이 벌어졌다. 또한 좌단의 제30연대 제1대대도 인접 대대의 철수로 인하여 전면방어태세로 진지를 축소한 가운데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결국 중공군 제342연대는 최초로 아군의 주저항선을 돌파해 395고지 남쪽 700m 지점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아군의 포격과 사격에 저지되어 그들은 역곡천 북안의 돌출 능선, 즉 아군의 저지진지를 끝내 돌파하지 못하였다.[110]

제28연대(+)의 전황이 극도로 악화되자 사단에서는 제29연대를 다시 투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10월 9일 07:00시부로 '작전명령 제87호'를 하달하였다.[111]



백마고지 전투에 투입된 미 전차

이 명령을 받은 제29연대(연대장 김봉철 대령)는 즉각 연대 OP를 255고지에 추진개설하고, 제29연대 주력(제1, 제3대대)을 백마산 남쪽의 266고지와 우미동으로 각각 진출시켰다.

백마산의 주저항선이 돌파된 지 7시간 만인 9일 10:00시에 제29연대(-)는 반격을 개시하였다. 제3대대를 우, 제1대대를 좌로 하여 역곡천 북안에서 공격개시선을 정시에 통과한 연대(-)는 양 대대를 395고지 좌·우측 능선으로 진출시켜 목표의 양 측방에서 동시에 협공하였다.

그동안 연대에 배속된 제53전차중대가 395고지와 296고지의 적 직사화기를 제압했으며, 일반지원포병이 적측 화력의 2배를 능가하는 위력으로 포격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 제5공군에서도 공격개시 후 10~30분 간격으로 연속 출격하여 사단에서 제시하는 목표에 대한 적의 화력을 제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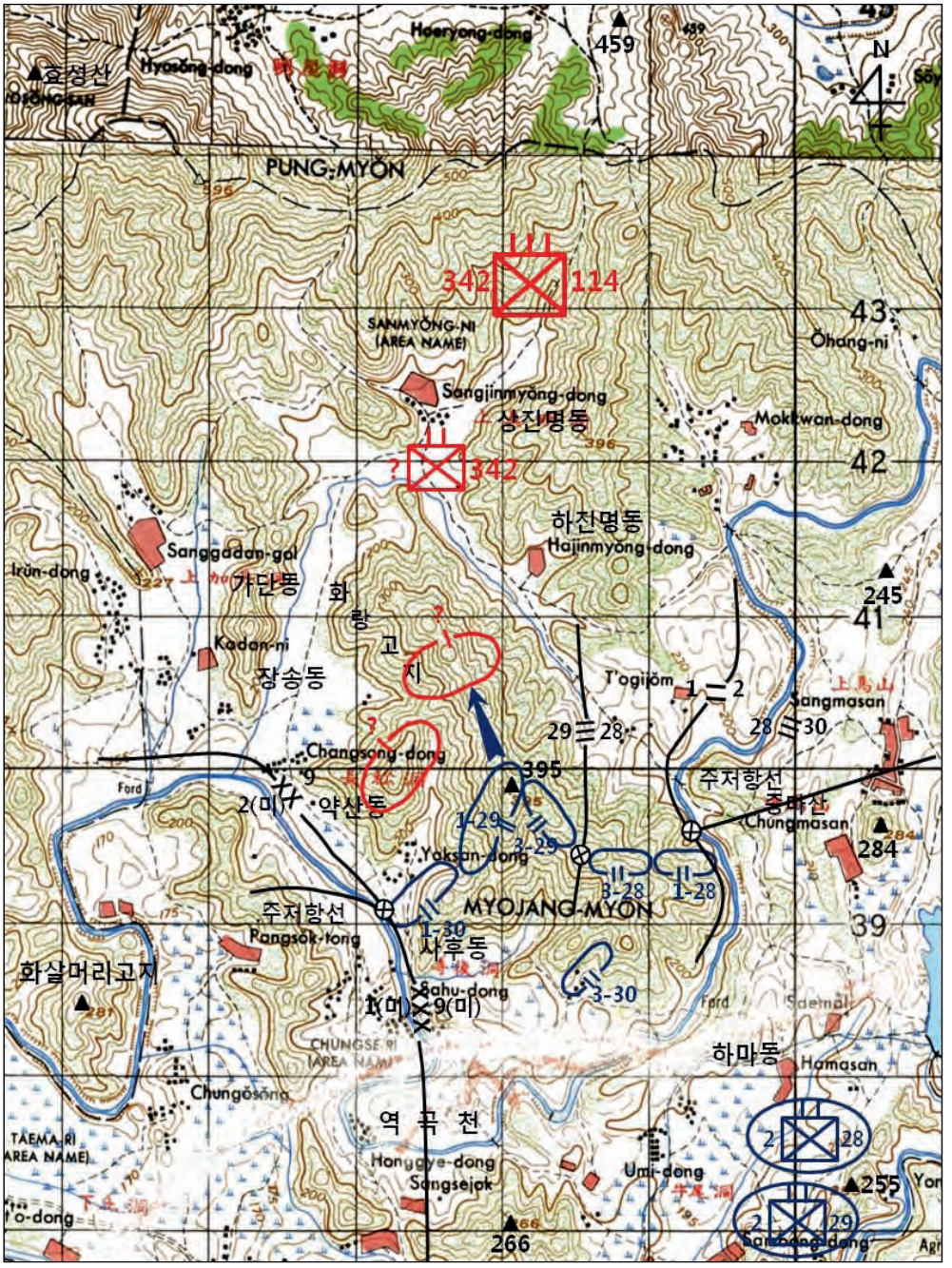
주봉을 목표로 공격한 제1대대는 적의 강력한 저항을 뚫고서 15:05분 경에 백마산 8부 능선까지 진출한 후 이날 자정 무렵까지 4차례에 걸친 돌격 끝에 주봉을 탈취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제29연대는 아군이 395고지를 상실한 지 약 21시간 만에 다시 탈환하게 되었다. 목표를 탈환한 제29연대(-)는 제1대대와 제3대대를 395고지의 좌우측 능선과 그 북쪽 비탈에 각각 배치하여 적의 역습에 대비하는 한편, 배속부대인 제30연대 제1대대를 점령 중인 좌측 진지와 연결하여 전면적으로 진지를 재조정하였다.[112]

한편 제29연대(-)가 목표지점을 탈환하기에 앞서 사단장 김종오 소장은 연대의 역습이 순조롭게 진전되는 상황을 보고서 일부 전투지경선을 재조정하고 배속 관계를 조정한 '작전지시 제68호'를 하달하였다.[113]

이로써 사단은 주봉을 탈환한 직후인 10월 10일 00:30분 현재, 사단 주저항선 우일선에 제51연대를, 중앙 우일선에 제30연대 1개 대대를 중앙 좌일선에 제28연대 2개 대대를, 주봉을 포함한 좌일선에 제29연대 및 제30연대 1개 대대(배속)를 각각 배치한 가운데 적의 역습에 대비하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6-13> 제6차 공방전 후 백마고지 상황



7) 제7차 공방전(10월 10일 04:30~06:40)

9일의 격전에서 큰 출혈을 입고 퇴각한 중공군 제342연대는 재편성을 완료한 듯 이날 04:30분에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짙은 농무를 이용하여 반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날 밤은 농무가 산 정상에까지 끼여 전술항공과 전차포지원 및 포병지원이 곤란하여 탄착을 정확하게 유도하지 못하였으므로 계획된 탄막사격만으로 적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그런데 지난 6일 이래 연 4일간 주봉을 차지하고자 6차례나 공격을 반복하다가 극심한 출혈을 강요당했으면서도 적의 공격은 중단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적은 지구전으로 아군의 병력을 소모시켜 끝내 이 고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적을 향해 박격포 사격을 가하는 국군 제9사단 박격포팀

제29연대장은 제1대대와 제3대대에 진지를 고수하도록 하는 한편 255고지에 예비로 있던 제2대대에게 제1대대와 제3대대를 지원하게 하였다. 그동안 395고지의 제1대대 진지 전방에서 수류탄전과 백병전이 벌어졌다. 제1대대는 전력을 다하였으나 파상적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적을 물리치지 못하고 마침내 주봉에서 물러나 9부 능선에서 병력을 수습하였다. 이 무렵 제2대대는 255고지를 출발하여 역곡천을 넘어선 후 곧바로 1개 중대를 제3대대에, 주력을 제1대대에 급파하였다.

백마산 9부 능선에서 병력을 수습한 제1대대는 일부 병력으로 적을 견제하면서 주력이 역습을 개시하였다. 대대는 빗발치는 적 탄환을 뚫고 돌격선에 이르러 일제히 수류탄을 투척한 후 적진에 뛰어들어 적을 사살하고 06:30분에 395고지 정상을 탈환하였다. 적은 동이 틀 무렵 마침내 하진명동 쪽으로 패주하였다. 이후 제1대대는 지원 병력으로 도착한 제2대대와 합세하여 진지를 강화하였다.[114]

이와 같이 전황이 호전되자 사단장은 '작전지시 제69호(10월 10일 06:30부)'로써 제29연대에 배속되었던 제30연대 제3대대를 해제와 동시에 원대 복귀시켰다.[115] 그리고 9일 밤에 열차편으로 올라온 보충 병력이 이날 아침 사단에 도착하였다. 백마고지 전투가 개시된 이후 최초로 장교 1명과 사병 889명이 보충되자, 사단에서는 이 병력을 즉각 각 연대에 할당하여 손실병력을 충당하게 하였다.[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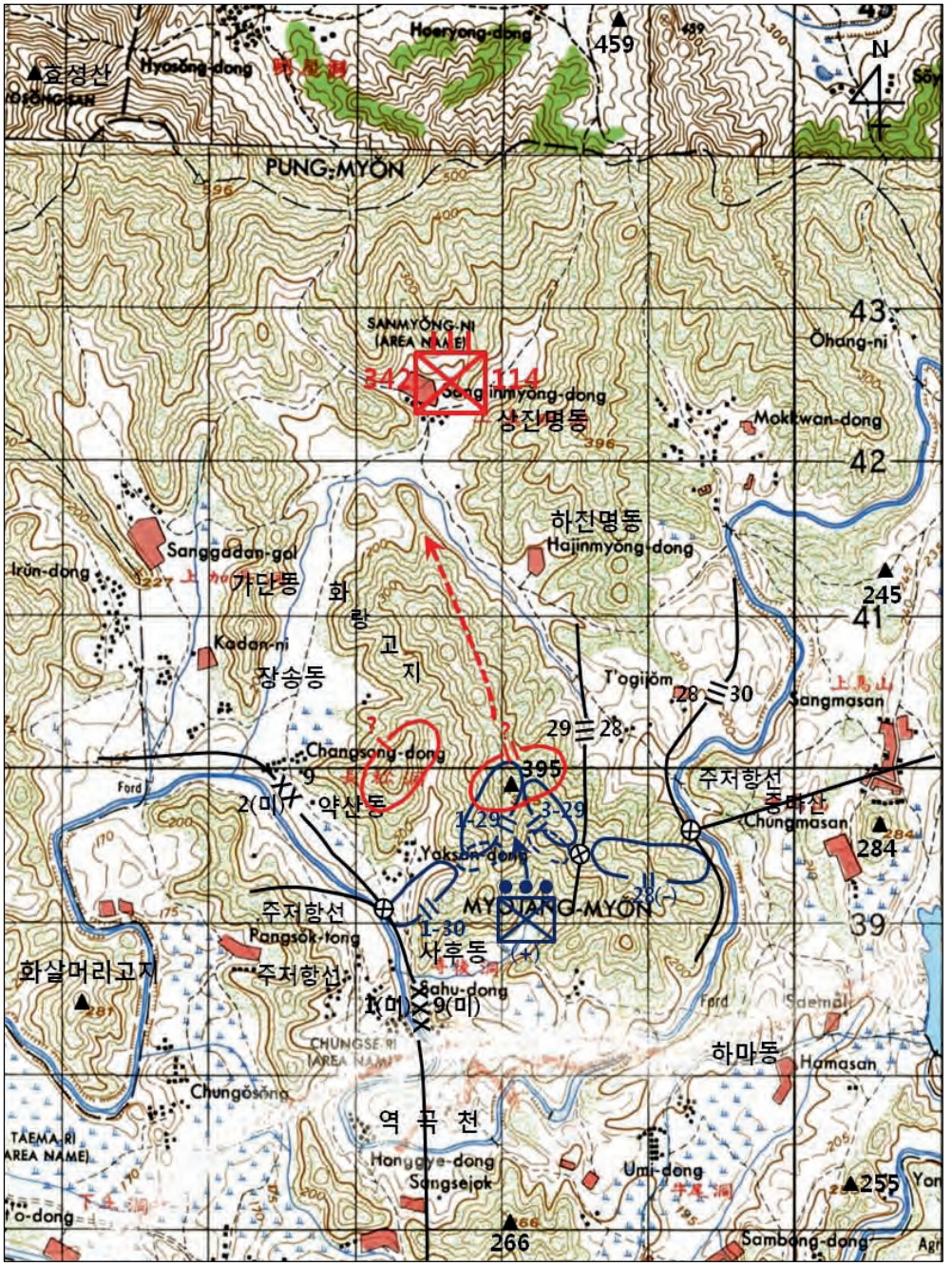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8) 제8차 공방전(10월 10일 08:00~13:20)

중공군 제342연대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95고지를 확보하려는 집념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10일 08:00시를 기하여 다시 공격을 감행했다. 중공군은 국군 제29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의 전투지경선 부근인 북동쪽 능선으로 침투하였다.

지난밤부터 산야를 뒤덮은 짙은 안개가 11:00시까지 걷히지 않고 시계를 가림으로써 아군은 조기에 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이날의 전투는 수류탄전으로 시작되었다. 여기에 항공근접지원과 전차의 지원마저 여의치 않아 순식간에 백병전으로 변하여 혈전을 벌이게 되었다.

<상황도 6-14> 제8차 공방전 후 백마고지 상황



이 무렵 미 제213포병대대의 155㎜포탄이 395고지 북쪽능선을 강타하다가 제3대대 진지에까지 떨어지면서 일대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를 계기로 제3대대는 395고지 남쪽의 9부 능선으로 밀리게 되었다. 이 오폭사고의 책임을 물어 미 제213포병대대장이 전투 후에 인책되었다고 할 정도니, 이 와중에 혈투를 벌어야 했던 제29연대 장병들의 참화가 얼마나 컸던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9부 능선으로 일단 후퇴한 제3대대는 곧 병력을 수습하여 09:40분까지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이후 50분 동안에 걸쳐서 세 차례의 역습을 감행하였다. 이로부터 300m 내외의 거리를 두고 피아간에는 일진일퇴를 되풀이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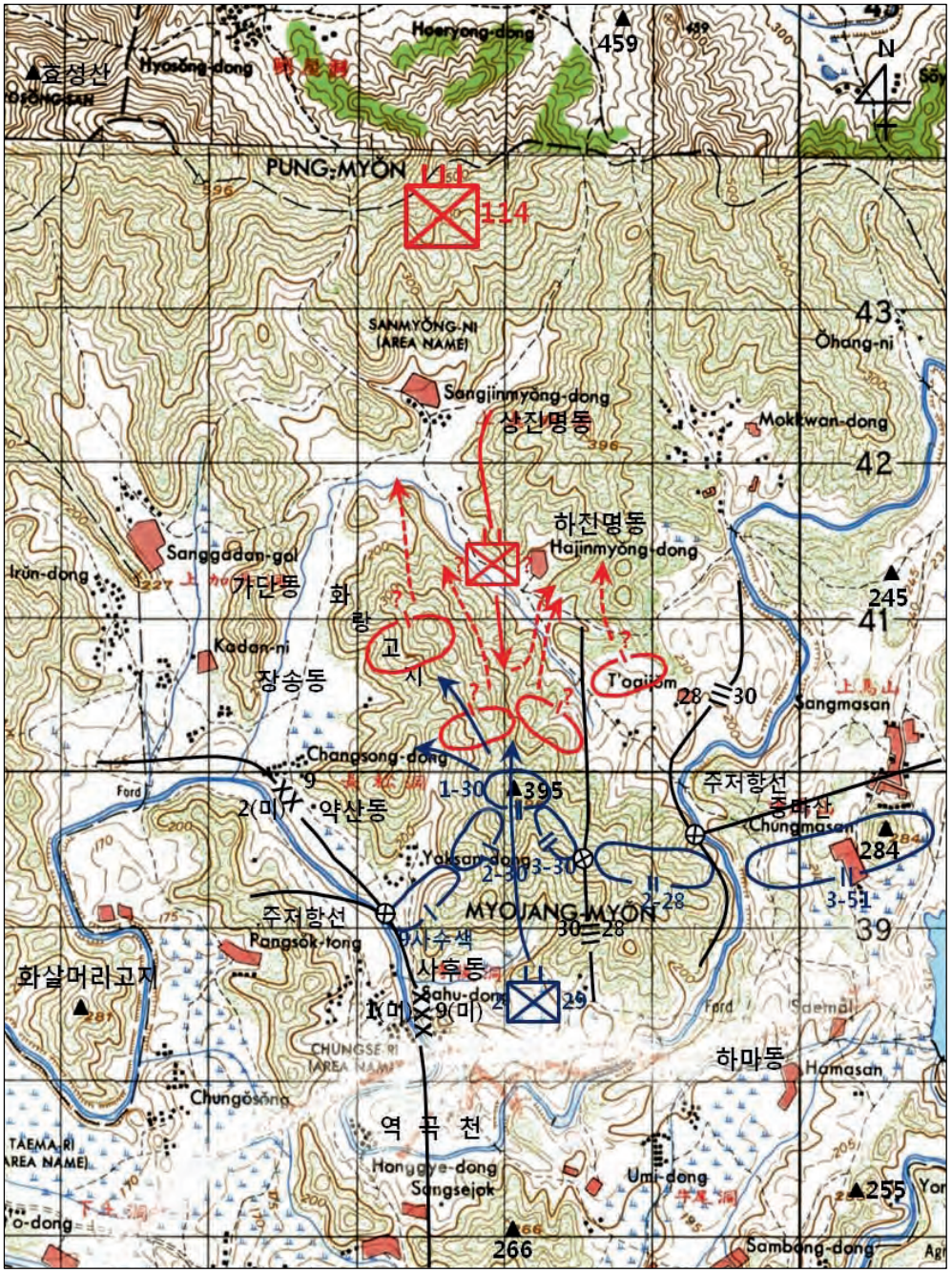
제3대대가 수차에 걸친 역습에도 불구하고 정상 탈환을 못하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한 연대장은 제2대대와 제3대대의 각 중대에서 특공대를 선발하여 수류탄 돌격을 가하라는 강경한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5개 중대에서 각각 10명씩 자진 지원 형식으로 특공대원을 선발하여 5개 분대로 구성된 특공소대(+)가 편성되었고, 이 특공대가 12:00시를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수류탄을 가슴에 안고 적진으로 육박한 특공대원들은 수류탄 투척거리까지 접근하여 한동안 수류탄 세례를 가하다가 제7중대 제3소대장 송용길 소위의 신호하에 일제히 수류탄 안전핀을 뽑아 들고 육탄돌격을 감행하였다. 이들은 적의 기관총 진지를 파괴한 후 13:20분 경에 다시 395고지를 탈환하였다.

이로써 제29연대는 여덟 번째로 395고지 정상에 올라왔던 중공군 제342연대 소속의 병력을 완전히 격멸하고 본래의 진지를 회복하여 전열을 재정비하기에 이르렀다.[11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6-15> 백마고지 최후 공방전



9) 제9차 공방전(10월 10일 15:20~11일 12:04)

사단장 김종오 소장은 제29연대가 13:20분 경에 395고지를 재탈환하자 화랑고지와 장송고지 등 본래의 아군 전초진지들을 탈환하여 후환을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작전지시 제72호'를 하달하였다.[118]

작전지시의 요지는 제30연대로 하여금 11일 08:30분을 기하여 1개 대대를 투입, 목표 A와 B를 탈취하고 지대내의 적을 완전히 격멸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목표 A는 395고지 북서쪽의 장송고지이며, 목표 B는 화랑고지 제3봉이었다.

이와 같이 국군 제9사단이 새로운 공격작전을 준비하는 동안에 적은 다시 395고지를 공격하기 위하여 공격부대를 교체하였다. 중공군 제38군단은 제342연대가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자 제112사단 예하의 제335연대를 다시 투입하였다.

중공군 제335연대는 10일 오후 한때 전선이 소강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은밀히 화랑고지 부근으로 이동한 후 일몰이 가까워진 18:00시를 기하여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로써 395고지 북쪽 비탈에 위치한 제2대대 진지에서 교전이 개시되었다.

교전 45분 만에 적이 제7중대의 진지를 돌파하면서 제2대대 각 중대의 병력은 서로 뒤섞이어 무질서하게 395고지 남쪽 계곡으로 후퇴하였다. 이에 따라 적의 압력은 더욱 가중되는 가운데 제3대대 진지에서 다시 교전이 전개되고, 19:30분에 이르러서는 이 양 대대와의 유무선이 모두 두절되어 상황 파악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후 피아간에는 사투에 가까운 교전이 다음날(11일) 04:00시까지 계속되었다.[119]

이와 같이 전황이 유동적으로 변하자 사단에서는 전날 16:00시에 하달한 '작전지시 제72호'에 대한 수정지시 제1호를 하달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120]

① 제28연대장

㉮ 예하 일부병력(1개 중대)을 245고지(제2대대 정면 1.4㎞ : 중마산북쪽)와 395고지 남쪽 1.6㎞에 배치하고 08:00시부터 395고지에 대하여 사격을 가하여 제29, 제30 양개 연대 공격을 기만하라.

㉯ 예하 1개 대대 병력(제3대대)으로 적을 반격할 수 있도록 대기케 하라.

㉰ 양동부대는 책임중대장을 지정하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② 제30연대장은 공격제대를 제외한 예하 2개 대대를 대기시켜 반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동시에 공격제대 증원에 만전을 기하라.
③ 제53전차중대장은 예하 2개 소대로 하여금 지정된 2개소를 점령케 하고 395고지를 포격하라.

이 지시에 따라 제29연대와 제30연대가 반격을 시작하여 제29연대는 12:04분에 395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고, 제30연대는 뒤이어 목표 A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제30연대는 또다시 역습을 기도한 적으로 인해 12일까지 격전을 계속 벌이게 되었다.

10) 제10차 공방전(10월 11일 16:20~12일 13:20)

제2대대의 선봉에 섰던 제6중대는 적과 사격전을 전개하였다. 그동안 연대장 김봉철 대령은 395고지 정상에 제1대대를 배치하고 그 남쪽 능선에는 제2대대 주력을, 그리고 동남쪽 능선에는 제3대대를 각각 배치하였다.

제1대대는 대대 OP를 고지정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15:30분부터 적의 포화가 집중하기 시작하더니 16:20분에 하진명동 방면에서 적 1개 대대 규모가 접근하여 17:40분에 395고지 정상으로 밀려들었다. 적은 제2중대 진지 정면을 집중 돌파하고자 하였다. 제2중대는 적과 백병전을 벌인 끝에 역부족으로 진지의 일부를 상실했다. 이어 돌파구를 확대한 적은 정상으로 쇄도하여 순식간에 고지 정상을 점령하였다.

제1대대가 적의 공격으로 다시 정상을 내어주게 되자 고지 서쪽과 동쪽의 제2대대와 제3대대도 그 영향을 받아 20:00시 경에 각각 점령하고 있던 진지에서 물러났다.

이에 연대장은 제2대대와 제3대대로서 고지의 중간지점에 동쪽의 제28연대 제2대대 및 서쪽의 사단 수색중대와 연계한 일련의 저지진지를 급편하여 정상의 적을 견제하게 하는 한편 제1대대의 전열을 수습하여 즉시 역습을 감행하게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날 사단장 김종오 소장은 '작전지시 제73호(11일 11:00시부)'를 하달하여 제28연대의 전투 정면을 축소시켜 역곡천 동안지역을 우일선 제51연대에 인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0시에 제51연대는 제3대대에게 제28연대 제2대대의 진지를 인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역곡천 서안의 395고지 일원을 제외한 사단의 전 전선을 담당하게 되었다.

10월 12일 395고지가 다시 적의 수중에 넘어가자 사단장 김종오 소장은 02:30분에 '작전명령 제78호'를 하달하여 제30연대로 하여금 다시 한 번 공격을 감행하기로 했다.

공격 명령을 받은 제30연대는 OP를 방석동 무명고지에서 제29연대 제3대대 진지(395고지 동남쪽 800m)로 이전하고 05:30분부터 255고지의 주력을 395고지 남쪽으로 추진시키고 제1대대를 공격부대로 선정하였다.

제1대대는 08:00시 포병의 지원하에 목표 지점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8부 능선에서 적과 격돌하여 좀처럼 승패를 결정짓지 못한 채 혼전만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00시 경 연대장의 명령을 받고 제2대대가 고지 동남쪽 능선으로 투입됨에 따라 제1대대와 제2대대가 협공을 가하게 되었다.

제1대대는 제2대대의 지원하에 공격을 감행하여 공격이 개시된 지 약 5시간 후인 13:20분 경에 마침내 고지 탈환에 성공하였다. 이날 대대가 거둔 전과는 사살 357명, 살상 추정 160명, 노획 소련제 소총 8정, 다발총 13정, 57mm 무반동총 1정, 3.5″로켓 2문, 방독면 1개 등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1) 제11차 공방전(10월 12일 15:40~16:50)

395고지 정상을 재탈환한 제30연대는 '사단 작전지시 제74호'에 따라 제29연대의 임무를 인계받게 되었다. 그런데 제30연대가 임무를 전환하여 진지를 교대하는 사이에 중공군 제355연대의 역습이 뒤따랐다.

중공군은 395고지를 상실한 직후 화랑고지 제3봉에서 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엄호사격을 가하며 그들 분산병력을 수습하는 듯하더니, 이로부터 1시간 20분이 지난

14:40분에 다시 역습을 시도하였다. 대대는 즉시 포격을 유도하였으나 적은 포화 속을 뚫고서 마침내 395고지 정상 동북쪽의 제3대대 제9중대 진지 정면으로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이때 제3대대는 공교롭게도 제29연대 제3대대와 진지를 교대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받게 되자 양 대대는 즉각 진지교대를 중단하고 동시에 집중사격을 가하여 적의 침투를 저지하였다. 그 결과 적은 1시간 10분 동안 교전에서 대부분의 병력을 잃고 16:50분을 전후하여 하진명동 방향으로 분산 후퇴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제29연대 제11중대와 제30연대 제9중대는 진지교대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선을 빚지 않으면서 신속하고도 긴밀한 협동으로 적에게 연속적인 타격을 가하여 수훈을 세웠다. 제30연대는 17:30분 경에 제29연대로부터 진지 인수를 완료하고 고지 정상에 제1대대를, 서남쪽 능선에 제2대대를, 동남쪽의 9부 능선에 제3대대를 각각 배치하였다.[121]

12) 제12차 공방전(10월 12일 19:50~15일 11:00)

12일 주간공격에 실패한 중공군 제335연대는 날이 어두워지자 또다시 야간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야간공격은 12일 19:30분부터 13일 03:35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철야로 이어졌으며, 이에 대항한 제30연대 제1대대와 제3대대 장병들은 완강히 버티면서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고 적에게 연속적인 타격을 가한 끝에 적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395고지에서 공방전이 전개되는 동안, 사단장 김종오 소장은 제30연대 관측소(255고지)에서 시종 전황을 지켜보다가 13일 02:00시를 전후하여 제30연대가 방어전에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자 제28연대장에게 395고지 전방의 화랑고지를 공격하라고 구두로 명령했다.[122] 그러나 제28연대의 공격과 때를 같이하여 제30연대가 백마고지 주봉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 또다시 물러나게 되었다. 이에 제28연대는 제30연대와 임무를 교대하여 10월 15일까지 밀고 밀리는 백병전을 전개하면서 마침내 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123] 이어 제29연대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기세를 몰아 395고지 북쪽 화랑고지 선상의 전초진지를 탈환함으로써 적을 완전히 격퇴하였다. 거의 궤멸상태에 이른 중공군 제38군단은 예하 사단을 축차적으로 철수시켜 전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때 화살머리고지의 프랑스대대도 많은 인명손실을 입었지만 끝까지 진지를 확보함으로써 좌측으로부터 백마고지에 미치는 적의 위협을 차단하여 국군 제9사단의 백마고지 방어에 기여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군 제9사단은 10월 6일부터 중공군 제38군단의 공격을 받아 10여 일간 12차례의 쟁탈전을 반복하여 7회나 주인이 바뀌는 혈전을 수행한 끝에 백마고지를 확보하였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 제38군단은 총 9개 연대 중 7개 연대를 투입하여 그 중 1만여 명이 전사상 또는 포로가 된 것으로 집계 되었으며, 국군 제9사단도 총 3,5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보고되었다.[124]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백마고지 전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395고지의 전략 및 전술적 중요성이다. 이른바 철의 삼각지대로 불리는 이 지역은 적과 아군 모두 중요하게 판단한 전략적 요충이었으며, 동서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와 서울까지 연결되는 기계화부대의 기동로가 모두 이곳에서 교차된다. 또한 중부전선 일원에 병력의 이합집산이 용이한 공간을 제공하며, 이 고지를 장악하는 쪽이 철원평야 서남부의 전술적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만약 아군이 이 고지를 상실하였다면 철원평야 전체와 주요 도로를 모두 포기하고 약 4~5㎞ 후방으로 물러서지 않을 수없는 상황이었다.

둘째, 백마고지 전투의 승리가 당시 유엔군의 전체적인 작전 주도권 확보에 크게 기여한 점이다. 1952년 6월부터 전 전선에서 전개된 고지쟁탈전 양상이 일반적으로 적이 선제공격을 시작하여 고지를 탈취한 반면, 아군은 이를 탈환하기 위한 반격작전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 아군은 고지를 아예 포기하거나 일부만을 탈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공군 제38군단이 중부전선의 요지라고 파악하고 공격한 백마고지는 중서부전선에서 가장 규모가 큰 목표였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국군 제9사단은 적이 노리는 이 결정적인 목표를 필사적으로 막아냄으로써 적의 의도를 좌절시켰고, 결국 이러한 백마고지 전투의 결과는 인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저격능선 전투에서 아군이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선제공격을 시도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백마고지 전투와 뒤이은 저격능선 전투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유엔군 측은 재개된 휴전회담에서 공산군 측을 정치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다.

셋째, 백마고지에서의 승리는 국군의 명예를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1952년 중반부터 본격화된 국군의 증강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당시 백마고지 전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국내외의 많은 신문과 방송들이 395고지를 둘러싼 국군과 중공군의 전투에 관심을 기울였다. 따라서 이 전투의 진행 상황은 연일 자세하게 후방에 전해졌는데, 그 결과 이 전투는 단지 하나의 고지쟁탈전을 넘어서 한국 국민 전체와 자유세계가 바라보고 있다는 압박감 속에서 국군의 명예를 걸고 싸웠던 전투였다.

특히 '중공군과 국군의 대결'이라든가 혹은 '국군의 능력과 전투력을 시험한다'는 등의 소문은 실제 전투를 담당했던 국군 제9사단 장병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였다. 하지만 국군 제9사단의 지휘관과 사병들은 1951년 초에 국군 제3군단이 현리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생겼던 모든 오욕을 씻어내기 위해서 일치단결했으며, 그 결과 바로 백마고지에서 중공군과 정면 대결하여 승리함으로써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제9사단이 거둔 백마고지 전투의 승리는 이미 1952년 5월부터 미군이 주도하고 있던 국군 증강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엔군 지휘관들은 이 전투에서 국군 부대가 중공군 부대를 제압하는 것에 크게 감명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국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 사실 미국의 군사정책 결정자들은 1951년 초에 국군이 보여준 지휘관의 능력부족과 훈련미숙 등을 이유로 한국군의 재편성 및 증강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국군 제9사단이 백마고지에서 거둔 승리는 이러한 국군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며, 장차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한반도에서는 국군 자력으로 공산군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125]

3. 저격능선 및 삼각고지의 쇼다운(Showdown)작전

저격능선 및 삼각고지 전투는 1952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42일간 미 제9군단 소속의 국군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이 김화 북방 7㎞ 지점에 위치한 저격능선과 삼각고지에서 중공군 제15군단과 공방전을 벌인 전투였다.

국군 제2사단은 하감령에서 동북쪽으로 하소리에 이르는 주저항선에서 오성산(△1062)을 확보하고 있는 중공군 제15군단의 제45사단과 대치중이었으며, 그 좌측으로 미 제7사단이 철원평야 동쪽의 중가산에서부터 김화 북쪽 하감령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 중공군 제45사단은 오성산에서 김화로 뻗어 내린 능선상의 고지군에 전초진지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그 중 상감령 고개 동쪽과 서쪽의 저격능선(△580)과 삼각고지(△598)의 전초는 국군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의 전초진지로부터 불과 200m 거리에 있어 아군 진지를 감제 관측할 뿐만 아니라 김화방어에도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2년 여름부터 공격작전을 시도한 적이 가을에 접어들어 전 전선에서 작전의 주도권을 잡고 아군 전초진지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하였고 그 일환으로 미 제9군단의 서측방 백마고지에 대한 공격도 실시하였다.

이에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이와 같이 공세로 나오고 있는 적을 수세로 몰아넣고 아군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제한된 공격작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126]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젠킨스 미 제9군단장을 사령부로 불러 다음과 같은 자신의 작전구상을 설명하였다.[127]

① 북한군과 중공군으로 하여금 공격을 중지하고 수세를 취하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유엔군이 주도권을 장악한 제한된 공격작전을 실시한다.
② 공격목표는 오성산 부근의 중공군 전초 진지 가운데 2개 목표를 선정하여 공격하되, 작전지역이 확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 지정된 목표만을 탈취한다.
③ 공격부대는 국군과 유엔군 1개 부대씩을 선정하여 각각 1개의 목표를 탈취하도록 하되 각 부대의 공격병력은 1개 대대 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④ 공격간 군단의 화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공격부대를 지원하고 200회 이상의 항공근접지원을 요청하여 타격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유엔군의 우세한 화력을 과시하여 중공군의 기세를 꺾어 놓는다.

⑤ 이 작전계획은 극비리에 추진하여야 하며,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김화 북쪽 방어선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한 미 제9군단의 공격작전 계획을 승인해 주도록 유엔군사령관에게 건의하였다. 이 작전은 아군이 공격작전을 감행할 능력이 있다는 '힘의 과시'라는 의미에서 소위 '쇼다운 작전(Operation Showdown)'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작전은 휴전협상이 결렬된 10월 8일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승인받아 적극 추진되었다.[128]

미 제8군사령관으로부터 이와 같은 작전 명령을 받은 제9군단장 젠킨스(Reuben E. Jenkins) 소장은 10월 9일 20:00시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군단 작전계획 제32호'를 예하 부대에 하달하였다.

1. 상황 : 생략
2. 임무 :
   가. 군단은 D일 H에 공격을 개시하여 598고지와 저격능선을 탈취한 후, 주저항선을 정비하고 예상되는 적의 공격에 대비하는 동시에 적에게 최대한으로 타격을 가하려 한다.
   나. 공격개시선은 미 제7사단장과 국군 제2사단장이 선정한 대로 결정한다. H시는 각 사단장이 협조 결정하여 군단의 승인을 받으라.
3. 실시
   가. 미 제7사단
      (1) 보병 1개 대대를 초과하지 않는 병력과 기타 지원화력으로 D일 H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598고지를 탈취할 것.
      (2) 목표를 탈취하면 주저항선을 정비하고 적에게 최대한의 타격을 가할 것.
      (3) 국군 제2사단과 CT 668424 지점에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것.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국군 제9사단 지역에서 적의 반격이 있을 경우 전차 1개 중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나. 국군 제2사단(배속: 제37경보병연대, 제59전차중대, 미 제140전차대대 A중대)

(1) 보병 1개 대대를 초과하지 않는 병력과 기타 지원화력으로 D일 H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저격능선을 탈취할 것.

(2) 목표를 탈취하면 지대내의 유리한 지역을 택하여 주저항선을 정비하고 적에게 최대한의 타격을 가할 것.

(3) 미 제7사단과 CT 668424 지점에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것.

다. 국군 제9사단(배속: 제51경보병연대, 제1야포단, 제53전차중대)

(1)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

(2) 군단 작전기간 중 지역내의 위력수색을 실시할 것.

미 제9군단의 작전계획은 국군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에서 각각 1개 대대로서 저격능선과 삼각고지(△598)를 탈취한 후 적의 공격에 대비한다는 것이었다. 이 작전계획에 따라 사단은 작전계획을 수립하였고 군단은 D일 H시를 14일 05:00시로 결정하였다.[129]

저격능선 공격을 담당하게 된 국군 제2사단(사단장 정일권 중장[130])은 1952년 6월 29일부로 김화지역에 진출하여 미 제40사단의 작전지역을 인수하면서부터 이곳의 방어에 임하고 있었다. 사단의 주저항선은 남대천 부근의 봉미-갈골-하구정-외야동을 잇는 선에 형성되어 있었다. 사단의 좌측에는 미 제7사단이, 우측에는 국군 제6사단이 각각 인접하여 다함께 미주리선(Missouri Line) 방어에 임하고 있었다.

국군 제2사단의 공격 목표인 저격능선은 철의 삼각지대 중심부에 자리 잡은 오성산과 인접한 남대천 부근에 솟아오른 해발 580m의 무명능선이었다. 저격능선이라는 명칭은 1951년 10월, 중공군 제26군단이 이 능선에서 미 제25사단을 저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부터 '저격능선(Sniper Ridge)' 또는 '저격병 능선'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지형적으로 저격능선은 중공군에게는 오성산을 방어하기 위한 중요한 관문이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제2사단에게는 사단 주저항선을 감제하는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오성산 공격의 발판이 되는 고지였다. 이런 저격능선은 남쪽의 A고지와 그 우측의 돌바위고지 그리고 북쪽의 Y고지로 이루어져 있었다.[131] 저격능선 좌측에는 삼각고지가 위치하였는데, 삼각고지는 역삼각형 형태의 고지군으로써 남쪽의 제1봉인 598고지를 중심으로 동북쪽 800m 제2봉(제인러셀고지), 서북쪽 900m에 돌출한 제3봉(파이크봉) 등 세 개의 봉우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저격능선과 삼각고지 사이에는 상감령이라고 불리는 고개가 있었다.[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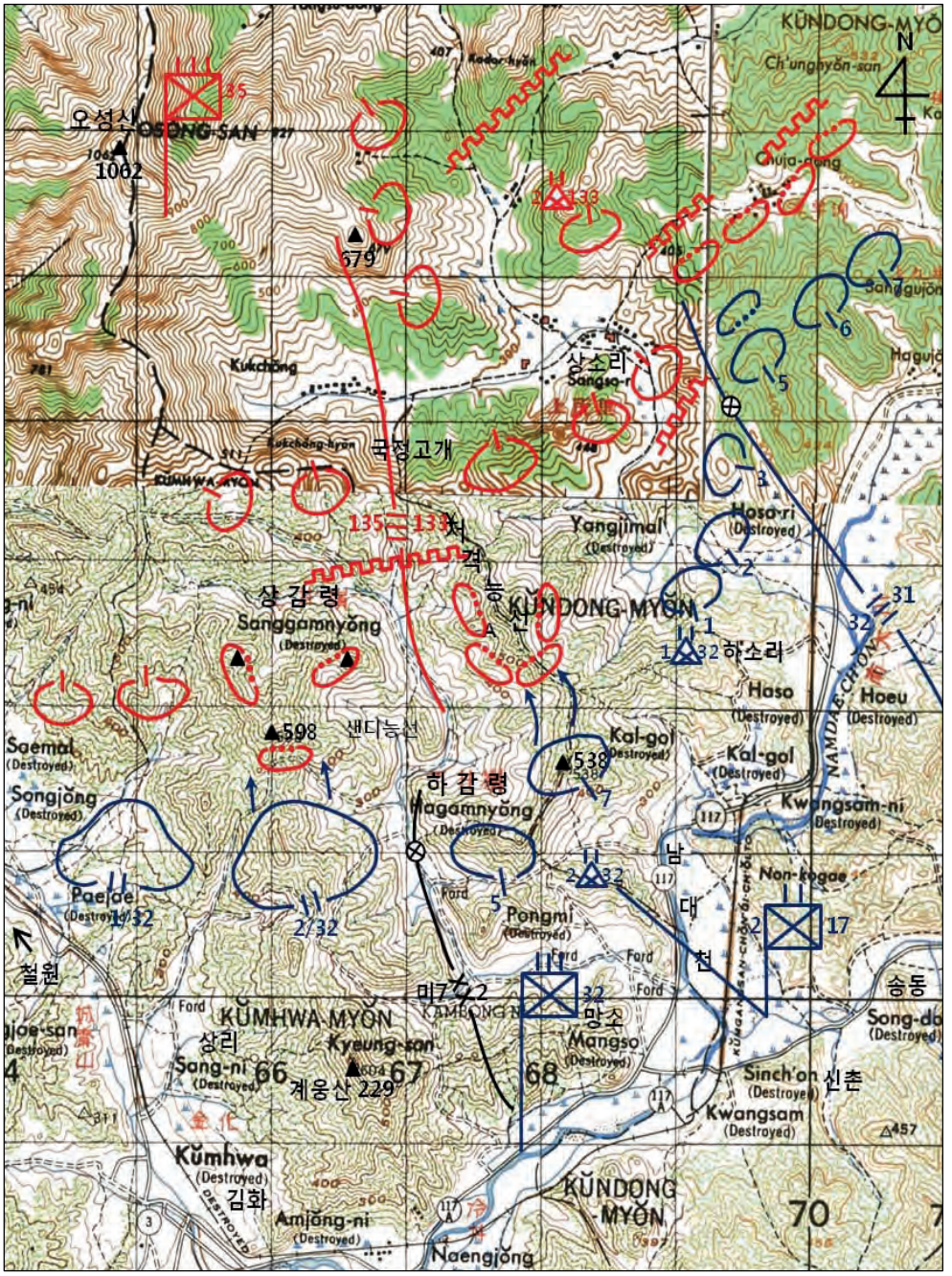
국군 제2사단은 남대천 북방 일련의 능선을 따라 편성된 주저항선에 예하의 제32, 제31, 제17연대를 배치하고 제37경보병연대를 예비로 확보하고 있었으며 그 중 제32연대가 저격능선 남쪽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사단의 좌측에 미 제7사단이 한탄강 좌우로 서방산(△717)과 오성산에서 뻗은 고지군에 주저항선을 편성하고 있었다.[133]

사단 정면의 적은 중공군 제15군단 예하 제45사단으로서 삼각고지와 그 전방에는 제45사단 제135연대가, 저격능선과 그 전방에는 제133연대가 배치되어 있었다.[134] 중공군 제45사단은 1951년 5월 춘계공방전 당시 심한 타격을 입고 금성부근에서 부대를 정비한 후, 1952년 4월 중순 이 지역에 다시 투입되었다. 중공군 제45사단은 제133, 135연대를 오운리와 오성산 남쪽에 각각 전개하고 제134연대를 예비로 삼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방어 편성을 마친 중공군은 깊은 교통호로 연결된 견고한 갱도진지를 구축하고 탄약과 식량을 저장하는 등 장기적이고 공고한 방어대책을 세웠다. 1952년 7월 말까지 제45사단이 구축한 방어 시설물은 총 연장 8.8㎞의 갱도 306개와 엄개참호 160개와 교통호 53㎞ 그리고 길이 2.1㎞의 대전차호 4개였다. 또한 참호 2,400개와 노루방책 2.6㎞, 철조망 2.3㎞, 동굴양식창고 61개, 동굴 탄약창고 65개, 갱도와 연결된 엄폐식 취사장 140개, 각급 지휘소 및 관측소 204개를 건설하여 본래 계획된 임무의 85%를 완성하였다.

<상황도 6-16> 삼각고지 및 저격능선 전투



특히 저격능선과 삼각고지 일대에 대해서는 포로가 된 국군으로부터 입수한 첩보에 따라 진지를 더욱 강화하고 병력을 각각 대대 규모로 증강하여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취하였다. 중공군은 저격능선 북사면 능선하단부터 상단까지 수직으로 연결된 폭 2m, 깊이 1.5m의 교통호를 20m 간격으로 굴착하여 능선을 오르는 통로로 이용하였다. 또한 8부 능선에 좌우로 연결된 교통호를 따라 8~10m 간격으로 공중폭격과 포격에도 지탱할 수 있는 엄체호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능선 북단에 100~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호를 구축하여 병력을 수용하고 탄약과 식량을 저장하고 있었다.[135]

미 제9군단은 10월 14일 05:00시에 '쇼다운작전'을 개시하였다. 군단 예하 16개 포병대대 280문의 야포가 일제히 포문을 열었으며, 유엔 항공기의 근접항공지원이 개시되었다. 포병의 사격으로 저격능선과 삼각고지는 물론 오성산 전체가 섬광과 포성으로 지각이 무너지는 듯하였다.[136] 곧이어 국군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이 저격능선과 삼각고지에 대해 각각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군 제2사단은 공격부대로 제32연대(연대장 유근창 대령) 제3대대(대대장 신대균 소령)를 투입하였다. 제32연대 제3대대는 제10중대와 제9중대를 각각 좌우 공격부대로 하고, 제11중대를 예비로 하여 저격능선으로 향하였다. 공격부대는 적의 탄막사격을 헤치며 전진하였다. 이때 연대에 배속된 미 제140전차대대 A중대가 전차포로 제3대대를 엄호하였다. 06:00시경 매봉과 돌바위고지까지 진출한 대대는 적으로부터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기 시작하였으나, 15:20분 경 결국 저격능선상의 중심목표인 Y고지를 점령하였다. 이후 연대에서는 제32연대 제1중대와 제17연대 제5중대를 저격능선상에 투입하고, 제3대대를 방어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Y고지와 돌바위고지에 각각 1개 중대, A고지에 3개 중대가 배치되어 중공군의 역습에 대비하였다.

국군 제32연대 제3대대의 공격으로 저격능선에서 물러난 중공군은 이날 20:00시경 대규모 역습을 감행하였다. 제32연대 제3대대가 야간경계태세로 들어간지 불과 30분도 안되어 중공군 제45사단 제133연대는 군단 단위의 포병화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파상적인 전진을 계속해 Y고지와 A고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해 왔다. 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로 인해 Y고지의 제32연대 제1중대는 교전 20분 만에 진지가 돌파되어 진내전을 치르게 되었으며, A고지의 제17연대 제5중대 또한 20:45분 경에 진지의 일부가 무너져 뒤로 밀리기 시작하였다. 이 때 상감령 계곡으로 침투한 중공군의 일부 병력이 A고지 남쪽의 매봉에 위치한 제3대대 전술지휘소를 급습함으로써 대대의 지휘기능이 마비되었다. 결국 제3대대는 많은 병력의 손실을 입은 채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137]

제32연대장은 제3대대가 철수한 직후, 연대 예비인 제17연대 제2대대(배속)를 제2차 공격부대로 투입하였다. 제17연대 제2대대(대대장 강두형 소령)는 10월 14일 21:00시부로 하달된 '연대 작전지시 제4호'에 따라 15일 09:30분을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138] 제2대대는 제5중대를 우일선, 제7중대를 좌일선, 제6중대를 예비로 하여 A고지를 향해 전진하였다. 제2대대가 전진하기 시작하자 저격능선 일대에는 중공군의 시계를 가리기 위한 연막차장이 실시되고, 미 제5공군 전폭기들의 항공근접지원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를 이용해 제2대대는 제5중대가 돌바위고지를, 제6중대와 제7중대가 A고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139] 연대에서는 즉시 '작전지시 제5호(1952. 10. 15, 15:00)'를 통해 제2대대로 하여금 A고지 방어에 전념하도록 하고 제32연대 제2대대를 증원시켜 돌바위 고지의 방어를 담당하게 하였다.[140]

제17연대 제2대대의 공격으로 A고지와 돌바위 고지를 탈환한 후인 10월 15일 밤에는 초저녁부터 이슬비가 내렸다. 이로 인하여 시계에 제한을 받아 조명탄이 밝혀지고 있는 데도 5m 앞을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시계가 불량하고 중공군의 포격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국군 제2사단 장병들은 A고지와 돌바위고지의 진지 보강 작업을 계속했다.

A고지를 빼앗긴 중공군은 날이 어두워지자 제133연대 예하의 2개 대대를 투입하여 재차 A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가하였다. A고지의 제17연대 제2대대와 돌바위고지의 제32연대 제2대대 장병들은 시계가 불량하여 중공군의 접근상황을 포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견 즉시 교전을 벌이게 되었다. 교전이 벌어진 지 약 3시간 30분 후인 23:00시 경에 양 대대는 A고지와 돌바위고지 남쪽으로 일시 물러나면서 진내사격을 요청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긴급사격 요청을 받은 포병부대들은 미리 준비된 화력계획에 따라 중공군 침투 지역에 맹렬한 포격을 가하였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포격에서 포병부대들은 6,000여 발의 포탄을 발사하여 중공군 밀집지대를 강타하였다. 포병의 사정연신과 더불어 양 대대의 정찰대가 A고지 정상으로 진출하였을 때, 중공군의 주력은 자취를 감추고 일부의 경계병만이 남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양 대대는 16일 01:25분을 기해 반격으로 전환, 제17연대 제2대대가 A고지를, 제32연대 제2대대가 돌바위고지를 공격한 끝에 의외로 손쉽게 고지 정상 탈환에 성공하였다. 양 대대 장병들은 피로를 씻을 겨를도 없이 밤을 세워가면서 진지를 보강하였다.[141]

중공군 제133연대는 이틀 동안의 교전을 통하여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일 새벽에 다시 2개 대대 병력을 투입하여 제3차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아군이 포병화력의 지원하에 끝까지 방어진지를 고수하면서 강력하게 맞서자, 중공군 제133연대는 06:30분 경 공격을 중지하고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기회를 포착한 국군 제32연대장은 항공근접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2개 중대를 투입하여 적을 추격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06:50분 경부터 전과확대를 펼치게 된 제17연대 제5중대와 제32연대 제5중대는 약 2시간 동안 지역내에서 방황하던 중공군 패잔병을 격멸하였다.

중공군의 제3차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후 제32연대장은 배속부대인 제17연대 제2대대가 48시간 동안 격전을 치렀던 점을 감안하여 제32연대 제1대대와 임무를 교대시켰다. 이로써 A고지는 제32연대 제1대대가, 돌바위고지는 제32연대 제2대대가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142]

이 무렵 중공군 제45사단도 저격능선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제133연대를 후방으로 돌리고 예비인 제134연대를 전선에 투입하였다. 제134연대는 오성산 북쪽의 장골에 대기하다가 16일 오후에 제133연대와 임무교대한 후, 이날 18:10분 경에 그 첫 모습을 드러냈다. 국군 제32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 장병들이 진지 보강 작업을 마치고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던 18:10분 경에 양지말 계곡과 Y고지 부근에 중공군 제134연대의 정찰대가 주변의 지형과 국군의 배치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찰을 실시하였다. 그 후 19:50분 경부터 중공군은 갑자기 포문을 열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고지와 돌바위고지 일대에 4,000여 발을 포격하였다.

전례 없는 맹렬한 공격준비사격을 집중하던 중공군 제134연대는 20:30분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A고지와 돌바위고지 일대에서는 거의 3시간 동안이나 혈전이 벌어졌다. 국군 제32연대 장병들이 끝까지 버티면서 연속적인 타격을 가하자, 중공군 제134연대는 23:30분을 전후하여 공격을 중지하였다. 이후 중공군 제134연대는 17일 01:30분부터 18:40분까지 3차에 걸쳐 공격을 감행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뒤로 저격능선의 상황은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어 18일 24:00시까지 큰 접전이 없는 가운데 쌍방 수색대의 활동만 이어졌다.[143]

중공군은 제134연대를 투입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자, 이를 대신하여 18일에 제135연대를 투입하였다. 중공군 제135연대는 국군 제32연대 제1대대가 점령 중인 A고지에서 약 300m 전방에 위치한 Y고지에 진지를 구축한 후 19일 날이 저물 때까지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고 대기하였다.

중공군은 19일 18:00시경 약 30분 동안 엄청난 양의 포격을 가한 후 18:30분을 기해 제135연대가 A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날의 낙탄수는 저격능선 전투 전반을 통하여 가장 많은 수량인 38,000여 발을 기록하였고, 낙탄 지역도 저격능선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주요 통로와 제32연대의 주저항선에까지 미쳤다. 이 포격으로 말미암아 A고지와 돌바위고지의 구조물들이 형태도 없이 사라지고, 땅 속 40㎝ 이하로 묻어 놓았던 통신선이 모두 절단되었으며, 몇 군데의 탄약고까지 폭발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아군은 저격능선전투가 개시된 이래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A고지의 제32연대 제1대대는 4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지만 중공군의 강력한 공격에 밀려 결국 이날 22:30분 경에 고지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제1대대는 20일 00:30분에 가용한 모든 병력을 투입하여 역습을 감행했지만, A고지를 점령한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과 대대 장병들의 사기 저하로 인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로써 제32연대는 A고지를 빼앗기고 돌바위고지와 매봉 선에서 부대를 수습하게 되었다.[144]

저격능선의 상황이 극히 불리하게 전개되자, 제2사단장 정일권 중장은 20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08:00시부로 제32연대를 대신하여 제17연대(연대장 은석표 대령)를 저격능선전투에 투입하였다. 사단장은 제32연대에 배속되었던 제17연대 제2대대를 원대 복귀시키고, 그동안 제32연대를 지원하던 지원부대들에게 현 위치에서 그대로 제17연대를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제17연대로 하여금 A고지를 탈환하게 하였다.

제17연대는 제1대대가 20일 08:00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세 차례의 돌격 실패 끝에 11:00시 경 A고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이후 저격능선에서는 25일까지 중공군의 역습과 A고지의 피탈, 국군 제3대대의 A고지 탈환과 Y고지 공격으로 이어지는 전투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공방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제9군단의 작전계획에 따라 국군 제2사단은 10월 25일부로 미 제7사단의 작전지역인 삼각고지를 인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군 제2사단은 저격능선의 작전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기로 하고, A고지를 중심으로 한 점령지역의 각종 진지를 보강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제2사단은 저격능선과 삼각고지의 작전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145]

군단 작전계획에 따라 10월 25일부로 국군 제2사단의 작전지역이 된 삼각고지는 사단의 좌측 인접사단인 미 제7사단의 공격목표였다. 삼각고지는 저격능선에서 서쪽으로 2㎞ 지점에 위치한 고지군으로써 남쪽의 598고지, 동북쪽의 제인러셀고지, 서북쪽의 파이크봉 등 3개의 봉우리로 구성되었다.

미 제9군단 쇼다운작전의 일환으로 국군 제2사단 제32연대가 저격능선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한 10월 14일에 미 제7사단 제31연대도 삼각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미 제7사단 제32연대는 16일 정상인 598고지 일대를 점령한 후 파이크봉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전개하여 한때 이 고지의 적을 구축하기도 하였으나 필사적인 적의 역습을 막지 못해 19일 이를 상실하였다. 이후 적은 파이크봉을 거점으로 하여 598고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였다.[146]

삼각고지 전투를 수행하는 동안에 미 제7사단은 약 2,000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목표를 완전히 탈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10월 22일 현재 598고지와 제인러셀고지는 미 제7사단이, 파이크봉은 중공군 제45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전선 상황에 더하여 미국 내의 비우호적인 여론은 미군 지휘관들을 압박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당시 미국 내의 주요 신문과 방송들은 “한국전선에서 명분 없는 싸움에 미군이 쓰러져 가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젠킨스 미 제9군단장은 삼각고지의 작전지역을 국군 제2사단에게 넘겨줄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국군 제2사단의 방어정면을 축소하기 위하여 10월 22일 12:00시부로 ‘군단 작전명령 A10-309호’를 하달하여 제2사단 주저항선의 우측인 회고개-외야동 간의 작전지역(6㎞)을 국군 제6사단에 인계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백마고지전투에서 국군 제9사단을 지원하던 국군 제1야전포병단과 제53전차중대를 김화지역으로 이동시키고 국군 제2사단을 지원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 제2사단은 10월 23일 06:00시부로 회고개-외야동 간에 배치되어 있던 제37경장비연대를 이실동으로 집결시킨 후, 다음날 06:00시에 하소-살구정 간의 주저항선에 투입하고, 이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제31연대로 하여금 삼각고지를 인수할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전선을 재정비한 제2사단은 10월 25일 06:00시를 기하여 삼각고지의 작전지역을 인수하였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제31연대장 김용순 대령은 미 제32연대장인 러스(Joseph R. Russ) 대령으로부터 삼각고지의 적정과 부대배치 상황 등을 청취한 후 진지교대를 완료하였다. 제31연대는 제인러셀고지에 제3대대를, 598고지에 제2대대를 각각 배치하고 제1대대를 예비로 보유한 가운데 삼각고지 방어에 임하였다.[14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렇듯 국군 제2사단의 임무가 가중됨에 따라 저격능선작전은 물론 삼각고지의 공격마저 여의치 못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삼각고지의 작전을 인수한 제31연대는 중공군과 몇 차례 뺏고 빼앗기는 쟁탈전을 전개하였으나, 10월 30일에 이르러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을 받아 삼각고지를 상실하고 계웅산 일대로 철수하였다. 이에 미 제9군단은 백마고지전투를 치르고 난 뒤 사창리에서 부대를 정비 중인 국군 제9사단 제30연대를 10월 31일부로 제2사단에 배속시켜 삼각고지 탈환임무를 부여하였다. 부대이동을 완료한 제30연대는 11월 1일부터 삼각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수차례 중공군으로부터 완강한 저항을 받아 많은 병력 손실을 입은 채 탈환에 실패하였다.[148]



삼각고지 전투에서 발생한 부상병을 후송하는 모습

결국 삼각고지를 탈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11월 5일부로 하달된 미 제9군단장의 삼각고지 작전 중지 명령에 따라 국군 제2사단은 삼각고지 공격작전을 중지하게 되었다. 군단장은 쇼다운작전이 개시된 이래 병력손실만 가중되는데다가 저격능선마저 위협받게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149] 따라서 국군 제2사단은 저격능선 작전에 주력하게 되었고 중공군 또한 이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저격능선의 결전에 의해 승패가 가름되는 판국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저격능선에서는 국군 제17연대가 공격작전을 계속하여 능선 남쪽의 A고지를 확보한 후, 제32연대와 교대로 중공군의 반격을 저지하였다. 이 무렵 국군 제2사단 정면의 적은 10월 29일부로 중공군 제29사단이 제45사단과 교대하여 저격능선에 투입되어 있었다. 국군 제2사단은 28일의 교전에서 또 한 차례 이 고지를 상실하였지만, 곧 탈환하여 11월 10일까지 A고지를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의 반격은 끈질기게 이어져 11월 11일부터 A고지를 중심으로 한 공방전이 되풀이되었다. 11일 국군 제2사단은 A고지를 확보한 상황에서 부대를 교대하여 제17연대를 예비로 돌리고 대신 제32연대를 저격능선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이날 연대는 제1대대가 중공군으로부터 대대 규모의 공격을 받아 A고지를 상실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반격작전도 실패로 끝났다.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삼각고지 전투가 종결된 후인 11월 9일 중공군은 제29사단을 증원하기 위해 제12군단 제31사단을 저격능선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사단장은 다시 제32연대와 제17연대를 교대시키고 제17연대에게 탈환임무를 부여하였다. 제17연대는 제1대대를 즉시 공격에 투입하였다. 대대는 화력과 병력을 A고지로 집중 운영하여 2시간 동안의 과감한 돌격전을 전개한 끝에 동 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그 여세를 몰아 돌바위고지를 공격, 일거에 탈환하였다.[150]

중공군은 13일 22:00시에 대규모 공격준비사격을 집중한 후 2개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A고지를 재차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대대는 1시간 반 동안 혈투를 전개하면서 대항하였으나 자정 무렵 진지가 돌파되어 피아를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분산철수하게 되었다. 연대는 즉시 제3대대로 반격을 개시하여 A고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적의 맹렬한 저항으로 돌바위고지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에 제2대대가 돌바위 고지 탈환임무를 부여받았다. 11월 17일 07:00시 제2대대는 국군 제1야전포병단의 지원하에 공격을 개시하여 2시간 여의 교전 끝에 돌바위고지를 탈환하였다. 이로써 제17연대는 마침내 저격능선상의 A고지와 돌바위고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151]

저격능선의 A고지와 돌바위고지는 11월 18일을 기해 국군 제2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적의 반격은 11월 25일까지 계속되었으나 제2사단은 진지를 끝까지 사수하였으며 이날 군단명령에 따라 방어임무를 국군 제9사단에 인계하고 군단예비로 전환하여 부대정비에 들어갔다.[152] 아군은 저격능선상의 고지로부터 돌바위를 연하는 능선일대에 주저항선을 추진하여 계속 반격해오는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적은 그동안 42일간의 저격능선전투에서 사살 3,772명, 추정사살 11,023명, 포로 72명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중공군 제45, 제31사단은 오성산 후방으로 철수 재편성 및 정비에 임하였으며, 제29사단은 12월 1일 저격능선 전투임무를 제12군단 제34사단에 인계하고 부대정비에 임하였다. 아군 역시 국군 제2사단이 그동안의 반격작전에서 전사 1,096명, 부상 3,496명, 실종 97명의 큰 피해를 입었다.[153]

미 제9군단의 쇼다운작전 계획에 따라 전개된 저격능선과 삼각고지 전투는 미 제8군이 이 해에 마지막으로 시도한 공격작전으로서 당초 국군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에서 1개 대대씩을 투입해 5일간이면 성공리에 작전을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의외로 국군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의 거의 전부대를 투입하고도 42일간이나 지속된 6·25전쟁 중 최대 규모의 혈전 중 하나가 되었다. 당면의 중공군 제15군단이 강력한 방어의지를 보인 까닭으로 삼각고지에서는 진전을 보지 못한 끝에 급기야 군단이 이를 단념케 됨으로써 저격능선만을 계속 확보하게 되었다.[154]

1952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된 저격능선 전투에서 국군 제2사단이 승리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은 유리한 전초진지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산군의 기세를 꺾음으로써 전 전선에 걸쳐 작전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전투는 유엔군 측이 휴전회담을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수도고지 및 지형능선전투

1) 국군 제2군단의 백쇼트(Back Shot) 작전

수도고지 및 지형능선 전투는 1952년 7월 8일부터 10월 25일까지 국군 제2군단의 수도사단이 중공군 제12군단 제35사단과 중동부전선의 요충지인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에서 격돌한 고지쟁탈전이었다.

1952년 6월에 접어들면서부터 미 제8군은 휴전협상 기간을 이용해 전투력을 대폭 증강한 적정을 파악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적정수집과 전초진지 공격에 주안점을 둔 대대단위 부대의 제한된 공격작전을 전개하도록 조치하였다. 그 일환으로 새로 편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군 제2군단(군단장 백선엽 중장)도 전초진지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였다.

중동부전선의 금성천과 북한강 일대의 방어를 담당한 국군 제2군단은 좌측의 제3사단을 금성천 북안 봉화산-교암산 일대에, 중앙의 수도사단을 금성천 북방 575고지-북한강 서쪽 수도고지 일대에, 우측의 제6사단을 북한강 동쪽의 독수리 고지-피의고지 일대에 각각 배치하였다.

작전지역은 금성 방어의 요충지로서 해발 500~700m의 중첩된 고지군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지역 내 동쪽에는 북한강이, 남쪽에는 금성천이 흐르고 있었다. 작전기간 동안의 기후는 7~8월까지 우기로 제한을 받았으나 9월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었다. 야간에서 이른 아침에 이르기까지는 북한강의 영향을 받아 산악지역 특유의 농무로 시계가 제한되어 피아간 은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맑은 날씨는 아군의 항공지원에 유리하였다.[155]

당시 수도사단은 좌측에 제1연대, 우측에 제26연대를 배치하고 제1기갑연대를 예비로 확보하여 군단의 중앙 사단으로서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156] 제1연대는 제1대대(+)가 575고지-지형능선 경계진지에, 제2대대가 690고지 후방-송동리 계곡에 각각 배치되어 있었으며, 제3대대(-)가 연대 예비로 집실리에 집결 대기 중이었다. 제26연대는 제2대대가 송도리 계곡-663고지 서쪽 기슭에, 제3대대가 수도고지와 663고지에, 제1대대가 용호동 북방-북한강 서쪽 강변 일대에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1기갑연대는 사단예비로 밤성골에 위치하고 있었다.

수도사단 주저항선 전면의 575고지와 지형능선 그리고 수도고지가 사단의 주요 요충지였다. 이외에 수도사단 지역 내에서는 지형능선 후방의 교암산, 765고지, 612고지와 삼각고지 후방의 349고지가 주요 지형으로 손꼽혔다. 그리고 중공군 지역 내의 주요 감제고지는 용학산, 594고지, 747고지, 621고지, 714고지, 784고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등이었다.[157]

수도고지는 적 진지인 747고지로부터 감제당하고 있었으나, 663고지로부터 507고지에 이르는 적의 접근로를 통제할 수 있고, 좌수동 일대의 넓은 계곡에 대한 관측이 용이하였다. 따라서 아군의 주저항선을 방호하고, 적의 수색·정찰활동을 방해하기에 유리한 지형이었다. 수도고지는 1951년 10월 말 국군 제6사단이 탈취한 이래 1개 소대를 배치하여 방어해 오고 있었다.

지형능선은 손가락 모양의 능선으로 아군의 주저항선으로부터 약 1㎞ 전방에 위치하였다. 적 진지인 747고지로부터 감제당하고 있었으나, 575고지 및 쌍령동 일대의 감제관측이 가능하며 690고지로부터 504고지에 이르는 적의 접근로를 통제할 수 있었다.[158] 적이 지형능선을 이용하여 575고지를 위협함과 동시에 아군의 보급로를 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으로서는 측면위협의 제거와 보급로 유지를 위해서 이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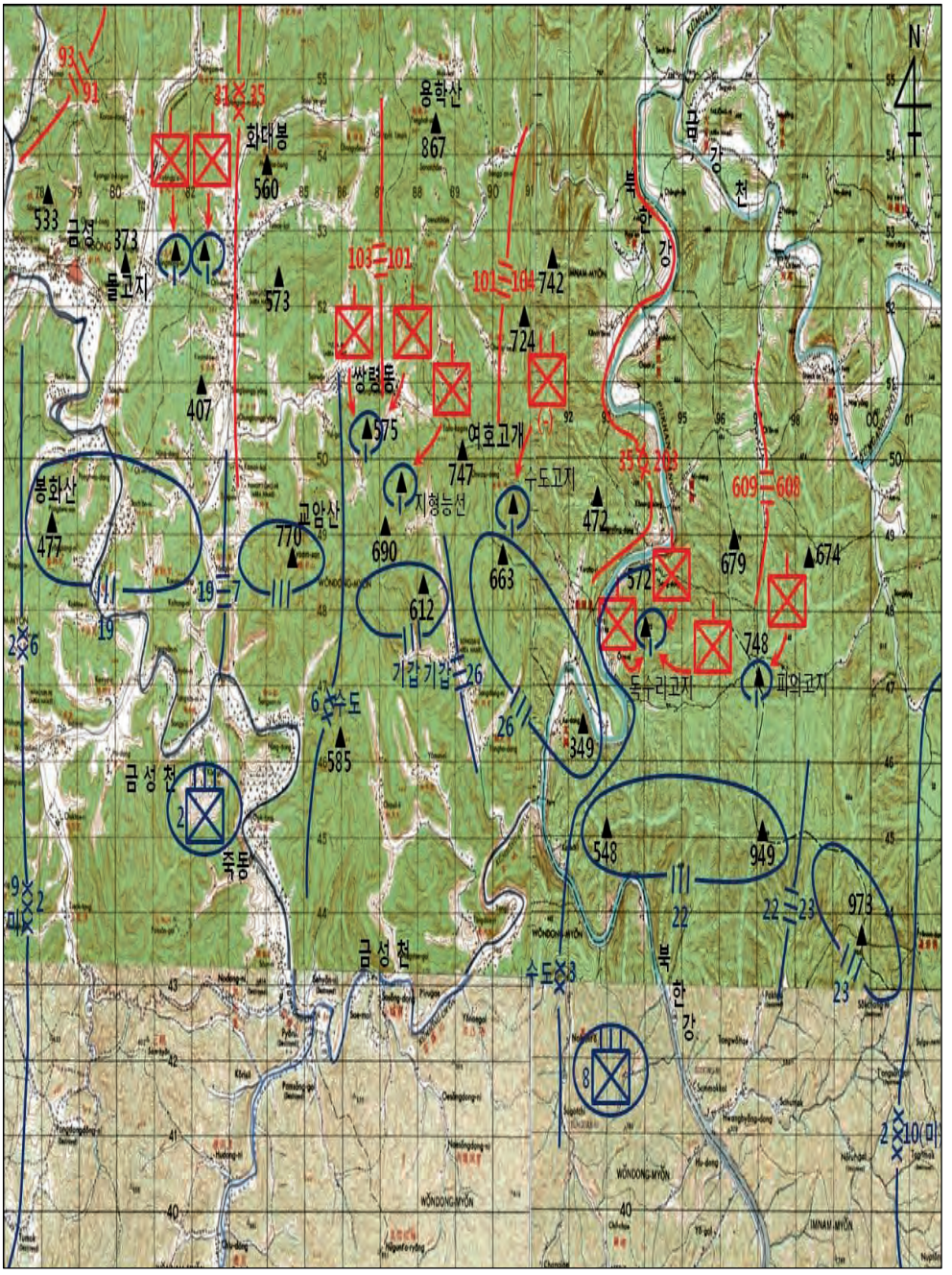
사단의 지원부대는 제10, 제107, 제55포병대대 이외에 미 제98포병대대와 국군 제53포병대대가 추가로 배속되었으며 기간 중 수시로 항공지원이 제공되었다. 제반보급은 비교적 원활한 편이었으나 적의 치열한 포격으로 적시 지원에 다소 제한을 받았다.

수도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12군단 예하의 제35사단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사단의 좌인접 부대인 국군 제6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12군단 제34사단이, 사단의 우인접 부대인 국군 제3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68군단 제203사단이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적의 지원부대로는 제5포병사단 등 총 7개의 포병연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중공군 제12군단 예하의 제35사단은 야전경험이 풍부한 부대로 산악 유격전에도 능숙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중공군 제35사단은 전술지휘소를 금학동 부근에 두고 제103연대를 우전방, 제105연대를 중앙, 그리고 제104연대를 좌전방에 배치하고 있었다. 중공군 제35사단의 주방어선은 대체로 573고지-495고지-594고지-747고지-748고지-472고지를 연결하는 선이었으며, 진지의 대부분을 동굴화한 상태였다. 이들은 전선부근에 약 1개월분의 보급품을 저장하고 있었으며, 전투시 개인당 5~6일분의 식량을 지급함으로써 일정기간 전투를 지속할 수 있었다.[15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6-17> 금성천 부근의 주요 전투



국군 제2군단장(군단장 백선엽 중장)은 6월 중순 주저항선의 방어태세가 한층 강화되자, “당면의 적정을 수집하고 적진지를 파괴 교란하기 위하여 1개 대대 규모의 제한된 공격인 소위 ‘백쇼트(Back shot)작전’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각 사단은 당면 목표를 선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였다.[160]

수도사단장 송요찬 준장은 백쇼트계획에 의한 제한목표 공격으로서 “사단은 제1연대 1개 대대가 지형능선을, 제26연대 1개 대대가 621고지를 목표로 7월 8일 01:00시를 기해 공격을 개시한다”는 계획을 제출하여 군단장의 승인을 받아 6월 30일 다음과 같은 작전계획을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161]

사단작전명령(요지)

- 사단은 백쇼트(Back Shot) 작전을 실시한다.
  작전목적 : 적정수집 및 적진지의 파괴와 교란
  공격목표 : Ⅰ-지형능선 A, B, C고지
  Ⅱ-621고지
- 공격일시 : 7월 8일 01:00
- 제1연대는 목표 Ⅰ을 탈취하라.
  공격간 제52전차중대 제2소대를 배속한다.
- 제26연대는 목표 Ⅱ를 탈취하라.
- 투입병력은 각각 1개 대대를 초과하지 못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1연대의 목표로 선정된 지형능선 A, B, C고지는 주저항선을 감제하며, 북쪽 비탈이 완만한 반면에 남쪽 비탈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부대기동을 제한하는데다 목표에 이르는 기동공간마저 협소하였기 때문에 공격에 매우 불리하였다. 더욱이 목표상에 배치된 중공군 병력은 2개 소대 규모에 불과하였지만 견고한 진지에서 완강하게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로 당시 지형능선 A, B, C고지는 지형상 독립된 고지였지만 교통호로 연결되어 있었고, 또 각 고지에는 대피호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동굴이 구축되어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제1연대(연대장 박춘식 대령)는 ‘연대 작전계획

제10호(6. 30. 15:00)'를 수립하여 지형능선과 유사한 곳에서 1주간의 공격 예행연습을 실시한 후 계획상의 미비점을 '작전지시 제11호(7. 6. 12:00)'로 보완하고, 이를 '작전명령 제57호'로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제1연대는 연대예비로 집실리 부근에서 부대정비 중이던 제3대대(-)를 공격부대로 선정하고 연대특공중대 1개 소대를 대대에 배속하였다.[162]

지형능선 공격 임무를 부여받은 제3대대장 박찬긍 중령은 기동공간을 감안하여 1개 중대를 먼저 공격에 투입하고 1개 중대가 후속하는 기동형태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제9중대에게 공격 제1선이 되어 목표 A-B-C고지를 축차공격하게 하고, 제11중대에게 제2선에서 제9중대를 후속하면서 상황에 따라 제9중대를 초월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 제3대대는 제9중대가 22:40분 경에 공격대기지점에 집결을 완료하였으며, 제11중대가 22:50분 경 690고지에 도착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갖추었다.

수도사단 제1연대 제3대대(-)는 1952년 7월 8일 15분간의 공격준비사격이 실시된 후 01:00시에 지형능선상의 A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3대대 제9중대는 공격을 개시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A고지는 물론 B고지마저도 탈취하는데 성공하였다. 제3대대(-)의 기습 공격으로 A, B고지를 상실한 중공군은 뒤늦게 A, B 양 고지에 포병화력을 집중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의 주방어거점인 747고지와 594고지에서는 직사화기로 측방사격을 가하면서 제3대대의 공격을 견제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격제대는 재편성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제1소대는 소대장을 비롯해 거의 모든 병사들이 전사 또는 부상을 당해 온전한 병사가 6~7명에 불과하였다.

지형능선의 A, B고지를 점령한 제3대대의 선두부대인 제9중대는 피해가 많은 제1소대를 재편성한 후 다시 최종목표인 C고지로 공격을 감행해 02:20분 경에 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동안 제9중대를 후속한 제11중대의 선두부대가 A고지로 진출하여 제9중대의 공격을 지원하였다.[163]

이 작전의 최종목표인 C고지를 탈취한 제9중대는 미처 퇴로를 찾지 못한 채 진내에서 우왕좌왕하는 잔적을 소탕하고 급편방어태세를 갖추었다. 얼마 뒤부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군의 포화가 집중되더니 03:00시 경에는 급기야 1개 중대 규모의 중공군이 북동쪽 고지로부터 능선을 따라 육박하여 C고지를 포위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제9중대는 대대와의 유선이 포화로 인해 모두 단절되어 상급부대의 효과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중대와 소대간의 무선도 두절된 상태였다. 제9중대 전장병은 진지를 사수한다는 결의 하에 진내로 돌입한 중공군과 백병전을 전개하였으나, 힘에 부쳐 03:45분 경에 B고지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적의 반격으로 C고지에서 제9중대가 물러난 후 지형능선에서는 잠시 동안 소강상태가 유지되다가 이날 오후에 중공군의 공격으로 전투가 재개되었다. 오전 동안 간헐적인 요란사격을 시도하던 중공군은 15:00시 경에 이르러 가용한 모든 화력을 총동원한 듯한 맹렬한 포격으로 A, B고지를 강타하였다. 이 때문에 양 고지는 순식간에 초연과 파편 그리고 흙먼지로 뒤덮였다. 중공군으로부터 맹포격을 당한 제9중대는 최초 공격시 143명이었던 병력이 50명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그나마 온전한 병사는 한 명도 없는 치명적인 출혈을 보았다. 대대장 박찬긍 중령은 뒷날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164]

> 적 포화가 그토록 치열했던 상황은 그 시점까지 겪어 본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우리 포병의 일제사격(TOT)이 잘못 되어 우리 진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고지의 장병들은 진지 속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당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상황보고를 받은 사단장도 실감이 안 나는지 미 고문관을 대동하고 연대관측소로 와서 이 광경을 직접 확인한 다음에야 비로서 수긍하는 것이었다.

제3대대장은 제11중대를 제9중대와 임무교대하게 하고 연대장의 승인을 얻어 주저항선을 방어 중이던 제10중대를 지형능선전투에 투입하였다. 대대장은 제11중대를 B고지에, 제10중대를 A고지에 각각 배치하였다.

C고지를 재탈취한 중공군은 이날 21:00시 경 2,000여 발의 포탄을 A·B고지로 집중시키는 가운데 야간공격을 감행하였다. 제1연대 제11중대와 제10중대가 방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이던 A·B고지에서는 피아가 뒤엉킨 치열한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대대장은 A고지만이라도 끝까지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손실을 돌보지 않는 적의 파상 공격에 밀려 결국 제11중대와 제10중대는 B고지와 A고지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제3대대는 7월 9일 03:00시 경 대대장의 직접 지휘하에 A고지 역습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제3대대의 전황을 지켜본 연대장은 05:30분 대대 전 병력을 대대관측소 부근에 집결시켜 재편성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사단장에게 보고함으로써 A고지에 대한 역습은 일시 보류하게 되었다.[165]

한편 사단의 '백쇼트작전'계획에 따라 621고지를 목표로 한 제26연대(연대장 정진 대령)의 공격도 7월 8일 01:00시를 기해 제2대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제26연대의 공격목표인 621고지는 주저항선 전방에 있는 고지로서 중공군 제35사단 제104연대 제1대대 소속의 1개 소대 규모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는 중공군의 전초진지였다. 사단의 주공인 제1연대의 지형능선 A, B, C고지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621고지에 대한 조공임무를 부여받은 제26연대는 621고지가 제2대대 전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2대대로 하여금 이를 공격하게 하였다. 이때 제26연대장은 연대예비가 없음을 고려하여 공격부대의 규모를 1개 소대로 제한하였다.

제2대대는 제7중대 제3소대를 공격부대로 투입하여 적의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면서 일시 고지 정상을 장악하였으나, 고지 서북쪽의 적으로부터 역습을 받아 물러났다. 621고지에 대한 공격부대로 선정된 제2대대 제7중대 제3소대는 4.2″ 중박격포 1개 소대와 81㎜ 박격포 소대가 목표지점을 포격함과 동시에 공격개시선을 출발하였다. 제3소대는 야음과 농무 그리고 가랑비의 도움으로 적에게 발견되지 않은 채 목표지점에 진출하여 중공군을 제압한 후 621고지를 장악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좌수동 계곡의 무명고지인 'ㅂ고지'와 747고지에 배치된 중공군이 소대 측후방을 향해 사격을 집중하였다. 이와 더불어 적이 621고지 서북쪽 비탈로 접근해 옴으로써 제3소대는 부득이 남동쪽으로 100여 미터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제3소대는 04:20분 경 재편성을 완료하고 다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이미 증원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적이 방어태세를 강화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제3소대의 상황을 지켜보던 제26연대장은 목표탈취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서 04:30분에 철수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3소대는 접촉을 끊고 05:30분 경에 소대진지로 복귀하였다.

이와 같이 수도사단은 지난 3월 현 전선에 배치된 이후 최초로 대대 규모의 공격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작전에서 수도사단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진일퇴의 치열한 공방전을 치렀으나 예상하지 못한 중공군의 강력한 포병화력과 완강한 저항 그리고 파상공격에 직면하여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백쇼트작전'을 종료하였다.[166]

2) 수도고지 쟁탈전

지형능선과 621고지에 대한 수도사단의 제한공격이 무위로 끝난 후 전선은 8월 초까지 다시 교착상태에 접어들었다. 제1연대와 제26연대의 공격이 무위로 끝난 7월 9일, 사단장 송요찬 준장이 소장으로 승진됨과 동시에 남부지구경비사령관으로 전보되고 그 후임으로 11일에 육군본부 작전국장 이용문 준장[167]이 부임하였다. 그는 부임한 날 지형능선 전투의 전투경과 상황을 분석한 후 이 능선이 중공군의 주방어거점인 747고지로부터 감제당하고 있기 때문에 능선 전체를 점령하기도 어렵거니와 이를 계속 확보하는 일은 더욱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그는 군단작전계획의 주목적이 적정수집과 적을 교란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중공군을 견제하면서 주저항선의 방어태세를 공고히 하는 방어작전에 주력하기로 결심하였다.

수도사단은 지형능선 공격에서 많은 병력의 손실로 인해 전투력이 약화된 제1연대 제3대대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7월 21일부로 제1연대와 제1기갑연대를 임무 교대시키고, 주저항선 정비와 진지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7월 26일부터는 그동안 사단의 좌인접 부대인 국군 제6사단을 지원하던 제2야전포병단의 제53포병대대가 다시 수도사단을 일반지원하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그러던 중 8월 5일 적이 그간의 소강상태를 깨고 제26연대 제11중대가 방어 중이던 수도고지에 대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수도고지는 화천 북방 32㎞ 지점의 북한강 강변 부근에 위치한 표고 600m의 무명고지였다. 이 고지는 아군 주저항선의 663고지로부터 북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전초진지로서 1951년 10월 말 이후 아군이 점령하고 있던 고지였다. 동 고지는 소나무와 관목들이 무성한 암석지대로서 중공군의 주진지인 747고지와 748고지에서 완전히 감제될 뿐만 아니라, 북쪽 비탈은 비교적 완만한 반면에 남쪽 비탈은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방어하는 아군에게 매우 불리하였다. 그리고 수도고지에는 고지 정상을 중심으로 6개의 접근로가 있었는데, 그 중 남동쪽과 남서쪽의 2개 접근로만이 아군 통제하에 있었고 나머지 4개는 적의 통제하에 있었다.

수도사단 제26연대 제11중대는 제1소대를 수도고지 전초진지에 추진 배치하고 나머지 중대 주력을 663고지의 주저항선 방어에 투입하고 있었다. 제1소대의 전초진지는 중공군의 주방어진지로부터 소총 유효사거리 내에 있었다. 소대장은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주간에는 수도고지에 1개 분대만을 배치하고 소대 주력을 663고지의 주진지로 철수시켰다가 야간에 다시 추진 배치하는 병력운용 방식을 취하였다.[168]

수도고지에 대한 적의 공격 징후는 8월 5일 낮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3대대(대대장 전종욱 대위)는 수도고지의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책의 일환으로 제11중대 제1소대의 전 병력을 주야간 불문하고 전초진지에 배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대의 모든 지원화력의 우선권을 수도고지에 부여하여 결전태세를 갖추어 나갔다.

중공군은 8월 5일 20:00시 제26연대 제3대대 주저항선 일대에 30분간 공격준비사격을 집중하고, 진지 전방에 매설된 네이팜탄과 지뢰를 폭파시켜 공격로를 개척하였다. 대대장은 지체 없이 각 중대장에게 중공군의 공격에 대비하도록 지시하고, 특히 중공군의 주공이 좌전방 제11중대 정면의 수도고지로 지향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아래 제11중대 제1소대장에게 진지 사수를 강조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군은 예상대로 20:30분 경에 중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수도고지 북쪽 비탈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적의 조공으로 보이는 일부 병력이 수도고지 서쪽 약 500m 지점에 위치한 제2대대 제6중대의 전초진지인 'ㅁ고지'를 공격하였다. ㅁ고지의 제6중대 제1소대는 60㎜ 박격포의 지원하에 전초진지 앞에서 적을 격퇴시켰다.[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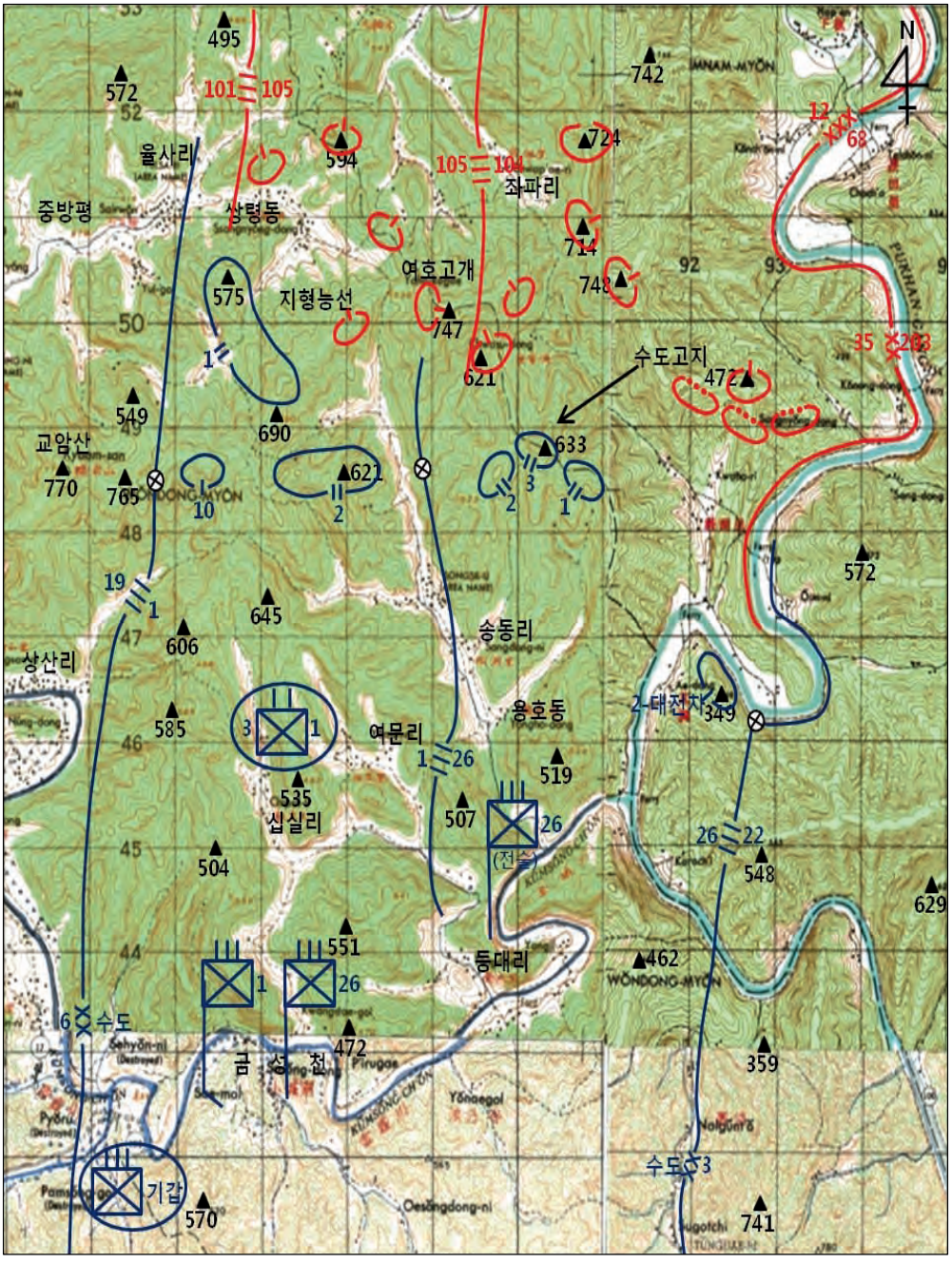
제26연대 제11중대는 2차례에 걸쳐 전초진지 전방에서 적을 격퇴하였으나, 23:30분 경 전초소대가 적의 포격에 견디지 못하고 주진지인 663고지로 철수하였다. 제3대대장은 제11중대를 663고지에 재배치하여 주저항선을 지키게 하는 한편, 대대 예비인 제10중대를 역습에 투입하였다. 제10중대는 두 차례의 공격 끝에 8월 6일 06:00시 경 수도고지를 탈환하였다.[170] 이 무렵 사단장 이용문 준장은 수도고지가 주진지에 너무 근접한 점을 고려하여 제1연대 제2대대를 6일 18:00시부로 제26연대에 배속시켜 주진지를 강화하였다.

이후 수도고지에서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피아간에 뺏고 빼앗기는 쟁탈전이 반복되었다. 제26연대장은 6일 탈환한 수도고지를 다음날 다시 적에게 내어주자, 연대에 배속된 제1연대 제2대대를 역습부대로 투입하여 재탈환하였다. 수도고지를 탈환한 제2대대는 방어진지를 보강하면서 종래의 독립거점개념에 입각한 사주방어 개념을 지양하고 중공군의 예상접근로에 병력을 집중 배치하는 일선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중공군은 연 3일간의 공격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한 공격을 계속하다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0일경에 수도고지에 대한 공격을 멈추었다.

이로써 수도사단은 8월 5일부터 10일까지의 수도고지 공방전에서 세 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격전을 치른 후 제1연대 제2대대가 수도고지를 탈환, 확보하고 주저항선 진지를 보강하면서 차기 작전에 대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수도사단의 전선에서는 7월과 8월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에서 각각 한 차례씩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전개되었으며 그 뒤 8월 중순에 접어들어서 다시 교착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17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6-18> 지형능선과 수도고지의 피아 배치상황



3) 수도고지·지형능선 전투의 격화

수도고지 전투 이후 전선에서는 한 달여 동안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그런데 9월로 접어들면서 휴전협상의 영향으로 언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포로의 자유송환을 주장하는 유엔군 측과 강제송환을 주장하는 공산군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휴전회담이 결렬될 위기로 빠져들고 있었다. 유엔군은 이에 대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북한의 주요 동력시설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였다. 이에 맞선 공산군 측은 협상의 유리한 여건 조성과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국군이 배치된 방어지역만을 선택하여 국지적인 선제공격을 전개하였다. 이로써 이들은 장차 공세작전에 유리한 발판이 될 전초진지를 점령하고 주저항선을 위협하게 되었으며, 국군 수도사단 지역에서는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에서 또다시 격전이 펼쳐지게 되었다.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에서 다시 격전이 벌어지기 전에 수도사단 정면의 중공군 제35사단은 8월에 제34사단의 1개 연대를 배속 받아 전투력을 강화한 상태였다. 포로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중공군 제35사단의 전술지휘소는 금학동에 위치하였으며, 좌전방의 제104연대가 534고지에 전술지휘소를 두고 국군 제26연대와 대치하였고, 배속된 제34사단 제101연대가 중앙 연대로 용학산에 전술지휘소를 두고 국군 제1기갑연대와 대치하였다. 그리고 우전방의 제103연대가 국군 제6사단 제19연대와 대치하였으며, 사단 예비로 제105연대가 창도리에 집결해 있었다.[172]

수도사단도 그동안 부대 정비와 재배치를 통해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사단은 좌측에 제1기갑연대, 우측에 제26연대를 배치하는 다음과 같은 방어편성을 완료하였다.

제1기갑연대 방어편성

① 제2대대(대대장 박익균 중령) : 좌전방 부대
- 대대관측소 : K고지
- 제6중대 : 575고지(사주방어진지 편성)
- 제7중대 : 575고지와 지형능선 간 안부(鞍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제5중대 : 지형능선(제3소대를 F전초진진에 추진, 경기관총 1개 반과 60㎜ 2개 분대 배속)

② 제3대대(대대장 박명경 소령) : 우전방 부대
- 대대관측소 : 612고지(제11중대 방어지대)
- 좌에서 우로 제11, 제10, 제9중대 순으로 배치
- 제2중대(배속) : 대대 예비, 612고지 남쪽 기슭에 집결

③ 제1대대(대대장 이붕식 중령) : 연대예비,
- 제2중대 결
- 예비진지 배치(645-606고지)

제26연대 방어편성

① 제2대대 : 좌전방 부대, 송동리 계곡-663고지 우측
- 좌에서 우로 제6, 제7, 제5중대 순으로 배치
- 제10중대(배속) : 663고지 남쪽 기슭 예비진지(ㄴ고지)
- 제1연대 제7중대(배속) : 수도고지 방어(9월 1일부로 제5중대와 임무교대 후 원대 복귀)

② 제1대대 : 우전방 부대, 663고지 우측-북한강 동쪽 강변
- 좌에서 우로 제2, 제3중대 순으로 전방에 배치
- 제1중대 : 277고지 전초진지 배치
- 제53수색중대(배속) : 북한강 동쪽 강변에서 우인접 제3사단과 연결
- 제11중대(배속) : 예비진지(ㄱ고지)

③ 제3대대(-2) : 연대예비, 용호동에 집결 대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에서의 전투는 9월 6일 적의 공격으로 다시 재개되었다. 이날 18:50분에 적은 맹렬한 공격준비사격을 가한 후 19:00시 1개 중대를 선두로 한 1개 대대 병력이 수도고지 좌우 계곡으로부터 공격해 왔다.[173]

수도고지를 방어 중이던 제26연대 제5중대는 최후까지 분전하였으나 적의 포화에 의한 극심한 피해와 병력의 열세로 고지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제1소대는 접전 10분 후 소대장 이하 전원이 전사하는 비운을 맞았다. 수도고지가 피탈되자 제26연대장은 고지 탈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긴급명령을 하달하였다.

- 연대의 모든 중화기는 663고지에 집결, 수도고지를 집중 지원한다.
- 제2대대장은 대대예비인 제10중대로 지체 없이 수도고지를 역습하라.
- 연대예비인 제9중대는 제2대대에 배속, 제10중대의 예비진지를 인수하라.
- 제3대대장은 제2대대 관측소에서 의명, 역습을 지휘할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라.

이 명령에 따라 제10중대가 20:50분에 역습을 개시하였다. 제10중대는 663고지-수도고지 능선의 기동로를 따라서 진출해 21:30분까지 ㅅ고지와 ㅈ고지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이 ㅈ고지에 포격을 집중하고 북서쪽 621고지의 적이 측면사격을 계속함에 따라 제10중대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663고지 후사면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제10중대는 7일 02:30분 경까지 2차례에 걸쳐 다시 공격을 시도하였지만 고지탈환에 실패하였다. 제26연대장은 제10중대와 당시 제1대대에 배속 중인 제11중대를 제3대대에 원대 복귀시킨 후 제3대대로 하여금 수도고지를 탈환케 하였다. 그러나 9월 7일 오전까지 실시된 제3대대의 3차례에 걸친 역습도 결국 실패하였다.

제26연대장은 제3대대의 역습이 무위로 끝이 나자 9월 7일 정오에 663고지 남쪽 계곡에 집결 중인 제1연대 제1대대를 수도고지에 투입하기로 결심하고 제1대대장 함용익 중령에게 13:30분을 기하여 수도고지를 공격 탈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제1연대 제1대대는 수도고지 전투상황을 지켜보던 사단장이 수도고지 역습에 전투력을 집중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작전지시 제77호'로 제26연대에 배속시킨 부대였다.

제26연대장의 수도고지 공격명령에 따라 제1연대 제1대대는 12:30분에 663고지로 이동하였다. 제1대대는 13:30분에 공격을 개시할 계획하에 공격준비 상황을 점검하던 중 중공군이 발사한 포탄 한 발이 대대관측소에 명중하여 대대장이 머리에 파편상을 입고 대대 정보장교가 전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상황을 보고 받은 연대장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제26연대 제3대대장에게 제1연대 제1대대를 임시 지휘하도록 조치하였다.

제1연대 제1대대장이 부상을 당하는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연대 제1대대의 역습은 계획대로 제2중대를 공격제대로 하여 13:30분에 감행되었다. 하지만 제1연대 제1대의 공격은 8일 14:00시까지 만 하룻동안 계속되었지만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제26연대장은 반복되는 역습 실패에도 불구하고 제3대대 제11중대를 제1연대 제1대대에 배속시켜 수도고지 탈환을 시도하였다. 제1연대 제1대대를 임시 지휘하던 제3대대장 김성수 소령은 제11중대를 추진시켜 제1연대 제2·3중대와 함께 목표고지 정면을 공격하게 하고, 제1연대 제1중대를 고지 남동쪽에서 협공하게 하였다.[174]

공격준비를 완료한 공격제대는 지원화력의 엄호하에 9월 8일 16:00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공격제대의 병력은 말이 4개 중대이지 그간의 전투손실로 말미암아 실제 병력은 고작 120명 안팎으로서 1개 중대 병력에도 미달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반해 중공군은 1개 대대 병력이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격제대의 선두는 16:20분에 돌격선까지 육박하여 지원포병의 연막차장사격이 끝나는 즉시 돌격을 감행하였다. 당시 상황을 수도사단 전투상보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175]

> 제1연대 제3중대의 선두인 제1소대는 이날 새벽의 공격에서 소대장이 전사하자 선임하사관이 지휘하게 되었는데, 그도 전사하여 소대의 선임분대장인 박순화 일등중사가 소대를 지휘하였다. 박 중사의 진두지휘로 1차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적의 수류탄 세례로 돌격이 좌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의 병력과 강력한 화력으로 인해 소대원의 전의가 위축되고 말았다. 이에 박 중사는 적을 기만한 후에 기습적인 돌격을 다시 한 번 감행하기로 결심하고 소대원들에게 3분만에 1회씩 "돌격!"하고 고함을 치되 실제 행동에는 옮기지 말 것이며, 5회 반복한 연후에 6회째는 일제히 돌격하라고 지시하였다. 박 중사의 의도에 따라 소대원들은 적을 기만하여 적병의 경계심을 이완시키는 한편, 박 중사는 용감한 소대원 3명을 선발하였다. 6회째는 박 중사가 특공조를 지휘하여 돌격을 감행, 적 진지에 수류탄 2발을 투척하여 화기진지를 제압하고 재빨리 적진에 돌입하여 저항하는 적을 무찔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렇듯 제1연대 제1대대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백병전을 계속하였으나 힘에 겨워 임무를 달성하지 못하고 17:00시 경에 고지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이 무렵 사단에서는 수도고지 탈환을 위해 사단예비로 있던 제1연대 제2대대를 제26연대에 배속시켰다.

수도사단장은 9월 9일 제26연대장에게 "금일 20:00시에 수도고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여 탈취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제26연대장은 부대 재배치와 정비가 일단락되자 사단장의 공격 명령에 따라 공격을 준비하였다.

이번 공격이 수도고지 탈환을 위한 최후 공격이라고 판단한 제26연대장은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전개된 전투상황을 분석한 후에, 그 결과로서 격전에 지칠대로 지친 부대를 반복하여 역습에 투입하였고, 또 동일한 기동로를 따라 동일한 공격전술을 사용한 것이 실패의 원인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대장은 새로 배속된 제1연대 제2대대를 투입하기로 하고, 수도고지에 집중된 중공군의 전투력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제3대대의 일부병력을 조공으로서 621고지를 공격하기로 결심하였다.

제1연대 제2대대는 9월 9일 20:00시 공군의 근접항공지원과 군단 포병의 지원하에 공격을 개시하여 치열한 백병전 끝에 23:20분 경 목표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수도고지 탈환을 지휘한 제1연대 제2대대장 김영길 소령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17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당시 우리 국군의 급양상태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었고 그나마 일선에서 싸우는 장병들에게는 주먹밥 한두 개가 고작이었다. 그래서인지 병사들의 체력은 매우 허약하고 생기가 없었다. 나는 평소 병사들에게 배불리 먹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잘 먹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전투에서 절반은 이긴 거나 다를 바 없었다. 충분한 급식 그리고 철저한 야간전투훈련의 반복으로 장병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사기를 북돋우며 자신감을 가지게 했다. 수도고지 탈환 작전에 성공하고 중공군의 역습을 물리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것이었고, 용병에 있어 전투력의 과감한 집중운용 또한 매우 중요한 승리의 요건이긴 하지만 당시의 정황 하에서는 부차적인 문제였다.

피탈된 지 4일 만에 수도고지를 탈환한 제26연대는 중공군의 역습 격퇴에 주안점을 두고 수도고지의 방어태세를 보강하는 데 주력하였다. 제1연대 제2대대는 10일부터 13일까지 수차례 적의 공격을 물리치면서 끝내 고지를 사수하였다. 특히 제1연대 제2대대는 13일에 실시된 적의 최후공격을 백병전으로 막아내며 고지를 사수하였다. 이날 격전을 치른 후 제2대대는 방어진지를 보강하면서 전장을 정리하였는데, 이때 중공군이 유기한 시체 150구를 확인하였다.

9월 14일 신태영 국방부장관은 방송을 통하여 "수도고지 방어작전에서 보여준 수도사단의 용전은 임전무퇴의 전통과 화랑정신의 결실이었으며, 그 공훈은 길이 빛날 것이다"라는 요지의 담화를 발표하여 수도사단의 전공을 치하하였다.[177]

한편 수도고지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에 지형능선 상에서는 제1기갑연대가 적과 격전을 전개하였다. 1952년 9월 6일 18:40분 적은 기갑연대 제5, 6중대 진지에 맹렬한 공격준비사격과 함께 약 1개 중대 병력으로 공격을 개시해 왔다. 지형능선 상의 전초소대는 21:05분 수명의 생존자만이 철수하면서 능선을 적에게 내주고 말았다.

제1기갑연대는 9월 6일 21:30분 제5중대의 1차 역습을 시작으로 6차에 걸친 역습에도 불구하고 탈환에 실패하였다. 연대는 9월 8일 재역습을 준비하던 중 18:00시부로 하달된 사단의 전투중지 명령에 따라 공격을 일시 중지하였다. 당시 사단장은 고지탈환의 우선권을 수도고지에 두고 먼저 이 고지에 전투력을 집중 투입하여 확보한 후에 지형능선을 공격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러한 사단장의 결심은 다음과 같은 전황 분석에 따른 것이었다.[178]

- 수도고지, 지형능선을 점령한 중공군이 강력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으므로 소규모 병력을 축차적으로 투입하는 소극적인 전술로써는 이를 탈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상자만 증가할 따름이다.
- 지난 2일간에 전개한 파상적인 역습에서 대대장 2명을 위시한 많은 장병이 전사 혹은 부상하여 적지 않은 병력이 손실되어 사단 전 장병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 수도고지, 지형능선은 미봉적인 역습이 아닌 협조된 공격을 전개해야만 탈환할 수 있는 목표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그러던 중 9월 10일 제26연대가 수도고지를 탈환하게 되자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사단장은 지형능선에 대한 공격을 결정하였다. 제1기갑연대장은 지형능선을 공격한다는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공격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제1대대가 주공이 되어 지형능선의 F고지를 공격하고, 조공으로 제2대대의 일부 병력이 575고지 A, B, C능선을 공격해 적의 화력을 분산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20:30분부터 시작된 기갑연대 제1대대의 공격은 다음날(11일) 새벽까지 2차례 걸쳐 진행되었지만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결국 실패하였다.

사단에서는 11일 18:00시에 지형능선 공격에 전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하에 다음과 같은 '사단 작전지시 제81호'를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사단작전지시 제81호(요지)

- 사단은 예비대를 투입하여 지형능선상의 F고지를 탈환하려 한다.
- 제1연대장 :
  지형능선상의 F고지를 공격 탈취하라.
  배속 : 제1기갑연대 제1대대(-), 14일 08:00부
  제107중박격포중대(-), 13일 20:00부
  제52전차중대 제2소대, 13일 20:00부
- 제1기갑연대장 : 14일 08:00부로 제1대대(-)를 제1연대에 배속하라.
- 공격개시시간 : 14일 04:0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에 따라 제1연대가 지형능선 공격에 투입되었다. 제1연대장은 제3대대에게 지형능선 공격 임무를 부여하였다. 제3대대는 9월 14일 03:55분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날 공격에서 제3대대는 제11중대장 신성국 중위를 비롯해 159명의 사상자를 낳은 채 목표달성에 실패하였다. 수도사단장은 사단 내에서 가장 많은 전공을 세운 제1연대마저 공격에 실패하자 지형능선 공격을 일시 중지시키고 대폭적인 부대정비를 한 후에 공격을 재개하기로 결심하였다.

사단에서는 16일 각 연대장과 관계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작전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지형능선 공격계획을 채택하였다.

- 공격부대는 제1연대 제3대대와 제1기갑연대 제1대대로 하되, 공격간의 지휘권은 제1연대장에게 있다.
- 공격은 2개 대대 병진대형으로 하며, 기습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격준비 사격은 실시하지 않는다.
- 포병사격은 목표 점령 후 적의 역습을 저지하는 차단사격에 치중한다.
- 공격간 화력지원은 전차와 공격부대의 가용화기로 실시한다.
- 공격부대는 목표탈취 이후 F고지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편성하기 위하여 A고지까지 점령한다.
- 공격개시시간은 9월 18일 03:00로 한다.
- 공격개시선은 E고지의 방어선 전단으로 하며, 공격부대는 공격개시 1시간 전까지 공격개시건을 점령한다.

이 계획에 따라 제1연대는 제3대대와 배속된 제1기갑연대 제1대대를 지형능선 공격에 투입하였다. 양 대대는 18일 03:00시 경에 공격을 개시하여 08:00시 무렵에 지형능선상의 F와 H고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날의 지형능선 전투에서 제1연대는 전사 23명, 부상 203명(배속부대 포함)이었고, 확인된 전과는 사살 262명, 포로 2명이었다. 제1연대는 이후 9월 20일까지 수차에 걸친 적의 공격을 격퇴하면서 진지를 사수하였다.[179]

이와 같이 수도사단은 수도고지, 지형능선에서 2주 동안 혈전으로 점철된 고지쟁탈전을 승리로 장식하였다. 수도고지, 지형능선 전투의 승전보는 대내외로 홍보되었으며, 전선은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수도사단은 비상태세에서 정상적인 방어작전으로 전환하여 부대배치를 재조정하고 중공군의 포격으로 파손된 통신시설 및 진지보수를 실시하며 주저항선의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겨울이 오기 전에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9월 28일 전차와 포병의 지원 아래 야간공격을 개시하였다. 다음날 중공군은 그들로서는 개전 이래 최대의 포격(47,000여 발)을 수도사단 지역에 집중하는 가운데 강력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적은 수도사단 장병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격퇴당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9월 말 중공군의 공격 이후 전선은 잠시 동안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가 10월 6일 수도사단의 주요 전초진지에 대한 중공군의 공격으로 재개되었다. 이날 중공군은 9월 말의 참패를 설욕하려는 듯 수도사단 주저항선 전방의 575고지, 지형능선, 수도고지, 277고지에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에 맞선 수도사단은 완강하게 저항하여 이들을 격퇴하였다.

중공군은 수도사단의 주요 고지를 동시에 탈취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듯, 우측의 수도고지와 277고지에 대한 공격을 일시 중단하고 좌측의 575고지와 지형능선에 전투력을 집중 투입하였다. 수도사단의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 고지는 중공군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수도사단의 즉각적인 역습도 실패하고 말았다.

제2군단장은 10월 8일 수도사단의 전투경과 상황을 분석 검토하고서, 지난 4개월 동안 중공군 제35사단과 치열한 공방전을 치른 수도사단의 전투력이 약화되어 575고지와 지형능선을 회복할 능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군단에서는 수도사단의 전투지경선 일부를 조정하고 피탈된 575고지의 탈환 임무를 제6사단에 부여함으로써 수도사단으로 하여금 지형능선의 탈환과 수고고지 방어에 주력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사단은 지형능선 탈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제1연대 제1대대가 완강히 저항하는 중공군을 격파하고 13일 마침내 지형능선을 탈취하였다. 이날 사단에는 군단으로부터 “제8사단과 임무를 교대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수도사단은 10월 25일 주저항선의 방어임무를 제8사단에 인계하고 미 제1군단의 예비로서 제1야전훈련지역(의정부, 포천)으로 이동하여 부대정비에 임하게 되었다.[180]

이로써 1952년의 수도고지와 지형능선 전투는 일단락되었다. 수도사단은 중공군 제35사단을 맞이하여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에서 약 4개월이나 공격과 방어의 혈전을 반복하여 비록 575고지를 적에게 내어주었으나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을 고수하는 데 성공하였다. 수도사단과 맞선 중공군 제35사단은 575고지를 점령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지형능선과 수도고지 작전에 실패하여 전투력이 반감된 상태에서 10월 말 제67군단 예하 사단과 임무를 교대하였다. 약 4개월간 진행된 전투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중공군의 피해

지역별	인명피해			장비손실				
	사살	추정 사살	포로	소총	다발총	기관 단총	중기 관총	경기 관총
621고지	2				2			
수도고지	1,016	1,888	2	33	46	3	1	1
지형능선	1,268	1,195	2	25	20	1	8	5
합 계	2,286	3,083	4	58	68	4	9	6

수도사단의 피해

지역별	인명피해			장비손실				
	전사	부상	실종	소총	자동 소총	경기 관총	3.5″ 로켓포	60㎜ 박격포
621고지	3	5						
수도고지	421	1,045		195	27	2	1	1
지형능선	547	2,070	167	1,211	65	7	3	
합 계	971	3,120	167	1,406	92	9	4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 독수리고지 및 피의고지 전투

독수리고지 및 피의고지 전투는 국군 제2군단 예하 제3사단이 1952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중공군 제203사단과 벌인 고지쟁탈전이었다.

국군 제3사단은 1952년 4월 5일부로 수도사단, 제6사단과 더불어 국군 제2군단에 배속된 이래 8월까지 몇 차례 소규모 전초전을 수행하면서 진지보강에 주력하고 있었다. 사단장 백남권 준장은 제22연대를 좌일선에, 제23연대를 우일선에, 제18연대를 예비로 배치하여 적의 공세에 대비하였다. 특히 사단은 적의 주공 축선을

억제하게 될 요충지역으로 제22연대 전초진지인 748고지와 572고지를 선정하고 이곳에 대한 방어 전열을 보강하였다.

사단의 방어지역은 북한강 상류지역의 산악지대이며 전반적으로 험준한 암석과 급경사의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군 주저항선상의 949고지는 동 지역의 최고봉이었으며 동서로 뻗은 능선으로 방어에 유리하였다. 949고지로부터 북으로 T자형으로 뻗은 능선중앙과 서측 전초진지인 독수리고지(△572)와 피의고지(△748)는 각각 적으로부터 감제당하고 있어 아군기동에 다소 제한을 주고 있었다.

제2군단장 유재흥 중장은 9월 초순 이래 정면의 중공군 제12군단(국군 제6사단, 수도사단 정면)과 제68군단(국군 제3사단 정면)의 공세기도가 점차 두드러지자 수도고지 전투를 교훈 삼아 군단 주저항선 전반에 걸친 방어 전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국군 제3사단 제22연대는 제2대대와 제1대대를 좌우일선으로 하고 전초진지에 제7중대와 제2중대를 각각 배치하고 있었다. 사단에서는 양 전초진지가 침공당할 경우 제18연대를 역습부대로 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 계획에 따라 155mm곡사포 18문, 105mm곡사포 18문 등 포병지원화력도 이 정면으로 집중시키고 있었다.[181]

9월에 접어들면서 점차 적의 공세기도가 탐지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강 상류 좌안에 있는 좌인접 수도사단의 수도고지 전투가 치열해지는 전황의 긴박성과 더불어 사단 정면에서도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949고지 일대에 배치된 제22연대는 진지를 강화하는 한편 수색활동을 전개하여 적의 기도탐지에 주력하였다.

한편 지상 및 공중으로부터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패주한 중공군 제68군단 제203사단 제609연대 주력은 피의고지와 독수리고지 북방의 산악지대를 점령하여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였다.

적은 차기작전에 유리한 아군 주진지 지대의 949고지를 점령할 목적으로 3개월 전부터 공격준비에 착수하였으며 949고지의 전면침공에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수리고지와 피의고지를 점령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122mm포 및 105mm포 35문 등 각종 포 77문을 이 일대로 집중시키고 있었다.[18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9월 28일 야간 중공군 제68군단 제203사단의 공격이 개시되었다. 이날 22:10분 적은 적색신호탄 6발을 신호로 122mm포 등 각종 포탄을 제22연대의 전초진지인 독수리고지, 피의고지와 사단 주저항선 일대에 전례 없이 집중적으로 퍼붓기 시작하였다. 적의 포격으로 일순간에 전초인 제7·제2중대와 대대간의 모든 통신망이 마비되었다.

곧이어 적은 1개 대대를 제7중대 독수리고지에, 1개 대대를 피의고지에 투입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의 침공을 예상하고 있던 양 전초 중대는 진지 앞 30m까지 적을 유인하여 혈전에 혈전을 거듭하며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위기에 처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즉시 제6중대를 독수리고지로, 제1중대를 피의고지 일대로 지원토록 하였다.[183]

전초진지의 전황은 28일 자정을 넘어서면서 더욱 치열해졌다. 중공군의 기도는 제203사단 주력을 제22연대의 정면에 집중하여 949고지를 비롯한 주저항선상의 감제고지군을 점령함으로써 북한강유역 일대를 제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9일 미명부터 제7중대는 제6중대의 지원을 받아 완강하게 적을 저지하였으나 시시각각으로 적의 압력을 받아 고지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피의고지에서도 06:15분 제2중대가 제1중대의 지원을 받아 적을 저지하고 있었으나, 적의 후속부대가 피의고지 좌측능선으로 포위하였으므로 불가피하게 철수하였다.[18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단장은 적을 전초진지 선에서 저지한다는 결의 하에 예비로 대기 중이던 제18연대에 역습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05:00시 제18연대는 제1대대가 독수리고지로, 제2, 제3대대가 피의고지 일대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군단장도 주저항선의 일각이 긴박하다고 판단하여 제6사단에 배속 중이던 제52전차중대 1개 소대를 이날 12:00시부로 제22연대 주저항선에 투입하였다.

제18연대 제1대대가 독수리고지 7부 능선까지 진출하였으나 피아를 가리지 않는 적의 무차별 탄막사격으로 인해 많은 병력손실을 입고 있었으며, 제2대대도 피의고지 서남쪽에서 공격이 지체되고 있었다. 이 무렵 유엔 공군 F-86 1개편대가 네이팜탄과 기총소사로 적의 집결지를 집중 강타하였다. 그러나 적은 아군의

집중적인 차단공격에도 불구하고 고지 배후에서 방어 전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사단장은 주저항선 전방의 방어종심을 보강하는 한편, 역습주력을 748고지에 집중하기로 결심하고 572고지를 역습 중인 제18연대 제1대대를 철수토록 하고 대기 중이던 제3대대를 748고지에 대한 역습주공으로 투입하였다.

이에 제18연대 제2대대가 1일 01:00시 적의 집중적인 포화를 헤치며 748고지 8부 능선까지 진출하였다. 대대는 진지 앞 40m까지 육박해 일제돌격을 개시하여 일시 주봉을 탈환하였으나, 곧이은 적의 반격을 받아 철수하였다.

다시 제3대대가 탈환의 임무를 부여받아 역습을 재개하였다. 대대는 적의 측방화력을 제압하면서 8부 능선까지 진격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을 받아 공격이 좌절되어 피의고지 남단과 동측능선으로 철수하였다.[185]

사단장은 제18연대의 역습이 실패하게 되자 다시 제18연대 제3대대와 제22연대 제1대대를 주공으로 투입하고 제18연대 제1대대를 예비로 후속케 하는 가운데 다음날 미명 일제 공격을 재개하였다.

2일 04:00시 제3대대가 재역습에 실패하자 다시 17:20분 제22연대 제1대대가 제3대대의 진출선을 초월하여 진출하였다. 각 중대는 적의 집중포화 속에도 불구하고 사선을 차례로 돌파하면서 수류탄 투척거리까지 전진하였다.[186]

대대는 적의 자동화기거점을 수류탄으로 제압하면서 일제돌격을 감행하였다. 대대장은 지금까지 아군의 역습이 번번이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적의 자동화기거점을 파괴하지 못한데 있다고 판단, 일제돌격에 앞서 1개 소대를 진지 앞 50m까지 진출시켜 적의 화력거점을 파괴하는데 성공하였다.

곧이어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각 중대가 일제돌격을 감행하였으며 마침내 19:45분 주봉을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사단장은 즉시 예비인 제18연대 제1대대를 투입하여 적의 역습에 대비케 하였다. 이후 양 대대는 몇 차례 적의 반격을 받았으나 강력한 화력지원을 받아 고지를 확보하였다.[187]

국군 제3사단은 5일간의 쟁탈전에서 전사 109명, 부상 384명의 손실과 적 사살 664명, 추정사살 161명의 전과를 달성하면서 고지를 확보하였다. 사단은 이 작전 이후 748고지를 비롯한 사단주저항선 전방의 전초진지를 보강하면서 방어종심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보강하였으며, 10월 27일 부대정비를 마친 제18연대에 제22연대 방어진지를 인수하게 하여 동 고지를 계속 확보하였다.[188] 572고지는 적이 장악한 능선 끝에 위치하며 보급이나 병력증원도 곤란하였고 전술적으로 사단방어에는 큰 의미를 지니지는 않았다. 그러나 휴전회담과 휴전선의 설정을 고려한다면 이 전초진지의 피탈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4 절 북한강-소양강-남강 부근 전투

1. 개 요

1952년 9월말 판문점 휴전회담이 포로문제로 교착되기에 이르자 적은 회담의 주도권을 잡아보려는 시도로써 전 전선에 걸쳐 국부적인 제한 공격을 취하여 전선은 다시 소강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양상으로 급변하였다. 국군 제7사단의 크리스마스고지 부근 전투도 이러한 상황에서 야기된 것이었다.

미 제10군단은 여름에 이르기까지 계속 국군 제7사단을 좌익으로, 미 제25사단을 중앙으로 그리고 국군 제8사단을 우익으로 삼아 예비대 없이 1090고지-단장의 능선-812고지-854고지에 이르는 전선을 확보하던 중 7월 18일 미 제1군단으로부터 미 제45사단을 배속 받아 이를 잠시 양구 부근에 예비로 확보하였다가 9월 25일 우익인 제8사단과 교대토록 하였다.[189]

이 과정에서 군단 우익지역에서는 제8사단이 9월의 부대교대 직전 812고지-854고지의 전초진지에서 북한군의 침공을 받아 이를 격퇴하였는데, 12월 다시 이 전선을 인수한 미 제45사단도 제12사단과의 교대를 앞둔 25일에 또 한차례 북한군의 침공을 받았으나 이를 물리쳤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11월 미 제40사단이 단장의 능선 북단 851고지에서 북한군의 침공을 받았으나 이를 지켜내었으며, 우익에서는 기간 중 주저항선을 계속 담당한 제7사단이 10월 중순 중공군으로부터 1090고지 부근의 공격을 받아 크리스마스고지를 상실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군단의 주진지는 다른 전선에서와 마찬가지로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1090고지 부근 전투

국군 제7사단은 1952년 2월 중순부터 1090고지 부근에서 일진일퇴의 격전을 치른 이후 전선의 교착 속에서 소규모의 병력으로써 수색 및 정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었다. 7월 중순 사단은 부대 신편계획에 따라 신병과 소요장비를 보충받아 전투부대 위주로 개편을 완료하여 제3연대를 좌일선, 제8연대를 우일선에 배치하고 제5연대를 예비로 확보하였다. 1090고지는 제3연대 제2대대 제9중대가 방어하고 있었다.[190]

연대는 적이 불원간 1090고지를 침공할 것이라 판단, 견고한 전초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각종 지뢰를 주저항선 전면에 매설하여 전초진지를 계속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아군의 장비는 우수한 편이었으며 양호한 보급으로 사기도 높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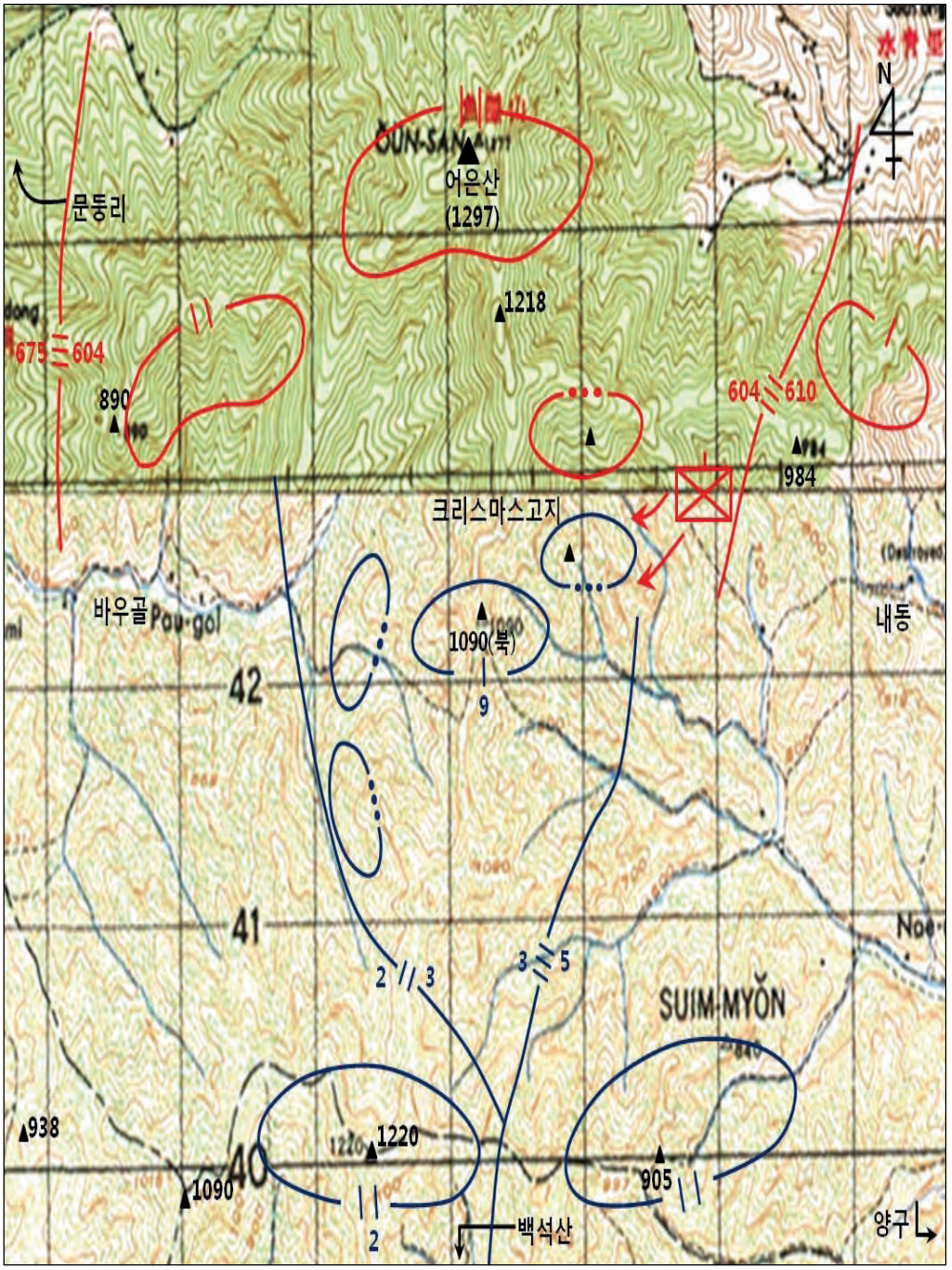
한편 적은 계속 차기공격의 방책으로서 전초진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아군의 전투의욕을 저하시키고자 기도하고 있었다. 정면의 적 중공군 제68군단 제202사단이 1개 대대로서 76mm직사포 82mm박격포 및 로켓포의 지원하에 공격을 기도하고 있었다. 이들은 그동안의 진지공사를 위한 중노동과 아군의 포격과 폭격으로 사기가 점차 저하되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작전지역은 1090고지를 중심으로 동쪽에 수입천이 남방으로 흐르고 북쪽에는 어은산(1277고지)과 사방의 준엄한 봉우리들이 피아 요새를 이루고 있었다. 어은산은 긴 능선이 아군쪽으로 뻗어 있어 방어에 불리하였다. 1090고지는 능선상에 유일하게 우뚝 솟아 있어 양측 모두에게 중요하였다.[191]

10월 6일 일몰과 더불어 제3대대와 대치하고 있던 중공군 제604연대가 기습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제3대대 제9중대의 전초진지에는 또다시 격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적은 공격준비사격 후 22:00시 야음을 이용하여 1090고지 북방 약 300m에 위치한 크리스마스고지를 점령한 다음 1090고지에 이르는 능선접근로를 따라 쇄도하기 시작하였다.

<상황도 6-19> 1090고지 전투



중대는 적을 지근거리까지 유인한 다음 네이팜지뢰와 수류탄의 연발로 기선을 제압하면서 적을 저지하였다. 대대장은 적의 기도가 전면적인 공격이 아니라 다만 크리스마스고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포병사격을 요청하는 한편 제11중대로 제9중대를 지원토록 하였다.

다음날 미명 적은 짙은 안개를 이용하여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들은 접근로가 협소한 탓인지 1개 소대 병력을 앞세우고 1개 소대를 후속시키면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제16포병대대의 탄막사격이 일제히 집중하였으며, 중대는 전 화력을 집중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전황을 주시하던 대대장은 즉시 크리스마스고지를 탈환하기 위하여 제11중대를 투입하였으나, 중대는 병력열세와 지리적인 불리함으로 인해 공격에 실패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적의 기도가 연대전력을 축차로 약화시킨 다음 방어중심지인 1090고지를 탈취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하고 1090고지 고수를 위한 방어준비에 주력하였다.

제3대대가 제10중대를 1090고지에, 제9중대를 그 서측에 배치하여 진지보수에 주력하던 무렵, 13일 20:00시 1090고지 일대로 적의 공격준비사격이 재개되었다. 곧이어 적 1개 대대가 치열한 포격지원 하에 대대 정면으로 침공하였다.

대대는 각종 포로서 정면 일대에 맹포격을 가하였으나 적이 계속 강력한 아군의 화망을 뚫고 제9중대 좌측으로 접근하였다. 중대는 최후저지사격과 백병전까지 치르면서 적을 저지하였다. 중대는 집요하게 파상공격을 계속하는 적에 대해 포격지원과 제11중대의 사격지원을 받아 00:10시 경 마침내 적을 격퇴하였다. 이무렵 사단 지원포병이 1277고지로 분산 철수하는 적에 대해 화력을 집중하였다.[192]

연대는 주진지에 이르는 전술요충인 1090고지를 성공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사단 주저항선 방어의 발판을 견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전투 이후 제7사단은 전초진지 일대에 철조망과 대인지뢰, 네이팜지뢰 등을 설치하여 적의 역습에 대비하였으며, 제3연대는 10월 말 명령에 따라 제8연대에게 진지를 인계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854-812고지 전투

국군 제8사단은 854고지 전투를 치른 뒤 만 1년만인 1952년 9월 다시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공방전을 치르게 되었다. 당초 사단은 호남지구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던 중 육군본부 명령에 의거 1952년 3월 23일 미 제1해병사단으로부터 동부전선의 좌측을 인수하여 노전평 북방 854-812고지의 방어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193]

사단은 전선을 인수한 이후 8월까지 북한군과 대치한 상황에서 미 제5공군의 근접항공지원과 미 제7함대의 함포지원 하에 1일 평균 1,000여 발의 포격을 가하는 포격전을 전개하는 한편 적정 파악을 위한 소규모 수색정찰전을 반복하고 있었다.

작전지역에는 남강이 북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소양강이 사단의 거의 중앙부를 횡단하면서 인접부대와의 전투지경선을 이루고 있었다. 지역 내 854고지 전면에는 795고지가 일련의 능선을 이르고 있으며 812고지의 서쪽에는 아군 방어지역을 감제하는 1052고지가 뻗어 있어 주보급로(노전평-원통-인제-관대리) 운영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었다.

사단 정면의 적은 북한군 제1, 제45, 제15사단 등 3개 사단으로서 휴전회담 기간의 전선 소강상태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진지를 보강하고 있었다. 기간 중 수집한 적정에 의하면, 9월 중순 북한군 제45사단이 대공세를 실시할 가능성이 농후하였으며 그럴 경우 그 주공 목표가 854고지와 812고지일 것으로 판단되었다.[194]

국군 제8사단장 김익렬 준장은 제16연대(연대장 유재성 대령)와 제10연대(연대장 신언국 대령)를 배치하고 제21연대(연대장 전부일 대령)를 사단 예비로 확보하여 주저항선을 계속 보강하였으며, 그 결과 9월에 이르러서 방어진지를 대폭 강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제10연대는 11km 방어정면을 담당하여 제1대대와 제3대대를 주저항선에 내세우고 제2대대를 연대예비로 하였다. 제16연대는 924고지-812고지에 연하는 9km의 주저항선을 담당하였으며, 연대지휘소를 가전리에 두고 제3대대를 좌측에, 제1대대를 우측에 각각 배치하고 제2대대를 연대예비로 성내동에 집결 보유하고 있었다. 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리고 포병으로는 미 제2중박격포대대가 연대를 직접 지원하였고 미 제245전차대대가 854고지에 대한 적의 위협을 제압하고 있었다.

북한군의 공격은 9월 21일 18:00시에 개시되었다. 마침 이날은 사단의 현 방어임무를 군단예비인 미 제45사단에 인계하기 하루 전으로써 적이 마치 진지교대의 허점을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들은 3시간에 걸친 집중포격을 실시함과 동시에 21:10분에 2개 대대로 제16연대의 812고지를 공격하고 22:40분에는 1개 연대로서 제10연대의 854고지를 공격해 왔다. 사단은 적의 공격시간 격차와 병력의 규모 등을 분석하여 적이 812고지로 양공하면서 854고지에 주공을 집중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10연대의 좌일선 부대인 제1대대는 705고지에 제3중대를, 854고지에 제2중대를 배치하고 그 좌측에 제1중대와 연대 수색중대(-)를 배치하고 있었는데, 제2중대 정면으로 중공군의 파상공격이 집중되었다. 중대는 혈전 3시간여 만에 대대장의 긴급 철수명령으로 854고지의 정상에서 일단 철수하여 고지 동남쪽 584고지에 이르는 능선 상에 진지를 급편하였다.[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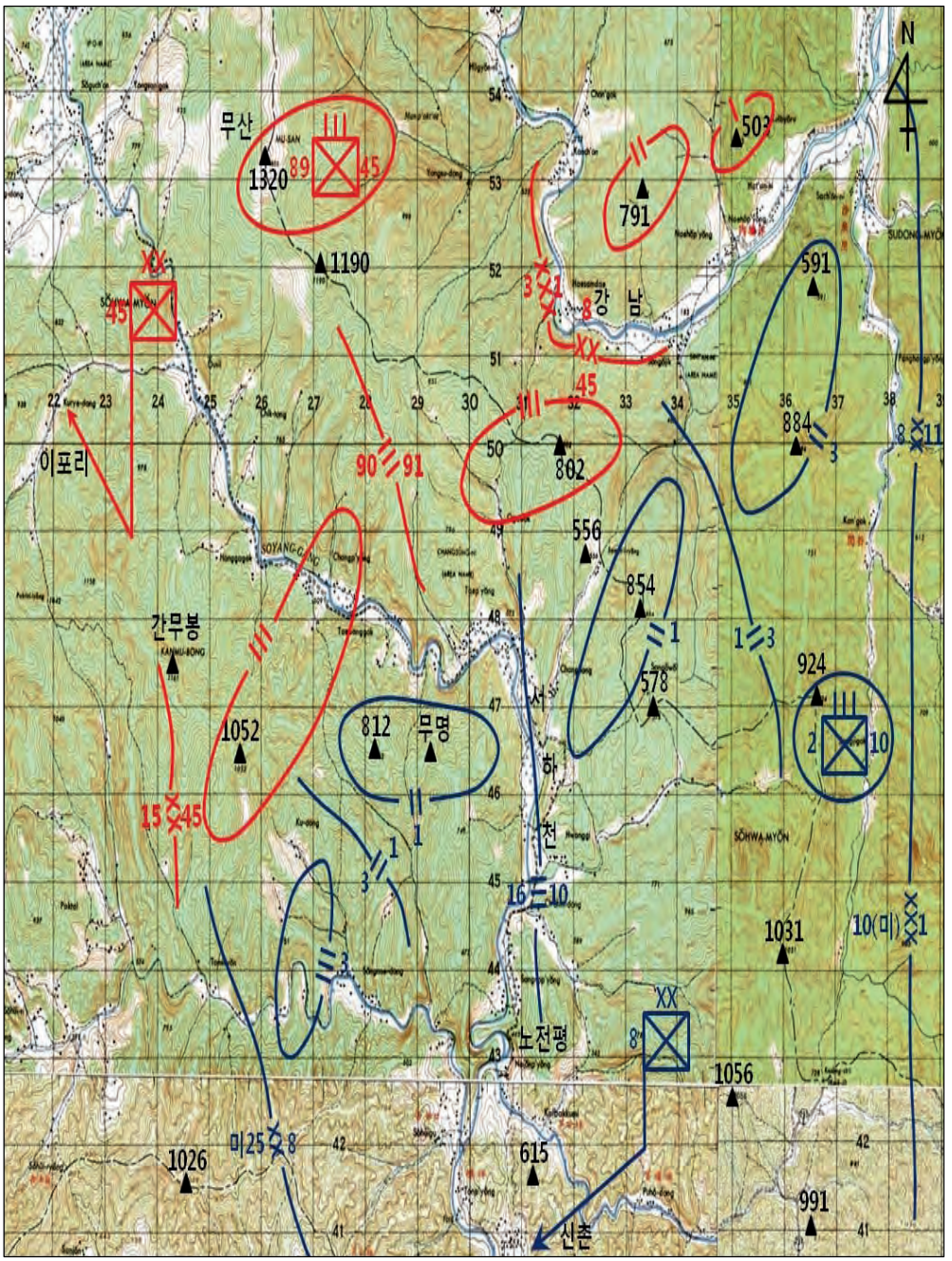
또한 적은 조공의 일부로서 제3중대의 705고지로 2개 중대를 투입하였으며 특히 제2중대와의 전투지경선인 계곡을 따라 침투해 들어왔다. 중대는 혈전 끝에 자정이 지날 무렵부터 적과 백병전까지 전개하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중대원 전원이 필사의 정신으로 적에게 돌파 당했던 진지의 일부를 탈환함과 동시에 마침내 적을 완전히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제16연대 정면의 적이 이날 854고지 공격보다 30분 앞선 22:10분부터 1개 대대를 투입하고 이어 2개 대대를 후속시키면서 제1대대의 812고지 전면에 압력을 가해왔다. 적의 기도는 대대 방어선을 돌파하기보다는 사단의 화력을 유인하여 854고지로 향한 그들 주공의 전진을 용이하게 하려는 계략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이곳은 이미 적정과 지형 등을 감안하여 적의 예상 접근로상에 화집점이 계획되어 있었다. 상황이 전개되자 예정된 화집점에 차단사격이 집중되었다. 여기에 미 제254전차대대의 1개 소대와 동해안의 미 제7함대의 함포사격이 가세하여 적의 공격대열을 강타하였다.[1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6-20> 812-854고지 전투



이 무렵 제10연대는 제1대대가 적의 공세에 밀려 03:30분에 854고지를 상실하고 말았다. 제1대대는 즉시 전차대와 미 제2박격포대대의 4.2″중박격포 1개 중대와 대대 중화기중대의 지원을 받아 적에게 사격을 집중하였다. 05:00시 무렵 854고지를 탈취한 여세를 몰아 돌파구를 확대하려고 했던 적은 아군의 과감한 협공과 지원포의 집중사격으로 인하여 마침내 급편진지로 위축되고 말았다.



854고지 전투를 지원 중인 전차

이로써 적의 돌파구 확대를 저지한 제10연대는 공중에서의 근접지원과 함포의 지원사격을 요청하여 854고지 북사면에 대한 차단탄막을 형성하는 가운데 제2대대로 역습을 전개하였다. 역습 30분 전부터 대규모 공격준비사격이 개시되었다. 이때 미 제145포병대대를 비롯한 7개 지원포병대대 및 미 제245전차대대와 미 제5공군 편대, 미 제7함대 등이 적을 집중 강타하였다.

공격선을 출발한 제2대대는 경사지를 오르는 불리한 지형에도 불구하고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면서 전과를 확대해 나갔다. 이로써 대대는 854고지를 완전히

회복한 다음 진지를 재편성하여 적의 반격에 대비하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특기할 사항은 동해안에 파견된 미 제7함대의 함포지원과 군단포병을 총동원하여 854고지에 집중포격을 실시해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목표를 탈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군 제8사단은 이후 9월 25일부터 책임방어지역을 미 제45사단에 인계하고 부대정비와 교육훈련에 들어갔다.[197]

4. 남강 남안의 쟁탈전

전선 최동단 방어를 맡은 국군 제1군단은 1951년 1월 13일 제5사단이 군단에 배속됨을 계기로 제11사단과 제5사단으로서 남강 남안의 주진지를 확보하여 북한군 제1군단 예하 제47, 제9사단과 대치하고 있었다. 이때 제11사단은 군단 좌측 남강에 연한 사천리-554고지를, 제5사단이 군단 우측 554고지-감호까지 고성 남쪽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남강이라는 천연의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는 제11사단 지역은 대체로 소강상태가 유지되었으나, 제5사단 정면에서는 적이 고성 남쪽 월비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남쪽 351고지 등 제5사단의 전초진지와 주저항선을 공격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제5사단장 장창국 준장은 5월 27일 제27연대가 육군본부 예비로 원대복귀하자 7월 초 제36연대를 좌전방, 제35연대를 우전방, 제27연대를 예비로 부대를 재배치하였다. 351고지 전초진지 방어를 담당한 제35연대는 주저항선에 제2대대만을 배치하고 전초진지에 제1대대와 제3대대를 배치하여 전초진지의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사단은 편제상의 지원포병 1개 대대와 1개 중박격포중대 외에 군단 포병대대와 미 극동함대 및 미 제5공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화력면에서 적보다 우세하였다.

반면 북한군 제9사단은 제86연대를 국군 제35연대 정면에, 제47사단은 제2연대를 국군 제36연대 정면에 각각 전개하고 있었다. 이들은 소규모 수색정찰 활동을

<상황도 6-21> 351고지 전투



빈번히 전개하는 동시에 보급품 수송을 전방에까지 점차 증가시키고 있어 적이 곧 공격작전을 펼 것으로 예상되었다.

작전지역은 태백산맥에서 동해안으로 이어진 소능선이며, 남강이 완경사를 이룬 소능선에 의해 동해와 접하고 있었다. 남으로는 태백산맥의 본맥으로 연결되는 고지군이 형성되어 있고 북으로는 월비산 능선과 연결된 351고지가 있었다. 351고지 일대는 수차에 걸친 포격전으로 지면이 노출되어 있었다.

기간 중 기상은 대체로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었으나 때로 강우가 있었으며 새벽에는 동해안 특유의 짙은 안개로 관측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른 아침 동안에는 기습작전과 수색전에 유리한 반면 항공지원에는 불리하였다.

북한군은 제9사단 제86연대로 하여금 351고지를 탈취하도록 명령하였는데 동 연대는 정예부대를 선정하여 침공을 위한 장기훈련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탐지되었다. 이들은 7월 6일부터 정찰대와 공병대를 투입하여 351고지와 그 북방 무명고지 사이에 매설된 지뢰와 장애물을 제거하고 정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었다.[198]

7월 10일 22:00시 북한군 제86연대가 대규모의 공격준비사격을 개시한 후 대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제3대대 제9중대가 배치된 351고지로 대거 침공을 개시하였다. 적의 급습을 받은 중대는 적의 양면공격을 받아 진지의 일부가 돌파되고 말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에 사단장은 다음날 사단수색중대와 제27연대 제2대대를 제35연대에 배속시키는 한편 즉시 1개 대대로 역습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11일 14:15분 제35연대 제2대대가 역습에 나서 동서 양측방을 우회하면서 능선을 따라 적의 탄막을 헤치며 적진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공격부대는 적의 측방화력과 자동화기의 집중사격을 받아 역습에 실패하였으며, 곧이어 재개된 제3대대의 몇 차례 공격도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동해안 351고지

사단장은 12일 제27연대와 제35연대를 임무교대시켜 제27연대로서 동 고지를 탈환하도록 하였으나, 이 역시 적의 화망을 돌파하지 못하여 4, 5차에 걸친 거듭된 공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력 손실만 입은 채 진전이 없었다.[199]

사단은 이와 같은 제27연대의 현 상황을 감안하여 탈환임무를 다시 제35연대에 부여하였다. 연대장은 고지피탈의 책임을 통감하고 13일 20:30분 제2대대를 351고지로 투입하여 역습을 전개하였다.

이에 앞서 연대는 적을 기만하기 위해 20:00시부터 트럭 10대를 동원하여 고지 하단까지 갈 때에는 불을 켜고 돌아올 때는 불을 끄게 하는 식을 몇 차례 반복하였다. 이것은 아군이 대병력을 투입하여 351고지를 탈환할 것이라는 사실을 적에게 암시함으로써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또 미명에 공격을 기도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려는 양동작전이었다.[200]

제2대대는 제5중대를 동쪽으로 우회시켜 동측방에서 돌격하게 하고 제7중대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측방으로 투입하여 22:00시까지 공격개시선에 진입하게 하는 한편 제6중대를 중앙에서 후속하게 하였다. 공격개시를 전후하여 미 제5공군 전폭기들이 고지 상공을 누비면서 적의 진지와 보급로를 강타하였고 미 제7함대의 함포가 계속 고지 정상을 강타하여 장병들의 사기를 드높였다. 공격을 개시한 제5중대는 동쪽 능선을 따라 야음을 이용해 전진을 계속하였다. 이 능선은 경사가 심하지 않아 돌격선까지의 전진이 용이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그동안의 폭격과 포격으로 초토화되어 전진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더구나 돌격선에서 적진까지는 경사가 이루어져 있어 비록 야간공격이라 하더라도 적의 집중 화력을 피할 수 없었다.

제5중대는 불리한 지형을 감안하여 특공대로써 적의 기관총을 제압함과 동시에 공격을 감행하였다. 중대는 23:30분에 351고지 동쪽 진지를 완전히 점령하고 여세를 몰아 적을 추격하여 정상을 향해 돌진을 계속하였다.

좌일선의 제7중대도 서쪽 능선을 따라 적진을 향해 전진하였다. 그러나 서쪽능선은 동쪽과는 달리 경사가 가파르고 곳에 따라 천애의 절벽을 이루고 있었으며, 접근로 상에 설치된 지뢰와 기관총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다. 이에 중대장은 선두에 전투경험이 많은 고참병들을 배치하여 길을 개척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하여 험준한 비탈길을 기어올라 돌격준비를 갖추고 있을 무렵 벌써 반대편에서 제5중대가 함성을 지르며 돌격을 감행하는 중이었다. 제7중대도 때를 같이하여 돌격을 개시하였다. 적이 이미 전의를 상실한 때라 양개 중대는 파죽지세로 적을 격퇴하여 주봉을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351고지 탈환작전은 만 3일간의 수차에 걸친 공방전으로 그야말로 고지를 선혈로 물들이는 혈전이었다. 사단은 이 전투에서 적 445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획득하고 아군 68명이 전사하고 467명이 부상당하는 큰 손실을 입었다. 고지를 탈환한 후 제2대대는 공병 1개 중대를 투입하여 진지와 교통호를 수리하고 지뢰, 철조망 등을 설치하면서 방어진지를 보강하였다.

사단은 그 후 몇 차례의 소규모 침공을 격퇴하다가 11월 9일 적 대대 규모의 공격을 받아 한때 351고지를 상실하였으나 적에게 진지 재편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과감한 역습을 전개하여 재탈환에 성공하면서 고지를 확보하였다.[2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5 절 분석 및 평가

1952년 후반기에도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전 전선에 걸쳐 첨예하게 대치하였으나 대규모의 전면공세를 실시할 태세를 취하지는 않았다. 휴전회담장에서는 서로 유리한 휴전조건을 쟁취하려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쌍방은 그 결과를 주시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6월 초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지역에서 소규모 제한공격인 소위 '카운터작전(Operation Counter)'을 실시하여 역곡천 북안의 백마고지, 화살머리고지, 티본고지와 역곡천 남안구릉의 포크찹고지, 불모고지 등 11개 목표를 장악하여 전초진지를 강화하였다. 이로써 국군과 유엔군은 차후 보다 유리한 지형에서 적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적의 역습이 시작됨에 따라 이들 중 중요 전초에서의 쟁탈전은 계속되었고 이어 전 전선에 걸친 전초진지 쟁탈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전투는 대체로 피아간에 주진지의 변동이 없는 가운데 보다 유리한 전초진지를 장악하여 각기 방어태세를 강화하려는데 주안점이 있었다. 특히 9월에 접어들어 적은 수색활동을 강화하면서 전 전선에 걸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서부전선에서는 미 제1해병사단이 벙커고지에서, 미 제2사단이 불모고지에서, 국군 제1해병연대가 사천강 일대의 전초진지에서, 국군 제1사단이 테시와 닉키고지의 쟁탈전에 이어 베티와 노리고지에서 각각 쟁탈전을 수행하였다.

미 제1해병사단은 8월 9일부터 16일까지 벙커고지에 가해진 적의 7차에 걸친 침공을 혈전 끝에 격퇴하여 전초진지를 지키고 주진지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다. 벙커고지 전투는 비록 낮은 전초진지를 차지하기 위한 공간상으로 제한된 소규모의 전투에 불과했지만, 적은 전사 580명, 부상 1,500여 명의 피해를 입었고, 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해병도 전사 92명, 부상 529명의 희생을 치를 정도로 격렬하고 치열한 전투였다.

미 제1해병사단이 판문점 동남방 임진강 유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사단의 좌일선 사천강 일대에서는 국군 제1해병연대가 격전을 치렀다. 국군 제1해병연대는 4차에 걸친 중공군의 공세를 받아 일시 진지가 피탈되는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과감한 역습을 전개하여 끝내 진지를 고수하였다. 국군 제1해병연대가 점령한 사천강 동쪽의 장단지역은 개성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1번 국도의 방어를 위한 요충지였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휴전시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한다는 휴전회담의 방침에 따라 아군으로서는 수도권의 방어에 전초가 되는 지역이었으며, 적으로서는 최소한 임진강까지의 진출에 발판이 되는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이곳의 전초진지를 놓고 피·아는 피나는 쟁탈전을 되풀이 하게 되었다.

불모고지 전투는 연천 북방의 천덕산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미 제2사단이 7~10월 중공군 제38군단과 제39군단 예하의 병력으로부터 역습을 받았을 때, 사단의 11개 전초진지 중 하나인 불모고지에서 적의 역습을 저지해 낸 방어전투였다. 불모고지 전투로 인해 미군은 전사 39명, 부상자 234명, 실종자 84명이 발생하였으며, 중공군은 약 1,09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952년 여름 이후 전 전선에 걸친 다른 공격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으나 얻은 것은 별로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러한 상대적인 병력손실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당시 미국 내에서 전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민감한 분위기에서 미군의 병력손실은 새로 점령한 지역의 가치에 비해 그 대가가 너무 큰 것이었다.

고양대·임진강 전투는 1952년 가을과 겨울, 연천 북방의 임진강 북안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국군 제1사단이 고양대와 임진강 일대의 전초진지(닉키고지, 테시고지, 노리고지, 베티고지)에서 중공군 제47군단과 접전한 방어전투였다. 특히 노리고지 전투에서 국군 제1사단 제11연대의 투혼은 당시 공격상황을 지켜보던 미 제1군단장이 감탄사를 연발할 정도로 빛을 발했다. 국군 제1사단은 비록 대노리고지 점령에 실패하고 많은 인명손실을 입었지만 중공군 제140사단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케 하여 제139사단으로 대체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철원-김화지구의 중서부전선에서는 미 제9군단이 7월 중순 국군 제9·국군 제7·미 제2사단을 전방에 배치하고 미 제40사단을 예비로 확보하여 중공군 제15·제38군단과 대치하고 있었으나 여름동안 별다른 접전 없이 소강상태를 유지하였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북한군과 중공군이 아군 전초진지에 대하여 대대적인 선제공격을 전개하였으며, 국군과 유엔군 측에서도 이에 맞서 제한적이나 적극 공세를 취함으로써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전개되었고 10월에 접어들어 절정에 달하였다.

기간 중 군단 좌익의 제9사단이 10월 6일부터 백마고지에서 혈전을 벌였고 군단 우익에서는 백마고지에 대한 적의 공세에 대응하여 국군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이 10월 14일 김화 북쪽의 저격능선과 삼각고지를 선제공격하였다.

따라서 기간 동안 군단 정면의 주요 전투는 철의 삼각지대에서 유리한 통제권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철원에서는 적이 백마고지를 선제공격하였고 김화에서는 아군이 쇼다운 작전계획에 따라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특이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백마고지전투는 국군 제9사단과 중공군 3개 사단이 표고 395m에 불과한 고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월 6일 밤부터 15일까지 이 고지를 빼앗기고 되찾기를 25번이나 반복한 격전 중의 격전이었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9사단은 결국 이 고지를 탈환하고 중공군에게 막대한 타격을 가하여 이를 격퇴하였다. 이 전초진지 쟁탈전에서 중공군은 1만 여명의 병력이 손실되었으며, 국군 또한 3,500여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백마고지의 승리는 전략적 요충지인 철원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사단장의 적시 적절한 예비대의 운용과 장병들의 불타는 적개심이 제9사단으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한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군단의 쇼다운작전 계획에 따라 전개된 저격능선과 삼각고지 전투는 제8군이 이 해에 마지막으로 시도한 공격작전이었다. 군단은 당초 국군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의 각 1개 대대로써 5일간이면 성공리에 작전을 종결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의외로 국군 제2, 미 제7사단의 거의 전 부대를 투입하고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2일간이나 지속된 6·25전쟁 기간 중 최대 규모의 혈전이 되었다. 이는 미 제9군단 정면의 중공군 제15군단이 강력한 방어의지를 보인 까닭으로 삼각고지에서는 진전을 보지 못한 끝에 급기야 군단이 이를 단념케 됨으로써 저격능선만을 계속 확보하게 되었다.

쇼다운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종결되지 못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저격능선 전투에서의 승리로 유리한 전초진지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산군의 기세를 꺾음으로써 전 전선에 걸쳐 작전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휴전회담을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중동부전선에서는 휴전회담이 개최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적이 아군정면에 강력한 국지공격을 감행, 회담을 유리한 방향으로 타개하고자 하였다. 금성천 부근의 방어를 담당한 국군 제2군단은 제6·수도·제3사단 순으로 북한강에서 금성에 이르는 주저항선을 담당하였다. 기간 중 군단은 중공군의 끊임없는 도전을 받았으며 그 주전장은 제3사단의 독수리고지와 피의 고지, 수도사단의 수도고지와 지형능선 그리고 제6사단의 A·B고지 등이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중군군은 9월과 10월에 이른바 '추계공세'를 통해 이들 요충지를 손에 넣고자 집중적이고도 파상적인 압력을 가하였다. 이로써 군단은 부분적으로 전초진지를 상실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적의 기도를 성공적으로 분쇄하였다. 특히 금성돌출부에 배치된 수도사단은 중공군 제12군단 제35사단을 맞이하여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을 놓고 1952년 7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군단작전 중 가장 치열한 전초진지 쟁탈전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사단은 군사분계선 설정에 대한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며 주저항선 전방의 작전상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무렵 국군 제2군단의 우익인 미 제10군단 지역에서도 크리스마스고지 전투와 854·812고지 전투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미 제10군단은 여름에 이르기까지 계속 국군 제7사단을 좌익으로, 미 제25사단을 중앙으로 그리고 국군 제8사단을 우익으로 삼아 예비대 없이 1090고지-단장의 능선-812고지-854고지에 이르는 전선을 확보하던 중 7월 18일 미 제1군단으로부터 미 제45사단을 배속받아 이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잠시 양구 부근에 예비로 확보하였다가 9월 25일 우익인 제8사단과 교대토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단 우익지역에서는 제8사단이 9월의 부대교대 직전 812고지-854고지의 전초진지에서 북한군의 침공을 받아 이를 격퇴하였는데, 12월 다시 이 전선을 인수한 미 제45사단도 제12사단과의 교대를 앞둔 25일에 또 한 차례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11월 미 제40사단이 단장의능선 북단 851고지에서 북한군의 침공을 받았으나 이를 지켜내었으며, 우익에서는 기간 중 주저항선을 계속 담당한 제7사단이 10월 중순 중공군으로부터 1090고지 부근의 공격을 받아 크리스마스고지를 상실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군단의 주진지는 다른 전선에서와 마찬가지로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전선 최동단 방어를 맡은 국군 제1군단은 제11, 제5 양개사단으로서 계속 남강 남안의 주진지를 확보하여 북한군 제1군단 예하 제47, 제9사단과 대치하였다. 그러나 군단 방어정면에는 남강이라는 천연의 방책이 가로놓여 있었고 적이 군단 전선을 넘지 못한 까닭으로 대체로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따라서 이 일대에서는 국군 제5사단이 고성 남쪽의 351고지 부근에서 7월부터 11월 사이에 북한군과 일진일퇴의 쟁탈전을 반복하였을 뿐, 대체로 남강을 사이에 두고 강을 넘나드는 수색전 정도만을 수행하였다.

1952년 9월~11월의 치열한 격전은 겨울이 몰고 온 한파와 함께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후 전투양상은 전초진지 쟁탈전이 사라지고 폭격, 수색정찰 및 극히 제한된 소부대 전투로 환원되었다.

(집필 : 박동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주(註)

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백마고지전투』, 1984, 20쪽.
2) 뿌리 깊은 나무, 『한국의 발견 : 강원도』(서울 : 평화당, 1988), 174~175쪽.
3) 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항미원조전사』, 세경사, 1991, 221~222쪽.
4)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396쪽.
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341쪽.
6)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396쪽.
7) 육군본부, 『육군전사』 제7권, 1957, 1~2쪽.
8)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397쪽.
9)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399쪽.
10)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399~400쪽.
11)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406쪽.
12) 1952년 7월 6일 김일성은 덩화, 쑹스룬, 간쓰치, 박일우에게 전문을 보내고 이를 다시 펑더화이에게 전달하여 북한노동당 중앙정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했다. 결정은 김웅을 민족보위성 부상에 임명해 최용건의 업무를 돕게 했고 북한군 전선사령부 사령관에 김광협을 임명했고 연합사령부 부사령관에 최용건을 임명했다.
13)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404~405쪽.
14)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406~409쪽.
15)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410쪽.
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7(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 2010, 157, 235쪽
17) 북한군에 대한 지휘권한을 조중연합사령부에 이양한 김일성은 정전시까지 자신의 군사지휘권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북한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직위는 명목상의 지위에 지나지 않았다. 위의 책, 235쪽.
18)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Order of Battle Branch,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General History of NKA Units(1951. 7.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851쪽.
1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 2001, 63~64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Order of Battle Branch,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General History of NKA Units(1951. 7.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2005, 146-149쪽;『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3, 2001, 252-255쪽; 러시아 國防部 編·金鍾國 譯,『러시아가 본 韓國戰爭』(대전, 오비기획 : 2002), 139~141쪽.

21)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Order of Battle Branch,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General History of NKA Units(1951. 7.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2005, 572쪽; 김중생,『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서울 : 명지출판사, 2000), 121~134, 175~177쪽.

22) 전쟁기념사업회,『한국전쟁사』제1권, 1990, 428~430쪽.

23) Msg, JCS 919368 to CINCFE, 25 Sep 52.

24) 육군본부,『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968, 309쪽.

2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미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991, 327쪽.

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8권, 13쪽.

27) James P. Finley,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871-1982: In the Vanguard of ROK-US Relations(San Francisco: Command Historian's Office, Secretary Joint Staff, Hqs, USFK/EUSA, 1983), pp.24~26.

28) Headquarters,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Command Report, October 1951, pp.5-6; GHQ, UNC, G-3 Operation Report, No. 464(1 october 1952), pp.3~4.

29) HQS, XCorps, Command Report, 1 June to 30 November 1952, pp.5~8(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HD 01541).

30) Headquarters,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Command Report, October 1952, p.6; GHQ, UNC, G-3 Operation Report, No. 464(1 october 1952), pp.4-5.

3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 대진중기』제8권(이하 '『한국전쟁사』제8권'), 1975, 17쪽.

32) 1952년 중공군의 추계공세 작전계획에 대해서는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2005, 401~425쪽 참조.

33) "Notes for MajGen J. T. Selden, 1st Marine Division CG Korea, 11 Jan - 20 Aug 1952", pp.22~23, RG 127(Records of the U.S. Marine Corps), Records Relating to Korean War and Subsequent Operations, 1950-59(Entry 1017), Box 9, NARA.

3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8권, 598~599쪽; "Command Diary 1st Marine Division FMF, April 1952", p.9, RG 127(Records of the U.S. Marine Corps), Records Relating to Korean War and Subsequent Operations, 1950-59(Entry 1017), Box 10, NARA.

3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8권, 597쪽; 온창일 외,『6·25전쟁 60대전투』, 황금알, 2010, 274쪽.

3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8권, 598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부도 19.

3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 600쪽; "Notes for MajGen J. T. Selden, 1st Marine Division CG Korea, 11 Jan - 20 Aug 1952", p.32.

3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 600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601쪽.

40)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하), 370쪽.

4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 602쪽.

4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 601~605쪽.

43) "Notes for MajGen J. T. Selden, 1st Marine Division CG Korea, 11 Jan - 20 Aug 1952", pp.22~23, RG 127(Records of the U.S. Marine Corps), Records Relating to Korean War and Subsequent Operations, 1950-59(Entry 1017), Box 9, NARA;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 606~608쪽.

4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9권, 608쪽; 온창일 외,『6·25전쟁 60대전투』, 황금알, 2010, 274쪽.

45) 국군 제1해병연대는 미 제1해병사단과 함께 3월 17일 서부전선으로 이동하여 임진강-사천 및 한강하류와 서해안 일원의 주저항선을 인수하여 서울로 이르는 적의 주접근로인 개성-서울가도의 방어를 담당하게 되었다.

4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8권, 501~502쪽.

47) 해병대사령부,『해병발전사 : 해병20년사』, 1961, 101쪽.

48) 155고지는 현재 도라산전망대가 위치하고 있다.

49)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2005, 406쪽.

5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8권, 503~504쪽.

5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8권, 504~507쪽.

52)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2005, 411쪽.

53) 이에 대해 10월 3일 민의원의장은 포탄이 작렬하는 서부전선을 방문하여 감사장을 수여했다(해병대사령부, 앞의 책, 97쪽).

54) 이 전투와 관련해 해병대에서는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의 전과를 올린 해병대 서부전선 최초의 전투였다"고 자랑스러워 한다. 이 작전의 전공으로 해병대는 대통령부대표창을 받았다(해병대사령부, 위의 책, 97쪽).

5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8권, 508~516쪽.

56) 제2사단 제38연대는 선두인 제3대대에 이어 7월 19일 새벽 제1, 제2대대가 인천으로부터 신답리, 전곡 일대에 집결함에 따라 사단은 전선교대를 완료하였다(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하), 379쪽, 434쪽).

57) 폴 F.브레임 저/육군본부 역,『The Will to Win』, 2001, 448~452쪽.

58) 육군본부,『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204~205쪽.

5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8권, 576쪽.

60)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2005, 부도19; 육군본부,『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205쪽.

61)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2005, 409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 육군본부,『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210~211쪽.

6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제8권, 591쪽.

6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제8권, 592쪽.

65) 육군본부,『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211쪽.

66) 육군본부,『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211~212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제8권, 592~594쪽.

6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제8권, 448~449쪽. 국군 제1사단 작전명령 제84호(1952. 10. 1, 06:00시). 사단은 8월 7일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196호(8. 1)에 의해 남부지구경비사령부로부터 배속 해제되어 미 제1군단 예비가 되었으며, 10월 1일 미 제3사단의 작전임무를 인수하였다.

6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제8권, 449쪽.

69) 위의 책, 452쪽.

70) 제15연대 수색중대 송태호 하사 증언, 위의 책, 466쪽.

71) 위의 책, 453~454쪽.

72) 위의 책, 457쪽. 제11연대 제9중대장 김지선 대위 증언, 같은 책, 491쪽.

73) 제11연대 제3대대장 최일영 중령 증언, 위의 책, 491쪽.

7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제8권, 460~465쪽.

75) 국군 제1사단 작전지시 제86호(1952. 11. 11).

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제8권, 468~470쪽.

77) 육군본부,『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268쪽.

78) 국군 제1사단 작전명령 제89호(1952. 12. 11, 12:00시)

79) 제11연대 제3대대장 최일영 증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제8권, 491쪽.

80) 육군본부,『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268~269쪽.

8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제8권, 484~492쪽.

8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수도고지·지형능선전투』, 20쪽.

83) 작전기간중 이 작은 고지에 중공군이 5만 5,000발, 아군 측이 21만 4,954발이라는 막대한 양의 포탄이 집중되어 고지 정상에는 풀 한 포기 남아 있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전투 중에 발사된 극심한 포격과 폭격에 의해 고지의 수목이 모두 없어져 하얗게 된 민둥산의 모습이 백마가 누워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후부터 395고지 일대를 백마고지라 부르게 되었고, 제9사단 역시 백마부대라고 부르게 되었다.

8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제8권, 309~312쪽.

85) 국군 제9사단 작전명령 제85호(1952. 10. 4. 08:00).

86) 육군본부, 육군정보보고, 1952. 10. 2.

87) 제9사단, 작전명령 제85호(10. 4. 08:00시)

8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백마고지전투』, 1984, 33~44쪽.

89)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하), 391쪽.

90) 육군본부,『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302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91) 제9사단 전투상보,『한국전쟁사료』58, 657~682쪽.
9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백마고지전투』, 1984, 68~72쪽.
93) 제9사단 전투상보,『한국전쟁사료』58, 657~682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백마고지전투』, 1984, 72~82쪽.
9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백마고지전투』, 83~84쪽.
9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8권, 323쪽.
9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8권, 324쪽.
97) 제9사단 전투상보,『한국전쟁사료』58, 657~682쪽.
98) 제9사단 전투상보,『한국전쟁사료』58, 683~710쪽.
9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8권, 327쪽.
10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백마고지전투』, 96~97쪽.
10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백마고지전투』, 98~101쪽.
102) 보병 제9사단, 작전지시 제65호(1952. 10. 8. 02:00).
10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백마고지전투』, 105~111쪽.
104) 위의 책, 112~113쪽.
105) 보병 제9사단, 작전지시 제66호(1952. 10. 8. 12:00).
10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백마고지전투』, 119~121쪽.
10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8권, 333~334쪽.
108) 보병 제9사단, 작전명령 제86호(1952. 10. 8. 22:00).
10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백마고지전투』, 134~135쪽.
1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8권, 336~338쪽.
111) 보병 제9사단, 작전명령 제87호(1952. 10. 9. 07:00).
1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백마고지전투』, 156~168쪽.
113) 보병 제9사단, 작전지시 제68호(1952. 10. 9. 21:00).
1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8권, 341~342쪽.
115) 보병 제9사단, 작전지시 제69호(1952. 10. 10. 06:30).
116)『제9사단 전투상보』
1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백마고지전투』, 174~175쪽.
118) 보병 제9사단, 작전지시 제72호(1952. 10. 10. 16:00).
1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백마고지전투』, 185~189쪽.
120) 보병 제9사단, 작전지시 제72호 수정 제1호(1952. 10. 11. 04:00).
12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백마고지전투』, 217~218쪽.
122) 이 구두명령은 9시간 30분 후인 11:30분에 사단 작전지시 제75호로 하달되었다. 보병 제9사단, 작전지시 제75호(1952. 10. 13. 11:30).
1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백마고지전투』, 192~213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2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394쪽.

125) 온창일 외, 『6·25전쟁 60대전투』, 287~289쪽.

12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395쪽.

1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저격능선전투』, 1988, 10~11쪽.

1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저격능선전투』, 9~11쪽; 육군본부,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222~223쪽. 유엔군사령관은 10월 5일부로 제8군사령관의 건의서를 접한 후 3일 동안 신중히 고려하다가 휴전회담이 결렬된 바로 그날인 10월 8일에 이 작전을 승인하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129) 오규열, 「중공군의 상감령 전투에 대한 재평가」, 『군사』 46호, 2002, 38쪽.

130) 저격능선 전투 당시 국군 제2사단은 총참모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정일권 중장이 부대를 지휘하였다. 전쟁 초기에 야전군의 실병지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3군 총사령관을 지낸 그는 미 지휘참모대학 과정을 이수한 다음 1952년 7월 29일 국군 제2사단장으로 부임하였다.

13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저격능선전투』, 12~13쪽.

13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저격능선전투』, 16~18쪽.

13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396쪽.

13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저격능선전투』, 18~21쪽.

135) 오규열, 앞의 논문, 41~42쪽.

13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379쪽.

13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저격능선전투』, 30~53쪽.

138) 보병 제2사단 제32연대, 「작전지시 제4호」(1952. 10. 14, 21:00).

13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저격능선전투』, 54~56쪽.

140) 보병 제2사단 제32연대, 「작전지시 제4호」(1952. 10. 15, 15:00).

14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저격능선전투』, 58~60쪽.

14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저격능선전투』, 60~62쪽.

14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저격능선전투』, 62~66쪽.

14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저격능선전투』, 66~70쪽.

14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저격능선전투』, 71~78쪽.

146) 육군본부,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315~316쪽.

1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저격능선전투』, 79~81쪽.

14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416~417쪽.

14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423~424쪽.

15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저격능선전투』, 116~119쪽.

15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430~431쪽; 국군 제2사단, 작전명령 제115호(1952. 11. 18. 06:00).

15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433~436쪽.

15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438~439쪽.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54) 미 제9군단은 작전명령 제33호(1952. 11. 18. 17:00)를 하달하여 11월 25일 06:00부로 국군 제2사단과 제9사단을 교대하도록 하였다.

15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수도고지·지형능선전투』, 1989, 6~12쪽.

156) 수도사단은 1951년 12월부터 호남지역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다가 1952년 3월 14일부로 작전임무를 서남지구전투사령부에 인계한 후 순천에서 현 전선으로 이동하여 미 제9군단에 배속되었다. 이후 국군 제2군단이 창설되어 미 제9군단의 전선 일부를 인수하게 됨에 따라 수도사단은 국군 제6사단 및 제3사단과 함께 제2군단에 배속되었다.

15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수도고지·지형능선전투』, 9~11쪽.

158) 온창일 외, 앞의 책, 272쪽.

15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수도고지·지형능선전투』, 12~14쪽.

160) 국군 제2군단, 「작전지시 제7호」(1952. 6. 10).

16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수도고지·지형능선전투』, 24쪽.

162) 위의 책, 25~26쪽.

163) 위의 책, 28~31쪽.

164) 위의 책, 31~33쪽.

165) 위의 책, 34~36쪽.

166) 위의 책, 36~39쪽.

167) 이용문 준장은 육사 7기 특별로 육본 작전국장을 역임하다가 수도사단장에 부임하였다. 그는 1953년 6월 24일 전남 운봉에서 전사하였다.

16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수도고지·지형능선전투』, 40~45쪽.

16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145~150쪽.

170) 위의 책, 153~155쪽.

17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수도고지·지형능선전투』, 50~62쪽.

172) 위의 책, 64쪽.

173) 위의 책, 70~72쪽.

17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161~168쪽.

17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수도고지·지형능선전투』, 87~88쪽.

176) 위의 책, 100쪽.

17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161~168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수도고지·지형능선전투』, 107~109쪽.

1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수도고지·지형능선전투』, 96쪽.

17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수도고지·지형능선전투』, 115~126쪽.

18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242~246쪽.

181) 육군본부, 『육군전사』 제7권, 49~50쪽.

18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111쪽.

183) 위의 책, 114~116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84) 위의 책, 119쪽.
185) 위의 책, 119~125쪽.
186) 육군본부, 『육군전사』 제7권, 51쪽.
18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127~130쪽.
188) 육군본부, 『육군전사』 제7권, 53쪽.
18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130~132쪽.
190) 육군본부, 『육군전사』 제7권, 119쪽.
191) 위의 책, 117~118쪽.
19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97~106쪽.
19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85쪽.
19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노전평전투』, 11~17쪽.
195) 위의 책, 108~125쪽.
19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87~90쪽.
197) 위의 책, 91~94쪽
19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38~39쪽.
199) 위의 책, 42~48쪽.
200) 육군본부, 『전장사례연구』 제3집, 21쪽.
20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52~56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7 장 해군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유엔해군 작전
제 3 절	한국해군 작전
제 4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1. 전선개황

1952년 1월에 들어서자 지상전선은 1951년 11월 27일 휴전협상에서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이 군사분계선으로 합의를 본 접촉선인 문산 서측 11km 지점의 임진강 어귀 - 판문점 서방 - 삭녕 북방 - 철원 서북방 - 김화 북방 - 금성 남방 - 어운리 - 문등리 - 고성 동남방 6km를 경계로 쌍방이 선제공격을 중지한 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고 상호 방어적인 지상전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유엔 해·공군의 함재기와 전폭기들은 공산군의 전선으로의 물자와 장비, 인원의 이동로인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작전을 실시하였고, 공산군은 이에 맞서 적극적인 공중저항과 증가된 중형 대공포로 대응하였다. 판문점에서 유엔 협상단은 정전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비타협적이고 지연에 능숙한 공산측은 이들의 노력을 방해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동년 2월 유엔군과 공산군은 방어태세를 유지하였고 전선 또한 변동이 없었다. 유엔군은 소규모 부대를 이용하여 전선 서부지역 공산군 진지에 대한 정찰 및 기습을 실시하였으나, 공산군은 이에 맞서서 즉각적인 대응을 실시하였다. 동년 3월 유엔군사령부는 공산군의 단호한 저항에 대해 정찰과 기습을 감행하였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벌어지는 공산군의 탐색공격을 피해갔다. 전선은 근본적인 변동이 없었고 미 제8군의 예하 미 제1군단, 미 제9군단, 미 제10군단, 국군 제1군단이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한반도를 횡단하여 배치되었다. 동년 4월 공산군이 미 해병1사단이 점령하고 있던 판문점 남부지역과 영연방 제1사단이 점령하고 있던 고랑포리 북방에 대해 야간 공격을 가했고 유엔군은 이들을 격퇴하였다. 4월 나머지 기간 동안 지상 활동은

매우 저조하였다. 5월 12일 유엔군 사령관으로 클라크(Mark W. Clark) 장군이 리지웨이 장군 후임으로 임명되어 부임하였고,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상을 반대하는 공산 지휘부에 극심한 피해를 가하여 유엔군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의 수력발전시설에 대한 공격을 결정하였다. 7월 지상에서는 미 제2사단 지역인 266고지(불모고지)와 그 주변에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고, 결국 7월말에 공산군은 미군에 의해 대규모 손실을 입고 유엔군 통제 하에 들어갔다. 8월 중순까지 전력이 증강된 공산군 대대규모가 유엔 진지에 대하여 수개 지역을 공격하였다. 동년 9월에는 최대 규모의 지상 작전이 국군 제2군단 관할 구역에서 벌어져 전세가 뒤 바뀌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전선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 공산군은 매우 심각한 인적 손실을 당했는데 한 예로 4일 동안 약 1,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0월 6~15일간 중공군은 미 제9군단의 서측인 철원 북서부 지역을 겨울이 시작되기 전 그들의 진지를 개선할 목적으로 공격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미 제8군은 미 제9군단 동측인 김화 북동부의 중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종결작전(Operation Showdown)을 10월 중순에 시작하였으나 점령지역을 번갈아 점령하는 형세가 되고 말았다. 이와 맞물려 극동해군은 공산군을 공격 가능한 도로로 유인하기 위하여 북한 북동부 고저지역에 공산군을 기만하기 위한 상륙양동작전을 실시하였다. 10월 8일 판문점에서의 휴전회담이 전쟁포로의 강제송환 문제로 중단되었다. 유엔군 대표단은 공산군 포로들에게 자유선택적 송환을 제안하였고, 공산군 대표단은 종전과 동시 모든 포로의 강제송환을 주장했다. 11월 중순 이후 공산군 지상군 활동은 재보급과 병력 보충을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12월 13일 국제적십자사 집행위원회는 정전 이전에 병들고 부상당한 포로들의 상호 교환을 제안하였다. 12월 2~5일 간 대통령 당선자인 아이젠하워(Eisenhower)가 한국 전선을 시찰하였고, 1952년 1년 동안 전선의 변화를 거의 없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 북한해군 작전

1) 작전개념

6·25전쟁 개전초기 북한 해군의 작전개념은 함대결전이나 또는 함포지원사격을 통한 지상군 측방지원 등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지상진격에 호응하여 남한지역에 상륙작전을 감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다시 말해, 개전초기에 동·서·남해안의 주요 항구와 도시를 기습 점령하여 해두보를 확보함으로써 후방 교란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또한 해안포병의 상륙방어작전을 통해 연합군의 상륙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있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함정세력이나 해군 정규군의 강화에 주력하기보다는 기습상륙을 위한 수송선단과 육전대의 양성에 주력하였다.[1] 이러한 작전개념에 따라 북한해군은 전쟁초기에 국군과 유엔군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하여 766부대를 강릉과 삼척지역 해안에 상륙시키고, 무장수송선에 게릴라를 승선시켜 남해안에 침투를 시도하는 등의 적극적인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황이 급변함에 따라 작전의 개념도 변경되었다. 전쟁초기의 국군의 후방지역에 대한 상륙기습작전에서 점차 해안방어작전의 수행으로 바뀌었다. 이는 소규모로 운용되던 북한해군이 전쟁초기에 대부분의 전투함을 손실하게 됨에 따라 선택한 불가피한 결과였다. 해안방어작전의 일환으로 소련으로부터 다수의 기뢰를 도입하여 상륙에 예상되는 주요항구와 해안에 방어기뢰를 부설하였다. 북한해군이 중점적으로 기뢰를 부설함에 따라 북한해군은 기뢰전, 국군과 유엔군은 이에 대항하기 위한 소해작전이 해군작전의 주요작전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북한해군은 기뢰부설과 병행하여 육상에서 아군 함정을 공격하기 위하여 해안포를 증강 배치하였고, 해안포병부대를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1952년 북한해군의 2대 주요작전은 해양거부작전의 일환인 기뢰전과 해안포병부대에 의한 상륙방어작전이었다.

1952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산군 해군의 특이한 동향은 소련해군의 참전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공군은 1950년부터 제64전투비행군단을 6·25전쟁에 참전시켜 유엔공군의 활동에 대한 대응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소련해군상인 쿠즈네초프(N.G. Kuznetsov)는 소련군 총참모장 소콜롭스키과 함께 1952년 7월 22일, 소련 내각회의 부의장에게 제64전투비행군단의 배속부대에 해군 전투비행연대를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는 6·25전쟁에서 유엔 공군과의 공중전을 통해 해군 조종사들에게 전투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해군 소속 비행기는 제외하고 1개 전투비행연대(블라디보스톡 제578항공연대)를 제133비행사단에 배속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제578항공연대는 연대장, 비행대대 및 편대장을 포함하여 연대 참모부 요원 12명과 조종사 40명으로 구성되었다.[2)]

2) 기뢰전 준비

전쟁초기에 한국해군과 북한해군의 전력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즉 북한해군은 개전 당시 어뢰정 및 경비정 30여 척과 보조선 80여 척을 포함하여 110여 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병력은 1만 5,570명이었다.[3)] 반면 한국해군은 전투 및 경비함정, 소해정, 수송선, 유조정, 상륙정 등 33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병력은 6,956명이었다.[4)] 그러나 1950년 6월 29일, 유엔군의 6·25전쟁 참전결정에 따라 항공모함, 전함, 순양함, 구축함, 소해함 등의 강력한 유엔해군의 전력이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되어 한국해군을 포함한 유엔해군 대 북한해군의 전력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유엔해군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유엔해군의 전력은 개전초기부터 북한해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으며, 전쟁기간 내내 한반도해역에 대한 해양통제권을 확보하였다.

해양통제권을 확보한 가운데 유엔해군은 인천상륙작전, 원산상륙작전, 고저상륙양동작전과 해양봉쇄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항하여 북한해군이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작전은 기뢰를 부설하여 유엔해군의 함정이 연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기뢰전뿐이었다. 따라서 1950년 7월 10~20일 사이에 북한해군은 기뢰를 소련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철도편으로 원산으로 수송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였으며, 일부는 해상으로 수송하였다. 1주일 뒤에는 소련해군요원이 원산과 진남포에 도착하였으며, 북한해군을 위하여 기뢰전 학교를 설립하였다. 이와 같은 준비는 미 제7함대와 극동해군이 전격적으로 작전이 실시하기 전에 수행되었고, 북한해군은 다량의 기뢰를 신속하게 북한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약 4,000개의 기뢰가 북한으로 들어왔으며, 기뢰부설은 8월 1일부터 원산과 진남포에 실시되었다. 그 당시에 소련해군장교들은 진남포에서 해주까지 기뢰를 트럭으로 운반하였으며, 심지어는 기차로 인천, 군산 및 목포까지도 수송하였다.[5]

이와 같이 유엔해군이 한반도 전 해역에 대한 강력한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해군이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은 해양거부작전[6]의 일환인 기뢰전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었다. 따라서 북한해군은 북한해안에 기뢰를 부설하거나 높은 고지에 해안포대를 설치하여 유엔해군이 접근하는 것을 방어하는 작전을 구사하였다.

3) 기뢰부설 실시

북한해군이 유엔해군의 작전을 방해 또는 거부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뢰전은 상륙가능예상 해안인 청진, 성진, 원산 및 진남포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북한해군이 인천수로에 다량의 기뢰를 부설하지 않아 인천상륙작전을 저지 못했기 때문에 1950년 9월 이후부터는 북한의 동·서해안에 많은 수의 기뢰가 계획적으로 부설되었다.

북한해군은 소련에서 도입한 기뢰를 진남포, 청진, 성진 및 흥남에 기뢰보관시설을 설치하고, 1952년에도 기뢰부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들의 기뢰부설의 목적은 유엔군의 상륙작전을 저지하고 함정의 포격작전을 방해하려는 것이었다. 유엔해군과 한국해군은 북한해군의 기뢰부설해역을 지속적으로 소해하였으나 북한해군은 소해된 해역에 재부설하여 유엔해군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유엔해군의 정보부서는 일선 함정에게 북한해군의 기뢰부설활동에 개략적인 첩보를 줄 수 있었지만 기뢰부설된 해역과 재부설된 해역 또한 북한해군이 보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고 있는 기뢰의 수량에 대한 첩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다만 북한군 포로와 피난민, 나포한 어부들로부터 북한해군의 기뢰에 첩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것은 북한해군이 기뢰부설을 어선, 소형선박 및 뗏목 등을 이용하여 야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소련에서 제작된 기뢰부설함 1척이 운용되고 있다는 첩보도 있었지만, 확인할 수가 없었다. 기뢰부설 경험이 있는 포로로부터 북한해군이 선박에 보관된 기뢰를 굴려서 바다에 떨어뜨릴 수 있는 나무로 된 선반을 선박에 설치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즉 소형어선과 같은 원시적인 기뢰부설 방법으로 북한해군은 현대화된 유엔해군에 대항하여 위협을 주었다.

고저에서 망명한 북한해군의 포로는 새로운 기뢰부설 첩보를 진술하였다. 즉 북한해군이 새로운 형태의 대상륙작전용 기뢰를 부설하였는데, 이 기뢰의 대부분은 상륙이 예상되는 동해안 해역에 부설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첩보는 1952년 5월 2일 이러한 형태의 북한기뢰가 원산근해에서 발견되어 입증되었다. 이것은 해수면 아래 1.5피트에서 8피트 사이에서 폭발하는 계류기뢰였는데 이 기뢰는 소형접촉기뢰로 직경은 21인치였으며, 폭약은 TNT 44파운드였다. 따라서 이 기뢰를 탐색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헬기 탐색과 수중 정찰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52년 6월 18일 큐리우(Curlew, AMS-8, 함장 대위 R. O. Snure)함이 원산항 근해에 이 소형기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기뢰부설장치를 발견함으로써 이러한 첩보가 재입증되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북한해군에서는 유엔해군의 연안작전을 방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기뢰와 다수의 기뢰를 사용하였지만 유엔해군 수상세력에 대항할 만한 해군세력을 보유하지 못했다. 이러한 열세한 북한해군의 전력과 관련하여 북한해군의 사기는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떨어졌다고 나포된 북한해군이 진술하였다.[7)]

4) 해안포병부대 운용

북한해군은 유엔해군의 연안작전을 방해하기 위하여 해안포병부대를 재편성하였다. 먼저 동해안에는 제24독립포병기관총여단 6,896명, 제25독립포병기관총여단

6,009명을 편성하여 운용하였고, 서해안에는 제23독립포병기관총여단 5,021명, 제26독립포병기관총여단 6,181명을 운용하는 등 기존의 해안방어부대에 다수의 포병병력을 추가 배치하였다. 또한 해안 포병부대의 무장에 있었서도 무반동포, 82mm, 122mm 포를 배치하는 등 병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해안방어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해안포병부대 운용을 위하여 해안 관측업무를 실시하고 보고할 수 있는 병력을 보충하였고, 이들에게 전문적인 해안방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보고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통신망을 구축하여 전문 도달시간을 1/2로 줄였다.[8)]

3. 유엔해군 및 한국해군 작전

유엔해군은 6·25전쟁 이후 함재기를 이용하여 공산군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전선에 대한 병력 투입 및 병참지원을 거부하고자 하였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엔해군은 1952년부터 공산군의 주요산업시설을 무력화시켜 공산군의 전투수행능력을 상실시키는 방향으로 작전목표를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1952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기간동안에 실시한 주요작전은 북한의 가장 큰 발전시설을 무력화시키는 수풍댐 폭파작전, 북한의 군사시설이 밀집하고 있던 중심부를 강타하는 평양공습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광물을 생산하여 중국 및 소련으로 수송하고 있던 신덕과 길주광산에 대한 공습작전, 북한의 종합적인 정유시설을 갖추고 유류보급의 원천이 되고 있었던 아오지 정유공장 폭파작전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산군의 증원군을 유인하여 이를 격파하려 했던 고저 상륙양동작전 및 지속적인 북한군의 기뢰부설에 대비하여 실시한 기뢰대항전(소해작전) 등을 수행하였다. 유엔해군의 작전활동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엔해군이 공산군의 심장부인 주요산업시설을 무력화시키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것으로 작전목표를 수정한 이후 제일 처음에 실시한 작전이 수풍댐 폭파작전이다. 이 작전의 최초계획은 1952년 2월 제95기동부대사령관 다이어(G. C. Dyer) 소장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중국과의 국경에 위치한 민감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본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3월말 그린리치(J. E. Gringrich) 소장이 신임 제95기동부대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공격방침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면서 작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1952년 6월 23을 D-Day로 확정하고 14시, 4척의 항공기동부대에서 폭격기 총 35대가 각각 4,000LBS~5,000LBS 폭탄을 적재하고 출격하였으며, 전투기 총 35대가 폭격기를 엄호하기 위해서 이륙하였다. 또한 제5공군에서도 F-86E 제트기 84대가 먼저 수풍댐 상공에 도착하여 이 작전에 참가하였다. 총 지휘관인 다우닝(A. L. Downing) 중령의 명령에 따라 수풍댐에 대한 공격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발전시설은 대파되어 기능을 상실하였다. 성공적인 수풍댐 폭파작전으로 북한 전 지역이 전력공급의 대란(大亂)을 겪었으며, 생산시설의 능력이 상실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북한의 주요산업시설 및 군사시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두 번째 작전이 1952년 7월 11일(D-Day)에 실시했던 평양공습작전이다. 이것은 이전에도 실시되었지만 유엔해군 함재기, 미 제5공군과 미 해병항공대의 세력이 참가하는 등 최초의 대규모 합동작전이었다. 유엔군은 수풍댐 공습작전의 기세를 몰아서 평양근교에 있는 40여 개의 군수품적재소, 교량 및 공장지대를 폭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평양인근에는 많은 수의 중화기 포대와 사격통제가 가능한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공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전이었다. 이러한 어려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공군 합동작전이 계획이 수립되었다, 즉 해군은 폭격기를 동원하여 주요군사시설을 폭격하는 동안 해군 폭격기를 제5공군과 해병 항공기들의 엄호기가 지원하는 것이었다. 평양공습작전의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기관차고 및 철도공장의 60%가 파괴되었으며, 1,500여 개의 건물이 파괴되었고, 900여 동의 건물에 피해를 주었다.

수풍댐 폭파작전과 평양공습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자 유엔군은 차기 작전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구상하게 되는데 그것이 신덕광산과 길주 공습작전이다. 북한은 이곳에서 군수물자 생산의 원료가 되는 납과 아연 등 주요 광물을 생산하여 중국 및 소련으로 수송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작전은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었는데 리차드함과 프린스톤함에서 출격한 유엔 함재기들은 1차 폭격으로 북한군의 대공포를 사전에 제압하였다, 또한 2차 폭격에서 이 지역에 있는 제련소의 60%를 파괴하였고, 발전소를 완파하였으며, 철교의 3/5를 절단하는데 성공하였다.

공산군의 주요 심장부를 공격하기위한 4번째 작전이 1952년 9월 1일에 있었던 아오지 정유공장 폭파작전이다. 북한에서 가장 큰 정유공장이 있었던 아오지에는 유류보급지가 있었으나 지리적으로 소련과 만주에 인접하고 있어 그동안 폭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그러나 유엔군의 작전목표가 공산군의 주요산업시설을 무력화시키려는 방향으로 변경됨에 따라 미 합참은 아오지 공습을 허가하였다.

항공모함 에섹스함, 프린스톤함 및 박스함에서 출격한 총 144기의 함재기들은 아오지 상공에서 정유공장을 포함하여 주요 시설물 폭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데, 다행히도 MiG기의 반격은 없었다. 이곳은 국경지대이기에 유엔군의 공습을 예상하지 못하고 공산군 공군은 반격을 대비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3척의 항공모함은 아오지 정유공장의 전 폭표물에 대하여 100% 작전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제77기동부대장에게 보고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고원(高原)공습작전도 위에서 전술한 작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주요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1952년 10월 8일에 수행된 작전이다. 고원은 평원철도의 시발점으로 철도교통의 중심지이었기 때문에 많은 군수물자가 여기를 통해 수송되었다. 이에 따라 고원을 공습하기 위한 작전은 미 제7함대가 극동공군사령부에 폭격기의 지원을 요청하여 해·공 합동 공습작전의 형태로 감행되었다.

항공모함 키어사쥐함, 프린스톤함 및 에섹스함에서 총 89대의 함재기와 극동공군 B-29기 10대 등 총 99대의 항공기가 출격하였다. 먼저 B-29기가 고원지역에 산재한 대공포에 대하여 폭격을 실시하였고, 해군 함재기들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인 철로, 통신망 및 보급시설에 대하여 공격을 실시하였다. 고원에 대한 공습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고저(庫底) 상륙양동작전의 작전목표는 이 지역을 점령하려는 것보다는 공산군의 증원군을 유인하여 북한군과 중공군을 분리시켜 이를 각개 격파하려는 것이었다. 원래 이 작전의 최초계획은 1951년에 태평양함대에서 제안되었지만 확전(擴戰)을 피하려는 미 합참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다가 1952년 10월 초에 드디어 승인을 받게 되어 상륙작전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상륙기동부대 조직이 편성되었는데 사령관에는 제7함대사령관이 임명되어 예하에 항공모함, 전함, 구축함 및 수송함이 편성되었고, 상륙군은 미 제1기갑사단과 미 제118연대전투단이 편성되었다.

유엔해군은 1952년 10월 15일을 작전개시일(D-Day)로 결정하였고, 10월 14일 함포사격을 시작으로 함재기와 공군의 폭격기가 고저지역을 강타하면서 상륙양동작전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상륙군이 해상에서 함안이동으로 공산군을 유인하는 전술만 취했을 뿐 실제적로 해안에 상륙하지는 않았다. 유엔군이 의도했던 공산군 지상군의 병력이동은 경미하였다. 그러나 고저 상륙양동작전은 육·해·공 합동성 측면에서는 매우 훌륭하게 수행된 작전이었다.

유엔해군이 한반도 해역에 대한 해상통제권을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함정 세력이 와해된 북한해군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해양거부작전의 일환인 기뢰전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었다. 따라서 1950년 후반기부터 기뢰를 소련으로부터 도입을 하여 1952년에도 북한지역 주요항만에 기뢰부설을 실시하였다. 이는 유엔군의 상륙작전을 저지하고 함정의 포격작전을 방해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해군이 유엔해군의 해상작전을 거부하기 위하여 다수의 기뢰를 사용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유엔해군의 해상작전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유엔해군은 북한해군에 대한 기뢰대항책의 일환으로 소해작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유엔해군은 주로 주간에 소해작전을 수행하였으나, 북한군 해안포의 사격으로 아군의 함정과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자 야간 소해작전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소해함정은 6·25전쟁 기간 동안 총 1,088발의 기뢰를 소해하였고, 소해함정들은 소해작전 이외에도 기뢰정보 수집 및 배포, 한국 소해부대 훈련 및 조종사 구조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한국해군은 유엔해군에 배속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한국해군 세력으로만 수행된 단독작전도 수차례 실시하였다. 이는 동·서·남해안 경비작전, PT편대 기습작전, JMS-301정의 덕동전투, JMS-301정의 해주만 전투, PC-702함의 창린도 탈환작전 및 소해작전 등이었는데 개략적인 작전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개시된 이후 지상전이 교착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 해군은 그해 10월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될 때까지 동·서·남해에서 조직적인 경비작전을 실시하였다. 한국해군은 동해안에서 1952년 4월부터 12월까지 일명 '42작전'을 실시하였다. 주요작전은 해상봉쇄, 수송, 호송, 소해 및 경비작전 등으로 유엔해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했다. 서해안에서는 1952년 4월부터 12월까지 일명 '충무작전'을 실시하였다. '충무작전'은 서해안 강화도, 옹진반도를 중심으로 장산곶 북방에서 목덕도에 이르는 주요도서를 경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남해안에서는 1952년 7월부터 12월까지 일명 '한산작전'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 중에 실시된 주요작전은 밀수선 단속,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선박 퇴치 및 영해를 침범하는 외국선박 단속작전 등을 실시하면서 엄중한 경비를 수행하였다.

PT편대 기습작전은 6·25전쟁 기간동안 한국해군이 가장 주도적이면서 동시에 큰 전과를 이룬 작전 중 하나였다. 1952년 1월 24일 일본 사세보의 미 해군기지에서 PT 어뢰정 4척을 인수하여 그해 4월부터 휴전 시까지 동해의 원산일대와 성진근해 그리고 서해에서는 장산곶에서 순위도에 이르는 해안과 그 주변의 도서에서 활동하였다. PT편대의 주요 임무는 공산군이 해안으로 진출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고, 공산군의 요새와 병력 집결지 및 포대를 탐색, 격파하면서, 기뢰부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었다.

PT편대가 1952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행한 작전을 일명 '해연작전'이라고 하였는데, 서해안에서는 마합도(麻蛤島) 포대, 옹진반도 대안(對岸), 장산곶 진지 및 해주만 부포리에 대하여 로켓포로 공격을 실시하였다. 또한 동해안에서는 호도반도(虎島半島), 마양도(馬養島)와 신포(新浦)에 이르는 해안선 공격, 여도(麗島), 양도(洋島)에 이르는 해안의 공산군 집결지 공격을 실시하였으며, 심지어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구축함과 연합작전으로 성진, 단천, 차호(遮湖) 및 마양도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다음은 JMS-301정이 수행한 전투로 덕동전투와 해주만 전투가 있었다. 먼저 1952년 5월 1~2일에 실시한 덕동전투는 월래도에 주둔 중인 동키부대원 30명을 범선 5척에 분승시켜 황해도(黃海道) 장연군(長淵郡) 해안면(海岸面) 덕동(德洞)에 기습침투하여 북한군을 공격한 전투였다. 아군 함정의 사격으로 북한군 40여 명이 사살되고, 산정(山頂)에 있던 레이더는 파괴되었다. 6월 14일 실시한 해주만 전투는 아군 유격대 200명을 범선 10척에 분승시켜 황해도(黃海道) 벽성군(碧城郡) 동강면(東江面) 석교리(石橋里)에 상륙하여 북한군을 공격한 전투였다. 아군 함정의 사격으로 공장, 토치카 및 건물을 파괴하고 북한군을 사살하였다.

PC-702함 창린도 탈환작전은 7월 15일 북한군에 의해 탈취(奪取)된 창린도를 PC-702함이 영국함정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면서 동키부대원 140명을 이 섬에 상륙시켜 탈환한 작전이다. 이 작전은 7월 16일 새벽에 실시되었는데 PC-702함 호송 하에 동키부대를 2개팀으로 분할하여 창린도에 상륙시켜 북한군에 대하여 협공작전으로 탈환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한국 해군은 북한군 70명을 사살, 27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치열한 공방전으로 아군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한국해군이 창린도 탈환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다시는 북한군은 서해 도서에 대한 공격작전을 실시할 수 없었다. 이후 아군은 서해 도서에 대한 점령권을 다시금 확고하게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 휴전협상에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북한군은 1951년 5월부터 황토도에 대하여 수차례 공격을 실시하였으나 아군의 적극적인 방어작전과 함포사격으로 격퇴를 당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동년 11월 29일 황토도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기습공격을 실시하여 아군 해병대 1개 소대와 황토도 전투가 전개되었다. 북한 제25여단 소속 병력 150명이 해안포의 지원사격하에 상륙을 시도하였으나 아군의 강력한 반격작전으로 퇴각을 당하였다. 북한군의 이러한 공격이 계속되자 아군은 도서부대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목적으로 1952년 1월 5일 해병도서부대를 창설하고 도서경비를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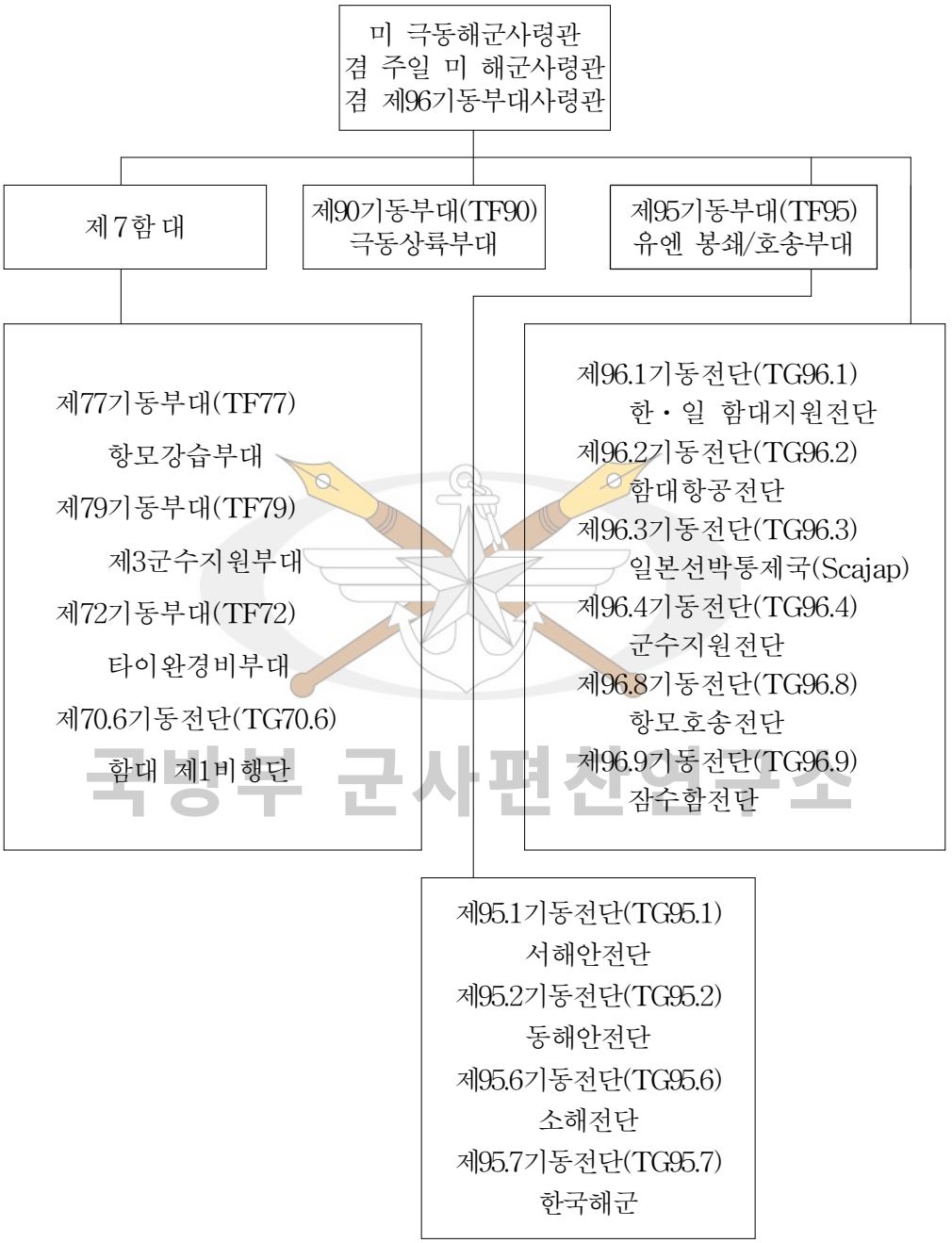
양도(북위 40도 40분, 동경 129도 30분)는 길주양도(吉州洋島), 명천양도(明川洋島)

그리고 무인도인 강후이도(江厚耳島) 등 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해병대는 1951년 8월 29일 신편된 독립 제43중대가 이곳을 점령하였다. 양도(洋島) 전투는 1952년 2월 21일 양도대안에 있던 북한 독립 제63보병연대의 특별대대의 기습공격으로 전투가 개시되었다. 아군의 강력한 방어작전과 함포지원사격으로 공산군을 괴멸시켰으며, 북한군 대대장을 생포하기도 하였다. 특히 명천양도에 상륙한 북한군은 전원 사살되었으며, 상륙작전에 사용된 목선(범선)은 아군 구축함에 의하여 전멸을 당하였다.

호도(胡島)는 서해안 월사리 반도 앞에 있는 작은 섬으로 아군 해병대는 1952년 봄에 이곳을 점령하여 소수병력을 배치시켜 적정을 수집하고 있었다. 공산군은 3월 25일 호도에 대하여 중화기로 집중사격을 하여 호도전투가 전개되었다. 호도에는 소대규모의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우세한 화력과 병력을 앞세운 북한군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3월 29일 석도에는 증원된 병력으로 생존하고 있던 호도파견소대원을 구출하고 석도로 전원 귀환하였다. 호도는 적지와 너무 근접하고 있어 1952년 4월초에 병력을 모두 철수시켰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7-1> 미 극동해군의 지휘체계(1950. 9. 12~전쟁 종료 시까지)[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2 절 유엔해군 작전

1. 수풍댐 폭파작전

1) 참가함정 및 주요지휘관

직 책	계급/성명	직책	계급/성명
극동해군사령관	중장 R. P. Brisco	VA-195편대장	중령 N. Mackinnon
제7함대사령관	중장 J. J. Clark	VA-65편대장	중령 G. A. Sherwood
제77기동부대사령관	소장 A. Scoucek	VF-24편대장	중령 W. A. Jernigan, Jr
제95기동부대사령관	소장 J. E. Gingrich	VF-191편대장	중령 J. Sweeny
함재기 부대장	중령 A. L. Downing	VF-112편대장	중령 J. V. Rowney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전투 전의 개황

6·25전쟁 개시 이래로 유엔해군의 역할은 공산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후방을 교란하여 전선의 보강을 저지하여 아군 지상군을 지원함으로써 전세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해군의 함포와 함재기의 사격에서도 손상된 곳의 수리작업을 실시하여 전선에 대한 병력투입 및 병참지원을 계속하였으므로 결국 유엔함대의 차단작전은 소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아군의 작전목표는 공산군의 수송로 차단작전에서 공산군의 심장부를 강타하는 등 주요 군사산업시설을 폭파하는 작전으로 큰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유엔사령부는 보다 빠른 시일 안에 공산군의 전투수행능력을 상실시켜 종전(終戰)으로 가려고 하였다. 북한의 주요 산업시설은 발전소와 광산, 그리고 유류저장소 등 기타 공장지대로서 중국이 한국전에 개입한 1950년 10월부터 이러한 목표에 대한 공격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확전을 피하려는 유엔의 기본방침에 따라 산발적인 공격만이 전개될 뿐으로 실효를 보지 못하다가 휴전회담이 계속 장기화할 전망이 짙어지자 유리한 위치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주요산업시설에 대한 공격이 결정되었다.

특히 수풍댐은 북한의 가장 큰 발전시설로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북한전역은 물론이고, 만주에까지 송전되어 중국의 비행장, 광산 기타 공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수풍댐의 폭파계획은 이 기간 중 유엔해군 활동의 백미(白眉)라 할 수 있다.

이 공격계획은 처음에 제95기동부대에서 시작되었다. 즉 기동부대 정보장교 앤드류(Nello D. S. Andrews) 소령은 사령관 다이어(G. C. Dyer) 소장에게 브리핑을 할 때 "1952년 2월 21일 원산만의 대도(大島)에서 탈출한 북한 병기감 이일(李逸) 준장의 진술에 의하면, 북한은 유엔군이 그들의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공격을 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수풍댐의 전력을 이용하여 압록강 주변에 많은 공장을 설치하였다."라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사령관은 즉시 극동해군사령관에게 수풍댐의 공격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1952년 3월말 제95기동부대사령관으로 그린리치(J. E. Gringrich) 소장이 부임하면서부터 일단 주춤하였던 계획이 진전이 있었다. 4월 초에는 제95기동부대의 전함 미주리(Missouri)[10]함상에서 극동해군사령관과 제7함대사령관 그리고 제95기동부대사령관이 참석하여 수풍댐에 대한 공격방침을 결정하고 본국의 승인을 얻기로 하였다.

3) 전투 경과의 개요

수풍댐의 공격은 유엔군에서는 해군, 공군, 해병항공대의 항공자산이 참가하여 공습한 것으로써 개전 이래 최대의 작전이었다. 즉 해군은 제7함대사령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클라크(J. J. Clark) 중장의 지휘 하에 4척으로 구성된 항모기동부대가 구성되었다. 제7함대의 기함인 항공모함 박서(Boxer)[11]함상에서는 1952년 6월 22일, 공격대의 총지휘를 맡은 다우닝(A. L. Downing) 중령 이하 전 조종사들이 집결하여 공격을 위한 마지막 세부계획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무장적재와 비행 계획, 연료공급, 공격순서와 공격방향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D-Day H-hour는 다음날인 6월 23일 09시 30분이었다. 다우닝 중령은 조종사들에 대한 브링핑에서 목표는 수풍댐보다도 주변의 발전시설과 변전소, 그리고 수문 등이며 주위의 다른 12개의 발전소에 대하여도 공격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수풍댐은 발전소는 세계 4위를 자랑할 만큼 많은 발전 용량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대공포 중문 28문과 자동포 43문이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불과 35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은 안둥(安東)기지에는 MiG-15기[12] 250여 대가 주둔하고 있어 이곳을 공습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만 했다. 따라서 공습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노련한 조종사 없이는 작전성공률이 적을 것이지만 유엔해군은 이러한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공격을 감행하기로 하였다.

6월 23일의 공격예정시간이 가까워지자 관제탑으로 수집된 제5공군의 기상보고는 48시간이 연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정오경에 다시 들어온 기상보고는 수풍댐 주위의 기상이 점차 호전되어 14시를 H-hour로 결정토록 하였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전 함재기는 6월 23일 14시, 드디어 막중한 임무를 안고 출격을 시작하였다. 항공모함 박서(Boxer)함의 VA-65편대(편대장, G. A. Sherwood 중령)와 항공모함 프린스톤(Princeton)[13]함의 VA-195편대(편대장, N. Mackinnon 중령) 그리고 항공모함 필리핀 시(Philippine Sea)[14]함의 VA-115편대(편대장, C. H. Carr 중령)의 AD기[15] 총 35대 중의 31대는 각각 5,000LBS의 폭탄을 적재하였으며, 나머지 4대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4,000LBS의 폭탄과 사고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한 Survival Bomb을 적재하고 북상하였다.

곧이어 항모 박서함의 VF-24편대(편대장, W. A. Jernigan, Jr 중령)와 항모 프린스톤함의 VF-191편대(편대장, John Sweeng 중령) 및 항모 필리핀 시함의

VF-112편대(편대장, James V. Rowney 중령)의 F9F[16] 35기가 뒤를 이었는데 그 중 24대의 F9F(전폭기)는 500LBS의 폭탄과 폭격기 엄호용 탄약을 장착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폭격을 위한 폭탄을 적재하고 수풍댐을 목표로 출격하였다.

기상은 점차 호전되고 있었고, 수풍댐 주변의 기상도 공습에는 양호한 상태였다. 공산군의 레이더의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 공격대는 저공으로 진입하였다. 이미 수풍댐의 상공에는 제5공군의 F-86E Saber[17] 제트기 84대가 MiG기에 대비하여 선회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정보에 의하면 안동현 일원에는 200여 기의 MiG기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우닝 중령의 명령에 따라 제77기동부대의 항공기는 15시 55분, 일제히 고도를 상승하여 급강하 폭격을 준비하였다. 먼저, 미 공군의 F-84(Thunder)[18]기가 고사포에 대한 제압공격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다우닝 중령이 지휘하는 박서함의 함재기와 그 뒤에는 맥킨논 중령이 지휘하는 프린스톤함의 함재기, 그리고 카르 중령이 지휘하는 필리핀 시함의 함재기가 뒤따라 폭격에 가담하였다. 이 당시 수풍댐의 시설은 발전소 건물이 가로 500피트, 세로 80피트로 놓여 있으며, 그 밖의 변전소 시설과 수문이 있었다. 공격대는 3,000피트 상공에서 일제히 폭탄을 투하하고, 1,500피트 고도에서 기총을 발사하였는데, 북한의 고사포와 기관총은 격렬하게 응사하였다.

다우닝 중령의 명령에 따라 조종사들은 순차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였는데 마침 북에서 남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연기를 제거하여 폭격은 더욱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발전소는 내부에서 연쇄적으로 폭발이 있었고, 그 외의 시설들도 완파되었으며, 북한의 대공포는 대부분 기능을 상실하였다. 불과 180초가 경과한 후 전 함재기는 900여 톤의 폭탄을 목표물에 투하한 다음 기수를 돌렸는데 처음 북한의 대공포에 격추된 5대를 제외하고는 전 세력이 무사히 귀환하였다. 특히 VA-115 편대의 레이크(M. K. Lake) 중위가 조종하는 함재기는 피격되어 오른쪽 바퀴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끝까지 침착하게 조종하여 김포기지(K-14)에 안착하였다.

한편 이날의 공격이 무엇보다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적기의 반격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들은 유엔군의 공격대가 안동현의 MiG-15기지를 공략하는 것으로 오판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전투 후의 개황

수풍댐 공습은 지리적인 위치나 MiG기, 대공포 등 북한군의 엄호세력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작전이었으나, 치밀한 공습계획과 조종사의 기량이 바탕이 되어 작전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 공습으로 북한 전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평양 모든 시설의 생산능력이 상실되었으며, 압록강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지하공장과 만주지역의 시설까지도 영향을 주었다.

미 해군참모총장 페첼러(William Fechteler) 대장은 수풍댐 폭파작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치하의 메시지를 제7함대사령관 및 제77기동부대의 함재기 조종사에게 전달하였다.

> 귀 부대가 북한의 발전시설에 대하여 과감한 공격으로 그 임무를 성공리에 수행하였다는 보고에 대하여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 귀 부대의 승리는 전 장병과 특히 공습에 참가한 조종사들의 명예는 물론 이를 계기로 하여 우리 연합군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의심치 않으며 귀 부대의 계속적인 무운을 빕니다.

반면, 북한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수풍댐은 군사시설이 아니라 평화적 산업시설이며, 이를 폭격한다는 것은 비겁하고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난하였다.[1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평양공습작전

1) 참가함정 및 주요지휘관

직 책	계급/성명	직책	계급/성명
제77기동부대사령관	소장 H. E. Regan	Princeton 함장	대령 P. D. Stroop
제95기동부대사령관	소장 J. E. Gingrich	함재기 부대장	중령 William Denton
Bon Homme Richard 함장	대령 W. P. Watson		

2) 전투 전의 개황

1952년 6월 23일~24일 이틀간에 실시된 유엔해군 함재기의 수풍댐 공격이 북한에 미친 심리적 효과는 휴전회담에서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6·25전쟁에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평양방송은 이 공격을 계속하여 비난하는 방송을 보내는 것은 매우 당황했다는 증거인 것이었다.

유엔군은 이러한 기세를 몰아서 더욱 효과적인 계획이 동경에 위치한 극동공군사령부에서 진행되었다. 유엔해군에서는 항공모함 프린스톤(Princeton)함과 리차드(Bon Homme Richard)함[20]이 참가하였다.

공격의 목표물은 평양의 40여 개의 군사시설로써 군수품적재소와 교량을 비롯하여 공장지대와 육군사령부 등이며, 휴전회담으로 공격이 지연되어 왔으나 수풍댐의 폭파를 비롯한 유엔군의 계획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이 1952년 7월 11일 작전개시일(D-Day)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평양공습도 많은 난제를 안고 있었으며 이제까지의 전투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에 많은 비행기가 평양 상공에서 격추되었다. 첩보사진 분석에 의하면 48개의 중화기 포대와 100여 개가 넘는 레이더에 의해 자동조절되는 사격통제 장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욱이 평양에는 포로수용소가 위치하여 이 지역은 공습에서 제외되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은 평양공습을 결정하였고, 미 제5공군과 미 해병항공대 및 해군함재기의 합동작전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유엔해군은 두척의 항공모함에서 90여 대의 함재기를 동원하고 주로 제5공군의 엄호를 받아 폭격임무를 수행하였다.

3) 전투 경과의 개요

동해의 원산근해에서 합세한 항공모함 프린스톤(Princeton)함과 리차드(Bon Homme Richard)함은 각각 출격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야만 하였다. 7월 9일, 리차드함의 함상에는 제77기동부대사령관 리간(H. E. Regan) 제독과 그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참모진 그리고 프린스톤함의 CVG-19편대 지휘관인 덴톤(William Denton) 중령 등이 모여 최종작전회의를 열고 공격절차를 결정하였다. 즉, 미 공군의 F-84(Thunder) 제트기가 공산군의 대공포를 선제공격하고, F4U 코사르기와 AD 스카이레이더기가 뒤따라 공산군의 시설물에 폭탄을 투하하는 순서로 되었다.

7월 11일 08시 31분, 드디어 두 척의 항공모함에서 91대의 함재기가 발진되었다. 리차드함에서 45대와 프린스톤함에서 이륙한 46대의 전투기들은 원산항내의 여도상공에서 합세하여 고도를 18,000피트로 유지하면서 평양으로 향하였다. 출발시에 VF-72편대의 콘래드(E. B. Conrad) 소위가 조종하는 F9F-2기가 갑작스런 고장으로 해상으로 불시착하였으나 프린스톤함의 헬기에 의해 구출되었고, 나머지는 순조롭게 출격하였으며, 기상은 매주 좋은 편이었다. 평안남도 양덕(陽德)상공을 지날 때에 북한군의 대공포 공격을 받아 F4U 코사르기 1대가 피해를 입었으나 심하지 않아 계속 비행하였다.

함재기들의 공격은 첫 번째로 실시토록 되어 있었고, 그 목표물은 평양 남동쪽에 있는 포로수용소 부근의 탄약보급소와 수송부대, 그리고 사령부와 병사(兵舍)를 비롯한 공장들과 기관차정비소 및 차고 등이었다. 다른 목표물은 미 제5공군, 미 해병항공대, 호주 공군 그리고 제95기동부대에 배속된 항공모함 오우션(HMS[21] Ocean)함의 함재기가 각각 담당하였다. 이들 유엔공군의 임무는 MiG기와의 공중전에 대비하고 함재기의 폭격을 가능하도록 대공포를 제압하는 것이었다.

함재기들이 성천(成川) 상공을 지날 때부터 북한군의 고사포 사격은 시작되었는데 대부분이 레이더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조절되므로 정확하고 치밀하였다. 드디어 평양 인근에 도착하자 대동강으로 인하여 목표물은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급강하 폭격기들의 첫 번째 공격으로 5개소의 고사포 진지가 파괴되고, 2개소 이상을 전파시켰다. 그러나 아군기도 몇 대가 피격되었는데 커밍(E. P. Cumming)이 조종하는 AD 스카이레이더기는 후익(後翼)에 피탄되어 격추되고, 제프리(G. C. Jeffries)가 조종하는 코사르기는 우익(右翼)에 직격탄을 맞았으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다행스럽게 폭발되지 않아서 계속 폭격에 참가하였다.

리차드함 함재기들의 목표물은 주로 기관차고와 수리소 및 탄약고였는데 어빈(F. H. Ervin) 소령, 하니쉬(W. M. Harnish) 소령, 라이스(J. A. Ryes) 중위 그리고 머천트(P. G. Merchant) 소위가 이끄는 함재기들은 열차수리소를 강타하였다. 또한 티퍼(W. E. Teufer) 소령과 해리스(W. L. Harries) 대위는 원형으로 된 열차집적소를 격파하였으며, 탄약고에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여 불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아군기의 손실도 있었는데 VA-195편대의 두뎀플(L. F. Dutemple) 소령이 조종하는 AD 스카이레이더기가 급강하하다가 격추되고, VF-193편대의 코사르기 2대도 피격되었으나 김포비행장(K-14)에 안착하였다.

해군 함재기들이 몇 차례의 공습을 마치고 항모로 복귀할 때에 함대로부터 받은 기상정보는 동해안의 날씨가 갑자기 악화되어 시계가 500야드 이내로 떨어져 착륙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는 수원과 강릉으로 향하고 나머지는 모함으로 향하였다. 이들은 악조건의 기상에도 불구하고 자동전파유도장치에 의하여 2분간격으로 항모 착륙에 성공하였다. 이날 나머지 공격계획은 기상관계로 모두 취소되고 이로써 평양공습은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전투 후의 개황

유엔해군의 이날 공습으로 평양은 이틀 동안이나 라디오 방송이 중단되었으며, 유엔함재기들이 담당한 기관차고 및 철도공장은 60% 이상이 파괴되었음이 사진분석에 의하여 증명되었다.

평양에 투하된 폭탄만 하여도 11시간에 1,400톤의 폭탄과 23,000갤런의 네이팜탄이었으며, 대부분이 목표물에 집중되어 1,500여 개의 건물이 파괴되고 900여 동의 건물에 피해를 주었으며 한 건물은 방공호에 명중되어 북한의 많은 고위간부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이날의 공격이 곧 휴전회담의 실패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공산군은 휴전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듯이 보였다.[22]

3. 신덕광산과 길주에 대한 공습

1) 참가함정 및 주요지휘관

직 책	계급/성명	직책	계급/성명
Bon Homme Richard 함장	대령 W. P. Watson	Princeton 함장	대령 P. D. Stroop

2) 전투 경과의 개요

수풍댐 폭파와 평양에 대한 공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자 유엔군은 공산군 심장부에 대한 공격계획을 더욱 더 치밀하게 진행하였다.

사실 평양과 주위의 군사집결지 그리고 수풍댐을 비롯한 주요 발전소를 제외하면 그렇게 큰 공격의 목표대상은 없었으나 매월 3,000톤의 납과 아연을 생산하여 중국을 거쳐 소련으로 수송되는 신덕과 길주의 광산은 중요한 공격 대상이었다.

제77기동부대의 함재기들은 7월 12일부터 여러 산업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27일과 28일의 광산에 대한 폭격으로 공산군의 피해는 극심하였다.

함재기들의 공격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F-84(Thunder) 제트기가 AD 스카이레이더기와 F4U기의 폭탄투하를 위해 북한군의 대공포를 선제공격하는 것이었다. 7월 27일, 사전에 썬더 제트기가 대공포제압을 위한 선제공격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리차드함의 갑판에서 이륙한 함재기 편대는 폭격활동이 자유로웠으며 주요 공장을 모두 파괴하고 그 주위에 있는 건물과 발전소에도 큰 피해를 주었으며, 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은 아무런 손실이 없이 귀함하였다.

7월 28일, 항공모함 프린스톤함에서 출격한 F4U 폭격기 25대와 AD 스카이레이더기 13대 총 38대의 함재기들은 둘로 나누어서 40톤의 폭탄과 로켓탄을 길주에 공격하여 자철제련소의 60%를 파괴하였다. 이 제련소로 송전하고 있던 발전소도 완파하고 주위의 병사(兵舍) 및 길주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는 철교의 3/5을 절단하고 1기를 제외한 37기의 함재기는 무사히 귀함하였다.

크라우(E. M. Crow) 중위가 조종하던 F4U[23]기는 공습 중에 피폭되어 조종사는 기체로부터 탈출하였고, 헬레나(함장, 대령 J. R. Clark)함의 헬기에 의하여 구조되었다.[24]

4. 아오지(阿吾地) 정유공장 폭파작전

1) 참가함정 및 주요지휘관

직 책	계급/성명	직 책	계급/성명
제7함대사령관	중장 J. J. Clark	Princeton 함장	대령 W. R. Hollingsworth
제77기동부대사령관	소장 A. Soucek	Boxer함장	대령 Dannis J. Sullivan
Essex함장	대령 W. F. Rode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전투경과의 개요

공산군의 심장부를 강타하기 시작한 유엔군해군의 활동은 더욱 증가되어 1952년 9월 1일에는 아오지에 대한 공습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아오지는

지리상으로 소련에서 8마일, 만주에서 4마일 떨어진 한국 최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아오지는 종합적인 정유시설을 갖추고 북한의 모든 유류보급의 원천이 되었던 곳으로 교통망이 발달하여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이었다.

제7함대사령관 클라크(J. J. Clark) 중장은 극동군사령관 마크 클라크(Mark Clark) 대장에게 이 곳에 대한 공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를 "아오지는 북한의 가장 큰 유류보급기지이며, 그 위치가 소련과 중국에 인접해 있으므로 지금까지는 폭격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곳을 공격한다면 공산군의 중요한 기능을 상실토록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극동군사령관은 참모회의에서 토의를 거쳐 아오지공습을 허가하였다.

1952년 9월 1일, 제7함대 예하의 항공모함 에섹스(Essex)함을 비롯하여, 프린스톤(Princeton)함과 박서(Boxer)함에서는 총 144기의 함재기로써 아오지를 향하여 발진하였다. 에섹스함에서 이함한 ATG-2 전대의 29기와 프린스톤함의 CVG-19전대에서 63기와 박서함의 CVG-2전대에서 63기의 함재기가 각각 아오지상공에 도달하였다. 이와 동시에 다른 함재기들은 문산부근의 제철공장과 청진인근의 열전기공장과 변전소 그리고 군수품집적소와 건물 등을 강타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아오지상공의 함재기들은 정유공장을 비롯한 여러 시설물에 대하여 폭격을 실시하였다. 이곳에서 대공포나 MiG기의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아 함재기들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공산군은 이곳이 국경지대인 만큼 유엔군의 공습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공습이 있은 후에 3척의 항공모함은, '프린스톤함; 정유공장은 물론 주위의 넓은 지역이 화염 속에 휩싸여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 '에섹스함; 임무가 주어진 전 목표물에 대하여 100% 폭파성공', '박서함; 공산군의 저항없이 치명적인 손실을 입힘' 등과 같이 상부에 보고하였다.[25]

5. 고원(高原) 공습작전

1) 참가함정 및 주요지휘관

직 책	계급/성명	직 책	계급/성명
제7함대사령관	중장 J. J. Clark	제19항공전대장	중령 William Denton Jr.
Kersarge 함장	대령 T. E. Clark	제101항공전대장	중령 D. P. Phillips
Princeton 함장	대령 W. R. Hollings worth	제2항공전대장	중령 J. G. Daniel
Essex 함장	대령 W. F. Rodee		

2) 전투 전의 개황

1951년 8월 나진에 대한 폭격을 감행한 이후 처음으로 해군에서는 공군의 중폭격기 B-29를 엄호하여 고원에 공습을 실시하였다. 고원은 원산 북쪽에 있는 평원철도의 시발점으로 철도교통의 중심지이다. 고원 일대에는 강력한 고사포대가 배치되어 유엔군이 출격할 때마다 이곳의 대공포의 집중포격으로 인하여 수십 명의 조종사들이 전사하거나 기체가 손상되었던 곳이었다.

제7함대 작전참모 피트(Ray M. Pitt) 대령은 공군과의 합동작전으로 이곳을 격파하기로 결정하고, 동경의 극동공군사령부에 공군의 B-29폭격기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리하여 극동공군의 B-29 10대가 제7함대의 함재기와 합동하여 고원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것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전투경과의 개요

10월 8일에 제7함대의 항공모함 키어사쥐(Kearsarge, 함장 대령 T. E. Clark)함을 비롯하여 프린스톤(Princeton, 함장 대령 W. R. Hollings worth)함과 에섹스[26](함장 대령 W. F. Rodee)함에서 출격한 89대의 함재기와 극동공군의 B-29기 10대 총 99대는 고원으로 향하였다. 우선 VT탄 500파운드를 적재한 B-29가 고원 주변에 있는 고사포진지를 공격하였고, 대공포가 기능을 상실하면 해군의 함재기가 뒤를 이어 조차장과 보급소를 공격하는 계획이었다.

이날 원산근해 상공에서 합류한 공격대는 B-29폭격기가 고도 21,000피트, 함재기는 각각 25,000, 30,000, 35,000피트의 고도를 유지하면서 북상하였다. B-29의 선제공격은 공산군의 대공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5,000파운드의 폭탄을 정확하게 목표물에 투하하여 뒤를 이은 함재기의 공격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수행되었다.

B-29가 기선을 제한한 4분 뒤에 제19항공전대(전대장, 중령 William Denton Jr.)와 제101항공전대(전대장, 중령 Denny P. Phillips) 그리고 제2항공전대(전대장, 중령 J. G. Daniel)의 함재기 총 89대는 저공으로 비행하면서 공산군의 철로, 통신망, 부대, 보급시설에 폭격을 실시하였고, 로켓탄을 발사하였다. 이리하여 북한군이 철벽의 요새로 자부하였던 고원은 화염에 휩사였고, 공격대는 1대의 손실도 없이 귀함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전투 후의 개황

고원에 대한 공습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제7함대 작전참모 피트(Ray M. Pitts) 대령은 이날의 전투에 대해 “고원에 대한 해공합동작전의 공습은 아주 훌륭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작전이 6·25전쟁에서 마지막 합동작전이었다.”고 하였다.

이후 유엔공군은 야간을 이용하여 단독으로 공습하였고, 대부대의 출격보다는 소규모 항공전력으로 공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제7함대의 역사보고서에는 이날의 합동작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공습은 성공, 전 항공기 무사귀환”[27]

6. 고저(庫底) 상륙양동작전

1) 참가함정 및 주요지휘관

직 책	계급/성명	직책	계급/성명
제7함대사령관	중장 J. J. Clark	상륙군지휘관	소장 A. Trudean
수송선단장 (CTG 76.4)	소장 F. X. McInormey		

2) 전투 전의 개황

고저에 대한 상륙작전은 처음으로 1951년에 태평양함대의 참모장 힐(T. B. Hill) 소장이 제안하였는데, 상륙군이 고저를 점령한 다음 미 제8군과 합세하여 북한군과 중공군을 분리시켜 이를 각개 격파하려는 전략이었다. 이 계획은 결국 확전을 피하려는 합참의 승인을 얻지 못하다가 1952년 10월 초 태평양함대사령관 레드포드(Arthur W. Radford) 대장과 극동함대사령관 브리스코(R. P. Briscoe) 중장과 제7함대사령관 클라크(J. J. Clark) 중장의 논의를 거쳐 합참의 승인을 얻게 되었다.[28]

이리하여 제7상륙기동부대가 편성되고 사령관에는 제7함대사령관 클라크 중장이 임명되었으며, 미 제1기갑사단과 미 제118연대 전투단이 상륙군에 편성되었다. 수송선단은 TG76.4의 베이필드(Bayfield, APA-33, 함장 대령 W. E. Ferrale), 오카노간(Okanogan, APA-220)함 및 8척의 수송선이 합류하였고, 항공모함 리차드(Bon Homme Richard, 함장 대령 W. P. Waston)함과 수척의 구축함이 함포사격을 담당하였으며, 기함은 전함 아오와(Iowa)였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3) 전투 경과의 개요

고저상륙작전은 육해공의 합동작전으로써 상륙군은 해군 및 공군의 화력지원하에 고저에 상륙을 감행하고, 이 지역을 점령하려는 계획이었는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① 전세를 유엔군에 유리하도록 하며 공산군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② 전선으로 공산군의 병력증강을 차단하며,
③ 유엔군의 고저상륙을 저지하기 위하여 공산군이 움직일 때를 기다려 이를 격파한다.

즉, 고저상륙은 이 지역을 점령하는 목적보다는 공산군을 유도하기 위한 상륙양동작전의 일환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D-Day는 10월 15일로 결정되었다. 10월 6일부터 제7상륙기동부대는 클라크 중장의 지휘 아래 상륙작전 준비를 시작하였다. 6일에는 수송선단(TG76.4)이 일본의 미 제8연대를 수송하여 10월 9일에 강릉에 도착하였고, 12일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12일에는 D-Day에 앞서 실제 상륙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날 해상날씨는 파고가 높고 풍속 25노트의 악조건이었다. 결국 황천(荒天)으로 4척의 LCVP가 침몰되는 손실을 보았다. 14일 일출이 되자 기함 아오와함을 비롯한 전 함정의 함포가 고저해안을 향하여 사격을 시작하였으며, 다음날 아침까지 함포사격은 계속되었다. H-Hour는 11시 30분이었다. 15일 새벽 기상은 더욱 악화되어 상륙개시는 다시 14시로 연기되었다. 드디어 14시가 가까워지자 해안에서 23,000야드 떨어진 수송선단에서는 함정이 내려지고 상륙군을 싣고 해안으로 돌진하였다. 제1파가 출발하였고, 해안으로부터 5,000야드 해상에 도달하면 다시 선단으로 돌아오고 다시 제2파가 출발하여 되돌아오고 하는 식으로 공산군의 반격을 기다렸다. 함포사격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함재기와 공군의 전폭기가 해안을 비롯한 고저지역을 강타하였다.

12개의 건물과 탄약고, 진지다수가 전투기의 폭격으로 파괴되었다. 앨트(Walter Alt) 중위가 조종하는 함재기가 피폭되었으나 아오와함의 헬기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날 19시까지 상륙전은 계속되었고, 함포와 함재기의 공격은 16일까지 적진을 강타했다. 16일 16시 30분에 제7상륙기동부대는 작전을 사실상 종료하였다.[29]

4) 전투 후의 개황

유엔군의 고저에 대한 상륙양동작전의 계획은 공산군의 증원군을 유인하여 유엔군의 함포사격 및 항공공습으로 이를 격파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산 지상군의 동요는 그다지 뚜렷하지 않았고 경미하였으며 공산군은 해안포대 만으로 유엔군의 상륙작전에 대항하였다.

제7함대에서는 상륙작전 평가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① 항공기의 역할 : 평소의 전투에서보다 많은 장비와 탄약을 소모하였으나 그 효과성은 미흡하였다.
② 함포사격 : 해안포대에 대한 공격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평소보다 5배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로 해군함포의 공격이 가장 정확하여 공산군에게 많은 손실을 주었다.
③ 기타 사항에 대한 평가 : 상륙작전 상황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적물적인 소비를 가져온 작전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고저 상륙작전은 그 기동성이나 육·해·공 합동성 측면에서는 매우 훌륭하게 수행된 작전이었다.

7. 소해작전

1) 북한해군 기뢰부설정 나포

캐나다 해군 구축함 누투카(Nootka, 함장 중령 Richard M. Steele)함은 1952년

9월말에 북한 기뢰부설정을 나포하는 계획을 세웠다. 9월 22일 밤, 누트카함은 진남포 근해의 초도 남서쪽에서 'Blackburn'이라는 초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02시 23분, 진강포 인근 해안에 근접하여 북상하는 미식별 선박을 탐지했다.

이 선박은 진강포 북쪽의 육지 돌출부 연안에서 초도의 남동쪽으로 침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Blackburn' 초계 구축함을 위한 묘박지로 항로를 변경하였다. 미식별 선박이 묘박지 인근에서 수로를 탐색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캐나다 구축함은 그 선박을 검문검색하기 위해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구축함이 미식별 선박의 전방으로 직접 항해하는 것은 기뢰부설 구역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남쪽으로 우회하여 그 의아선박을 차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누트카함이 29노트로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그 선박을 차단할 수가 없었다. 구축함은 소형주정으로 추적하여 나포하고자 했으나 적선을 차단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미식별 선박의 의심스러운 행동과 침로로 고려할 때 그 선박이 지나간 해역은 기뢰부설된 가능성이 많았다. 따라서 구축함 함장은 미 해군에게 이 구역에 대한 검색소해를 요청했으며, AM-317함이 9월 27일 도착하여 소해작전을 실시하였다.

미 소해함은 검색소해를 하고 원산으로 이동하였다. 9월 27일 아침, 캐나다 구축함 누트카함은 남청강 상부에 있는 표적을 레이더로 접촉했다. 함장 스틸 중령은 그 표적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의아구역의 끝단을 회전하여 육지에 가능한 접근한 상태로 접근을 시도하였다. 적선이 해상으로 떨어져서 육지로부터 이격될 때까지 기다렸다. 스틸 중령은 함정을 30노트 이상으로 증속하여 적선이 육지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였다. 함장 스틸 중령은 이렇게 말했다.

> "우리는 적선에게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 충돌침로로 과감하게 접근하였다. 우리는 한국말로 정선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고 방송하였다. 우리는 그 선박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접근하였는데 정크(Junk)선과 비슷해 보였으나 그것과는 다른 선박이었다. 선박의 높이는 매우 낮았고,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우리 함정은 적선으로부터 약 100미터 전방에서 정선하였는데, 어둠 속에서 크고 검은 물체들이 적선의 선미(船尾)에서 투하되어 우리 함(艦)쪽으로 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것들을 부유기뢰로 판단하여 적선의 흘수선에 사격을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우리는 주정에 돌격조를 탑승시켜 적선에 접근시켰다. 조금 후에 돌격조는 적선에는 승조원이 없고 도망했다고 보고했다. 이때 우리는 그 부유물들이 적 승조원이 타고 도망가는 소주정 임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무장주정들은 그것을 뒤쫓고 있었다.

우리 함의 첫째 주정이 적 소형주정에 접근했을 때 누트카함에서 탐색등(Search light)으로 적 주정을 비췄다. 적 주정은 검은 튜브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이었고, 북한해군 장교 1명이 기관총으로 누트카함을 조준하고 있었다. 아군과 적군 상호간에 사격을 하였으나 탐색등을 이용한 우리는 사상자가 없었고, 북한해군 장교는 총상을 당하고 바다속으로 떨어졌다."

누트카함의 주정들은 복귀하였고, 적의 주정들은 레이더로 감시하였다. 누트카함은 적 기뢰부설정에 현측으로 접근하여 승조원을 탑승시키려 했으나 야간에 작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와이어를 이용하여 결박시켰다. 그리고 예인색을 연결하여 서쪽으로 예인하였고, 주간에 세부적인 정밀수색을 하려고 하였다. 누트카함은 적 주정에 있는 승조원에 대하여 감시를 계속했으며, 여명 시에 더 가까이 접근하였다. 그들은 주정에 구멍을 내고 튜브를 침몰시켰으며, 몇 명이 자살을 시도했다. 적은 각기 기관총, 피스톨 및 수류탄 10발 정도를 갖고 있었으나 누트카함이 접근하자 그것들을 해상으로 버렸다. 포로들 중에는 북한 해군대위 2명과 상사 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포로심문을 통하여 그 근방의 기뢰원뿐만 아니라 그보다 상당히 남쪽에 위치한 다른 기뢰원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북한 포로들은 진남포 해군기지에서 기뢰과 및 어뢰과를 창설한 후 1952년 9월 13일 밤부터 기뢰부설 작전을 재개했다고 진술하였다. 기뢰과는 장교 4명과 사병 12명으로 구성되었다. 북한 해군장교들은 여순에서 기뢰부설에 대하여 1개월 간의 훈련을 받았다. 주로 소련 기뢰교범의 한국어 번역판을 이용하여 훈련과 강의를 병행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진남포의 기뢰부설 요원들은 정치장교인 상위 1명, 항해사 1명, 기뢰부설 대위 1명, 기타 6~7명의 사병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요원들은 진남포에서 출발, 몽금포에 도착하여 25피트 길이의 정크선을 수리하여 기뢰부설선으로 사용하였다.

포로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들은 선박에서 나오는 소음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레이더에 피탐이 되지 않는 기뢰부설선을 건조하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엔진을 설치하는 대신 노젓는 사람을 태우고 선박의 상갑판을 흘수선에서 18인치 이내의 높이로 만들어 시각이나 전탐탐지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또한 선박에 세로로 목재지주들을 설치하여 기뢰부설 궤도로 사용되도록 설치했다.

실제적인 기뢰부설 작전은 9월 19일 밤에 시작되었다. 이날 자기기뢰 2발을 부설하였고, 20일, 26일 및 27일 야간에 6발의 자기기뢰를 추가적으로 부설하였다. 항해사는 항해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월광을 이용하여 육상의 뚜렷한 물표에 대한 목측으로 방위를 판단하고 선박의 속력을 1노트로 가정했다. 북한해군은 서해에서 조수간만의 차이로 조류가 심하기 때문에 접촉기뢰보다는 자기기뢰가 보다 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미 소해함 채터러(Chatterer)함이 진남포 해역에 도착하여 10월 2일부터 진남포 북부에 있는 기뢰부설 해역에 대한 소해를 시작하였다. 첫 번째 기뢰는 그날 12시 8분에 엄청난 소음과 함께 폭발되었다. 미 소해정들이 5~7노트의 속력으로 소해작전을 하고 있을 때 북한 해안의 있는 포대들은 사격을 하면서 소해작전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소해정들은 험한 파도를 헤치고 소해장구를 완전하게 회수하면서 임무를 완수하였다.

이처럼 누트카함이 나포한 기뢰부설정과 포로들을 통하여 북한해군의 기뢰부설 작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미 소해함이 파견되어 부설된 기뢰를 소해하고 안전해역을 확보함으로써 아군의 원활한 해상작전을 실시할 수 있었다.[30]

2) 유엔군 함정의 기뢰 피해

6·25전쟁 기간동안 북한해군은 북한해역뿐만 아니라 남한해역까지도 기뢰를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부설하여 유엔해군의 해상작전을 방해하였다. 유엔해군은 기뢰전 부대를 창설하여 적극적으로 기뢰대항전을 실시하였으나 북한 기뢰에 접촉되어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북한해군이 소련으로부터 4,000여 개를 도입하여 기뢰를 부설한 것에 비하면 아군 해군세력의 피해는 비교적 적었다. 1952년 1월부터 12월까지 아군의 기뢰피해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양 예인선은 ATF-111은 1952년 8월 30일 야간에 흥남 연안에서 경비하다가 기뢰에 충돌하여 침몰되어 사병 2명이 전사하였다. DD-722함은 9월 16일 TF-77의 경계임무 수행 중에 원산 동방 약 90마일 지점에서 기뢰에 충돌되었다. DD-722함장 사임(H. B. Seim) 중령은 이 기뢰는 태풍 카렌(Karen)호가 8월 18일에 원산 해역을 통과할 때 원산의 기뢰원에서 이탈된 것으로 판단했다. 제7함대 사령관(중장 Clark)은 태풍이 지나가고 몇 주 후에 제7함대 기함 주위에서 40발의 기뢰를 발견하여 유엔군사령부에 보고했다. DD-722함장 사임 중령은 기뢰충돌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우리 함은 TF-77 기동부대 중에서 최북부에 위치한 함이었으며, 기동부대는 남쪽으로 항해하였다. 우리의 바로 전방에 있는 항공모함들과 구축함들은 우리가 기뢰에 충돌되기 전에 그 기뢰에 근접하여 항해했음이 틀림없다. 전탐실 당직장교는 인근해역에 부유기뢰들이 많아 항해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고, 안전속력을 10노트로 권고하였다. 왜냐하면 10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를 할 때는 함수의 파도가 부유기뢰를 밀어내어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동부대 속력은 15노트로 항해하고 있었다.
>
> 우리는 9월 16일 21시 15분에 기뢰에 충돌되었고, 용골에서 상갑판까지의 철판이 날아갔다. 전부 격실은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침수되었고, 그 격실에 있던 5명이 전사하였다. 또한 전부격실에 인접한 격실에 있던 기관실 요원들이 심한 화상을 입었다."[31]

3) 북한해안포에 의한 피해 및 방어작전

6·25전쟁 기간동안 유엔 소해함정은 북한이 부설한 기뢰보다도 해안포에 의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유엔해군은 이에 대한 방어작전이 실시되었다. 유엔해군 함정 중에서 가장 자주 피해를 본 함정은 AMS-28정이었는데, 1951년 10월 29일에 해안포 2발을 맞아 1발은 연돌상부를 관통하였고, 다른 1발은 수선 위의 선체에 맞았다. 다행히 중상을 입은 승조원은 없었다. 1952년 4월 23일 성진 연안에서 해안포 포탄에 피격되었는데, AM-372와 AMS-36정과 함께 적 열차에 대한 관측과 탄착수정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AM-28정이 자주 해안포에 피격된 이유는 적 열차들을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연안에 근접해서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AM-28정은 10월 13일 고저에서 상륙양동작전에 참가했을 때 세 번째로 해안포 포탄에 피격되었는데, 부함장과 사병 3명이 부상당했다.

AM-28정과 같이 자주 해안포에 피격당한 함정은 AMS-18정과 AM-316함이었다. AMS-18정은 1951년 9월 8일 수선 상부 6피트에 해안포 1발을 맞았고, AM-316함은 1952년 8월 27일 해안포 122밀리 4문 포대에서 100발을 사격했을 때 근접폭발로 피해를 입었다. AMS-22는 1952년 11월 19일 원산에서 소해임무 수행 중에 76밀리포 47발의 표적이 되어 장교 1명과 사병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유엔 소해함정이 북한해안포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자 소해함장들은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북한해안포에 대한 함포사격을 요청하였고, 회피기동 및 연막작전 등 방어작전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함정이 해안포에 공격을 받았을 때 인근 대형함정에게 지원사격을 요청하였고, 긴급 전속기동 또는 지그재그 항해하면서 해안포 사격에 대한 회피기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 해안포 발사 섬광이 보이고 아군 함정으로 발사된 것으로 추측되면 소해함정은 즉시 침로를 변경하였다. 그런 후에 사거리에 따라 20초 또는 30초 동안 그 침로로 항해한 후 다시 침로를 변경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소해함정은 회피기동과 병행하여 북한해군의 사격조준을 방해하기 위하여 연막작전을 실시하였다. 소해함 머갠서(Merganser)함은 연막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이것의 성공으로 모든 소해함정이 이 방법을 채택했다. 즉 디젤유를 직접 주 기관의 소음기에 주입하여 연돌에서 심한 백색 연기를 배출토록 했다. 이러한 방법은 연기를 만드는데 아주 간단하였으며 단지 주 기관에 있는 밸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Valve) 하나만 살짝 여는 것으로 충분한 연막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절차는 미 해군 함정국의 승인은 되지 않았지만 제3소해전대사령관 윌리암스(Williams) 대령은 이러한 방법을 비상조치로서 허용했다. 미 해군 함정국은 소해함정이 북한 해안포 사격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도록 연막산출 절차를 규정화하였다. 즉 미 해군은 소형 연막통을 제작하여 소해함정에게 배포하였으며, 이 연막통은 신속하게 점화될 수 있었고, 해상에 투하하여도 점화될 수 있게 설계되었다.

북한해군의 해안포의 사격정확성이 높아짐에 따라 함포지원사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그러나 구축함 함장들 중에서 6·25전쟁에 참전하기 전에 소해지원 임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함장이 매우 적었다. 또한 미 해군 함정국에서도 소해함정에 대한 함포지원 방법을 규정한 절차도 없었다. 함포지원함은 소해함과 해안포 중간에 위치하여 지원사격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소해함 외곽에 위치하여 사격을 하기도 하였다. 원산항에서 33일간 소해함정을 지원한 구축함은 DD-722였다. 이 구축함 함장 사임 중령은 "소해함정의 항적을 따라 지원하는 것보다 그 외현 측에서 항해하면서 사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하였다. 또한 구축함 DD-799함도 소해함정을 지원하면서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구축함 폭스(Fox, DD-799)함 함장 대어(Dare) 중령은 함포지원사격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설명을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첫째, 선임 소해함 함장이 소해된 구역이 표시된 지도(Overlay)를 우리에게 전달했으며, 우리는 그것을 항해지도로 활용을 하였다. 나는 우리 함을 선두 소해정의 약 400야드 전방에 그리고 외해 쪽으로 상대방위 10도의 위치했다. 둘째, 우리 함은 5인치 포 및 40밀리 3문 단발사격으로 육상에 대하여 탐색사격을 했다. 육상과의 사거리가 3,000야드 이상인 경우에는 5인치로만 사격을 실시했다. 소해함정도 3인치와 30밀리 포로 육상에 있는 표적들에게 조준하여 사격을 실시했다."

비록 유엔 함정이 북한해안포에 의하여 피해를 보기는 하였지만 구축함의 적극적인 함포지원사격과 회피기동 그리고 연막작전 등 방어작전으로 북한 해군의 해안포 부대 증편과 해안포 설치 등을 고려할 때는 비교적 피해가 적었다고 볼 수 있다.[32]

4) 야간 소해작전

유엔해군은 1952년 10월 15일, 원산 남동쪽 25마일 지점에 있는 고저에서 상륙양동작전을 실시하였는데 그 작전에서 야간 소해작전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었다. 소해함정은 D-3일인 10월 12일 고저 연안에 도착을 했으나 심한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하여 10월 13일 아침 여명 시까지 작전을 개시할 수 없었다. 5척의 천해용 소해정이 소해를 위한 최초 기동을 실시하였으나, 해안 1,500야드에 진입을 했을 때 북한 해안포로부터 사격을 받았다. 북한의 야포와 기관총 사격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선두의 소해정 3척만이 제1차 소해기동을 할 수 있었다. 후미에 있던 2척의 소해정은 소해장구를 절단하고 외해 쪽으로 이탈하였다.

3척의 AMS급 소해정들은 10월 13일 오후에 구축함들의 함포사격을 지원받으면서 다시 소해를 시도했다. 구축함의 함포지원은 '우수'하였으나 북한 해안포대를 무력화하지는 못했다. 소해함 오스프리(Osprey)함과 구축함 퍼킨스(Perkins)함은 해안포에 피격되었는데 특히 퍼킨스함은 1명의 전사자와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소해정들은 10월 14일 일출시간에 지정된 수로에 대하여 소해작전을 실시하였으나, 북한 해안포의 맹렬한 포격으로 인하여 소해구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중단해야만 했다. 주간에 실시하는 소해는 불가능하였다.

북한 해안포대의 격렬한 포격으로 인하여 고저에서 주간소해는 실패하였기 때문에 야간 소해작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야간소해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실시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야간소해 작전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저 상륙양동작전 시 야간소해 작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미 해군에서는 야간소해 교리를 재작성하고 발전시켜야만 했다. 소해함 샤블러(Shoveler, AM-382)의 함장은 기뢰전사령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① 야간소해 교리를 재연구하고, 숙달시킬 것.
② 소해색이 기뢰에 접촉하지 않도록 교리를 개발할 것.
③ 야간에 소해된 기뢰에 대한 조명방법과 위치표시 방법을 개발할 것.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그는 야간 조명방법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제안을 하였다. 즉 수중 신호탄이나 야간용 신호탄 등을 사용하면 기뢰가 소해된 후에 그 기뢰의 위치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야간 소해작전은 공산군의 포격에 대한 위험은 적으나 다음과 같이 이유로 주간 소해작전보다 더욱 어려운 작전이었다.

첫째, 야간 항해는 주간 항해보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야간에 소해된 해역을 기점(Plotting)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다. 조류와 해류로 인하여 소해 공백(Sweeping Holidays)[33]이나 중복 소해를 실시할 경우가 있었다.

둘째, 기뢰 폭파나 소해된 기뢰 위치표시는 야간에는 매우 어려웠다.

셋째, 야간 소해는 선두 소해함정의 후미함정인 다른 소해함정들에게 위험을 가중시켰다.

넷째, 야간에 한국연안에는 10여 척의 어선들이 접촉되었는데 이들은 어로작업 이외에 기뢰부설 등의 작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야간소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해함정들은 1952년 후반기부터동해안에 대한 야간 연안소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AM급 소해함들은 지상전선에서 원산항에 있는 양도 북쪽까지의 약 227마일 거리의 해안을 소해 지시를 받았다. 어둠이 내리면 이 소해함은 해안포 사정 외곽에서 소해구를 예인하여 연안으로 이동하였고, 깜깜한 밤이 되면 해안에 접근하여 소해를 실시했다. 이러한 작전은 해안선과 평행되게 침로를 취하여 새벽까지 실시했는데 통상 60~70마일 정도 검색소해를 했다. 때때로 소해함정의 항적이 해안의 수백 야드권까지 진입하는 일도 있었다. 동이트기 전에 함정들은 외해 쪽으로 항해하여 해안포 사정 외곽에서 소해장비를 회수했다.

유엔해군은 주로 한반도 연안에 대해서 주간에 소해작전을 수행하였으나, 북한군 해안포의 격렬한 사격으로 인하여 아군의 함정과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1952년 10월 15일부터 실시된 고저 상륙양동작전을 위한 주간 소해작전이 실패함에 따라 야간 소해작전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유엔해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야간 소해작전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전을 한반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역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야간 소해작전의 교리를 개발하고 적용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비록 야간에 실시되는 소해작전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을 피해갈 수는 있었지만 함정 위치 및 소해된 기뢰의 위치 표시 등의 어려움은 이 작전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어려움에 불구하고 유엔해군은 1952년 후반기부터 휴전 때까지 원활하게 야간 소해작전을 수행하여 아군 함정의 안전한 해상활동을 보장하였다.[34]

5) 소해함정의 유용성

소해함정은 6·25전쟁 기간동안 총 1,088발의 기뢰를 소해하였는데, 이 작전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여러 측면의 군사작전에도 기여를 하였다. 소해함정은 1952년 5월까지 항만 접근로, 항구, 수로 및 함포지원구역을 소해하는 임무 이외에도 다른 작전을 수행하였다. 즉 소해된 해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뢰부설을 실시하는 적 어선 나포, 기뢰정보의 수집과 배포, 한국해군 소해부대의 훈련 및 해·공 구조작전 수행에 대한 한국 연락장교의 훈련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소해작전이 종료됨에 따라 소해함정은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단계에서 미 잠수함들에 의하여 수행된 것과 유사한 조종사 구조임무를 수행했다. 실제적으로 소해함 심볼(Symbol)함과 덱스트러스함은 동서해안에서 우군 조종사를 구조하였다. 또한 구축함급 소해함인 DMS-35는 철도 차단작전 중에 북한군 열차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공을 세웠다. 이러한 공적으로 DMS-35는 부대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3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절 한국해군 작전

1. 경비작전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개시된 이후 지상전이 교착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해군은 그해 10월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될 때까지 동·서·남해에서 조직적인 경비작전을 전개하였다. 한국해군은 일련의 해군작전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해안선 일대에 구축한 공산군의 해안포대와 방어진지를 파괴하고 어선을 이용한 공산군의 기뢰부설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우군 함정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동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해군은 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각 도서에 대한 공산군의 기습작전 기도를 사전에 탐지하여 분쇄하였으며, 해안일대의 공산군 진지에 함포사격을 가하고 아군 유격대의 활동을 지원하며 공산군의 배후를 교란하였다. 동시에 해군은 지상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하여 지상전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동해안 경비작전

동해안 경비작전은 기간별로 3개의 작전으로 명칭이 부여되었는데, 1951년 10월부터 1952년 2월까지의 '28작전'과 1952년 4월부터 1952년 12월까지의 '42작전', 마지막으로 1953년 1월부터 휴전성립 때까지 실시한 '묘한작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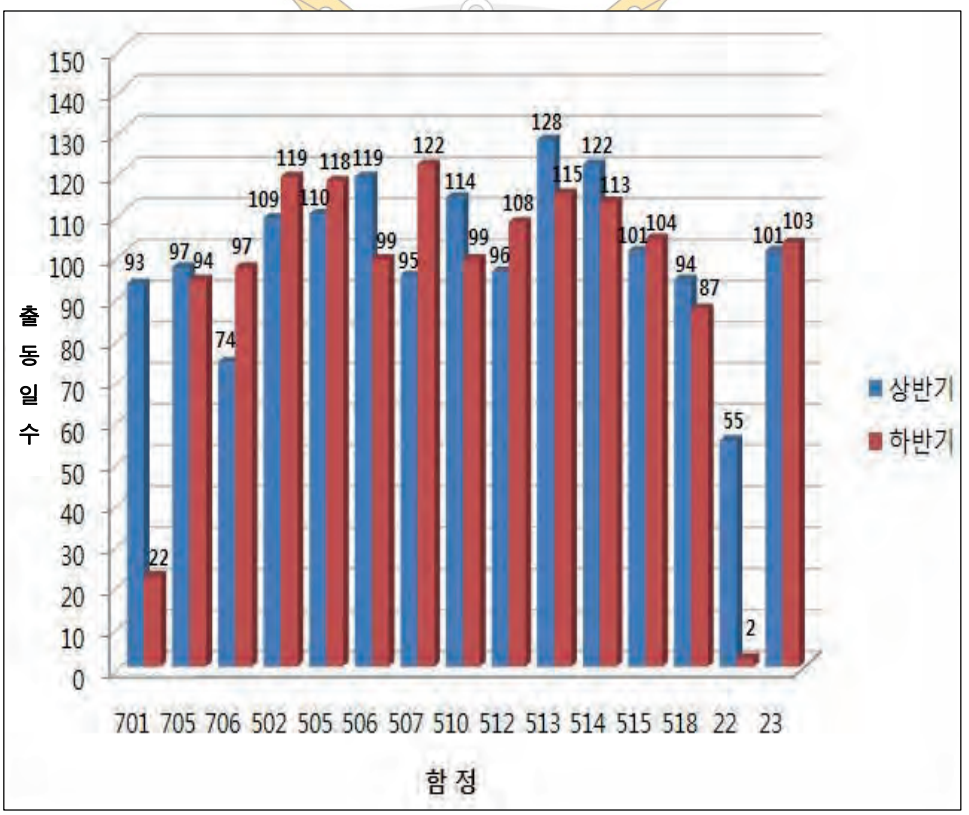
'42작전[36]' 기간 동안 한국해군은 공산군의 후방에 침투하는 전술을 구사하는 한편 해상봉쇄, 수송, 호송, 소해, 경비 등 1951년과 동일하게 유엔해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했다. 정전회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비교적 공산군의 저항은 감소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유엔해군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활약한 한국

함대의 압력으로 인하여 공산군의 작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952년 3월 김용선(해사 3기) 대위가 지휘하는 YMS-518정이 원산 해역에서 경비 중 추진축 부분에 바닷물이 들어와 침몰위기에 처해졌을 때 인근에서 경비 중이던 미 순양함 세인트폴(Saint Paul)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미 함정 소속의 존슨(George E. Johnson) 하사 등 3명이 518정에 승선하여 몇 시간에 걸친 방수작업으로 518정과 승조원은 큰 피해없이 무사할 수 있었다.

'42작전' 동안 수행된 주요 전투로서 1952년 6월 1일 공산군은 원산주변에 은폐된 해안포대를 이용하여 유엔함정을 공격하였고, 또한 부유기뢰를 설치하여 함정의 접근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해군 PC-701함은 유엔함정을 지원하기

<표 7-2> '42작전' 함정 출동일수[37]



위하여 원산주변에 설치된 해안포대를 공격하여 무력화시켰으며,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였다. 또한 1952년 10월 8일 PC-706함은 흥남 근해에서 경비 중 마양도 서쪽 500야드 전방에 북한군 소속 소형선박 16척을 발견하고, 약 300야드까지 접근하여 사격함으로써 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2) 서해안 경비작전

서해안 경비작전도 동해안 경비작전처럼 1951년 10월부터 1952년 3월까지의 '탁수작전'과 1952년 4월부터 1952년 12월까지의 '충무작전', 마지막으로 195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금각작전' 등 3개의 작전으로 실시되었다.

'충무작전'[38]은 1952년 4월부터 12월까지 서해안 강화도 옹진반도를 중심으로 장산곶 북방에서 목덕도에 이르는 주요도서를 경비하는 임무를 띠고 유엔군 서해봉쇄전대의 지휘 하에 수행되었다. 이 기간 중에는 주로 장산곶 이남에서부터 순위도 이북 방면의 도서부근에서 유엔군과 공산군 상호 간에 접전이 있었다.

한국해군과 유엔해군에 의해 해양통제권이 장악된 상황으로 공산군의 저항은 소강상태였으나, 1952년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실시한 PC-702함의 창린도 탈환작전은 매우 치열한 전투였다.[39]

1952년 5월 1일 황해도 장연군 덕동에 공산군 600명이 주둔하면서 이 지역을 통제하고 있었다. 약 1개월전에 유엔군은 공산군의 병력과 레이더 등의 군사시설에 대한 첩보수집을 시도하였지만 유용한 첩보를 획득할 수 없었다. 7월 3일, 공산군은 해주부근 및 무도대안(茂島對岸)의 공산군은 박격포 및 직사포 등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중대본부를 설치(YB287834)하고 해안선 일대에 병력을 증강배치하여 해안선경비를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7월 10일, 아군이 확보중인 석도 및 초도를 기습할 목적으로 황해도 송화군에 병력을 집결하고 있었다. 7월 15일 2시에는 아군이 확보 중인 창린도에 북한군 약 300명이 기습상륙을 실시하여 창린도에 주둔 중이던 동키부대의 20명이 피해를 입고 철수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월 16일, 공산군 약 200명이 배치되어 옹진반도에 포대를 구축하고 도서방어를 강화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해군 JMS-301정은 교동도 대안에 배치된 공산군 병력에 대하여 함포사격을 실시하였다. 이날 창린도에서는 완전무장한 중공군 약 200명이 출현하였고, 진남포 및 오리포 소해리 방면에서도 공산군이 준동하였으나 한국해군 YMS-501, 503정이 함포사격으로 공산군을 교란시켰다. 4월 17일, 교동도 대안인 연백지구에는 중기관총으로 무장한 북한군과 중공군이 병력을 증강하고 있었으므로 JMS-307정이 출동하여 이를 격퇴시켰다.

4월 19일, 공산군은 백령도 대안에 각종 포대를 구축하고, 고무보트로 소수병력을 승선시켜 기습상륙작전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한국해군 JMS-302, YMS-501, 503정은 장산곶 북방으로 접근하여 경비임무를 실시하였고, JMS-308정은 초도근해에서 공산군에 대한 함포사격을 실시하였으며, 기린도 근해로 이동하여 해상봉쇄 및 교란사격을 실시하였다. 4월 19일 03시 10분, 한국해군 23, 26호정은 백수동(XC609184)에 집결된 공산군의 포대 및 수척의 범선을 발견하고 7시간에 걸쳐 포격을 가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장산곶 북방으로부터 남하하는 공산군은 백령도 및 기린도 대안까지 배치하였으나 4월 23일에는 옹진반도 및 창린도 남동쪽까지 침투하여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4월 24일에는 해주지역에 집결 중인 중공군 약 300명이 연백지구로 이동하여 중기관총, 박격포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4월 29일, 해주북방으로 집결한 북한군 968부대는 오리포에 후방기지를 두고 배치되어 있었다.

한국해군은 4월 17일, 기함 901함(함장 대위 姜景遠) 지시에 따라 JMS-309정은 교동도 근해, JMS-308정은 초도근해, JMS-303정은 기린도 근해, JMS-302정은 몽금포 근해, YMS-505정 및 507정은 장산곶 북방을 각각 경비하고 있었다. 이들 함정을 위한 지휘 및 군수지원 기지는 대청도에 설치되었고, 22정 및 26정을 대청도 근해로 파견시켜 경비임무를 수행케 하였다.

기함 901함은 4월 26일, PC-701함과 임무를 교대하여 기린도 근해를 기점으로 예하함정들을 지휘하였다. JMS-303정은 대청도 근해, JMS-309정은 교동도근해, JMS-313정은 초도근해, JMS-315정은 백령도 근해에서 각각 경비임무를 수행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면서 대안에 있는 공산군 근거지에 대하여 함포사격을 실시하였다. 장산곶 북방을 경비하고 있었던 YMS-505정 및 507정은 4월 28일 22시 해군본부 명령에 따라 초도에 주둔 중인 백골부대의 기습작전에 참가하여 포위당한 아군을 구출하고 다음날인 29일 10시 04분에 초도로 귀항하였다.

해군본부는 JMS-301정에게 공산군을 생포하고 적정(敵情)을 탐색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JMS-301정은 월래도에 주둔 중인 동키부대 30명을 범선 3척에 분승시키고 함포지원 하에 이들 병력을 덕동에 상륙시켰다. 공산군은 5월 1일, 작전회의를 하기 위하여 덕동후방에 있는 산악지역에 집결하였기 때문에 마을에는 최소병력 만이 있었다. 동키부대원들은 공산군 6명을 사살하였고, 여자 당원 1명을 생포하였으며, 민간인 26명을 피난시켰다. 덕동후방 산악에 배치한 공산군은 76밀리 직사포 1문 및 100밀리 박격포 2문, 소총 등으로 상륙부대를 공격하였으나 무사히 덕동을 빠져나와 철수하였다. 그 후 5월 13일, JMS-301정은 다시 덕동에 상륙하여 공산군을 완전하게 격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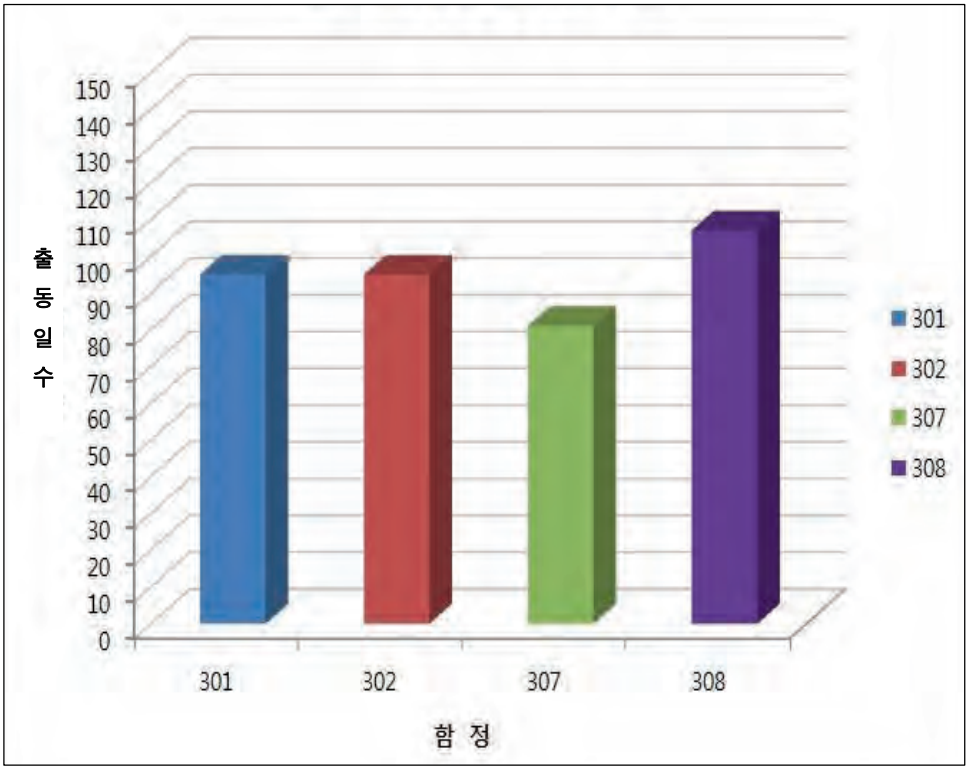
7월 3일 20시, 대연평도 근해에서 경비 중이던 PC-703함은 해주 무도대안(茂島對岸)의 섬에 집결 중인 공산군 병력의 중대본부와 박격포, 직사포 및 야포 등에 대하여 함포사격을 실시하였다. 무도대안에 배치되어 있는 공산군은 2개 중대 규모로써 7월 8일부터 포대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 정보를 수집한 PC-703함은 702함과 경비임무를 교대하고 08시에 사격을 개시하였다. 아군 병력은 PC-702함(승조원 58명, 3인치 1문, 40밀리 1문) 1척과 영국 순양함 PF-116 및 동키부대원 140명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남해안 경비작전

동·서해안의 경비작전은 직접적으로 공산군과 대치하여 교전을 벌였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남해안 경비작전은 남해안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밀수선의 단속활동과 일본선박에 대한 처치와 영해를 침범하는 외국선박 및 선원에 대한 처리, 인접 해양주권 선언선 등 경비봉쇄를 목적으로 실시한 작전이었다.

<표 7-3> 남해봉쇄전대 함정 출동일수(1952년)[4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남해안의 경비작전은 시기별로 1951년 10월부터 1952년 6월까지의 '목항작전'과 195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한산작전', 끝으로 195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노량작전'으로 실시되었다.

'한산작전[41]' 출동함정은 JMS-301, 302, 307, 308, 309정 등이었으며, 제1함대 남해봉쇄전대에 소속되어 활동을 실시하였다. '한산작전' 기간 중에 활동한 함정들의 출동횟수를 살펴보면 JMS-301정이 6회, 302정이 4회, 307정이 5회, 308정이 6회, 309정이 1회 등이었다.

'한산작전' 기간 중 실시된 작전을 살펴보면 JMS-301정은 제주도 북방에서 경비 중에 1952년 9월 24일 제주도 동쪽 20마일 해상에서 일본어선 10여 척과 제주도 북방에 50여 척이 영해를 침범한 것을 발견하고 추적했으나 일본선박은 소등한

상태로 도주하였다.

JMS-307정은 11월 8일 제주도 북방 매물도 부근 해역에서 제1, 제7 내수환 2척과 11월 11일 상기 해역에서 일본 시모노세키(下關) 제3진 진어환 2척을 발견했으나 승선하여 검문검색을 실시한 이후에 봉쇄해역 외로 추방했다. JMS-308정은 7월 29일 남해안 북위 34도 34분, 동경 128도 37분 12초 지점과 11월 8일 매물도 해역에서 어로작업 중인 일본어선 2척을 발견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에 봉쇄선 외곽해역으로 추방하였다.

2. PT편대 기습작전

1952년에 들어서 지상전은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 강원도 고성에서 동해로 흐르는 남강에 이르기까지의 전선을 중심으로 공격보다는 방어를 위주로 하는 진지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 기간에 한국해군은 유엔해군과 함께 한반도해역을 봉쇄함으로써 적의 해상활동을 분쇄하고 함포사격으로 적의 후방을 교란하는 등 제반 해군작전을 수행하였다.

1952년 4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제1함대의 PT편대는 동해의 원산일대와 성진 근해 그리고 서해에서는 장산곶에서 순위도에 이르는 해안과 그 주변의 도서에서 적의 진출을 사전에 봉쇄하고 적의 요새와 병력 집결지 및 포대를 탐색 격파하면서, 기뢰부설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능동적인 기습작전을 감행함으로써 적의 활동을 분쇄하였다.

PT정에 의한 기습작전은 6·25전쟁 기간동안 한국해군의 가장 주도적이면서 동시에 큰 전과를 이룬 작전 중 하나였다. 총참모장 손원일은 수심이 얕고 섬이 많은 한반도 해안의 작전에 작고 빠르며 화력도 강한 함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고 있었고 미 해군의 고속정이 일본의 사세보에 있다는 정보를 작전국장 최효용으로부터 입수하면서 미국 측에 고속정 인도를 부탁하여 도입되었다. 그 결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해군은 1952년 1월 24일 사세보의 미 해군기지에서 PT 어뢰정 4척을 인수했다.

원래 미 해군에서 2차대전 중에 사용되었던 PT정은 고속어뢰정으로서 초계하면서 적함에 어뢰로 기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조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케네디가 해군중위 때 이 배를 타고 일본함정을 파괴하기 위하여 맥아더 장군 지휘 하에서 참전했었다.

주무장은 5인치 로켓포였는데 좌우현에 로켓포 발사대가 장치되어 각각 8발씩 총 16발을 장착할 수 있었고, 정장이 직접 사격키로 사격하였다. 그 외에 함미에 40mm(S) 대공포 1문과 함수에 50mm중기관총(T) 2문이 장착되었고 좌우현에 각각 20밀리(S)가 장착되었다. 다만 어뢰정임에도 어뢰는 제거되었다. 배의 엔진은 1,500마력 엔진이 3개가 있어서 총 4,500마력으로 최고속력은 50노트, 경제속도는 34노트였으며 선체는 필리핀에서 생산되는 마호가니 목재로 철선보다 단단했으며 만재배수량은 56톤에 달하였다. 승조원은 17명 정도였는데 정장이 엔진 속력까지 조절하였기 때문에 전원이 무기운용에 배치될 수 있었다.



PT정이 항해하는 모습

2월 7일 PT-23정은 갈매기, 25정은 기러기, 26정은 올빼미, 27정은 제비로 명명되었는데 이 어뢰정들이 한국해군 함정 가운데서 가장 빠른 배였다. 그래서 PT정 덕에 "아침은 진해에서, 점심은 목포에서, 저녁은 백령도에서 먹는다"는 말까지 생겼다. 그러나 PT정은 평소 항해할 때는 엔진의 출력 때문에 비행기만큼 큰 소리가 났기 때문에 기습을 위해 잠입할 때는 소음기인 머플러(Muffler)를 덮어 소리를 감소시킨 상태로 5노트 속도로만 움직일 수 있었다.

PT-23·26정은 1952년 4월 19일부터 서해안 작전에 투입됐고, PT-25·27정은 1952년 5월 23일부터 동해안 작전에 투입됐다. 정장은 주로 해사 3·4기생들이 맡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인수위원으로 직접 사세보로 가서 교육을 받았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1952년 초에는 3기생이 PT정장을 맡았고, 4기생이 부장을 맡았으며 후기에는 4기생이 PT정장으로 부임되었다.

PT편대의 기습작전 임무은 매우 위험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로 PT정은 주무장인 로켓포의 유효사거리가 2,000야드 밖에 되지 않아 해안에 있는 목표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야 했다. 2,000야드의 거리는 달 밝은 날에는 대안(對岸)에 있는 북한군의 총부리가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또한 가볍고 빠른 속도로 항해하는 배의 특성상 파도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적의 공격을 유도하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미끼로서 투입되기도 하였다.

또한 PT정은 미국에서 소련에 양도를 했던 일부 PT정이 다시 소련에서 북한으로 들어가서 전쟁 초기에는 북한해군의 주요 전력으로서 활약했었다. 따라서 가끔씩 유엔 항공기의 공격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다음은 PT편대 기습작전에 정장으로 참여한 서동연(徐銅演) 예비역 중령의 증언이다.

> PT정은 파도가 많이 칠 때에는 작전을 못했다. 손원일 총장 후임으로 조함에 대해서는 당시 우리 해군의 베테랑이었던 박옥규 제독이 정장들한테 파장이 배보다 크면 각별히 조심하라고 충고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해군에서는 그 위험한 임무수행 때문에 PT편대를 해군특공대라고 불렀으며 그만큼 대우도 남달랐다. PT정의 승조원들은 PT정 마크를 특별히 부착하였으며 빠른 속도와 강한 바람 때문에 특별히 제작된 항공모자와 유사한 고속정 모자가 지급되었다. 부식도 비행기 조종사와 똑같이 지급되었다. PT정이 출동할 때는 손원일 총참모장 명의로 당시 유엔해군 귀빈들이 사용하던 고급식당인 LCI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다.

PT정은 서해의 대청도나 동해의 여도 같은 전진기지에서 정박하면서 격일제로 주간에는 유류나 탄약 등의 보급과 휴식을 취했고 야간에 작전을 수행했다. 주요 목표는 적의 요새나 병력 집결지, 해안포대 등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일명 '기차사냥'이 유명했다. '기차사냥'이란 해안가에 기차선로가 부설된 동해안에서만 가능했다. 동해안의 기차선로를 따라 군수물자를 이송하는 적의 기차를 격파하는 것이 '기차사냥'이었는데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난 PT정의 장점과 강한 화력을 이용해 최대한 해안 가까이 접근해서 북한군의 기차를 확인하면 격파하는 방식이었다.

북한군은 주간에는 유엔군 항공기의 폭격이 심해 야간에만 기차를 운행하였고, 기차를 운행할 때는 손전등으로 신호를 하면서 움직였다. 우리 PT정은 해안에서 북한군의 손전등 불빛을 관찰하다가 불빛이 보이면 기차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머플러를 덮어 엔진소리를 죽인 상태로 잠입한 다음 기차에 로켓을 발사했다. 로켓포 발사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격을 위해 배의 방향을 틀어서 조준을 했으며 미국 연락장교에게 조명탄을 올려 달라고 하거나 우리 해군이 직접 함수에 설치한 81mm 박격포로 조명탄을 발사해 위치를 확인했다. 일단 목표물에 사격을 가한 후에는 당장 최고속도로 이탈하여야 했다.

최고속도로 이탈하는 PT정을 향해 북한군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해안포 등으로 공격을 가했는데 그런 때는 PT정의 선체에 총탄 구멍이 수십 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았다. 처음에는 PT정 선체가 마호가니 나무로 되어 있고 옥탄가 높은 항공유를 사용하는 연료탱크에 불이 금방 일어날 거라 예상하고 크게 걱정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기름탱크가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탄에 맞아 선체에 구멍은 나도 고무탱크를 뚫지 못하고 그 속에 박혀 있었다. 덕분에 6·25전쟁 기간동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T정에서 인명손실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당시 PT정의 용맹한 활약은 영국함대와의 에피소드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53년 초 해주 기습작전 중 영국 해군소령이 연락장교로 배에 같이 타고 작전을 나갔는데 해안의 적 포대에서 포탄이 날아와 영국장교의 철모를 스치고 지나갔다. 철모를 고정하지 않은 상태라 철모가 돌아가는 정도로 부상없이 지나갔지만 놀란 영국장교는 당시 정장이었던 해군소위 김용수(金龍水)에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과 위험을 무릅쓰고 작전을 하느냐"고 묻자 김용수 정장이 "This War is My War. Why Not?"이라고 대답했다. 한국해군의 용맹한 모습과 작전수행에 감동한 영국장교는 돌아가서 영국해군에 훈장을 상신했으나 당시 영국은 외국인에게 훈장을 수여한 사례가 없었다. 그래서 영국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에 직접 훈장을 주도록 외교채널을 통해 건의했고 그런 이유로 당시에 계급이 소위였던 PT정 정장들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하게 된 것이었다.

PT편대의 기습작전은 기간에 따라 해연작전[42](1952. 4. 1.~12. 31.)과 백구작전[43](1953. 1. 1.~1953. 7. 31.)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1952년 4월 19일 PT-23 및 26정이 서해안의 대청도(大靑島) 근해에서 경비하는 중에 마합도(麻蛤島)의 적 포대와 범선 수척을 발견하고 이를 로켓포로 포격하여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4월 26일에 이 PT 편대는 기린도(麒麟島) 맞은 편 해안인 옹진반도(甕津半島)의 마정리(馬丁里)에 집결한 적진에 대하여 로켓 포격을 가하였고, 27일에는 유엔 함정의 지원을 받으며 장산곶(長山串) 해안의 적 진지에 포격을 가하였다. 또한 4월 30일에 이 편대는 미 함정과 합세하여 옹진반도 일대 해안의 적진을 포격하였다. 5월 5일에 이 PT 편대는 해주만 입구의 부포리(釜浦里)에 접근하여 적의 포대와 병사(兵舍) 등의 표적에 포격을 집중하여 많은 손실을 주었으며, 다시 해주만에 접근하여 해주시의 적 보급소, 병력집결지, 포대 및 공장 등에 포격을 가하여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한편 PT-25정과 27정은 1952년 5월 23일부터 동해안의 영흥만으로 출동하여 동해안 봉쇄전대와 연합하여 원산항 봉쇄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PT편대는 호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반도(虎島半島)로부터 마양도(馬養島)와 신포(新浦)에 이르는 해안선 일대에서 적의 선박, 포대 및 보급소 등에 대하여 전격적인 기습작전을 감행하여 포격을 가하였는데, 마양도 근해에서는 적의 맹렬한 공격을 받기도 하였으나 피해는 없었다. 이 PT편대는 6월 20일 여도(麗島)로부터 양도(洋島)에 이르는 해안의 적 포대와 병력 집결지 및 선박에 대하여 공격하였는데, 적도 즉시 반격을 가해 왔다. 이 편대는 근해에 경비 중이던 유엔 함정의 지원을 받아 적에게 화력을 집중하여 막대한 손실을 주었으며, 전과로서는 소형선박 1척 격침, 1척 대파, 적 진지 6개소를 파괴하였다. PT편대의 피해는 전무하였다.

그 후 PT-25정과 27정은 10월 초순까지 여도와 양도를 중심으로 활동하여 북으로는 어대진(漁大津)에 이르기까지 북동부 해안을 봉쇄하면서 끊임없이 기습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PT편대는 미 구축함의 지원을 받으며 성진, 단천, 차호(遮湖) 및 마양도 등지의 적 포대, 철도시설 및 적 집결지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이 PT편대는 적 해안을 공격하면서 적 포대로부터 반격을 받기도 하였으나 미 구축함과 연합작전을 실시하여 뛰어난 활약을 보여 주었다.

1952년 11월 초순부터 PT편대는 다시 서해로 출동하여 영국 함정과 함께 장산곶-등산곶 사이의 해안을 봉쇄하면서 산발적으로 기습작전을 감행하였다. PT편대는 11월 15~16일에 적 병력이 이 해안에 집결하였다는 정보에 따라 영국 함정의 엄호를 받으며 기습작전을 전개하여 적진을 파괴하였다. PT편대는 또한 11월 20일에 덕동(德洞)의 해안선 700야드까지 접근하여 적의 포대와 기지를 기습공격하여 진지 5개소와 건물 3동을 파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그 이후 PT 편대는 1953년 2월 19일까지 장산곶과 옹진반도의 적 해안일대에 대한 기습공격을 계속하였다. 이 기간에 PT 편대는 대청도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FS-901정이 PT편대의 모함으로 군수지원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PT편대의 기습작전은 옹진반도 일대의 도서에 대한 적의 침공계획을 좌절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동안의 작전에서 PT대는 아무런 손실도 없이 괄목할 만한 전과를 거두었던 것이다.[4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JMS-301정 덕동전투

1) 전투전의 적정(敵情)

이 당시 월래도에 주둔 중인 동키(Donkey)부대의 첩보에 의하면 황해도(黃海道) 장연군(長淵郡) 해안면(海岸面) 덕동(德洞)에는 북한군 600여 명이 집결하였는데, 그 목적은 뒤쪽 산봉우리에 설치된 레이더를 이용하여 아군의 함정 동정을 탐지하면서 레이더 부대를 경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군은 주둔병력의 본부를 덕동에 설치하고, 해안에는 75mm 직사포 1문과 105mm 박격포 2문 외에 소총 등으로 무장하여 참호에 잠복하고 있었다. 이 레이더는 1개월 전에 설치된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위치나 기타 첩보는 미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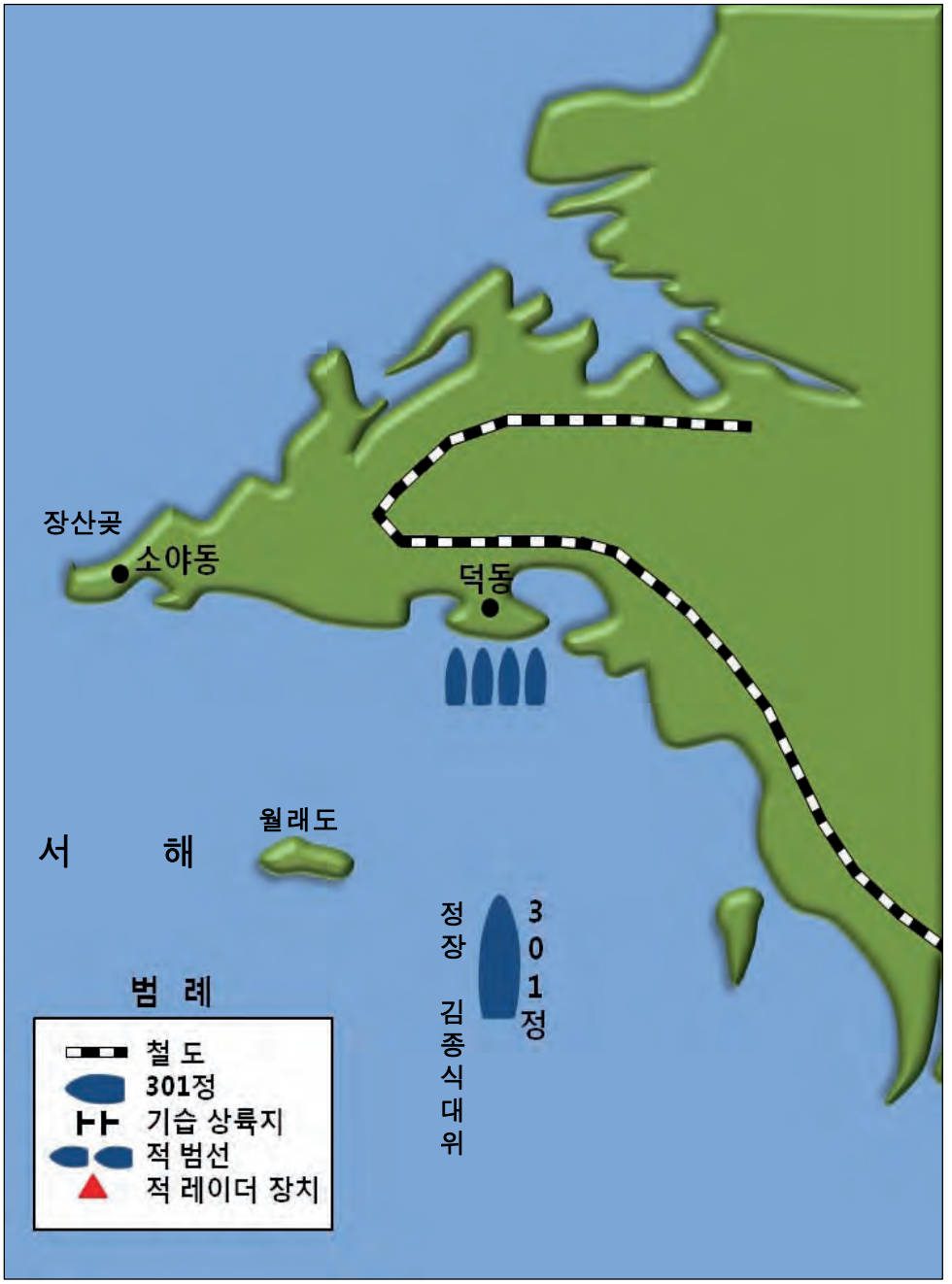
2) 전투경과의 개요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JMS-301 정장 김종식(金鍾植) 대위는 동키부대원을 상륙시켜 북한군의 레이더를 격파하기로 결심하였다. 따라서 JMS-301정은 5월 2일 01시에 동키부대원 30명을 범선 5척에 분승시켜서 덕동해안에 접안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군은 5월 1일에 중요한 작전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산중(山中)에 집결해서 해안에는 경비병이 6명밖에 없었다. 동키부대원은 이들을 사살 혹은 심문하여 레이더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중 1명은 생포하였으며 이곳에 억류되어 있던 동키부대원의 가족 26명을 구출한 뒤 03시에 무사히 철수하였다. 동키부대원이 임무를 마치고 범선으로 귀환한 후 JMS-301정은 확인된 레이더의 위치로 예상되는 산정(山頂)을 향해 포격을 실시하였다. 아군 함정의 포격이 시작되자 북한군은 당황하여 반격을 하지 못했다. 1시간에 걸친 사격을 실시한 후에 JMS-301정은 임무를 완수하고 다시 월래도 근해로 돌아와 경비를 실시하였다.

<상황도 7-1> 덕동 전투 상황



3) 전투결과

이 전투가 종료되고 이곳에서 탈출한 피난민의 진술에 의하면 아군 함정의 사격으로 북한군 40여 명이 사살되고, 레이더는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이곳에 레이더를 다시 설치하고, 병력을 증강하는 징후가 보였다.[45]

4. JMS-301정 해주만 전투

서해의 연평도(延坪島)-수압도(睡鴨島)를 경비 중인 JMS-301정은 1952년 6월 14일, 황해도(黃海道) 벽성군(碧城郡) 동강면(東江面) 석교리(石橋里)의 적진지를 격파하기 위하여 이날 06시에 유격대 200명을 범선 10척에 승선시켜 상륙작전을 개시하였다. 유격대가 석교리 해안에 상륙할 때, JMS-301정은 함포지원사격을 실시하였으며, 아군의 공격으로 북한군은 후퇴하였다. 상륙군이 유리한 전투를 전개하자 301정은 함수를 해주항내로 변침하여 이곳을 공격하였다. 해주항내에는 시멘트공장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이 있었고, 부두에는 기뢰를 부설하기 위한 정크선 5척과 기뢰 등이 산재하고 있었다.

이날 10시 30분에 301정은 시멘트 공장을 불태우고, 정크선을 모두 격파하였다. 석교리의 상륙임무를 완수한 다음 복귀하던 중에 해주 북동쪽 포천동(抱川洞) 포대에서 포격을 받았으나 손실은 없었으며, 11시에 범선을 호송하면서 연평도로 귀환하였다.

이날의 전과로는 공장 1개소 폭파, 토치카 8개소 파괴, 건물 8개소 파괴, 정크선 5척 격파, 사살 5명이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5. PC-702함 창린도 탈환작전

1) 전투전의 개황

휴전회담으로 인하여 전선(全線)이 소강상태가 되자 북한군은 서해안 일대 특히 옹진반도의 해안 각 고지에 견고한 포대를 구축하고 경비를 강화하였다.

황해도(黃海道) 옹진군(甕津郡) 동남면(東南面) 갈정리(葛頂里)에 주둔 중인 북한군은 7월 15일 02시 300여 명이 목선 20여척에 승선하여 창린도의 매보동(梅寶洞) 해안에 기습공격을 실시하여 06시에 점령하였다. 이 섬을 경비 중인 동키부대원들은 선전(善戰)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대원 20여 명만을 잔류시키고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 북한군은 기습공격에 성공하고 나서 장촌(張村)에 포진지를 구축하고 경비를 강화하였다. 동키부대는 어화도(魚化島)로 퇴각하여 전열을 재정비하였다.

2) 작전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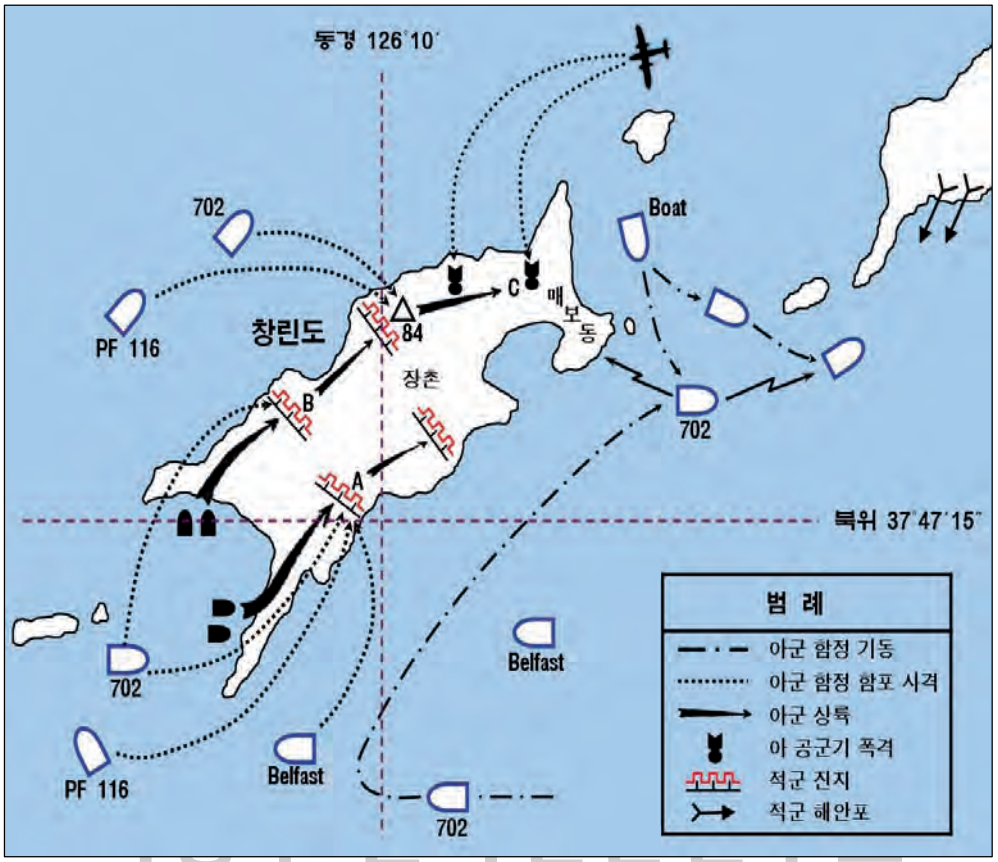
PC-702함은 CTG 95.1.2의 지시에 따라 영국함정과 연합작전으로 창린도의 탈환을 위해 15일 18시 35분에 창린도근해(37도 45분N, 125도 09분E)에서 영국함정과 계류하여 작전회의를 가졌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7월 16일 05시를 기하여 동키부대를 상륙시켜 재탈환한다.
② 7월 16일 04시 30분부터 상륙지원을 위해 장촌의 적포대에 대한 함포사격을 합동으로 실시한다.
③ 적이 퇴각할 경우에는 매보동(梅寶洞)의 퇴로 차단은 PC-702함이 담당한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각 함정과 동키부대는 16일에 있을 공격에 대비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7-2> 창린도 탈환작전



창린도에서 어화도로 철수한 동키부대는 7월 16일 04시 30분에 상륙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완전무장한 140여 명이 범선 9척, 발동선 1척에 승선하여 PC-702함의 호송 하에 창린도 남단의 상륙지로 이동하였다. 당시 풍향은 북서풍, 풍속은 1노트(knot)이었고, 파고는 0.5미터로서 함포사격이나 항공기의 작전에도 양호한 기상이었다.

PC-702함은 05시 30분에 상륙선단으로부터 사격지점으로 이동하였으며, 영국 함정은 창린도 적진지에 대하여 사격을 실시하였다. PC-702함은 05시 57분에 함포사격을 시작하였으며, 06시 30분에 상륙을 엄호하기 위한 함재기 4대의 공습이

시작되었는데 그 중 1대의 전투기는 격추되어 PF-116함이 조종사를 구출하였다. 함재기의 폭격은 주로 북한군의 후방을 강타하고, 상륙지점에는 PC-702함의 함포가 지원하여 07시 15분에는 공산군의 포화를 뚫고 동키부대는 상륙에 성공하였다.

상륙부대는 2개팀으로 분할되어 적진 A를 공략하기 위해 전진하였으며, 702함의 지원사격으로 북한군은 A를 포기하고 B로 퇴각하였다. 동키부대는 A를 확보한 시간이 09시 30분이었다. 상륙부대는 A에서 합세하여 B로 퇴각한 북한군을 추격하고 함포도 계속 B의 진지를 강타하여 10시에 B를 점령하였다. 공산군은 84고지에서 다시 반격의 기회를 노리며 참호에 은폐하고 상륙부대를 맞았는데 이날 전투 중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전이 이곳에서 전개되었다. 11시 15분, 동키부대의 공격신호로 PC-702함은 이 고지에 45분에 걸쳐 함포사격을 실시하였으며, 상륙부대는 많은 부상자를 내는 가운데 12시 35분에 84고지를 쟁취하였다.

북한군은 드디어 패잔병을 이끌고 C로 물러나 최후의 반격을 계획하였으나 14시부터 다시 시작된 함재기의 공습은 이 계획을 무산시켜 버렸다. 17시에는 동키부대에 의하여 대부분의 북한군은 사살되거나 혹은 포로가 되었다. 간부급 수십명은 창린도 북단의 해상으로 도주하다가 PC-702함이 19시 24분에 북위 37도 44분, 동경 125도 12분 해상에서 그중 4명은 포획하였고, 탈출한 병력은 수명에 불과하였다. 이때 사로잡힌 4명 중에는 북한군 수비대의 작전참모도 있었다.

이리하여 창린도 탈환의 모든 전투가 종료되었으며, 동키부대는 다시 창린도에서 주둔하며 경비를 실시하였다.

3) 전투 후의 개황

이 전투에 참가한 북한군은 야전여단 61대대로 밝혀졌으며 아군은 우세한 함포의 지원으로 북한군을 압도하였고, 아군의 손실도 적지 않았다.[4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7-4> 전투결과

전 과	손 실
사살 70명	전투기 1기 손실
생포 27명	전사 3명
병기노획 다수	부상자 20명

6. 소해작전

한국해군은 해상작전에 있어서 소해작전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소해작전세력을 재편성, 1950년 10월 23일 제1소해정대를 창설하여 동·서·남해안에 대한 본격적인 소해작전을 수행하였다.

특히 북한해군은 1951년 후반부터는 유엔해군과 한국해군에 대한 해상작전을 거부하기 위하여 주요 항만과 상륙이 예상되는 해역에 중점적으로 기뢰부설을 시작하였다. 서해안과 남해안 해역에서는 북한해군의 기뢰부설활동이 비교적 소극적이었으나 동해안 일대에서는 약 2,000개의 기뢰가 부설되어 한국해군의 해상활동을 방해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해군은 북한해역에 대해서는 더욱 다양한 종류와 많은 수의 기뢰를 부설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동해안의 원산근해와 서해안의 대동강 하류 및 백령도, 초도지역에 집중적으로 부설하였다. 이러한 기뢰정보를 입수한 한국해군은 1951년 7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적극적인 소해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각 소해함정의 출동횟수를 살펴보면 YMS-501정이 304회, 502정이 298회, 503정이 234회 등으로 총 3,000회에 달하였다.

한국해군이 기뢰를 폭발시켜서 처리한 통계를 살펴보면 1951년 7월부터 1953년 7월 정전이 될 때까지 동해안 904개, 서해안 60개, 남해안 47개로 총 1,011개였는데, 그 중에서 계류기뢰의 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MKB 기뢰였다.

1) 주요 소해작전

(1) 원산근해 해역

한국해군 소해함정 YMS-501, 502, 503, 505, 506, 507, 510, 513, 515정 등은 봉쇄작전과 경비작전을 교대로 수행하였다. 특히 원산근해 해역에서는 주로 소해작전을 전개하였는데 1952년도 1년간의 출동횟수가 가장 많았다. YMS-501정의 출동횟수는 총 211회로 가장 적극적으로 소해작전에 참가하였다. 그 결과 폭발로 처리된 기뢰의 수는 총 200개였으며, 그중 반 이상이 계류기뢰였다. 그 이후에도 북한해군이 지속적으로 원산근해 해역에 기뢰부설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한국해군은 소해된 구역에 대해서도 검색소해작전을 실시하였다.

(2) 성진, 마양도 해역

6·25전쟁 개전 이후 1951년 7월 14일까지 유엔해군은 마양도와 성진근해에 대하여 소해작전을 수행한 결과, 총 72개의 기뢰를 발견하여 처리하였다. 그래서 소해된 구역을 성진해안에서 약 1.5마일 외곽까지 확장할 수 있었고, 아 해군의 해상활동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여도근해 해역

북한해군은 전술한 바와 같이 동해안 해역에 기뢰부설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영흥만 내에 있는 여도 근해에 다수의 기뢰가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한국해군은 이 해역에 대한 소해작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약 100개를 폭발시켜 처리하였다.

(4) 진남포근해 해역

북한해군은 서해안지역에 대한 아군의 상륙작전을 두려워하여 각종의 기뢰를 부설하였다. 이에 따라 YMS-501, 502, 503 등은 특히 진남포 근해에 대한 소해작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북한해군의 기뢰부설활동이 가장 적극적인 해역은

초도인근 해역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 지역에서 북한의 육상활동을 감시, 통제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해군은 총 50여 회 이상을 출동하여 다수의 기뢰를 발견하여 폭발처리하였다. 따라서 아 해군은 안전한 해상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북한해군의 반격기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한편 대동강 하류 일대에도 소해작전이 실시되었고, 기타 백령도, 연평도, 군산, 목포 및 여수인근에서도 소해작전이 실시되었다.

2) 소해작전의 전과

<표 7-5> 소해함정별 출동일수 통계표(1951.7.1~1953.7.30)

구 분	출 동 일 수			계
	1951년도	1952년도	1953년도	
YMS-501	31	211	62	304
502		228	70	298
503	4	205	25	234
504	2	223		225
505	33	228	67	328
506	32	218	52	302
507	32	217	32	281
510	27	213	72	312
512	18	204	57	279
513	43	223	52	318
514		225		225
515		205	70	275
518		181		181
계	222	2,781	559	3,56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해군은 동·서·남해안에 기뢰를 부설하여 아군의 해상활동을 저지함으로써 아군이 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제해권에 도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수세를 일시적이나마 역전시키고자 했던 북한해군의 계획은 한국해군의 적극적인 소해활동으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47]

<표 7-6> 지역별 기뢰 폭발 통계표(1951.7.1～1953.7.30)

구 분	동해	서해	남해	계
M 26	13		1	14
M KB	209			209
M 5B	1			1
M AG	2			2
M 2,6	3			3
M DB	4			4
M TB	1			1
R MYAN	74	1		75
R 2	1			1
계류	216	18	39	273
부유	184	22	8	214
자기	11	10		21
촉각	16			16
미상	51	9		60
계	786	60	48	89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 황토도(黃土島) 전투

1)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아군 해병대	공산군
독립 제42중대장 중위 심희택(沈熙澤)	내무성직속 제25여단 1개 대대(-)
황토도 파견소대장 소위 이장원(李將遠)	

2) 전투 전의 개황

해병대는 1951년 2월 5일에 동해안에서 공산군 후방교란과 해상봉쇄작전을 수행하는 해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엄호할 목적으로 독립 제41, 제42중대를 편성하였다. 그 중에서 독립 제42중대는 2월 14일에 동해 여도(원산항 동쪽 14km)로 전개하여 3월 초까지 차례로 5개 도서(여도, 신도, 소도, 대도, 황토도)를 점령하는 한편 독립 제41중대는 4월 2일에 서해 교동도에 상륙하고 이어서 5월 7일에는 백령도(4월 23일)를 경유하여 석도까지 전개하였다.[48]

동해에서는 독립 제42중대가 영흥만의 요충지인 5개 도서를 제압하고, 이곳을 거점으로 작전을 수행하자 공산군은 이에 당황하여 황토도 대안(對岸)과 갈마반도(대도 서쪽 2.4km), 호도반도(여도 북쪽 8km) 등지에 82mm, 120mm 등 박격포를 배치하였다. 공산군은 포를 이용하여 아군함정과 해병대가 점령한 도서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여 해상으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다가 마침내 선제공격을 시작하였다.

즉, 5월 23일에 북한군 20명이 1차로 황토도를 공격하였고, 다음날에는 전마선 5척으로 100명이 2차로 기습작전을 시도하였으나, 아군 해병 1개 분대의 방어작전과 증원된 함포사격으로 격퇴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그 후 공산군은 대도-신도-황토도 대안(對岸)에 화력을 증강하고 포격만을 계속하다가 6월 이후부터 점차 전선이 교착되자 더욱 해안지역에 병력을 증파하는 등 아군의 작전활동을 견제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독립 제42중대는 10월 초부터 동원된 병력으로 1개 소대를 별도로 편성하여 점령한 영흥도 도서 중에서 계속 공산군의 침공목표로 지목되는 황토도에 급파하여 경비작전을 수행하였다.

<상황도 7-3> 원산항내 5개 도서 현황



황토도에 대한 북한군의 3차 침공이 있었던 11월 29일 야간은 풍랑이 심하였고, 칠흙같은 어둠으로 시정이 매우 불량한 날이었다. 이곳은 육·해군에서 파견된 30~40명의 첩보대원이 주로 대안(對岸)에 대한 첩보수집활동을 전개 중이었고, 민간인은 철수되어 없었다.

3)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독립 제42중대장 심희택 중위는 8월 초에 후방으로부터 병력의 증원을 받고, 공산군의 재침이 예상되는 황토도 경비부터 우선 강화하기로 결심하였다. 해군측과 협의한 다음 제1, 제3소대를 여도, 제2소대를 신도, 그리고 1개 소대를 황토도에 증원하여 경비를 강화하였다. 이에 중대는 미 해군기동함대전단장(CTG 95.2)의 작전통제 하에에 원산만에 있는 도서에 대한 경비임무를 부여받아 심중위는 10월에 각 소대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공산군은 대안(對岸)에서 병력을 증강하고 아군의 해상활동을 적극 저지하고 있으며, 또한 중대가 점령하고 있는 도서에 대하여 공격이 예상된다.
한·미 해군함정은 함포로써 계속 근해에서 북한해안에 있는 포진지와 보급품 저장소 및 기타 목표를 강타하고 있으며, 중대를 엄호 중이다.
② 중대는 여도-신도-대도-황토도를 확보하면서 해군작전과 아군의 첩보활동을 동시에 지원하려 한다.
③ 제1, 제3소대는 계속 여도를 고수하고, 신도-소도-대도-황토도에 대한 긴급출동을 준비하라.
④ 제2소대는 신도-소도-대도를 확보하고 이를 방어하라.
⑤ 황토도 파견소대는 황토도 경비를 강화하여 이를 고수하는 한편 대안으로 침투하는 첩보대의 활동을 지원하라.
⑥ 중대와 소대, 소대와 소대 간의 통신은 SCR-300로 하고, 북한군의 야간 기습이 있을 때는 적색 신호탄 3발로 전파하라.
⑦ 중대장은 여도에서 제1소대, 제3소대를 직접 지휘할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⑵ 작전실시

북한군은 5월 중에 전후 2차에 걸친 야간공격을 하였고, 11월 29일에는 제3차의 기습공격을 하여 이곳을 경비하는 황토도파견소대와의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이날 01시 30분에 안변군(安邊郡) 낭성리(浪城里)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측되는 북한 제25여단 소속 일부병력(150명)은 목선 5척에 분승하여 황토도 남동쪽 100m 근해까지 은밀하게 접근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발사한 조명신호로 낭성리(浪城里)-갈마반도(葛麻半島)-성북리(城北里)로부터는 120mm, 75mm, 중화기 등 사격을 황토도에 아군 진지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북한군의 엄호사격으로 황토도 남동단 지역에 기습상륙을 시도하였다.

황토도파견소대(소대장 이장원 소위) 제1분대는 어둠으로 시정이 불량하여 이러한 북한군의 의도를 조기에 간파하지 못하였으나, 돌격 상륙신호로 판단되는 청색신호탄이 50m 해상에서 발사되는 것을 발견하고 공격을 인지하게 되었다.

분대장은 그들의 예상 상륙해안에 소총사격을 집중하여 접안을 견제하고 뒤이어 소대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소대장 이장원 소위는 1차적으로 진지순찰을 하고, 01시부터 2차 순찰을 하면서 제1, 2분대 중간지점에서 소대의 야간 배비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제1분대로부터 북한군의 공격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를 황토도를 점령하려는 계획적인 기습으로 단정하고, 선임하사 백남산(白南山) 이등병조와 같이 제1분대 진지로 이동하였다.

제1분대 진지에 도착한 소대장은 우선 적정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야음에 은폐된 북한군의 병력수를 갈음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공산군은 이때에 이미 상륙을 완료하고 지원사격을 기다리면서 전열을 정비하고 있었다.

당시 소대의 황토도 배비상황은 제1분대가 남동지역해안 방어를 담당하고 제2분대가 남서단지역, 제3분대가 갈마반도를 직시할 수 있는 북서단지역에 각기 분산되어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소대는 예비대를 보유하지 못한 채로 어느 분대를 증원할 수도 없었는데 특히 야간방어에 취약점이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산군의 포대가 아군진지에 대하여 사격을 하고, 이와 동시에 상륙한 병력이 진지로 공격을 감행하자 소대장은 분대원들에게 사격을 지시하였으며, 진지사수를 명령하고 곧이어 중대장에게 무전으로 긴급보고를 하였다.

이렇듯 소수의 병력으로 북한군과 교전하게 된 제1분대가 소대장 직접지휘 하에 분전하는 동안 또 다른 북한군은 목선 2척으로 제2분대 진지가 있는 동쪽해안에 접안하여 상륙을 시도하였다.

제2분대가 보낸 연락병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소대장은 선임하사 백남산 이등병조를 제2분대 진지로 보내어 전투를 지휘하게 하였다. 따라서 황토도 소대는 2개 지역에서 동시에 공산군과 분전하고 있었다.

한편 여도(황토도 북쪽 9.2km) CP에서 황토도의 피습상황을 보고받은 중대장 심희택 중위는 즉각 미 함대에 상황을 통보하고, 함포지원과 LCVP(상륙주정)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제1소대, 제3소대에서 차출된 병력으로 하여금 황토도 북안(北岸)에 상륙을 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황토도 주변 해안에 기뢰가 부설되어 있었고, 풍랑이 심한 관계로 LCVP의 운항이 곤란하여 미 해군으로부터 즉각적인 지원이 불가하였다.

이와 같이 아군상황이 황토도파견소대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동안 제1분대, 제2분대는 북한군과의 전투가 계속되었다. 유일한 교신수단인 무전기는 적탄에 파괴되어 본대와의 교신마저 두절되고 황토도 서안에 있는 막사에 적탄이 명중되어 화염에 휩싸였다.

제2분대 진지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백남산 이등병조는 전투가 치열해지자 북한군의 공격을 차단하고 섬멸하기 위해서는 현진지의 고수방어보다는 소대 합동에 의한 제2선 배비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을 소대장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이동하다가 적탄에 의해 산화하였는데 이로 인해 분대지휘는 다시 분대장에게 귀속되었다.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되고 30분이 경과한 02시에 제1분대 진지에서 공방전을 지휘하던 소대장은 제2분대가 보낸 전령으로부터 그곳의 상황을 보고받고 병력집중으로 최후의 타격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본대와도 교신이 불가능하고 북한군의 침략에 대비한 함포사격 등 지원사격의 미흡으로 해안에서 격멸하지 못한 채 소대는 고지 8부 능선을 따라 준비된 예비진지로 이동하였다. 반면 북한군은 양개 상륙지점으로부터 고지남단에서 합세하고, 그들의 지원사격으로 재 공격을 시작하였다.

소대는 최후의 거점을 우세한 북한군을 격퇴하려고 하였으나 북한군의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야간 전투는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소대장은 소대원을 침체된 사기를 회복하기 위해 전투의지를 독려하고 있었는데, 적지에서 발사된 75mm 포탄으로 추측되는 적탄에 제2분대장 조영근(趙永根) 일등수병 등 3명과 더불어 장렬히 전사하였다.

적군의 포화가 약화되기 시작한 02시 40분, 선임인 제1분대장은 제3분대장과 협조하여 사활을 건 반격을 감행하기로 하였다. 먼저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적진을 향해 돌격을 실시하였다.

황토도를 기습으로 점령하려던 북한군은 아군의 강력한 반격작전으로 해안선상에서 교착되어 전진하지 못하게 되자 제1상륙지점으로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공산군의 동요가 시작되면서 소대는 사기를 회복하고 각개 약진으로 사각지역 해안을 수색하여 북한군 5명을 사살하고, 계속 해안선을 따라 수색작전을 계속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군은 마침내 해상 퇴로가 차단될 것과 아군의 반격을 더 이상 막아낼 수가 없음을 인지하고, 일부병력으로써 주력을 엄호하면서 동쪽 해안으로 퇴각하였다. 결국 03시 15분, 미리 배치하였던 목선을 타고 해상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북한군은 여명(黎明)시에 황토도를 간신히 탈출하는데 성공하였으나, 3차에 걸친 기습작전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후에 더 이상의 공격이 없던 것으로 보아 북한군은 황토도 공격작전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투가 있은 다음에도 소대는 해상상태가 불량하여 중대와의 연락이 끊겼고, 만 3일 후인 12월 3일에 중대가 파견한 LCVP에 의하여 연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소대는 북한군 15명을 사살하고, 적선 2척을 나포하였으며, 손실로는 전사 7명, 부상 4명(중상 2명, 경상 2명), 소총파손 14정, 막사소실 3동이었다.

4) 전투 후의 개황

북한군은 3차의 걸친 침공에 실패한 다음부터 황토도에 대한 병력 투입 등 직접적인 공격작전은 없었다. 다만 점차적으로 영흥만 일대 해안방어에 병력을 증원하는 한편 포대를 증설하고 도서에 대한 포격을 강화하였다.

즉, 해병대의 원산항 봉쇄선상의 요충지인 황토도 등 도서점령에 자극되어 51년 말부터 상륙방어전의 일환책으로 고원(高原)-문평(文坪)을 경계로 남쪽은 북한 제2군단 예하 3개 사단(제2사단, 제13사단, 제27사단)과 이에 배속된 제25여단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북쪽은 단천까지를 경계구역으로 북한 제5군단 예하 3개 사단(제6사단, 제12사단, 제46사단)과 제20포병여단, 제22포병여단 및 1개 포병여단이 이에 배속되어 중공군과 합동하여 해안경비를 강화하면서 아군의 함정을 공격하고 해안봉쇄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

한편 해병도서부대가 1952년 1월 5일에 동·서해 점령 도서의 경비강화를 목적으로 신편(新編)되어 발족되었다. 그래서 독립 제42중대는 성진 앞 양도를 점령한 독립 제43중대와 같이 해병 제8대대에 편입되어 계속 여도를 중심으로 도서경비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제8대대는 원산 앞 도서 가운데 신편 이전에 배비가 없었던 대도(여도 북쪽), 사도(호도반도 남쪽), 모도(호도반도 남쪽 사도 인접도서)의 3개 도서를 추가로 점령하게 되어 양도까지 합쳐 모두 9개에 달하였다.

그 후 제8대대는 1952년 10월 1일에 동해부대로 개편됨에 따라 그 예하의 부대호칭을 여도부대, 대도부대, 신도부대, 모도부대, 사도부대, 황토도부대, 양도부대로 개칭되었다. 이들은 휴전까지 북한군 해상보급의 차단과 도서경비를 계속 수행하고 아울러 대안(對岸)인 적지침투활동을 전개하다가 1953년 7월 27일 모든 진지를 파괴하고 철수하였다.[4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8. 양도(洋島) 전투

1)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아군 해병대	공산군
제8대대 제43중대장 중위 최청송(崔靑松)	북한 독립 제63연대 특별대대장 중좌 지영무(池英武)

2) 전투 전의 개황

독립 제41중대, 제42중대가 동·서해 도서로 전개하게 되자 병력을 증원하고 도서방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편된 부대가 독립 제43중대였다.[50]

중대는 1951년 8월 29일, 동해에서 해안봉쇄선의 연장을 위한 해군측 요청으로 길주(吉州)와 명천(明川)의 2개군(郡)에 접한 2개의 양도(길주양도, 명천양도)에 상륙하였다. 주력으로 길주양도를 점령하는 동시에 일부 병력으로 명천양도를 장악하고 그 남쪽 강후이도(江厚耳島)는 암석으로 형성된 무인도이므로 수시로 정찰만을 하였다.[51]

양도 대안(對岸)인 명천군 상가면(上加面) 일대는 처음 북한 1개 중대 규모의 병력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우리 중대가 상륙한 다음부터는 월북한 배무원(裵武源, 前 대대장)이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독립 제63보병연대가 성진-청진 해안의 경계를 전담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 특히 양도를 거점으로 아군의 해군 활동이 점차로 강화되자 그들은 이에 대한 조치로 대안에 120mm, 75mm, 105mm 등 포진지를 구축하고 중대 진지에 대한 포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전선 최북단에 배치된 선봉으로서 긍지와 왕성한 사기를 견지하고 북한군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그 포진지를 우군 함정에 통보하여 함포로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강타하게 하였으나 그들은 지속적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대는 중동부 전선에서 싸우는 해병 제1연대의 병력 충원을 우선하기로 한 사령부 방침이 있었다. 따라서 중대장과 선임장교를 제외한 전 장교가 후임자 없이 전보되어 그 보직을 임시로 하사관들이 대리하게 되었다. 1952년 1월 5일에는 동해안 도서 경비의 강화를 위해 증편된 제8대대에 편입되었으나 여도(원산 북쪽)에 본부를 둔 대대와 원거리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적인 성격을 계속 유지하였다.

3)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해병 독립 제43중대는 2개의 양도를 동시에 점령하고 나서 북한군의 침공에 대비하여 지형과 예상 침투로 등을 고려한 결과 제2소대, 제3소대를 길주양도, 그리고 제1소대를 명천양도에 배치하고 각기 해안선을 따라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와 같은 중대의 배비는 양도가 대안으로부터 3,650m 거리에 있어 북한군이 기습작전을 실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대장은 이와 같은 이유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선의 교착을 틈타서 대안의 북한군이 병력을 이동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중대장은 1951년 12월 초에 각 소대장 대리 하사관을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미 해군은 중대의 도서 방어를 직접 지원할 것이며, 함포지원 사격은 요청에 따라 즉각 제공될 것이다.
② 중대는 길주, 명천의 2개 양도를 계속 점령하고 이를 고수하려 한다.
③ 제1소대는 명천양도 서안(西岸)을 제외한 나머지 해안에 진지를 구축하고 사수하라.

④ 제2소대는 길주양도의 북서쪽 해안에 진지를 점령하라.
⑤ 제3소대는 길주양도 서·북안(西·北岸)을 점령하여 제2소대와 협조된 진지를 편성하라.
⑥ 화기소대는 각 소대에 1개반씩을 배속하라.
⑦ 박격포반은 중대를 일반지원 하라.
⑧ 각 소대는 북한군 상륙 예상 해안에 철조망 및 해중(海中) 장애물을 설치하라.
⑨ 탄약 및 식량은 중대에서 추진 보급될 것이다. 축성 자재는 청구에 따라 직접미 함대에서 지급될 것이다.
⑩ 중대본부 및 제2소대, 제3소대 간의 통신은 유선으로 하고, 중대와 제1소대 간의 통신은 무선을 사용하라.

⑵ 작전실시

양도대안에 있는 북한 독립 제63보병연대(연대장, 대좌 배무원)의 특별대대(대대장, 중좌 지영무)는 2월 20일, 해병 독립 제43중대(중대장, 최청송 중위)가 경비중인 2개의 양도에 대하여 목선(어선) 52척과 발동선 2척으로 기습함으로써 전투가 개시되었다. 북한군은 2월 21일 01시, 대안진지로부터 105mm와 120mm(각 3문 추정) 포 사격을 일제히 길주양도에 집중하였다. 이에 엄호된 2개조의 침공부대는 길주 및 명천양도에 상륙을 시도하였다.

중대장 최청송 중위는 북한군의 포격이 시작되자 즉시 각 소대에 전원 비상배치로써 임전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하였다.

북한군은 01시 40분, 그들의 계획에 따라 편승한 선박으로 길주양도 북쪽에 상륙하면서 아군 제3소대 소속 동초 1명을 사살하였다. 이보다 앞서 북한군은 2척의 발동선을 명천양도 북안(北岸)에서 양공작전(陽功作戰)으로 상륙을 시도하였다. 아군 제1소대는 침입하는 적선의 발동소리로 거리를 측정하고 화력을 집중하여 선박을 격파하였으나, 또 다른 상륙부대가 동쪽의 해안으로 우회하여 상륙하는 것은 간파하지 못하였다.

길주양도에 상륙하고 해안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 북한군의 제1조(장교 11명, 사병 78명)는 아군의 주력이 70고지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력으로 공격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동일한 시간에 명천양도 동쪽 해안을 목표로 아군의 저항없이 상륙에 성공한 제2조(장교 6명, 사병 60명)는 47고지의 정상을 향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두 곳의 고지는 북한군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당시에 중대의 배치 상황은 한정된 병력으로 전 해안선을 따라 중요한 지역에만 진지를 구축하였다. 진지 상호 간은 참호로써 연결하여 전면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비교적 수심이 얕아 소형선박이 기습하기에 용이한 해안에는 철조망으로 장애물을 가설하여 이를 봉쇄하고 거점과 거점사이에는 동초로써 경계하였다.

당시 양도에는 육, 해군에서 파견된 첩보부대가 중대의 경호 하에 활동 중이었는데, 그 수는 총 30~50명이었고, 주민수는 100명 내외였다. 주민의 대부분은 노약자와 부녀자들로 영세 어업을 하고 있었는데, 해병들이 진주한 이후 주민들은 전적으로 구호양곡과 구호물자에 의존하고 있었다.

(가) 길주양도 전투

길주 주둔부대가 해안 사주진지를 사수하면서 북한군에게 길주양도 중앙지역에 있는 70고지를 빼앗긴 것은 야간이었기 때문에 경계상의 허점이 많았던 관계로, 북한군이 그 허점을 찌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커다란 교전없이 순식간에 70고지를 점령한 북한군은 02시 20분에 고지 남동쪽 능선에 가설된 통신선을 절단하였다.

이 참호에는 2인 1조가 되어 근무 중인 최홍구(崔洪九) 일병 외 1명의 통신병이 있었으나, 이들은 북한군의 기습이 시작되자 준비된 등화관제와 소음통제를 실시한 다음 계속 폭주하는 교환업무 처리에 전념하고 있었다.

북한군은 참호를 발견하고 나서 먼저 주위에 위협사격을 실시하고, 창문으로 수류탄 2발을 연속으로 투입하였다. 이로써 최일병이 부상당하고, 교환대는 대파되었으며, 당번마저 중상을 입어 통신교환 임무는 마비되었다.

한편 중대장 최청송 중위는 전투상황을 분석한 결과, 북한군의 야간기습상륙은 성공하였으나, 그 후의 행동은 여의치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군이 새벽까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진지를 고수한다면 북한군의 격멸은 시간문제라고 판단하고 각 소대장들에게 차후의 작전을 지시하였다.

새벽이 되어 관측이 가능하게 되자 중대장은 07시에 제2소대장 및 제3소대장에게 70고지에 있는 북한군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양 소대는 일제히 사주진지에서 반격하여 81mm 및 60mm 박격포와 8″함포의 제압 및 지원사격을 고지일대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아군의 포화가 북한군을 공격하는 동안 엄호된 중대(-)는 제2소대가 동쪽에서, 제3소대는 서쪽에서 각각 70고지 8부능선에 진입하였다. 따라서 중대장은 포사격의 중지를 명령하고, 고지를 향해 돌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반격으로 진격상황이 부진하게 되자 중대장은 선두분대의 진격을 보류하고 8부 능선에서 병력을 재정비시켰다. 그리고 적진과 불과 650m 거리에 있는 박격포 반장대리 정진영(鄭鎭暎) 이등병조에게 제압사격을 명령하였다.

적진이 침묵에 빠지면서 중대(-)는 포격을 중지하는 즉시 10시에 대기선에서 일제히 70고지로 공격을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고지에서 6명을 사로 잡았고, 83구의 북한군 시체를 발견하였다.

아군의 공격으로 10시 40분, 70고지는 마침내 중대의 수중에 들어와서 9시간의 걸친 전투는 종료되었다. 포로가 된 북한군 대대장 지영무는 양도를 기습하기 위하여 부녕군(富寧郡)에서 1개월 동안 상륙작전의 특수훈련을 받았고, 다시 나진(羅津) 해안에서 9일간 모의훈련과 사격훈련을 받은 다음 1952년 2월 18일 양도 대안인 명천군(明川郡) 하가면(下加面) 용포동(龍浦洞)에서 야간 기습작전을 준비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예비선박의 지원이 없어 퇴로가 차단되자 길주양도 기습에 참가하였던 정치 장교는 선박이 없어도 수영으로 철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혼자서 해안으로 탈출하다가 아군에 의해 사살되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나) 명천양도 전투

길주양도와 거의 같은 시각에 명천양도를 점령한 북한군은 이곳 출신으로 지리에 밝은 첩보원의 안내를 받아 남쪽 해안 마을에 잠입하였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해병들의 성명을 파악하여 이름을 부르면서 진지주위를 배회하였다.

이들은 아군 진지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우로 가장하고 유인하려는 것이었는데 해병들은 진지의 소재를 끝까지 은폐하였다. 따라서 북한군은 아군진지의 파악과 배비 상황에 어두워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마을에서 100m 거리에 있던 제2분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황이 불리하게 됨을 인지하고, 소대장 대리에게 제3분대와 합세하기를 건의하였다. 따라서 소대장은 반격을 준비하기 위하여 부대를 이동시켰다.

북한군에게 발각되지 않고 서쪽으로 옮긴 분대는 곧 제3분대와 합세하여 소대 탄약고가 있는 동쪽 50m까지 이동하여 진지를 점령하였다. 제1분대는 소대본부와 같이 동쪽 해안진지로부터 이동하여 소대본부 남쪽 고지에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와 같이 명천양도를 침공한 북한군을 남북에서 협공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군은 아군 진지에 대한 탐색을 못하여 47고지와 그 주위 지역에 배치되었다. 그 후 단지 소수 병력으로 남북방향으로 정찰활동을 하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때 제1소대의 각 분대는 북한군의 정찰병이 시야에 들어오자 일발필중의 사격으로 이들을 사살하였다.

그리하여 북한군은 침공 이후 3시간 만에 모든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북한군은 47고지 북쪽 해안 의무실에서 입실치료 중인 환자 2명을 납치한 다음 05시 20분에 마침내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일부 병력의 엄호를 받아 당초 상륙하였던 해안에 집결하여 목선(범선)에 승선하여 명천양도에서 퇴각하고 있었다.

소대장(李永德 병조장)은 북한군의 철수 징후가 보이자 중대에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05시 30분에 제1분대, 제2분대, 제3분대에게 남북으로부터 일제히 47고지에 대한 공격 지시를 하였다.

소대가 고지에 진입할 때는 북한군은 이미 동쪽 해안으로 이동하여 해상으로 철수 중이었기 때문에 일부 병력으로 고지 일대를 탐색케 하였다. 이후 주력으로 해안선 100m 근해를 따라 북상하는 북한군 선단에 대한 전 화력을 집중하였다. 이 사격으로 소대는 05시 40분에 13척의 범선을 격침시켰으며, 잔여 범선도 출동한 아군 구축함에 포착되어 전멸을 당하였다.

이리하여 명천양도를 기습한 북한군은 1명도 생환하지 못했으며, 06시에는 47고지를 다시 아군이 확보하게 되었다.

<표 7-7> 양도전투 전과/손실 현황

전 과	손 실
사살 : 83명(장교 10명 포함 시체확인)	전사 : 8명
침몰익사 : 73명	부상 : 2명
포로 : 14명(선원 6명 포함)	M1 소총 파손 7정
발동선 격침 : 2척	통신교환대 파손 1대
범선 격침 : 13척	전화기 파손 4대
포획	
60mm 박격포 3문	
경기관총 7정	
다발총 21정	
소 총 41정	
권 총 5정	
통신기 1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다) 전투결과

2개 조로 나누어 길주 및 명천양도를 침공한 북한군은 아군 중대의 선전으로 모두 전멸되었는데 여기에서 아군이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4) 전투 후의 개황

이 전투가 있게 되자 대안의 북한 독립 제63보병연대는 제22포여단의 증원을 받으면서 연안에 포대를 구축하고, 2개의 양도 근해를 항해하는 아군 함정에 대하여 포격하는 소극적인 태세를 취하였다.

중대는 도서부대 개편 명령 제43호(1952년 10월 1일)로 '동해부대'로 개칭됨에 따라 '양도부대'로 개칭되어 휴전까지 계속 미 해군과의 협조 하에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52]

9. 호도(胡島) 전투

1)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아군 해병대	공산군
해병도서부대 제7대대장 소령 민용식(閔容植)	북한 제6군단 소속 1개 중대(단대호미상)
호도파견소대장 소위 정형모(鄭炯模)	

2) 전투 전의 개황

해병대는 1951년 1월 14일 독립 제42중대를 동해 여도로 배치시켰는데, 4월 2일에는 독립 제41중대를 서해 교동도(강화도 서쪽 0.5km)에 전개시키고, 축차적

으로 백아도-석도(진남포 서쪽 30km)로 이동시키고 서해에서 도서작전의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의 피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적군의 상황 : 독립 제41중대가 1951년 5월 7일 석도를 점령하고 이를 거점으로 활동을 전개하자 북한 제6군단과 중공군 병력으로 서해안 경비를 강화하였다. 특히 석도와 인접한 장연(長淵)-은율(殷栗)-송화(松禾)-용강(龍岡) 일대 해안지역에는 사단규모의 병력을 배비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공산군의 동향은 예상되는 아군의 대규모 상륙작전과 중대의 해안기습 활동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판단되었다.

더구나 1951년 말 피아의 전선이 교착상태에 이르자 공산군은 그들 예비병력을 해안방어에 증원하고, 경비를 강화하였다. 특히 석도 대안(對岸)인 서포리(西浦里)반도-월사리(月沙里)반도에는 2개 연대 병력을 투입하여 공세적 방어작전을 수행하려는 의도가 포착되었다.

아군의 상황 : 공산군의 활동을 고려할 때 적지의 해안봉쇄를 위한 도서작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점령도서에 대한 경비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해병대는 독립 제42중대, 제43중대를 제8대대로, 석도에 진주한 독립 제41중대를 제7대대로 증편하고, 제9대대와 부대본부 및 직할근무중대를 신규로 편성하였다.

진해 신병훈련소에서 제9대대와 본부 및 근무중대, 그리고 75mm 무반동총소대, 의무중대와 보급 및 수송중대의 편성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제7대대, 제8대대를 제외한 1,250명은『도서이동명령 제1호』(1월 15일) 및『도서작명 제1호』(1월 15일)에 의거 1월 16일 LST 803호에 탑승하여 18일에는 연평도를 점령하였다. 제9대대(대대장, 민용식 대위)의 제91중대, 제94중대와 대대본부를 이곳에 배치하고, 20일에는 백령도로 이동하여 부대본부를 진촌리(鎭村里)에 설치하고, 제9대대의 제92중대로써 경비토록 하였다.

또한 22일에는 초도(백령도 북쪽 60km)로 이동하여 최종적으로 제9대대 제93중대를 이곳에 배치하고, 석도 주둔 제7대대(대대장, 김동준 소령)에 배속하였다. 당시 연평도에는 김포에서 작전 중인 제5대대의 1개 소대가 경비하고 있었으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백령도에는 제6대대의 일부병력이 아군 유격대와 합동으로 경비하였고, 초도에는 석도의 제7대대에서 차출한 제71중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호도전투와 관련이 있는 석도에는 제7대대의 3개 중대(제72중대, 제73중대, 제74중대)가 사주에 진지를 점령하고, 소수병력을 호도(석도 남쪽 2km)에 잠복시켜 대안인 월사리 반도의 적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러나 1월 30일 이후 호도에 대한 공산군의 도발이 점증됨으로써 대대 역시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산군의 침공으로 전투가 벌어진 호도는 450m의 작은 섬으로 2개의 고지대로 형성된 무인도이며, 식수가 없어서 용수는 전량 석도로부터 공급되었고, 대안 월사리반도와는 450m의 거리에 있었다.

3)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도서부대장 김두환 대령은 제7대대장으로부터『호도에 적의 포격이 1월 30일을 기하여 연일 실시되고 더구나 다음날과 2월 3일에는 상륙을 기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적선이 출현하였으나 함포지원으로 이를 격퇴하였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호도경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해기동함대사령관(CTF 95) 다이어(G. C. Dyer) 소장과 협의한 후 2월 13일에 다음과 같은 명령 제4호를 제7대대장에게 하달하였다.

① 부대는 계속 북한에 대한 해안봉쇄와 해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호도에 병력을 증파하고 경비를 강화하려 한다.
② 대대장은 증강된 1개 소대를 호도에 파견하고, 이를 고수하는 동시에 대안(對岸)의 적정을 감시하라.
③ 호도에 병력을 파견하는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하라.

대대장 김동준 소령은 명령을 받고나서 당일 야간을 이용하여 호도에 병력을 진입시키기로 결심하였다. 따라서 석도에 배치되어 있는 3개 중대에서 3개 소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병력을 차출하여 2월 13일 22시에 미 로켓함의 지원사격으로 범선 2척에 승선하여 호도상륙을 감행하였다.

그 뒤 대대장은 배치된 소대로 호도를 계속 경비하게 하다가 3월 12일에는 정형모(鄭炯模) 소위가 지휘하는 1개 소대를 다시 편성하고, 1차로 파견된 소대와 경비임무를 교대하였다.

이들은 2월 14일, 부대본부에서 파견된 공병소대장이 지휘하는 공병 1개 분대의 지원으로 공산군 예상 상륙해안에 72개의 대인 지뢰를 매설하였고, 철조망 30권으로 장매물공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하여 호도파견소대의 대기선으로 범선 2척이 배치되었으나, 23일 심한 비바람으로 인하여 파손됨에 따라 24일 석도부대에서 대체 대기선으로 1척의 범선이 다시 재배치되었다.

따라서 소대는 할당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을 2개 분대병력으로 점령케 하였다. 또한 월사리반도를 겨냥하는 남안(南岸)에 로켓포 1문과 중기관총 1정 및 경기관총 2정을 거치하였고, 제1지역 중앙에 60mm 박격포로 제압사격을 준비하였다. 잔여 1개 분대 병력은 제2지역을 배치하였다.

⑵ 작전실시

공산군은 3월 25일 10시 30분에 서해리(西海里) 반도(은율 북쪽 17km 일대)에서 도서부대의 제7대대(-)가 경비하는 석도에 대하여 총 30발의 포격을 실시하였다. 20시 10분부터 20시 30분까지에는 월사리 반도 및 서해리 반도로부터 석도와 호도에 105mm, 76mm, 82mm 등 중화기의 집중사격을 감행하였으며, 다시 22시 50분부터 호도에 대하여 사격을 집중하였다. 이와 동시에 160명으로 추산되는 북한군은 4척의 목선에 분승하여 호도를 기습하기 시작하였다.

(가) 호도상황

22시 55분에 호도파견소대장 정형모 소위는 호도 서쪽 해상 50m 전방에서 접근하는 적선 4척을 발견하고, 전 소대원에게 이 상황을 전파하였으며, 즉시 적선 상륙방향에 배치된 1개 분대에게 사격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제1지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체를 공격하고 있던 포격으로 인하여 소대의 대응태세는 신속하게 될 수 없었다.

소대장은 SCR-300으로 석도대대 본부에 전투상황을 보고하고, 상황파악을 위하여 제일선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때 무전기가 적탄에 맞아 파손되었다. 유격대(OK부대)에서 지원한 GRC 무전기 역시 파괴되어 대대와의 통신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대본부는 호도파견소대의 전황을 알 수가 없게 되었다.

북한군은 23시경 A지점에서 분리하여 소대 배치가 없는 B지점에 상륙하여, 소대 배후인 60고지로 공격하였고, 또 다른 병력은 지뢰지대를 회피하여 C지점에 돌격상륙하면서 아군 소대를 남북에서 협공하였다. 이런 상황 하에서 소대는 전투경험이 없는 제12기 신병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소대장 정형모 소위는 위기상황을 직감하고 제1지역에서 제2지역으로 철수를 결정하고, 제2지역에서 반격을 결심하였다. 23시 15분, 제2지역에 집결된 인원은 총 20명에 불과하여, 나머지 병력은 산화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소대가 제1지역에서 제2지역으로 이동하여 진지를 준비하는 동안 제1지역을 점령한 북한군은 제2지역에 대하여 포사격을 집중하였다. 이때 소대장은 제1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킨 중기관총 1정으로 인민군의 제2지역으로의 공격을 저지하는 한편 대대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2명의 대원을 지정, 대기선편으로 보내려 하였다. 그런데 제2지역 북안(北岸)에 정박하고 있던 대기선은 적탄에 이미 대파되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후 소대진지에는 적포화가 집중되어 중기관총이 파손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소대장 이하 생존자 8명은 본대로부터 반격이 있을 때까지 버티기로 결심하고, 각개분산하여 제2지역 북쪽 암석사이에 잠복하고 대대로부터의 구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 석도상황

이날 주간에 대대(-)는 전임 대대장 김동준 소령과 신임 대대장 민용식(閔容植) 소령과의 임무교대가 있었는데, 야간상황은 민소령 책임 하에 수행되었다. 대대장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호도파견소대장으로부터 22시 55분에 인민군의 침입보고를 받고, 우선 조명탄(81mm박격포) 수발을 호도 남안지대 상공에 발사하여 전투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후 호도의 통신두절로 상황을 알 수 없게 되자 조명사격을 중지하였다.

대대는 곧 호도파견소대를 지원하고 침입한 북한군을 역습으로 격멸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여 2개 소대에게 출동태세를 지시하고, 부대장 김두찬(金斗燦) 대령에게 호도상황을 보고하였으며, 역습에 필요한 선박과 함포지원을 긴급 요청하였다. 이는 당시 대대(-)가 보유하고 있던 선박은 범선 1척뿐이었고, 또한 인근해역에서 활동 중인 해군함정은 없었기 때문에 상급부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석도로부터 긴급보고를 받은 부대장은 호도파견소대를 지원하고 인민군을 역습으로 격퇴하려는 대대장의 계획을 승인하고, 즉시 미 해병대 서해사령관 펜 포드(Pen Ford) 대령에게 상륙주정 및 함포지원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그러나 우군 해군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함정 동원이 가능하고, 야간역습은 위험성이 동반됨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대대(-)는 3월 26일, 호도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상황이 불투명하고, 즉각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호도는 이미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되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대대장은 09시 헬리콥터편으로 백령도에서 도착한 도서부대장에게 호도상황을 상세히 보고하였다. 부대장은 적정파악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고 야간을 이용하여 호도상황을 정찰하도록 지시하였다.

대대는 1개의 정찰조를 편성하여 20시 30분에 범선 1척으로 호도 제2지역 서쪽에 있는 무인도 근해에 도착하였다. 대원 1명을 호도에 잠복시켜 적정 수집을 지시하고, 잔여대원은 범선과 함께 해상 100m 거리에서 대기하였다.

이날 해군의 상황은 PC-703함(CTU 95.7.1)이 기린도(백령도 남동쪽 30km) 근해, JMS-313정이 백령도근해, 302정이 초도근해, 그리고 309정이 교동도 근해에서 각기 CTU의 작전지휘 하에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309정은 3월 25일, 해병대가 월사리 반도의 인민군과 교전 중이라는 전문을 접하는 즉시 석도근해로 이동하였으나, 북한군으로부터 야포 및 기타 중화기의 집중공격을 받았다. 이에 CTU 95.1.2은 퇴각을 명령하여 해병대를 지원할 수가 없었다.

호도에 잠복하여 적정을 수집한 정찰조는 3월 27일 05시에 석도로 안전하게 귀대하였다. 이들이 수집한 적정으로는 60명으로 추산되는 인민군이 호도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대대는 적정을 재확인을 하기 위하여 20시에 3명을 일조로 하여 호도 제2지역 북안에 은밀하게 잠입시도를 하였다. 23시 30분에 북쪽 해안에 상륙한 이들은 인민군 60명, 경기관총 4정 다발총 및 러시아식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경비 중인 북한군과 조우하여 교전이 벌어짐으로써 대기 중인 범선으로 철수하여 석도로 귀대하였다.

2차에 걸친 수집된 정보를 근거하여 대대는 반격으로 인민군을 격멸하고 호도를 탈환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였다. 3월 28일 11시 백령도로부터 3척의 발동선이 도착하자 대대장은 1개 소대규모 병력으로 항공지원 하에 인민군을 격멸하고, 호도를 재탈환할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을 입안하였으며, 필요한 시간에 항공지원을 CTF 95에 요청하여 항공지원의 확답을 받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① 대대는 3월 29일 09시를 기하여 호도를 공격 이를 탈취하려 한다.
② 작전장교는 1개소대 규모의 전투정찰대를 공격개시 12시간 전까지 편성완료하고, 한영운(韓永雲) 중위 지휘 하에 호도공격을 준비한다.
③ 전투정찰대장은 3월 29일 08시까지 발동선 2척에 병력을 분할탑승시켜 공격 30분 전에 석도로부터 출동하여 호도로 향하고 제2지역에 상륙한다. 호도점령과 동시에 전장을 수습하고, 의명 철수한다.
④ 제72중대장은 석도에서 전투정찰대가 호도로부터 출동하는 동안 배속된 75mm 무반동총 및 81mm 박격포, 그리고 중기관총 사격으로 이를 엄호한다.
⑤ 항공폭격은 공격개시 30분전부터 월사리 반도와 호도 제1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공격개시 10분 이후에는 목표지역을 월사리 반도 일대와 대안 지역으로 확대한다.

한영운 중위가 지휘하는 1개 소대병력은 3월 29일 08시에 3척의 발동선에 분승하고, 선수에는 각 1정의 중기관총을 장착하여 석도 소하동(笑荷洞) 해안으로부터 출동하였다. 이 때 출격한 미 전폭기 4대는 월사리 반도와 호도 제1지역에 대하여 공격을 실시하였다. 출동한 소대는 석도 서안진지로부터 75mm 무반동총과 81mm 박격포 그리고 중기관총 사격의 엄호 하에 09시, 호도 북안 100m 해상에서 진입하여 돌격상륙을 실시하였다.

상륙에 성공한 소대는 아군 항공기의 엄호 하에 09시 10분에 호도 제1지역에서 제2지역까지 전진하였는데, 인민군은 이미 호도로부터 철수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 공격에서 소대는 이때까지 제2지역 암석 사이에서 4일간 잠복하고 있던 박창림(朴蒼林) 이등수병 이하 6명의 호도파견소대원을 구출하였다.

소대는 이들로부터 파견소대장 정형모 소위와 분대장 김창현(金昌鉉) 삼등병조가 3월 26일 석도에서 출동한 1척의 범선이 호도정찰을 위하여 접근하였을 때 수영으로 접근을 시도하다가 사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2시에 소대는 구출한 6명과 같이 1개 분대병력을 1척의 발동선으로 석도로 귀환시켰으며, 소대장 이하 잔여 대원들은 계속 임무를 수행하다가 20시에 『전원 귀환하라』는 대대장명령으로 2척의 발동선에 분승하여 석도로 21시 10분에 복귀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전투 후의 개황

호도전투 이후에도 해병 제7대대는 계속 소수병력을 호도에 잔류시키고, 대안의 적정을 수집시켰으나, 대안일대의 인민군 활동이 증가하고 포격활동이 증대함에 따라 1952년 4월초에 병력을 모두 철수시켰다.

이는 호도가 너무나 적지와 근접하여 간조 시에는 수영으로도 침입이 가능한 거리에 있어 지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호도점령으로 얻는 성과보다 이에 따른 부담과 손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북한군은 4월 이후 석도와 초도에 포격을 강화함으로써 아군활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시도하였다. 해병대 도서부대는 연평도-백령도(대청도, 소청도 포함)-초도-석도 경비를 강화하여 인민군의 침입에 대비하는 한편 여러 차례의 상륙전 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휴전성립까지 서해안 봉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도서부대는 휴전협정에 따라 초도와 석도로부터 병력을 철수시켰고, 연평도-백령도 만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이 호도전투에서의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53]

<표 7-8> 호도전투 전과/손실 현황

전과	3.5″로켓 1문(수중투하)
사살 : 6명	60mm 박격포 1문(수중투하)
손실	소총(MI, CAR) : 38정
전사 : 39명(OK 유격대 2명)	SCR-300 통신기 : 1대(수중투하)
중기관총 : 1정(대파)	GRC 통신기 : 1대(수중투하)
경기관총 : 2정(수중투하)	CE 통신기 : 1대(수중투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4 절 분석 및 평가

1. 작전의 성격과 의의

1951년 4~5월, 이른바 중공군 춘계공세에서 개전이후 최대의 결전을 치렀으며, 여기에서 피아 모두 최악의 인명손실을 입은 후에야 무력으로 승리를 얻으려는 정책을 포기하고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을 택하였다. 6월 23일 유엔 주재 소련대사 말리크의 휴전제의에 따라 7월 10일 최초로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휴전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쌍방은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였다. 1952년에도 휴전회담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휴전협상의 주요의제인 군사분계선 설정, 외국군 철수문제, 휴전실현을 위한 협정, 전쟁포로 협정 등의 의제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고 난항을 겪게 되었다.

유엔군은 협상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타개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공산군에게 휴전조건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하였다. 반면에 공산군은 휴전협상 과정에서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전력증강을 도모하고, 일부 빼앗긴 진지를 탈환하는 등 군사력 과시를 통해 휴전회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2년 유엔해군과 한국해군이 설정한 작전목표는 바다에서의 지속적인 함포지원사격으로 공산군 병력의 분산을 강요하고, 지상군을 측방에서 지원하는 것이었다. 또한 1951년 항공차단작전으로 공산군의 보급체계를 와해시키기 위해 '교살작전'을 실시하여 도로망 파괴를 시도하였으나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엔해군은 함재기를 이용하여 북한군의 주요군사 및 산업시설을 무력화시켜 공산군의 전투수행을 상실시키는 방향으로 작전목표를 선회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엔해군이 설정한 작전목표에 따라 북한군의 핵심적인 산업시설과 심장부를 공격하기 위하여 수풍댐 폭파작전, 평양공습작전, 신덕광산과 길주에 대한 공습작전, 아오지 정유공장 폭파작전 및 고원 공습작전을 실시하였다. 1952년 유엔해군이 수행한 주요작전은 주로 항공작전이었기 때문에 유엔공군과의 합동작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전이었으며, 해군이 주세력이 되고 공군이 보조세력으로 임무를 수행할 때도 있었고, 그 반대의 경우로 작전을 수행한 경우도 있었다.

북한지역에 대한 항공작전은 종심작전으로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해군은 제해권의 확보가 필수적이었으며, 공군은 우세한 제공권을 보유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또한 북한군은 핵심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수의 대공포를 배치하였고, 거미줄과 같은 레이더망을 구축하여 유엔군의 공습에 대비하고 있었다. 특히 주요시설 인근지역에 있는 공산공군의 MiG기는 유엔군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북한 후방에 대한 공습작전은 매우 어려운 작전이었으나 치밀한 공습계획과 조종사의 우수한 기량으로 이 작전을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의 생산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으며, 철도망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특히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 대한 공습은 북한군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주는 효과도 있었다. 유엔해군은 고저에 대한 상륙작전으로 공산군의 증원병력을 유인하여 북한군과 중공군의 각개 격파하겠다는 최초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항공작전과 같이 상륙작전은 고도의 합동성이 필요한 작전으로 이 작전에서 육·해·공군간의 합동작전의 능력을 검증하고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엔해군은 강력한 항공세력과 거포(巨砲)를 이용한 함포지원세력으로 대규모적인 작전을 수행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해군은 주로 새로 인수한 PT정에 의한 기습작전과 PC함에 의한 창린도 탈환작전, 그리고 옹진반도에서 동키부대와 합동으로 수행한 덕동전투와 해주만 전투 등 소규모적인 전투를 수행하였다. 또한 해병대는 동·서해안의 위치한 도서에서 황토도, 양도, 호도전투를 수행하였다. 해군과 해병대가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1953년 7월 27일 휴전이전까지 동해안에서는 원산만에 있는 도서뿐만 아니라 함경북도에 위치한 양도까지를 아군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점령하고 있었으며, 서해안에서는 서해 5개 도서뿐만 아니라 진남포 앞에 위치한 석도, 호도까지를 아군이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도서들을 확보함에 따라 북한군은 감히 해상으로 진출할 엄두도 내지 못했으며, 아군은 도서를 근거지로 후방 교란작전, 정보수집 및 유격대 지원작전으로 유엔군의 작전을 측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작전결과 및 평가

유엔해군은 1952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풍댐 폭파작전, 평양 공습작전, 신덕광산과 길주 공습작전, 아오지 정유공장 폭파작전, 고원 공습작전, 고저 상륙양동작전, 기뢰전을 수행하였다. 한편 한국해군은 유엔해군에 배속되어 있었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수행한 작전도 있었다. 즉 동·서·남해안 경비작전, PT편대 기습작전, JMS-301정의 덕동전투 및 해주만 전투, PC-702함의 창린도 탈환작전, 황토도, 양도, 호도전투 등을 수행하였는데, 작전결과 및 교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엔해군이 수행한 작전에 대한 작전결과 및 교훈이다. 유엔해군이 공산군의 전투수행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전목표를 결정한 이후에 제일 먼저 실시한 작전이 수풍댐 폭파작전이었다. 수풍댐은 북한의 가장 큰 발전시설로서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가 북한 전역으로 송전되어 북한 공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수풍댐 폭파계획은 195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에 유엔해군 활동의 백미(白眉)였다. 수풍댐의 지리적인 위치나 MiG기, 대공포 등 북한군의 엄호세력을 고려할 때, 수풍댐 공습은 매우 어려운 작전이었으나 치밀한 공습계획과 조종사의 기량이 바탕이 된 이 작전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 공습으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평양 모든 시설의 생산능력이 상실되었으며, 압록강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지하공장과 만주지역의 시설까지도 영향을 주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둘째, 평양 공습작전을 실시한 작전결과이다. 평양에 대한 공습은 평양 인근의 주요 군사시설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전술적 목표도 있었지만 북한의 심장부인 수도를 공격하여 북한군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주어서 전투의지를 약화시키겠다는 전략적 목표도 가지고 있었다. 주요 군사시설에는 군수품적재소, 공장지대와 육군사령부 등이 있었고, 이곳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대공포와 레이더 기지가 있었다. 유엔함재기들의 성공적인 작전으로 평양 주변의 기관차고 및 철도공장의 60%이상을 파괴하였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그동안 휴전회담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공산군은 휴전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듯이 보였다. 또한 수풍댐 폭파작전과 평양공습작전을 통하여 다시금 해군과 공군의 합동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신덕 및 길주광산에 대한 공습과 아오지 정유공장 폭파작전을 실시한 작전결과이다. 이 작전도 전술한 작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주요 군수시설을 파괴하여 북한군의 군수보급체계를 와해시키겠다는 목표로 수행된 작전이었다. 신덕 및 길주광산은 납과 아연을 생산하는 중요한 공격목표가 되었으며, 아오지는 종합적인 정유시설을 갖춘 북한의 유류보급의 원천이 되는 지역이었다.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함재기들은 먼저 대공포를 선제공격으로 제압하고, 목표물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등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북한의 주요 군수시설을 마비시켰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넷째, 고원 공습작전의 작전결과로써, 이 작전은 1951년 8월에 있었던 나진공습작전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 작전으로 해군 전투기가 공군의 B-29기를 엄호하면서 수행된 작전이었다. 고원은 평원철도의 시발점으로 철도교통의 중심지로써 이곳을 파괴시킨다면 북한의 동해안 철도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었다. 고원 공습작전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고원 작전이 6·25전쟁에서 마지막 해·공군 합동작전이었다. 이후 유엔공군은 야간을 이용하여 단독으로 공습작전을 수행하였다.

다섯째, 유엔해군은 고저에 대한 상륙양동작전을 실시하여 공산군의 증원군을 유인함으로써 북한군과 중공군을 분리시켜 각개 격파하려는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공산군의 지상군 병력 이동은 없었으며, 북한군은 고저 인근의 해안포대 만으로 유엔군의 상륙작전에 대항하였다. 비록 유엔해군의 최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해안포대에 대한 함포사격의 정확성, 상륙기동부대의 편성된 육·해·공군 상호간의 합동성 측면에서는 매우 훌륭하게 수행된 작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여섯째, 북한해군의 기뢰전에 대한 유엔해군의 기뢰대항전에 대한 작전결과이다. 북한해군은 1950년 후반기부터 1951년 말까지 수행했던 기뢰전과 유사하게 1952년에도 유엔해군에 해양거부작전의 일환으로 기뢰전을 실시했다. 이것이 해양통제권을 확보한 유엔해군이 바다에서 육지로 전력을 투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즉 북한해군의 작전목표는 주요 항만에 기뢰를 부설하여 유엔해군의 연안작전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유엔해군은 북한의 기뢰전에 대응하기 위한 소해작전을 실시하였다. 유엔해군은 소해작전을 실시하면서 기뢰에 충돌하여 피해를 입기도 하였으며, 특히 연안에 근접하여 소해임무를 수행하던 소해함정들은 북한 해안포에 의한 피해가 더 많았다. 이를 위한 대응책으로 연막작전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효과적인 함포사격을 지원하였고, 야간 소해작전 교리를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북한해군이 유엔해군의 소해작전을 방해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유엔해군의 소해함정은 6·25전쟁 기간동안 총 1,088발을 소해하는 등 혁혁한 전과를 세웠다. 소해작전이 종료된 이후에도 조종사 구조작전, 철도 차단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부대표창을 받은 소해함도 있었다.

한국해군은 유엔해군의 조직 하에 작전을 실시하였지만, 소형함정을 이용한 동·서·남해안 경비작전, PT편대 기습작전, JMS-301정의 덕동전투, 해주만 전투 및 PC-702함의 창린도 탈환작전을 실시하였고, 해군과 해병대는 황토도, 양도 및 호도 전투를 수행하였다.

먼저 동·서·남해안에서 조직적인 경비작전을 실시하였다. 동해안에서는 일명 '42작전'을 실시하였는데, 주로 PC와 YMS급 함정들은 경비작전, 해상봉쇄작전, 소해작전, 수송 및 호송작전을 실시하였다. 1951년 말부터 한국해군은 체계적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경비작전을 실시하였는데, 주요 작전은 북한군 해안포대 파괴, 기뢰부설 방지 및 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각 도서에 대한 방어작전 등이었다. 따라서 1952년 한국해군 함정의 출동일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중에서 YMS-513정은 최장기 출동임무를 수행한 함정으로 1년간 무려 243일간(365일 중 3분의 2 항해) 동안 임무를 수행하였다. 출동일수가 200일 이상이 되는 함정은 YMS-502(228일), YMS-505(228일), YMS-506(218일), YMS-507(217일), YMS-510(213일), YMS-512(204일), YMS-514(235일), YMS-515(205일) 등으로 주로 YMS급이었는데 이는 YMS정이 동·서해안에서 소해작전 및 해안방어작전에 적극 참전했다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서해안에서는 일명 '충무작전'이 실시되었다. 먼저 주요작전으로는 PC-702함의 창린도 탈환작전, JMS-301정의 덕동 및 해주만 전투 등이 있었다. 아군이 서해에 위치한 대부분의 도서를 점령했을지라도 북한은 유리한 지형적 이점(利點)을 이용하여 해안포대 사격과 상륙기습작전을 시도하였다.

북한의 대표적인 상륙기습작전이 창린도 기습작전이었다. 또한 JMS-301정은 월래도에 주둔 중인 동키부대원을 황해도 덕동에 상륙을 시켜 공산군을 격퇴하였다. 지상전선이 교착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해군은 북한의 후방지역을 교란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감행하였다. 따라서 한국해군 함정과 도서에 주둔한 유격부대원들은 지속적으로 황해도 지역을 공략하여 지상전선에 집중된 공산군의 병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남해안에서는 일명 '한산작전'이 수행되었다. 이는 접적지역인 동·서해안에서 북한군과 대치하는 작전과 상이한 작전으로서 밀수선 검색 및 영해를 침범하는 선박을 통제하는 작전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해군은 전쟁기간 중에도 일본선박의 침범을 퇴치하여 영해를 수호하였고, 밀수선박을 단속하여 해상치안을 유지함으로써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확고히 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1952년 1월에 인수한 4척의 PT정은 동·서해안에서 맹활약을 하였으며, 작전성과가 대단하였다. PT정은 한반도 해양환경에 매우 적합한 함정이었다. 왜냐하면 PT정은 최고속력이 50노트로 매우 고속이었으며, 화력이 우수하였고,

흘수가 낮아 연안에 근접하여 작전하면서 북한의 요새와 병력집결지 및 포대를 탐색하여 격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해안의 원산, 성진근해뿐만 아니라 서해안의 장산곶, 순위도에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공산군의 해상진출을 완벽하게 저지하는데 매우 큰 공헌을 하였다. 1952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명 '해연작전'이 실시되었다. 이 기간동안 PT편대는 주무장인 5인치 로켓포를 이용하여 서해안 마합도, 기린도 대안(對岸), 옹진반도 마정리, 장산곶 및 해주만 부포리에 포격을 가하여 공산군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동해안에서는 호도반도, 마양도, 신포, 여도 및 양도 근해에서 활동하면서 해안의 공산군 포대와 집결지에 대하여 포격을 실시하였다. PT편대의 기습작전은 옹진반도 일대의 도서에 대한 공산군의 침공계획을 좌절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원산 일대의 도서를 수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셋째, JMS-301정은 황해도 덕동전투 및 해주만 전투를 수행하였다. 북한군은 황해도 장연군 해안면 덕동에 본부를 설치하고, 뒤쪽 산정상에 레이더를 설치하여 아군을 감시 및 정찰을 하고 있었다. JMS-301정장은 이를 격파하기로 결정하였고, 동키부대원을 상륙시켜 북한군을 사살하고 레이더의 위치를 파악하였으며, JMS-301정은 함포사격으로 이를 격파시켰다. 또한 JMS-301정은 해주항내에 진입하여 주요군수시설을 파괴하고, 선박들을 격침시켰다. 이들 작전은 JMS-301정과 동키부대가 합동으로 실시한 작전으로 전시 해군함정과 유격대원의 합동작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북한군에 의해 점령당한 창린도에 대하여 PC-702함은 탈환작전을 실시하였다. 아군이 옹진반도 일대의 전 도서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북한군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해안에 근접하고 있어 공격이 용이하고, 전력이 상대적으로 열세하여 점령이 가능한 창린도를 기습적으로 상륙하였다. 창린도 탈환작전은 이에 대한 반격작전으로 PC-702함과 동키부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영국해군 및 함재기 4대가 지원사격을 실시한 연합작전의 백미(白眉)였다. 북한군은 이 섬을 사수하기 위해 맹렬하게 저항하였지만 결국 용맹스러운 동키부대원과 압도적으로 우세한 화력을 보유한 아군을 막을 수는 없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북한군은 70명이 사살되었고, 27명이 생포되었으며, 아군도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손실이 적지 않았다.

다섯째, 해군과 해병대는 황토도, 양도 및 호도전투에서 승리하여 완벽한 도서방위작전을 수행하였다. 6·25전쟁 중에 해군은 한반도 해역에 대하여 우세한 제해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해병대는 동·서해안에 있는 대부분의 도서들을 점령하고 있었다. 공산군은 해병대가 점령하고 있는 황토도, 양도 및 호도에 대하여 해안포격을 실시하면서 기습공격을 실시하였으나. 해병대는 해군의 함포사격지원을 받으면서 강력한 반격작전으로 이를 격퇴하였다.

황토도 전투는 공산군의 지상군 병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즉 북한군은 1951년 말부터 상륙방어전의 일환으로 북한 2군단 예하에 추가적으로 25여단을 배속시켰으며, 5군단 예하에 20포병여단, 22포병여단 등을 배속시키는 등 부대배치를 하였다. 한편 해병대는 1952년 1월 5일, 동해 도서경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병 제8대대를 신편하는 등 해병도서부대를 개편하였다.

양도는 해병대가 점령한 동해도서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대안과의 거리가 불과 3,650m로 해안포 사정거리에 있어 상시 북한군의 기습공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해병대의 강력한 반격작전으로 북한군을 격퇴시켰는데 이후 북한군은 해안포격을 실시하는 등 소극적인 공격 만을 실시하였다. 해병대가 양도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함으로써 양도는 휴전까지 아군 측 점령 하에 있는 도서가 되었다.

북한군의 기습상륙으로 일시적으로 호도를 탈취당했지만 석도에 주둔 중인 해병 제7대대는 호도를 재탈환하였다. 그러나 해병대가 호도에 병력을 잔류시켜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북한군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1952년 4월 초에 병력을 전원 철수시켰다. 호도전투는 병력손실이 39명으로 다른 전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왜냐하면 호도가 너무나 적지와 근접하여 지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매우 취약했기 때문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해병대와 해군이 동·서해안에 위치한 도서방어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함으로써 동해안은 영흥만에 위치한 도서(황토도, 여도, 신도 등)로부터 함경북도 양도까지, 서해안은 있었다. 이에 따라 해병대는 동·서해안의 도서에 주둔하면서 공산군에 대 연평도로부터 백령도, 초도 및 석도까지 1953년 7월 27일 휴전할 때까지 아군이 점령할 수한 후방교란작전을 실시하였고, 해상봉쇄작전을 수행하는 해군과 정보수집작전을 수행하는 유격대원들을 지원할 수 있었다.

(집필 : 최권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註)

1) 해군본부,『해군작전사 개설 제1집(1950.6~1951.6)』, 2001, 37~38쪽.

2) 국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387~388쪽.

3) 해군본부,『해군작전사 개설 제1집(1950.6~1951.6)』, 2001, 36쪽.

4) 해군본부,『대한민국 해군사: 행정편 제1집』, 1954, 75쪽.

5)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Annapolis : U.S. Naval Institute, 1957), pp. 51, 102~8, 132, 143~5.

6) 해상거부전략의 기본은 해상통제전략의 2대 기본임무인 해상통제와 해상투사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상통제형 해군의 대륙지향적인 임무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해상거부형 해군은 먼저 해상교통로를 잠수함 세력으로 교란하며, 해안에 접근하는 적 세력에 대하여 해안을 방어하려는 것이 해상거부전략의 핵심인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피아간에 공통접경해역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속정세력의 작전능력 범위 내에서 기습공격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상거부의 전반적 작전적용국면은 ① 해안방어 ② 기습공격 ③ 해상교통로파괴의 3대 국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강영오,『한반도의 해상전략론』(서울: 병학사, 1988), 49~50쪽〕

7) Cagle and Manson, op. cit., pp.202~204.

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제2권 (서울: 국방부, 2001), 165쪽.

9)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Washington, 1962), p.211.

10) 미주리(Missouri, BB-63) : 배수톤수 45,000톤, 전장 1,887피트, 전폭 108피트, 속력 33노트, 승조원 1,921명, 무장 16인치 9문, 5인치 20문.(http://www.history.navy.mil)/dans/missouri-ii.htm)

11) 박서(Boxer, CV-21) : 배수톤수 27,100톤, 전장 1,888피트, 전폭 147피트, 속력 33노트, 승조원 3,448명, 무장 5인치 12문.(http://www.history.navy.mil)/dans/boxer-ii.htm)

12) MiG-15 : 폭 50피트 9인치, 길이 39피트 3인치, 높이 15피트 8인치, 중량 25,000파운드, 속력 320노트, 항속거리 900마일, 무장 기총 4×20밀리, 로켓, 폭탄 2,000파운드.〔공군본부,『6·25전쟁 항공전사』, 2002. 837쪽〕

13) 프린스톤(Princeton, CV-37) : 배수톤수 33,300톤, 전장 566미터, 전폭 44미터, 속력 33노트, 무장 5인치 12문. 40밀리 44문, 20밀리 59문, 항공기 80대.(http://www.history.navy.mil)/dans/princeton-ii.htm)

14) 필리핀 시(Philippine Sea, CV-47) : 배수톤수 27,100톤, 전장 271미터, 전폭 28미터, 속력 33노트, 승조원 3,448명, 무장 5인치 8문. 40밀리 8문, 20밀리 46문, 항공기 90~100대.(http://www.history.navy.mil)/dans/philippine Sea-ii.htm)

15) AD(Sky-Raider) : 폭 50피트 9인치, 길이 39피트 3인치, 높이 15피트 8인치, 중량 25,000파운드, 속력 320노트, 항속거리 900마일, 무장 기총 4×20밀리, 로켓, 폭탄 2,000파운드.〔공군본부,『6·25전쟁 항공전사』, 2002. 837쪽〕

16) F9F(Panther) : 폭 38피트, 길이 37피트 3인치, 높이 11피트 4인치, 중량 19,494파운드, 속력 526노트, 항속거리 1,353마일, 무장 기총 4×20밀리, 로켓, 폭탄 2,800파운드(위의 책. 842쪽)

17) F-86E(Saber) : 폭 37피트 1인치, 길이 37피트 6인치, 높이 14피트 8인치, 중량 13,791파운드, 속력 685노트, 항속거리 1,200마일, 무장 기총 6×CAL-50, 폭탄 2,000파운드(위의 책. 824쪽)

18) F-84(Thunder) : 폭 36피트 5인치, 길이 38피트 6인치, 높이 12피트 7인치, 중량 15,227파운드, 속력 620노트, 항속거리 1,485마일, 무장 기총 6×CAL-50, 폭탄 2,000파운드. 로켓 8×5인치(위의 책. 823쪽)

19)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Washington, 1962), pp. 436~439.

20) Bon Homme Richard(CV-31) : 1944년 4월 29일 진수, 11월 26일 취역하였으며, 초대 함장은 룰(A. O. Rule) 대령이었음. 1951년 5월 29일부터 TF-77 기동부대에 배속되어 6·25전쟁에 참가하였음. 1952년 고저에 대한 상륙기만작전에 참가하고, 1971년 퇴역함.(http://www.history.navy.mil)/dans/bon homme richard-ii.htm)

21) HMS : Her(또는 His) Majesty's Ship(영국 군함), HMCS : Her(또는 His) Majesty's Canadian Ship(캐나다 군함)

22) Ibid., p.439.

23) F4U(Corsair) : 폭 41피트, 길이 33피트 4인치, 높이 16피트 1인치, 중량 14,000파운드, 속력 420노트, 무장 기총 6×12.7밀리, 로켓 8발, 폭탄 2,000파운드.(공군본부, 앞의 책, 840쪽)

24) Field, op. cit., pp.439~440.

25) Ibid., p.440.

26) Essex(CV-9) : 배수톤수 27,000톤, 전장 872피트, 전폭 93피트, 흘수 28피트 7인치, 속력 32.7노트, 승조원 2,448명, 항공기 80대 이상, 무장 5인치 12문.(http://www.history.navy.mil/dans/essex-iv.htm)

27)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제7권』(서울: 국방부, 1974), 613쪽.

28)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Annapolis : U.S. Naval Institute, 1957), p.391.

29) Ibid., pp.392~394.

30) Ibid., pp.204~208.

31) Ibid., pp.208~209.

32) Ibid., pp.209~214.

33) 기뢰원에 대하여 소해를 실시할 때 소해예상구역을 해도에 기점하면서 항해해야 하는데 야간에 정확한 기점이 어려워 소해하지 않고 공백이 생기는 구역을 "소해 공백" 구역이라고 한다.

34) Cagle and Manson, op. cit., pp.214~216.

35) Ibid., pp.215~217.

36) 해군본부,「대한민국 해군사 : 작전편」제2집(서울 : 해군본부, 1958), 28~32쪽.

37) 위의 책, 31쪽.

38) 위의 책, 47~58쪽.

39) 창린도 탈환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작전상황은 제3절 5항 창린도 탈환작전 참조.

40) 위의 책, 69쪽.

41) 위의 책, 67~70쪽.

42) 해군본부, 앞의 책, 86~100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3) 해군본부, 앞의 책, 100~104쪽.
44) 해군본부,『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012. 428~437쪽.
45) 해군본부, 앞의 책, 104~105쪽.
46) 해군본부, 앞의 책, 107~110쪽.
47) 해군본부, 앞의 책. 259~262쪽.
48) 해병대사령부,『해병발전사』, 1962, 87~88쪽.
49) 위의 책, 610~615쪽.
50) 해병대사령부,『해병사 제2집』, 1963, 39~40쪽.
51) 해병대사령부,『해병발전사』, 앞의 책, 90~92쪽.
52) 위의 책, 616~622쪽.
53) 위의 책, 623~62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8 장 공군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공산공군 작전
제 3 절	유엔 및 한국공군 작전
제 4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1. 전선 개황(1952.1.1.~12.31)



1952년 1월에 들어서자 지상전선은 1951년 11월 27일 휴전협상에서 군사분계선으로 합의를 본 접촉선인 문산 서측 11km 지점의 임진강 어귀 - 판문점 서방 - 삭녕 북방 - 철원 서북방 - 금화 북방 - 금성 남방 - 어운리 - 문등리 - 고성 동남방 6km를 경계로 유엔군과 공산군 쌍방이 선제공격을 중지한 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고 상호 방어적인 지상전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유엔 해·공군의 함재기와 전폭기들은 공산군의 물자와 장비, 인원의 전선 이동로인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작전을 실시하였고 공산측은 이에 맞서 적극적인 요격활동과 증가된 중형 대공포를 포함한 대공화기로 대응하였다.

판문점에서 유엔 협상단은 정전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비타협적이고 지연에 능한 공산 측에 의해 회담은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2월 유엔군과 공산군은 방어태세를 유지하였고 전선 또한 변동이 없었다. 유엔군은 소규모 부대를 이용하여 전선 서부지역 공산군 진지에 대한 정찰 및 기습을 실시하였으나, 공산군은 이에 맞서 적절한 방어와 즉각적인 대응을 실시하였다. 3월 유엔군사령부는 공산군의 단호한 저항에 대해 순찰과 기습을 감행하였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벌어지는 공산군의 탐색공격을 피해갔다. 전선은 근본적인 변동이 없었고 미 제8군 예하 미 제1군단, 미 제9군단, 미 제10군단, 국군 제1군단이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한반도를 횡단하여 배치되었다.

4월 공산군이 미 해병1사단이 점령하고 있던 판문점 남부지역과 영연방 제1사단이 점령하고 있던 고랑포리 북방에 대해 야간 공격을 가했고 유엔군은 이들을 격퇴하였다. 4월 나머지 기간동안 지상 활동은 매우 저조하였다. 5월 12일 유엔군사령관으로 클라크(Mark W. Clark) 장군이 리지웨이 장군 후임으로 임명되어 부임하였고,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상을 반대하는 공산 지휘부에 극심한 피해를 가하여 유엔군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의 수력발전시설을 공격하자는 극동공군 사령관의 조언을 받아 들였다.

6월 지상군활동은 저조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미 제1군단 예하 미 제45보병사단이 중부지역에서 카운터작전(Operation Counter)을 벌여 진지 정면의 주요 감제고지를 점령하고 있던 공산군의 전초를 점령하고 방어진지를 강화하였다. 7월 지상에서는 미 제2사단 지역인 266고지(불모 고지)와 그 주변에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공산군 대대급 규모가 이 지역 점령을 시도하여 수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결국 7월 말에 공산군은 미군에 의해 대규모 손실을 입고 유엔군 통제 하에 들어갔다. 8월 중순까지 전력이 증강된 대대규모의 공산군이 수개지역에서 유엔군 진지를 공격했다.

미 제1해병사단과 국군 제2군단 관할지역의 고지들이 수차례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나 유엔군은 공산군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히고 이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탈환하였다. 9월 최대 규모의 지상 작전이 국군 제2군단 관할 구역에서 벌어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세가 뒤바뀌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전선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 공산군은 매우 심각한 인적 손실을 당했는데 한 예로 4일 동안 약 1,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0월 6~15일간 중공군은 미 제9군단의 서측인 철원 북서부 지역을 겨울이 시작되기 전 그들의 진지를 개선할 목적으로 공격하였으나 무위로 끝났다. 미 제8군은 미 제9군단 동측인 금화 북동부의 중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종결작전(Operation Showdown)을 10월 중순에 시작하였으나 점령지역을 번갈아 점령하는 형세가 되고 말았다. 이와 맞물려 극동해군은 적들을 공격 가능한 도로로 유인하기 위하여 북한 북동부 고저지역에 공산군을 기만하기 위한 상륙작전 시위를 벌였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315, 403공수비행단의 C-46과 C-119 수송기가 대구기지에서 공수강하훈련을 실시하는 동안, 제5공군과 폭격사령부 소속 전폭기는 평양 남부와 동부의 병력집결지, 핵심 통신시설, 차량, 철도선에 대한 공격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아군의 기만작전이 공산군을 속이지 못했거나 유엔군의 의도를 파악했던지 공산군의 이에 대한 대응 활동은 없었다.

10월 8일 판문점에서의 휴전회담이 전쟁포로의 강제송환 문제로 중단되었다. 유엔군 대표단은 공산군 포로들에게 자유 선택적 송환을 제안하였고 공산군 대표단은 종전과 동시 모든 포로의 강제 송환을 주장했다. 10월 16일 북한은 극동사령부에 북한과 중공군 전쟁포로의 전원 강제송환에 대한 언급 없이 정전회담 중지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항의하였다.

11월 중순 이후 적 지상군 활동은 재보급과 병력 보충을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11월 4일 선거전에서 한국전 종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2월에 들어서자 지상전은 거의 중지되었다. 12월 13일 국제적십자사 집행위원회는 정전 이전에 병들고 부상당한 포로들의 상호 교환을 제안하였다. 12월 2~5일 간 대통령 당선자인 아이젠하워(Eisenhower)가 한국 전선을 시찰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으나, 결국 전선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1952년 한해를 보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 공산공군 작전

1952년 공산공군은 이전과 같이 미그회랑지역을 중심으로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의 방공임무에 치중하면서 평양 이남까지 진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간헐적인 공세를 취했지만 유엔공군의 강력한 저지로 단순한 시도로 끝나고 말았다.



공산공군 주요 비행장

북한공군은 1951년 10월 중 창설된 제1전투비행사단(MiG-15 보유)이 안둥비행장과 안산비행장을 오가면서 공산공군의 연합전력 재대로 활동하면서 '자유사냥' 방식으로 평양 및 서북부 상공에서 유엔공군 F-86에 대한 방어제공 임무와 기타 전폭기를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하였고, 중국 장춘 인근 궁주링(公主岭)비행장에 주둔한 제2전투비행사단(La-9 보유)은 1951년 10월 이래 공산공군 제1제대의

전력을 후속 증원하는 제2제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고도 요격 및 지상표적에 대한 공격임무를 부여받았다. 또한 펑청(鳳城)에 주둔하고 있던 제11혼성비행사단은 IL-10기를 이용한 유엔 지상군에 대한 공습(폭격 및 기총사격)과 Yak-9 전투기를 이용해 방어제공임무를 수행하였고, PO-2기를 이용하여 야간에 유엔군의 비행장 및 병력 주둔지에 대한 폭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북한공군의 주요 활동제대는 MiG-15를 보유한 제1전투비행사단으로 평양 방어임무 외에도 서부지역은 남포 - 황주 계선으로, 동부지역은 김야, 함흥, 원산 일대로 방어구역을 확장하려는 기도를 하였으나 유엔공군의 공세에 밀려 포기하였고, F-86과의 교전으로 손실이 누적되자 북한 조종사들은 공중전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해 1952년 후반기에는 저속기인 미 해군 함재기 F4U 요격으로 작전중점을 전환하였으나 이 또한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소련공군은 장기간 전투를 수행한 제303, 324비행사단을 1952년 1월 교체하여 젊은 조종사들로 충원된 제97, 190전투비행사단이 참전하였고 7월부터는 이들 제대를 교체하여 제32, 133, 216전투비행사단이 참전하였다. 이들 참전부대 모두는 구형 MiG-15에서 엔진추력이 강화되고 성능이 강화된 MiG-15bis로의 기종 전환을 마친 상태였다. 1952년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국 동북지역의 주요시설과 북한 주요지역과 시설에 대한 방어임무에만 전력을 투입하였고, 소극적 방어전술로 일관하였다. 이 시기 참전조종사의 기량미숙과 유엔공군의 F-86 전력증강 배치와 비행장에서 이착륙하는 MiG-15를 요격하는 적극적인 요격전술로 인해 이전대비 높은 손실과 낮은 전과를 보였다.

중국공군은 1951년 11월에 실시한 전장상황 평가에서 정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6·25전쟁을 통해 갓 태동한 중국공군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모든 전투비행사단을 참전시켜 각 비행사단은 3개월의 참전기간동안 5~7회 대규모 공중전을 치르고 교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방침에 따라 1952년 기간 중에 총 9개 비행사단(전투비행사단 7개, 폭격비행사단 2개)이 참전하였지만, 기량미숙으로 이들은 1952년 전반기 동안 많은 희생을 냈으며 유엔공군에게 위협이 되지는 못했다. 1952년 5월부터 시작된 구형 MiG-15의 MiG-15bis로 기종 전환 작업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0월에 완료되고 그동안의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중국공군은 보다 적극적으로 유엔공군에 대항하였다. 중국공군은 지상군 근접지원과 야간에 남한 주요 비행장에 폭격방안도 수립하고 시행하려는 의도를 가졌으나 미국의 중국 본토 기지 보복공격에 대한 우려를 가진 펑더화이와 저우언라이 등 중국 지도부의 반대에 의해 좌절되었고, 결국 중국공군 작전은 미그회랑과 청천강 이북에서의 방어임무로 제한되었다.

3. 유엔공군 작전

1952년 한 해 동안 극동공군의 임무는 주간의 요격작전, 공산군 주요 보급선에 대한 주·야간 차단작전, 우선권이 높은 보급품의 공수작전이 극동공군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따라서 극동공군은 유엔지상군을 공산공군의 공격으로부터 완벽한 작전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선에서의 공중우세를 달성하고 있었고 우선권을 갖는 임무인 차단작전, 근접지원작전, 제공 작전 외에도 일상적인 항공정찰, 공수, 탐색 및 구조, 조명탄 및 전단 살포 임무를 수행하였다. 5월 중 제5공군은 1951년 1~2월에 시험적으로 실시한 F-86의 대지공격 임무를 재개하였다.

1952년도 유엔공군은 전력증강은 기존 F-84E 기종을 F-84G로 교체하는 작업을 9월중에 완료하여 3개 비행단이 F-84G를 보유하게 되었고, 8월에는 제4, 51전투요격비행단이 각각 예하 3개 대대에 인가된 F-86 전력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주간 폭격임무가 가능한 B-26을 5월에 총 187대를 보유하게 되었고 7월 이후 B-29도 월평균 105대 이상을 보유하게 되어 8월 이후에는 1951년 8월에 내려진 1일 12회 출격제한 지침을 50% 증가시킬 수 있었다.

1952년도 유엔공군의 비행활동은 총 231,151소티(sortie), 월평균 약 19,233소티로 1951년 전반기(1월~6월)의 월평균 21,720소티에 비해서는 2,487소티(9.3%) 감소하였고, 1951년 후반기 월평균 18,844소티 대비 389소티(2%) 증가하여 작전기세는 1951년 후반기와 대등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52년 제공 작전은 총 40,143소티, 월평균 3,345소티를 실시하여 1951년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는 공산공군의 참전부대 증가와 유엔공군의 F-86 전력증강에 따른 것이다. 새롭게 투입된 공산공군 조종사들이 전투기량 미흡으로 공중전을 기피하게 되어 전반기에는 공중전이 활발하지 않았으나, 9월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2월까지 격렬하게 지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유엔공군은 공중전을 통해 공산공군 MiG-15 376대를 포함해 총 383대를 격추시켰고 유엔공군 손실은 60대에 불과했다. 또한 17명의 격추영웅(Ace)이 탄생하였다.

항공차단작전은 총 71,066소티로 기간 중 전체 비행활동의 약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였고, 연중 지속적으로 공산군의 주요시설, 병참기지, 병력집결지, 주요 산업 시설, 철도, 교량, 이동차량 등에 대한 항공차단작전을 실시하였다. 한편 기존 스트랭글 작전의 평가 결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4개 주요철도선에 대해 주·야간 집중공격을 가하는 새츄레이트 작전(Operation Saturate)이 1952년 3월부터 실시되었고, 지체된 정전협상에서 유엔군 측의 제안을 수락하도록 압박하고 정전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항공압박작전(Operation Pressure Pump)의 일환으로 6월에는 수풍, 장진, 부전, 허천 수력발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이 가해졌고, 또한 7월과 8월에는 항공압박작전의 본 작전인 평양에 대한 대 공습작전을 감행하였다. 12월에는 제12전술정찰대대와 제3, 452폭격비행단은 야간에 철도차단을 위한 스포트라이트(Spotlight) 작전을 시행하였다.

근접항공지원작전은 전선이 교착된 가운데 전투가 소규모로 진행됨에 따라, 1951년 후반기와 같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실시되었고, 특히 1952년 1~5월간에는 직접적인 지상군지원임무보다는 예상되는 하계 공산군의 집중공세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종사 작전숙달을 겸해서 소규모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휴식기와 같은 한가한 틈을 이용하여 극동공군은 전술통제기의 개량과 장비 개선 등 공지합동체계의 개선에 힘썼다. 6월 들어서면서 공산군의 공세준비를 방해하고 조종사 숙달을 위해 근접지원비행이 1,900여 소티로 증가했으며 9월에는 전자방어책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ECM) 장비를 장착한 B-29가 근접항공지원작전에 처음으로 투입되었다. 10월에 제5공군은 개성근처에 주둔한 공산군을 공격하기 위한 근접지원작전 레드 카우(Red Cow) 작전을 시행하였다.

공수작전 또한 전선의 급격한 변동이 없는 가운데 휴가자 및 부상병 수송, 보급물자 수송 등 대부분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한 가운데, 5월에는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의 병력 2,361명과 전투장비, 차량, 탄약, 식량 등 물자 약 889톤을 일본 아시야(蘆屋) 및 브래디(Brady) 기지에서 부산기지(K-9)으로 이동시키는 대규모 공수작전을 벌였고 7월에는 3주 동안 제474전투비행단의 병력과 장비를 일본 미자와(三澤) 기지에서 군산 기지로의 이동 배치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10월에는 고저 기만상륙작전의 일환으로 제198공정연대전투단 병력을 철원지역에 강하시켰다. 1952년 5월 제315공수비행사단 예하 제374전술공수비행단이 처음으로 C-124를 작전에 투입하기 시작한 이래 11월에는 C-54를 퇴역시키고 C-124로 교체하기로 결정되었고 제61전술공수전대의 C-54가 미 본토로 귀환할 준비를 시작했다.

1951년 8월 1일 제1전투비행단을 창설하고 예하에 전투임무부대로 제10전투비행전대를 두고 1951년 9월 28일 비행단 일부전력을 강릉기지로 전개하여 1차('51.10.11~11.28)와 2차('51.12.10~12.30)에 걸쳐 동해안 지역에 대한 후방차단작전을 실시했던 한국공군은 1952년 6월 18일 제2정찰전대를 해체하여 제1전투비행단 제15교육비행전대로 재창설하여 조종사 교육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강릉에 전개한 제10전투비행전대는 1951년 10월에 시작한 후방차단임무를 지속 실시하는 가운데 승호리철교 차단('52. 1월), 송림제철소 폭격작전('52년 3월)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유엔공군의 일원으로 평양 대폭격 작전('52년 7월)에도 참가하였다. 또한 10월부터는 육군 제1군단을 지원하기 위한 공·지작전(근접항공지원)을 시작하여 공산군과 교전하는 육군을 엄호하고 공산군 벙커와 병력을 공격하여 높은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1952년 1월에 첫 번째 100회 출격 조종사가 탄생하기 시작하여 1952년에만 총 22명의 100회 출격조종사가 배출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8-1> 공군 주요부대 및 지휘관(1952. 12월 기준)

부 대		주둔기지	주력 기종	지 휘 관
한국	공군본부	대 구		총참모장 : 소장 최영덕
	제1전투비행단	사 천(K-4)	F-51, T-6	대령 장덕창
	제10전투비행전대	강 릉(K-18)	F-51, T-6	중령 강호륜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도쿄(東京)		대장 Otto P. Weyland
	제5공군사령부	이다쯔게(板付)		중장 Glenn O Barcus
	제8전폭비행단	수 원(K-13)	F-80	대령 James J. Stone Jr.
	제18전폭비행단	오산(K-55)	F-51	대령 Frank S. Perego
	제49전폭비행단	대 구(K-2)	F-84	공석
	제58전폭비행단		F-84E	대령 Victor E. Warford
	제51전투요격비행단	수 원(K-13)	F-86	대령 John W. Mitchell
	제4전투요격비행단	김 포(K-14)	F-86	대령 James K. Johnson
	제3폭격비행단	군 산(K-8)	B-26	대령 Eugene B. LeBailly
	제17폭격비행단	부산 수영(K-9)	B-26	대령 Clinton C. Wasen
	폭격사령부	요꼬타(横田)		준장 William P. Fisher
	제19폭격전대	가데나(嘉手納)	B-29	대령 Hervey C. Dorney
	제98폭격비행단	요코타(横田)	B-29	대령 Edgar S. Davis
	제307폭격전대	가데나(嘉手納)	B-29	대령 Austin J. Russell
	제315공수비행사단	히가시후주(東府中)		준장 Chester E. McCarty
	제314공수비행전대	아시야(蘆屋)	C-119	대령 David E. Daniel
	제315공수비행단	일본 브래디(Brady)	C-46	대령 Kenneth W. Northammer
	제374공수비행단	다치카와(立川)	C-124	대령 James W. Chapman
	제403공수비행단	아시야(蘆屋)	C-119/46	대령 Maurice F. Casey
호 주	제77전투비행대대	김 포(K-14)	Meteor-8	중령 J. R. Kinninmont
남아공	제2전투비행대대	횡성(K-46)	F-51	중령 R. A. Gerneke
그리스	제13공수비행대	다치카와(立川)	C-47	소령 Panayotis Fragoyannis
태 국	공수비행대	다치카와(立川)	3/C-47	
캐나다	제426공수비행대대	캐나다 도발(Dorval)	6/North Star	

공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2 절 공산공군 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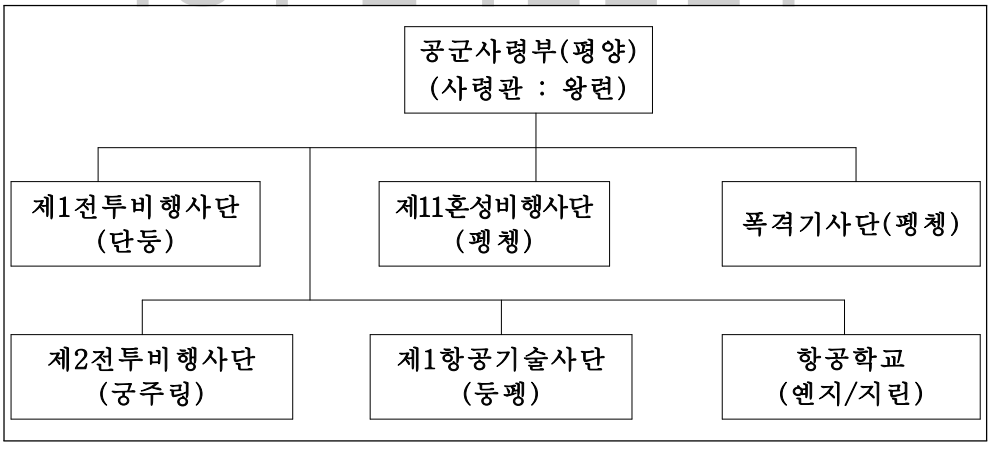
1. 북한공군

1) 편성 및 임무

1951년 전반기를 기준으로 그 규모와 실전능력 면에서 전쟁 이전의 상태를 회복했던 북한 공군은 1951년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MiG-15 전투비행사단 창설 등을 통해 공격적인 전투임무가 가능한 공군전력으로서 성장하게 되었다. 1951년 말 기준으로 북한 공군은 공군사령부 예하에 전투비행부대로 4개 비행사단(제 1, 2전투비행사단, 제11혼성비행사단, 폭격기사단)외에 지원부대로는 제1항공기술사단, 항공수리창, 비행장건설독립연대, 독립수송대대, 레이더탐지소대, 공중관측 및 경보전파부대 등을 두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8-2> 1952년 10월 기준 북한공군 조직도



이렇듯 1951년 말에 급성장을 한 북한공군은 1952년 10월 이후부터 1953년 3월 말까지 조직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편과 전력 재편성을 추진하였다. 이는 지상전선의 안정화와 휴전회담의 지연으로 인해 지상군을 이용한 전과확대가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공산군과 유엔군이 상호 공군전력을 확장하려는 기도와 맞물려 이루어졌다. 이미 1952년 5월에 시작된 중국공군 구형 MiG-15의 MiG-15bis로의 기종 전환은 10월까지 참전중인 중국공군 대부분에 대한 전환이 완료되었고, 후속 조치로 북한공군에 대한 전환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기간동안 북한공군은 새로운 비행사단 창설과 함께 기존 전투비행사단의 기종을 최신화 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우선 기존에 MiG-15로 무장되었던 제1전투비행사단은 1952년 10월 이후 MiG-15bis로 개량하였고, 기존 제11혼성비행사단을 기존 제1비행사단이 보유하고 있던 MiG-15로 기종 전환 후 제3전투비행사단으로 개편, 창설하였다.[1] 한편 La-9을 주력기종으로 편성되었던 제2전투비행사단은 12월 이후 MiG-15bis로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또한 기존 Tu-2가 주력 기종이었던 폭격기사단을 제10폭격기사단으로 개칭하고 최신예 제트폭격기인 IL-28으로 기종을 변경하여 1952년 12월부터 작전을 위한 기종 전환훈련을 시작하였다. 또한 기존 폭격기사단에 편성되었던 Tu-2를 주 전력으로 제1독립폭격연대로, 기존 제11혼성비행사단에서 보유하고 있던 Yak-18과 Po-2를 기반으로 제2독립폭격연대로 전환·창설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개편과정에서 남은 IL-10, La-9 104대로 4개 비행대대로 구성된 예비비행연대를 창설하였다.

이러한 재편과정은 1953년 3월말에 완료되어, 북한공군은 MiG-15를 보유한 전투비행사단을 3개로 증강시킴과 더불어 제트폭격기인 IL-28을 보유한 제10폭격사단과 더불어 제1, 2독립폭격연대를 보유함으로써 폭격전력을 정예화, 다양화하여 폭격능력을 향상시키는 조치와 함께 예비전력으로서 구형전력인 IL-10, La-9으로 편성된 예비비행연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재편과정에서 남은 구형 전력인 Yak-18과 Po-2로 구성된 제2독립폭격연대는 야간폭격능력을 보유하고자 창설되었으나 전쟁기간 중 Po-2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지는 못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8-3> 1952년 10월 기준 북한공군 전력 현황[2)]

부 대	보유항공기	주둔지
공군사령부		평양
제1전투비행사단	52대/MiG-15	신의주 / 의주비행장
제2전투비행사단	48대/La-9	궁주링(公主岭)
제11혼성비행사단	32대/Yak-9, 30대/IL-10, 12대/PO-2	펑청
폭격사단	Tu-2	펑청
항공학교	141대/전투기 및 훈련기	옌지(延吉) / 지린(吉林)
제1항공기술사단		동펑(東鳳)
항공수리창		
비행장건설연대		
합 계		

2) 작전 활동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52년도에 접어들면서 유엔공군의 압록강 인근 비행장에 대한 공격은 더욱 더 과감해졌다. 유엔공군은 압록강 상공 단둥비행장 인근 상공에 F-86 편대를 체공시키고 있다가 임무를 위해 이륙하거나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는 공산공군 항공기에 대해 요격을 시도하였다. 이로 인해 안둥을 비롯한 압록강 인근에 위치하고 있던 공산공군 비행장은 대단한 위협을 느꼈고, 특히 안둥비행장에 주둔한 공산공군 전력은 수시로 안산비행장을 비롯한 주변비행장으로 대피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북한공군 주요 전력의 주둔지도 수시로 변동되었다. 먼저 기존 신의주와 의주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제1전투비행사단 예하 2개 연대(MiG-15 52대, 편제 상 66대)는 1952년 기간 동안 전황과 임무에 따라 단둥과 안산(鞍山) 기지로의 이동을 반복하면서 소련 및 중국공군과의 연합전력 제대로 북한 서북부 상공에서의

방어제공임무를 수행하였고, 중국 장춘(長春) 인근 궁주링(公主岭) 비행장에 위치한 제2전투비행사단은 La-9 48대(편제상 66대)로 편성되어 중고도 요격 및 지상표적에 대한 공격임무를 부여받았다. 펑청(鳳城)에 주둔하고 있던 제11혼성비행사단은 1952년 말 MiG-15로 기종 전환을 마친 후 제3전투비행사단으로 전환되어 옌지에 주둔하면서 전투임무로의 전환을 준비하였다. 전선이 안정되자 신의주에서 사리원으로 이동 전개한 제11혼성비행단 소속 PO-2 12대(편제상 16대)는 김포, 수원 등의 유엔공군 기지와 유엔 지상군 집결지에 대한 폭격임무를 수행하였다.

1952년 한 해 동안의 북한공군의 작전활동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론 가능한데 첫 번째는 이 시기 소련과 중국공군의 활동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1952년 이전의 전투경험이 풍부한 소련과 중국공군을 대체된 신규 조종사들의 경험부족으로 전투능력이 떨어진 가운데 희생자가 증가하자 수세적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두 번째는 유엔공군의 과감하고도 공세적인 요격작전 수행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엔공군은 이전의 미그회랑에서의 요격작전을 벗어나 공산공군의 연합기지인 단둥을 직접 겨냥하여 이착륙 중인 MiG기를 요격함으로써 소위 “만주성역(Manchurian Sanctuary)”을 타파하였고 이로 인해 안둥에 주둔했던 제1비행사단은 안산과 단둥비행장을 왕복하면서 임무를 수행해야 했고 다른 전력들도 펑청, 궁주링, 둥펑 등 안둥 후방기지로 이동해야만 했다.

북한공군은 제1비행사단 MiG-15를 이용하여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 및 시설에 대한 방어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공산 연합공군 제2제대로 편성되었던 제2비행사단 La-9 또한 유엔군 전폭기에 대항하여 방어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11혼성비행사단 소속 Po-2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야간에 김포, 수원 등 전방 비행장과 병력집결지에 대한 소규모 폭격을 수행하였다.

북한공군은 서부에서는 남포와 황주 계선으로, 동부에서는 김야, 함흥, 원산 일대를 중심으로 전투행동구역 확장을 기도하였고 자유사냥 방식으로 유엔공군 전투기에 대해 요격을 시도하였다. 제1비행사단 예하 연대는 조종사의 기량과 자신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결여로 인해 통상 24대로 편대군을 이루어 요격임무를 수행하였고 1일 1~2회 출격하였다.

이 시기에도 북한 조종사들은 F-86과의 전투 기피 현상은 지속되었다. 1952년 1월 25일 제1비행사단 제2비행연대 MiG-15 24대가 안둥에서 이륙하여 F-86과 교전을 벌여 MiG-15 4대가 격추되어 3명의 조종사가 사망하고 1대는 신의주 비행장에 불시착하는 사태를 초래하자 북한 조종사들의 F-86에 대한 공포는 더욱 더 증가하였다.

북한공군은 유엔공군이 기지에서 이·착륙중인 공산공군기들을 요격하는 것에 착안하여 김포기지에 주기된 F-86을 직접 공격하기 위한 작전을 구상하였다. 1952년 6월 제1비행사단 제2연대 소속 MiG-15 8대를 차출하여 안산기지로 이동하여 비밀리에 지상공격훈련을 6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안둥으로 귀환한 이들은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였으나 결국 이 계획은 실패로 인한 MiG-15 손실과 성공하더라도 미국의 만주 지역 공산공군 비행장에 대한 보복공격을 우려한 소련공군에 의해 저지되었다.[3)]

1952년 9월 초, 미 해군이 북한 북동부의 산업시설 표적공격에 관심을 집중시키자, 조중연합공군사령부는 북한 제1전투비행사단에게 동부해안에서 미 해군의 프로펠러 함재기와 교전하라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는 북한 MIG-15 조종사들이 지난 F-86과의 교전에서 많은 손실을 입고, F-86과의 교전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공중전기량을 향상하고,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의도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으며 미 해군 F4U 1대를 격추시키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4)]

1952년 북한공군은 MiG-15를 보유한 제1비행사단을 위주로 방어제공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조종사의 기량미숙과 자신감 결여로 유엔 전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격작전을 수행하지 못한 채 전투경험을 축적해나가는 과정에 불과했으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련과 중국공군의 보조역할을 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 소련공군

1) 편성 및 임무

1952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64전투비행군단의 전투편성 및 참전부대는 상당한 변화를 거쳤다. 먼저 제64전투비행군단장으로 1951년 10월에 교체되어 약 1년간 군단장직을 수행했던 로보프 근위소장이 임무를 종료하고 1952년 10월 25일에 슬류사레프 중장으로 교체되었다.

<표 8-4>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 편성

구 분	보유 장비	주둔기지	활동기간	비 고
제64전투비행군단	4/MiG-15 bis	선 양		
제97전투비행사단 (제16, 148연대)	116/MiG-15 bis	다둥고우 안둥, 선양	'52.1~'52.8	
제190전투비행사단 (제256, 494, 821연대)	120/MiG-15 bis	안 둥	'52.1~'52.8	
제32전투비행사단 (제224, 535, 913연대)	120/MiG-15 bis	안 둥	'52.9~'53.7	
제133전투비행사단 (제147, 415, 726연대)	120/MiG-15 bis	선양, 안둥 둥펑, 안산	'52.4~'53.8	
제216전투비행사단 (제676, 781, 878연대)	120/MiG-15 bis	안 둥	'52.7~'53.8	
제351야간전투비행연대	10/La-11 10/MiG-15 bis	안 둥	'51.6~'53.1	
해군 제578비행연대		안 둥	'52.7~'53.4	제133비행사단 배속
제18비행기술사단		안 둥	'51.6~'53.8	
제87고사포병사단	37/85밀리 고사포	안 둥	'51.6~'53.1	
제92고사포병사단		안 둥	'51.6~'53.1	
제10탐조연대		안 둥	'51.6~'53.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단 예하 전투제대 편성은 기간 중 2차례에 걸쳐 변동이 이루어졌는데 1952년 1월에 기존의 제1제대인 제303, 324전투비행사단을 교체하여 제97, 190전투비행사단이 참전하게 되었고, 7월에는 다시 이들 전력을 대체하여 제32, 133, 216전투비행사단이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다. 제97전투비행사단은 제1제대 임무를 종료한 1952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선양비행장으로 이동하여 군단 제2제대 전력으로 제1제대 전력인 제32, 133, 216전투비행사단의 이착륙 보장을 위한 엄호와 증원을 위한 예비전력으로 활동하였다. 야간 전투전력인 제351전투비행연대는 기존 La-11 20대로 구성되었으나 1952년 2월 1개 대대를 MiG-15bis로 교체하여 La-11과 MiG-15bis 각 10대로 전력을 증강하였다. 반면 대공방어전력인 제87, 92고사포사단 및 제10공중탐조연대와 후방기술지원부대인 제18항공기술사단은 변동 없이 1953년 1월까지 임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태천, 남시 비행장 건설 방어를 위해 박천으로 파견되었던 제87고사포사단은 시급한 안둥기지 방호를 위해 1952년 6월에 안둥비행장으로 이전 배치하였다.

1952년 한 해 동안의 제64전투비행군단의 임무는 1951년 10월에 하달한 임무지시와 변동 없이 중국공군과 북한공군, 중국 고사포 모든 단위부대들과 협조하여 유엔공군의 공중정찰과 공격으로부터 압록강 교량, 비행장, 발전소와 안둥, 신의주, 창성 지역의 목표물, 북한의 안주, 희천 선까지의 보급로를 보호하고 선양 방면의 중국 동북지역 목표물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또한 중국, 북한공군을 지휘·통제하여 북한 서북부 지역에서 유엔공군의 공격을 차단하고 방호하는 소련, 중국, 북한 3국의 연합공군사령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예하제대별 임무는 제1제대 전투비행사단은 유엔공군 전투기와 직접 전투를 벌여 방어지역과 목표를 보호하고 제2제대 전투비행사단은 군단의 예비전력으로서 군단 지휘부가 위치한 선양에 주둔하면서 당시 극심해진 유엔공군의 기지 이착륙 간 요격작전으로부터 공산공군 항공기를 방호하는 것이었다. 대공방어전력인 제87고사포병사단은 안둥과 다둥고우 비행장 방어임무가, 제92고사포병사단은 안둥 지역 압록강 교량과 도하시설, 신의주 비행장 방호 및 유엔공군기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안둥과 다둥고우 비행장으로 접근 차단임무가 부여되었다. 제10탐조연대는 제351야간비행연대의 야간 요격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안둥, 용암포, 차련관, 의주 경계지역 탐조구역을 설정하여 유엔공군기 접근 시 탐지임무가 주어졌다.

2) 작전활동

1952년의 제64전투비행군단 작전은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52년 1월부터 7월까지이고 두 번째는 7월 이후의 시기이다. 이는 전투기간을 6개월을 넘지 않는다는 소련 지도부의 방침으로 참전 전력을 교체하였기 때문이다. 전반기 참전부대는 제97, 190전투비행사단이며 이들은 교체하여 후반기에 투입된 부대는 제32, 133, 216전투비행사단이다. 소련공군 지휘부의 입장에서는 1951년 초부터 참전해온 제303, 324전투비행사단이 장기간의 전투로 조종사와 전투기 모두의 피로도가 최고조에 이른 상태에서 이들을 젊고 잘 훈련된 신임조종사와 전투기로 전부 교체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전투역량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소련 조종사들에게 1952년 2월부터 1953년 7월 휴전협정 조인까지의 기간은 가장 힘든 시기가 되었다. 특히 1952년 1월 이후 소련공군이 자랑하는 가장 많은 공중전투 경험과 전투기량을 보유한 최정예 제303, 324전투비행사단이 전선에서 철수한 이후 1952년 8월까지 가장 혹독한 시기가 되었다. 이는 두 가지 원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체 투입된 후임 전투비행사단의 현격한 전투력 저하였다. 교체 투입된 비행사단 조종사 대부분이 전투 경험이 없었고 전투기량과 사기마저도 전임 사단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두 번째는 이전까지 유지했던 유엔공군과의 압도적인 수적우세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때 소련공군은 제64전투비행군단 규모를 이전의 3개 전투비행사단에서 2개 전투비행사단으로 감소시킨 반면 유엔공군은 1951년 12월에 F-86 2개 대대를 증가시켜 이전의 수적우세가 감소하게 되었다. 물론 중국공군의 참전으로 공산공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전의 수적 우세는 계속 유지되었지만 소련공군과 마찬가지로 1952년에 참전한 중국공군 조종사들의 전투기량은 이전의 중국공군 제3, 4비행사단에 비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바가 못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소련공군은 이 시기를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로 표현하고 있다.[5]

소련공군은 1951년 4월 이후 장기간 전투를 수행해 온 제303, 324전투비행사단을 교체하여 1952년 1월 제97, 190전투비행사단을 안둥으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새롭게 전투에 투입된 조종사들은 MiG-15 비행시간이 단지 약 50시간에 머물렀고 한국에서의 작전전술이나 실전전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으나 소련공군 지휘부는 이들이 최고의 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고 전투준비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이들 2개 비행사단은 치명적으로 높은 손실을 입은 반면 유엔군 항공기 격추는 매우 적었다. 초기 3개월 동안 제190전투비행사단 예하 제256, 494비행연대는 각각 16대와 20대의 MiG-15 손실을 입었고 제821비행연대는 11대를 잃었다.[6] 또한 7월까지 이들 연대의 소련 조종사들은 거의 극한상황에 이르렀고 전투임무를 회피하기 시작했다. 제97비행사단 상황도 이에 못지않았는데 4개월 동안 전력의 1/10을 잃었다.[7]

이러한 상황이 되자 제64비행군단장인 로보프 중장이 모스크바에 새로운 조종사들의 기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고 공군부사령관 아갈쪼프 중장, 국가 대공방어군 전투항공사령관 시비츠키 중장, 국가대공방어군 고사포병 사령관 고호로프 중장이 이끄는 조사단이 1952년 4월 23일부터 5월 17일까지 제64전투비행군단의 전투 및 비행사단의 상황, 최근 손실 증가의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군단이 주둔한 선양에 파견되었다. 조사단은 조사결과 발표에서 최근 3개월간의 피해결과를 “MiG-15bis 48대와 조종사 16명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었고 이중 MiG-15bis 23대와 조종사 7명, 즉 50%는 아군 비행장 상공에서 미군 전투기들에 의해 사격을 당했다.”고 적었다.[8] 이러한 급등한 손실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5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① 전술의 부 적절성 : 소련공군은 연대급부터 사단급 편대군으로 전술을 운용하는데 반해 유엔공군은 소규모 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규모 편대군은 체공시간을 짧게 하고 부분적인 인원만이 전투가 가능하여 전투효율성을 낮추고 유엔공군이 모든 전투 고도를 장악하여 대규모 편대군의 활동 융통성이 결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② 지휘관의 전투 참여 저조 : 연대장들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유엔공군의 전술 이해도가 낮아 예하 조종사들에게 권위가 없고 통솔에 문제가 발생

③ 군단 차원의 야간요격활동 지도 조직 부재

④ 불충분한 비행장에서의 이·착륙 활동 보장

⑤ 비행장에 대한 대공(고사포)방어 능력 부족

이러한 조사단의 원인 지적에 따라 1952년 7월까지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졌는데 주요한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① 비행사단의 교체 투입 및 전력 증강

㉮ 제97전투비행사단을 제133전투비행사단으로, 제190전투비행사단을 제32전투비행사단으로 교체하고 제216전투비행사단을 제97비행사단이 제2제대 임무를 종료하는 1952년 7월에 추가로 투입

㉯ 교체되는 제32, 133, 216전투비행사단에 각각 MiG-15bis 12대를 예비전력으로 추가 배치

㉰ 조종사의 전투참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

② 2기, 4기 편대의 소규모 편대로의 전술 변화

③ 비행장에서 이·착륙 보장을 위한 조직 강화 : 태천, 남시에 주둔하고 있는 제87고사포병사단을 안둥, 다둥고우 지역으로 이전 배치

④ 비행연대장의 전투 활동 참여

⑤ 야간 비행조직의 건설

어쨌든 제64전투비행군단의 1952년 전반기 전투성과는 군단 자체 평가에서도 6·25기간 중 낮은 평가를 받고 종료되었다. 1953년 2월 7일 제64전투비행군단 비행전술회의에서 참모장(대좌 베례쥬노이)이 발표한 군단 전술활동분석 결과를 보면 월 평균 적기 격추건수에서 제1기(1951년 9월~1952년 1월, 제303, 324전투비행사단 참전)에는 74대, 제2기(1952년 2월~7월, 제97, 190전투비행사단 참전)에는 28대, 제3기(1952년 8월~12월, 제32, 133, 216전투비행사단 참전)에는 32대로 1952년 전반기가 가장 적은 전투성과를 보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조사단의 결과보고 외에 최근 당시 소련공군의 손실급증에 대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원인 연구가 있었다. 당시 아바쿠모프(Boris Abacumov) 대좌는 제97비행사단의 많은 조종사들이 과로로 인한 신체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신세를 졌다고 회상했다. 최근 소련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주된 이유는 소련 조종사들이 제트전투기의 전투기동 시 압력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감압복(G-Suit)이 아닌 가죽재킷, 가죽 비행모, 안경과 같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비행복을 착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9] 결과적으로 소련 조종사들은 고속기동 수행에 따른 육체적 긴장에 의해 자주 복통과 내장의 문제로 고통을 받았다.

1952년 전반기 한국에서의 소련공군의 한축을 담당했던 제97전투비행군단의 전투 활동의 개괄적인 상황은 1952년 8월 21일 제64전투비행군단장에게 보고된 제97비행사단(사단장 : 근위대좌 세브쵸프)의 전투결과보고서[10]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제97전투비행사단이 1951년 12월 22일 소련 칼루카 시를 떠나 안둥에 도착한 것은 1952년 1월 2일이었다. 이들은 안둥기지 도착 후 1952년 1월 20일까지 단계별 전투훈련을 실시하고 1월 21일부터 유엔공군 소규모 편대에 대항하여 전투를 개시하였다. 제97전투비행사단은 1월 21일부터 안둥과 다둥고우 비행장에 분산 배치되어 7월 9일까지 안둥, 의주, 창성지역의 목표물과 도하시설 및 안둥, 의주, 안주, 개천, 태천, 선천 지역 비행장과 교통로 방호임무를 수행하였다. 7월 10일 선양비행장으로 이동해서는 8월 10일까지 선양 및 주변 지역의 산업 및 행정중심지에 대한 유엔공군의 정찰을 방어하고 창성, 안둥, 다쿠산(大孤山) 지역에 대한 유엔공군의 대규모 공습 시 제1제대 증원 및 안둥지역 비행장들에 대한 유엔공군의 봉쇄를 차단하고 제1제대 MiG-15 이착륙을 방호하는 제2제대 임무를 수행하였다. 제97비행사단이 1952년 1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출격한 횟수는 총 4,189소티로 비행일 기준 사단 평균 40소티, 조종사 1인당 평균 70소티였다.[11] 이중 요격임무는 3,407소티(81%), 전투초계 549소티(13%), 자유사냥 85소티(2%), 타 부대방호 118소티(3%), 정찰 30소티(1%)로 요격임무(방어제공)가 주 임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임무결과 성과로 유엔공군기 66대(49대/F-86, 6/F-84, 6/F-80, 5/기타)를 격추시킨 반면 제97사단 MiG-15는 34대가 격추되었다고 주장했다.[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공군의 자체 평가는 1952년도 후반기 작전상황이 전반기 상황보다 나아졌다고 평가하였지만, 1개 전투비행사단이 증가 편성되어 수적 우세는 확보되었지만 질적으로는 전반기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 후반기 소련공군의 활동 경향은 제64전투비행군단 지휘부가 후반기 참전 부대 중 가장 우수했다고 평가하는[13] 제133전투비행사단의 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133전투비행사단이 소련을 떠나 중국에 도착한 것은 1952년 4월 16일이었다. 사단본부와 예하 2개 비행연대(제147근위전투비행연대, 제415전투비행연대)와 지원부대는 선양비행장에 배치하고, 제726전투비행연대는 둥펑에 배치하였다. 이들은 다시 7월 중 2차례에 걸친 이동을 거쳐 제147근위전투비행연대와 제726전투비행연대는 안둥비행장에, 제415전투비행연대는 펑청(鳳城)비행장[14]에 전투를 위한 최종 배치를 완료하고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전투 활동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인 1952년 5월 11일에는 제415전투비행연대 예하 1개 대대(조종사 11명, MiG-15bis 10대)가 다둥고우 비행장으로 이동하여 야간전투임무에 돌입하였다. 또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제133전투비행사단이 1952년 8월부터 소련 해군 소속 1개 항공연대(제5해군 제7항공사단 제578항공연대)의 장비를 제외한 병력(연대 지휘관 및 참모 12명, 조종사 40명)을 배속받아 전투에 참여시켰다는 것이다.[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양에 주둔한 제133전투비행사단은 4월 20일부터 6월말 까지 제2제대로서 선양지역 방호와 제1제대인 제97, 190전투비행사단의 증원제대 역할을 하다가, 7월에 전투배치를 완료한 다음 8월 1일부터는 요격출격과 '자유사냥'을 통해 수풍발전소와 안둥의 압록강 철교, 안둥비행장, 평양-원산 선까지의 목표물과 교통로를 유엔공군의 공격으로부터 방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사단의 월간 비행활동 추이는 다음(표 8-5)과 같다.

제133전투비행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안둥과 펑청기지로 이동 후 8월 1일 첫 교전을 벌이면서였다. 이날의 교전상황을 간략하면 1952년 8월 1일 제133전투비행사단 24대의 MiG-15bis가 유엔공군의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해 비상출격을 했을 때 미 공군 제334전투비행대대 F-86의 공격을 받았다. 이때 소련조

종사들은 실전 전투경험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거의 공황상태에 이르렀다. 니콜라이 이바노프(Nikolay I. Ivanov) 대위는 자신은 자신의 비행기량에 의지하고 유엔 공군의 첫 번째 나선형 강하 공격을 회피한 후 F-86을 맹렬히 추격하여 한국에서의 첫 번째 공중사격을 실시하였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후 피탄되는 F-86을 목격하였으나 다른 F-86이 자신을 공격하는 바람에 추락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수차례의 공중기동이 있은 후 이바노프는 두 번째로 F-86의 후방에 위치하는 기회를 잡았고 맹렬하게 기관포를 발사하였다. 이때 그는 피탄된 F-86이 폭발하는 섬광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는 안둥기지로 귀환 후 F-86 2대를 격추하였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제133비행사단에게는 1952년 8월 1일은 비극적인 날로서 이바노프 요기(僚機)를 포함하여 MiG-15 3대가 격추되고 이들 3명의 조종사들이 사망하였는데, 미 공군 보고서는 F-86 1대가 격추되고 다른 4대가 손상을 입었고 MiG기 3대를 격추하고 다른 2대에 손상을 입혔다고 기록하고 있다.[16]

<표 8-5> 1952년 제133전투비행사단 예하 제대별 비행활동

구분	사단지휘부	제147비행연대	제415비행연대	제726비행연대	계
'52. 5월		81			81
6월		91	42	20	153
7월	2	138	160	88	388
8월	4	306	221	167	698
9월	5	279	340	186	810
10월	1	223	164	146	534
11월		163	208	168	539
12월	2	144	194	180	520
계	14	1,425	1,329	955	3,723

기간 중 제133전투비행사단 예하 연대별 전투강도는 제147전투비행연대, 제415전투비행연대, 제726전투비행연대 순으로 높았다. 제133전투비행사단이 유엔공군과의 공중전을 벌인 고도는 유엔공군 기종별로 다른데, F-86과의 교전은 8천~1만 4천m, F-84, F-80, F-51과 같은 전폭기와는 500~4,500m, B-26, B-29와 같은 폭격기와는 6천~8천m에서 교전을 벌였다. 주 교전 지역은 F-86과는 안둥, 창성, 용암포, 철산, 정주, 순천, 개천 지역이었고, 전폭기와는 안주, 북진, 정주, 철산, 대관동, 선천지역에서 주로 교전하였다. 사단의 전투효율성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52년 9월~12월로 MiG-15bis 손실은 13대인데 반해 유엔공군기 55대를 격추하고 13에 대해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17]

소련공군은 유엔공군의 야간 공습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에도 관심을 보였다. 1951년 6월 소련공군은 뤼다(Lüda)로부터 중국 안산으로 La-11 20대를 보유한 제351야간전투비행연대를 전개하였고 본격적으로 작전을 시작한 것은 9월부터였다. 이들의 임무는 야간공격으로부터 안둥지역의 교량과 비행장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351비행연대는 B-29를 요격하기에는 속도가 느렸다. 한 예로 1951년 12월 4일 부연대장인 카렐린(Anatoliy M. Karelin) 소령은 탐조등에 의해 식별된 B-29를 요격하는데 실패하였다. 결국 1951년 12월까지 B-29 2대를 요격하는데 만족해야 했다.[18] 이러한 결과는 제64전투비행군단 지휘관들로 하여금 MiG-15bis를 야간작전에 투입하기로 결정하게 하였다. 1952년 2월에 제351비행연대의 1개 대대는 MiG-15bis(약 10대)로 기종 전환을 마쳤고 나머지 대대는 이전 보유 항공기를 지속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들 MiG기는 공중요격레이더를 장착되지 않아 이들 조종사들은 지상관제요격 통제사들에 의존하여 전투공역까지 유도되어 이후 적기를 목측으로 식별하였다. 카렐린 소령이 야간탐조등의 도움을 받아 B-29 1대를 요격한 1952년 5월 하순까지 MiG기는 유엔공군 야간 폭격기에게 치명적이지 못했다.[19] 이것이 야간에 MiG기가 거둔 최초의 요격이었고 소련 조종사들을 고무시킨 승리였다.

1952년 5월 11일 야간전투경험이 있는 제133비행사단 조종사들이 제351비행연대 예하 대대로 추가적으로 편성되자 야간에 B-29에 대해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극동공군 폭격사령부는 1952년 6월 10일 저녁에 B-29 2대가 격추되고 1대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보고했다. 소련 자료에 의하면 카렐린이 2대를 격추하고 다른 조종사 1명이 한 대를 파괴했다.[20] 이러한 B-29의 손실로 인해 극동공군은 MiG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요격레이더를 장착한 F-94B(Star fire) 야간 전투기를 배치하게 되었다. 11월 초 제351야간요격연대는 미 해병항공단 F3D-2(Sky night) 전천후 제트요격기에 의해 2대의 MiG기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소련공군은 11월 7일에 F-94B 1대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공중요격레이더가 없었지만 지상관제요격통제사는 코발레프(I. P. Kovalev) 중위의 MiG가 F-94B에 돌격하여 충돌할 수 있는 위치까지 정확하게 유도하였고 충돌로 인해 두 항공기는 화염에 휩싸였다.

코발레프는 안전하게 비상탈출 하였고 후에 적기훈장을 받았다. 이는 야간에 제트기 간에 거둔 최초의 요격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미 공군이 공중요격레이더를 탑재한 야간요격기의 배치에도 불구하고 MiG기들이 유엔공군의 폭격기를 격추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해다는 점이다. 증가된 유엔공군의 야간 공습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제32전투비행사단 1개 비행대대(10대/MiG-15bis)가 1952년 12월부터 야간작전에 참여하였다.

제64전투비행군단 분석에 따르면 제351야간전투비행연대는 1952년 한 해 동안 1,062회 출격하여 유엔공군과의 공중전을 32회 실시하여 유엔공군기 15대(11대/B-29, 3대/B-26, 1대/F-94)를 격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1] 또한 야간전투 시 손실률을 유엔공군과 소련공군의 비율을 10:1, 유엔공군기 1대를 격추하는데 평균 탄환 사용량은 220발, 야간전투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자평하고 있다.[22] 야간 전투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올린 조종사로는 B-29 5대와 RB-29 1대를 격추시킨 제351야간전투비행연대 부연대장 카렐린 소좌이며, B-26 2대를 격추시킨 두쉰 소좌, B-29 2대를 격추시킨 도브로비찬 대위를 꼽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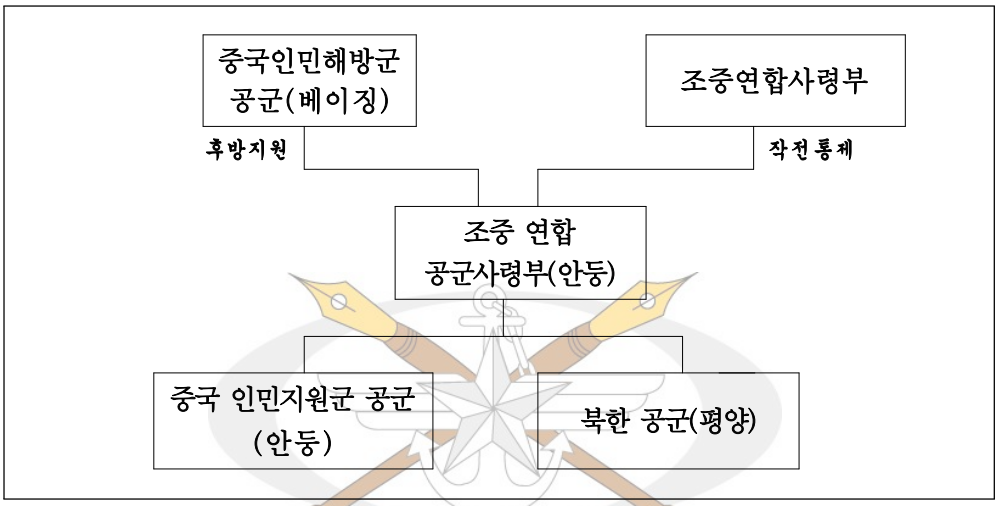
제64전투비행군단 보고서에 의하면[23], 1952년 군단의 비행활동은 총 23,539소티를 실시하였고 이중 야간 출격은 1,062소티였다. 공중전을 실시한 승무원은 연인원 9,014명으로 총 868회의 편대군 공중전을 수행했다. 또한 기간 중 전투성과는 조종사 51명과 항공기 172대를 잃는 반면 유엔공군기 총 394대를 격추하였다고 주장하였다.[24]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3. 중국공군

1) 편성 및 지휘체계

<표 8-6> 조중연합공군사령부 지휘관계



1951년 9월 유엔공군의 스트랭글작전에 맞서기 위해 제4전투비행사단을 안둥비행장에 전개시켜 6·25전쟁에 본격적인 참전을 시작했던 중국인민지원군 공군은 그해 12월까지 제3, 14, 2, 6전투비행사단이 참전하였다. 당시 중국지도부는 6·25전쟁에 참전하는 중국공군을 '중국인민지원군 공군(中國人民志願軍 空軍)'으로 명명하고 사령관에는 리우젠(劉錢)을 임명하였으며, 조중연합공군사령부의 사령관을 겸임토록 하였다.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 공군을 지휘하는 상부조직은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사령부(사령관 : 류아러우 劉亞樓)였다.

1951년 11월 중순 공군작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공군 지휘부는 전장상황을 평가했다. 정전(停戰)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들은 6·25전쟁을 통해 중국공군 조종사와 지원병력들을 훈련시키고 전쟁에서의 실전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꼈다. 또한 소련공군에게 중국공군 조종사들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대한 엄호를 계속 맡길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필요했다. 중국공군 지휘부는 잘 훈련된 제3, 4비행사단에게 새롭게 투입되는 중국공군 부대를 이끌고 작전에 참가하여 실전훈련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결정하고 신규 참전부대에 대한 방호임무를 이들 제3, 4전투비행사단에 부여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1952년도에도 새로운 비행사단들이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다. 1952년도 중국공군 참전부대는 총 9개 비행사단으로 다음 <표 8-7>과 같다.

<표 8-7> 1952년 중국공군 참전 현황

참전부대	참전기간	기종	지휘관
제3전투비행사단	'52.3~'53.1	MiG-15	袁彬
제4전투비행사단	'52.1~'52.4	MiG-15	方子翼
제6전투비행사단	'51.11~'52.3	MiG-15	
제12전투비행사단	'52.3~'53.3	MiG-15	王明礼
제15전투비행사단	'52.1~'52.3, '52.10~'53.7	MiG-15	黃玉庭
제17전투비행사단	'52.3~'53.7	MiG-15	
제18전투비행사단	'52.5~'52.12	MiG-15	王定烈
제8폭격비행사단	'50.12~'53.3	Tu-2	
제10폭격비행사단	'51.10~'52.3	Tu-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52년 초 중국 공군은 지휘체계 상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은 실제 전투에서 효율적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실패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중국공군의 첫 번째 문제점은 중국공군의 과도한 중앙 집권화로 인한 작전지휘의 경직성이었다. 중국 공군지휘체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중앙집권화되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효율적인 방어 작전은 중앙통제와 지시가 필요하다는 소련의 2차 대전 경험과, 한 편으로는 중국공산당의 위계구조가 개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데 그 원인이 있다.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사령관 류야러우(劉亞樓)는 베이징에서 마오쩌둥에게 직접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통해 자주 중국인민지원군 공군 작전에

간섭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인민지원군 공군사령관 리우젠(劉錢)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행동의 자유를 누렸다. 중국인민지원군 공군사령부에서 사령관이 일일 임무계획으로부터 초계지역에 대한 조종사 출동지시까지 모든 형태의 작전을 통제했다. 초대 중국인민지원군 공군 사령관인 리우젠은 자신의 권한은 비행편대장에게 임무명령을 주는 것까지 포함되어있다고 회상했다. 비행장에 위치한 비행사단장은 단지 항공기 이착륙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공군 지휘관들은 이러한 지휘체계가 전투상황에서 노련한 지상 지휘관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통제를 실시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공군의 중앙집권화 된 계획과 통제체제는 너무도 경직되고 융통성이 없었고,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중국공군 지휘관들이 공중전투경험이 부족하여 자주 아주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었다. 중국인민지원군 공군 부사령관 단수첸(段蘇權)은 1951년 12월 13일에 발생한 치명적인 패배는 안둥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공군사령부를 자주 방문한 류야러우의 간섭이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류야러우는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무시한 채 중국 조종사들에게 1,000미터 아래에서 접근해오는 미 공군의 F-86 대규모 편대군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라는 잘못된 명령을 내렸다. 고도의 이점을 포기하자, 잘 훈련된 F-86 조종사들이 고고도에서 손쉽게 공격을 가했고, 결과적으로 전쟁 중 다른 임무를 수행할 때보다도 MiG기는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다음 두 번째 문제점은 중국인민지원군 공군의 지휘·통제체제가 무선통신과 레이더 운영자들의 경험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약점을 노출하였다는 점이다. 때때로 지상과 공중 간 통신이 작전 중에 지연되었고 지상관제요격 레이더는 지상에 있는 지휘관이 결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레이더 탐지범위 오차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적기와 매우 밀착된 거리에서 조차 중국 조종사들은 접근해오는 공산군의 폭격기와 전폭기를 요격하는데 실패했다. 1951년 12월에 중국공군은 박천과 평강에 지상관제요격 레이더와 통신장비를 갖춘 전선보조통제소를 설치했다. 감시초소는 북한지역 내 레이더 미 도달 지역에 중국 조종사들의 MiG기가 기습을 받아 방어 작전을 펼칠 때 요격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설치되었다. 전방통제소는 공중전에서 격추된 중국 조종사와 항공기를 구조하는 책임을 가졌다.

세 번째 문제점은 대부분 중국공군 지휘관들은 공중전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나, 지상전 경험을 공중전에서의 전술로 확대적용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참전 초기 중국공군의 지휘와 운용원칙은 정밀한 계획, 공산군의 약점을 압도하기 위한 우세한 전력의 집중, 융통성 있는 전력운용이 포함된다. 특히 적에 비해 압도적인 수적우세를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참전 초기, 중국의 젊고 경험이 없는 조종사들은 대규모 전투 대형이 필요한 소련의 2차대전 전술을 이용하여 F-80과 F-84와 같은 저속기와 교전했다. 만약 상황이 유리하다면 중국 조종사들은 공격을 감행했고 그렇지 않으면 교전을 회피했다. 참전초기 몇 차례 손실이 발생한 이후 중국공군 지휘부는 이러한 대규모 전투대형이 너무 경직되고 융통성이 없고 전투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유엔 공군은 이러한 대형을 쉽게 파괴할 수 있었고 중국 조종사들은 개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직면했다.

1951년 11월과 12월에 류야러우는 스스로 공중전을 연구하기 위해 안둥으로 갔다. 중국 조종사들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는 소규모, 밀집, 지원 가능한 비행편대가 결론적으로 보다 좋은 성과를 이룩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유엔 공군의 공중활동 유형을 분석한 결과, 2기 혹은 4기, 8기 비행편대로 상호 지원 가능한 다른 고도에서 비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전술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류야러우는 1개 공역, 다양한 고도, 4기 편대비행 원칙을 고안했다. 이는 항공작전에서의 편조, 편대와 이들 간의 공동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당시 중국인민지원군 공군사령관 리우젠은 이 전술원칙은 항공전 수행방법을 이해하는 비약적인 진전이자, 중국공군의 공중전 이론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26)]

중국공군 성장 초기에 전투경험을 최대한 많은 조종사에게 적용하기 위해 중국공군 지도부는 1952년 6월에 6·25전쟁 참전을 통해 지역공군 지휘관/참모들을 교대로 안둥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동부군구 공군을 시작으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북부, 남중부군구 공군 순으로 3개월 간격으로 파견이 이루어졌다. 1952년 7월 2일부터 10일까지 558명의 지휘관, 참모인원이 동부군구로부터 안둥으로 이동했다. 2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중국공군은 이들이 중국인민지원군 공군의 지휘를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1952년 9월 동부군구 공군사령관인 나이펑지(聶風智)가 리우젠을 이어 중국인민지원군 공군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유지했다.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은 적절한 전투경험을 가진 고위 지휘관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6·25전쟁은 비행사단 이상 제대 지휘관들이 군사학교에서보다 현대전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할 수 있는 거대한 학교였다. 군과 사단 지휘관들도 6·25전쟁에 파견할 것이라는 총참모부의 보고에 대해 1952년 8월 16일 마오쩌둥은 환자라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면 모든 군과 사단 지휘관들이 참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침을 통해 마오쩌둥은 공군지휘부에 참전이 계획되지 않은 항공학교장과 비행사단장들도 전쟁경험을 배우고 습득하기 위해 중국인민지원군 공군에 파견하는 계획을 발전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1953년 7월말까지 다양한 각급 지휘부로부터 1,070명 이상의 군관과 하전사들이 교대로 파견되었다. 또한 총참모부, 해군항공대, 방공포병사령부 소속 군관 300명도 항공작전을 배우기 위해 안둥으로 파견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참전전력의 증원 및 작전

1951년 11월 전장상황 평가를 통해 정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중국공군 지휘부는 창설 단계에 있는 중국공군 조종사와 지원 병력에 대한 실전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27]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숙련되지 않은 신규양성 조종사를 참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안둥기지가 3~4개 비행사단만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공군은 각 비행부대가 안둥기지에 짧은 기간동안 주둔하면서 대규모 공중전을 5~7번 수행한 후에 교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51년 11월에 제2비행사단(1개 MiG-15 비행연대, 1개 La-11 비행연대)과 제14비행사단(MiG-15 40대, 조종사 43명)이 참전하였다.

1951년 12월 13일 오후, 제14비행사단 소속 전투기들이 제3비행사단 전투기의 엄호 하에 첫 번째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젊은 중국조종사들에게 좀 더 쉬워 보이는 미 공군 전폭기와 교전을 시도하던 중 예기치 않게 박천상공에서 대규모 F-86 편대군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F-86들은 MiG가 보조연료탱크를 장탈하기 전에 후미로 들어왔다. 이 공중전은 F-86 조종사들에게는 "매우 쉽고 훈련된 거위사냥"이 되어버렸다. 6분 동안 7대의 MiG가 추락했고 다른 2대는 심한 손상을 입었다.

비상 탈출한 7명의 조종사 중 6명이 생존에 성공하였다. 이는 6·25전쟁 중에 중국공군 단일 비행사단이 기록한 최악의 손실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공군은 신입 조종사들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마련에 고심했다. 실전경험이 있는 제3, 4비행사단에 의존하여 신입조종사들의 최초 비행은 유엔공군기가 없는 상태에서만 전투지역에 나갈 수 있었다. 나중에는 소규모 전폭기 편대공격, 소규모 F-86편대로 보다 위협이 증가 된 상황으로 출동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대규모 전투편대군과의 교전에 참가하였다. 초기 임무 시에는 경험 있는 조종사들의 도움을 받았고 나중에는 실전경험이 있는 부대와 새로운 부대가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52년 2월 4일 마오쩌둥은 중국공군 지휘관들에게 중국공군 조종사들이 극히 적은 공중전을 치를 지라도, 실전의 중대성과 실전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을 강조하는 지시를 하달하였다.[28] 1952년 초 추가로 4개 비행사단이 중국공군 참전부대에 합류하였다. 이들은 선양의 제15비행사단(48명의 조종사와 MiG-15 48대), 상해의 제12비행사단(조종사 45명, MiG-15 49대), 탕산의 제17비행사단(조종사 52명, MiG-15 42대), 광저우의 제18비행사단(조종사 39명, MiG-15 40대)이다. 1951년 11월부터 휴전까지 중국공군은 같은 시기에 3~4개 비행사단을 교대로 유지하였고 총 150~200대의 MiG-15를 압록강 주변 비행장에 배치하였다.



중국공군 참전 기념탑(중국 단둥 항미원조기념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 참전 와중에도 중국공군의 전력증강은 사업은 계속되어 1951년 9월 약 2개 사단 100여 대의 항공기에서 1952년 9월 약 9개 비행사단 450여 대의 항공기로 늘어났다. 또한 1952년 5월부터 시작된 기존 MiG-15항공기를 개량된 MiG-15bis로 개량하는 작업을 1952년 10월에는 거의 완료했다. 이러한 가운데 1952년 8월 기준 참전중인 공군전력은 9개 전투비행사단과 4개 고사포사단과 5개 도시방어 고사포연대였다.[29]

1952년 1월부터 중국공군은 독립적인 작전을 펼쳤고 비행사단을 교대로 작전을 진행했으며 1951년 9월 참전을 시작한 이래 1952년 6월까지 9개 전투비행사단(17개 MiG-15 연대, 1개 La-11 연대)이 방공임무를 수행했으며, 2개 폭격비행사단이 대화도와 소화도 폭격에 참여하여 지상군을 지원하였다. 이 기간(1951.1~

1952.6) 동안 중국 공군은 447명의 조종사가 전투임무를 수행했으며 전투출동 680차례에 총 1,602대가 출동하여 공중전을 85차례 벌여 유엔공군 항공기 123대를 격추하고 43대에 손상을 입혔으며 중국 측은 82대가 격추되고 27대가 손상을 입어 상호 격추 비율은 1:1.46으로 중국공군이 우세하다고 주장하였다.[30]

그러나 이러한 중국공군이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왜냐하면 당시 중국공군의 항공작전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조종사의 무경험과 비숙련은 중국공군이 6·25전쟁에서 직면한 가장 큰 약점이었다. 중국공군은 참전기간 동안 약 11,000소티의 비행을 실시하였지만 약 15%(1,602)만이 실제 전투에 참가한 것이다. 9개 비행사단 중에서 제3, 4비행사단만이 전술을 구사하면서 미군전투기와 훌륭하게 교전하였다. 제3, 4비행사단은 다른 비행사단이 더 많은 비행을 하면서 거의 승리를 하지 못한데 반해 2/3 이상을 승리로 이끌었다. 한 예로 1952년 4월과 5월간에 제12, 17비행사단 조종사들은 27번을 이륙하여 단 한번 공중전을 치렀을 뿐이다. 미 공군 학자들에게는 이러한 낮은 전투참가율은 아마도 대부분의 공산 측 조종사들이 유엔공군과 미 공군보다 항상 수적으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공중전 참가를 원치 않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 전사가인 후안(Xu Yan)은 제트 조종사는 전투에 숙달되기 위해서는 최소 300시간 이상의 비행훈련 기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전쟁이 긴박성으로 인해 6·25전쟁에 평균 50~60시간의 비행훈련시간을 가진 조종사를 파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6·25전쟁 참전자의 회상에 의하면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도 적기를 식별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포함한 무경험과 자신감 부족은 교전에서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만약 중국공군이 참전초기에 사용할 전술이 있었다면 그것은 기술적으로 우세한 MiG-15가 이러한 결함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F-86보다는 F-80과 F-84와 교전하는 것이었으나 미군 조종사의 공세적인 요격전술로 인해 어려움은 계속되었다 .

1952년 중반 부실한 중국공군 조종사들의 성과는 중국 지도부의 우려를 낳았다.

1952년 5월 13일과 15일 제3비행사단은 유엔공군의 안둥 비행장에 대한 은밀한 기습공격으로 MiG-15 5대와 2명의 조종사를 잃었다. 1952년 6월 11일 마오쩌둥은 류야러우 공군사령관에게 안둥비행장으로 가서 공군작전을 책임지고 지휘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조종사들은 약 한 달간 전투임무를 중지한 채 전투임무 손실 경험에 대해 요약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기간 중국공군작전의 가장 큰 좌절은 지상군에 대한 지원계획의 포기이다.

북한지역에 비행장을 건설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대해 미 공군의 지속적인 공격은 중국공군의 압록강 이남으로의 항공기 전개를 막았다. 중국 통계에 따르면 건설 중인 비행장에 119회에 걸쳐 약 13,760발의 포탄이 투하되어 약 28%가 활주로, 유도로, 기타 시설을 명중하였다. 1951년 12월 말에 중국공군은 지상군 지원 계획을 철회했고 미국과 교전하기 위해서 단지 중국 내의 비행장만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북한 지역에 위치한 비행장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MiG의 짧은 비행거리 때문에 중국공군은 모기지(母基地)에서 100마일 이상 떨어진 지역에 대한 비행은 제한되었다. 공중엄호의 부족은 전쟁기간 내내 중공군의 사기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1년 9월부터 1952년 5월까지의 중국공군 조종사와 지상 지원 병력은 실전경험을 획득하기 시작했으며 이 기간 작전기간동안 많은 교훈이 도출되었고 이러한 교훈은 전쟁기간 내내 중국공군의 항공전 수행노력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52년 춘계기간에 판문점에서의 정전회담은 양측이 포로송환 방법에 대해 양보를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1952년 5월 중순 중국 공산당 군사위원회는 한국 전장 상황을 평가한 후 정전이 1952년을 넘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공군에게 인민지원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공군에게 보다 많은 전투경험을 얻기 위해 모든 전투비행부대를 전장에 순환하여 참전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1952년 6월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회담이 조인되기까지 중국공군은 중국공군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공군부대가 참가하는 항공작전을 지속하였다.

1952년 5월 저우언라이는 총참모부장 네룽전(聶榮臻)에게 펑더화이(彭德會)와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들 모두는 중앙지도부의 중국이 내적으로는 경제를 안정화하고 국가를 부흥시키면서 6·25전쟁에서 전투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정책에 찬성했다. 전쟁이 길어짐에 따라 이들은 한국에 중국인민지원군의 윤번제 교대 원칙을 지지했다. 1952년 5월 15일 중앙군사위원회는 지쳐 있는 지상부대를 새로운 부대로 교체할 것과 특별히 항공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전선에 3개 전투비행사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1952년 6월 6~9일간 개최된 지휘관회의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지휘관들은 길어진 전쟁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의 군대가 중국인민지원군의 주 방어선을 따라 그들의 현재 위치를 고수하게 하는 "적극적 진지방어"를 수행하는 데 동의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새로운 전략에 호응하여 1952년 5월 19일 중국공군 지휘부는 훈련보다는 실제 전투를 염두에 두고 6·25전쟁에서 공군작전의 성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의 MiG-15 조종사들이 숙련도가 너무 떨어져 미국과 유엔공군 조종사들에게 많은 위협이 되지 못했으나 3달 혹은 4달 간격으로 교대되자 그들은 숙달되기 시작했고 독립적으로 공중작전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자신감으로 나타났고 중국공군은 19개 MiG-15 연대를 6·25전쟁에 모두 참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8개 연대가 전방 비행장인 안둥으로 최전선 공중전투를 위해 전개하였고 6개 연대는 예비전력으로 선양과 랴오량(遼陽) 비행장에 주둔했다. 이들 연대는 매 3개월 간격으로 윤번제로 교대되었다. 교체(참전)되는 조종사들은 MiG-9 단독비행을 마친 계급에서 충원되었다. 이러는 동안에 제2비행사단의 La-11 연대가 안둥에서의 야간임무를 위해 훈련 진행을 가속화할 것을 지시받았다. 당시 중국 전투기가 압록강 주변의 비행장에서 이·착륙할 때 유엔공군기의 공격에 매우 극심한 취약점을 노출한다는 점에서 볼 때 중국공군은 기본 공중 전투선을 청천강 이남으로 내려 중국공군 기지 상공에서 전투를 회피하려 하였다. 다른 목표하나는 평양과 진남포 종심지역으로 MiG-15를 보내 유엔공군 전폭기의 공격으로부터 지상군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공군은 항공기의 부족을 느꼈다. 물론 전선에 필요한 전투기는 조달할 수 있지만 이들 연대 전부의 전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154대의 MiG-15가 필요했다. 미 공군이 F-86A를 F-86F로 기존전환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공군은 소련에게 중국공군에게 개량된 MiG-15bis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초 중국공군 발전계획에 따라 소련은 1952년에 600대의 전투기를 제공하기로 예정돼 있었고 이에 따라 중국공군은 1952년 내에 20개의 새로운 전투비행연대를 전력화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중국의 간절한 요청은 소련이 유럽국가들에게도 전투기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백히 소련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것이었다. 1952년 4월 9일 소련은 1952년 말까지 450의 전투기만 중국에게 공급할 것임을 통보하면서 중국공군 창고에 있는 MiG-9 120대가 아직 도태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참전 3개월 동안 각 비행사단이 10~15대의 항공기 손실을 입은 것을 감안하여 마오쩌둥은 중국공군 부대가 완전한 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MiG-15 100대를 공급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한 1952년 8월 펑더화이는 폭격능력 강화를 위해 Tu-2를 대체할 신형 IL-28 제트경폭격기를 중국공군에게 제공해 줄 것을 소련에 요청하였다. 소련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우선 최신형 중형폭격기인 Tu-16으로 교체되어 퇴역 대상이 된 구형 폭격기 Tu-4 120대를 구매할 것을 중국에 요청하였다. 1952년 5월 초 중국공군 전투부대의 MiG-15bis로의 기종 전환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8월 한 달 동안에만 267대의 MiG-15bis를 수령하였다. 1952년 10월까지 대부분의 전선지역 중국공군부대는 MiG-15bis로 기종이 전환되어 중국공군 조종사들은 기술적으로 F-86과 필적할 수 있었다.

공중우세임무를 위해 가용한 MiG-15 전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중국공군은 전략적 선택으로 38도선 이남의 유엔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폭격기의 사용을 포함시키는 계획을 지속 유지하였다. 1951년 말에 대화도에서의 심각한 손실 이후 중국공군은 재래식 경폭격기의 느린 속도가 취약점이 되고 있고 주간 공격에 MiG기의 엄호가 있다 해도 이를 보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불구하고 중국공군은 대화도 야간공격을 통해 야간폭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유엔후방지역 공격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않게 하였다. 1952년 2월 8일 중국인민지원군 공군이 유엔공군의 모기지인 김포비행장에 대한 공격을 계획했을 때 저우언라이는 이륙 몇 분전에 임무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이 전쟁을 제한하기 위해 압록강 이북의 표적에 대한 폭격을 제한해 왔음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호혜적인 입장에서 미국의 안식처인 38도선 이남에 대한 폭격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지도부는 중국공군으로 하여금 방공작전으로 국한하고자 했다. 그러나 중국공군 지휘관들은 펑더화이가 38도선 이남공격을 제한하는 것을 명령하기 전까지 유엔군 후방지역에 대한 폭격 임무에 중국 조종사를 보내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펑더화이는 중국의 참전 시작부터, 그리고 중국공군의 참전이 반복적으로 연기되는 좌절 속에서도 공중지원을 간청해 왔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험이 펑더화이에게 중국공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했다. 안둥에 주둔한 조중연합공군사령부가 잇따라 1952년 6월 13일과 14일 김포와 수원비행장에 대한 야간 공습을 감행하는 계획을 추진했을 때, 펑더화이는 공군 계획입안자들이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믿었다. 베이징에서 병가(病暇)를 보내고 있던 펑더화이는 공격계획을 비판하면서 중국공군은 “적을 폭격하는 것도, 적의 공격에 대항하고 있는 지상군을 지원한다는 의도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적군이 우리 기지를 공격하여 보복하려 한다면, 우리는 적의 보복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이 없다.”고 우려하면서 이 임무를 취소할 것을 지시했다.[31] 이어 모든 폭격기부대들이 즉시 6·25전쟁에서의 전투임무에서 제외되었다.

6·25전쟁에서 공군 지휘관들이 왜 저우언라이가 일찍이 제기했던 정치적 우려들에 대해 공감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분석에 대해 이용 가능한 중국 측 자료는 없다. 다만 중국 인민지원군 공군 수립 이후 유엔군 후방을 폭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견하는데 실패한 중국공군 지휘관들은 발생 가능한 정치·군사적 후유증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들의 명예 회복에 몰두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전해지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바에 의하면 중국공군 지휘관들은 그들의 귀중한 조종사들이 가미가제식 공격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조종사들에게 비상탈출이나 투항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펑더화이의 반대는 중국공군 지휘관들이 38선 이남지역에 대한 폭격을 함으로써 빠질 수 있는 엄청난 굴욕(항공기 손실과 중국 내 공군지지 피폭)에서 구했다고 볼 수 있다.

1952년 추계기간에 중국의 MiG기는 보다 공격적이었으며 자주 안주 이남지역으로 진출하였고 유엔공군기들이 압록강 상공의 표적에 도달하기 전에 교전을 먼저 시작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MiG의 전술은 F-86과의 교전을 포함하고 있다. 1952년 10월 MiG-15bis로 기종 전환이 이루어지자 제3, 12비행사단은 F-86과의 교전임무를 부여받았고 구형 모델인 MiG-15를 운영하는 제17, 18비행사단은 전폭기 공격임무가 부과되었다. 미군의 항공전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행대대는 편대의 형태, 비행연대의 공중 전개, 고도를 달리하는 비행 등 '4기 1개 편대, 4개 편대 1개 편대군' 구조의 전투 형태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이를 사용함으로써 중국공군은 자유로운 기동을 할 수 있었고 편대와 편조 간에 상호 화력지원을 보장할 수 있었다. 1952년 12월의 공중전에서 중국은 12대의 MiG기를 잃은 반면 37대의 유엔 항공기를 격추하여 상호 격추비율은 3.1 : 1 주장하고 있다. 중국 기록은 12월 초에 실시된 7차례의 공중전에서 12대의 F-86을 격추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 시기 중국조종사들이 F-86과 교전함에 있어 이전보다는 자신감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군은 MiG기가 미그회랑에서 F-86과 대항하여 교전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구름이 낀 상태에서 유엔공군 전폭기와 교전하기 위해 진남포와 심지어는 사리원까지 4기에서 8기 편대를 보냈다. 이는 매우 효과적인 전술로 입증되었는데, 중국조종사들은 평양 이남지역에서 지상표적을 공격하고 있는 유엔 전폭기와 교전할 수 있었다. 1952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4개월 동안, MiG-15 우세의 특징은 중국조종사들이 유엔 전폭기와 재래식 해군 전투기를 압도할 수 있었다는데 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단지 2대의 MiG기를 잃고 30대의 항공기를 격추하고 다른 6대에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952년 공중전에서 중국공군과 소련공군이 서로 자국 조종사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흥미로운 사건이 있는데, 1952년 2월 10일 미국 최고의 에이스(Ace of jet)인 데이비스(George Davis) 소령의 F-86이 격추된 전투이다. 미 공군 제4요격비행단 제334비행대대 소속 데이비스 소령은 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양개 전쟁에서 에이스가 된 최초의 미국 조종사다. 그는 하루에 MiG기 4대를 격추한 유일한 미군 조종사였고 이러한 위업을 2주 동안에 2번이나 이룩했다. 1951년 11월 대화도 상공에서 그는 Tu-2 3대와 MiG기 1대를 격추하였고, 13일이 지난 1951년 12월 13일 그는 2번의 격렬한 공중전을 통해 4대의 MiG기를 격추하였다. 이로써 그는 6·25기간 중 공산군 전투기 총 12대를 격추하여 유엔군 측에서는 최고의 에이스가 되었다.

데이비스 소령은 2월 10일 아침 군우리 근처를 공격하는 전폭기들을 엄호하기 위해 18대의 F-86을 이끌고 북으로 향했다. 그들이 초계임무 상공에 도달했을 때 만주상공에 있는 대규모의 MiG 대형을 발견했다. 그와 그의 요기는 다른 편대 F-86기를 남겨두고 유엔공군 전폭기를 MiG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압록강 방향으로 속도를 높였다. 이 공격은 중국 조종사들에게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고 데이비스 소령은 한 번의 의욕적인 기동으로 MiG기 2대를 격추하였다. 그가 세 번째 요격을 시도하던 중 다른 MiG기가 후방에서 결사적으로 그에게 사격을 가했고 그의 F-86은 추락했다. 이 공격으로 데이비스 소령은 13번째와 14번째 격추를 마친 후에 전사했다.


중국공군 조종사 장지후이(張積慧)

그의 요기인 리틀필드(William W. Littlefield) 중위의 임무 후 보고에 의하면 그들은 MiG기 10대 편대보다 약 8,000피트 높은 고도

에서 비행하였고, 데이비드 소령의 F-86이 기관포를 MiG기 대형 속으로 발사하자 2대의 MiG기가 격추되었다. 데이비스 소령이 막 세 번째 요격하려 하는 순간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에서 날아온 MiG기 1대가 데이비드 소령의 F-86 배후로 강하했다. 리틀필드 중위가 대응하기 이전 발사된 기관포가 데이비스 소령의 F-86 동체와 조종석을 맹렬히 타격하였고 미그회랑 상공으로부터 곤두박질하며 추락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극동공군사령부는 2월 12일까지 데이비스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날의 전투결과를 MiG기 2대를 격추하고 1대가 격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1952년 2월 13일 극동공군사령관 웨이랜드 장군이 데이비스 소령의 전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중국은 이에 주목했다. 1952년 2월 15일 중국공군사령관 류야로우는 조중연합공군사령부와 제4비행사단에게 전문을 보내 데이비스 소령이 제4비행사단, 소령공군, 대공포부대 중 어느 부대 소속 인원에 의해 격추되었는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1주일 이상의 조사 끝에 중국은 당일 제4비행사단의 제12연대 제3대대장인 장지후이(張積慧)의 공로로 결론 맺었다. 이날 장지후이는 그의 요기인 단즈위(單志玉)의 도움 아래 데이비스 소령의 F-86 외에 1대를 더 격추한 이후 피격을 받아 비상 탈출하여 구조되었고 이 공로로 '일급 전투 영웅' 칭호를 부여받았다.[32]

데이비스 소령의 F-86 격추와 관련한 또 하나의 주장은 소련에서 나왔는데 당시 소련공군이 작전에 참전한 것이 공개되면서 제97비행사단 소속 애버린(Mikhail Averin) 상위와 그의 요기가 데이비스를 요격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1952년 2월 10일 제97비행사단 예하 제148근위비행연대 소속 조종사들이 미 공군과의 공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손실 없이 3대의 F-86을 격추했으며 이때 에버린(Mikhail Averin) 상위(上尉)가 데이비스 소령의 F-86을 격추했다는 것이다. 당시 제148근위비행연대의 비행대대장이었던 새비체브(Leonid I. Savichev)에 의하면 당일 소속 연대는 22대의 MiG기를 출동시켜 수풍수력발전소 상공을 갈지(之)자 형태로 초계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F-86 2대가 구름 속에서 출현하여 아래에서 비행하고 있던 이들 연대의 첫 번째 편대를 공격하기 위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기동했다. 이들 편대를 이끌고 있던 새비체프는 약 800미터 거리에 있는 F-86 선도기의 후미로 편대를 기동시켰고 그때 이들보다 고고도에서 F-86에 사격을 가하고 있는 에버린 상위를 목격하였다. 그는 "사격은 F-86 꼬리날개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연기구름 속으로 빨려들어 갔고 F-86은 곤두박질쳤고 땅에서 박살났다."라고 회상했다.[33] 이것은 당시 데이비스의 F-86 잔해가 발견된 곳이 소련공군이 실제 초계를 수행했던 지역에서 남쪽으로 멀지 않은 지점이라는 점에서는 신빙성이 있으나, 이것이 소련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3) 유엔공군의 항공 압박 작전에 대한 공산공군의 대응

1952년 6월 극동공군사령부는 새로운 지침을 수립했다. 이는 스트랭글작전(Operation Strangle)과 새츄레이트 작전(Operation Saturate)을 통해 10개월간 지속된 북한지역 수송로에 대한 공격이 극동공군의 애초에 목표한 공산군 병참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차단과 파괴를 이루지 못했다는 판단에 기인된 것이다. 극동공군은 북한에 대한 "가치 높은 표적의 선택적 파괴"를 통한 "공중압박"을 가하기 위한 계획을 채택했다. 1952년 6월 23일~24일, 26일~27일 동안 미 공군과 미 해군 함재기들은 압록강 상에 있는 수풍댐과 부전, 장진, 희천발전소에 대해 최대 규모의 주간 공격을 감행하였다. 소련과 중국공군은 6월 23일의 공격에 대해 어떠한 저항도 시도하지 못했다. 미국의 역사학자 퍼드렐(Robert Futrell)은 공산공군은 개입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 공군이 수풍댐을 공격하고 있는 시간에 안둥비행장에서 MiG-15 대부분을 철수하였음을 지적하였다.[34] 이에 대해 할리데이(Jon Halliday)는 당시 소련의 무 대응에 대해 북한 대공포부대가 수풍댐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고, 전쟁기간 2년 동안 유엔과 미 공군이 북한지역의 주요 발전시설을 공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수풍발전소를 방어해야 한다는 예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는 소련은 미국이 압록강 상의 발전소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믿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소련과 중국의 자료들은 그들 조종사들의 이륙과 공격에 대한 대응을 막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불량한 기상이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6월 말 북한은 장마기간으로 접어들었고 불과 중국 조종사의 1/2만이 불리한 기상 속에서 비행이 가능했다. 제64비행군단장 로보프는 1952년 6월 23일 미군의 수력발전소 공격이 있던 날 구름이 낮게 덮이고 강력한 바람이 불었으며 폭우로 인해 안둥 주변 비행장뿐만 아니라 대체 비행장마저 폐쇄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해 이륙했던 소련과 중국 조종사들조차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뻔 했었고, 안둥기지의 소련과 중국 공군 지휘관들은 그들의 MiG기들을 대규모 공격을 격퇴시키기 위해 보낼 수 없었다. 로보프는 중국 내륙기지로부터 MiG기가 이륙하였다는 퍼트렐의 주장은 비록 그것이 미군의 정보보고로부터 인용된 것이라 해도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다.[35]

소련과 중국공군 지휘관들이 다소 난처한 사건의 원인을 은폐하는 것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미 공군의 주요 댐과 수력발전소에 대한 공격은 중국과 북한 지도부에게 강력한 딜레마로 작용했다. 마오쩌둥이 김일성에게 미국의 폭격기가 중국과 북한을 "불리한 정치·군사적 관계"에 처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듯이 미국은 확실하게 이러한 공산 측의 약점을 활용하여 정전협상에서 미군 측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계속했다. 폭격기에 의해 북한 전역이 초토화되자 북한 지도부는 중·소 양측이 북한에 대한 원조를 증가해주기를 원했고 중국인민지원군 공군에게는 소극적 방어에서 탈피하여 공격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해 주기를 원했다. 1952년 7월 15일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긴급하게 전문을 보내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① 북한 지역 핵심표적 방어를 위한 10개 방공포 연대의 추가적인 파견

② 공중전의 효과적 지휘가 가능하도록 항공작전지휘체계의 개선

③ 압록강 지역 방어라는 제한을 넘어 평양지역까지 항공작전 구역 확대

김일성의 비판적 요구는 중국공군으로 하여금 유엔군 후방지역 표적에 대한 폭격기의 야간공격을 재고하게 하였다. 김일성은 소련에게는 소련에서 교육받고 있는 Tu-2 조종사를 빨리 배출하여 이들을 폭격기로 무장하여 유엔군의 주요한 시설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일성의 요청은 중국과 소련의 열렬한 지지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1952년 중반에 이미 중국 지도부는 경제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비록 중국의 정책이 6·25전쟁에 참전은 지속하지만 전쟁을 확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지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 때문에 북한이 요구한 중국공군의 공세로의 전환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월에 열린 이 문제에 대한 스탈린과 저우언라이 추가적인 토의에서 소련 지도부는 5개 방공포연대를 파견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마찬가지로 중국에 5개 방공포 연대 파견을 요청했다. 확전에 대한 공포로 인해 스탈린은 "중국공군은 국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인민지원공군은 국가 소속 항공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36]며 중국에게 중국공군이 38도선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그러나 소련은 이러한 조치와는 반대로 중국공군이 6·25전쟁과 향후 극동지역에서의 서구 제국주의에 대항한 전쟁에서 독립적인 항공작전이 가능하게 할 것을 계산하여, 중국이 최초 계획한 150개 연대 대신 200개의 비행연대를 보유한 공군을 건설할 것을 독려하였다. 스탈린은 이를 위해 곧 시속 1,000~1,100㎞에 이르는 신형 전투기(MiG-17)를 공급해 줄 것을 약속했다. 스탈린은 6·25전쟁에서의 공군참전이 소련의 국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회피하면서 중국에 대한 군사 보급품 지원과 제한적 개입을 통해 중국의 전쟁수행노력을 지지했다.

수풍발전소에 대한 미국의 기습공격이 이어지자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는 중국공군 지휘관들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표적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 대항하여 대공포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1952년 7월 9일 중국, 소련, 북한공군 지휘관들이 안둥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미국 폭격기에 대응하기 위한 항공작전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책을 수립했는데, 첫 번째로 중국공군 7개 비행사단(14개 비행연대)과 북한 1개 비행사단(2개 비행연대)이 압록강 정면전선에서 합동작전을 펼치고, 두 번째는 추가적으로 중국공군의 1개 MiG 비행사단이 수풍발전소 방어를 위해 둥펑(東豊) 비행장에 전개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방책은 소련은 6·25전쟁에 3개 MiG 비행사단(9개 비행연대)을 파견하고 마지막으로 대규모 방공부대(3개 방공포연대, 1개 정찰비행연대, 1개 탐조대대)를 수풍발전소 방어를 위해 창설하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것이었다. 비행장 부족으로 인해 소련은 단지 7개 비행연대만을 안둥기지에 전진 배치하였고, 이들 소련 비행연대는 F-86과의 교전 및 야간 작전을 수행하며 열악한 기상 하에서의 작전을 담당하였다. 전투경험을 쌓기 위해 처음으로 참전한 중국 공군은 미군과 유엔군의 전폭기와 교전을 담당하였고 1개 북한 비행사단은 숙달되지 않은 조종사에게 두려움을 없애고 전투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홀로 비행하는 유엔공군기에 대해 '자유사냥' 임무가 부여되었다.

소련의 반대로 인해 중국공군은 계속 방공임무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유엔의 항공전역이 1952년 하계부터 추계 초반까지 북한 산업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시되자, 북한 지도부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불안감이 증폭되었으며 몇몇 북한 지도부 구성원들은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졌다. 1953년 초 김일성은 총참모장 남일(南日)을 안둥으로 보내 중국이 서울에 대해 폭격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압록강 이북의 비행장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과 중국공군이 이를 막을 수 없다는 뼈아픈 인식 때문에 중국은 이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북한 서부해안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공격 전력은 지속 유지키로 약속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절 유엔 및 한국공군 작전

1. 유엔공군 작전

1) 전력증강 및 부대 재배치

1952년은 유엔군에 있어 6·25전쟁을 지휘하는 지도부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 해이다. 먼저 1952년 11월 4일 선거전에서 전쟁종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2월 2~5일간 대통령 당선자인 아이젠하워가 한국 전선을 시찰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다. 1952년 5월 12일, 유엔군 사령관 및 극동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 후임으로 클라크(Mark W. Clark) 장군이 임명되었다. 한편 극동공군의 주요 지휘관 교체도 단행되었다. 1952년 2월 26일에는 제315공수비행사단장으로 칠드레(Cecil H. Childre) 대령이 헤네브리(Henebry) 준장 후임으로 부임하였고 곧이어 4월 10일에 맥카티(Chester E. McCarty) 준장이 제315공수비행사단장으로 임명되어 정전 시까지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3월 15일 개니(Wiley D. Ganey) 준장이 켈리사령관 후임으로 폭격사령관으로 교체되었고 이어 10월 4일 피셔(William P. Fisher) 준장이 개니(Wiley D. Ganey) 준장에 이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5월 30일에는 바쿠스(Glenn O. Barcus) 중장이 에버레스트(Frank F. Everest) 장군 후임으로 제5공군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1951년 5월말 이래 시작된 유엔공군의 항공차단작전인 스트랭글작전(Operation Strangle)과 1952년 3월부터 시작된 새추레이트작전(Operation Saturate) 결과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비관적이었다. 이러한 평가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는 전선으로의 물자수송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으로, 제5공군은 1952년

공방부 군사관찬연구소

4월 초에 소포, 평양, 양덕 등지의 공산군 주보급창과 물개리, 곡산, 신고산, 세포리, 회령 등지에서 전방보급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전선에서의 공산군 화력은 더욱더 강화되어 1951년 7월 8,000발의 대공포 사격을 실시했던 것에 비해 1952년 5월에는 102,000발을 사격할 정도로 보급상황은 개선되었다. 두 번째는 휴전회담에서 공산군에 압력을 가해 전쟁을 종결시키지도 못했다는 것이었다.

1952년 1월 극동공군사령부 작전참모부장으로 부임한 스마트(Jacob E. Smart) 준장은 이전의 극동공군의 작전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정전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중우세 작전에서만 성과를 올렸을 뿐 여타 작전에서는 실패하였다고 평가하였고 정전협상 타결을 목적으로 공산군에게 효과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새로운 항공작전을 입안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웨이랜드 극동공군사령관도 동의를 표했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검토를 시작으로 1952년 6월부터 시작된 항공압박(air pressure)작전은 완성되어갔다. 또한 1952년도 후반기 극동공군의 작전은 이전의 철도위주의 수송로 파괴를 목적으로 방어적이고 예방적인 항공차단작전에서 벗어나 공산 측의 핵심표적을 파괴하여 실질적이고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압박함으로써 정전협상에서 공산군 측의 구체적인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세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작전방침에 따라 부대재편과 전력증강이 이루어졌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먼저 군수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었는데 미 극동공군 군수사령관(Commander of Far East Material Command) 도일(John P. Doyle) 장군은 1952년 2월 1일 미 극동공군 군수사령부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일본 다찌가와(立川)기지에 제6400항공창을 창설하여 예하 군수창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이와쿠니(岩國)에 제6145항공창을 창설하고 필리핀에 있는 제6208창의 기능을 보강함과 아울러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제6405군수지원부대는 항공기 정비와 무장지원 임무 외에 전장에서 파손된 항공기의 수리 및 복구임무도 수행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결과 극동공군의 1952년 6월의 보급능력은 1950년 6월에 비해 4배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어 극동공군 군수사령관으로 임명된 루스토(Paul E. Ruestou)

준장은 1952년 7월 2일부로 극동공군 군수사령부를 극동공군 군수지원군(Far East Air Logistics Force)으로 확대개편하였고 1952년 12월 30일 제75항공창이 미 본토로부터 전개해 와 이와쿠니 기지의 제6148비행단의 인력을 보충하고 잔여 병력으로 진해(K-10)기지에 새로운 보급창을 창설하여 한국에서 전투임무중인 극동공군에 대한 보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전투력 증강을 위한 전투기의 추가적인 극동공군 배치는 1952년도의 미국의 전투기 생산능력이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공급량을 초과하게 됨으로서 가능하게 되었다. 1952년 2월 미 합참은 리지웨이 장군에게 미 공군은 캐나다 항공기 제작회사로부터 F-86 60대를 구매하여 6월까지 극동공군의 2개 F-86비행단에게 전시편제상의 보유기준을 충족시키고, 50%의 예비전력을 확보하게 해 줄 것임을 통보하였다. 제5공군사령관 에버레스트 장군은 제51전투요격비행단에 3개 비행대대를 편성하기 위해 제18전투비행단 예하 제39전투비행대대를 1952년 6월 1일부로 제51전투요격비행단으로 소속을 변경시키고 F-86전투기로 기종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52년 8월까지 극동공군은 2개의 F-86비행단(제4, 51전투요격비행단)이 모두 3개 비행대대의 인가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1952년 7월초에는 미 합참의 미 전략공군사령부 소속 전투비행단의 극동공군 순환 복무 방침에 따라 미 조지아주 터너(Turner AB) 공군기지를 출발한 제31전투엄호비행단 소속 F-84E가 최초로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이륙한지 11일 만인 7월 15일에 일본 미자와 기지에 도착했다. 이는 이전에 항공모함을 통해 태평양을 횡단했을 경우보다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은 물론 바닷물에 의한 항공기 부식을 막을 수 있어 항공기 대량 이동전개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 온 사건이었다. 이에 맞춰 군산비행장의 기지공사가 완료되자 미자와 기지에 주둔했던 제116전폭비행단이 군산으로 전개할 수 있었다.

1952년 4월 기준 제5공군의 전폭기 보유상태는 철도차단작전으로 인해 지속적이고도 과도한 손실을 입어 매우 심각한 감소상태에 있었다. 제5공군은 손실된 F-84E를 대신하여 더 많은 F-84E를 보충해주거나 특별히 전폭능력을 신장한 신형 F-84G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 공군본부는 1952년 2월 향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개월 동안 개량형 F-84D 102대를 공급할 것이라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에버레스트 장군은 F-84D가 F-84E에 비해 항속거리가 짧고 속도가 느려 F-84E와 편대를 이룰 수 없다고 항의하였으나 공군본부의 방침을 철회시킬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에버레스트 장군은 제49전투비행단이 모든 F-84E를 통합운영토록 하고 보충되는 F-84D는 제136비행단이 운영토록 조치하였고 이러한 작업은 1952년 5월에 마무리 되었다. 1952년 5월이 되자 미 공군본부의 방침이 변경되어 극동공군의 F-84 전력을 3개비행단으로 증강하고 50%의 예비전력을 확보해 줄 뿐 아니라 1953년도 1/4분기까지 모든 F-84기종을 F-84G로 교체해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952년 8월부터 시작된 F-84G로의 기종 전환 작업은 9월에 이르러 최고조에 이르렀고 고장이 잦은 F-84D 폐기작업도 가속화되었다. F-84G의 전개는 2번의 공중급유를 통한 비행으로, 한번은 항공모함에 선적되어 이루어졌다. 이로서 1952년 9월, 제5공군은 3개비행단이 F-84G로 무장하게 되었고 충분한 전력으로 작전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제4전투요격비행전대는 F-86을 전폭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1952년 5월에 급강하 폭격을 의주, 신의주 비행장 및 군우리 조차장을 대상으로 시험하였는데 1,000파운드 폭탄을 표적에 명중시켰다. 비록 5월 13일 마지막 시험 폭격에서 전대장 마울린(Walker M. Mahulin) 대령이 대공포에 피격되어 북한군에게 생포되는 불상사를 겪었지만 F-86이 폭격기로서 훌륭한 성능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미 공군은 1952년 7월 18일 F-86 증강계획에 제8전폭비행단과 남아공 제2비행대대가 배속된 제18전폭비행단이 표적 자료를 내장한 전폭기로 개조된 F-86F로 11월부터 기종 전환을 하는데 동의하였다. 이는 제5공군에게는 유사시 전폭기 또는 요격기로 사용가능한 기종을 확보하게 된다는 이점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제5공군은 오래된 기종인 F-51전폭기의 비행을 보장하는 노력을 취하게 되었다. 1952년 6월 제18전폭비행단 본부는 전선 후방지역인 진해기지에 잔류시키고 제18전폭비행전대와 남아공 제2공군비행대대는 전선에서 60마일 떨어진 횡성기지(K-46)으로 전개시켰는데, 이는 임무지역까지의 비행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극동공군은 B-26 경폭격기의 추가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야간임무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개조를 통해 주간임무가 가능한 비표준화된 B-26을 추가로 확보하여 1952년 5월에 총 187대의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제5공군은 5월 10일 예비역으로 구성된 제452폭격비행단을 해체하고 현역으로 전환하여 제17폭격비행단을 창설하였고, 9월까지 제3, 17폭격비행단은 인가수준의 B-26을 보유하게 되었다.

극동공군은 1952년 5월 병참지원 및 승무원 충원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항공기의 월간최대출격회수를 결정하여 임무부대에 하달하였는데, F-51 25.5회, F-80 28.5회, F-84 25회, F-86 25회, B-26 17회였다. 1952년 중반이후 극동공군은 항공기의 추가도입과 전선인접기지로의 항공기 전개로 비행거리가 짧아져 일일 출격회수에서 증가를 보였는데, F-86 115회, 전폭기 220회, 경폭격기 63회를 유지했다. 또한 호주공군 제77대대의 Meteor-8은 1일 18회 정도 출격했으며 미 제1해병비행단도 1일 100회 이상 출격을 유지했다.

미 공군본부는 1951년 5월 극동공군 폭격사령부의 B-29 보유대수를 99대로 증강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일일 출격회수를 12회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52년 3월 15일에 폭격사령관으로 부임한 개니 준장은 새로운 항공압박작전 수행을 위해 가용 B-29 전력을 총동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명령계통을 단순화하여 작전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중간지휘선인 비행전대를 없애고 비행단장이 직접 비행대대를 지휘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1952년 7월 8일부터 제98, 307폭격비행단이 폭격사령부에 편입되어 폭격사령관의 직접지휘를 받게 되었다.

1952년 7월 이후 폭격사령부는 인가수준을 넘는 월평균 105.6대의 B-29를 보유하게 되고 군수지원능력이 개선되자, 미 공군본부는 8월 이후 1일 출격회수를 50% 증가시키는 것을 승인했다.

주방위군 소속의 비행단도 현역으로 편입되는 작업도 진행되었다. 주방위공군 소속의 제116, 136전폭비행단은 1952년 7월 10일 현역으로 전환되어 제58, 474전폭비행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 주둔 이후 2년 동안 제5공군은 비행장의 불비한 여건 및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항공시설인력의 부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드디어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항공시설부대가 1952년 5월과 6월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제417시설단과 제934시설전대, 제366, 840, 841시설대대가 이들이다.

제417시설단은 대구에 지휘소를 두고 전투지대에서 항공시설건설 임무를 감독하고 예하 시설부대를 관리하게 되었다. 또한 부대별 업무 분장(分掌)이 이루어져, 제930시설전대는 남부 지역비행장의 유지보수와 새로운 비행장을 건설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제931시설전대는 서울-수원 간 및 중부지역에서의 건설과 유지임무를, 제934시설전대는 새로운 제트비행장인 오산 지역의 송탄비행장(K-55) 건설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항공시설부대의 증원으로 인해 제5공군은 향후 작전에 필요한 비행장과 항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 작전형태별 비행운영

<표 8-8> 1952년도 총 비행활동[37]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행활동(소티)	18,581	16,972	19,653	18,541	23,954	19,636	231,151
	16,634	18,337	18,931	22,971	17,746	19,1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52년 12개 월간 유엔공군의 비행활동은 총 231,151소티(sortie), 월평균 약 19,233소티로 중공군의 공세시기인 1951년 전반기(1월~6월)의 월평균 21,720소티 대비 약 2,487소티 감소한 수준이며, 후반기(7월~12월) 월평균 18,844소티에 비해서는 약 389소티 증가한 수치로 작전기세는 1951년 후반기와 대등한 수준이었다. 또한 이는 중공군의 제1, 2차 공세시기인 1950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월평균 비행 17,640소티 대비 약 1,200소티 증가한 것이기도 하다. 휴전협상과 이로 인해 소규모 진지 쟁탈전 위주의 지상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선의 급격한 변동이

없었던 점과 1951년 후반기와 마찬가지로 후방차단작전을 위주로 작전이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이 기간 중 공군의 작전속도(Operation Tempo)와 형태는 1951년 후반기와 대등한 양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8-9> 1952년 주·야간 비행활동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소계	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간 비행	14,690	13,273	15,676	14,835	19,503	15,389	183,059	231,151
	12,730	14,761	15,488	18,440	13,392	14,882		
야간 비행	3,891	3,699	3,977	3,706	4,451	4,247	48,092	
	3,904	3,576	3,443	4,531	4,354	4,313		

1952년 주간비행은 183,059소티, 야간 비행은 48,092소티로 야간 임무 비중은 약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915년 후반기(7월~9월)의 약 18% 대비 3% 증가한 수준이다. 야간비행 활동 수준은 월평균 4,008소티로 1951년 전반기(1월~6월) 월평균 2,156소티, 1951년 후반기 3,412소티 대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야간 수송로 차단 및 주요시설 폭격임무 증가에 따른 것이다.

항공기 형태별로는 제트전투기 97,253소티, 프롭 전투기 13,301소티, 폭격기(B-29/26) 25,732소티 수송기 56,237소티, 정찰기 20,636소티 헬기 등 기타 항공기 17,992소티를 운영하여 제트전투기(42%), 수송기(24%) 폭격기(11%), 정찰기(8%) 순으로 활동비중이 높았다. 이 시기 특이할 만한 사항은 프롭전투기의 활동이 급감한 것인데 1951년 후반기(7~12월)의 14,819소티보다도 적은 13,301소티를 2배 기간인 12개월 동안 실시하여 56% 감소하였다. 이는 F-51 보유 비행단인 제18전폭비행단 소속 1개 대대의 F-86으로의 전환과 폐기 대상 기종이라는 이유로 인해 항공기 손실에 따른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한 것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8-10> 1952년 항공기 형태별 비행활동

구 분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계
항공기형태별	중폭격기	515 441	407 387	475 448	382 494	406 416	378 465	5,214
	경폭격기	1,653 1,783	1,520 1,507	1,552 1,741	1,472 2,250	1,825 1,818	1,791 1,606	20,518
	제트 전투기	6,563 6,013	6,344 7,652	8,240 7,716	8,582 10,389	11,337 7,727	7,430 9,260	97,253
	프롭 전투기	1,434 889	1,271 669	1,172 1,161	1,082 1,263	1,421 1,011	1,216 712	13,301
	정찰기	1,549 1,462	1,589 1,762	1,604 1,726	1,706 1,758	2,443 1,544	2,102 1,391	20,636
	수송기	5,333 4,636	4,805 4,882	5,392 4,441	4,001 4,990	4,682 3,863	5,065 4,147	56,237
	기타	1,534 1,410	1,036 1,478	1,218 1,698	1,316 1,827	1,840 1,367	1,654 1,614	17,992

<표 8-11> 1952년 작전형태별 비행운영

구 분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계
근접지원		394 2,082	162 1,854	1,081 1,822	711 3,009	1,031 2,416	1,910 1,713	18,185
무장정찰/후방차단		6,805 4,104	6,268 4,978	6,437 5,120	6,288 6,357	8,126 5,330	5,603 5,650	71,066
제공	공세	2,288 2,287	2,441 2,595	3,270 3,299	3,624 4,093	4,728 2,400	2,391 2,856	36,272
	방어	163 386	183 328	157 350	246 228	423 214	492 701	3,871
정 찰		2,303 1,396	1,636 1,723	1,675 1,655	1,759 1,942	2,428 1,630	2,169 1,554	21,870
구 조		527 578	458 475	504 619	665 599	818 498	609 413	6,763
공 수		4,920 4,305	4,451 4,535	5,002 4,056	3,595 4,559	4,210 3,606	4,645 3,953	51,837
전술 통제		533 869	720 1,101	840 1,255	964 1,437	1,303 1,070	1,088 1,180	12,360
기 타		648 627	653 748	687 755	689 747	887 582	729 1,175	892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작전 형태별 비행 운영은 무장정찰 및 항공차단작전 71,066소티(30.7%), 공수작전 51,837소티(22.4%), 제공(요격) 36,272소티(15.6%), 정찰 21,870소티(9.4%), 근접항공지원작전 18,185소티(7.8%) 순으로 비중 높게 실시하였다.

기간 중 비행운영상의 특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공 작전의 증가율이다. 기간 중 월평균 제공작전은 3,012소티로 1951년 전반기(1~6월) 1,249소티, 1951년도 후반기(7~12월) 월평균 비행 1,518소티 대비 약 2배 이상으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공산공군의 참전규모 확대와 유엔공군의 F-86 전력강화로 인한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근접항공작전이 1951년 후반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전체 비행활동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접항공지원작전의 월평균 비행활동 추이를 보면 1951년 전반기에는 3,088소티, 후반기에는 867소티로 급감하였고 1952년도에는 1515소티로 다소 회복되었으나 개전 초기의 1개월간의 근접항공지원작전(1950년 8월 : 6,774소티, 9월 : 6,250소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이는 1951년 후반기 정전 협상이 개시되면서 지상전선이 고착되어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유엔공군의 작전중점이 지지부진한 휴전회담의 타개를 위해 1951년 후반기와 마찬가지로 수력발전소, 평양시내 핵심시설 폭격과 같은 항공압박 작전을 포함한 항공후방차단작전에 치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 극동공군의 항공기 손실은 총 497대로 이 가운데 작전 중 손실은 417대이며 적 활동에 의한 손실은 244대이다. 적 활동 중 공대공전투에서는 60대를 잃은 반면 대공포에 의한 손실은 154대로 적 활동에 의한 손실 중 63%를 차지하여 유엔공군 조종사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지상에 배치된 공산군의 대공화기로 드러났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표 8-12> 1952년 극동공군 항공기 손실 현황[38]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작전손실	적활동	공대공	5	4	4	5	9	4	60
			4	2	10	5	5	3	
		대공포	28	19	16	15	17	10	154
			8	10	4	13	8	6	
		원인불명	4	1	3	4	5	2	31
			1	3	3	3	2		
	비(non) 적 활동		12	17	11	8	11	9	112
			7	8	6	8	5	10	
	불명/실종		10	7	6	4	5	3	60
			5	4	6	5	2	3	
비작전손실	비행사고		6	3	3	6	4	6	69
			9	4	8	7	8	5	
	기 타				1	1	1	2	11
				1		1		4	
총 계			65	51	44	43	52	36	497
			34	32	37	42	30	3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제공(Counter Air : 요격)작전

1월 유엔공군 전투기들은 전폭기들에 대해 공중엄호를 제공하였고, 산발적으로 공격해오는 MiG-15기들에게 많은 손실을 입혔다. 1월중에 유엔 조종사들은 31대의 MiG기를 격추시켰고 28대에 손상을 입혔다. 극동공군은 공중전을 통해 5대의 제트기를 손실했으나, 공산군의 대공포에 의해 44대가 격추되었고, 이는 저고도 폭격이탈과 기총사격으로 인한 것이다. 1월 25일 헬기 1대가 서해안에서 추락한 조종사 1명을 구조하는 동안 F-84기 편대가 적 지상병력에 대해 공격을 가했고 이들을 엄호하던 F-86편대는 MiG-15 3대를 격추하였다. 이날 다른 공중전에서 유엔 제트기들은 공산 항공기 6대를 격추하고 4대를 파손하였다.

<표 8-13> 1952년 공대공 비행활동 및 공대공 전투 간 피·아 항공기 손실[39]

구 분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계
비행 (소티)	공세	2,288 2,287	2,441 2,595	3,270 3,299	3,624 4,093	4,728 2,400	2,391 2,856	36,272
	방어	163 386	183 328	157 350	246 228	423 214	492 701	3,871
항공기 손실	유엔군	5 4	4 2	4 14	5 5	9 5	4 3	65
	공산군	31(31) 19(19)	17(17) 34(33)	39(39) 63(63)	45(44) 27(27)	34(32) 28(28)	20(20) 28(28)	385(381)

* 공산군 항공기 손실 중 ( )안 숫자는 MiG-15 파괴 대수임.

2월 유엔공군 조종사들은 17대의 MiG-15기를 격추하고 38대를 손상시켰으며 5대가 추가로 격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산공군 MiG기는 유엔공군 제트전투기 4대를 격추하고, 17대의 다양한 기종의 유엔공군기가 지상화력에 의해 격추되었다. 2월 10일 데이비스(George A. Davis) 소령이 지휘하는 F-86 편대가 만주국경 부근 상공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 12대의 MiG-15와 공중전을 벌였고 데이비스 소령은 2대의 적기를 격추하고 적 공격 대형을 완벽히 분쇄하였으나, MiG기에 의해 자신도 피격되어 전사하였다. 그가 수적으로 우세한 적에 맞서 공격을 감행하였고 그들 편대가 엄호하던 전폭기를 성공적으로 보호한 공로로 명예훈장이 추서되었다. 2월 16~22일 간 MiG기는 주간에 약 1,400소티를 비행하였다. 2월 19일 MiG기는 약 389소티 비행활동 실시하여 1일간 최대 비행 기록을 수립하였고, 이날 공중전에서 유엔공군조종사들이 MiG기 3대를 격추하였다. 2월 23일 제25전투요격대대 위스너(William T. Whisner, Jr) 소령이 MiG-15기 1대를 격추함으로서 에이스가 되었고 3월 20일 수풍호 상공에서 미 공군 초계임무기를 MiG가 공격하였고 F-86 조종사는 5대의 MiG기를 격추하고 13대에 손상을 입혔다.

4월 중에 제5공군 소속 항공기 17대가 적 지상화기에 의해 손실 당했다. F-86이 주간에 제공과 엄호임무에 임했고 야간에는 F-94가 제공임무를 수행하였다. 4월 동안 5명의 F-86 조종사가 에이스가 되었고 공중전에서 44대의 MiG기를 격추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5공군은 공중전에서 F-86 4대와 F-80 1대를 잃었다. 4월 1일 제5공군 소속 F-86 이 MiG기 10대를 격파하였으나 F-86 1대가 손실되었다. 이날 제51전투요격비행단장 가브레스키(Francis S. Gabreski) 대령이 MiG기 1대를 격추하여 8번째 에이스가 되었다. 4월 3일 제336전투비행대대 무어(Robert H. Moore) 대위가 5번째 MiG기 사냥에 성공하여 에이스가 되었고 4월 6일에는 제25전투비행대대 킨체로에(Iven C. Kincheloe) 대위가 공중전에서 MiG기 1대를 격추하여 10번째 에이스가 되었다. 또한 4월 21일에는 제335전투비행대대 러브(Robert J. Love) 대위가 MiG기 1대를 격추하여 에이스가 되었고 4월 26일에는 제51전투요격전대 웨스코트(William H. Wescott) 소령이 4주 동안에 MiG기 5대를 격추하여 12번째 에이스가 되었다.

5월중에 에이스 칭호를 받은 F-86 조종사는 4명이었고 MiG기 32대와 다른 기종 2대를 격추하였다. 5월 들면서 잘 훈련된 MiG기 조종사가 지상관제 레이더의 통제하에 작전을 하게 되자 유엔공군의 항공기 손실도 많아져서 F-86 5대와 다른 항공기 5대가 손실되었다. 5월 3일 F-86 조종사들이 MiG-15 5대를 격추하였는데, 아담스(Donald E. Adams) 소령이 2대, 래츠하우(Robert T. Latshaw, Jr) 대위가 3대를 격추하여 14번째 에이스가 탄생되었다. 5월 13일 F-86이 공중전에서 MiG-15기 5대를 격추하였고 5월 15일 제335전투비행대대 케이슬러(James H. Kasler) 중위가 2대의 MiG기를 격추하여 에이스가 되었다. 5월 20일 제4전투비행단장 씽(Harrison R. Thyng) 대령이 MiG기 1대를 격추하여 16번째 에이스가 되었다.

6월 동안 제5공군은 공산군의 지상포화에 의해 14대의 항공기를 잃었고 공중전에서 F-86은 MiG기 20대를 격추하였다. 공산공군은 주간 300소티 미만의 비행을 실시하였으나 MiG기 조종사들은 이전에 비해 공격적이었다. 6월 6일 F-86편대가 MiG기 8대를 격추하였는데, 이는 6월중 1일 최다 격추대수로 기록되었다. 6월 15일 제335전투비행대대 로우(James F. Low) 소위가 5번째 MiG기를 격추하여 비행훈련을 종료한지 6개월 만에 에이스가 되었다.

7월에는 기간 중 상대적으로 공중전은 감소하였고 5공군 조종사들은 19대의 MiG기를 격추하였고 4대의 F-86이 손실되었다. 7월 4일 압록강 근처 삭주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위치한 북한 군관학교를 공습하던 F-86 50대와 F-84 70대가 소련 MiG기 53대와 조우하여 교전을 벌여 MiG기 13대와 F-86 2대가 추락하였다. 비록 이날 MiG기 4대가 F-86의 방호벽을 뚫는데 성공하였으나 이들은 유엔 전폭기를 격추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이날 교전으로 폭격결과는 매우 불량했다. 7월 20일 제31엄호비행단 F-84 58대가 일본에 도착하였고, 이는 공중급유를 통한 가장 규모가 큰 제트전투기들의 태평양 횡단비행기록이 되었다.

8월에는 주간에 MiG기의 북한상공 진입이 빈번해 지고 이로 인해 공산공군과 유엔공군의 교전시간도 증가했다. F-86 조종사들은 공중전에서 33대의 MiG기를 격추하였고 F-86 1대를 잃었다. 그러나 제5공군은 다른 이유로 인해 최소 5대의 F-86과 F-84 1대를 잃었고 추가적으로 적 지상공격에 의해 14대의 항공기 손실이 있었다. 8월 6일 제5공군 조종사들은 1952년 4월 1일 이후 일일 최대 규모인 250대의 MiG기를 목격하였다. 또한 이날 8월 중 최대 규모의 공중전투가 벌여졌는데 F-86 34대와 52대의 MiG-15가 교전하여 MiG기 6대가 격추되었다. 극동공군사령부는 추락조종사의 도피 및 탈출 기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제6004항공정보대대 3파견대를 창설하였고, 이 부대는 특별히 개조된 C-47로 추락한 조종사를 끌어올리는(snatching) 것과 같은 새로운 실험들을 계속했으며 조종사들에게는 비상절차에 대한 훈련과 무전기와 생존도구의 사용법, 헬기 구조절차가 강조되었다. 8월 7~8일에 제335전투요격대대 졸리(Clifford D. Jolley) 대위가 MiG기 3대를 추가로 격추함으로써 18번째 에이스가 되었다. 8월 31일 일본 미자와 기지에 주둔한 제31엄호비행단이 6월에 시작한 미 공군의 공중급유시험계획(Operation Hightide) 최종단계를 마치고 시험을 종료하였다.

9월 중 공중전에서는 F-86이 MiG기 63대를 격추하였고 이는 이제까지 기록한 월간 최대 격추성과였다. 2명의 F-86 조종사가 에이스가 되었지만 극동공군 또한 9대의 F-86과 최소 5대의 F-84를 잃었다. 9월 4일 75대의 전폭기가 청천강 이북의 표적을 공격하던 중 89대로 추정되는 MiG기와 조우하였다. 39대의 F-86이 MiG기와 교전하던 F-84를 엄호하여 7월 4일에 세웠던 일일 최대격추 대수와 동일한 13대의 MiG기를 격추하였다. 4대의 F-86이 MiG기 조종사에 의해 격추되었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졸리(Clifford D. Jolley) 대위

블레세(Frederick C. Blesse) 소령이 5번째 MiG기를 격추하여 에이스가 되었다. 9월 9일 F-86의 엄호를 받는 F-84 45대가 삭주의 북한 군관학교를 공격하던 중 64대의 MiG기 중 몇 대가 F-86의 엄호를 돌파하여 3대의 F-84를 격추하자 F-84편대는 폭탄을 버리고 임무 지역을 이탈하였고 F-86은 손실 없이 5대의 MiG기를 격추하였다. 9월 21일 미 제336전투요격대대 F-86 조종사인 리즈너(Robinson Risner) 대위가 F-84 41대의 북창 탄약 공장 폭격을 엄호하기 위해 출격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라온 MiG-15 2대를 격추하여 에이스가 되었다.

10월 13일 약 1년여 만에 소형 복엽기 Po-2가 초도, 서울 상공에 나타났다. 11월 제5공군은 F-86의 방호벽을 침투하거나, 초계임무 후 소량의 연료를 가지고 귀환하는 F-86을 공격하려는 MiG-15를 지상관제요격하기 위해 미그회랑 남부에 F-86편대를 체공시켰다.

또한 공산군의 야간 요격기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제319전투요격대대의 F-94B(Starfighter)를 B-29 엄호와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의 방호벽 유지에 동원되기 시작했다. 이후에는 미 해군과 미 해병의 F3D(Skynight)가 B-26을 엄호하기 위하여 보강되었다. 11월 17일 제4전투요격전대장 베이커(Royal N. Baker) 대령이 제335전투요격전대와 미그회랑에서 공중전을 벌여 5번째 MiG기를 격추하였다. 11월 18일 미 해군 제77기동함대가 북한 북동부 국경마을인 회령을 공격하고 있을 때 국적표시는 없었으나 러시아 국적이 분명한 MiG-15가 블라디보스톡을 이륙하여 함대를 공격하였다. 항모탑재 F9F 전투기가 이들과 공중전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8-14> 1952년 제트격추영웅(Ace) 명단

계급/성명	5번째 격추일	최종격추대수
대위 James Jabara	1951.5.20	15
중위 Ralph D. Gibson	1951.9.9	5
중위 Richard Becker	1951.9.9	5
소령 Richard D. Creighton	1951.11.27	5
소령 George A. Davis Jr.	1951.11.30	14
소령 Winton W. Mashall	1951.11.30	6.5
소령 William T. Whisner Jr.	1952. 2..23	5.5
대령 Francis S. Gabreski	1952.4.1	6.5
대위 Robert H. Moore	1952.4.3	5.0
대위 Iven C. Kincheloe	1952.4.6	5.0
대위 Robert J. Love	1952.4.21	6.0
소령 William H. Wescott	1952.4.26	5.0
소령 Donald E. Adams	1952.5.3	6.5
대위 Robert T. Latshaw, Jr	1952.5.3	5.0
중위 James H. Kasler	1952.5.15	6.0
대령 Harrison R. Thyng	1952.5.20	5.0
소위 James F. Low	1952.6.15	9.0
대위 Clifford D. Jolley	1952.8.8	7.0
대위 Frederick C. Blesse	1952.9.4	10.0
대위 Robinson Risner	1952.9.21	8.0
대령 Royal N. Baker	1952.11.17	13.0
대위 Leonard W. Lilley	1952.11.18	7.0
중위 Cecil G. Foster	1952.11.22	9.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벌여 MiG-15 1대를 격추하였다. 11월 18일 미그회랑에서는 제334전투요격대대 조종사 릴리(Leonard W. Lilley) 5번째 MiG기를 격추하였고 11월 22일 미그회랑에서 제16전투요격대대 조종사 포스터(Cecil G. Foster) 중위가 5번째 MiG-15를 격추하여 에이스가 되었다.

12월 3일 F-86조종사가 8월 9일 이후 최초로 평양 상공에서 MiG-15와 강력한 공중전을 벌였다. 공중전이 증가함에 따라 1952년 한 해 동안 미 공군에서 17명의 격추영웅(Ace) 17명이 탄생하였는데, 이는 1951년 6명, 1953년 13명에 비해 많은 수이다.

⑵ 무장정찰 및 항공차단(Air Interdiction) 작전

<표 8-15> 1952년 항공차단 및 무장정찰작전[40]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항공차단/	6,805	6,268	6,437	6,288	8,126	5,603	71,066
무장정찰(소티)	4,104	4,978	5,120	6,357	5,330	5,650	

1월 제5공군 전술부대들은 모든 편대에게 공산 측의 물자와 장비가 전선 진지로 이동되는 철도시발점, 통신선, 도로를 공격할 것을 지시받았다. 전폭기들은 미 제8군을 근접지원 하는데 필요한 폭탄, 네이팜탄, 로켓을 제외하고는 철도 차단에 집중했다. B-26 경폭격기는 야간에는 조명탄 투하와 적 트럭 공격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주간의 극동공군 전폭기들의 차단작전을 지원하였다. 다른 경폭격기는 적 비행장, 창고지역, 철도교차점, 철도상의 화차를 공격하였다. 극동공군사령부 B-29 중폭격기는 비행장 폭격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하여 활주로, 유도로 등 핵심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B-29기는 보급품 집적소, 복선철교, 보급품 저장지역 등을 폭격했다. B-29기 승무원들은 보고된 북한 지역 내 포로수용소 폭격을 회피하기 위해 고도의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이들은 야간에 적 병력집결지에 대해 500파운드 파열폭탄을 투하하는 근접지원임무도 실시하였다. 1월 12일 F-84 편대가 순천지역에서 터널로 대피하려는 보급열차 3대를 포착하여, 터널 입구를 폭파하고 개괄지에서 유개차를 파괴하고 최소 2대의 차량을 파괴하였다. 1월 12~13일 간 오키나와에 기지를 둔 B-29기들이 500파운드 고폭탄 396개를 청천강을 연결하는 신안주 동부 철교에 투하하여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월에는 제5공군 소속의 전폭기들이 F-86의 엄호를 받아 적 지역 깊숙이 침투하였다. 야간에 B-26과 해병비행단 소속 전투기들은 철도와 도로의 수송체계를 공격하여 물자와 장비의 이동을 방해하였다. 공산군에게 대공포 분산배치를 강요하기 위해 B-29는 대공포가 밀집된 교량을 피해 대공 위협이 낮은 표적으로 공격주안을 전환하였다. 또한 B-29기는 공중파열폭탄을 야간에 전선근처의 병력집결지에 투하하였다. 2월 9일 정주 철교를 무력화하기 위해 10대의 B-29가 500파운드 폭탄 100톤을 투하하였다. 2월 17일에는 제5공군은 후방차단 및 무장정찰 임무 695소티를 실시하였는데 50개 이상 철로에 파혈(破穴)을 만들었고, 화차 및 기차 15대를 파괴하고 신안주 근처에서 호송트럭에 대해 기총사격을 가했으며 금성과 시변리 사이의 보급품 창고와 임시야적장을 파괴하였다. 2월 26일에는 B-29기 10대가 레이더 유도를 통하여 희천 근처 신흥동 철교에 100톤의 폭탄을 투하하여 경간 2개를 완파하였다.

3월에는 제5공군 전폭기와 B-26 폭격기, 기타 전술기가 전선지역으로의 보급품과 장비의 이동을 폐색(閉塞)시키기 위해 철도와 도로, 보급품 집적소, 교량, 교통 병목지점에 대한 차단임무에 집중하였다. 또한 폭격사령부 B-29는 레이더유도 폭격방식을 이용하여 야간에 전선지역 병력 및 보급품 집결지역이 포함된 핵심적인 공산군 표적을 타격하였다. 3월 3일부터 5월 초순까지 실시된 강력한 철도차단작전인 새츄레이트 작전(Operation Saturate; 집중폭격작전)은 북한의 철도선을 파괴하려는 유엔공군 조종사들과 이를 복구하려는 북한의 복구병력과의 지루한 싸움이 되었다. 이전의 철도차단작전인 스트랭글작전과는 달리 새츄레이트 작전은 차단목표로 4개 철도선, 즉 군우리(軍隅里)-희천(熙川)선, 순천(順川)-삼등리선, 산안주(新安州)-남시(南市)선, 평양 - 남천점(南川店)선을 표적으로 주간에는 제5공군 전폭기가, 야간에는 B-26 경폭기가 폭격을 실시하고, B-29는 신안주와 순천지역의 복선철교와 주요하천 상의 교량에 대한 집중폭격을 실시하는 계획이었다. 제5공군은 작전 시행일에 평균 약 300대의 전폭기를 출격시켰고 폭탄 600여개를 투하하는 데까지 작전계획을 확대했다.[41] 여기에 더해 하룻밤에 40대의 B-29폭격기가 교량을 폭격하고, 전폭기들이 집중폭격에도 불구하고 관찰결과 교량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철로는 하루 혹은 2일 만에 복구되었다. 극동공군 폭격사령부 B-29기는 대부분의 북한비행장들이 사용불가능한 채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최우선적인 노력을 철도교차점, 핵심철교, 보급품 집적소에 집중할 수 있었다.

3월 11일 전폭기가 신막 근처 보급품 저장소와 훈련장 4평방마일 지역에 150톤의 폭탄과 네이팜탄 33,000개를 투하 하였다. 제5공군 작전장교들은 이 작전은 전쟁 중 단일지역목표에 가장 많은 네이팜탄이 투하된 공격이었다고 보고하였다. 3월 11일과 12일 B-29기 10대가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신창리 병목지점을 고폭탄 91톤을 이용하여 공격하였다. 3월 25일 새슈레이트 작전의 표적은 정주-신안주 간의 철도 구간과 철교로 선정되었고, 이날 제5공군 전폭기 307대가 1,000파운드 폭탄 530발 500파운드 폭탄 84발을 투하하였고 야간에는 B-26 8대가 500파운드 폭탄 42발을 퍼부었다. 또한 3월 26일에도 동일 표적에 대해 전폭기 161대가 출격하여 1,000파운드 폭탄 322발을 투하하였다. 이틀 동안의 공격으로 정주-신안주선 철도는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끊긴 상태로 통행이 불가능했다. 이날 제5공군은 정주-신안주 간 철도차단 작전을 포함하여 후방차단 및 무장정찰 작전 959소티를 실시하여 142곳의 철도를 절단하였고 순천-평양 간 도로 27곳을 타격하였다. 3월 31일과 4월 1일 폭격사령부 B-29기는 후방차단작전 29소티를 실시하여 신흥동 철교와 곽산 철도를 동시에 전력을 분배하여 공격하였다. 철도차단작전에서 극동공군은 남시-신안주, 희천-군우리 철도 차단에 집중하였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극동공군은 4월 대부분 기간 동안 신의주-신안주 구간 철도를 사용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유엔공군의 철도차단작전에 대응하여 공산군은 특히 신안주-평양 간 철도에 엄청난 대공방어망을 구축하였다. 폭격사령부 B-29기는 대부분의 전력을 도로와 철도 교량, 보급품 집적소 파괴에 투입하였고, 4월 22일 전폭기 부족으로 제5공군은 제4, 51전투요격비행단 F-86을 공산군의 통신선 무장정찰 및 후방차단 작전에 투입하였다.

5월 4일 F-86 25대가 신의주 비행장에 주기 중이던 Yak-9 24대를 공격하여 이중 5대를 파괴하였다. 5월 8일 제5공군은 전폭기 약 465소티를 동원하여 평양

북동부 40마일 지점의 수안 보급저장소를 타격하였는데 이는 개전 이후 한 지역에 대한 최대 폭격 횟수로 기록되었다. 이날 13시간 이상 계속된 공격으로 200개 이상의 보급건물, 개인방공호, 엄체호, 차량, 포진지 등이 파괴되었고, 적 대공포가 군우리 보급품저장소를 폭격하기 위해 강하하는 F-86 1대를 격추하였는데 이는 대지공격임무 중 F-86이 희생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5월 13일 아침 12대의 F-86이 신의주 지역 시설 및 신의주 비행장, 의주 비행장을 공격하였다. 또한 이날 오후 시간에 F-86이 군우리 보급품저장소를, 오후 늦은 시간에는 신의주지역을 1,000파운드 폭탄을 이용해 공습하였다. 불행하게도 이날의 3개 임무를 지휘하던 제4전투비행전대장 마후린(Walker M. Mahurin) 대령이 피격되어 포로가 되었다. 5월 15일 제5공군 전폭기 265대가 출격하여 평양 북부 당동 차량수리공장을 공격하여 최소 39개의 건물과 발전시설을 파괴하였다. 5월 22일 제5공군은 전폭기 472대를 출격시켜 수류탄, 소화기, 탄약 등을 생산하는 평양 남서부 기장리 산업시설을 폭격하여 90% 이상의 산업시설을 파괴하였다. 5월 23일에는 제5공군 전폭기들이 기장리 지역 제강(製鋼)시설에 대한 공습으로 275소티를 시행하여 80% 이상을 파괴하였다. 5월 23일과 24일에는 B-26기가 기장리 지역에 지연신관폭탄을 투하하여 산업시설의 복구를 방해하였다. 5월 26일과 27일에는 제19폭격전대 B-29기 10대가 신동 철교를 공격하여 화차 1량, 무개차 16량, 길이 350피트 교량 및 철로 400피트를 파괴하였다.

6월 10일과 11일 제19폭격비행단 B-29기 8대가 곽산 지역의 철도교량을 공격하던 중, MiG기와 레이더 통제 탐조부대, 대공포의 공격을 받아 2대가 격추되고 2대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이러한 공산군의 발전된 대공체계는 극동공군으로 하여금 공산군의 레이더를 기만하고 방해하기 위한 전자방해책(ECM)의 개선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했다. 6월 14일 정찰결과, 평양비행장이 보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5공군 전폭기들이 약 150회 출격하여 항공기 손실 없이 활주로에 폭파공을 만들어 무력화시켰고, 20일에는 B-29 27대가 희천 철도교량을 공격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엔공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허천수력발전소 4호 발전기 시설

6월 23, 24, 25, 26일 4일 동안 제5공군, 극동공군 폭격사령부, 극동해군의 전폭기들이 북한의 수풍(水豊), 장진(長津), 부전(赴戰), 허천(虛川) 수력발전시설에 대해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 4일 동안 제5공군 소속 전폭기 730가 폭격임무로 출격하였고 이들을 엄호하기 위해 F-86이 요격임무 238회를 실시했으며 미 해군은 23일과 24일 이틀 동안의 작전에 546회 출격하였다. 이 공격으로 북한지역의 90% 이상, 만주지역 잠재 발전능력의 23% 이상이 파괴되었고 4개 수력발전소의 15개 발전설비 중 13개가 사용불능상태가 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약 2주 이상 완전한 전력마비 상태에 빠졌고 중국의 뤼순(旅順), 다롄(大連), 훈춘(琿春), 안산(鞍山)에 있는 51개 주요공장 중 30개 공장이 중앙정부에 할당한 연간 책임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했다.[42] 6월 24일 극동공군은 항공차단작전에 1,043소티 비행을 실시하여 월 중 최다 비행을 실시하였고 전날 공격했던 수력발전소 4개에 대해 250소티 공격을 실시하였고 또한 25일 제5공군 전폭기들은 북한의 동서와 남북을 잇는 병목점인 삼등리 철도시설을 공격하여 부분적인 사용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또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날 야간에 B-29기가 이 지역에 지연신관 폭탄을 살포하여 이들 철도에 대한 복구 작업을 방해하였다.

7월 폭격사령부는 예하 B-29기에게 통신 및 산업시설, 병참시설을 폭격할 것을 지시하였고 B-29는 월간 60~80소티를 동원하여 다양한 표적에 대해 공격하였는데, 적절한 표적 부족으로 작전기획자들은 북한의 보급품집적소를 공격하거나 전력할당을 줄였다. 표적에 대한 전력할당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제5공군은 B-26기와 전폭기는 철도에 대한 주간공격을 대부분 중지하였고, 대신에 철도의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만 타격하였다. 제502전술통제전대는 전선지역에 2,388톤의 폭탄을 투하하는데 통제임무를 수행하여 전쟁기간 중 월중 최대기록을 수립하였다. 7월 11일 극동공군은 전체 1,532비행활동 중 1,329소티를 후방차단작전에 할당하여 월중 일일 최대 비행활동을 기록하였다. 항공압박작전(Operation Pressure Pump)의 첫날이기도 한 이날 극동공군의 전폭기와 해군 함재기 1,254대가 3차례에 걸쳐 출격하여 평양에 대한 공습을 실시하였는데, 평양지역 30개 표적에 대해 공습을 가했다. 이날 공격으로 북한 인민무력부를 비롯한 3개 표적이 완전 파괴되었고 대부분의 표적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항공사진판독결과 판명되었다. 한 예로 이날 북한 산업부 지하 사무실이 파괴되었고, 다른 방공호는 직격탄을 맞아 400~500여 명의 북한 관리가 사망했다는 정보원 보고가 있었고. 이틀 후 평양 라디오 방송은 "유엔군의 잔인한 공습으로 1,500동의 건물이 파괴되고 7,000여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비난하였다.[43] 평양에 대한 대규모 공습은 중국 수상 저우언라이가 소련을 방문하고 있는 기간인 8월 29일에도 실시되었다. 이는 소련이 중국에게 그들의 자원을 전쟁에 추가적으로 투입하기보다는 정전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미 국무성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공습에는 제5공군과 극동해군 함재기(216소티) 총 1,403대가 동원되어 7월 11일과 마찬가지로 3차례(09:30, 13:30, 17:30)로 나누어 공격을 가했다. 미 공군의 F-86과 호주 공군의 Meteor-8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평양 상공에 도착한 전폭기들이 공격을 실시하여 북한의 철도국, 군수국, 평양방송국 등 31개의 표적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나 공산군의 지상포화에 의해 3대가 손실을 입었다. 다음 날인 8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0일 야간에는 잔여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제19폭격전대 B-29 11대가 출격하여 공습을 단행하였다.

7월 13일 극동공군은 심리전의 일환으로 적 지역에 대한 경고전단 살포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였는데, 새로운 전단은 공격이 가해질 구체적 지역과 표적을 명시하여 주민들이 사전에 대피할 수 있게 하였다. 7월 15일 제5공군 전폭기들이 약 175회 출격하여 승호리 시멘트공장과 근처의 철도화차 정비공장을 폭격하였고 30일과 31일에는 단일표적에 대한 B-29중폭격기의 최대 규모의 공습이 있었는데, 60대의 B-29기가 압록강으로부터 4마일 이격된 동양경금속공장(Oriental Light Metals Company)을 공격하여 시설의 90% 이상을 파괴하였다. 이날 B-29기는 야간에 이루어진 공산군의 최대 규모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손실 없이 귀환하는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8월 극동공군은 정보부서에서 북한이 전략공격에 적합한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표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군 보급 및 생산지역에 대한 폭격을 계속했다. B-29기가 5일 동안 야간에 평양에 대해 전쟁 중 가장 대규모의 폭격을 시행하였고 B-26기는 주간에 전월보다 많은 병참지역과 비행장에 대한 차단작전을 실시하였다. 제5공군은 적 병력과 민간인들의 투항을 독려하는 선무방송 비행을 증가하여 37소티를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인들에게 임박한 공습에 대한 경고와 폭격을 막기에는 북한 지도부가 무능하다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한 전단 살포 비행도 182회 실시하였다. 8월 중 계속된 4일간의 야간임무에서 B-26 3대가 손실 당하자 바쿠스 제5공군사령관은 제3폭격비행단의 비행을 중단시켰다. 그는 B-26 승무원들이 야간 저고도 충분히 숙달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짓고 4,000피트 이하 고도에서의 임무를 금지시켰다. 지휘방침의 변화와 새로운 전술 도입, 훈련 강화를 거친 후 비행중지 열흘 후에 제3폭격비행단은 작전을 재개하였고 12월까지 공산군에 의한 항공기 손실은 없었다. 새로운 전술은 도로교차점을 폭격하는데 전폭기를 활용하고, 어둠이 시작되면 B-26기가 M83나비폭탄(Butterfly Bomb)과 지연신관폭탄을 인접도로에 투하하고 야간 내내 B-26기가 개별적으로 공격할 차량행렬이 있는 도로를 탐색하는 것이다. 8월 20일과 21일 B-29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8대가 평양 지역의 보급품 저장지대에 대한 폭격을 실시하였는데, 8월중 단일 표적에 대한 중폭격기의 최대공격이었다.

9월 극동공군은 북한 전 지역에서 잔여 산업시설과 병력집결지에 대해 가장 강력한 공습을 지시했다. 북한 국경지역에 위치한 많은 표적들이 극동공군의 공격을 받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9월에 B-26기는 기본적으로 주야간 적 보급표적과 차량에 대한 공격에 투입되었다. 제5공군은 항공차단작전 시 조명탄 투하 임무 96소티를 실시하였다. 9월 3일과 4일 B-29기가 52소티를 실시하여 월중 최대 비행을 실시하였고 2소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장진수력발전소에 대한 공격이었다. 9월 5일 2주간에 걸쳐 극동공군 항공기 200여 대 이상이 신안주 북동부에 위치한 광산과 금속처리공장을 공격하여 약 70개의 건물과 보수공장을 파괴하거나 손실을 입혔다. 9월 12일과 13일 B-29 25대가 수풍발전소를 공격하였고 공격 이전과 공격동안 미 공군 B-26과 미 해군 항공기들이 적 탐조등을 제압하기 위해 저고도에서 파열폭탄을 투하하여 30개소 중 약 8개소를 무력화 했고 동시에 B-29 4대는 적 레이더를 무력화하기 위해 동부 상공에 머물렀다. 이 작전에서 MiG-15에 의해 B-26 1대가 격추 당했고 대공포에 의해 B-26이 손상을 입었으나 B-29는 표적에 폭탄을 투하하여 재차 발전소를 사용불능상태로 만들었다. 극동공군은 탐조등 제압과 전자방해책(ECM)이 B-29의 대량손실을 방지했다고 결론지었다. 9월 16일 제5공군은 월중 높은 수준인 B-26 110소티 비행을 실시하였는데 대부분 무장정찰과 항공차단작전에 투입하였고, B-26은 약 100여 대의 적 차량을 파괴하거 손상시켰다. 19일에는 B-29기가 11개월 만에 주간공습을 감행하였는데, B-29 32대가 F-86의 엄호를 받으며 함흥 남서부의 적 숙영시설과 보급지역을 공격하였다. 이날 공격에는 RB-45 1대가 B-29를 선도했으며 RB-29 1대가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집결상공에서 체공하였다.

10월 전폭기들은 기상이 허용하는 한 북한 북서부 상공에 대한 초계비행을 매일 실시했으며 전폭기들은 보급지역과 교량, 포진지, 차량, 정비소, 병력집결지를 포함한 유용한 표적들을 공격했다. 10일 F-86의 엄호를 받는 F-84전폭기가 적 화차가 터널에 진입하기 전에 파괴하기 위해 희천-강계 간 철도에 대한 주간 무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찰을 실시하여 철도교량과 화차를 공격하여 파괴하였다. 10월간의 공산군 전투기의 대응은 미약하고 공격적이지 못했다. 극동공군 폭격사령부 B-29는 서포리, 내원선리, 해청, 포천골, 연포, 진남포 지역의 물자저장지역과 해주지역의 보급본부와 훈련장에 대해 반복적으로 타격하였다. 9월 30일과 10월 1에는 제19폭격전대, 제98, 307폭격비행단 예하 5대의 전자방해책(ECM) 임무기와 대공제압기를 포함한 48대의 B-29가 압록강으로부터 1,300피트 이격되어 있고 수풍댐 근처에 위치한 북한의 마지막 남은 전략표적인 남산리 화학공장을 파괴하였다. 이 폭격 간 7대의 B-29가 저공으로 비행하여 약 40개의 탐조등 중 8개를 파괴하였다. 10월 5일 제5공군은 미 해군과 합동으로 중공군 제67군의 막사와 병참지역을 공격했고, 7일에는 제5공군 전투기 조종사와 미 해군 조종사들이 중공군 제26군 집결지를 공격하였다. 8일에는 고저(庫底)지역 기만 상륙을 지원하기 위해 제98폭격비행단 소속 B-29 10대와 미 해군 전폭기가 합동으로 고원지역의 병참지역에 대해 주간 폭격을 실시하였다. 9일에는 B-26 경폭격기가 희천 이남지역의 광범위한 공산군 통신시설을 폭격하였다. 10월 12일과 13일에는 B-29 26대가 해주지역 병력집결지 9개소를 폭격하였다. 또한 13일에는 고저지역 기만상륙 준비를 위해 극동공군과 미 해군 전투기들은 고저 주변 적진지를 공격하였고 미 해군 수상함은 해안에 대해 함포사격을 가했다. 10월 25일 B-26과 전폭기들이 금강 정치학교를 폭격하여 시설 전부를 거의 파괴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1월 제5공군은 적 철도망, 병력집결지, 병참지역, 군 지휘본부에 대한 작전압박을 지속하였다. 금강산지역의 작은 수력발전시설 2개를 파괴함으로써 북한 지역에 가동 중인 수력발전 시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신안주-신의주간 철도와 2차례에 걸친 용미동 교량에 대한 공격에서 제5공군은 약 200톤의 폭탄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이 철도는 3일을 제외하고 11월 전 기간 운행이 가능했다. B-26의 야간 폭격은 평양남부에서 원산에 이르는 전 주요 경로에 대해 이루어졌고 이와 함께 야간 시간대 적 차량을 파괴하기 위해 전선에 대해 정기적인 초계활동을 펼쳤다. 또한 호주공군 Meteor-8의 엄호를 받으며 병참표적 및 교량에 대한 주간 공습을 감행했다. 공산군의 레이더 유도 대공포 배치에 대응하여 제3,

17폭격비행단은 주·야간, 악천후에 방향 탐색을 위해 전술항공지시소에 의존하였다. 악천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제5공군은 '목조르기(Choke)'로 명명된 차단계획인 적 병참로에 대한 공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해가 지기 전 전폭기들은 선정된 교량을 공격하였고 일몰 후에는 B-26이 유사 표적을 공격하였으며 야간에 B-26은 폭파된 교량 후방에 정지된 차량을 정찰하고 폭격하였다. 11월 하순에 제5공군 소속 F-80, F-84 전폭기는 신안주-평양-사리원 간의 철로에 대한 무장정찰 및 초계활동을 실시하였고 폭격사령부 B-29는 병력집결지와 통신 및 병참중심부를 타격하는데 집중하였다. 폭격사령부는 통상 야간에는 B-29 6기 편조로 2개 표적을 공격했다. 폭격피해평가(Bomb Damage Assessment) 사진은 10월에 비해 전술항공사령부 소속부대로 극동공군에 파견된 제1 단거리 항법비콘 대대에 의한 단거리항법 표적위치 확인 체계의 성능개선 결과에 따라 B-29의 폭격효과가 100%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안지역에 공산군의 레이더 유도 대공포가 증가 배치되었지만 11월에 폭격사령부 소속 B-29 1대 만이 희생되었고, 이로 인해 폭격사령부는 폭격대형을 압축하여 공산군의 대공망에 노출되는 시간을 감소시켰고 전자방해책의 효과를 증가시켰다. 11월 1일 제5공군 전폭기들이 용미동에 위치한 3개의 철로 교량을 공격하였다. 11월 4일 극동공군 사진정찰결과 용미동 지역에 3개의 철로 교량이 다시 운용 상태에 들어갔고 병행하여 2개의 교량이 완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1월 5일 오키나와에 불어 닥친 태풍으로 인해 B-29의 모든 비행 일정이 취소되었다. 6일에 용미동 철도 교량에 대한 재공격 시 약 100대의 전폭기는 대공포진지를 이동한 것과 5번째 병행교량 건설이 시작되고 있음을 목격하였다. 12일과 13일에 제98폭격비행단 소속 B-29 6대가 재건된 평양 철도 교량을 공격하여 경간 4개를 파괴하였다. 또한 13일과 14일에는 제307 폭격비행단 소속 B-29 5대가 소이확산탄을 사용하여 서포 병참지대를 시험 공격하였으나 결과는 미약했다. 11월 16일 미 해병비행단 항공기들이, 17일에는 제5공군 전폭기가 금강산 지역 수력발전소들을 공격하였다. 18일과 19일는 제98폭격비행단 B-29 6대가 선천 병참본부를 공격하였고 며 MiG-15 공격으로 B-29 1대가 손실을 입었다. 이날 공산군은 새로운 요격전술을 구사하였는데 탐조부대가 폭격기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준할 수 있을 정도로 조명탄을 투하한 후 4기 편대가 B-29를 통과하면서 기총을 난사하였다. 11월 19일 제49, 58전폭비행단이 강계지역에 위치한 병력과 물자 집결지 2곳에 대해 총 179소티의 공격을 실시하였고 28일과 29일에는 B-29기가 각기 45분간의 시차를 두고 약 116개의 중형 대공포(이 중 96개가 레이더 유도)와 MiG기가 방어하고 있는 신의주와 의주지역 목표물을 공격하였다. 이 공격에 앞서 B-26 5대가 대공포 제압 임무를 수행하였고, B-29 14대가 신의주 비행장을, 6대가 신의주 열차수리공장을, 10대가 의주 비행장을, 4대가 의주 통신본부를 공격하였다. 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자방어책과 채프(Chaff)를 사용하여 손실 없이 임무를 수행하였다.

12월 중국이 북한에서 지상병력을 증강하고 보급수송이 증가함에 따라 중공군 집결지, 병참기지, 장비 집적소는 유엔군의 공습의 주요 표적이 되었다. 제5공군 전폭기들은 공개된 군사지휘본부, 병력집결지, 병참지역 타격에 주안을 두었다. 전폭기들은 북한 북서부 만주-평양-사리원을 연결하는 철도선을 타격하였고 이천(伊川)에서 재령과 평양 이남에 대한 도로봉쇄를 단행했다. 전폭기는 해질 무렵에 도로를 끊었고 경폭기들은 야간에 차량집결지를 공격하였다. 전폭기들은 엄호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질 무렵 차량을 찾아내 공격하였다. 12월 제5공군은 차량 2,321대를 파괴하였다고 주장했다. 제12전술정찰대대 RB-26과 2개 경폭격비행단 소속 B-26이 스포트라이트(Spotlight) 작전으로 명명된 철도차단 작전을 개시하였다. RB-26은 이동 중인 화차를 탐지하고 B-26이 기차를 공격하는 동안 조명탄을 투하하여 표적식별을 용이하게 하였다. 제3폭격비행단 RB-26은 야간 저고도 공격을 평가하기 위해 B-26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폭격지역에 대한 정찰을 통해 성공적인 폭탄피해평가 영상을 제공하였다. 12월 19일 평양 주 비행장의 사진촬영결과 3대의 항공기가 식별되었고, 이는 1951년 10월 이래 처음으로 식별된 것이었다. 12월 29일과 30일과 제307폭격비행단 B-29 11대가 태감리 본부지역을 공격하여 건물 146동을 파괴하였다. 12월 30일 스포트라이트작전 일환으로 RB-26가 보급품야적장의 기관차 5대를 발견했고 B-26 2대가 4대를 파괴하고 나머지 1대를 손상시켰다. 30일과 31일 제19폭격전대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압록강 근처의 척동철광석처리공장을 폭격하였다. 이날 공격에서 MiG-15의 공격으로 B-29 1대가 격추하고 다른 B-29 2대가 손상을 입어 수원기지에 비상착륙하였다.

3) 근접항공지원(Close Air Support) 작전

<표 8-16> 1952년 근접항공지원 비행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행활동(소티)	394	162	1,081	711	1,031	1,910	18,185
	2,082	1,854	1,822	3,009	2,416	1,713	

1952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근접항공지원은 직접적인 지상군 지원임무보다는 하계에 예상되는 공산군의 집중공세에 대비한 작전절차 숙달 및 훈련비행에 치중되었다. 이는 극동공군의 작전중점이 후방차단작전으로 전환된 1951년 6월 이후 전선이 교착되어 지상전은 소강상태를 보인 반면 지난 7개월 동안 전폭기 조종사들이 지속적으로 후방차단작전에 투입되면서 근접지원작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근접항공작전에 투입된 전폭기들은 별로 가치 없는 표적인 공산군의 벙커나 포진지로 유도되었고 그 성과도 미미하였다. 후반기 지상근접지원 작전은 전반기보다는 다소 증가한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고지쟁탈전을 치루는 유엔지상군에 대한 활동이 증가한 때문이다.

그러나 일종의 휴식기와 다름없는 기간이었지만 하계기간 공산군의 대공세를 우려한 제8군과 제5공군은 공지합동체제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계속했다. 1952년 4월에는 미 공군 제6147전술통제대대를 전선으로 근접시키기 위해 춘천비행장(K-47)으로 이동시켰고, 3월~5월 중에 전술항공통제기를 구형 T-6G, T-6F에서 LT-6G로 교체하였다. 신형 LT-6G는 내부 연료적재량이 더욱 커졌고, 무선집중유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로켓발사 시계가 확대되었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적지시 로켓 12발을 적재할 수 있었다. 또한 1951년 11월에 AN/MSQ-1 레이더 운영 장교들의 도착으로 1952년 5월부터는 2개조가 미 제1, 9단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월 중 미 제8군은 전술항공지원요청 통신망인 구형 SCR-399무전기를 AN/CRC-26 무선 텔레타이프로 교체하여 이전보다 신속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1952년 1월 밴플리트(Van Fleet) 미 제8군사령관은 전선의 적진지에 대해 1개월에 걸친 공(空)·포(砲) 합동작전을 전개했는데, 이는 유엔군의 공·지 화력으로 공산군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하루는 지상군 야전포병이 공산군의 표적에 포격하고 다음날은 공군 전폭기들이 고성능 폭탄과 네이팜탄으로 표적을 강타하는 작전을 교대로 지속하는 형태였다. 이를 피해 공산군은 지하로 더욱 깊은 엄체호를 구축하였는데 500파운드 혹은 1,000파운드 폭탄이 명중되어야 파괴될 정도였다. 2월 중순경 미 제8군은 전초진지를 일시 포기하고 전선에서 20,000야드(약 18km) 이내 지역에서 모든 근접항공지원을 중지하는 침묵작전(Operation Clam-Up)을 1주일 간 실시했다. 이 작전은 야간 공습 중지를 통해 공산군의 수색 및 정찰 활동 증가를 유도하여 이들 정찰대가 유엔군의 매복에 걸리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공산군은 이에 말려들지 않았고 결국 작전은 성과 없이 2월 16일에 종료되었다.

6월 제5공군은 공산군의 새로운 공세 준비를 방해하고 조종사 숙달을 위해 근접지원비행 1,910소티를 실시하였다. 6월 24일 B-29 26대가 지상군 근접지원비행을 실시하였고, 이는 전쟁 중 이전에 비해 1일 최대 지원규모로 기록되었다. 8월 8일에는 제5공군이 근접항공지원 285소티를 실시함으로써 월중 일일 최고기록을 수립하였고 9월에 처음으로 폭격사령부는 단독으로 전자방어책(ECM)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B-29를 근접항공지원작전에 투입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야간에 소규모 근접항공지원작전에 투입했다.

9월 15일 공·지 협조와 미 공군과 육군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바쿠스 장군은 전선지역에 15명의 전투조종사를 3일 동안 견학하는 것을 지시했다. 9월 29일 제5공군 전폭기들이 적 벙커와 포진지를 파괴하기 위해 근접지원비행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7소티를 실시하였다. 이는 9월중 최대 규모이고 일일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였다.

제5공군은 개성 근처 중립지대에서 오랫동안 안전을 누려온 공산군을 공격하기 위해 10월 8일부터 25일까지 레드 카우(Red Cow) 작전을 펼쳤고 이 작전에서 LT-6G 전술통제관들은 병력과 포진지 등 총 24개 표적에 전폭기를 105회 유도하였고 이들 전폭기들은 중립지대와 주저항선에 근접해 있는 표적을 파괴하였다. 또한 10월 중 B-29는 AN/MSQ-1 레이더의 통제 하에 근접항공작전을 실시하였는데 기상불량으로 목측 폭격이 불가할 경우, B-26은 지상 레이더의 통제 하에 유엔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작전을 수행했다. 제5공군은 평양-원산선 이남, 특히 미 제9군단 지역에서 유엔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한 근접항공작전에 집중하였다. 10월 24일 제5공군과 제8군은 아군의 근접지원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지상 포병의 사격을 허용하는 새로운 대공포 제압 시험을 30일 동안 제9군단 지역에서 실시하고 종료하였다.

11월 제5공군은 국군 전초부대에 대한 공격을 강행하고 있는 공산군을 격퇴하기 위해 제9군단지역에서 근접항공지원을 증가시켰다. 11월 19일 미 제8군과 제5공군과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견학이 10월 말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제8군 주요 보직 장교들에게 공지작전 체계 현황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었다. 11월 22일 제8전폭비행단 소속 로어링(Charles J. Loring, Jr.) 소령이 지휘하던 F-80 4기 편대가 제9군단 지역인 저격능선(Sniper Ridge) 상공에서 근접항공지원 임무 중 공산군의 대공포에 맞아 2대가 격추되었다. 이때 로오링 소령은 적 대공진지 중앙으로 그의 항공기를 추락시켜 대공진지를 완전하게 파괴하였고 사후에 명예훈장을 수여받았다.

12월 초순 제8군은 유엔군 전초진지와 폭격선과의 간격을 줄였는데, 이는 전술항공통제소가 없는 가운데 유엔 지상군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신속한 공중공격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였다. 12월 2일부터 7일 사이 폭격사령부는 금화북부 저격능선전투에서 제9군단 정면에 무선유도폭격에 의한 B-29 폭격운영을 1대에서 3대로 증가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공수작전

<표 8-17> 1952년 공수비행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행활동(소티)	4,920	4,451	5,002	3,595	4,210	4,645	51,837
	4,305	4,535	4,056	4,559	3,606	3,953	

1월 제315공수비행사단은 84,234명의 병력과 6,805톤의 화물을 공수하였고 2,041명의 환자를 철수시켰다. 2월 제315공수비행사단은 81,555명의 병력수송과 2,068명의 환자 후송, 1,431톤의 보급품을 공수하였다. 2월 26일 제315공수비행사단장으로 칠드레(Cecil H. Childre) 대령이 헤네브리(Henebry) 준장 후임으로 부임하였다. 3월 제315공수비행사단은 병력, 보급품, 탄약 등을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 공수하였고, 물자 총 17,603톤을 공수하였는데 여기에는 90,021명의 병력과 7,840명의 환자 수송이 포함되었다. 4월 10일 맥카티(Chester E. McCarty) 준장이 제315공수비행사단장으로 임명되어 정전 시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4월 14일 제1공군동원비행단이 동원명령을 받아, 제403공수비행단으로 전환하여 일본 아시야(로蘆屋)기지에 도착하였다. 4월 29과 30일 C-47, C-119, C-46 각 1대가 추락하였고 16명의 인원이 사망하였는데 이는 1952년 전반기에 제315공수비행사단이 겪은 가장 큰 손실이었다. 5월 16일 09:00시부터 17일 오전까지 제315공수비행사단의 C-119, C-54, C-46 수송기는 제187연대전투단 병력 2,361명과 전투장비, 차량, 탄약, 보급품 등 물자 약 889톤을 일본 아시야 및 브래디(Brady)기지에서 부산(K-9)으로 수송하여 뛰어난 긴급부대이동 사례를 만들었고 이들 통해 공수된 제187연대전투단은 유엔군사령부가 설치한 거제포로수용소에서 공산군 포로의 폭동을 진압하였다. 5월 26일 제315공수비행사단은 처음으로 C-124(Globemaster)를 배치하였고 이로써 예하 제374공수비행단 소속 2개 대대가 C-54를 C-124로 교체하기 시작하였다. 제315공수비행사단은 6월중에 71대의 C-119중 28대만 작전에 동원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군물자사령부는 C-119 수리를 위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일본으로부터 부속품의 신속한 제공을 요청하였다. 제315전술공수비행사단은 신형 C-119를 극동공군에 배치하였고 제403전술통제비행단은 정비중인 C-119를 미 본토로 이동시켰다. 6월 30일 제374전술통제비행단 소속 조종사 2명이 첫 번째로 C-124 비행숙달훈련을 마쳤다.

7월 3일 제315공수비행사단장 맥카티 장군이 제374전술통제비행단에서 최초로 배치된 C-124 수송기를 직접 조종하여 일본에서 한국으로 비행을 실시하였고, 제315공수비행사단은 7월 10일부터 3주 이상 제474전투비행단의 이동(일본 미자와 → 군산기지)에 소요되는 물자와 장비, 인원을 수송하였다. 8월 15일 제315공수비행사단은 약 300명의 환자를 후송하여 월중 일일 최다 기록을 수립하였고 10월 12일과 14일 미 육군 제187공정연대전투단과 고저지역 기만상륙을 위해 공수강하 훈련을 실시하였다. 10월 15일에는 고저 기만상륙작전을 위해 공격군이 공격상륙정에 탑승하여 해안가를 시위 항해 후 모함으로 돌아왔다. 이와 관련하여 제403공수비행단 C-119 32대가 철원지역을 비행하다 800피트에서 병력을 투하한 후 대구기지로 돌아왔다. 10월 27일 제5공군 시설부대가 서울비행장에 공수작전을 위해 견고한 활주로를 완공했다.

11월 제315공수비행사단은 C-54를 C-124로 교체하여 한·일간 공수임무에 활용하기로 하였고 물자와 인원 공수에 제한이 있는 비행장을 C-124가 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11월 1일 제61전술공수전대의 C-54가 공수임무를 끝내고 본토로 귀환할 준비에 돌입하였고 11월 10일 제315공수비행사단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250,000번째 환자 이송을 실시하였다. 11월 15일 제315공수비행사단의 휴가인원 공수 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제403공수비행단 C-119가 40명의 승객을 태우고 일본에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 12월 제315공수비행사단은 제18전폭비행단이 진해에서 오산으로 전개하는데 공수를 실시하였다. 이때부터 미 공군의 대규모 부대의 공수이동이 시작되었다. 12월 초 새롭게 제22공수비행대대에 배치된 C-124의 연료탱크에서 연료가 누출되는 것이 발견되어 월말까지 모든 C-124가 비행중지되었다. 12월 22일 전쟁 중 가장 처참한 공중의무 철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리스 C-47 수송기가 환자를 수송하다가 수원기지에서 F-80전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5) 구조 및 기타 작전

1월 탐색 및 구조 부대는 516소티를 실시하였고 전방지역에서 293명의 중상자를 헬기를 이용하여 후송하였고, 적 후방지역에서 1명의 조종사를 구출하였다. C-47 수송기와 B-29기는 적 지역 병사와 민간인에게 심리 전단을 살포하였다. 1월 26일 구조헬기 1대가 서해안 지역 적 후방지역에서 F-84기 조종사인 타울리(A. T. Thawley) 대위를 구조하는 동안 소화기 공격을 받았다. 2월 탐색 및 구조 항공기는 586소티를 비행하여 헬기는 126명의 환자를 후송하였고 적지에서 9명의 조종사를 구출하였고 3월에는 442소티를 비행하여 중상자 140명을 후송함과 아울러, 적지에서 2명의 조종사를 구출하였다. 3월 5일 제트전투기가 적 대공포를 무력화하는 동안 미 공군 헬기가 구조망을 내려 추락한 미 해군 조종사를 용연동 지역에서 구조하였고 27일에도 헬기 승무원이 벽성근처에서 중공군에 잡혀 있던 추락한 미군 조종사를 수차례 저공비행을 통해 탈출하게 하였는데 헬기 승무원 1명이 소총으로 중공군에게 사격을 가하고 있는 동안 다른 승무원이 구조망을 내려 조종사를 구출하였다.

4월 중 제91전략정찰대대 소속 RB-29는 표적선정을 위해 북한지역을 정찰하였고 제2143항공기상비행단 WB-29기는 기상정찰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제6167특수작전대대 소속 비무장 C-46, C-47, B-26기는 전단 살포 188소티, 선무방송 10소티, 비밀공작 업무 66소티를 실시하였고 작전 중 공산군의 지상화기의 공격을 받아 C-47 3대가 손상을 입고 병사 1명이 전사하였다. 제6160항공선박전대 파견대는 128회 임무를 수행하였고 38도선 북부 해상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85피트 선박이 북한함정의 사격을 받아 심각한 전투손상을 입었다. 4월 14일 제3항공탐색구조전대 Sa-16 1대가 해안에서 공산군의 소화기 공격을 받으면서 미 해군항법사를 수상으로부터 구출하였고 28일에는 제3항공탐색구조대대 H-19헬기가 추락한 영국 해군 함재기 Sea-Fury 조종사를 2번째로 구조하였는데 이 조종사는 3주전에도 제3항공구조대대에 의해 구조된 바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월 중 정찰부대들은 이전보다 높은 비행활동을 실시하였는데 제67전술정찰전대는 2,400소티의 정찰비행을 실시하였다. 5월 18일 제3항공구조대대 Sa-16기가 해안에서 포화에도 불구하고 추락한 F-84조종사를 구조하였다. 5월 23일 기상불량으로 인해 제3항공구조대대 H-19 헬기가 계기비행을 실시하여 추락한 해병대 AD-2기 조종사 1명을 구출하였는데, 이는 계기비행 구조의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6월 극동공군은 전단 살포 170소티, 선무방송 19소티, 조명탄 투하 129소티 외에도 탐색 및 구조임무를 수행하였다. 선박구조부대는 구조선을 군산 근처 해안에 보내 5명을 구출하고 시체 1구를 회수하였다. 6월 4일 제3항공구조대대 H-19 헬기가 자동화기의 사격을 받으면서 추락한 영국조종사를 구조하였다. 6월 7일 공중급유시험(Operation Hightide)을 위해 F-84 35대가 일본에서 이륙하여 KB-29M으로부터 한국 상공에서 공중급유를 받고 북한 표적을 공격하였다. 6월 9일 제3항공구조대대 H-19헬기가 소화기의 사격을 받으면서 추락한 미국조종사를 구조하였다.

7월 제6167작전대대 'B'편대는 전단살포 142회, 선무방송 13회, 조명탄 투하 79회, 특수임무비행 69회를 실시하였고 제3항공구조대대는 약 700명의 홍수피해자를 안전하게 철수시켰으며, 새롭게 창설된 제22구조선박대대(Crash Rescue Boat Squadron)는 조종사 구조임무 9회를 실시하여 2명을 구조하였다. 7월 3일 C-47 수송기가 전단 살포비행 13소티 수행하여 전단 22,000,000매 이상을 북한지역에 살포하였는데 이는 월 중 전단 살포량 1/6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7월 30일 계속되는 는 장마로 인해 제3항공구조대대 헬기들이 약 650명의 고립된 미군과 한국인을 안전하게 구조하였고 총 100회 이상의 비행을 통해 H-19기는 600명을 철수시켰으며 H-5가 잔여인원을 대피시켰다. 미 제1군단 관할지역에서 2대의 H-5가 30회의 비행을 실시하여 홍수로 고립된 60명의 한국인과 미군병사를 구조하였다. 8월 8일 극동공군의 선전활동이 증가되었는데, 야간에 B-26기가 동해안 지역 적이 점령한 지역에서 총 4시간 이상의 선무방송 비행 3소티를 실시하였고 19일과 20일에는 극동공군 항공기들이 평양지역 상공에서 차기 야간 공습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대한 경고 전단을 살포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의 심리전을 더욱 강화 지시에 따라 8월 22일과 23일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C-47기 3대가 60분 동안 전선근처 상공에서 선무방송을 실시하였다.

9월 제22구조선박대대는 8번의 구조임무를 수행하여 1명을 구조하고 3구의 시체를 인양하였다. 9월 4일 제3항공구조대대 H-19 1대가 조종사를 구조하던 중 엔진 정지로 해상에 추락한 미 해군 헬기 조종사 1명과 승무원 2명을 구조하였다. 9월 27일 야간에 B-26 3대가 중부지역에서 선무방송 비행을 3시간 30분 동안 실시하였는데, 이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동안 지속된 것이다.

10월 정찰부대는 북한지역의 포로수용소의 위치에 대한 정찰활동을 강화하였다. 제67전술정찰비행단은 전자방해책 장비가 탑재된 개조된 B-26기 4대를 인수하였고, 제502전술통제전대는 북한 서부 해안의 초도 상에 항공지시본부를 개소하하여 유엔전폭기들에게 지상관제요격 임무를 수행하였다. 10월 12일 제3항공구조대대 Sa-16 조종사가 100마일 이상 이격된 2개 지역에서 30분간 구조 활동을 벌여 추락한 F-86 조종사를 구조한 후 Sa-16 헬기는 전투기들이 상공에서 해안 지상포화를 제압하는 가운데 해주항에 착륙하여 피격된 F-84에서 탈출한 제69전폭대대 조종사를 구조하였다.

12월 제67전술정찰비행단 4번째 전자 방해책 장비를 장착한 B-26을 수령하기로 결정되었다. 아직도 단지 1대만이 제67전술비행단에 파견된 미 해병비행대대의 6대의 항공기와 전자방해책(ECM) 임무를 수행하였다. 미 본토에서 창설되어 18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하다가 필리핀으로 이동 후 8개월 동안 임무를 해온 미 공군 최초의 특수작전임무 부대인 제581항공재보급 및 통신비행단(Air Resupply and Communications Wing)이 한국에서 임무를 개시하였다. 이 비행단의 임무는 전단 살포를 통한 선전전 수행, 라디오 선무방송, 적 후방지역으로의 인원 및 장비의 공수, 유격활동 지원, 특수작전인원의 철수 등이다. 또한 유격대에 대한 완벽한 지원(무장, 훈련, 수송, 수용) 책임을 지고 있다. 이들의 첫 번째 작전활동은 H-19 헬기 4대를 보유하고 한국으로 전개한 것이다. 이들 헬기파견대는 은밀하고 비밀스런 정보임무 수행을 위해 서울로부터 한국공군 정보원의 침투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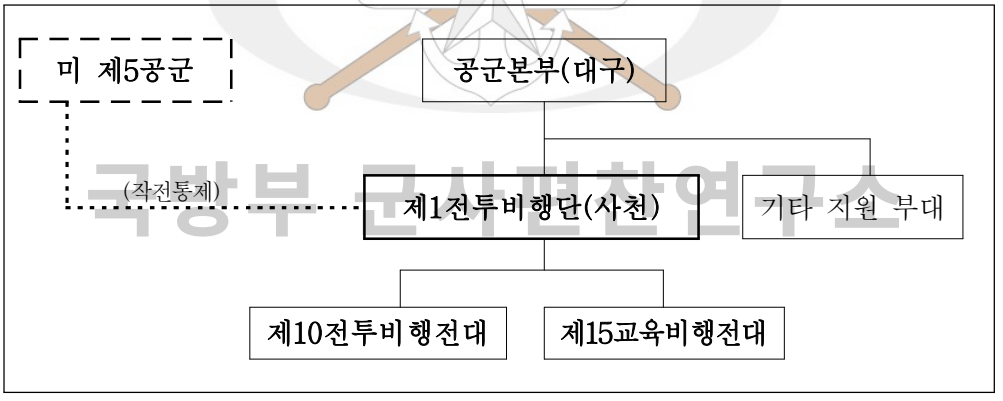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적 후방지역까지 비행했다. 12월 22일 Sa-16 승무원 1명이 해주근처에 착륙하여 영국군 함재기 Sea-Fury 조종사를 구조하였다. 12월 27~31일 동안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제581 공군재보급 및 통신비행단 예하 H-19 4대가 수차례 비밀정보활동을 위한 적지로의 공작원 침투 시험비행을 실시하였다. 12월 28일 제3항공구조대대 Sa-16 승무원들이 초도 북방 서해상에 조난된 조종사 1명을 구조하였다.

2. 한국공군 작전

1) 편성 및 지휘관계

<표 8-18> 한국공군 지휘관계(1952년 12월 말 기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52년도 공군의 조직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6월에 단행된 제2정찰전대의 해체다. 1950년 7월 대전기지에서 정찰비행대로 창설되어 육군 각 군단에 파견되어 지형정찰, 포병관측 등 육군에 대한 지원 작전을 수행하다 정찰비행전대(1950.1017)로 확장 개편되었고, 1951년 8월 제1전투비행단의 창설과 함께 제2정찰비행전대로 강화되었다가 1952년 6월 18일 해체되어 제1전투

비행단 예하 제15교육비행전대로 재창설되었다. 제15교육비행전대 창설은 기존 조종사 양성을 위해 비행훈련을 담당하고 있던 제2정찰비행전대와 제1전투비행단의 교육기관을 통합하여 비행훈련에 주력하기 위한 조치였다.[44] 이로써 1951년 8월 1일 공군비행단에서 미국식 편제에 따라 창설된 제1전투비행단은 전투비행부대인 제10전투비행전대와 비행훈련부대인 제15교육비행전대를 두게 되어 한국공군의 유일한 전투부대이자 조종사 양성기관이 되었다. 한편 F-51D의 보유수는 1951년 10월 11일, 단독출격작전을 시작할 당시 19대에서 1952년 9월 16일에 24대로, 10월 중에는 다시 40대로 증가하였다.

<표 8-19> 한국공군 연도별 항공기 보유현황[45]

구 분	F-51	T-6	L형 항공기	C-47	계
'50.12월	8	6	4	1	19
'51.12월	19	8	23	1	51
'52.12월	39	15	22	1	77
'53. 7월	78	17	22	1	1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51년 11월 18일 대구 효성여자중학교에서 대구서부초등학교로 청사를 이전했던 공군본부는 1952년 1월 1일에 기존의 5국(인사, 작전, 정보, 군수, 재무) 7실(일반참모비서, 고급부관, 감찰감, 법무감, 정훈감, 의무감, 휼병감)의 체제를 유지한 채 내부 기구를 대폭 개선하는 작업과 함께 예하부대인 특무대를 제90특무대로 개편, 강화하였다.[46] 1월 31일에는 제80항공창을 사천으로 이동시켰고 2월 20일에는 제80항공창으로부터 일반물자보급업무와 시설업무를 분리시켜 대구에 제40보급창을 설치하였으며, 4월 1일에는 군 규모의 확대에 따른 군수보급계통의 확장을 위해 제80항공창을 제80항공본창 및 제180수리창, 제181보급창으로 개편함과 아울러 시설업무 수행을 위해 본부 직할부대로 독립된 제801시설대대를 창설하였다. 또한 1952년 5월 25일부로 재무국의 명칭을 경리국으로 전환하였고 11월

11일에는 시설감실을 창설하였다.

1952년 12월 1일에 공군창설의 산파역할을 담당했던 제1대 공군총참모장인 김정렬(金貞烈) 소장 후임으로 최용덕(崔用德) 소장이 2대 총참모장으로 취임하였다.

2) 작전활동

1952년도 공군작전은 강릉기지에 전개한 제1전투비행단 예하 제10전투비행전대에 의해 후방차단작전과 근접항공지원 작전이 실시되었다. 후방차단 작전은 1951년 10월부터 1952년 10월까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근접항공지원작전은 1952년 10월 28일부터 시작되었다. 1952년에 거둔 공군의 전과는 후방차단작전에서 승호리철교 차단작전, 송림제철소 폭격작전이었다. 또한 유엔공군이 북한 주요 시설에 대한 선택적 파괴를 통해 공산군의 전쟁의지를 저하시켜 지지부진한 휴전협상을 타개하기 위한 항공압박 작전의 일환으로 실시된 평양 대폭격작전에도 제5공군의 작전통제 하에 3개 편대 36대가 참가하여 신장된 작전능력을 과시하였다. 1952년이 되면서 전투출격이 증가하면서 1952년 1월 11일 첫 100회 출격 조종사가 탄생하기 시작하여 한 해 동안 22명의 100회 출격 조종사가 탄생하였고, 피탄 및 작전 중 사고로 인해 출격조종사 5명이 희생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8-20> 1952년 출격 중 전사 조종사 현황

계급/성명	출격횟수	기 종	전사일자	전사경위
소위 이일영	43	F-51D	'52. 1. 9	회양 상공 피탄
중위 정중암	14		'52. 3.10	강릉 상공 비행사고
소령 나창준	57		'52. 4. 5	진남포 상공 피탄
대위 박두원	89		'52. 8. 2	간성 상공 피탄, 귀환 중 폭발
중위 최종성	33		'52. 11. 2	안변 상공 피탄

<표 8-21> 1952년 100회 출격 조종사 현황

계급/성명	100회 출격일	최종 출격 횟수	계급/성명	100회 출격일	최종 출격 횟수
중령 김두만	'52. 1.12	102	소령 이기협	'52. 4. 6	144
소령 김금성	'52. 4.16	195	소령 옥만호	'52. 4.18	117
소령 정주량	'52. 4.29	100 ('52. 12. 7 순직)	대위 유치곤	'52. 4.29	203
소령 손재권	'52. 5.18	107	소령 박재호	'52. 5.18	100
소령 윤응렬	'52. 5.29	107	대위 손홍준	'52. 7. 8	143
중위 박용만	'52. 8.13	170	대위 박완규	'52. 9.19	100
중위 임순혁	'52. 9.19	119	중위 배상호	'52. 9.29	118
중위 권중화	'52. 9.29	100	중위 백정현	'52. 9.29	126
중위 이창실	'52.12.11	103	중위 이호영	'52.12.11	148
중위 송재봉	'52.12.11	114	중위 임상섭	'52.12.11	152
중위 임종두	'52.12.11	106	소령 오춘목	'52.12.21	101

(1) 후방차단작전

1951년 11월 26일 지상전선은 강원도 고성 남강(南江) 남방으로부터 덕산리(德山里)-신대리(新垈里)-사비리(沙飛里)-신탄리(薪炭里)-노루목-가바우골-송정(松亭)-금성(金城)-금곡(金谷)-관포동(寬浦洞)-산문리(山門里)-판문점(板門店)-임진강에 연하는 선으로 형성되었다. 이후 유엔군과 공산군의 지상전투는 소규모로 이루어진 반면, 공산군은 전선에 대한 전력증강을 위한 인원 및 보급품 수송을 지속하였고 극동공군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스트랭글 작전을 1951년 5월 이래 지속 실시해오고 있었다. 이에 강릉전진부대는 미 제5공군의 작전통제 하에 1951년 10월 11일부터 후방차단작전에 참가하였고 1951년 12월까지 637소티(10월 : 238소티, 11월 : 256소티, 12월 : 143소티)를 실시하였다.

1952년에도 제10전투비행전대는 후방차단작전을 지속 실시하여 연중 총 3,601소티를 실시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8-22> 1952년 후방차단작전 실시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행(소티)	129	192	290	208	279	282	3,601
	196	324	426	655	352	268	

1952년 1월 1일부터 8일까지의 7일 동안의 작전은 황주, 토산(兎山), 신고산, 신변리, 이천(伊川), 사리원, 창도리 지구에 총 77소티를 출격하여 건물, 철도, 포진지, 보급품집적소를 파괴하였고, 특히 1월 6일에는 황주지역 철도 14km 구간을 공격하여 3개 구역을 절단하여 공산군의 전선보급을 지연시켰다. 또한 1월 9~15일까지 총 6일간 총 55소티를 실시하여 금성, 원산, 이천(伊川), 평강, 회양 지역 표적에 대한 차단작전을 실시하였다. 1월 15일에 실시된 차단작전 11소티는 승호리 철교 폭파(차단) 작전으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강릉전진부대는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정비 및 전투기량 숙달을 위해 사천기지로 전개하였다가 1월 31일 강릉기지로 복귀하였다.

1952년 2월 2일 미 제5공군사령관 에버레스트 중장은 김정렬 총참모장에게 서신을 보내 1951년 10월 11일부터 1952년 1월 14일까지의 제1전투비행단이 이룩한 작전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치하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중략>... 1951년 10월 11일부터 1952년 1월 14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성취한 작전기록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중략>... 귀 군 제1전투비행단은 819회의 유효출격을 감행하였으며, 2,090발의 로켓탄 및 650,000발의 Cal-50 기관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대적 공격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괴 및 파손된 적 건물 417동, 차량 54대, 적 보급품 집적소 74개소, 탄약집적소 2개소, 연료 집적소 4개소, 교량 15개소, 기관차 1대, 화차 7대, 포진지 168개소, 도로 및 철도차단 350개소, 적병 살상 225명. ...<중략>... 이 위대한 전투기록 수립에 대한 본관의 충심어린 축의를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7]

1월 31일 강릉기지로 복귀한 제10전투비행전대는 전열을 정비하고 2월 1일부터 후방차단작전을 계속하였다. 2월 1일에는 강릉기지로 신임조종사 7명(준위 임순혁, 박용만, 정중암, 권중화, 배상호, 백정현, 박두원)이 신규 배속되었는데, 이들은 사천기지에서 미 제6146부대의 조종사들이 아닌 한국공군 교관 조종사의 훈련지도 아래 비행교육을 마친 조종사로서 기존 조종사와 합류하여 후방차단 작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2월 1일 날씨가 흐린 가운데 원산 남쪽 신리(新里) 지역에 F-51D 8대가 출격하여 보급품을 적재한 열차 파괴를 시작으로 2월에는 출격일수 15일에 총 192회 출격하여 작전을 수행했다. 2월중 작전지역은 서부전선지역인 개성, 신막, 황주, 재령, 사리원, 해주, 장연, 옹진 지역과 중부전선 지역인 이천(伊川), 곡산 등이 포함되었다. 2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 동안 강릉기지의 폭설로 인해 출격이 중지되어 작전 또한 중지되었다.

3월 중 출격일수는 기상호전으로 23일로 증가되어 작전활동도 총 290소티로 증가하였다. 3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신막, 옹진 인근에 산재한 후방보급기지 및 포진지 등을 집중적으로 보급품 집적소 27개소와 벙커 19개소를 파괴하였고, 황주-사리원-신막을 잇는 철도와 사리원-해주-옹진으로 이어지는 철로에 대한 차단공격을 실시하였다. 3월 11일부터 26일까지는 원산에서 서부전선의 해주, 황주, 신막, 사리원 지역의 철도와 기타 보급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전선지역의 물자와 인원의 증원 차단에 주력하다가,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송림지역 산업시설 폭격임무에 전 가용 전력을 투입하였다.

4월에는 출격일수 19일 동안 208소티를 출격하여 송림제철소를 포함한 송림지역 산업시설 폭격을 비롯하여 평양 이남의 진남포, 해주, 사리원, 재령 등지의 철도를 공격하였다. 4월 10일과 11일에는 해주 북쪽 신덕(新德)과 평양 남쪽 중화(中和)지역으로 13소티를 출격하여 철도궤도를 파괴하였고, 4월 18일과 20일에는 사리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송산(松山), 구룡(九龍), 어수(御水) 지역에 총 28소티를 출격하여 신막-재령-황주로 이어지는 주요 철도 노선을 차단하는데 주력하였다. 4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평양 남쪽 10km 지점의 산음리(山陰里) 지역과 황주 서남쪽 심촌(沈村), 대열(大悅) 등지로 출격하여 철도, 화물열차, 도로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격하였다. 4월 27일부터 30일 간에는 해주 북쪽 신창리(新昌里)와 진남포 북쪽 정화리(亭花里), 원산 남쪽의 안변(安邊) 지역으로 출격하여 철도 및 교량, 보급로를 공격하였다.

5월의 출격일수는 총 26일이었고 279소티의 후방차단 출격을 실시하였다. 5월 1일과 2일에는 해주 북쪽 신원리와 신창리 지역으로 출격하여 사리원과 연결되는 철도를 차단하였으며, 5월 5일부터 15일까지는 사리원 지역을 중심으로 총 107소티를 출격하여 철도차단에 주력하였다. 5월 16일부터 24일까지는 황주, 원산, 평강(平康), 사리원, 장전 등지의 우마차, 자동차, 연료집적소 등을 파괴하였고, 5월 25일부터 29일까지는 경원선 검불랑 지역에 56소티를 출격하여 화차와 철도를 공격하였다.

6월의 출격일수는 총 24일이었고 282소티의 출격을 실시하여 차단작전을 실시하였는데, 6월 1일부터 17일까지 146소티를 실시하여 평양, 황주, 사리원과 중북부 지역의 강동(江東), 성천(成川) 지역과 동부지역인 삼원리(三院里), 신고산, 삼덕(三德), 세포리(洗浦里), 안변, 통천지역의 철도, 교량, 차량을 파괴하였다. 6월 19부터 28일까지는 강원도 평강과 안변을 연결하는 경원선이 지나는 이목리(利木里)와 삼방리, 검불랑 지역에 136소티를 실시하여 철도차단작전을 실시하였다. 6월 18일에는 사천기지에서 F-51D 전투기 비행훈련을 종료한 조종사 8명(소위 이창실, 이호영, 박희곤, 송재봉, 임종두, 임상섭, 현창건, 최순선)이 강릉기지로 전입되었다.[48]

7월에는 작전일수 18일에 후방차단 작전 196소티를 실시하였는데, 7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원산 남쪽 송산과 견산리(見山里), 검불랑, 신고산, 고성 지역을 공격하여 철도차단과 함께 적진지 파괴 작전을 수행하였다. 7월 13일에는 4기 2개 편대가 평강 도수대(道修垈) 지역과 하주리(下注里)지역의 건물, 보급품 집적소, 벙커, 자동화기 진지 등을 공격하였다. 7월 19일부터 25일까지는 중부전선의 평강, 이천, 곡산, 현리 지역과 동부지역인 원산, 장전(長箭)지구에 출격하여 보급품 집적소, 포진지, 건물 등을 폭파하였다.

8월은 23일 동안 324소티 작전을 펼쳤다. 8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동부전선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금성 동북쪽 현리와 하신원리(下新院里), 순갑리(順甲里), 장연(長淵), 통천, 원산 지역으로 총 156소티 출격시켜 보급품 집적소, 대공포 진지, 군용건물, 철도 및 유류저장소 등을 공격하였다. 또한 12일부터 27일까지 회양과 신고산, 창도리, 장연, 시변리(市邊里) 지역으로 출격하였다. 이 지역은 공중공격에 용이한 표적인 보급품집적소 및 유류저장소, 탄약저장소가 산재되어 있었는데, 8월 20일에는 4개 편대 F-51D 16대가 출격하여 창도리 지역에 출격하여 폭탄과 로켓, 기총사격을 통해 보급품 집적소, 11개소와 탄약저장소 1개소, 유류집적소 1개소, 건물 2동 및 철교와 교량을 파괴하였다. 한편 8월 19일에는 신임조종사 8명(소위 김필정, 이학선, 최성달, 신관식, 김만용, 조항식, 이찬권, 임병두)이 강릉기지로 전입하였다.

9월에는 22일 동안 총 426회 출격하여, 중부전선 수안(遂安), 금천 인근의 용성(龍城), 온정리(溫井里), 이천, 분지빙리(分池氷里, 현리 서남쪽 10km), 금성, 회양 지역의 보급품집적소, 군용건물, 유류저장소, 벙커, 포진지 등에 대해 차단작전을 실시하였다.

10월에는 출격일수 21일 총 655소티를 실시하여 고성, 현리, 승호리(勝湖里), 양덕(陽德), 중화, 이천, 온정리, 남천, 고원, 원산, 옹진, 신계(新溪), 곡산, 해주, 재령, 창도리, 지혜산 지역으로 출격하여 차단작전을 펼쳤다.

11월에는 18일간 총 352소티를 실시하였고, 동해안 지역의 고성, 고원, 내금강, 현리 지역과 서부전선지역인 해주, 개성, 신천, 옹진, 사리원, 수안, 온정리, 신막, 재령 지구에 출격하여 벙커, 건물, 보급품집적소, 탄약저장소, 병력집결지, 철도, 포진지에 대한 후방차단작전을 실시하였다.

12월 1일에는 공군사관학교 1기생 출신의 F-51D 전투조종사 13명(소위 김영환(金永煥), 이배선, 김영민, 이주표, 윤자중, 고광수, 이관모, 최영창, 정해영, 김중보, 천영성, 김낙규, 이희근)이 강릉기지로 전입하였다.[49] 12월 3일부터 8일까지 중부전선의 김화와 평강지역으로 86소티 출격하여 벙커 및 건물, 보급품 집적소를 공격하였다.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는 연천 북서쪽의 삭령(朔寧) 및 을목령(乙木嶺), 원산, 현리, 이천, 신고산, 평강지역 등으로 182소티 출격하여 보급품집적소, 유류저장소를 파괴하고 철도 및 철교에 대한 차단작전을 수행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가) 승호리철교 폭파작전

1951년 12월의 전선 상황은 38°선 인근에서 전선이 고착된 가운데 유엔군은 협상을 통하여 전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결말을 지으려고 노력하였고 북한 및 중공군은 계속적인 증원을 통하여 세력 확대를 시도하여 양측 간 세력이 점차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이로써 지상에서는 대규모 작전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연대급 이하의 전초진지 쟁탈전이 반복된 소부대 전투를 제외하고는 전투는 거의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태였다.

이 시기 북한과 중공군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많은 군사물자와 장비를 경의선과 만포선을 통해 평양으로 수송하였고, 이를 다시 평양에서 중동부 전선으로 보급하고 있었다. 승호리 철교는 평양 동부 10킬로미터 지점인 대동강 지류인 남강에 설치된 철교로서 중국으로부터 평양까지 수송된 보급물자를 중동부 전선으로 수송하는 북한군 후방보급로의 요충지였다. 미 제5공군은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이미 기존 승호리 철교를 폭파, 차단하였으나 북한은 기존 철교 위치에서 하류 방향으로 북쪽 200미터 지점을 우회하여 새로운 철교를 가설한 후 주위에 밀집된 대공방어망을 구축하였다. 또한 10개의 교각은 침목을 우물정(井)자형으로 쌓아 올리고 그 공간에는 모래주머니를 채워 폭격이나 기총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건설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제5공군은 이 철교 폭파에 실패하게 되자 이 임무를 한국 공군에 이양하였다. 임무를 부여받은 공군 제10전투비행전대장 김신(金信) 대령은 공군 최초의 100회 출격달성자인 김두만 소령에게 임무를 부여하였다.

1952년 1월 12일 07:40분 강릉기지를 이륙한 F-51 전투기 6기 편대(편대장 김두만 소령, 2번기 장성태 대위, 3번기 김금성 대위, 4번기 이기협 대위, 5번기 전봉희 대위, 6번기 미 공군 중위 Lagro)는 편대장의 지휘아래 표적상공에 도착하였고 우선 로켓탄과 기총으로 적 대공포진지를 무력화한 후 500파운드 폭탄 12발을 투하하였으나 폭탄이 교각사이의 모래바닥과 물속에 떨어져 폭파에 실패하였다. 같은 날 14:00시에 이륙한 윤응렬 대위가 지휘하는 3기 편대(2번기 주영복 대위,

3번기 정주량 대위)가 재차 임무를 시도하였으나 교각위의 철로만 손상을 입혔을 뿐 교량 폭파에는 실패하였다.

첫날 임무에 실패한 김신 대령은 참모들과 숙의 끝에 8,000피트 상공에서 강하하여 3,000피트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현재의 미군 전술로는 철교폭파가 불가능한 것임을 인식하고 조종사에게는 매우 위험과 모험이 따르는 4,000피트 상공에서 강하하여 1,500피트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저고도 폭격방안을 구상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1952년 1월 15일 08:25분 엄청난 한파 속에 제1편대장 윤응렬 대위(2번기 정주량 대위, 3번기 장성태 대위)와 제2편대장 옥만호 대위(2번기 유치곤 대위, 3번기 박재호 대위)가 이끄는 6대의 F-51전폭기는 공산군의 대공포화가 작렬하는 표적 상공에 도착하였다. 먼저 제1편대가 공산군의 극심한 대공 포화를 피해가며 편대장기를 선두로 기수를 목표에 맞춰 진입하여 로켓탄을 발사하자 철교의 경간 2개에서 검붉은 불기둥이 솟아올랐다. 이어 제2편대가 표적을 향해 진입하자 1편대는 2편대를 엄호하기 위해 잔여 로켓탄과 기총을 공산군의 대공포 진지를 향해 발사하였고 2편대는 적이 대공포화의 위협을 뒤로하고 정확한 조준 하에 폭탄과 로켓탄을 표적에 투하하자 2개의 교각경간이 파괴되며 철편이 허공에 솟아올라 떨어지며 철교의 중앙에 2개의 큰 구멍이 생겼다. 이로서 한국공군은 출격 15소티 만에 승호리철교 파괴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나타나게 되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승호리 철교 폭격 좌(左)와 우(右)의 항공사진(출처 : 공군역사기록관리단)

이날 F-51기 6대는 폭탄 12발, 로켓탄 20발, 50밀리 기총 4,700발을 사용하여 승호리 철교 폭파 외에도 포진지 6개소, 보급품 집적소 1개소, 벙커 3개소, 건물 1동을 파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의 전공은 2월 21일 미 제5공군 각 비행단의 지휘관 회의에서 소개되었고 김신 대령은 이 자리에서 축하 박수 세례를 받았는데, 후일 김신 대령은 이날의 회의를 술회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 그날 회의에 참석하니 한·미 해병대 장교가"아주 반갑습니다. 우리도 거기 여러 번 나갔지만 끝내 한국 공군이 차단하였군요."하고 축하해 주었다. 후에 알고 보니 유엔공군이 약 500회를 출격해서서 끊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엔공군도 이 철교를 폭파하고자 연일 부대를 바꾸어 가며 출격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자 한국공군에 넘겼는데 이때 미군장교 두 명이 한국공군의 성패여부에 대해 돈을 걸고 내기를 했는데, 이날 나에게 반갑게 축하인사를 던진 해병대 장교가 내기에서 이긴 사람이었다.[50]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의 성공은 한국공군의 명예를 걸고 기필코 성공시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대공포가 작렬하는 상황에서 저공침투비행을 두려워하지 않은 조종사들의 높은 전투의지에 기인된 것으로 대외에 한국 공군의 높은 전투기량과 감투정신을 과시한 사례로서 기록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나) 송림(松林)제철소 폭격작전

공군은 1952년 3월말부터 유엔공군과 연계하여 북한군의 후방병참기지로 판단되는 주요도시와 산업시설에 대한 폭격을 실시하였다. 미 제5공군사령부는 1952년 3월 28일부터 북한의 공업도시를 폭격하라는 임무를 한국공군에 하달하였다. 송림은 경의선의 황주역으로부터 13km의 지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대동강 수로를 통해 약 5,000톤급 선박의 정박이 가능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일찍이 1918년 일본이 제철소를 건설하여 한국 최초의 제철도시가 조성된 곳이었다. 1952년 당시 송림제철소는 150톤급 용광로 3기와 200톤급 용광로 2기를 비롯

하여 각종 제강 관련 시설들이 설치되어 선철, 철관, 철도레일 등을 생산하고 있었다.

임무를 부여받은 제10전투비행전대는 1952년 3월 28일 09:00시와 09:30분에 옥만호 대위와 김금성 대위를 편대장으로 하는 2개 편대 8대의 F-51D 전폭기를 출격시켜 송림의 공장지대 상공에서 500파운드 폭탄과 로켓, 기총으로 조차장과 유류 및 탄약 저장소를 공격 한 후 귀환하였다. 이날 오후 16:05분에는 이기협 대위와 나창준 대위를 편대장으로 8대의 F-51D가 출격하여 송림제철소를 폭격하였다. 이날 출격으로 송림제철소 용광로 2개, 건물 4동, 철로 1개 구간을 파괴하였다. 3월 29일에도 공격은 계속되어 08:30분과 08:40분 2차례에 걸쳐 이기협 대위와 나창준 대위를 편대장으로 2개 편대 8대가 송림시 공장지대를 공격하였고 오후 16:00시에도 송림제철소 지역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였다. 3월 30일에는 총 8개 편대 31대의 F-51D가 출격하여 송림지역 산업시설과 철도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였다.

4월에 들어서도 송림제철소를 포함한 산업시설에 대한 폭격은 계속되어 4월 2일부터 9일까지 총 61소티를 출격하여 제철소의 용광로, 부속시설과 설비를 파괴하였고 송림시의 군수공장, 유류집적소, 연결 철도 및 철교 등을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 작전은 한국공군이 최초로 감행한 북한 산업시설에 대한 공중폭격이었다.[5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다) 평양 대폭격 작전

지상전선이 고착되고 판문점에서의 휴전협상이 진전이 없게 되자 유엔공군은 대량공습을 통해 북한 내의 주요 군사목표를 선택적으로 파괴함으로써 공산군 측이 유엔군의 휴전협상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1952년 6월 이후 항공압박작전(Operation Pressure Pump)의 본격적인 시행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유엔공군은 수도이면서 주요군사목표물이 집중되어 있는 평양에 대한 대규모폭격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대장은 미 함참의 승인을 얻은 후인 1952년 7월 5일 웨이랜드 극동공군사령관에게 평양폭격을 지시하였다.



평양폭격 시 한국공군에 할당된 표적인 평양금속 공장과 곡산공장(출처 : 공군역사기록관리단)

1952년 7월 11일 10:00시에 제1파 공격을 시작으로 14:00시, 18:00시에 제2, 3파 공격이 실시되었다. 이날 공격에는 극동공군의 제5공군 소속의 전폭기와 폭격사령부의 B-29, 극동해군의 제77기동함대 소속 함재기, 영국해군의 함재기, 호주공군의 Meteor-8 등 총 1,254소티의 출격을 실시하여 계획된 대부분의 목표를 파괴시키거나 큰 손상을 입혔다. 이어 8월 4일에도 평양에 대한 대규모 폭격이 이어졌다. 이러한 1,2차 공격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공중사진정찰 결과 아직도 평양시에는 군사시설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자 극동공군은 제3차 공격 단행을 결정하였다. 제3차 공격의 표적에는 평양시내의 정부청사를 비롯하여 철도청, 탄약관리청, 라디오 방송국 및 군수공장과 보급창고 등이 포함되었다.[52] 제3차 공격은 8월 29일 09:30분 제1파 공격을 시작한 이후 4시간 간격으로 제2, 3파 공격을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날 공격에는 제5공군 전폭기 및 한국공군 F-51D, 미 해군 함재기 등 총 1,403대가 동원되어 평양 소재 45개 군사표적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여 31개 표적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이날 평양 대폭격작전에서 한국공군에게 할당된 표적은 R-3지역(YD 387174)인 대동강 철교 서부의 평양 금속공장과 곡산공장지역이었다. 첫 번째 편대군은 F-51D 12대로 구성되었고 강호륜 소령이 편대군 지휘관이 되어 08:20분에 강릉기지를 이륙하여 09:15분 최종 진입지점인 평양 서쪽 4마일 지점의 대평(大平)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진입하자 평양시는 이미 폭격으로 화염이 하늘을 뒤 덮고 있었고 유엔공군의 200~300대 가량의 각종 전투기가 공산군의 대공포화를 뚫고 다양한 방향에서 공격을 가하고 있었다. 09:32분 표적 상공에 도착한 편대군은 폭탄과 로켓을 투하하고 공중대기지점인 송림 상공에서 집결하여 10:20분에 강릉기지로 무사히 귀환하였다. 2번째 편대군 F-51D 12대는 전봉희(田鳳熙) 소령 지휘로 12:25분 강릉기지를 이륙하여 1차 공격 경로를 따라 표적을 공격 한 후 14:15분에 강릉기지로 귀환하였고, 3번째 편대군 12대의 F-51D도 오춘목(吳春睦) 소령의 지휘 하에 15:55분 강릉을 이륙하여 1, 2차 공격과 동일한 경로를 통해 표적을 공격하고 17:55분에 귀환하였다.[53]

평양 대규모 폭격작전에 한국공군이 표적을 할당받고 유엔공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한 것은 1951년 10월 후방차단작전을 단독으로 수행한 이후 조종사의 전투기량이 신장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자 신장된 능력을 유엔공군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3) 근접항공지원작전(CAS, 공·지 합동작전)

1951년 10월 이후 후방보급로 차단작전을 펼치던 한국공군은 전술역량이 확대되자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육군과 합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는 전술항공통제반(Tactical Air Control Party) 운영요원과 모스키토 관찰요원(Mosquito-Observer; T-6 전술통제기에 탑승하여 지상정찰 임무수행)의 양성(선발 및 교육)문제로, 전술항공통제반 운영은 육군에 파견할 공군연락장교(Air Liaison Officer)와 전방항공통제관(Forward Air Controller), 그리고 육군 사단에 파견된 전방항공통제관의 근접지원요청을 취합하여 군단의 공·지 합동작전을 총괄하는 전방항공통제책임관(Forward Air Controller In Charge)의 선발과 교육에 주안을 두었다.

1951년 11월 18일 모스키토 관찰관으로 7명(중위 박성연, 신종철, 위상규, 소위 유병종, 김재승, 장동영, 고순상)이 선발되어 평택에 위치한 미 공군 제6147전술항공통제전대)로 파견되어 6개월 간 평균 30회의 T-6(Mosquito) 전술통제기 탑승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한 적진 정찰을 경험 한 뒤 복귀하였다. 또한 1952년 8월 8일 제10전투비행전대 소속 이강화(李康和) 소령을 미 제5공군사령부 합동작전본부(Joint Operation Center) 공지작전처에 파견하여 한국육군에 대한 지원 작전을 전담토록 했으며, 8월 9일에는 대위 옥만호, 손재권을 미 공군 제6147전술항공통제전대에 전술항공통제반 운영요원으로 파견하였다.[54]

1952년 10월 28일 육군 제1군단 관할 지역에 대한 공·지 합동작전을 시작한 제10전투비행전대는 제5사단에는 손재권 대위를, 제11사단에는 옥만호 대위를 파견하여 최초의 전술항공통제반을 개소하였다.



육군 제15사단(강원 고성)에 주둔한 공군의 전술통제반과 무선통신차량(출처 : 공군역사기록관리단)

10월 28일 첫 근접지원작전은 북한군이 집결한 벙커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09:10에 강릉기지를 이륙한 오춘목 소령이 지휘하는 F-51D 4기 편대는 고성 동남방 4km 지점의 전선지역으로 출격하여 폭탄과 로켓을 이용하여 벙커 1개소와 참호 1개소를 폭파하였다. 또한 11:45에는 김금성 대위가 4개 편대를 이끌고 고성 남방 3km 지점의 전선으로 출격하여 벙커 2개소를 폭파하였다. 10월 29일과 30일에도 각각 4기 1편대가 고성 남부 3~4km 지역으로 출격하여 29일에는 벙커 2개소와 전선지역 보급품 집적소를 파괴하였고, 30일에는 벙커와 병력집결지를 공격하였다.[55] 11월에는 17일 동안 육군 제5사단 지역인 고성 남부 전선에 총 116소티 출격하여 벙커, 병력집결지, 야포진지 등을 공격하였고 접전 중인 지상군 병력을 엄호하였다. 12월에는 동해안 고성과 간성(杆城) 인근의 사천리(泗川里), 내면리(內沔里), 유성리(柳 城里)지역에 대해 224소티를 실시하여 벙커와 건물, 야포진지, 탄약저장소 등을 파괴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4 절 분석 및 평가

1952년 한 해 동안의 공군작전은 정전협정을 조기에 타결하려는 유엔공군의 활동 증가와 이에 대한 공산공군의 대응활동으로 1951년 후반기 대비 다소 증가한 수준으로 작전기세는 둔화되지 않았다. 이 시기 유엔공군의 작전목표는 항공압박작전(Operation Pressure Pump)을 포함한 공세적 후방차단작전을 통해 북한과 중국을 위축시켜 유엔군 측의 협상제안을 공산군 측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핵심 표적에 대한 선제적이며 선택적 파괴 전략'이었고, 공산공군은 유엔공군의 공세적 파괴 전략으로부터 북한지역과 중국 동북 지방의 주요 표적을 지켜내기 위한 철저한 방어 전략이었다. 한편 미 제5공군의 작전통제 하에 있던 한국공군은 1951년 10월 11일부터 시작된 동해안 지역에 대한 후방차단작전을 지속 실시하는 가운데 승호리철교 차단('52년 1월), 송림제철소 폭격작전('51년 3월)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유엔공군의 일원으로 평양 대폭격 작전('51년 7월)에도 참가하였다. 또한 10월부터는 육군 제1군단을 지원하기 위한 공·지작전(근접항공지원)을 시작하여 신장된 전투능력을 과시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유엔 및 공산공군의 전력 증강

이 시기 공산공군은 전력증강에도 박차를 가하여 양적, 질적인 면에서 성장을 이루었는데, 소련은 참전부대 모두를 구형 MiG-15에서 MiG-15bis로 교체하였고 중국 공군도 1952년 5월부터 기종 전환 작업을 시작해 10월 중에 참전부대 거의 모든 전력을 MiG-15bis로 전환하였다. 북한 또한 10월부터 시작하여 이듬해인 1953년 3월까지 2개 전투비행사단을 MiG-15bis로 전환하였다. 1952년에 전쟁에 참가한 공산공군 부대는 소련공군의 제64전투비행군단 예하 5개 전투비행사단과

1개 야간전투비행연대, 중국공군의 8개 전투비행사단과 2개 폭격사단이었으며, 북한은 MiG-15를 보유한 제1전투비행사단 외에 제2전투비행사단(La-9 보유)과 제11혼성비행사단(IL-10, Yak-9, Po-2 보유), 폭격기 사단(Tu-2 보유)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유엔공군도 전력을 증강시켰는데 F-84E를 성능이 개선된 F-84G로 교체하는 작업을 9월중에 완료하여 3개 비행단이 F-84G를 보유하게 되었고, 8월에는 제4, 51전투요격비행단이 각각 예하 3개 대대에 인가된 F-86 전력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주간 폭격임무가 가능한 B-26을 5월에 총 187대를 보유하게 되었고 7월 이후 B-29도 월평균 105대 이상을 보유하게 되어 1952년 8월 이후에는 1951년 8월에 내려진 1일 12회 출격제한 지침을 50%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산공군의 전력증가가 실제 전투 성과로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먼저 소련의 경우 실전경험이 없고 기량이 미숙한 젊은 조종사들로의 충원으로 인해 전투성과가 저조한 가운데, 특히 1952년 전반기에는 많은 항공기 손실을 가져왔고 7월이 되어서는 조종사들이 전투임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52년도 춘계기간의 소련공군의 높은 손실은 급기야 모스크바로부터 제64전투비행군단으로 조사단이 파견되어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게 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러한 저조한 전투성과는 소련 조종사들의 기량미숙과 낮은 전투의지가 주된 요인이었지만, 부차적으로는 항공기의 성능은 제트전투기로 진화한 반면 이에 따르지 못한 조종사의 개인 전투 장구(조종복, 헬멧 등)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소련조종사들은 제트전투기의 고속기동에 적합한 감압복(G-suit)과 헬멧 대신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하던 프로펠러기용 가죽 재킷과 가죽 모자를 착용하여 고속기동에 따른 신체적 부하를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중국공군은 6·25전쟁을 통해 모든 중국공군 조종사들에게 실전을 경험하고 전투기량을 높인다는 계획 하에 제3, 4비행사단을 제외하고 제대별로 단기간 동안만 전투에 참여하게 하여 실전적 전술완성도가 떨어졌다. 북한 또한 조종사들의 자신감 결여와 F-86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 성과는 미비하였으며 1952년 후반기 들어서면서는 저속 해군함재기인 F4U요격 작전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으나 이마저 성과는 미미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유엔 및 공산공군의 작전

이 시기의 유엔공군이 '선제적이고 선택적인 핵심시설 타격'이라는 작전 개념 속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작전을 구사한 반면 이에 대응한 공산공군은 철저한 방어 작전 개념 하에 활동하였고 이로 인해 양측의 작전형태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공산연합공군의 주축인 소련공군은 확전을 우려한 소련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미그회랑지역과 청천강 이북 지역으로 활동구역을 철저히 제한하며 소극적 방어 전략을 고수하였고 이로 인해 방공제공임무에 모든 전력을 할당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중국공군지휘부는 단순한 방어제공임무는 물론 활동 제한선을 평양 이남까지 확장하여, 지상군을 지원하고 김포, 수원 등지의 유엔공군 전방 비행장을 공격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려 했으나 미국의 중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에 대한 우려와 중국공군의 전력이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소련 지도부와 저우언라이, 펑더화이와 같은 중국 전쟁지도부의 만류로 시행되지 못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소련에 비해 열세한 항공력을 가진 북한공군은 공산연합공군 작전에서 제한적이고도 보조적인 역할 수행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유엔공군은 이 시기에 이전과는 다르게 매우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을 펼쳤다. 먼저 1951년 5월부터 약 10개월간 실시된 철도, 교량, 도로 등 거의 모든 수송망(輸送網)을 망라하여 시행된 후방차단작전인 스트랭글작전(Strangle)의 비판적 성과를 받아들여 수송망 차단은 주요 4개 철도선으로 국한하여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는 새츄레이트 작전(Operation Saturate)으로 1952년 3월부터 전환하였고 나머지 전폭기 전력은 이전에 공격을 제한하거나 소극적으로 취급해왔던 핵심 산업시설, 군사지휘시설, 병력집결지 및 군 양성기관(학교), 공장지대, 광산, 항만 등 전쟁 잠재력 파괴를 위한 국가기간산업시설 공격 전력으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유엔공군은 항공압박작전(Operation Pressure Pump)의 일환으로 1952년 6월에는 이전에 공격을 금지해왔던 수풍, 장진, 부전, 허천 수력발전소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가해졌고, 또한 7월과 8월에는 본격적인 항공압박작전 시행으로 평양에 대한 대 공습작전을 감행하였다. 이후에도 유엔공군은 평양과 수력발전소에 대해 수차례 추가적인 공격과 더불어 북한지역의 주요 산업시설이 집중된 아오지, 신의주, 해주, 함흥 등 주요 도시에 대해 대규모 폭격을 감행하였다. 또한 이 시기 유엔공군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공격적인 요격작전을 구사하였는데 단둥, 다둥고우 등 압록강 이북 중국 제1선 비행장을 직접 겨냥하여 압록강 상공에서 체공하다 이들 기지에서 이·착륙하는 MiG-15에 대한 기습적인 요격을 수행하여 많은 손실을 입혔다. 이로 인해 공산공군은 이들 비행장에서의 이·착륙 엄호를 위해 제2제대를 편성하고 이들 비행장 주변의 대공포 배치를 증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3. 항공압박작전의 성과와 영향

1952년 6월 극동공군사령부는 스트랭글작전과 새츄레이트 작전을 통해 10개월간 지속된 북한지역 철도에 대한 공격이 당초 극동공군이 목표한 공산군 병참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차단과 파괴를 이루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지역의 '가치 높은 표공산군의 선택적 파괴'를 통해 '공중압박'을 가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6월 23~24, 25~26일 4일 동안 제5공군, 극동공군 폭격사령부, 극동해군의 전폭기들이 북한의 수풍(水豊), 장진(長津), 부전(赴戰), 허천(虛川) 수력발전시설에 대해 대규모 공격을 가해 북한지역의 90% 이상, 만주지역 잠재 발전능력의 23% 이상이 파괴되었고 4개 수력발전소의 15개 발전설비 중 13개를 사용불능상태에 빠트렸다. 이로 인해 북한은 약 2주 이상 완전한 전력마비 상태에 빠졌고 중국의 뤼순(旅順), 다롄(大連), 훈춘(琿春), 안산(鞍山)에 있는 51개 주요공장 중 30개 공장이 중앙정부에 할당한 연간 책임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했다. 또한 7월 11일과 항공압박작전(Operation Pressure Pump)의 일환으로 극동공군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폭기와 해군 함재기 1,254대가 3차례에 걸쳐 출격하여 평양에 대한 공습을 실시하여, 평양지역 30개 표적에 대해 공습을 가했다. 이날 공격으로 북한 인민무력부를 비롯한 3개 표적이 완전 파괴되었고 대부분의 표적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저우언라이가 소련을 방문하고 있는 기간인 8월 29일에도 평양폭격을 실시되었는데, 제5공군과 극동해군 함재기(216소티) 총 1403대가 동원되어 3차례(09:30, 13:30, 17:30)로 나누어 공격을 가해 북한의 철도국, 군수국, 평양방송국 등 31개의 표적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이에 대해 북한은 7월 13일 평양 라디오 방송을 통해 "유엔군의 잔인한 공습으로 1,500동의 건물이 파괴되고 7,000여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비난하였고 국제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았다. 특히 영국 노동당은 3차 세계대전을 유발할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이라는 비난과 함께 처칠 수상이 한국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자문을 요청받지 못한데 대해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고 미국 의회는 이러한 중요한 표적이 이전에 공격되지 않았는가에 대해 국방성과 극동사령부에 공식 질의하고 의회차원이 조사를 시행하였다.

유엔공군의 항공압박작전은 중국과 북한 지도부에게 강력한 딜레마로 작용했다. 북한전역이 유엔공군과 해군의 항공력에 의해 초토화되자 북한 지도부는 중·소 양국이 북한에 대한 원조를 증가해주기를 원했고 소련과 중국공군에게는 소극적 방어에서 탈피하여 공격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해 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김일성의 요청은 확전방지와 조기 정전 타결이라는 속내를 가진 중국과 소련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요구였다. 1952년 중반에 이미 중국 지도부는 경제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고, 6·25전쟁에 참전은 지속하되 전쟁을 확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지지하지 않았다. 스탈린 또한 확전을 염려하여 중국공군이 38도선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 경고했고 이에 따라 중국공군은 계속 방공임무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2년 후반기에도 지속된 극동공군의 항공압박작전이 북한 산업시설에 대해 대규모 폭격으로 이어지자, 북한 지도부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졌다. 1953년 초 김일성은 총참모장 남일(南日)을 안둥으로 보내 중국이 서울에 대해 폭격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은 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록강 이북의 비행장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과 중국공군이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이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마오쩌둥이 예상한 것처럼 유엔공군의 항공압박작전은 중국과 북한을 좋지 않은 정치·군사적 관계로 빠트렸다. 그러나 이러한 공세적이고도 대규모로 실시된 유엔공군의 압박 작전이 정전회담의 조속한 타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수력발전소 공격 직후 나온 영국 노동당의 비난과 미국 의회차원의 조사로 인해 작전의 정치적 효능이 감소되었고, 이를 통해 유엔군이 제한전(制限戰)을 계속 수행할 의도임을 공산 측에 간접적으로 전달하게 됨으로써 중국과 북한 지도부에게 실질적인 위협과 압박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상전선의 교착으로 인해 공군 후방차단작전의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지상전선에서의 압박이 병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집필 : 이근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註)

1) 이와 관련하여 노금석 상위는 1952년 10월 안산으로 연대 전체가 이동전개한 후 옌지(延吉) 비행장으로 MiG-15를 몰고 이동하여 창설되는 제3비행사단에게 비행기를 인계 한 후 철도로 궁주링(公主岭)으로 이동하여 MiG-15bis를 인수받아 안산으로 귀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No Kum-Sok & J. Roger Osterholm, 『A MiG-15 to Freedom』,(North Carolina : McFarland & Company Inc., 1996), p.133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련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3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162, 164, 194, 260쪽

3) No Kum-Sok & J. Roger Osterholm,『A MiG-15 to Freedom』(North Carolina : McFarland & Company Inc., 1996), p.131

4) ibid., pp.131~132

5) 국사편찬위원회,『6·25전쟁, 문서와 자료, 1950년~53년』(과천 : 국사편찬위원회, 2006), 444쪽

6) Xiaoming Zhang,『Red Wings over The Yalu』(Texas : Texas A&M University, 2002), p.134

7) ibid., 140

8)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79쪽

9) Xiaoming Zhang, opcit., p.134

10)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89~414쪽

11) 위의 책, 392쪽

12) 위의 책, 407쪽.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군 측 자료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1952년 1월부터 8월까지 적 활동 중 공대공 전투에 의한 손실은 총 37대《미공군역사연구소(AFHRA) 홈페이지 6·25전쟁 통계자료(http://www. afhra. af. mil/ shared/ media/document/AFD-090611-098.pdf)》로 당시 활동하던 소련공군 제190비행사단, 중국공군, 북한공군의 격추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는 상당히 과장된 것이다.

13) 위의 책, 431쪽

14) 이 비행장은 중국 펑청(鳳城)시 서북방 약 16km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련 문헌에는 다푸또는 다바오(大堡) 비행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15) 위의 책, 388쪽

16) Headquarter US Air Force, “Summary of The Situation in Korea 4 August 1952”, RG341 Record of The Headquarter US Air Force, 국립중앙도서관

17)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60쪽

18) 위의 책, 443쪽

19) Xiaoming Zhang, opcit., p.137

20) ibid., p.137

21)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45쪽

22) 위의 책, 434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3) 위의 책, 442~448쪽

24) 미 공군의 기록은 1952년 동안에 공중전을 통해 손실된 유엔군 측 항공기는 총 60대이며 공산측 손실은 MiG-15 376대를 포함해 총 383대이다.《미공군역사연구소(AFHRA) 홈페이지 6·25전쟁 통계자료(http://www. afhra. af. mil/ shared/media/document/ AFD-090611-098.pdf)》

25) 이날 공산공군 유엔공군과의 3차례 공중전을 통해 총 MiG-15 13대가 격추되고 1대가 파손되었고 유엔공군은 F-86 2대가 손실을 입었다.(Headquarter US Air Force, "Summary of The Situation in Korea 14 December 1951", RG341 Record of The Headquarter US Air Force, 국립중앙도서관

26) Xiaoming Zhang, opcit., p.176

2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중국군의 한국 전쟁사』3(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234쪽

28) Xiaoming Zhang, opcit., p.169

2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중국군의 한국 전쟁사』3(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396쪽

30) 위의 책, 237쪽

31) Xiaoming Zhang, op.cit., p.185

3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중국군의 한국 전쟁사』3,(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237쪽

33) Xiaoming Zhang, op.cit., p.168

34) Robert F. Futrell,『The United State Air Force in Korea1950-1953』, (Washington D.C. : Office of Air Force History United State Air Force, 1983), p.487

35) Xiaoming Zhang, op.cit., p.187

36) ibid., p.188

37) 여기에 인용된 유엔공군 비행관련 통계자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미공군역사연구소(AFHRA) 홈페이지 6·25전쟁 통계자료(http://www.afhra.af.mil/shared/media/document/AFD-090611-098.pdf)를 인용한 것이며 다른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주(註)로 처리하였음.

38) 미공군역사연구소(AFHRA) 홈페이지 6·25전쟁 통계자료(http://www.afhra.af.mil/shared/media/document/AFD-090611-098.pdf)

39) 미공군역사연구소(AFHRA) 홈페이지 6·25전쟁 통계자료(http://www.afhra.af.mil/shared/media/document/AFD-090611-098.pdf) 여기에 기록된 적기 손실은 유엔공군 조종사의 주장에 기초한 것이며 완전파괴(destroyed)된 것만 인용하였고 손상(damaged) 된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40) 미공군역사연구소(AFHRA) 홈페이지 6·25전쟁 통계자료(http://www.afhra.af.mil/shared/media/document/AFD-090611-098.pdf)

41) Robert F. Futrell,『The United State Air Force in Korea1950-1953』(Washington D.C. : Office of Air Force History United State Air Force, 1983), p.452

42) ibid., p.488

43) ibid., p.517

44) 공군본부,『공군사 1집 ; 공군창군과 6·25전쟁』(공군본부, 2011), 405쪽

45) 공군본부, 『항공전사 - 한국전쟁-』(공군본부, 1989), 232쪽

46) 공군본부, 앞의 책, 378쪽

47) 위의 책 298쪽에서 발췌

48) 위의 책, 309쪽

49) 위의 책, 336쪽

50) 공군본부, 『6·25 전쟁 증언록』(공군본부, 2002), 828쪽

51) 공군본부, 『공군사 1집; 공군창군과 6·25전쟁』, 307쪽

52) 위의 책, 321쪽

53) 평양 대폭격작전에 참가한 한국공군 조종사는 총 15명으로, 소령 강호륜, 전봉희, 오춘목, 주영복, 대위 장성태, 박완규, 중위 백정현, 배상호, 이호영, 임상섭, 임순혁, 소위 임종두, 이창실, 송재봉, 현창건 이고, 미 공군 제6146부대 소속 미 공군 조종사 3명이 편대원으로 참가하였다.

54) 위의 책, 330쪽

5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8권』(국방부, 1975), 727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9 장 총 평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절	전쟁지도
제 2 절	작전 및 전술
제 3 절	휴전회담
제 4 절	결 론

제 1 절 전쟁지도

1. 공산군의 전쟁지도

중공군과 북한군은 전선이 교착된 상황과 임시군사분계선 설정기간을 이용하여 군사력을 나날이 증강시키고 있었다. 공산군의 병력 규모는 회담이 개시된 이래 10개월 동안에 거의 두 배로 증강되었으며, 이는 적이 회담기간을 이용하여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휴전회담 기간 중 김일성, 마오쩌둥(毛澤東), 스탈린(I. V. Stalin)의 전쟁목표는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는 휴전'이었고 전략목표는 휴전회담에 유리한 여건 조성과 휴전회담을 이용한 군사력우위의 확보였다. 이 기간 동안 공산군의 전쟁지도부는 이에 중점을 두고 전쟁지도를 실시하였다. 공산군의 전쟁지도 체계는 소련의 스탈린이 전쟁의 주요사안에 대해 직접 관여하였고, 중국의 마오쩌둥이 스탈린의 자문 및 지도를 받아가며 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방식이었다. 이들 전쟁지도부의 전략지침을 받아 조·중 연합사령부가 한반도에서의 작전전반을 통제하며 지도하고 있었다.

이 시기 공산군은 병력뿐만 아니라 화력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특히 공산군의 포병화력이 크게 증가하였고, 포병전술도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었으며, 전차 및 자주포로 장비한 중공군 2개 기갑사단과 인민군 1개 기갑사단 및 2개 기계화사단을 전선에 배치할 정도로 전력을 증강시켰으며, 공군력도 유사한 변화가 진행되어 소련공군은 2~3개 비행사단, 중국공군은 5~6개의 비행사단, 북한은 3개 비행사단을 상시 운용하였다.

이외에 공산군은 군수문제도 크게 개선시키고 있었다. 공산군의 군수상황은 그동안의 유엔 해·공군의 타격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이 한국전선에 투입된 이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어느 때보다 더 양호해지고 있었다. 공산군에 충당되고 있는 모든 보급품은 소련·중공·동독·몽고·헝가리 등 공산위성국가로부터 지원되고 있었다. 그 결과 적이 주요 지상 작전을 전개할 경우 5일~10일 동안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정도의 보급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1952년 전반기까지 전력을 증강하고 전투진지 보강을 완료한 공산군은 후반기가 되자 적극적인 군사작전에 돌입하였다.

2. 유엔군의 전쟁지도

1952년에 유엔군이 추구한 전쟁목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명예로운 휴전의 실현이었으며, 현실적인 당면 목표는 한국에서의 적대행위를 종식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군은 먼저 휴전협정으로 적대행위를 종결하되 38도선 남쪽에서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수립하며, 그 후 한국에서 외국군을 단계별로 철수시키되 북한의 새로운 침략을 저지하거나 격퇴할 수 있도록 한국군을 증강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그와 같은 유엔군의 전쟁목표에 따라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은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침략자에 대한 징벌을 계속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휴전회담에서의 논의는 한국내의 군사문제로 엄격히 제한하였으며 정치적·영토적 문제를 제외시킨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유엔군은 이러한 휴전정책이 담고 있는 원칙과 조건에 따라 공산군 측과 휴전회담을 추진하였다.

리지웨이의 후임으로 유엔군사령관에 임명된 클라크(Mark W. Clark) 대장 역시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에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적 압력뿐이라는 전략 하에 지상에서의 작전은 정찰전이나 탐색전 그리고 적의 침투 저지 정도로 제한하고 상대적으로 아군의 피해가 적게 발생하는 공중공격을 대대적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감행하도록 강조하였다.

이에 유엔군은 동년 6월 23일부터 수풍댐과 발전소 및 평양근교의 군사목표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고, 그것은 군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즉 공산군이 휴전회담을 지연시키거나 폐기할 경우 중국본토에 대한 폭격도 불사하겠다는 경고였다.

클라크 장군은 공산군을 격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적이 그들의 진지에서 나와 공격을 감행할 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는 적이 공격하기를 기다릴 것을 강조하였고 아군이 선제로 공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전선을 변경시킬 정도의 대규모 작전은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은 미국의 정치·군사지도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이리하여 그 이후의 전쟁기간 동안에도 유엔군사령부는 지상 작전을 계속 제한하게 되었다.

한편 유엔군은 포로교환문제로 인한 교착상태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휴전회담은 아무런 진전 없이 설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클라크 장군은 공산군이 포로 숫자 문제를 끌어들였다고 지적하고 유엔군 대표단이 송환포로와 한국에서 석방할 포로의 숫자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공산군은 모든 포로의 전면교환을 지속적으로 교환함으로써 휴전회담에서의 양측의 대립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었으며 휴회도 전과 같이 서로의 제안과 양해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휴회를 선언하고 퇴장해 버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 기간 휴전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게 되자 유엔군은 국군의 전력을 대폭 증강시켰다. 유엔군이 구상하고 있던 국군증강안의 목표는 훈련된 인력·지휘력·장비가 갖추어지는 대로 곧 전 전선을 국군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두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유엔군은 10개 사단 규모의 국군을 유지하는 기존의 정책을 변경하여 20개 사단으로 증편하려는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한·미 양 정부는 국군 육군의 병력수준을 25만 명에서 46만 3,000명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사단을 증편하기 시작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한국정부의 전시조치

한국정부는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을 정점으로 부통령 김성수(金性洙), 국방부 장관 이기붕(李起鵬), 육군총참모장 이종찬 소장, 해군총참모장 손원일 소장, 공군총참모장 김정렬 소장 등을 중심으로 전쟁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한국정부의 전쟁목표는 북진통일에 의한 통일한국의 실현이었고, 이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북진에 의한 통일을 강력히 주장하며 휴전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아울러 정부는 국군 증강 안에 관해 미국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였다. 한국군 20개 사단 증강 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은 미 대통령 선거에서 아이젠하워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희망이 보이고 있었다. 육군본부는 국군의 증강 안에 따라 먼저 1952년 10월말에 제12, 제15사단과 6개 독립연대의 창설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12사단과 3개 독립연대(제53·제55·제56연대)는 곧바로 작전에 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15사단과 나머지 3개 연대(제57·제58·제59연대)는 이듬해 1월말까지 전선투입의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정부는 전선 국면의 타결과 전쟁재해복구 및 구호를 위한 전시조치 마련에 전력하였다. 먼저 정부는 전시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한·미 경제회담을 개최하여 1952년 4월 24일 한·미 협정을 조인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제에 수반되는 지방선거에 전력을 기울여 자유스런 분위기의 보장과 선거감시 문제 등을 위해 같은 해 4월 25일에 31개 군에 대한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장면 총리는 시정방침의 제2단계로 공직 질서를 유지하는데 전력하였고, 특히 세무 관리의 폐해를 일소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

재무부에서는 각도에 감독반을 파견하여 지방재정을 감독하는데 착수하였고 상공부에서는 지하자원 개발을 목표로 탄광장려금 제도를 계획하고 발전시설을 복구하였으며, 사회부에서는 민간억류자의 석방과 함께 이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열어주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농림부에서는 이앙기를 앞두고 영농자금을 현찰로 농촌에 방출하는 조치를 발표하였고, 문교부에서는 전시학생증을 교부하여 병역 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피자를 방지하는 동시에 학도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하고 미군이 사용 중인 교사를 환수 조치하였다. 보건부에서는 위생검찰을 철저히 시행하였으며 식량부족 문제를 타개하고자 중석판매 대금을 이용하여 외국의 미곡을 구매하였다.

한편 정부는 유엔의 원조를 획득하기 위한 외교활동에도 주력하였다. 그 결과 미국 등 유엔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원조와 지원이 확대되었다. 이때 미국과 유엔을 통한 모든 구호와 재건 지원은 모두 유엔군의 이름으로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은 미국의 경제협조처뿐만 아니라 유엔 계통의 한국민간구제단,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 유엔한국재건단 등의 기구를 통해 유엔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과 민간 기구들에까지 지원을 호소하였고, 많은 국가들이 한국정부를 지원하는데 동참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2 절 작전 및 전술

1. 공산군의 작전지도

공산군의 작전기도는 휴전회담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 유엔군의 군사작전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공산군은 1952년 초 교착된 전선에서의 직접적인 군사작전보다는 진지강화와 부대정비에 진력하고 있었으며, 공산군과 유엔군 전초 엄호부대 사이의 빈번한 탐색전과 소규모 전초진지 전투를 통하여 상호 접촉을 유지하였다. 이로 인해 지상에서의 군사적 대치상황은 유엔군이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가운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양측이 진지를 강화하고 전초진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공세방어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산군은 1952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유엔군의 공중공격에 대하여 지상부대로 보복을 가하고자 하였다. 이때 적의 공격방향은 전선이 주로 북으로 돌출된 중부전선 상 수도고지 및 지형능선·백마고지·저격능선 등에 집중되고 있었다. 이 공세에서 공산군은 먼저 수도고지를 목표로 작전을 개시하였으나, 막대한 희생과 손실만 입은 채 기도가 좌절되었다. 그리고 10월에 들어가서는 다시 중부전선의 백마·삼각·저격능선으로 공격목표를 변경하여 공격하였으며, 철의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전투는 그동안 진행된 고지쟁탈전 중에서 가장 많은 병력이 투입된 대규모의 작전이었다.

특히 공산군은 중부전선의 주요 전략요충을 점령하여 아군의 주저항선을 제압함과 동시에 차기 대공세를 위하여 유리한 신진지를 구축하려고 기도하였다. 적은 이러한 작전목표를 달성하고자 국군 제2군단 및 미 제9군단 정면에 잘 훈련된 사기왕성한 정예부대를 투입하였으며 특히 저격능선에는 4개 사단 병력을 배치하여 철의 삼각지대상의 아군 주저항선에 대한 돌파를 준비하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아울러 공산군은 주요 전략목표에 대한 유엔군의 공중공격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평양근교와 압록강주변에 유엔군 포로수용소를 배치해 놓고 있었다. 또한 공산군은 포로수용소에서의 충돌사건을 유엔군이 야기한 사건이라 비난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2. 유엔군의 작전지도

유엔군은 지상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한다는 작전지도 방침을 정하고 공산군과의 협상에 의한 휴전회담의 조기타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무익한 병력손실을 줄인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한국군의 증강을 도모하여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대장은 1952년 4월 하순에 일괄타결안이 제시된 뒤로도 공산측이 이를 수락하지 않음으로써 회담이 공전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전선 역시 피아 가벼운 탐색전으로 일관되자, 이 기간을 이용하여 전선의 방어진지 개선에 주력하여 현재 진지의 결함을 다각도로 보완한 다음 제한적인 공격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공격작전의 일환으로 유엔군은 아군의 진지를 강화한 상태에서 적의 전초진지를 확보하기 위한 소규모 제한공세인 이른바 카운터(Counter) 작전을 개시하기 시작하였다. 그 작전의 결과 국군과 유엔군은 역곡천 북안의 백마(White Horse)고지(395), 화살머리(Arrowhead)고지(281), 티본(T-Bone)고지(290)와 역곡천 남안쪽 포크찹(Porkchop) 고지(255), 불모(Old Baldy)고지(266) 등 11개 목표를 장악하여 전초진지를 강화하였으며, 이로써 차후 보다 유리한 지형에서 적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동년 9월부터 전황은 다시 급격히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의 작전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전 전선에 걸쳐 진행된 소규모 전초진지전이나 수색정찰전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때부터 공산군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여 주요고지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당시 공산군의 작전기도는 대규모 공세를 통해 유리한 전초진지의 확보와 아울러 휴전회담에서 유엔군으로 하여금 공산군측의 제안에 승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공산군의 대규모 공세에 대응하여 유엔군은 서부전선에서는 방어를, 중동부전선에서는 공격으로 전환해 김화 북방의 적 전초진지를 점령함으로써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유엔공군은 1952년 봄부터 제공권에 정면 도발을 받지 않은 채 적 보급소에 대한 공격과 철도 차단작전을 계속하는 한편, 전선지역의 적 보급품과 병력 집결시설을 타격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 해 5월에 클라크 대장이 유엔군사령관으로 부임함에 따라 공중작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었다. 그는 부임 즉시 공산군 전력의 공급원이 되는 산업시설을 폭격하여 발원지를 봉쇄한다는데 인식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선정된 제1의 목표가 수풍화력발전소를 위시한 압록강의 전력시설이었다. 수풍발전소에 대한 폭격은 1951년 8월에 휴전회담이 결렬되어 그에 대한 대응수단의 일환으로 단행된 나진폭격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그동안의 금기를 깨는 획기적인 조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전선지역의 고지쟁탈전

1952년 후반기에도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전 전선에 걸쳐 첨예하게 대치하였으나 대규모의 전면공세를 실시할 태세를 취하지는 않았다. 휴전 회담장에서는 서로 유리한 휴전조건을 쟁취하려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쌍방은 그 결과를 주시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동년 6월 초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지역에서 소규모 제한공격인 소위 '카운터작전(Operation Counter)'을 실시하여 역곡천 북안의 백마고지, 화살머리고지, 티본고지와 역곡천 남안구릉의 포크찹고지, 불모고지 등 11개 목표를 장악하여 전초진지를 강화하였다. 이후 적의 역습이 시작됨에 따라 이들 중 중요 전초진지에서의 쟁탈전은 계속되었고 이어 전 전선에 걸친 전초진지 쟁탈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특히 9월에 접어들어 적은 수색활동을 강화하면서 전 전선에 걸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서부전선에서는 미 제1해병사단이 벙커고지에서, 미 제2사단이 불모고지에서, 국군 제1해병연대가 사천강 일대의 전초진지에서, 국군 제1사단이 테시와 닉키고지의 쟁탈전에 이어 베티와 노리고지에서 각각 쟁탈전을 수행하였다.

미 제1해병사단은 동년 8월 9일부터 16일까지 벙커고지에 가해진 적의 7차에 걸친 공격을 혈전 끝에 격퇴하여 전초진지를 지키고 주진지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으며, 사천강 일대의 국군 제1해병연대는 4차에 걸친 중공군의 공격을 과감한 역습으로 격퇴하고 진지를 고수하였다. 이 지역은 휴전 시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한다는 휴전회담의 방침에 따라 아군으로서는 수도권의 방어에 전초가 되는 지역이었으며, 적으로서는 최소한 임진강까지의 진출에 발판이 되는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이곳의 전초진지를 놓고 피·아는 격렬한 쟁탈전을 되풀이 하게 되었다.

불모고지 전투는 연천 북방의 천덕산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미 제2사단이 7~10월 중공군의 역습을 받았을 때, 사단의 11개 전초진지 중 하나인 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모고지에서 적의 역습을 저지해낸 방어 전투였다. 고양대·임진강 전투는 가을과 겨울, 연천 북방의 임진강 북안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국군 제1사단이 고양대와 임진강 일대의 전초진지에서 중공군과 접전한 방어 전투였다. 특히 노리고지전투에서 국군 제1사단 제11연대의 투혼은 당시 공격상황을 지켜보던 미 제1군단장이 감탄사를 연발할 정도로 빛을 발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북한군과 중공군이 아군 전초진지에 대하여 대대적인 선제공격을 전개하였으며, 국군과 유엔군 측에서도 이에 맞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적극 공세를 취함으로써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전개되었고 이러한 양상은 10월에 접어들어 절정에 달하였다. 기간 중 미 제9군단의 좌익인 제9사단이 동년 10월 6일부터 백마고지에서 혈전을 벌이었고 군단의 우익에서는 백마고지에 대한 적의 공세에 대응하여 국군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이 10월 14일 김화 북쪽의 저격능선과 삼각고지를 선제공격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백마고지전투는 국군 제9사단과 중공군 3개 사단이 표고 395m에 불과한 고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월 6일 밤부터 15일까지 고지를 빼앗기고 되찾기를 25번이나 반복한 격전 중의 격전이었다. 백마고지의 승리는 전략적 요충지인 철원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사단장의 적시적절한 예비대 운용과 장병들의 불타는 적개심이 제9사단으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한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제9군단의 쇼다운 계획에 따라 전개된 저격능선과 삼각고지 전투는 미 제8군이 1952년에 마지막으로 시도한 공격작전이었다. 국군 제2, 미 제7사단이 거의 전 부대를 투입하고도 42일 간이나 작전을 지속한 6·25전쟁 기간 중 최대 규모의 혈전 중의 하나였다. 쇼다운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종결되지 못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이 달성한 저격능선 전투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유리한 전초진지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산군의 기세를 꺾음으로써 전 전선에 걸쳐 작전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휴전회담을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중동부전선에서는 휴전회담이 개막된 지 1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적이 아군정면에 강력한 국지공격을 감행, 회담을 유리한 방향으로 타개하고자 하였다. 금성천 부근의 국군 제2군단은 제6·수도·제3사단이 중공군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으며, 주전장은 제3사단의 독수리고지와 피의고지, 수도사단의 수도고지와 지형능선 그리고 제6사단의 A·B고지 등이었다. 특히 금성돌출부에 배치된 수도사단은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을 놓고 1952년 7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군단작전 중 가장 치열한 전초진지 쟁탈전을 수행하였다.

이 무렵 국군 제2군단의 우익인 미 제10군단 지역에서도 크리스마스고지 전투와 854·812고지 전투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미 제10군단은 여름에 이르기까지 계속 국군 제7사단을 좌익으로 미 제25사단을 중앙으로, 그리고 국군 제8사단을 우익으로 삼아 예비대 없이 1090고지-단장의 능선-812고지-854고지에 이르는 전선을 확보하던 중 7월 18일 미 제1군단으로부터 미 제45사단을 배속받아 우익인 제8사단과 교대시켰다.

전선 최동단 방어를 맡은 국군 제1군단은 제11, 제5 양개 사단으로서 계속 남강남안의 주진지를 확보하여 북한군 제1군단 예하 제47, 제9사단과 대치하였으나 대체로 소강상태를 유지하였다. 국군 제5사단이 고성 남쪽의 351고지 부근에서 7월부터 11월 사이에 북한군과 일진일퇴의 쟁탈전을 반복하였을 뿐, 대체로 남강을 사이에 두고 강을 넘나드는 수색전 정도만을 수행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렇듯 1952년 9월~11월의 치열한 격전은 겨울이 몰고 온 한파와 함께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후 전투양상은 전초진지 쟁탈전이 사라지고 유엔공군의 항공 폭격과 지상군의 수색정찰 및 제한된 소부대 전투로 환원되었다.

4. 후방지역 공비토벌작전

후방지역의 공비들은 1952년 3월 25일 백야전사령부의 공비토벌작전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자, 도처에 분산 은거 중이던 병력을 재편성함으로써 전력

확보에 주력하였다. 특히 그들은 지방의원 선거와 메이데이를 전후하여 선거방해와 민심교란을 위한 신경전을 전개하였다. 공비들은 백야사의 토벌작전으로 남부군의 주력이 붕괴되자 남부군 직속의 핵심부대인 제81사단을 김지회 부대로, 제92사단을 박종하 부대로 개편하고 전북도당의 제45사단을 항미연대로, 제46사단을 복수연대로 개편하는 등 재기를 모색하였다.

북한은 1952년 5월 중앙당 결정 제94호 "미 해방지구에 있어서의 당의 사업과 조직에 대하여"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그 내용은 군사작전을 위주로 하는 지대를 해체하고 남한지역을 5개 지구당으로 개편하여 당의 사업에 주력하면서 중대 단위의 소부대로 분산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지구당은 서울, 경기도 지역을 제1지구로, 울진을 제외한 남부 강원도 전 지역을 제2지구로, 논산을 제외한 충청남도 전 지역을 제3지구로, 경상북도와 울진군 및 낙동강 이동지역을 제4지구로, 전남북 전 지역과 경남의 낙동강 이서지역 및 논산군과 제주도지역을 제5지구로 각각 지정했다.

북한의 이와 같은 지시는 휴전회담이 시작된 정세변화를 감안해 유격활동을 당 사업의 보조수단으로 되돌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백야사의 토벌작전으로 남한 공비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호남·지리산 지구의 공비들이 재기 불능의 타격을 받았고, 각 도당의 고위간부들이 전멸하다시피 한 후였기 때문에 당 조직을 관할하고 당 사업을 지도할 능력이 부족했다. 또한 오랫동안 반복된 보급투쟁으로 산악지대 주민들의 반감을 샀고 많은 주민들이 마을을 떠났기 때문에 조직을 마을에 심고 파고들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공비들은 산속에 거점을 잡고 보급투쟁에 급급했으며, 이제 20~30명 단위로 유격전이라기보다는 약탈전이라고 해야 할 무장투쟁을 하면서 치안을 혼란시켰다.

당시 전방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육군본부는 1952년 7월 10일 국군 제1사단을 전북 남원으로 이동시켜 남부지구경비사령부에 배속하였다. 사단은 7월 13일을 기하여 지리산, 회문산, 장안산, 덕유산 등에 대한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육군본부가 파악한 남한지역내의 공비는 1,800여 명이었으며, 이 중 약 1,500명이 호남·지리산 지구에 몰려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소부대 단위로 분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비토벌부대는 대규모 작전보다는 소규모 매복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소규모 매복 작전은 공비와의 지루한 싸움이었으며,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이듬해까지도 지속되었다.

5. 해군 작전

휴전회담 기간 중 유엔해군이 설정한 작전목표는 함재기를 이용하여 북한군의 주요군사 및 산업시설을 무력화시켜 공산군의 전투수행능력을 상실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유엔해군은 수풍댐 폭파작전, 평양 공습작전, 신덕광산과 길주에 대한 공습작전, 아오지 정유공장 폭파작전, 고원 공습작전, 고저 상륙양동작전 및 소해작전을 실시하였다. 이때 한국해군은 동·서·남해안 경비작전, PT편대 기습작전, JMS-301의 덕동 및 해주만전투, PC-702함의 창린도 탈환작전 그리고 황토도, 양도, 호도 전투 등을 단독으로 수행하였다.

먼저 유엔해군은 주요 산업시설 무력화 작전의 일환으로 수풍댐 폭파작전을 실시하였다. 수풍댐 폭파작전의 목적은 발전시설을 파괴하여 북한지역에 있는 산업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이 공습작전의 성공으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평양에 위치한 모든 산업시설의 생산능력이 상실되었으며, 압록강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지하공장과 만주지역의 시설까지도 영향을 받았다.

둘째, 평양 공습작전을 실시하였다. 평양에 대한 공습은 북한의 심장부인 수도를 공격하여 북한군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주어서 전투의지를 약화시키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유엔함재기들은 성공적인 작전으로 평양 주변의 기관차고 및 철도공장의 60% 이상을 파괴하였다.

셋째, 신덕 및 길주광산에 대한 공습과 아오지 정유공장 폭파작전을 실시하였다. 이 작전도 전술한 작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주요 군수시설을 파괴하여 북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의 군수보급체계를 와해시키겠다는 목표로 수행된 작전이었다.

넷째, 유엔해군은 고저에 대한 상륙양동작전을 실시하여 공산군의 증원을 유도함으로써 북한군과 중공군을 분리시켜 각개 격파하려 했으나, 공산군이 지상군 병력의 이동없이 고저 인근의 해안포대만으로 유엔군의 상륙작전에 대응함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다섯째, 북한해군의 기뢰전에 대응하여 유엔해군은 기뢰대항전을 실시하였다. 유엔해군은 북한의 기뢰전에 대응하기 위한 소해작전을 실시하였다. 유엔해군은 소해작전을 실시하면서 기뢰에 충돌하여 피해를 입기도 하였으며, 특히 연안에 근접하여 소해임무를 수행하던 소해함정들은 북한 해안포에 의한 피해가 더 많았다.

한국해군은 유엔해군의 통제하에 작전을 실시하였지만, 미국에서 구입한 중·소형함정을 이용하여 단독작전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먼저 한국해군은 유엔군의 작전승리 및 휴전회담에서의 유리한 여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적인 경비작전을 실시하여 동해안에서는 '42작전', 서해안에서는 '충무작전'. 남해에서는 '한산작전'을 각각 수행하였다.

둘째, 1952년 1월에 인수한 4척의 PT정은 동·서해안에서 큰 전과를 내었다. 서해안 마합도, 기린도 대안(對岸), 옹진반도 마정리, 장산곶 및 해주만 부포리에 포격을 가하여 공산군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동해안에서는 호도반도, 마양도, 신포, 여도 및 양도 근해에서 활동하면서 해안의 공산군 포대와 집결지에 대하여 포격을 실시하였다.

셋째, 북한군에 의해 점령당한 창린도에 대하여 PC-702함이 탈환작전을 실시하였다. 창린도 탈환작전은 PC-702함과 동키부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영국해군 및 함재기 4대가 지원사격을 실시한 연합작전의 백미(白眉)였다.

넷째, 해군과 해병대는 황토도, 양도 및 호도전투에서 승리하여 완벽한 도서방위작전을 수행하였다. 공산군은 해병대가 점령하고 있는 황토도, 양도 및 호도에 대하여 해안포격을 실시하면서 기습공격을 실시하였으나. 해병대는 해군의 함포사격지원을 받으면서 강력한 반격작전으로 이를 격퇴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렇듯 유엔해군과 한국해군은 휴전회담이 진행되고 있던 195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그들의 우세한 전력을 이용한 강력한 해상봉쇄작전과 주요 산업시설 및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한 항공폭격, 북한지역 교란작전 등을 통해 유엔군 측이 목표로 설정한 지상작전 및 휴전회담에서의 유리한 국면 조성에 기여하였다.

6. 공군 작전

공군작전은 정전협정을 조기에 타개하려는 유엔공군의 활동 증가와 이에 대한 공산공군의 대응활동으로 이전 대비 작전기세가 둔화되지 않았다. 유엔공군의 작전목표는 항공압박작전(Operation Pressure Pump)을 포함한 공세적 후방차단작전을 통해 유엔군의 협상제안을 공산군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핵심 표적에 대한 선제적 파괴 전략'이었고, 공산공군은 유엔공군의 공세적 파괴 전략으로부터 북한지역과 중국 동북 지방의 주요 표적을 지켜내기 위한 철저한 방어 전략이었다.

이러한 양측 간의 작전목표의 차이는 작전활동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만들었다. 먼저 공산연합공군의 주축인 소련공군은 확전을 우려한 소련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미그회랑지역과 청천강 이북 지역으로 활동구역을 철저히 제한하며 소극적 방어 전략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중국공군지휘부는 단순한 방어제공임무에서 탈피하여 활동 제한선을 평양 이남까지 확장하여 유엔공군 전방비행장을 공격하려 했으나 미국의 중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에 대한 우려와 중국공군의 전력이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소련과 중국 전쟁지도부의 만류로 이를 시행되지 못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소련에 비해 열세한 항공력을 가진 북한공군은 공산연합공군 작전에서 제한적이고도 보조적인 역할 수행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에 반해 유엔공군은 이 시기에 이전과는 다르게 매우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공세전략을 채택하였다. 먼저 전년도에 실시된 스트랭글작전(Strangle)의 비판적 평가를 받아들여 주요 4개 철도선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새츄레이트 작전(Operation Saturate)으로 전환하였고, 나머지 전폭기 전력은 이전에 공격을 제한하거나 소극적으로 취급해왔던 핵심 산업시설, 군사지휘시설, 병력집결지 및 군 양성기관(학교) 등 전쟁 잠재력 파괴를 위한 전력으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유엔공군은 항공압박작전의 일환으로 1952년 6월에는 이전에 공격을 금지해왔던 수풍, 장진 등의 수력발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시행했고, 7월과 8월에는 본격적인 항공압박작전의 일환으로 평양에 대한 대공습작전을 감행하였다. 아울러 이 시기 유엔공군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공격적인 요격작전을 구사하였는데 단둥, 다둥고우 등 압록강 이북 중국내에 위치한 제1선 비행장을 직접 겨냥하여 압록강 상공에서 체공하다 이들 기지에서 이·착륙하는 MiG-15에 대한 기습적인 요격을 수행하여 많은 손실을 입혔다.

한편 이 시기 공산공군은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여 양적, 질적인 면에서 성장을 이루었다. 소련은 참전부대 모두를 구형 MiG-15에서 MiG-15bis로, 중국 공군도 거의 모든 전력을 MiG-15bis로 전환하였다. 북한도 2개 전투비행사단을 MiG-15bis로 전환하였다. 1952년에 참전한 공산공군의 주요부대는 소련공군 제64전투비행군단 예하 전투비행사단 5개, 1개 야간전투비행연대이며 중국공군은 8개 전투비행사단과 2개 폭격사단이었고, 북한은 MiG-15를 보유한 제1전투비행사단 외에 제2전투비행사단(La-9 보유)과 제11혼성비행사단(IL-10, Yak-9, Po-2 보유)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유엔공군도 전력을 증가시켰는데 F-84E를 성능이 개선된 F-84G로 교체하는 작업을 9월중에 완료하여 3개 비행단이 F-84G를 보유하게 되었고, 8월에는 제4, 51전투요격비행단이 각각 예하 3개 대대에 인가된 F-86 전력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5월에 주간 폭격임무가 가능한 B-26을 총 187대를 보유하게 되었고, B-29도 7월 이후 월평균 105대 이상을 보유하게 되어 8월 이후에는 1951년 8월에 내려진 1일 12회 출격제한 지침을 50% 증가시킬 수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시기 한국공군은 1951년 10월 11일부터 시작된 동해안 지역에 대한 후방차단작전을 지속 실시하는 가운데 승호리철교 차단('52년 1월), 송림제철소 폭격작전('52년 3월)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유엔공군의 일원으로 평양 대폭격 작전('52년 7월)에도 참가하였다. 또한 1952년 10월부터는 육군 제1군단을 지원하기 위한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시작하여 신장된 전투능력을 과시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절 휴전회담

1. 양측의 휴전회담 전략과 지도체계

공산군은 휴전회담을 시작하면서 전략적 이익을 챙기면서 전술적으로는 양보하는 휴전회담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공산군이 제시한 전략방침은 전투행위와 사격중지, 양측 군대의 38도선을 중심으로 한 5~10km 이상 철수, 38도선에서의 항공기 비행 중지, 해군의 철수와 해상봉쇄 해제, 2개월에 걸친 외국군 철수, 전쟁포로 교환 및 피랍된 시민 귀환 등이었다. 공산군은 이러한 전략방침을 토대로 휴전회담 장소를 비롯하여 임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유엔군으로 하여금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유리한 입장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반면 휴전회담에 임하는 유엔의 기본 입장은 대략 38도선을 연한 휴전이었다. 이에 한국에 유엔군을 파견한 유엔대사들도 모두 휴전회담에 찬성하였다. 미국정부도 이러한 유엔의 분위기와 소련의 의도를 고려하여 군사적 수준에서 회담을 갖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즉, 유엔군의 휴전회담 방침은 한국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전투의 재발방지 보장, 그리고 유엔군의 안전 확보 등이었다. 아울러 유엔은 휴전회담에서 유엔군 측이 관철해야 할 기본입장(최저 양보선)과 주장해야 할 세부지침을 정해놓고 있었다. 이것은 유엔군 측이 따라야 할 협상 기본방침이자 휴전회담 전략이었다. 기본 요지는 이 회담은 의제를 순수하게 한국과 한국내의 군사문제로 제한하고 정치나 영토적 문제와 관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한 옹진반도와 연안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공산군측의 휴전목적이라면 이 지역이 공산군 통제 하에 놓이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는 전쟁 이전 현상에서 평화를 회복할 경우, 군사상 이 지역이 방어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취약하여 방어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편 공산군의 휴전회담 지도체계는 주로 스탈린-마오쩌둥-리커눙(李克農)-공산군 측 휴전회담 대표단으로 연결되는 라인이었다. 여기서 중국지원군사령관 펑더화이는 제외되었는데, 그는 필요시 휴전회담에 대한 의견만을 개진하였다. 마오쩌둥은 휴전회담을 위해 휴전회담장이 있는 개성에 전방지휘부를 설치하여 휴전회담을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나갔다. 또한 마오쩌둥은 협상전문가인 외교부 부부장 리커눙(李克農)를 북한으로 파견하였다. 이외에도 전선 상황과 휴전회담 진행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연계시킬 수 있는 고급장교가 이들을 지원하였다.

유엔군의 휴전협상 지도는 미국이 중심이 되어 미 대통령-국무부 및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유엔군사령관-휴전회담 대표단으로 이루어지는 단일 지도체계에 의해 진행되었다. 여기서 미 제8군사령관은 휴전회담 전략 및 정책 수립단계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유엔군의 휴전회담에 대한 지도는 기본방침부터 세부적인 지침사항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워싱턴의 중앙통제체제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유엔군과 공산군의 휴전회담 지도체계상의 특징을 보면, 양측의 모두 공통적으로 전쟁당사국인 남한과 북한을 제쳐두고 유엔군을 대표한 미국과 공산군을 대표하는 중국이 휴전회담을 주도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휴전회담 대표구성에 있어서는 유엔군이 전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구성한데 비해, 공산군은 북한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휴전협상과 관련한 양측의 휴전협상의 입장

1952년 초를 기준으로 한 휴전회담의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회담이 시작된 지 약 6개월이 지났으나 실질적인 의제 4개 항목 중에서 일단 타결된 것은 제2 의제인 군사분계선 문제뿐이었고, 이것마저도 30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15일간의 연장을

제의하기는 했으나 이미 마감기한이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제3 의제인 휴전세부사항 문제와 제4 의제인 포로교환 문제도 논의 중이었으나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다.

의제 제3항인 '휴전과 휴전세부사항'은 쌍방이 어떻게 정전을 실행하고 전쟁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건을 보장하며 또 그것의 실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어떤 기구를 설치할 것인가 등에 관한 문제였다. 이 의제 3항에 대해 유엔군과 공산군은 이미 잠정 분계선에 대한 합의를 보기 전부터 논쟁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분계선 설정문제가 타결된 이후부터는 휴전세부사항 문제가 큰 난제로 부각되었다.

의제 제4항인 포로교환협상은 의제 제3항(휴전세부사항)의 협상이 분과위원회로 넘어간 1951년 12월 11일부터 시작되었다. 회담벽두에서 공산군은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포로를 휴전협정 조인 후 즉각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군은 포로를 공정하고 적합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다음 조기에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회담의 첫 단계로 전체포로명단의 교환,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포로수용소 방문을 요구하였다. 포로교환 협상은 표면상으로 비교적 간단한 것처럼 보였으나, 회담이 시작되면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쌍방이 인식하게 되었다. 제네바협약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의제 제4항의 토의에 있어서 자원송환과 강제송환 문제가 최대의 쟁점이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의제 제5항 '관계제국정부에 대한 건의'는 의제 협의 시 공산군에 의해 거론되었으며, "쌍방은 휴전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정치회담을 통해 토의하도록 관계제국정부에 건의한다"라고 어구를 수정한 바 있었다. 이 의제는 유엔군이 의제 제3, 제4항에 대한 초안을 제시한 후, 1952년 1월 31일 마지막 남은 의제 제5항도 다른 나머지 문제와 함께 토의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공산군이 수락함으로써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유엔군은 제5항을 의제로 채택하긴 하였으나, 이 의제에 대해서는 정치회담의 소집을 건의할 것인가의 여부를 토의해 본다는 정도의 의미밖에 부여하지 않았다.

한편 유엔군사령관은 휴전회담이 난항에 봉착하자 미결된 중요문제를 한꺼번에 제시하여 일괄타결한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적어도 공산군이 이를 수락하지 않고 협상을 결렬시킬 경우에도 유엔군은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유엔군사령부는 공산군에 의해 끌려가는 회담진행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참전국으로부터 정식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미국정부 내에서도 점차 회담노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유엔군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소련이 포함될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미 합참과 방책을 모색한 끝에 중립국 감시문제도 별도의 의제로 분리하지 않고 포로송환 문제 및 비행장 문제와 한데 묶어 일괄타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유엔군은 휴전회담에서의 세 가지 미결 문제에 대해 쌍방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한 후 비행장 건설 및 복구에 대해서는 양보하되, 포로문제와 중립국 감시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공산군이 유엔군 안을 수락하도록 요구해 왔었다. 유엔군의 일괄타결안은 지금까지의 제안에 비해 상당부분 양보한 것이었지만, 공산군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다시 협상이 결렬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어 일괄타결안이 제시된 지 만 5개월 이후인 1952년 9월 28일에 유엔군 대표 해리슨 중장은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포로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세 가지 새로운 '선택적 타결안'을 제안하여 공산군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청했다. 이때 제시된 세 가지의 제안은 모두가 자유송환이란 인도적인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엔군으로서는 그 어느 것이나 휴전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유엔군에서 제안했던 어느 제안보다 양보한 것이었으며 또한 유엔군의 최종안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은 선택적 제안마저 공산군에 의해 거부되자 결국 회담의 무기휴회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휴전회담 타결을 위해 지금까지 유엔군측이 기울인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3. 휴전회담에 대한 평가

휴전협상은 개막된 지 15개월 만에 포로송환에 대한 쌍방의 기본입장의 차이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결렬되어 1952년 10월 8일 무기휴회로 들어갔다. 그동안 유엔군은 세부의제 토의에 이어 일괄타결안, 선택적 제안 등을 제의하며 조기타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하였고,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이제 유엔군은 휴전회담에서의 선택을 공산군에 넘겼고 이후의 문제는 공산군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유엔군이 강제송환을 반대하고 공산군이 전원송환을 고집하는 한, 그리고 어느 한편이 정치적 피해를 감수하고 양보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절충적인 협상은 불가능해 보였다. 회담이 사실상 결렬되기에 이르자 공산군은 방송을 통해 유엔군이 고의로 휴전회담을 결렬시켰다고 책임을 전가하는데 노력을 집중하였다. 이제 휴전회담은 미궁에 빠졌고 지금까지 가장 많은 정력과 시간을 소모시켜 왔던 포로교환 문제를 놓고 결렬상태에 놓이고 말았다.

포로문제를 둘러싼 문제의 해결 여부는 공산군이 휴전을 진심으로 원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었다. 만일 그들이 진지하게 이를 희망한다면 유엔군측이 주장하는 원칙에 따를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지연책 혹은 선전도구로서 이용하는데 그 진의가 있다면 유엔군측이 방법문제에 있어 어떠한 고려를 하더라도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

휴전회담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사이 참전국들 사이에는 회담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이 일고 있었으며, 특히 영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회담의 지연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이때 비관론은 대체로 공산측의 무성의와 비타협성으로 회담이 교착되었고 더 이상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고, 반면 낙관론은 유엔측이 평화를 갈구하고 있으므로 곧 휴전이 성사될 것이며 공산측도 굳이 막대한 소모와 희생을 무릅써가며 전쟁을 무기한적으로 계속하거나 또는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결국 휴전이 성립될 것이라는 견해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휴전회담 성사에 관한 낙관론이든 비관론이든 두 견해의 정확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두 견해 공히 설령 휴전이 성립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항구적이 아닌 그야말로 평화를 가장한 일시적인 휴전이 될 가능성이 크고, 공산주의자가 무엇을 계기로 하여 재침략을 감행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었다. 하물며 그것은 당시 남북이 분단된 상태의 정전을 반대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사실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4 절 결 론

6·25전쟁사 제10권『휴전회담 고착과 고지쟁탈전의 격화』는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이 휴전회담에서 임시군사분계선 문제에 합의하고 난 이후 포로문제 협상을 둘러싸고 수차례 휴회와 개회를 반복하는 상황을 기술하고, 아울러 유엔군과 공산군이 전후의 군사적 이점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벌였던 고지쟁탈전을 다루고 있다.

양측이 1951년 7월에 휴전회담을 개시하였으나 6개월 만에 회담은 고착상태에 접어들었고, 이의 결과로 유엔군과 공산군은 전력증강과 함께 아울러 전략적·전술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1952년 12월 31일까지 치열한 고지쟁탈전을 전개하였다.

이 기간동안 전쟁은 미국·유엔과 소련·중국의 대결 구도로 구축되었고, 전쟁당사국인 한국과 북한, 특히 한국은 휴전협상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휴전회담도 미국과 소련·중국이 구상하는 향후의 정치적·전략적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가운데 전쟁의 성격은 소규모 정찰전이나 고지쟁탈전으로 제한되었다. 모든 것이 휴전협정 체결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고, 이에 반하는 작전이나 군사적 행동 그리고 언행은 제재를 받았다. 미 제8군사령부가 계획한 대규모 작전이 계획 및 실행 이전단계에서 취소되거나 한국의 휴전반대가 환영을 받지 못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였다.

이 책에서는 195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측의 휴전회담과 관련한 전쟁지도 및 지도체계, 휴전회담 진행과정, 전선지역에서의 고지쟁탈전과 후방지역에서의 공비토벌작전, 그리고 한국해군과 유엔해군이 수행한 해·공군작전을 망라하고 있다. 이 시기 전선의 상황과 휴전회담에서의 진행 상황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육군본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이 정치의 한 수단이라는 격언은 6·25전쟁의 휴전협상 과정에서도 여실이 입증되었다. 양측이 전쟁을 정치적 협상으로 결말지으려는 정책을 결정한 후 군사작전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게 되었다. 전선의 상황은 협상의 진척에 따라 또는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군 지휘관의 의도와는 달리 작전이 억제되기도 하였고 혹은 별다른 군사적 의미도 없는 상황에서 많은 희생이 뒤따르는 격렬한 전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

1952년 연초부터 설전이 이어진 휴전회담 상황은 포로송환문제로 큰 난관에 부딪쳤다. 유엔군은 공산군에게 결정적인 군사적 압력을 가하여 전쟁을 종식시킬만한 충분한 병력과 해·공군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 점에 있어서는 공산군도 마찬가지였다. 쌍방의 병력수준은 장비면에서 유엔군이 압도적이었고 병력면에서는 공산군이 약간 우세한 편이었다. 공산군은 휴전회담 기간을 이용하여 방어진지를 강화하고 유엔군의 공세작전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체적인 전선의 작전양상은 공산군이 현 상황을 타개하려고 기도하지 않는 한 전초진지 쟁탈전의 법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1952년 초 전선의 상황은 작년 말의 상황과 유사하게 각 전선에서 소규모 탐색전이나 전초진지 쟁탈전이 전개되었으며 같은 해 여름부터는 비교적 규모가 확대되어 불모고지 전투, 수도고지·지형능선 전투, 백마고지 전투 그리고 저격능선 전투 등 대표적인 고지쟁탈전이 지속되었다. 대체로 동년 9월부터 11월 초까지의 지상전투 상황은 공산군이 전장의 주도권은 장악하고 있는 편이었다. 이런 가운데 11월 경 전선의 상황은 쌍방의 전초거점 작전이 끝나고 다시 소강상태로 되돌아가 정찰전과 소규모의 탐색전으로 바뀌는 형국이 되었다.

휴전회담 상황은 유엔군이 제안한 일괄타결안에 이은 선택적 제안을 공산군이 10월 8일 최종 거부함에 따라 협상이 중지되었고 결국 무기휴회에 들어갔다. 이에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공산군에 압박을 가하여 휴전회담을 타결해 보려는 복안을 갖게 되었다. 그는 미 합동참모본부에 "유엔군이 휴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공산군에 대한 군사적 압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라고 전제하면서 평양-원산선까지 진격하는 수륙양면작전과 공수작전을 병행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도록 건의하였다. 이때 그는 중공내의 군사목표물에 대한 해·공군작전을 단행한다는 예비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신임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미국의 다른 정치지도자들도 협상을 통해서만 전쟁을 종결지으려 하였다. 이를 계기로 공산군의 공격작전 빈도가 연말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공산군은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서부전선에서 일제히 공세작전을 전개하여 미 제2해병사단, 국군 제1사단, 미 제1사단, 미 제7사단, 미 제1해병사단의 방어정면에 대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유엔군은 공군력으로 공산군의 후방시설을 폭격하였을 뿐 지상에서의 대규모 공격작전은 전개하지 않았다. 이는 곧 공산군이 회담의 휴회기간에 공세작전을 전개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유엔군이 휴전협상에 임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엔군측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집필 : 양영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부 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영문약어
2. 연 표

1. 영문약어

ADCOM — Advance Command and Liaison Group	전방사령부
AGC — Amphibious Force Flagship	상륙전기함
AKA — Attack Cargo Ship	공격화물수송함
AMS — Motor Minesweeper(YMS의 신형)	소해정
ANGLICO — Air and Naval Gunfire Liaison Company	항공·함포연락중대
APA — Attack Transport	공격인원수송함
APD — High Speed Transport	고속수송함
ASCOM — Army Service Command	육군기지창
ATF — Fleet Tug	예인함
BB — Battleship	전함
BLT — Battalion Landing Team	대대상륙단
CA — Heavy Cruiser	중(重)순양함
CP — Command Post	지휘소
CL — Light Cruiser	경(輕)순양함
CV — Aircraft Carrier	항공모함
CVE — Escort Aircraft Carrier	호위항공모함
CVL — Light Aircraft Carrier	경항공모함
DD — Destroyer	구축함
DE - Escort Destroyer	호위구축함
DUKW — Amphibious Truck(Dual Utility Cargo Waterborne)	수륙양용트럭
FBHL — Force Beach Head Line	해안두보선
FMF — Fleet Marine Force	함대해병대
GQ — General Quarters	전투배치
JCS — Joint Chiefs of Staff	합동참모본부
JSPOG — Joint Strategic Plans and Operations Group	합동전략계획단
JTF — Joint Task Force	합동기동부대
KLO — Korean Liaison Office	한국연락사무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LCM — Landing Craft, Medium	중형상륙정
LCVP — Landing Craft, Vehicle and Personnel	상륙주정
LD — Line of Departure	공격개시선
LF — Landing Force	상륙군
LSD — Landing Ship Dock	상륙선거함
LSMR — Landing Ship Medium-Rocket	로켓포함
LST — Landing Ship Tank	대형상륙함
LSU — Landing Ship Utility	대형상륙정
LVT — Tracked Landing Vehicle	수륙양용차
LVT(A) — Armored Tracked Landing Vehicle	장갑수륙양용차
MAG — Marine Aircraft Group	해병비행전대
MAW — Marine Air Wing	해병항공사단
MTT — Mobile Training Team	이동교육반
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	국가안전보장회의
OP — Observation Post	관측소
PC — Submarine Chaser	구잠함
PF — Frigate	호위함
PPS — Policy Planning Staff	정책기획실
RCT — Regimental Combat Team	연대전투단
RLT — Regimental Landing Team	연대상륙단
SFCP — Shore Fire Control Party	해안사격통제반
TAC — Tactical Air Command	전술항공본부
TF — Task Force	기동부대, 특수임무부대
TG — Task Group	기동전단
TTU — Troop Training Unit	부대훈련대
USAFIK — U.S. Army Forces in Korea	주한 미 지상군
VMF — Marine Fighter Squadron	해병전투기대대
VMF(N) — Marine Night(All-weather) Fighter Squadron	해병전천후전투기대대
YAK — Russian Fighter Aircraft	소련제 전투기
YMS — Motor Minesweeper(AMS의 구형)	소해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연 표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2년	1월 1일	• 유엔군, 전 전선에서 신년 포격 • 유엔 공군 F86제트기 31대, 적 MIG15제트기 약 60대와 북한 상공에서 공중전
	1월 3일	• 문등리와 고랑포 지역, 치열한 전초진지 쟁탈전 전개
	1월 10일	• 휴전회담 교착상태 계속
	1월 30일	• 유엔 해군, 성진과 해주 지역에서 작전
	2월 2일	• 경상남북도 9개 군에 비상계엄
	2월 6일	• 휴전회담, 제36차 본회담 개최
	2월 16일	• 미 제1군단, 서부전선에서 적 진지 맹공
	2월 17일	• 휴전회담 제42차 본회담에서 유엔군 측, 의제 5항에 관한 공산군 측 수정안을 조건부 수락
	2월 18일	• 거제도 포로수용소 폭동 발생
	2월 21일	• 한국 해병대, 양도 상륙을 기도한 적 1개 대대 격퇴
	2월 24일	• 북경방송, 미국이 한국에서 세균전을 감행했다고 비난
	3월 4일	• 중공, 미군의 세균전으로 북한에 전염병 퍼졌다고 비난 • 애치슨 미 국무장관, 공산측의 세균전 비난을 일축
	3월 12일	• 국제적십자사, 북한과 중국에 전염병 조사 제의, 공산측 거절
	3월 14일	• 백야전전투사령부의 '쥐잡기작전' 종료
	3월 21일	• 공산측, 포로 무조건 송환 주장
	3월 24일	• 미 제5공군 소속 폭격기대, 공산군 보급로에 치명적인 공격개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2년	4월 5일	• 국군 제2군단 재창설
	4월 25일	• 유엔군, 송환희망 포로 7만이라고 발표 • 지방선거 실시
	5월 4일	• 중공, 각국 적십자사에 세균전 비난 서한 발송
	5월 7일	• 거제도 포로수용소장 도드 준장 포로들에게 납치 • 유엔군 자유의사에 따른 포로교환안 제시
	5월 10일	• 친공포로들, 도드 준장 석방
	5월 12일	• 공산군측, 포로문제로 악선전 개시
	5월 13일	• 보트너 준장, 거제도 포로수용장 임명
	5월 24일	• 한미경제협정(마이어 협정) 조인
	5월 25일	• 부산에 비상계엄령 선포, 부산정치파동 시작
	5월 26일	• 국회의원 50여 명 국제 공산당 자금 수수혐의로 체포
	5월 28일	•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이승만대통령에게 국회의원 석방 권고
	6월 8일	• 유틀란디아 덴마크병원선, 16개월간의 한국 근무 마치고 귀국
	6월 16일	• 철의 삼각지에서 치열한 포격전
	6월 17일	• 거제도 포로수용소 17,000명 새 수용소로 이동
	6월 20일	• 유엔안보리 미국 대표, 세균전 조사에 국제적십자사 대표를 초청하자는 결의안 상정 요구
	6월 23일	• 유엔 공군기 약 500대, 북한의 수풍 등 5대 발전소 대폭격 • 거제도 포로수용소, 포로심사 재개
	6월 25일	• 전 전선에 걸쳐 탐색전 활발히 전개
	6월 29일	• 제5공군사령관, 북한의 13개 수력발전소 완전 파괴했다고 언명
	7월 3일	• 휴전회담, 포로문제 관련 유엔군 측 제안에 공산군 측 찬성 표명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2년	7월 4일	• 발췌개헌안 163 대 0 가결
	7월 5일	• 미 제7기동함대, 원산항을 7시간 맹포격
	7월 8일	• 고지쟁탈전 격화 • 지형능선·수도고지 전투 시작
	7월 17일	• 불모고지 전투 시작
	8월 9일	• 벙커고지 부근 전투 시작
	9월 6일	• 사천강 부근 전투 시작
	9월 21일	• 812-854고지 전투 시작
	9월 28일	• 독수리고지·피의고지 전투 시작
	10월 6일	• 백마고지 전투 시작 • 고양대 부근 전투 시작 • 1,090고지 전투 시작
	10월 14일	• 미 제9군단 쇼다운작전 개시, 저격능선·삼각고지 전투 시작
	10월 15일	• 정·부통령 선거 완료,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함태영
	11월 5일	• 미 대통령 선거, 아이젠하워 당선
	11월 29일	• 네루 인도 수상, 저우언라이에게 인도가 제안한 한국 평화안 수락 권고
	12월 2일	• 이승만 대통령, 인도 제안에 반대하며 국경선까지 진격하겠다고 주장 • 아이젠하워 한국 방문
	12월 3일	• 유엔총회, 포로문제에 대한 인도의 결의안 가결
	12월 14일	• 저우언라이, 유엔총회 의장에게 총회에서 결의된 포로 송환에 관한 인도의 안을 거부한다고 정식 통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참고문헌

Ⅰ. 국문 문헌

명령, 지시, 작전보고서 등 문서, 자료집

국방부,「일반명령 제207호」(1952. 11. 8).
육군본부,「작전계획 제27호」(1952. 7. 6).
육군본부,「작전계획 제28호」(1952. 10. 10).
육군본부,「작전지시 제122호」(1952. 1. 25).
육군본부,「작전지시 제153호」(1952. 5. 8).
육군본부,「작전지시 제158호」(1952. 5. 20).
육군본부,「작전지시 제159호」(1952. 5. 20).
육군본부,「작전지시 제162호」(1952. 5. 25).
육군본부,「작전지시 제166호」(1952. 6. 9).
육군본부,「작전지시 제171호」(1952. 6. 20).
육군본부,「작전지시 제182호」(1952. 7. 6).
육군본부,「작전지시 제196호」(1952. 8. 1).
육군본부,「작전지시 제201호」(1952. 8. 9).
육군본부,「작전지시 제211호」(1952. 8. 29).
육군본부,「작전지시 제219호」(1952. 9. 19).
육군본부,「작전지시 제223호」(1952. 10. 22).
육군본부,「작전지시 제226호」(1952. 10. 9).
육군본부,「작전지시 제245호」(1952. 11. 23).
육군본부,「작전지시 제271호」(1952. 1. 20)
해군본부,「작전명령 제62호」(1952. 4. 6).
해군본부,「작전명령 제69호」(1952. 4. 19).
해군본부,「작전명령 제92호」(1952. 12. 8).
육군본부,「정기작전보고」 제55호(1952. 7. 16).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백야전전투사령부,「작전지시 제17의 3호」(1951. 12. 30).
백야전전투사령부,「작전지시 제18호」(1952. 1. 3).
백야전전투사령부,「작전지시 제20호」(1952. 1. 10).
백야전전투사령부,「작전지시 제21호」(1952. 1. 10).
제1사단,「작전명령 제80호」(1952. 7. 18).
제1사단,「작전명령 제89호」(1952. 12. 11)
제9사단,「작전명령 제87호」(1952. 10. 9).
제9사단,「작전지시 제68호」(1952. 10. 9).
제9사단,「작전지시 제69호」(1952. 10. 10).
제9사단,「작전지시 제72호 수정 제1호」(1952. 10. 11).
제9사단,「작전지시 제72호」(1952. 10. 10).
제9사단,「작전지시 제75호」(1952. 10. 13).
제9사단,「작전명령 제85호」(1952. 10. 4).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26) (대전 : 육군본부, 1987).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42) (대전 : 육군본부, 1986).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45) (대전 : 육군본부, 1986).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49) (대전 : 육군본부, 1987).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51) (대전 : 육군본부, 1986).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52) (대전 : 육군본부, 1987).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54) (대전 : 육군본부, 1987).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55) (대전 : 육군본부, 1987).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56) (대전 : 육군본부, 1987).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58) (대전 : 육군본부, 1987).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59) (대전 : 육군본부, 1987).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60) (대전 : 육군본부, 19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제1권, 2001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제2권, 2001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제3권, 2001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중국군의 한국전쟁사』제2권, 2005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중국군의 한국전쟁사』제3권, 2005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세대학교이승만연구원,『사진으로 보는 6·25전쟁과 이승만대통령』(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1년).
국사편찬위원회(편역),『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과천 : 편역자 출판, 2006년).
국사편찬위원회,『대한민국사자료집』제29집(과천 : 편자출판, 1996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대한민국사자료집』제31집(과천 : 편자출판, 1996년).
대검찰청 공안부,『좌익사건실록』제11권 (서울 : 대검찰청, 1975).
대한민국 외무부(편역),『韓國戰爭 關聯 蘇聯極秘外交文書』(서울 : 미발간, 1994년).
大韓民國公報處,『大統領李承晩博士談話集』(서울 : 편자출판, 1953년).
대한민국 공보처,『大統領李承晩博士談話集』(공보처, 1953년).
사회부,「피란민구호상황주보」제4호(1951. 2. 3).
외무부,『한국전쟁관련 소련비밀외교문서』제3권, 1994(미간행).

신문, 방송, 사전, 연감, 일지

『경향신문』『대구매일』『동아일보』『로동신문』『민주신보』『부산일보』『서울신문』『조선일보』『한국일보』
공보처통계국,『대한민군통계년감』(서울 : 통계국, 1952년).
大韓民國國防部政訓局戰史編纂會編,『韓國戰亂一年誌』(서울 : 편자출판, 1952년).
大韓民國國防部政訓局戰史編纂會編,『韓國戰亂二年誌』(서울 : 편자출판, 1953년).
大韓民國國防部政訓局戰史編纂會編,『韓國戰亂三年誌』(서울 : 편자출판, 1954년).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한국통일부흥위원단보고서』, 1965.
동아일보사,『비화 제1공화국』제2집(서울 : 홍우출판사, 1975년).
부산일보사,『임시수도 천일』(상·하) (부산 : 부산일보사, 1984).
사회과학출판사,『조선지명편람(함경남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2년).
연합뉴스,『2009 북한연감』(서울 : 편자 출판, 2009년).
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한국 평화문제연구소 공저,『조선향토대백과』(서울 : 한국평화문제연구소, 2004년), 제11권(강원도).
朝鮮中央通信社,『朝鮮中央年鑑』(平壤 : 편자출판, 1952년), 國內篇(1951~1952年).
崔鍾泰 編著,『韓國戰爭日誌』(서울 : 軍事問題硏究所, 1991년).
韓國言論資料刊行會,『한국전쟁 종군기자』2(서울 : 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87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한국인물대사전』(서울 : 중앙일보사, 1999).

부대사, 증언집, 회고록, 전기

공군본부,『공군사; 공군창군과 6·25전쟁』(계룡 : 공군본부, 2010).
공군본부,『6·25전쟁 증언록』(계룡 : 공군본부, 2002년).
공군본부,『전투요보』(계룡 : 공군본부, 2000년).
공군역사기록단 역,『미 공군 제6146부대 부대사』제1집(계룡 : 역자 출판, 2010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군사연구소,『국방사 연표, 1945-1990』(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국방사』제2집(서울 : 국방부. 1987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1989년.
국방부,『국내 군수 지원 능력 및 현황』(서울 : 국방부, 1969년).
매튜 B. 리지웨이, 김재관 역,『한국전쟁』(서울 : 정우사, 1984년).
白善燁,『6·25전쟁 회고록 : 軍과 나』(서울 : 재단법인 대륙연구소, 1989년).
병무청,『병무행정사, 상권』(서울 : 병무청, 1985년).
보병 제1사단,『전진역사』(서울 : 인쇄창, 1966).
보병 제8사단사령부,『오뚜기 약사』(서울 : 인쇄창, 1969년).
서울대 법학연구소,『거창양민학살사건자료집』(서울 : 서울대출판부, 2003년).
서울특별시,『시세일람』(서울 : 서울시, 1957).
劉載興,『激動의 歲月』(서울 : 乙酉文化社, 1994년).
육군본부,『육군전사』제7권(서울 : 육군본부, 1957).
육군본부,『판문점』상, 1972.
林富澤,『林富澤의 韓國戰爭秘錄 : 洛東江에서 楚山까지』(서울 : 그루터기, 1996년).
장도영,『望鄕 : 전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회고록』(서울 : 숲속의 꿈, 2001년).
장성환,『나의 항공생활』(서울 : 공군본부 정훈감실, 1954년).
정부기록보존소,『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Ⅱ(대전 : 신진기획, 2002년).
정일권,『정일권 회고록』(서울 : 광명출판사, 1996년).
丁一權,『丁一權회고록 : 6·25秘錄 전쟁과 휴전』(서울 : 동아일보사, 1986년).
제7보병사단,『상승칠성부대-전사를 중심으로(1946. 1. 29~2007. 8. 31)』, 2007.
조병옥,『나의 회고록』(서울 : 해동, 1986년).
주영복,『내가 겪은 조선전쟁』(서울 : 고려원, 1991년), 제1권.
중앙일보사,『민족의 증언』제3집, 제4집(서울 : 중앙일보사, 1985년).
韓徹永,『自由世界의 巨星 : 李承晩大統領』(서울 : 文化春秋社, 1953년).
韓豹頊,『韓美外交 요람기』(서울 : 중앙일보사, 1984년).
해군본부,『대한민국 해군사 : 행정편 제1집』, 1954
해군본부,『해군작전사 개설 제1집(1950.6~1951.6)』, 2001.
해군본부,『해군편제사』제1권(서울 : 해군본부, 1970년).
해병대사령부,『해병발전사 : 해병20년사』, 1961.
해병대사령부,『해병발전사』(서울 : 해병대사령부, 1961년).
해병대사령부,『해병발전사』, 1962.
해병대사령부,『해병사 제2집』, 1963.
해병대사령부,『해병전투사』(제1집), 195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 저서 및 논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한국전쟁의 유격전사』(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제6권(서울 : 국방부, 2009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제7권(서울 : 국방부, 2010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제8권(서울 : 국방부, 2011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제9권(서울 : 국방부, 2011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주한 미군의 정보보고 체계(1945~1953년 미 정보보고서 중심으로)』(서울 : 군사편찬연구소, 2007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6권(서울 : 국방부, 1973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7권(서울 : 국방부, 1974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8권(서울 : 국방부, 1975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미 합동참모본부사 : 한국전쟁』(상)(서울 : 국방부, 199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대비정규전사(1945~1960)』(서울 : 국방부, 198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서울 : 국방부, 1985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1권(서울 : 국방부, 1977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대비정규전사』, 1988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10권(서울 : 국방부, 1980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11권(서울 : 국방부, 1981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서울 : 국방부, 1972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백마고지전투』(서울 : 국방부, 1984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수도고지·지형능선전투』(서울 : 국방부, 198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양구전투』(서울 : 국방부, 1989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월비산·351고지전투』(서울 : 국방부, 1990년).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전투사 : 노전평전투』(서울 : 국방부, 1992)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중)(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6년).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하)(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7년).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지원사』(서울 : 신오성, 1995년).
공군본부,『6·25전쟁 항공전사』(계룡 : 공군본부, 2002년).
공군본부,『항공 전사 : 한국전쟁』(계룡 : 공군본부, 1989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대비정규전사(1945~1960)』(서울 : 국방부, 198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서울 : 국방부, 1989).
김남식,『남로당연구』1 (서울 : 돌베개, 1984).
김운태,『해방30년사』(서울 : 성문각, 197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김종국 역, 러시아 국방부편『러시아가 본 한국전쟁』(서울 : 오비기획, 2002년).
김주환 편,『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서울 : 청사, 1989).
김중생,『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서울 : 명지출판사, 2000).
남정옥,『미국은 왜 한국전쟁에서 휴전할 수밖에 없었을까』(경기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0년).
남정옥,『이승만 대통령과 6·25전쟁』(경기 파주 : 이담 북스, 2010년).
남정옥,『한미군사관계사』(서울 : 군사편찬연구소, 2002년).
대한민국 국회,『국회사』(서울 : 국회, 1972년).
데이비드 햅버스탬 지음, 정윤미, 이은진 옮김,『The Condest Winter : 한국전쟁의 감추어진 역사』(서울 : 살림출판사, 2009년).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러시아가 본 한국전쟁』(대전 : 오비기획, 2002년).
로버트 T. 올리버 저, 박일영 역,『대한민국 건국의 비화 : 이승만과 한미관계』(서울 : 계명사, 1990).
마이클 살러 지음, 유강은 옮김,『더글라스 맥아더』(서울 : 이매진, 2004년).
모스맨 지음, 백선진 옮김,『밀물과 썰물』(서울 :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5).
박명훈,『조선지명편람(평안북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2년).
백선일 譯,『밀물과 썰물』(서울 : 대륙연구소출판부, 1995년).
보훈처,『아테네의 후예들 : 그리스군 6·25전쟁 참전사』(서울 : 국가보훈처, 2006).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부산교육사』, 1987
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조선 전사 27』(평양 : 북한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년).
빌 길버트 원저, 안재철 편역,『마리너스의 기적의 배』(서울 : 2004년).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조선전사』제26권(평양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년).
서상문,『6·25전쟁과 베트남전쟁 : 동아시아전쟁사 최근연구 논문선집』(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년).
서상문,『毛澤東과 6·25전쟁』(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년).
서용선 외,『한국전쟁 점령정책·노무운용·동원』(서을 : 국방군사연구소, 1995년).
서울신문사 편저,『주한미군 30年』(서울 : 행림출판사, 1979년).
소련군 총참모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 : 1950년 6월 25일~1951년 12월 31일」(미발간).
시성문,『판문점 담판』(북경: 해방군출판사, 1989).
신형식 역,『한국전쟁 해전사』(서울 : 21세기군사연구소, 2003년).
안재철,『생명의 항해』(자운각, 2008년).
양대현,『역사의 증언 휴전회담 비사』(서울 : 형설출판사, 1993)
양영조,『한국전쟁과 동북아 국가정책』(서울 : 선인, 2007년).
예프게니 바자노프, 나딸리아 바자노프 저, 김광린 역,『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말』(서울 : 열림, 1998년).
오진근, 임성채 공저,『손원일 제독』(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년).
온창일 외,『6·25전쟁 60대전투』(서울 : 황금알, 2010).
온창일,『한민족전쟁사』(서울 : 집문당, 2007년).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 옮김,『한국전쟁』(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9년).
외무부,『한국외교 30년』(서울 : 외무부, 1979).
육군본부 정보참모부,『공비연혁』(서울 : 육군본부, 1971).
육군본부,『6·25사변 후방전사 : 인사편』(서울 : 육군본부, 1953년).
육군본부,『한국전쟁과 반공포로』(대전 : 육군본부, 2002).
육군본부,『한국전쟁과 유격전』(대전 : 육군본부, 1994).
육군본부,『중공군이 경험한 6·25전쟁』(하)(서울 : 육군본부, 2009년).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한국전쟁사』(서울 : 일신사, 1996년 수정판).
육본정보참모부,『북괴 6·25남침분석』(서울 : 보진재, 1970년).
이상호·박영실,『6·25전쟁 소년병 연구』(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년).
이충환,『미국비밀 문서로 본 한국현대사 35장면』(서울 : 삼인, 2003년).
이태호,『압록강변의 겨울 : 납북 요인들의 삶과 통일의 한』(서울 : 다섯수레, 1991년).
이대근,『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자본축적』(서울 : 까치, 1987).
이원복,『전쟁과 협상』(하)(서울 : 대림기획, 1989).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 이원복 역,『한국전쟁 : 진지전으로의 전환』제8권 (서울 : 명성출판사, 1991년).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 이원복 역,『한국전쟁』제5권(서울 : 명성출판사, 1991년).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광주전남현대사』2(서울 : 실천문학사, 1991).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전라남도지』제9권(광주 : 광주광역시, 1993).
전쟁기념사업회,『한국전쟁사』제5권(서울 : 저자 출판, 1992년).
정일형,『유엔과 한국문제』(서울 : 신명문화사, 1961).
조성훈,『한국전쟁과 포로』(서울 : 선인, 2010년).
중앙일보사 편,『민족의 증언』3(서울 : 을유문화사, 1975).
최만원 譯,『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서울 : 선인, 2010).
토르쿠노프 저, 구종서 역,『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서울 : 에디터, 2003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중공군의 한국전쟁사』(서울 : 세경사, 1991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서울 : 편자 출판, 1991년), 제25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문화연구소,『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서울 : 선인, 2001년).
한표욱,『한미외교 요람기』(서울 : 중앙일보사, 1984년).
해군본부,『6·25전쟁과 해군작전』(충남 계룡 :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12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해군본부,『대한민국해군사 : 작전편』제1집(해군본부, 1954년).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제3·4집(해군본부, 2001년).
해군본부,『해군 30년사 1945~1975』(해군본부, 1978년).
해군본부,『해군작전사 개설』제1집(해군본부, 2001년), 제3편.
해군본부,『해군편제사』(서울 : 해군본부, 1954년).
홍학지 저, 홍인표 역,『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관 홍학지의 전쟁 회고록 : 중국이 본 한국전쟁』(서울 : 한국학술정보, 2008).
홍학지 지음, 홍인표 옮김,『중국이 본 한국전쟁』(서울 : 고려원, 1992년).
김계동,「중국의 한국전 개입에 대한 영국의 정책」, 박두복 외,『한국전쟁과 중국』(서울 : 백산서당, 2001년).
김보영,「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영호,「6·25전쟁과 유엔의 역할」,『軍史』제59호.
남정옥,「국민방위군」,『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제1권(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년).
沙江,「항미원조전쟁의 군사목표와 전쟁지휘」, 정부기록보존소,『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Ⅱ(대전 : 신진기획, 2002).
신범식,「소련의 북한 군사 지원」,『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제1권(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년).
楊奎松,「중국군의 정전협상전략」, 군사편찬연구소,『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제1권(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년).
예종영,「한국전쟁과 국제경제기구 : 미국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유엔과 한국전쟁』, 리북, 2004.
오규열,「중공군의 상감령 전투에 대한 재평가」,『군사』46호, 2002.
牛軍,「중국 참전과 국제정치」, 군사편찬연구소,『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제2권(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년).
원태재,「6·25전쟁과 영국의 역할」,『軍史』제59호.
이종석,「한국전쟁 중 중·조연합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軍史』제44호.
전종순,「중공군 정월공세 시 리지웨이와 펑더화이의 작전지도」,『軍史』제45호.
전현수,「소련공군의 한국전 참전」,『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제1권(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년).
조성훈,「6·25전쟁 휴전협정을 둘러싼 국제관계」,『한국외교사와 국제정치학』, 성신여대출판부, 2005
조창래,「한국전시 릿지웨이 장군의 작전지도에 대한 고찰」,『군사평론』제350호 부록, (대전 : 육군본부,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한국전쟁기 전쟁수행과 그 영향 학술회의』(서울 : 한역연, 2010년 6월).
解方,『關于朝鮮開城停戰談判的回憶』, 정부기록보존소,『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Ⅱ (대전 : 신진기획, 2002).

Ⅱ. 외국어 문헌

영문 자료

GHQ, UNC, G-3 Operation Report, Jan.-Dec. 1952.
Hqs. EUSAK, Command Report, January 1952.
Hqs. EUSAK, Command Report, February 1952.
Hqs. EUSAK, Command Report, March 1952.
Hqs. EUSAK, Command Report, April, 1952.
Hqs. EUSAK, Command Report, May 1952.
Hqs. EUSAK, Command Report, June 1952.
Hqs. EUSAK, Command Report, July 1952.
Hqs. EUSAK, Command Report, September 1952.
Hqs. EUSAK, Command Report, August 1952.
Hqs. EUSAK, Command Report, October 1952.
Hqs. EUSAK, Command Report, November 1952.
Hqs. EUSAK, Command Report, December 1952.
"Notes for MajGen J. T. Selden, 1st Marine Division CG Korea, 11 Jan - 20 Aug 1952", RG 127(Records of the U.S. Marine Corps), Records Relating to Korean War and Subsequent Operations, 1950-59(Entry 1017), Box 9, NARA.
CIA DAILY REPORT KOREAN ULLETIN(1951. 3. 20).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2. 2. 20).
FEC G-2,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Section5, 1952(Unpublished).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Order of Battle Branch,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General History of NKA Units(1951. 7. 15)
Headquarter US Air Force, "Summary of The Situation in Korea 4 August 1952", RG341 Record of The Headquarter US Air Force.
Headquarters,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Command Report, October 195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p. 5-6; GHQ, UNC, G-3 Operation Report, No. 464(1 october 1952).
Headquarters,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Command Report, October 1952, p. 6; GHQ, UNC, G-3 Operation Report, No. 464(1 october 1952).
HQS, X Corps, Command Report, 1 June to 30 November 1952.
KMAG, Command Report, February 1952, RG 407,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Non Organic Units, USMAG Korea AYUT 8202, Box 5786, NARA.
Memo for General Bradley, General Vandenberg, and Admiral Sherman by General Collins, sub.
Message to Commander-in-Chief, the Far East Command, and Commanding General, Strategic Air Command, Commander-in-Chief, the Pacific, Selected Records Relating to the Korean War, DoD, Truman Papers, truman Library.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HQs of R.O.K., Units Short History ROKA(Seoul, Headquarters ROKA, 1955).
U.S. Air Force/Air Staff, 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Deputy Chief of Staff, Operations Director of Intelligence, Deputy Director for Estimate Topical Intelligence Division, Current Intelligence Branch korean Daily Reports, Apr. 1951-July 1953.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Xiaoming Zhang, Red Wings over The Yalu(Texas : Texas A&M University, 2002).
Acheson, Dean, Present At the Creation : My Years in the State Department(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Inc., 1969).
Air Force Historical Research Agency, www.afhra.af.mil, USAF Organizations in Korea 1950-1953.
Appleman, Roy E., Disaster in Korea, The Chinese Confront Macarthur(Texas : A&M University Press, 1989).
Appleman, Roy E., Escaping the Trap, The US Army X Corps in Northeast Korea, 1950(Texas : A&M University Press, 1988).
Barros, James, Trygve Lie and the Cold War(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9).
Cagle, Malcolm W. and Manson, Frank A., The Sea War in Korea(Annapolis : U.S. Naval Institute, 1957).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Clark, Mark W., From the Danube to the Yalu(New York: haper & Brothers, 1954).
Clausewitz, Carl Von, On War(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edited and translated by Howard, Michael and Paret, Peter.
Cowart, Glenn C., Miracle in Korea(Columbia, 1992).
Goodrich, Leland M., Korea: A Study of U. 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56).
Crane, Conrad C., American Airpower Strategy in Korea, 1950-1953(Lawrence, Kansas :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0).
Field, James A.,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 Korea (Washington, 1962).
Finley, James P.,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871-1982: In the Vanguard of ROK-US Realtions(San Francisco: Command Historian's Office, Secretary Joint Staff, Hqs, USFK/EUSA, 1983).
Futrell, Robert R.,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Hermes, Walter G.,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Washinf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Hammel, Eric M., Chosin : Heroic Ordeal of Korean War(CA Novato : Presidio Press, 1990).
Kennan, George F., Memoirs, Ⅱ, 1950-63(Boston, T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1972).
K. Spate O. H.,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 Cities", D., Jackson W. A., ed., Politics and Geographic Relationships : Readings on the Nature of Political and Geography(Prentice Hall : Englewood Cliffs, 1964).
Hermes, Walter G.,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Washington, D. C., : Office of the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8).
Kesaris, Paul, ed., Records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PartⅡ : 1946-1953 The Far East, Washington, A Microfilm Project of University Pub. of America, Inc., 1979, No.9.
Kissinger, Henry, Diplomacy(New York : Simon & Schuster, 1994).
Leary, William M., Anything, Anywhere, Anytime Combat Cargo in the Korean War, 2000.
MacArthur, Douglas, Reminiscence(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196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Mossman, Billy C., United States Army in Korea War :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Myers, Kenneth W., U.S. Military Advisor Group to the ROK : KMAG's Wartime Experiences, 11 July 1951 to 27 July 1953, (Undated), RG 338, Military Historians Files, Boxes 12-13.

No Kum-Sok & J. Roger Osterholm, A MiG-15 to Freedom(North Carolina : McFarland & Company Inc., 1996).

Rees, David, Korea : The Limited War(London : Macmilan, 1964).

Panikkar, K. M., In two Chinas : Memoirs of Diplomat(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1955).

Paterson, Thomas G., Clifford Gary, and Hagan Kenneth J., American Foreign Policy : A History 1990 to Present(Lexington, Massachusetts Toronto : D. C. Heath and Company, 1988).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Univ. Press of the Pacific Honolulu, 1988).

Schnabel, James F., and Watson Robert J.,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Washington, D. C. : Office of Joint History,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98).

Schnabel, James F., and Watson Robert J.,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One(Washington, D.C.; Office of Joint History,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98).

Schnabel, James F.,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8).

Shrader, Chares R., Communist Logistics in the Korean War(London Westport : Greenwood Press, 1995).

Stratemeyer, George E., The Three Wars of Lt. Gen. George E. Stratemeyer His Korean War Diary(Washington :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1999), Edited by Blood, William T. Y.

Stueck, William, The Korean War : An International History(New Jerse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The Air University of USAF,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1 November 1950 - 30 June 1952, 1955.
Truman, Harry S., Memoirs : Years of Trial and Hope(Garden City, New York : Double day & Co., Inc., 1956).

중문 자료

中國社會科學出版社,『當代中國空軍』(북경 :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當代中國人物傳記叢書編輯部,『彭德懷傳』(北京 : 當代中國出版社, 1993年).
杜平,『在志願軍總部』(北京 : 解放軍出版社, 1989年).
師哲,『在歷史巨人身邊 : 師哲回憶錄』(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95年).
沈志華編,『朝鮮戰爭 :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上冊) (中冊)(臺北 : 中央研究所近代史研究所, 2003年).
王焰主編,『彭德懷年譜』(北京 : 人民出版社, 1998年).
外國文出版社編,『金日成著作集』(平壤 : 編者出版, 1981年) 第6卷.
中共中央文獻研究室,『建國以來毛澤東文稿』第1冊(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87年).
中共中央文獻研究室彭德懷傳記編寫組編,『彭德懷軍事文選』(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88年).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毛澤東文集』第6卷(北京 : 人民出版社, 1999年).
中國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抗美援朝戰爭史』第2卷(北京 : 軍事科學出版社, 2000).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宣傳部編,『偉大的抗美援朝運動』(北京 : 人民出版社, 1954年).
陳章華, 榮肇隆主編,『中國軍事史辭典』(武漢 : 湖北人民出版社, 1993年).
彭德懷自述編輯組,『彭德懷自述』(北京 : 人民出版社, 1981年).
洪學智,『抗美援朝戰爭回憶』(北京 : 解放軍文藝出版社, 1991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일문 자료

宋榮福松,『朝鮮人民軍の南侵と敗退』(東京 : コリア評論社, 1979年).
陸戰史研究普及會,『中共軍の攻勢』(東京 : 原書房, 1971年).
佐佐木春隆,『朝鮮戰爭』(中)(東京 : 原書房, 1979年).
A. V. トルクノフ著, 下斗米伸夫, 金成浩譯,『朝鮮戰爭の謎と眞實』(東京 : 草思社, 2001年).

찾아보기

ㄱ

가전리 476
가칠봉 335
가평 335
간성 333
간쓰치 342, 347
감압복(G-Suit) 616
강동 342
강두형 439
강장현 405
강주필 354
강후이도(江厚耳島) 511
개니(Wiley D. Ganey) 640
개성 228, 333, 355, 382
거제도 281, 286, 308
건봉산 336
격추영웅(Ace) 603
경제협조처 88
계류기뢰 504
고대산 334
고백규 364
고성 336, 479
고양대 16, 387
고왕산 366
고원(高原) 공습작전 507, 524, 585, 586
고작동 387
고저 342
고저(庫底) 상륙양동작전 502, 505, 508, 526, 536, 585, 586
고황봉 336
곡산 365
공국진 364
공수작전 602, 648, 669
관대리 476
교암산 235, 334
구징성 349
구축함 퍼킨스(Perkins)함 535
구화리 341
국제과학조사단 314, 316
국제적십자사 285
군량천 335
군사분계선 119, 126, 201
군장산 228
궁주링(公主岭)비행장 600
권오명 404
그로미코 186
그리스 4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그린리치 506
극동공군사령부 605
근접항공지원(Close Air Support) 작전 602, 603, 648, 666, 676, 687
극동군사령관 마크 클라크(Mark Clark) 523
극동함대사령관 브리스코(R. P. Briscoe) 526
극동해군사령관 513
금강산 336
금성 334, 397
금성지구 18
금성천 334, 396, 447
금학동 448, 458
금학산 334
기뢰대항전(소해작전) 505
기뢰전 501, 585, 587
기차사냥 547
길주양도 569, 570
김광철 252
김광협 342, 353
김기동 364
김대홍 354
김덕준 362
김동회 252
김두찬 245
김봉문 353
김봉철 361, 420, 428
김삼회 405
김석범 378
김선규 362
김성수 461
김승길 251
김안일 364
김영길 462
김영선 405
김용배 256
김용선 539
김용수(金龍水) 548
김용순 361, 443
김웅 353
김원용 255
김익렬 363, 476
김일성 291, 306, 353
김장산 377
김정식 402
김종갑 364
김종식(金鍾植) 550
김종오 360, 400, 410, 430
김진위 360
김창봉 353
김태규 362
김태련 354
김포 333, 369
김필상 361
김학묵 96
김화 332, 396, 398, 435

ㄴ

나이펭지(聶風智) 625
남강 336, 476, 479
남대천 435
남일 120, 124, 186, 299, 353
남해봉쇄전대 543
남해안 경비작전 542
네덜란드 4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네룽전(聶榮臻) 630
네르보 171
노량작전 543
노르웨이 131
노영목 256
누트카함 529, 530, 531
네덜란드 359
노리고지 387, 388
노전평 476
닉키고지 358, 387, 388, 391

ㄷ

다우닝(A. L. Downing) 중령 506
단수첸(段蘇權) 623
대노리고지 393, 394
대덕산 222
대성산 334
대암산 335
대우산 335
대청도 130
덕동전투 510
덕물산 228, 377
덕은동 382
덩스쥔 348, 349
덩웨 348, 349
덩화 342, 346, 347
데이비드 635
도라산리 377
데이비스(George A. Davis) 634, 650
도일(John P. Doyle) 장군 641
독립 제42중대 560, 562
독서당하리 404
독수리고지 397, 467
돌바위고지 436, 445
돗드 20, 282, 296, 301
동두천 333
동키부대 540, 554
동해부대 574
동해안 경비작전 538
두매리 202, 219, 355
두위화 348, 350
두핑 346
둘라네이 359

ㄹ

라주바예프 66
랴오량(遼陽) 비행장 630
랴오정궈 349
랴오중푸 350
러스 443
러프너 363, 384
레드 카우(Red Cow) 작전 604, 668
레이븐 300
레이어 370
렘니처 360
로벳 147
로신 66
로이드 209
롼핑 348, 350
루스토(Paul E. Ruestou) 642
룽다오췐 350
류수 348, 350
류아러우(劉亞樓) 621, 624
류전 346, 34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류쥐잉 347
리버츄 349
리쉐싼 349
리우젠(劉錢) 621
리웬 349
리젼 350
리지웨이 15, 21, 57, 120, 202, 285, 296, 304, 311
리즈민 348
리차드(Bon Homme Richard)함 518
리창핑 410
리청루이 350
리커농 127

ㅁ

마량산 341, 388, 392
마울린(Walker M. Mahulin) 643, 658
마오쩌둥(毛澤東) 4, 18, 292, 306, 340
마웨이화 350
만주성역(Manchurian Sanctuary) 609
말렌코프 33
말리크 291
맥아더 6, 286
맥카티(Chester E. McCarty) 640, 669
맥클루어 146
메논 183
명천양도 511, 568, 569, 572
목덕도 509
목항작전 543
묘한작전 538
무장정찰 및 항공차단(Air Interdiction) 작전 655
문학등 256
문등리 397
문산 333, 355
문일수 404
미그회랑 602
미그회랑지역 600

ㅂ

바쿠스(Glenn O. Barcus) 640
박기순 251
박병주 404
박명경 251
박상현 290, 299
박상훈 86
박성철 354
박순천 86
박원근 364
박익균 251
박일우 342
박임항 359, 387
박정덕 348, 354
박창모 252
박찬긍 451, 452
박춘식 251, 362, 450
박헌영 283, 310
반룡산 222
반공청년동맹 17
방초호 402, 405
방호산 354
백구작전 548
백남권 239, 362, 467
백령도 130, 244, 24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백마고지 16, 19, 48, 215, 332, 358, 366, 396, 398, 423, 430
백마산 407, 418
백석산 335
백선엽 18, 251, 362, 447
백암산 334
백야전전투사령부 250
백운산 250
백인엽 362
백학산 369
밴플리트 21, 58, 202, 295, 355, 433
법원리 333
벙커고지 366, 374
베티고지 332, 366, 387, 391
벨기에 47
변영태 139
보트너 304, 307
봉래호 403
봉암도 186, 309
부산 정치파동 37
북한 독립 제63보병연대 511
북한 제25여단 563
북한강 447
불모고지 16, 47, 215, 332, 366, 382, 598
브래들리 33
브리스코 50, 358
비진스키 121, 182

ㅅ

사미천 369
사천강 202, 227, 366, 375
사태리 335
삭녕 365
삼각고지 16, 332, 358, 433, 442
삼각산 335
상감령 433
상륙기습작전 501
상륙방어작전 501
새츄레이트 작전(Operation Saturate) 603, 636, 640, 691
샤오용인 348, 350
샤오원쥬 348
샤오잉탕 348, 350
서방산 334, 341
서민호 85
서울 333
서해안 경비작전 540
석도 244, 577, 578, 582
선양비행장 612
성천 342
세계보건기구 312
세균전 169, 283, 310
셀든 359, 367
셰팡 346, 347
소노리고지 392, 394
소양강 476
소청도 130
소해작전 501, 528, 536, 556
소해함 머갠서(Merganser)함 533
소해함 오스프리(Osprey)함 535
소해함 채터러 531
손계천 261
손월용 402
손원일 130
손창규 364
송대후 36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송덕만 354
송도리 447
송동리 447
송림제철소 폭격작전 604, 676, 684
송요찬 251, 256, 362, 454
송용길 425
송탄비행장(K-55) 645
송호림 362
쇼다운작전 438, 442
수도고지 16, 19, 49, 215, 332, 358, 397, 446, 454, 458, 462, 465
수입천 335, 473
수정덕산 399
수풍댐 폭파작전 505, 513, 517, 585
수항 350
숭쉐페이 348, 350
쉬원례 350
스마트(Jacob E. Smart) 641
스미스 360
스웨덴 13
스위스 131
스위프트 363
스탈린 4, 18, 33, 66, 174, 340
스트랭글작전(Operation Strangle) 636, 640, 691
스티븐슨 32
스파이크맨 32
스포트라이트(Spotlight) 작전 603, 665
승호리철교 604, 682
시흥지구 전투사령부 5
신대균 438
신덕광산 507, 521
신덕광산과 길주 공습작전 585
신성국 464
신언국 364, 476
신익희 39, 93
신흥우 39
심스 359

ㅇ

아오지(阿吾地) 정유공장 507, 522, 585
아이젠하워 22, 32, 63, 186
애치슨 121, 149, 180, 292
야간 소해작전 535
약산동 407
양구 333
양더즈 342, 347
양도 584
양도(洋島) 전투 511, 567
양도부대 574
양유찬 60
양중호 362
어운리 397
어은산 335, 473
에들맨 161
에리고지 332, 384
에버레스트(Frank F. Everest) 640
에티오피아 360
여니산 377
여도 568
역곡천 365, 387, 388
연안 341
연안소해 536
연천 333, 387
연평도 130, 244, 247
연합공군사령부 6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영국 359
예성강 341, 355, 369
오다니엘 44, 359
오백룡 354
오성산 334, 433, 446
오스트리아 355
오스틴 171
오창근 364
와이오밍선(LINE WYOMING) 11
왕다오방 350
왕량타이 348, 349
왕윈루이 348
왕젠안 347, 348
왕진산 347, 348
요격작전 602
용초도 309
용학산 458
용호동 447
우교붕 251
우도 130
우따이 349
우루이린 350
우신촨 349
우신췐 348
운장산 259
운천 333
워커 8
원산 334, 342
원위청 348, 349
원통 335, 476
월비산 336, 480, 482
웨이랜드 50, 358
위안쯔친 349
윌리암스 363
윌슨 32
유경수 354
유근창 361, 438
유엔한국재건단 88
유의준 364
유재성 364, 476
유재흥 130, 362, 468
육근수 362
윤영모 405
윤치영 39, 93
율사리 397
은석표 361
의정부 333, 466
이명 354
이용 362
이관식 240
이권무 353
이기만 252
이덕원 354
이동화 251, 362
이방남 354
이범석 39
이붕직 251
이성가 363
이승만 39
이시영 39
이용 251
이용문 362, 454
이이법 354
이익성 354
이일(李逸) 514
이정호 252
이존일 252
이종록 25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종찬 84
이주일 361, 410
이채윤 354
이철용 353
이학구 290, 307
이형근 44, 364
이효성 402
인제 335, 476
인천상륙작전 8, 9
임병근 252
임부택 364
임익순 361
임진강 14, 228, 333, 365, 379, 387, 388
임충식 363
임한식 354
임해 353

ㅈ

자오제 347
자유사냥 600
장난성 348
장단 382
장면 85
장송고지 427
장안산 250, 267
장원저우 342
장윈위 348, 349
장융후이 348, 349
장이샹 349
장제청 348, 349
장주량 348, 349
장지후이(張積慧) 635
장진호 9
장창국 364, 480
저격능선 16, 19, 215, 332, 358, 433, 445
저우언라이 66, 69, 127, 186, 310, 340
저우뺘오 350
저우춘췐 347
적근산 334
적벽산 336
적성 333
전곡 333
전부일 252, 476
전우 354
전자방어책(ECM) 603, 662
전종욱 455
전진한 40
정강 252
정범 354
정병갑 354
정순기 252
정영홍 360
정운 362
정유공장 폭파작전 505
정일권 360, 441
정진 453
정철우 354
제1전투비행사단 601, 604, 605, 606, 608, 674
제2전투비행사단 600, 606, 608, 626
제2정찰전대 604, 674
제2항공전대 525
제3소해전대사령관 윌리암스 534
제3전투비행사단 622
제4전투비행사단 62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6전투비행사단 622
제7함대사령관 513, 526
제8폭격비행사단 622
제10전투비행전대 604, 605, 675, 677
제10폭격비행사단 622
제11혼성비행사단 601, 606, 608
제12전투비행사단 622, 626
제14비행사단 626
제15교육비행전대 604, 675
제15전투비행사단 622, 626
제17전투비행사단 622, 626
제18전투비행사단 622, 626
제19항공전대 525
제23독립포병기관총여단 505
제24독립포병기관총여단 504
제25독립포병기관총여단 504
제32전투비행사단 611, 615
제64전투비행군단 502, 601, 611, 613, 614, 620
제77기동부대사령관 리간(H. E. Regan) 507, 513, 518
제95기동부대사령관 506, 513
제97전투비행사단 611, 615, 635
제101항공전대 525
제118연대전투단 508
제133전투비행사단 611, 615, 617, 619
제190전투비행사단 611, 614, 615
제216전투비행사단 611, 615
제315공수비행사단 604, 605, 669, 670
제351전투비행연대 611, 612, 620
제417시설단 645
제578항공연대 502
제930시설전대 645
제931시설전대 645
제934시설전대 645
제공(Counter Air : 요격)작전 603, 649
제네바협약 134, 146
제네바협정 142
제인러셀고지 436, 442
젠킨스 360, 433
조관 354
조봉암 39, 93
조이 119
조중연합공군사령부 621
조중연합사령부 342, 345
조칠성 404
좌수동 397
종결작전(Operation Showdown) 500
주연 354
중마산 404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 88
중국인민지원군 공군(中國人民志願軍 空軍) 621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사령관 류야러우(劉亞樓) 622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사령부 621
중립국감시위원회 131
지리산 252, 260
지병학 354
지형능선 19, 49, 332, 358, 397, 446, 454, 458, 465
진해(K-10)기지 642
쩡루칭 349
쩡사오산 348, 350
쩡쓰위 348
쩡웨이산 347, 348
쩡저셩 35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ㅊ

차동준 259
차만석 252
차문석 251
창도리 458
창린도 540
채명신 364
천경 346
천덕산 377
천정평 347
천팡런 348, 350
철원 334, 396, 398
철원 44
차동준 259
차만석 252
차문석 251
초도 582
최영희 252
촨충삐 348, 350
최광 353
최현 353
최봉준 354
최석용 364
최아립 354
최영희 252
최용건 353
최용진 354
최재홍 362, 364
최주종 360
최창룡 414
최홍갑 353
춘천 335
춘천비행장(K-47) 666
충무작전 509, 540, 588
충성교 414
충현산 341
츄웨이 348, 350
친지웨이 348, 349
칠드레(Cecil H. Childre) 640, 669

ㅋ

카렐린(Anatoliy M. Karelin) 619
카운터작전(Operation Counter) 365, 384, 598
카젤스 359
캐나다 359
캐나다 해군 구축함 누투카 528
케난 17
콜롬비아 360
콜린즈 356
쾅위민 347
쾅푸자오 350
쿠즈네초프 502
크리스마스고지 355, 472
클라크(J. J. Clark) 331, 355, 387, 515, 526
클리랜드 360

ㅌ

타오용 348
탄산허 347
탄젠 348
탕쯔안 35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태국 44, 359, 366, 382
터키 45, 362
테시고지 358, 387, 388, 391
탁수작전 540
태평양함대사령관 레드포드(Arthur W. Radford) 526
트루먼 6, 148, 299

ㅍ

파이크봉 436, 442
판문점 14, 149, 281, 295, 355, 367, 369, 472
팔머 363
펑더칭 349
펑더화이 66, 345, 347
페이스 317
페첼러(William Fechteler) 대장 517
펑청(鳳城) 601
펑청(鳳城)비행장 617
평강 334
평양 356
평양공습작전 505, 506, 517, 585, 586, 604, 676, 685
포스터 57, 166
포천 334, 466
포크찹고지 332, 384
폭격기사단 606, 608
폭격사령부 605
폭격피해평가(Bomb Damage Assessment) 664
폴락 359
프라이 359, 382
프랑스 44, 359, 366, 382, 396
피셔(William P. Fisher) 640
피어슨 123, 186
피의고지 397, 467
피트(Ray M. Pitt) 524
필리핀 49, 363

ㅎ

하감령 433
하영섭 404
하진명동 404, 423, 428
한국민간구제단 88
한국재건단 88
한병갑 252
한산작전 509, 543, 588
한셴추 346, 347, 348
한탄강 334
함용익 251, 460
함태영 40
항공모함 박서(Boxer) 515
항공모함 프린스톤(Princeton)함 518
항공압박작전(Operation Pressure Pump) 603, 641, 685, 689, 691
항공압박전략 16
항공차단작전 603, 648
해군 제578비행연대 611
해두보 501
해리슨 73, 120, 168, 180
해상봉쇄작전 560
해안방어작전 501
해양거부작전 501
해양봉쇄작전 5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해연작전 509, 548
해주만 전투 510
향로봉 336
허델슨 360
허친넨 347
헤네브리(Henebry) 준장 640, 669
현리 335
혜산진 9
호도 202, 244, 246, 577
호도전투 576, 581, 584
혼비고지 378
홍쉐즈 346, 347
홍천 335
화랑고지 407, 408, 413, 427, 431
화살머리고지 366, 396, 404, 431
화이트 363
화전리 416
화천 333
화천저수지 335
황원밍 350
황웨이화 347
황차오톈 349
황토도 565, 566, 584
황토도(黃土島) 전투 560, 590
황후시안 347
회문산 250, 260
효성동 404, 414
효성산 334, 341
후방차단작전 676, 677
휴전회담 12, 119, 126, 156, 295, 339, 367, 397, 472

1

1090고지 473, 475
100회 출격조종사 604

2

28작전 538

3

351고지 336, 480, 482, 483, 484

4

42작전 538, 539

A

AD 스카이레이더기 519

F

F4U 코사르기 51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I

IL-28 607

J

JMS-301정 509, 510
JMS-301정 덕동전투 550
JMS-301정 해주만 전투 509, 552

L

LT-6G 666

M

MiG-15bis 601, 63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

PC-702함 510, 553, 554
PC-702함 창린도 탈환작전 509, 553
PT-23정 546
PT편대 기습작전 509, 544

집 필 자

김 상 원 전쟁사부장
박 동 찬 선임연구원
이 근 석 연구원
양 영 조 책임연구원
최 권 삼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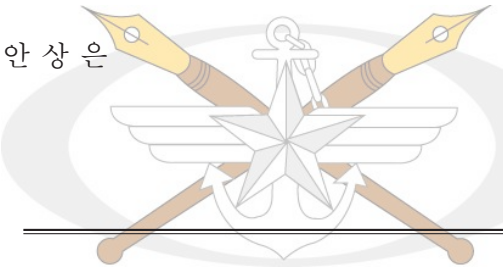
자문위원

백 선 엽 자문위원장
김 동 호 자문위원
정 용 근 자문위원

감 수

한 용 원(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허 남 성(국방대학교 교수)
오 규 열(한국디지털대학 교수)
온 창 일(육군사관학교 교수)
정 토 웅(육군사관학교 교수)

상황도 CG : 안 상 은



6 · 25전쟁사 10

휴전회담 고착과 고지쟁탈전 격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년 12월 25일 인쇄
2012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인 쇄 : 국군인쇄창(12119901)

간첩/테러범 · 방산스파이 · 군사기밀 유출자 신고 및
안보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337
(홈페이지 www.dsc.mil.kr)

이 책자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집필
및 편집한 내용을 인쇄한 것입니다.



그린란드
GREEN LAND
ARCTIC OCEAN
동시베리아해
East Siberian Sea
보퍼트해
Beaufort Sea
바렌츠해
Barents Sea
카라해
Kara Sea
랍테프해
Laptev Sea
서시베리아평원
West Siberia Plateau
러시아연방
RUSSIAN FEDERATION
아시아
ASIA
티베트고원
아프리카
AFRICA
ATLANTIC OCEAN
INDIAN OCEAN
PACIFIC OCEAN
오세아니아
OCEANIA
태즈먼해
Tasman Sea
앵글로아메리카
ANGLO AMERICA
라틴아메리카
LATIN AMERICA
스코샤해
Scotia Sea
드레이크해협
웨들해
Weddell Sea
남극
정치구분도
북극
범례



국방부 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1가 8번지)